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3

이사야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 A 시스템

---

# 성경연구시리즈 8

이 사 야

강병도 지음

기 독 지 혜 사  
1986

**Question and Answer System**  
**Bible Explanation Series** **8**

**Isaiah**

by Rev. Byung Do Kang

Published by  
**The Christian Wisdom Publishing Company**  
Seoul, Korea  
1986

## 머 리 말

선교 백 년의 고비를 막 넘긴 한국 교회는 세계 선교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나 외면적인 성장의 그늘에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참된 기독교 정신의 부재(不在) 현상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교회의 선교 2세기는 기독교의 양적 성장을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이러한 교회의 질적 성장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극복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질적 성장의 첩경이 성경에 대한 바른 접근에 있다고 본다. 사실 한국 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한국인의 심성 기저(心性基底)에 있는 기복 종교의 수준으로까지 끌어내리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가 성경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쉽게 불식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본 성경 연구 시리즈가 기획되고 출간되었다.

이미 과거 기독지혜사를 통하여 본인은 이와 같은 체제를 지닌 성경 문답식 강해를 간행한 바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중에서 출간했던 부족한 책이었지만 그간 많은 동역자들과 성도들이 애독하였으며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독자들의 애정 어린 관심은 그간 성도들이 성경 자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침서가 없다는 사실에 연유한다는 것을 느낀 본인은 과거에 나온 성경 문답식 강해를 대폭 수정 보완하여 성경 연구서의 결정판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기존 문답식 강해가 지니는 단순함과 내용상의 미흡함을 보완하기 위하여서 전면적인 새로운 개편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되는 성경 연구 시리즈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5년의 각고 끝에 빛을 보게 되었다.

한편 본인은 성경 연구 시리즈를 편집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을 세웠다.

1. 성경을 가장 바르게 해석하며 성경을 성경답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대로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2. 성경을 학문적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에 머무르지 않고 그 학문적인 체계를 적절히 소화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성경의 진리가 와 닿도록 꾸민다.
3. 외국에서 출판된 우수한 주석과 성경 사전류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한다. 그러나 그 책들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지 않고 한국 평신도들의 감각에 맞추어 재작성함으로써 지금까지 출간된 대부분의

번역서들이 갖는 어색함에서 탈피한다.

4. 지금까지 출간된 성경 해설서들의 대부분이 목회자를 위한 것인데 반하여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어려운 내용을 평이하게 설명하며 전문적인 신학 용어는 될 수 있는대로 쉽게 해설한다.
5. 구약 랍비들의 문답식 율법 교육과 교회사적으로 유명한 신앙 고백들이 문답식으로 되어 있는 것과 유사하게 성경의 모든내용과 해설을 문답식으로 처리한다.
6. 하나의 주제를 뚜렷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문답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단일 주제를 한 문항으로 처리한다.
7. 강해로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일차적으로 성경에 대한 사실적인 설명을 철저히 하며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의미와 사실이 현대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될 수 있는가를 밝힌다.
8.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쉽게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이 구역 예배와 가정 예배 인도시에 활용하며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게 편집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에서 본서를 편집하던 중 본인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고를 정리하고 미비한 점을 보충하는 실제적인 작업에 있어서는 우수한 엘리트들로 구성된 기독교지혜사 편집부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작업이 결실을 맺는데 더욱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선교 2세기를 향하여 거보(巨步)를 내딛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진리를 사모하는 열성과 성경 연구에 대한 열의이다.

진리를 향한 그들의 열의에 보답하기 위해 간행된 본서가 그들의 열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데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본서를 내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도이다.

1986년 7월 15일

강 병 도

## 일러두기

- 성경 본문. 본서는 개역 성경(1962. 5. 10. 초판) 전체를 각 장마다 가로쓰기로 수록하여 성경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漢字語)들은 각 문항에서 한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여 그 뜻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힘썼다.
- 장 제목. 각 장 첫머리에 그 장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을 붙여서 성경의 대의(大意)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단락 구분. 각 장의 제목 아래 부분에 그 장의 단락을 소제목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그 단락을 읽음으로 각 장의 흐름을 쉽게 알 수 있다.
- 각 장의 개요. 각 장의 내용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읽게 될 문답 강해 제1문항은 그 장의 특징과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을 실었다. 1번 문항을 읽음으로 그 장의 성격을 이해하며 그 장에서 중요하게 취급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했다. 장 제목과 대지 구분 및 개요를 읽음으로써 기본적인 각 장 이해는 마쳤다고 볼 수 있다.
- 문답 강해. 본서는 성경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문답 형식의 강해 방법을 택했다. ㉠항에서 성경 이해에 핵심이 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항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소상하고도 논리적으로 풀이하였다.
- 문답 강해의 구성. 문답 강해는 성경의 흐름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나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문제는 세부적인 문제보다 우선하도록 했다. 따라서 문답 강해를 읽어 나가면 각 장의 단락 및 세밀한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다.
- 문답 강해의 체제. 각 문항의 기본적인 골격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한 설명부와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해설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현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밝힌 적용부로 이어진다. 그러나 진부한 해설과 적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적인 설명만을 부가하였다.
- 서론. 성경 66권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각 권에 대한 서론을 문답 강해 본문에 앞서서 수록했다. 각 권의 제목과 저자 및 각 권의 핵심적인 내용과 대지 구분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성경 전체 서론과 일반적인 성경 구분법에 따라 모세 오경 서론을 비롯한 역사서 서론, 시가서 서론, 예언서 서론 및 4복음서 서론과 바울 서신 서론, 공동 서신 서론을 실었다.
- 다양한 편집.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보 자료와 지도 자료를 비롯하여 연구 자료와 기타 자료를 실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본문 이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도 지닌다.
- 세밀한 해설. 외래어는 표준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기록했으며 인명·지명 등 고유 명사의 경우 개역 성경의 음역과 일반 세계사의 음역을 병용하여 양자의 연결을 시도하였고,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 )안에 영문 표기를 하였다. 더우기 성경 원문의 음역이 필요한 경우 < >를 사용하여 그 음역을 수록하였다.
- 평이한 내용. 다른 참고 도서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본서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대를 비롯하여 가능한 자료들을 제시하였으며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였다.

## 차례

머리말 / iii	
일러두기 / v	
이사야 문답강해 .....	7

# 이 사 야

## Isaiah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5)

וְהוּא מְחַלֵּל מִפְּשָׁעֵנוּ מִדָּפָא מֵעֲוֹנוֹתֵינוּ  
מוֹסֵר שְׁלוֹמֵנוּ עָלָיו וּבְחִבְרָתוֹ נִרְפָּא לָנוּ :

## 이사야 차례

---

예언서 서론 .....	〈16제〉	… 15
이사야 서론 .....	〈14제〉	… 21
제 1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선을 들추어 내시다 .....	〈24제〉	… 30
제 2 장 예루살렘의 영광과 주의 날이 예언되다 .....	〈22제〉	… 38
제 3 장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다 .....	〈23제〉	… 44
제 4 장 남은 자가 영광을 얻다 .....	〈14제〉	… 52
제 5 장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	〈28제〉	… 57
제 6 장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 .....	〈20제〉	… 66
제 7 장 하나님의 징조로서의 임마누엘 .....	〈26제〉	… 73
제 8 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평안 .....	〈22제〉	… 82
제 9 장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	〈21제〉	… 89
제 10 장 남은 자가 앗수르의 손에서 구원되다 .....	〈29제〉	… 96
제 11 장 임마누엘과 그의 왕국이 도래(到來)하다 .....	〈18제〉	… 106
제 12 장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 .....	〈 7 제〉	… 113
제 13 장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다 .....	〈22제〉	… 115
제 14 장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	〈34제〉	… 122
제 15 장 모압의 멸망에 관한 경고 .....	〈18제〉	… 133

제 16 장	모압의 멸망을 경고하다.....	〈22제〉 ... 139
제 17 장	수리아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다.....	〈23제〉 ... 145
제 18 장	구스에 관하여 예언하다.....	〈12제〉 ... 153
제 19 장	하나님의 경고가 애굽에게 주어지다.....	〈33제〉 ... 158
제 20 장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나타내는 예표(豫表)가 되다.....	〈12제〉 ... 170
제 21 장	바벨론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게 경고하다.....	〈28제〉 ... 174
제 22 장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다.....	〈26제〉 ... 183
제 23 장	두로에 관하여 예언하다.....	〈21제〉 ... 193
제 24 장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21제〉 ... 200
제 25 장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이스라엘이 찬양하다.....	〈13제〉 ... 207
제 26 장	구원받은 유다가 찬양하다.....	〈21제〉 ... 212
제 27 장	유다의 대적에 대한 심판과 왕국의 승리.....	〈15제〉 ... 219
제 28 장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타락을 경고하다.....	〈21제〉 ... 225
제 29 장	하나님께서서 예루살렘을 경책(警責)하시다.....	〈20제〉 ... 232
제 30 장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를 책망하다.....	〈36제〉 ... 239
제 31 장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의 무지(無知)와 하나님의 용서.....	〈16제〉 ... 250
제 32 장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22제〉 ... 256
제 33 장	앗수르(Assyria)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23제〉 ... 263

제 34 장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16제〉 ... 270
제 35 장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	〈10제〉 ... 276
제 36 장	산헤립이 유다 정복을 계획하다.....	〈22제〉 ... 279
제 37 장	앗수르 군대가 파멸되다.....	〈30제〉 ... 286
제 38 장	히스기야 왕의 증병(重病)과 회복.....	〈24제〉 ... 296
제 39 장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다.....	〈11제〉 ... 304
제 40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다.....	〈29제〉 ... 308
제 41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29제〉 ... 317
제 42 장	여호와와 종 메시아.....	〈27제〉 ... 327
제 43 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	〈29제〉 ... 335
제 44 장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32제〉 ... 344
제 45 장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다.....	〈28제〉 ... 354
제 46 장	우상은 무력하다.....	〈11제〉 ... 365
제 47 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	〈14제〉 ... 370
제 48 장	하나님께서 나약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다.....	〈20제〉 ... 377
제 49 장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및 구원.....	〈20제〉 ... 386
제 50 장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10제〉 ... 396
제 51 장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을 격려하시다.....	〈19제〉 ... 402
제 52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다.....	〈10제〉 ... 410

제 53 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12제〉	415
제 54 장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	〈12제〉	422
제 55 장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다.....	〈10제〉	427
제 56 장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10제〉	431
제 57 장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	〈19제〉	435
제 58 장	여호와께서 열납(悅納)하시는 예배.....	〈10제〉	442
제 59 장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구원.....	〈16제〉	446
제 60 장	회복된 시온의 영광.....	〈16제〉	453
제 61 장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	〈21제〉	459
제 62 장	이스라엘의 영광과 새 이름.....	〈19제〉	467
제 63 장	하나님의 진노와 과거를 회상하는 선지자의 간구.....	〈19제〉	473
제 64 장	환난 중의 간구.....	〈21제〉	480
제 65 장	여호와와의 응답.....	〈25제〉	487
제 66 장	마지막 경고와 약속.....	〈21제〉	497

## 이사야 특별 자료 차례

---

이사야 서론 〈연구 자료〉	이사야의 특징적인 주제들.....	29
제 1 장 〈연구 자료〉	시온(Zion).....	37

제 2 장	〈본장의 요절〉	.....	43
제 3 장	〈본장의 요절〉	.....	50
제 3 장	〈지도 자료〉	선지자들의 행적 .....	51
제 4 장	〈본장의 요절〉	.....	56
제 5 장	〈화보 자료〉	폐허가 된 성(城)에서 풀을 뜯는 송아지 .....	65
제 6 장	〈화보 자료〉	스랍(Seraphim)과 선지자 이사야 .....	72
제 7 장	〈연구 자료〉	기혼 샘(the Spring of Gihon) .....	81
제 8 장	〈연구 자료〉	임마누엘 원리(Immanuel Principle) .....	88
제 9 장	〈화보 자료〉	다윗의 위(位)에 앉으신 그리스도 .....	95
제 10 장	〈본장의 요절〉	.....	105
제 11 장	〈연구 자료〉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	112
제 13 장	〈본장의 요절〉	.....	121
제 14 장	〈지도 자료〉	바벨론 제국의 북쪽 경계 .....	132
제 17 장	〈본장의 요절〉	.....	152
제 18 장	〈연구 자료〉	구스(Cush) .....	157
제 19 장	〈연구 자료〉	애굽의 여러 신(神) .....	168
제 20 장	〈본장의 요절〉	.....	173
제 21 장	〈본장의 요절〉	.....	182
제 22 장	〈본장의 요절〉	.....	191
제 22 장	〈연구 자료〉	열쇠(key)의 상징적 의미 .....	192
제 23 장	〈지도 자료〉	두로의 위치 .....	199
제 24 장	〈화보 자료〉	지각 운동 때문에 특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바위 .....	206

제 25 장	〈연구 자료〉	영적 사망에 대하여 .....	211
제 26 장	〈본장의 요절〉	.....	218
제 27 장	〈연구 자료〉	리워야단(Leviathan) .....	224
제 28 장	〈연구 자료〉	히브리어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포도주의 종류 .....	231
제 29 장	〈화보 자료〉	선지자 .....	238
제 30 장	〈화보 자료〉	조약의 내용이 적힌 석판(石板) .....	249
제 31 장	〈지도 자료〉	B. C. 7세기경 앗수르 제국의 영토 .....	255
제 32 장	〈연구 자료〉	그리스도인과 오락 .....	262
제 33 장	〈본장의 요절〉	.....	269
제 34 장	〈연구 자료〉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 Anthropomorphism) .....	274
제 36 장	〈본장의 요절〉	.....	285
제 37 장	〈연구 자료〉	니스록(Nisroch) .....	294
제 37 장	〈지도 자료〉	앗수르의 애굽 정복 .....	295
제 38 장	〈화보 자료〉	아하스의 일영표 .....	303
제 39 장	〈화보 자료〉	예물을 가지고 온 바벨론 사람들 .....	307
제 40 장	〈본장의 요절〉	.....	316
제 41 장	〈연구 자료〉	오른손과 오른편의 성경적 의미 .....	326
제 42 장	〈본장의 요절〉	.....	334
제 43 장	〈본장의 요절〉	.....	343
제 44 장	〈화보 자료〉	우상을 새기는 아프리카의 소년 .....	353

제 45 장	〈본장의 요절〉	.....	364
제 46 장	〈연구 자료〉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와 그 상징적 의미	369
제 47 장	〈연구 자료〉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국명(國名)의 의미	376
제 48 장	〈화보 자료〉	물[水]	385
제 50 장	〈연구 자료〉	이사야의 신학 사상과 신약적 평가	401
제 51 장	〈본장의 요절〉	.....	409
제 53 장	〈연구 자료〉	여호와와 종	421
제 54 장	〈본장의 요절〉	.....	426
제 55 장	〈본장의 요절〉	.....	430
제 56 장	〈본장의 요절〉	.....	434
제 57 장	〈화보 자료〉	길[道]	441
제 58 장	〈본장의 요절〉	.....	445
제 59 장	〈화보 자료〉	귀[耳]	452
제 60 장	〈본장의 요절〉	.....	458
제 61 장	〈본장의 요절〉	.....	465
제 61 장	〈지도 자료〉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466
제 62 장	〈본장의 요절〉	.....	472
제 64 장	〈화보 자료〉	약탈당하는 성전	486
제 65 장	〈본장의 요절〉	.....	495
제 65 장	〈연구 자료〉	사론 평야(the Plain of Sharon)	496
제 66 장	〈화보 자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503

## 예언서 서론

### 1. Q 오늘날의 예언서는 히브리 성경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가?

- A (1) 오늘날의 예언서는 히브리 성경 중에 예언서, 즉 <네비임> 부분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후기 예언서에 속한다. 그러나 다니엘서만은 예외적으로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 (2)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그리고 12소선지서로 되어 있는데 12소선지서는 한 권의 책으로 간주하였다.
- (3) 한편 후기 예언서는 역사 중심의 전기 예언서와 다르게 좀더 정확한 의미에서 예언 중심의 책들이다.
- (4) 후기 예언서를 이스라엘의 중요한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으로 보고 이 예언서에 관련된 선지자들을 간혹 기록하는 선지자들(writing prophets)이라고 칭한다.
- (5) 왜냐하면 이 선지자들은 자기가 전하는 말씀들을 기록해 두었으며(참조, 사 8:1;30:8; 함 2:2) 영구히 보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렘 30:2;36:1-32).
- (6) 더 자세한 내용은 역사서 서론 Q2-Q4를 참조하라.

### 2. Q 예언(Prophecy)의 주체자는 누구인가?

- A (1) 예언이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이다(참조, 암 7:14-17).
- (2) 즉 이 예언은 사람이 천부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사람에게는 독립적인 것으로서 한 개인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계시이다(참조, 사 2:1).
- (3) 그러므로 이 예언은 인간의 존재를 넘어 들어와서 그로 하여금 숨겨진 것들을 보고 들도록 강요한 신의 힘에 순종한 행위라 할 수 있다(참조, 대상 12:18; 사 11:2-5; 켈 1:3).
- (4) 그런데 이 예언은 무의식에 의해 작용하는 꿈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언은 분명한 의식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꿈보다도 훨씬 고차원적인 근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시기도 하신다(참조, 렘 23:25).
- (5) 이와 같이 예언이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현실 속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Q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선지자)에 대한 명칭을 설명하라.

- A (1)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예언자의 직책을 수행시킴에 있어서 소명을 받은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역의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칭호를 가지게 하셨다.
- (2)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있다(참조, 삼상 9:6; 왕상 12:22; 17:18; 왕하 4:7, 16, 21-27, 40). 이 칭호는 하나님과 선지자 사이의 관계성에 역점을 둔 것이다.
- (3)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가장 기본요소이며 하나님과 계속적인 교제를 가지는데 그 신분의 지속성이 있다.
- (4) 다음으로 '여호와와 종'이라는 칭호가 있다. 이 같은 칭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할 한 자라는 견지에서 선지자와 하나님 사이를 종과 주인의 관계에 연결시킨 것이다(참조, 왕상 14:18; 왕하 9:7; 10:23; 사 44:1, 2; 52:13; 53:11; 54:17; 렘 25:9; 27:6).
- (5) 세번째로 '여호와와 사자(使者)'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천사에게도 적용되는 말로서 천사처럼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를 가리킨다(참조, 사 42:19; 말 3:1).

- (6) 이 '사자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을 할 뿐 아니라 그 일을 중심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계시(메시지)를 해석하여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도록 돕기도 한다.
- (7) 네번째로 '선견자' (先見者)라는 호칭이 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는 자'라는 뜻을 지닌 <로에>인데 영적인 면에서나 육적인 면에서 앞날을 모두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참조, 삼상 9:9).
- (8) 다섯번째로 '해석자' 또는 '교사'라는 칭호가 있다. 이러한 칭호는 선지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과 경륜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전하는 일을 하는 데서 기인하였다(참조, 사 43:27).
- (9) 여섯번째로 '파수자' (把守者)라는 칭호가 있다. 이 말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인간에게 선포하기 위하여 계시의 완성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직책을 나타낸다. 또한 이 말은 진리의 수호자라는 의미도 있다(참조, 말 2:1, 2).
- (10) 일곱번째로 '영의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의미가 있다(참조, 호 9:7; 미 3:8).
- (11)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명칭 중 가장 보편적이며 대표적인 단어는 히브리어 <나비>로서 '여호와의 대언자'라는 말이다. 이 명칭이 강하게 보여 주는 선지자의 성격은 말씀 전 파자로서의 하나님의 사자(使者)이다(참조, 렘 23:16).
- (12) 이상과 같은 선지자들의 명칭을 종합하여 생각할 때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적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간에게 전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4. **☐**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예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예언을 주신 첫째 목적은 인간들의 범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에의 권유를 위해서였다. 이 책망과 회개에의 권유는 예언서 전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2) 두번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하늘의 축복과 격려를 나타내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참조, 사 1:31; 2:1-5; 습 3:17).
- (3) 세번째 목적은 하나님과 그의 창조에 대한 사실들을 계시하기 위함이다. 즉 예언자들의 모든 말씀을 종합하여 보면 그들이 다양한 내용들을 선포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창조에 대한 사실들을 선포하는 것이다.
- (4) 네번째로 당신의 백성들이 특수한 환경에 처했을 때 취해야 될 행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서 예언을 주셨다(참조, 출 16:4-33; 민 11:16-23; 왕상 12:22-24; 사 7:5-8).
- (5) 다섯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세우신 지도자나 예언자의 권위와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셨다(참조, 삼상 3:19-21; 왕상 13:3; 왕하 7:2; 사 44:28-45:1).
- (6)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주시므로써 초래할 그 메시야의 활동과 그에 따르는 은택을 예시해 주시기 위해서였다(참조, 사 52:13-53:12; 벧전 1:10, 11).

5. **☐** 예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가?

- ☐** (1) 예언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하나님과 그 나라이며 동시에 인간이신 메시야의 구속 사역을 통한 궁극적 구원이다.
- (2) 이 메시야는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으며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3) 그러나 예언서 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예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다.
- (4)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구약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6. **☐** 예언서에 나와 있는 메시야 예언의 세 가지 양상은 어떠한가?

- Ⓐ (1) 첫째로 직설적인 메시아 예언으로서 선지자들의 영적 시야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는 예언이다(참조, 사 7장).
- (2) 둘째로 간접적 또는 상징적 메시아 예언이다. 이러한 예언에서 역설하는 것은 메시아의 직책과 사역 등이며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 건설의 완성 등이다.
- (3) 셋째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는 중심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으로서 이러한 사상이 예언서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연결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상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할 수 있다.

7. ⓐ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예언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 Ⓐ (1)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예언은 백성 각자의 생활에 규범이 되었으며 사회 전체의 역동적(力動的) 변동(變動)에 이바지하였다.
- (2) 또한 이 예언은 이스라엘 문화의 다른 두 가지 주요한 측면, 즉 제사적인 전통과 지혜를 보완하는 구실을 하였다.
- (3)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더욱 깊은 종교심을 갖도록 조장했으며 또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 (4)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 엘리의 무능과 그 아들들의 부패가 극심하고 백성들조차 무기력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회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삼상 3:1)고 표현하고 있다.

8. ⓐ **예언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

- Ⓐ (1) 한 개인이 예언자가 되는 것은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결단을 내려서 되는 것이 아니며 백성이 어느 특정 인물을 선정하여 예언자로 내세우는 것도 아니다.
- (2)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 어떤 한 개인을 자유롭게 그리고 은총에 의해서 예언자로 선택하신 것이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신적 두 지주였던 제사장과 예언자를 서로 비교해 봄으로써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 (4) 제사장직을 수행할 자격은 특정 인물에 국한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직책은 세습되었다(참조, 출 28, 29장; 레 8-10장). 그리고 그들은 직무를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했으며 육체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야 했다(참조, 레 21장).
- (5) 반면에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정해진 제약이나 조건이 없었다. 예를 들면 예언자들의 대다수가 남자였으나 그중에는 터러 여성 예언자도 있었는데 이것은 예언자직이 제약과 조건이 없는 직책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출 15:20; 사 4:4; 왕하 22:14; 사 8:3).
- (6) 또한 예언자직은 세습하는 직분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소명을 받은 이 예언자들이 속했던 사회 계층은 다양했고 예언자가 되기 전에 그들이 가졌던 직업도 매우 다양했다(참조, 왕상 16:1; 19:19, 20; 대하 16:7; 렘 1:1; 겔 1:3; 암 7:14; 습 1:1).
- (7) 그리고 예언자들의 신분과 사회 계층 뿐 아니라 그 생애도 매우 다양하였다. 예를 들면 그들은 결혼을 한 사람도 있었고 독신으로 지낸 사람도 있었던 것이다(참조, 렘 16:1; 겔 24:15; 호 1-3장).
- (8)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자들의 생애 중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를 불문하고 다양한 시점(時點)을 선택해서서 예언자직에 부르셨다(참조, 출 7:7; 삼상 3:1; 렘 1:6, 7).
- (9)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결함이 없어야 했으나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건이 전혀된 적이 없었다.

18 예언서 서론

(10)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별(性別), 출신, 사회 계급, 생활 양식, 나이, 육체적 조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스스로 원하시는 인물들을 예언자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9. **㉠** 예언자가 가지고 있던 지위(위치)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 ㉠** (1) 예언자의 지위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관계의 문제로서 어떤 인간의 대리 행위를 통하여 그 직분이 강화되거나 감소될 수 없는 것이다.
- (2) 또한 이 예언자의 지위는 왕이나 제사장과 같이 임의적으로 또는 세습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었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선포할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전달하도록 명령을 하시는 소명과 선택의 과정이 없다면 아무도 예언자가 될 수 없었다(참조, 엡 4:11).
- (4) 그리고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직책은 계급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신분의 고하(高下)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다.

10. **㉠** 예언자 직분의 역사적 발전 과정을 나열하라.

- ㉠** (1) 첫째로 모세가 이 예언자 직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세는 이 예언자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범위에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출 33:11; 민 12:6; 신 34:10).
- (2) 두번째로 사사 시대(士師時代)를 들 수 있다.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영웅들로 하여금 말씀보다는 행동으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권장하였다.
- (3) 세번째로 예언자들의 학교 시대를 들 수 있다. 아마도 사무엘이 이러한 예언자 학교를 세운 최초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참조, 삼상 19:20).
- (4) 네번째로 열왕 시대(列王時代)이다. 그때의 예언자들은 왕에게라도 자신들이 성스럽게 영감받은 말씀을 직언(直言)해야만 하였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나단은 범죄한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 그의 죄를 깨우쳐 주었는데 이로써 다윗은 그의 죄를 회개하고 바른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삼하 12장).
- (5) 다섯번째로 아모스, 호세아 및 그밖의 문서 예언자(文書豫言者) 시대를 들 수 있다. 이들이 예언을 기록한 목적은 그 말씀을 영구히 정확한 형식으로 보존하고 그 예언의 훌륭한 성취를 독자에게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 (6) 여섯번째로 언어의 세련된 시적 양식을 빌어 예언하던 시대를 들 수 있다.
- (7) 일곱번째로 북이스라엘 멸망 이후의 남유다 예언자들 시대를 들 수 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지배 계급이 저지르는 불의와 부패를 맹렬히 공격하였다.
- (8) 여덟번째로 바벨론 포수(捕囚) 시대를 들 수 있다. 이때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기록되었다.
- (9) 아홉번째로 바벨론 포수 이후 시대를 들 수 있다. 이때의 예언자들은 주로 성전과 종교 의식을 중심으로 예언을 전개하였다.
- (10) 열번째로 예언의 중지 시대이다. 이 당시에 선전자와 하나님의 대변자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약 400년 동안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 (11) 마지막으로 신약에서의 예언 시대를 들 수 있다. 예언자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의 극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존재보다 친근한 관계 위에서 있었고 전적으로, 그리고 항상 그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 (12) 그런데 이 예언의 사역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계시로 말미암아 점차로 종식되어 갔다. 그러나 예수 이후 초대 교회에서는 영적인 분위기가 고조되어 다시 예언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 (13) 그러므로 예언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예언을 잘못 사용하는 일 때문에 예언이 천시(賤視)되었을 뿐이다(참조, 고전 12:10; 14:29; 요일 4:1).

11. **㉠** 예언자는 어떻게 자기가 선포할 말씀을 받았는가?

- ㉠** (1) 예언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자의식(自意識) 속에서 받았으며 이때 예언의 말씀은 그 예언을 접할 예언자에게 외형적인 음성을 통하여 전달되었다(참조, 삼상 3:3-9).
- (2)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내면적인 음성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다. 즉 어떤 경우에는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연히 말씀을 받았으나 그 예언자 주위 사람들은 그 예언을 전혀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참조, 왕상 13장; 사 7:3, 4).
- (3) 계시의 세번째 방법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재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었다(참조, 민 22:31; 왕하 6:15-17).
- (4) 예언자가 하나님으로부터의 예언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네번째 방법은 환상이나 상징적인 장면을 통해서였다(참조, 사 2:1; 겔 8:1-3; 37, 40-48장; 미 4:1-4).
- (5) 이처럼 예언자들이 소유했던 예언들은 자기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다.

12. **㉠** 예언자는 어떻게 자기가 선포할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였는가?

- ㉠** (1) 먼저 예언자는 간단한 구두 진술(口頭陳述)과 질문에 대한 응답들을 통해서 예언을 전달하였다(참조, 사 4:6, 7; 삼상 2:27-36; 왕상 17:1; 사 7:3-25).
- (2) 두번째로 비교적 길이가 긴 메시지를 통해 예언을 전달했다(참조, 출 20:22-23:33).
- (3) 세번째로 족장들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 땅에 전달되기도 했다(참조, 창 9:22, 24; 48, 49장).
- (4) 네번째로 예언자들은 자기가 목격한 환상들을 백성 앞에서 묘사하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언을 전달하였다(참조, 왕상 22:17-23; 겔 8-11장; 단 7-12장).
- (5) 마지막으로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참조, 왕상 11:29, 30; 왕하 13:15-19; 렘 13:1-11; 겔 4:1-3).

13. **㉠**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거짓 예언자들의 첫번째 특징은 그들이 예언할 때에 거짓 신이나 우상의 이름으로 예언한다는 것이다(참조, 왕상 18장; 왕하 10:19; 렘 2:8; 23:13).
- (2) 두번째로 그들은 여호와로부터 선포할 말씀을 받았다고 거짓으로 주장한다(참조, 왕상 22장).
- (3)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서의 기능을 받고 난 후 옛날 부패한 속성이 되살아나 참된 예언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참조, 왕상 13장).

14. **㉠** 참된 예언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참된 예언자들은 살아 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다(참조, 신 18:20-22).
- (2) 두번째로 참된 예언자들 중에는 간혹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한다(참조, 신 13:1, 2).
- (3) 세번째로 참된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참조, 신 18:22; 렘 28:13-17).
- (4)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그 예언자의 예언은 이전의 계시들과 완전히 일치된다(참조, 신 13:1-5; 갈 1:8).

15. **㉠** 계시의 전달에 있어서 예언자들의 감정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 ㉠** (1) 예언자들이 선포한 말씀들은 대부분 단순히 청중들의 머리를 향해서만이 아니라 가슴을 향해서도 외쳐진 것들이었다.
- (2) 그 말씀들은 죄악에 대해서는 슬픈 마음을,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감사의 심정을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결심을 일으키기에 족하였다.
- (3)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감정적 감화를 받지 않고서는 청중들에게 그와 같은 감화를 끼칠 수가 없었을 것이다(참조, 삼상 15:22, 23; 28:18, 19; 왕

상 18:18; 21:19-21; 왕하 3:10-15).

- (4)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은 자신들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를 빼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이 감정에 휩매인 사람이라고 하였다(참조, 약 5:17).
- (5) 그러나 이 말은 예언자들이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만 메시지를 선포했거나 백성들을 강요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 그들의 온 인격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활동하였다는 뜻이다.

16. **㉔** 예언서를 기록한 히브리 예언자들의 명단을 도표화하라.

순서	예언자	이름의 뜻	역사적 배경	사역 연대(B.C.)
1	요엘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왕하 11:1-15:17	586-583
2	요나	비둘기	왕하 13, 14장	793-753
3	아모스	짐지는 자	왕하 14:23; 15:7	760-755
4	호세아	구원하다, 구해 내다	왕하 15-18장	746-724
5	이사야	여호와와 구원	왕하 15-20장 대하 26-32장	740-680
6	미가 (미가야후)	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이나?	왕하 15:8-20; 사 7, 8장; 렘 26:17-19	735-690
7	나훔	위안, 위로자	사 10장; 은 1-4장; 습 2:13-15	640-630
8	스바냐	하나님께서 숨기신다	왕하 22:1-23:34 대하 34:1-36:4	640-630
9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높이셨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왕하 22-25장 대하 34:1-36:21	626-585
10	하박국	포용하다	왕하 23:1-24:20 대하 36:1-10	608-597
11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이다	왕하 23:25-25:30 대하 36:5-23	600-530
12	에스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왕하 24:17-25 대하 36:11-21	592-570
13	오바댜	주의 종	왕하 24, 25장	586-583
14	학개	축제, 절기	스 5, 6장	520-519
15	스가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스 5, 6장	520-475
16	말라기 (말라기야)	나의 사자(使者)	느 13장	435-425

\* 정확한 연대는 학자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이사야 서론

##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이다(1:1;2:1;13:1).
- (2) 그의 히브리 명칭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예사야>로 히브리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불리어진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장형 어미(長型語尾)를 가진 <예사야후>인데 이 명칭도 히브리 성경에 사용되었다.
- (3) <예사야>라는 이름은 명사로 '구원하다' 라는 동사인 <야사>에서 유래하였고 거기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야후>가 접미어로 붙어 <예사야후>가 되었으며 이것을 해석하면 '여호와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다.
- (4) 한편 성경에서 그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다윗 시대에 성전 찬양대장 중에도 있었고(대상 25:3, 15) 레위인 중에도(대상 26:25),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 중에도(스 8:7),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운데도 동일한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느 11:7).
- (5) 그렇지만 본서의 저자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인데 그의 부친은 예언자 아모스와 동일 인물이 아니다. 그의 출생과 죽음에 관하여 성경에는 더 이상의 언급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왕실의 자손, 즉 아마샤 왕의 형제이며 요아스 왕의 손자라고 본다(참조, 7:3-16;37:21-35;38:1-22;39:3-8).
- (6) 이사야는 거의 예루살렘에서 살았고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다. 그중의 한 명은 스알야습(7:3)이고 다른 한 명은 마헬살랄하스바스(8:3)였다.
- (7)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이며 예언자인 이사야의 이름을 따라 '이사야'서(書)로 불여졌다.

## 2.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는 기록 연대에 관하여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지만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하여는 알려 준다(참조, 1:1;6:1).
- (2) 이사야의 예언 활동은 웃시야가 죽던 해(6:1, B. C. 739)부터 요담(B. C. 751-736)과 아하스(B. C. 742-725)와 히스기야(B. C. 725-697), 그리고 므낫세(B. C. 697-642)의 통치 기간 중인 B. C. 680년에 순교하기까지 약 60년 동안 계속되었다.
- (3)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사야의 활동 시기와 본서의 저작 시기를 동일하게 본다. 그러므로 본서의 기록 연대는 웃시야 왕이 죽은 해(B. C. 739)부터 이사야가 므낫세 왕에게 처형되기까지(B. C. 680) 약 60년 동안이었다.

## 3. ㉢ 이사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는 다섯 명의 왕이 바뀌었고 이스라엘은 일곱 명의 왕이 교체되면서 완전히 멸망하였다.
- (2) 그가 활동하던 시대를 도표화하여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유 다 왕	통치기간 (B.C.)	정책	성 경 귀 절	이스라엘 왕	통치기간 (B.C.)	정책	성 경 귀 절	앗수르 왕
웃 시 야	790-739	선함	왕하 15:1-5 대하 26:1-23	여로보암 2세	793-753	악함	왕하 14:16, 23-29	아다드-니라리 Ⅲ 810-783
				스 가 라	753-752		왕하 14:29;15	디글랏 빌레셀

							:8-12	III 744-727	
요	담	751-736	선함	왕하 15:32-38 대하 27:1-9	살 르 브 베	롬 나 가 가	752 752-742 742-740 752-740- 732	악합 " " "	왕하 15:10-15 왕하 15:14-23 왕하 15:22-26 왕하 15:25-37 ;16:1,5 대하 28:6
아	하	742-728- 725	악합	왕하 16:1-20 대하 28:1-27	호	세	732-723	"	왕하 15:30;17 :1
히	스	728-725- 697	선함	왕하 18:1-20:21 대하 29:1-32:33	사	마	722/721		살만에셀 III 727-722
므	낫	697-642	악합	왕하 21:1-8 대하 33:1-20	성	합			

- (3) B. C. 7세기 말엽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 급속히 쇠퇴해 갔으며 어리석은 왕들의 통치와 신앙적 타락이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여 결국 B. C. 722년에 앗수르 왕 살만에셀 3세 (Shalmaneser III, B. C. 858-824)에 의하여 사마리아가 함락되므로 망하고 말았다.
- (4)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웃시야가 문둥병으로 인해(참조, 대하 26:19-21) 그의 아들 요담이 섭정(攝政)을 하였고 아하스는 군소 왕들을 규합하여 수리아와 이스라엘을 치고 유다 점령을 넘지 못하게 하려고 시도했다.
- (5) 그러나 다메섹의 르신과 사마리아의 베가가 다른 방향으로 침공하여(대하 28:5, 6)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였다(왕하 16:5). 이런 상황에서 아하스는 스스로 앗수르의 종이 되었고 유다는 그들의 예속 왕국으로 전락했다.
- (6) 아하스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참조, 왕하 18:3-6). 그렇지만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애굽을 의지하므로 앗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을 받았으며 성전의 금·은을 취하여 주고 겨우 그 위기를 모면하였다(왕하 18:14-16).
- (7) 이사야가 섬기던 마지막 왕은 므낫세였는데 그의 통치 기간에 우상 숭배가 재개(再開)되었고(왕하 21:1-8) 선지자는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바벨론 포로 생활이 불가피함을 경고하였다.

4. **㉠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구분하고 설명하라.**

- ㉠** (1) 그의 활동 시기는 웃시야가 죽던 해(B. C. 739)부터 요담의 통치 기간(B. C. 751-736)까지와 아하스 통치(B. C. 736)부터 히스기야 통치의 시작(B. C. 725)까지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B. C. 725)부터 그의 죽기까지(B. C. 680)로 나눌 수 있다.
- (2) 먼저 웃시야부터 요담까지(B. C. 739-736)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쇠퇴하였고 그에 비해 남왕국 유다는 날로 번성해 갔다. 그러나 외적인 번영은 오히려 내적인 부패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들도 점점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은 번영이 오히려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회개에 대한 이사야의 외침은 간과(看過)되었기 때문이다.
- (3) 다음으로 아하스부터 히스기야까지(B. C. 736-725)는 유다 역사에 새롭고 불행한 전기(轉機)가 마련된 시기였다. 즉 아하스는 즉위 초기부터 우상 숭배를 개방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았다.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세상 여러 왕국의 속국이 되었다.
- (4) 끝으로 히스기야 즉위 초부터 이사야가 죽기까지의 기간(B. C. 725-680)이다. 히스기야

는 종교 개혁으로 아하스 이전의 상태까지 유다를 부흥시켰으며 선지자의 충고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때 이사야는 북왕국의 선지자였던 아모스(왕하 14:23-15:7, B. C. 810-785)와 같이 유다 백성과 왕국에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지나갔다고 선언하였다.

5.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기록 목적은 선지자 이사야의 이름과 같이 구원이란 은혜로 말미암은 것, 즉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진리를 유다 백성에게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기록되었다.
- (2) 이사야는 유다 왕 웃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기울어져 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의 경성(警醒)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 (3) 그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버리고 선민(選民)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올 것과 도덕적인 부패에서 돌아설 것을 권고하였다.
- (4)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과 정치·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하였는데 유다 왕국이 환난을 당하여야 할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 (5)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고 복된 생활을 영위하려면 그 원인인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해결책을 주고,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축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축이 되리라'(1:27).
- (6) 또한 그는 메시지를 통한 이스라엘의 종국적(終局的) 회복을 말하여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전인류의 소망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였다.

6. ㉠ 본서의 저자가 이사야라는 신약의 근거를 제시하라.

- ㉡ (1) 저자에 대한 신약의 근거는 신약의 기록자들이 인용한 말 중에 이사야의 말임을 언급한 부분이다.

(2)

번호	신약귀절	소개 인용 방식	인용귀절
1	마 3:3	선지자 이사야	40:3
2	마 8:17	이사야 선지자	53:4
3	마 12:17	선지자 이사야	42:1
4	마 13:14	이사야의 예언	6:9, 10
5	마 15:7	이사야가 예언함	29:13
6	막 1: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40:3
7	막 7:6	이사야	29:13
8	눅 3:4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40:3-5
9	눅 4:17	선지자 이사야	61:1, 2
10	요 1:23	선지자 이사야	40:3
11	요 12:38	이사야 선지자	53:1
12	요 12:39	이사야가 다시 말했다	6:9, 10
13	요 12:41	이사야가 ... 말했다.	53:1, 6, 9, 10
14	행 8:28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다	53:7, 8
15	행 8:30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다	53:7, 8
16	행 8:32	이사야의 예언을 재언급	53:7, 8
17	행 28:25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6:9, 10
18	롬 9:27	이사야가 외치기를	10:22, 23; 11:5

19	롬 9:9, 29	이사야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1:9
20	롬 10:16	이사야가 말한다	53:1
21	롬 10:20	이사야가 담대해서 말하기를	65:1

7. **㉠** 본서에 나타난 메시아 사상에 대해 설명하라.

- ㉠** (1)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 가운데 이사야서는 메시아의 예언에 관하여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가랴서(잡)보다 오히려 메시아 사상이 더 잘 나타나 있다.  
 (2) 메시아의 모든 영광과 지상에서 보이신 생활의 모든 면이 이 위대한 복음의 예언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다.

(3)

번 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성 경 귀 절
1	신성(神性), 영원성, 선재(先在), 창조, 전능하심, 편재하심, 전지하심, 비교할 수 없음	40:12-18; 51:13
2	성 육 신	6:6; 7:14; 마 1:23
3	나사렛에서 비천한 지위와 유년 시절	7:15; 9:1, 2; 11:1; 53:2
4	주의 종으로 나타나심, 기쁨 부음을 받으심	11:2
5	선택을 받으시고 기쁨을 느끼심	42:1
6	은유하신 태도	42:2
7	부드러운 봉사와 친절	42:3; 12:18-20
8	복 종	50:5
9	말씀의 선포	61:1, 2
10	이 적	35:5, 6
11	고 난	50:6
12	높임을 받으시기 위한 고통	52:13-15
13	유대 민족의 배척	53:1-3
14	맞으시고 찢리시고, 상함을 받으신 수치	53:4-6
15	죽 으 심	53:8
16	장 사(葬事)	53:9
17	부 활	53:10
18	승 천	52:13
19	영적인 자손	53:10
20	현재의 대제사장의 직분	53:12
21	미래의 영광	59:20; 63:1-6; 66:15-19

8. **㉠** 아직 성취되지 않은 본서의 예언적 주제는 어떤 것들인가?

**㉠**

번 호	예언적 주제	성 경 귀 절
1	주님의 날(이사야는 45회 가량 '그날에'라는 말을 사용하여 계시적 심판의 시기를 묘사하였다)	2:10-22; 4:1; 13:9-13; 24:1-23; 32:1-20; 60:1-6
2	회복된 이스라엘에 주어진 축복	2:1-5; 4:2-6; 9:7; 11:4-16; 12:1-6; 14:1-3; 25:1-12; 32:15-20; 35:1-10; 52:1-12; 59:20, 21; 60:1-12; 61:3-62:12; 65:17-66:24
3	이스라엘의 회복	11:10-12; 14:1, 2; 27:12, 13; 35:10; 43:5, 6; 49:10

		-12;66:20
4	팔레스틴 자체의 회복	30:23-26;35:1-10;49:19;60:13;61:4;62:4, 5;65:21-25
5	지상의 중심지로서의 예루살렘	1:26;2:3;4:2-6;12:6;24:23;26:1;40:2;52:1-12;60:1-22;62:1-7
6	남은 자들에 대한 축복	12:1-6;25:1-12;26:1-19;33:24;35:10;43:25;44:22;46:13;54:6-10;61:6;62:12;66:8
7	민족들에 대한 축복	2:1-4;11:3, 4, 9, 10;25:6-9;60:1-12
8	전피조물에 대한 축복	이사야는 왕국 시대를 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신천지를 예언했다(65:17;66:22). 그러나 사도 요한(제 21-22장)처럼 그는 천년 왕국과 영원한 상태를 혼합적으로 보았다(11:6-8;65:25;66:22).

9. ㉠ 본서의 문학적 특성을 설명하라.

- ㉠ (1) 일반적으로 다른 예언자는 각각 특수한 어떤 여건이나 재능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모든 종류의 재능과 예언적 논의의 아름다움이 동시에 나타난다.
- (2) 본서의 문장은 웅장하고도 위엄이 있으며 고상(高尚)하고도 장엄한 침착성이 특징인데 강한 감정을 자제하기도 하고 부당하고 과도한 언어 구사를 조절할 줄도 알았다.
- (3) 본서의 문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저한 이미지의 활용에 있어서 한 단락 한 귀절이 아니라, 직유나 은유 없이 시적인 표현 형태의 전환을 구사하고 있으며 일상적 언어보다 더 높이 승화시키고 있다(참조, 7:18;29:16;31:5, 41;33:21;52:3;66:8).
- (4) 둘째는 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자주 사용되지는 않고 63장의 처음에 나오는 대화 가 가장 뚜렷한 예(例)이다(1-6절;4:1;22:13;29:11, 12, 15;40:3, 6, 27;44:16-20;56:3, 12;66:5).
- (5) 셋째로 대조법은 일반적인 히브리 시의 성격과 같다. 그러나 본서에 있어서는 항상 진실과 요점으로 집약되어 언급되고 있다(참조, 1:18;3:24;5:7, 10, 20;65:13, 14).
- (6) 넷째로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된 현상은 말의 유희(遊戱)인데 다른 성경 저자에게서는 별로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가장 현저하게 사용하였다(참조, 1:23;7:9;17:1, 2;22:5, 6;30:16;62:4;65:10).
- (7) 다섯째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서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참조, 1:6, 21;2:10;5:14, 28;9:6;24:20;33:12;40:31;50:3;52:14;57:20;66:15, 24).
- (8) 여섯째는 생생한 묘사를 하는데 특히 13:19-22;14:23;34:11-15에서의 황폐한 모습과 11:6-9;35장;40:11;65:25에서의 전원시적 귀절,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군하는 앗수르의 행진 모습(10:28-32)에서 발견할 수 있다.
- (9) 끝으로 수사학적인 확대 설명을 할 때 율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같은 개념이 다른 말로 반복될 때 때때로 이중, 삼중으로 의미가 겹치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심어 주고 있다(참조, 1:4;25:4, 5;40:12, 14;53:4, 5).

10. ㉠ 본서의 통일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통일성에 대하여 18세기 성서의 고등 비평이 대두되기 이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독일의 비평 학자 뢰덜라인(J. C. Döderlein, 1745-1780)부터 시작하여 독일의 합리적인 성서 비평가들은 이사야가 40-66장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2)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 2 이사야서(Deutero-Isaiah) 라고 일컬어지며 바벨론 포로 말엽, 즉 B. C. 545-536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56-66 장을 다시 나누고 B. C. 400년경에 제 3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 (3) 본서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자들의 세 가지 논거는 문학적 형태, 신학적인 개념 그리고 내용과 주제 등이 이 책의 두세 개의 주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런 차이는 저자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에 무리가 따르다. 왜냐하면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 사이의 문체에 있어서의 유사성들은 비평 학자들이 주장하는 차이 점보다 더 의미가 깊고 또한 그 차이를 이사야의 말년에 발생한 상황 변화에 의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1-39장의 배경은 동시대이지만 반면에 40-66장은 이사야의 시대에서 보면 미래이다. 따라서 비평가들은 예언자들이 스스로를 미래에 이상적인 위치로 투영한다는 것은 이성적(理性的)으로 합당치 않다고 주장한다.
- (6) 바벨론 포로 사건과 귀환은 역사적으로 성취된 일인데 이 사건을 후반부에서 언급하기 때문에 바벨론 유수에서 돌아온 '제 2 이사야'에 의하여 첨가되었다고 주장한다.
- (7) 그러나 이런 예언은 전반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므낫세의 퇴폐적인 시대는 일련의 예언들을 필요로 하였는데 이 예언들은 이스라엘의 증거의 빛으로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제시한 것이다.
- (8) 그리고 수많은 사해 사본에는 이사야의 사본이 있는데 모두 이사야의 책으로 인정하고 쿰란 사본들 중에서도 본서가 가장 잘 보존되었는데 40장에서 구분하는 흔적은 전혀 없다.
- (9) 따라서 1-39장과 40-66장은 주제면에서 부자연스럽지 않다.

11. ㉠ 본서의 정경성(正經性)을 논하라.

- ㉠ (1) 구약 성경 속에서 본서의 위치는 확실하다. 본서는 성경의 예언서들 중에서 가장 길고 많은 면에서 가장 풍부한 예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2) 사해 사본 중에는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B. C. 150년경에 기록된 것이다. 또한 다른 사해 문학 속에는 본서에서 인용한 귀절들이 많이 나타난다.
- (3) 그리고 쿰란 문서 중에는 사독의 문서(Zadokite Document)도 단편적인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 있는 감사의 찬양시들도 본서의 글을 이용한 것이 명백하다.
- (4) 한편 예언자들의 말씀이 쿰란 문서에는 규칙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동등하게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분한 권위를 지닌 성경으로 여겨진 것이 명백하다.
- (5) 또한 예레미야 48장과 본서 15, 16장을 비교할 때 많은 귀절들이 평행을 이루고 있지만 예레미야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많이 인용하는 것으로 볼 때(참조, 렘 48:45과 민 21:28; 24:17; 렘 26:18과 미 3:12; 렘 4:3; 30:9과 호 10:12; 3:5) 예레미야 48장은 본서 15, 16장에서 인용한 것이 확실하다.
- (6) 따라서 본서의 고대적인 위치를 거부할 적극적인 증거 자료는 하나도 없고 본서의 정경성을 부정할 자료도 없다.

12. ㉠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서는 범죄한 백성에게 정죄(定罪)가 선포되고, 국제적인 위험한 상황에서 경고들이 선포되며 더불어 구속자의 약속과 함께 영광스런 왕국에 대한 환상들이 나타나 있다.
- (2) 전체적으로 본서는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지만 내용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 (3) 첫째는 1-6장으로 본서의 서론적인 부분이며 본서의 경향(傾向)을 제시하고 있다. 여

기는 유다의 죄악들에 대하여 정죄를 선언하지만 아울러 궁극적인 평화도 포함하고 있다(참조, 2:1-4).

- (4) 둘째는 7-12장인데 처녀 탄생에 관한 예언(7:14)과 관련되어 있고 앗수르의 침략에 관한 예언이 언급되어 있으며 앗수르를 조종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참조, 10:7-12, 15, 34).
- (5) 셋째는 13-35장에 이르는 내용으로 유다 주변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세우실 그 확고한 기초이며 귀중한 모퉁이 돌이신 메시아를 신뢰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 (6) 넷째는 36-39장까지로 유다를 괴롭히던 앗수르가 하나님의 책망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7) 끝으로 40-66장에 이르는 부분은 원저작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계획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있다.

13.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유다를 향한 책망 / 1:1-12:6
  - ① 유다에 대한 정죄 / 1:1-5:30
  - ② 이사야의 소명 / 6:1-13
  - ③ 메시아의 강림 / 7:1-12:6
- (2) 이방을 향한 책망 / 13:1-23:18
  - ① 바벨론을 향하여 / 13:1-14:23
  - ② 앗수르를 향하여 / 14:24-27
  - ③ 블레셋을 향하여 / 14:28-32
  - ④ 모압을 향하여 / 15:1-16:14
  - ⑤ 다메섹과 동맹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 17:1-14
  - ⑥ 구스를 향하여 / 18:1-7
  - ⑦ 애굽을 향하여 / 19:1-20:6
  - ⑧ 바벨론을 향하여 / 21:1-10
  - ⑨ 에돔을 향하여 / 21:11, 12
  - ⑩ 아라비아를 향하여 / 21:13-17
  - ⑪ 예루살렘을 향하여 / 22:1-25
  - ⑫ 두로를 향하여 / 23:1-18
- (3) 미래의 심판과 왕국 / 24:1-27:13
  - ① 심판의 때 / 24:1-23
  - ② 새 왕국의 승리 / 25:1-12
  - ③ 새 왕국에서의 찬양 / 26:1-21
  - ④ 하나님의 백성들 / 27:1-13
- (4)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하여 (화와 축복) / 28:1-35:10
  - ① 사마리아에 내릴 화 / 28:1-29
  - ② 유다에 내릴 화 / 29:1-31:9
  - ③ 메시아와 그의 나라 / 32:1-24
  - ④ 앗수르와 그 멸망 / 33:1-24
  - ⑤ 열국이 받을 심판 / 34:1-17
  - ⑥ 새 나라와 그 축복 / 35:1-22
- (5) 산헤립을 향한 책망 / 36:1-39:8

- ① 앗수르의 조롱 / 36:1-22
- ②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리 / 37:1-7
- ③ 앗수르로부터의 위협 / 37:8-35
- ④ 앗수르에 대한 승리 / 37:36-38
- ⑤ 연장된 히스기야의 수명 / 38:1-22
- ⑥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 / 39:1-8

(6) 위대하신 하나님 / 40:1-48:22

- ① 포로 생활로부터 유다를 해방하심에 있어서 / 40:1-11
- ② 창조주 / 40:12-31
- ③ 우상들과 비교해서 / 41:1-29
- ④ 사자를 보내심에 있어서 / 42:1-25
- 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에 있어서 / 43:1-44:28
- ⑥ 고레스를 사용하심 / 45:1-25
- ⑦ 바벨론을 심판하심 / 46:1-47:15
- ⑧ 바벨론으로부터 유다를 해방하시다 / 48:1-22

(7) 구원자, 종-메시아 / 49:1-57:21

- ① 종을 세우심 / 49:1-26
- ② 종과 이스라엘의 비교 / 50:1-11
- ③ 남은 자를 향한 격려 / 51:1-52:12
- ④ 종의 고난과 승리 / 52:13-53:12
- ⑤ 종을 통한 구원 / 54:1-57:21

(8)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 58:1-66:24

- ① 바른 제사와 그른 제사와의 비교 / 58:1-14
- ② 죄의 해결책 / 59:1-21
- ③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 / 60:1-22
- ④ 평화를 위한 메시아의 노력 / 61:1-11
- ⑤ 이스라엘의 회복 / 62:1-12
- ⑥ 축복의 조건 / 63:1-65:16
- ⑦ 새 왕국의 묘사 / 65:17-25
- ⑧ 위선에 대한 책망 / 66:1-6
- ⑨ 새롭게 된 이스라엘 / 66:7-9
- ⑩ 미래의 소망 / 66:10-24

14.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53:5).

## 연구자료

### 이사야의 특징적인 주제들

본서는 신학적인 내용이 풍부한 책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인간의 죄, 구속자 메시아 등에 관한 주제가 뚜렷하게 부각되어 있다. 이를 정리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 1. 창조주 하나님

40:12-28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우상 숭배의 허탄함과 대조되어 언급되어 있다. 물론 우상 숭배에 관한 비난이 다른 여러 곳에도 나타난다(참조, 2:7, 8, 18-21; 30:21, 22).

#### 2.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당시 근동에 위세를 떨치던 잔인하고 호전적인 민족 앗수르(Assyria)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움직인다는 기록을 통하여(10:5-32; 15:25) 역사와 국제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연히 볼 수 있게 된다(40:15).

#### 3. 여호와와의 거룩하심

본서에는 특히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5:24; 37:23; 41:16). 이 같은 여호와와의 거룩은 도덕적인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완전과 함께 그의 신성(神性), 즉 신적 본질의 초월성이 함께 결합된 '의'라는 요소를 포함하기 때문에(참조, 5:16; 암 4:2)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의로운 생활이 요구되었다(10:1-4; 48:1, 2).

#### 4. 인간의 죄

하나님의 거룩과 대비된 인간의 죄에 대한 표현도 아주 생생하며(1:18; 59:7)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음도 언급되어 있다(29:13). 특히 본서에는 개인적인 죄악 뿐 아니라 사회적 공의를 팽개친 사회적인 여러 범죄들도 지적되었다(1:21, 23; 5:23; 29:21; 59:13-15).

#### 5. 메시아

사회 전체의 범죄로 인한 더러움을 깨끗케 하시기 위해 구속자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특히 이 구속자는 그들과 함께 거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했다(참조, 8장 연구자료). 구속의 주제는 본서에 특히 강조되었기에 이사야를 복음적 선지자라고 지칭하기도 한다(참조, 53장).

이상과 같은 주제들 외에도 '남은 자',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 등과 같은 많은 특징적 주제들이 있다. 아뎀든 우리는 이와 같은 본서의 특징적 주제들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의 범죄에 대해 안타까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심판, 인내와 용서 등의 많은 교훈을 배울 수 있게 된다.

# 제 1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선을 들추어 내시다

단락구분 1 서론적 귀절 / 2-9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상태 / 10-17 이스라엘 민족이 범한 죄 / 18-20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다 / 21-23 예루살렘의 과거와 현재가 비교되다 / 24-31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1 유다 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2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4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5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쁨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고

8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발의 상적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 두지 아니하셨더면 우리가 소듬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도다

10 너희 소듬의 관원들이 여호와와 말씀함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노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니라

21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고 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었도다

22 네 온은 썩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작하며 다 너를 사랑하며 사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2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25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썩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26 내가 너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

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읍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27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28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29 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은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썬 사람이 없으리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 ㉠ (1) 본장은 본서 전체의 서론적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과거의 상태와 현재를 비교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모습과 그와 더불어 거룩한 성(城)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패역한 모습을 보이므로 위선적인 그들의 신앙 상태를 들추어 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킬 것을 요구하셨다.
-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변함없으므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
- (4)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참조, 겔 18:23, 24; 33:11) 당신의 백성이 죄로 인해 망하는 것을 더욱 원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범죄의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시며 또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신다(참조, 벴후 3:8).

### 2. ㉠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유다 왕들의 행적을 약술(略術)하라(1절).

- ㉠ (1)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통치하던 유다 왕들은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이었다.
- (2) 웃시야는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다(왕하 15:1, 2, 30-34; 대하 26장). 그는 부왕인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게 패한 후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16세에 즉위하여 52년간 통치하였다. 그는 군비 증강과 변방 수비에 힘을 써 국력을 과시했다(대하 26:6-8). 그러나 그는 산당을 없애지 않을 뿐더러 교만하여 제사장의 충고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그는 문둥병에 걸렸으며 죽을 때까지 별궁(別宮)에 거하였다.
- (3) 요담은 웃시야의 아들로 유다의 11대 왕이다(왕하 15:5). B. C. 751-736년까지 통치하였는데 부왕이 문둥병에 걸려 함께 섭정(攝政)을 하였다. 그도 산당을 제하지 못하고 백성의 타락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 (4) 아하스는 유다의 12대 왕으로 예루살렘에서 16년을 통치했다(대하 28:1). 그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했으며 앗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윗의 계통이었기 때문에 진멸하지 않으셨다.
- (5)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대 왕으로 유다 왕들 중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 그의 명성은 종교적,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 걸쳐 나타났다. 성경에서도 그에 관하여 자세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36-39장; 왕하 18-20장; 대하 29-32장). 특히 역대기는 그의 종교 개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그는 자신의 병이 고침을 받아 교만해져 자신을 자랑하다가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다 빼앗겼다(왕하 18:14-16).
- (6) 유다 열왕(列王)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을 순용하고 그분께 사랑을 바칠 때 개인 뿐 아니라 국가도 평안하다는 것이다.

### 3. ㉠ 이사야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가? (1절)

- ㉠ (1) 그는 이상(異像)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 (2) 이상(vision)은 히브리어로 <하존>인데 이것은 ‘꿈’, ‘계시’, ‘이상’ 또는 ‘환상’이란 뜻을 갖고 있다.
- (3)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유형적, 시각적 지각 작용(知覺作用)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무형적인 차원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 (4) 즉 정상적 시각이 아닌 꿈이나 황홀경 혹은 선지자에게 계시된 것, 육체가 없이 보이는 형상 등에 대해 일차적인 강조를 한다.
- (5)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어 구약에 86회, 신약에 15회가 나오며 특히 다니엘서에 22회가 기록되었다.
- (6) 그런데 구약에서 ‘이상’의 사용은 하나님의 명백한 본질과 일치한다.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으로 선포하고 있고 또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그의 길을 알려 주시고 있다(참조, 창 15:1; 민 12:6).

4. **㉠**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異像)을 받고 어디를 향하여 외쳤는가? (2절)

- ㉠** (1) 그는 하늘과 땅에 대하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고 외쳤다.
- (2) 이사야가 예언을 하게 된 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한 데 근거한다.
- (3) 패역한 유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므로 선지자는 창조의 법과 질서를 지키며 창조 목적을 따르는 자연을 향해 ‘들으라고’ 하였다.
- (4) 이런 표현은 성경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참조, 신 30:19; 31:28; 32:1; 미 6:1, 2) 이는 어리석고 무감각한 백성들보다 무생물이 더 빨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고 다른 피조물보다 부패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참조, 렘 17:9)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감지(感知)할 수 없다.

5.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어떤 죄를 지적하셨는가? (2, 3절)

- ㉠** (1)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을 받고도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 (2) 소와 나귀는 힘이 좋기 때문에 가축으로 길들여졌다. 이런 하찮은 동물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그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유다 백성의 범죄성을 더욱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다.
- (3) 이것은 유다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무지(無知)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망각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므로(참조, 엡 4:18) 가장 미련하며 또한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6. **㉠** 유다의 행악(行惡)과 범죄한 사실은 어떤 것인가? (4절)

- ㉠** (1) 그들의 범죄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긴 것이다.
- (2) 유다 백성은 스스로 도덕적, 교의적(教義的)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을 버렸다.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예배를 형식화했다(참조, 11-15절; 29:13; 대하 27:2).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무리를 쫓았다(출 23:2).
- (3)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위선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장 싫어하시고 또한 미워하신다.

7. **㉠**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은 징계의 때를 맞아 어떤 상태에 빠져 있었는가? (5, 6절)

- ㉠** (1) 그들의 온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지며 새로 맞은 흔적뿐이고 그 상처를 싸매며 기름으로 유(柔)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 (2) 사실상 유다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고(3절) 도덕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치우친 위선적인 신앙 생활을 계속하였다(참조, 9:13; 겔 14:5).
- (3) 그 결과 질병이 온 몸에 퍼져 고통을 주듯이 유다 백성은 주위의 침략을 받아 고통을 받지만 결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였다.
- (4) 이런 가운데도 그들은 전혀 개혁을 위한 시도가 없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이러한 고통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 (5)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택한 백성이 죄의 어두움에서 벗어나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계의 채찍을 드신다(참조, 신 8:5; 잠 3:12; 히 12:5-10).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아직도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줄 깨닫고 감사하며 돌아와야 한다.

8. **㉠ 유다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의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7, 8절)**

- ㉠** (1) 그들의 땅은 황무(荒蕪)하였고 성읍들은 불탔으며 토지는 이방인에게 빼앗겨 황무지가 되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포도원이나 오이밭의 원두막처럼 포위를 당하였다.
- (2) 선지자는 이제 은유적인 표현을 중단하고 단순한 언어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다.
- (3) 이처럼 범죄한 유다에는 많은 민족(북이스라엘, 수리아, 에돔, 블레셋,)이 침공하여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 (4) 이같이 사람의 범죄는 이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참조, 창 3:18). 죄가 사람의 마음에 유입되므로 영과 육의 조화가 깨어지고 그 결과 지상의 각처에 파멸과 죽음, 부패가 있게 되었다(참조, 롬 8:20, 21).

9. **㉠ 유다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조금 남겨 두셨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 두신 것이란 아직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경건한 자'를 가리킨다.
- (3)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열 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참조, 창 18:22-32). 그러나 그들과 너무나 흡사한 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은 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다(참조, 애 3:22).
- (4) 우리들 역시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가증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파멸되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씨를 남겨 두셨으므로(참조, 롬 9:27, 29) 심판을 면하게 해주셨다.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지 말고 이 믿음을 소유한 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참조, 엡 4:13).

10.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관원과 백성들의 행위 중에서 당신께 유익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무수한 제물이 아무 유익도 안 된다고 하셨다. 즉 짐승의 피와 고기를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루살렘의 관원과 백성에게 수치스러운 이름을 붙여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으로 멸망당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참조, 창 13:10-13).
- (3) 그리고 그들의 제물을 거부하신 이유는 자신들의 거룩함을 예배 의식에만 국한시키고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면 자신들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 대한 예배와 이웃에 대한 선행이 진정한 예배임을 가르치셨

으나(참조, 레 19:18; 신 6:5) 그들은 그 가르침을 망각하고 형식적인 예배만을 드렸다.

- (5)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께 대하여 주일 예배와 헌금만 드리면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중심을 바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원하신다(참조, 삼상 15:22; 요 4:24).

11.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14절)

- ㉠** (1) 그 이유는 유다 백성의 신앙 행위가 위선적이었기 때문이다.  
 (2) 즉 그들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3대 절기에 성전으로 모이는 것은 지켰으나 신앙적 목적이 없는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  
 (3)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예식적인 제사 참석만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제사드리는 자의 의식이 곧 그의 경건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마음과 생활의 철저한 개혁이 없이는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열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물보다 제물을 바치는 마음을 더 원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5:22; 히 10:5,6).

12. **㉠**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가중히 여기신다고 하셨는가? (13절)

- ㉠** (1) 그것은 헛된 제물로 분향하는 일과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大會)로 모이는 것인데 그 이유는 이런 성회(聖會)와 아울러 악을 행하기 때문이다.  
 (2) 월삭(月朔, new moon)은 안식일과 다른 절기(성회)와 함께 논리적 연속성을 갖는다. 그것은 주로 종교적 규정을 요약하는 데 사용되었다(참조, 대상 23:31; 대하 2:4; 느 10:33). 그러나 이런 관례는 농경 생활의 주기적 순환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안식일에 의 존하여 생긴 것이 아니었다.  
 (3) 월삭의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지키기 용이하다는 사실과 함께 미신적 사고 방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각 지방의 축제와 종교 의식이 거행되었다(참조, 삼상 20:5, 26).  
 (4) 그리고 성회라는 말은 큰 절기에 모이는 특수한 날에만 적용되었는데 장막절의 여덟번째 날(참조, 레 23:36; 민 29:35; 느 8:18)과 유월절의 일곱번째 날(참조, 신 16:8), 그리고 특별히 지정한 날(참조, 왕하 10:20; 대하 7:9; 욕 1:14; 2:15) 등이다.  
 (5) 따라서 주간마다 지키는 안식일, 새 달에 지키는 월삭, 그리고 해마다 지키는 대회와 성회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경우였다. 그들은 그 절기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지만 그 속에는 경건과 헌신의 마음이 없이 축제적인 분위기 속에서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행사를 가중히 여기셨다.  
 (6) 신앙 생활에 있어서 의식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 의식 자체가 최대의 목적으로 변한다면 그 안에 살아 제쳐야 할 하나님의 존재는 없어지고 인간적인 감정만 격동하는 의미 없는 외침이 되고 말 것이다.

13. **㉠** 하나님께서는 왜 유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유다 백성의 손에 피가 가득하므로 그들이 손을 펼지라도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피'란 살인죄, 혹은 잔인성, 박해, 학대 등을 가리킨다(참조, 대하 24:20-22; 미 3:10, 11).  
 (3) 이처럼 외형은 그럴 듯하게 차리고 속으로는 살인과 잔인한 학대와 박해를 일삼는 자들의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죄를 버리고 빈 마음과 겸손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2:8).

14. **㉠**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스스로 씻고 깨끗케 하여 당신 앞에서 악업(惡業)과 악행을 그

치고 선행과 공의를 행하며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하셨다.

- (2) 물로 씻는 것은 내적인 정결을 회복하는 하나의 전형적(典型的) 표현이다(참조, 출 29:4; 레 1:9, 13; 민 19:7, 8, 19; 신 21:6; 23:11).
- (3) 그리고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있기 때문에 의인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 주어야 할 대상이었다(참조, 출 22:22-24; 신 10:18; 24:17; 27:19).
- (4)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제사가 아니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하는 실천적인 믿음의 행위이다(참조, 레 19:18; 마 22:37-40; 롬 13:8-10).

15.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떤 방법을 제시하셨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아무리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당신께 나와 변론하자고 하셨다.
- (2) 그리하면 그들의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양털같이 되리라고 하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인간들에게 함께 의논하는 것을 허락하신다(참조, 창 18:23-32; 출 4:1-17; 욥 23:3-7; 미 6:2). 그래서 그들의 길과 주장이 공평치 않음을 드러내신 후(참조, 겔 18:25) 그들의 죄를 숨길 수 없음을 보여 주신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더불어 진지하게 지나는 과거의 허물을 의논해 보고 앞날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하여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16.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하나님의 요구는 단순히 즐겨 순종하는 것뿐이었다.
- (2) 순종의 결과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지만 반대로 불순종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울 뿐이다.
  - (3) 강압에 의한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참조, 겔 3:7) 임한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것이다(참조, 신 30:15, 16).
  - (4) 이와 같이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저주가 확실하다. 그렇지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순종하므로 복된 삶을 영위하기 원하신다.

17. **㉠** 과거의 예루살렘과 현재의 예루살렘은 어떻게 다른가? (21, 22절)

- ㉠** (1) 예루살렘이 과거에는 신실한 성읍이었고 공평이 충만하였고 의리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 성읍이 창기(娼妓)가 되었고 살인자들만 있는 성읍이 되었다.
- (2) 이것은 예루살렘이 남편을 버리고 창부(娼婦)가 된 아내처럼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버렸다(참조, 계 2:4)는 의미이다. 거기에 더하여 솔로몬(왕상 3:9-28)과 여호사밧(대하 19:5-11) 치하에서는 관원들이 공평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
  - (3) 따라서 그들은 순진함이 전혀 없고 외식을 통하여 진실은 색깔이 바래졌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 성읍의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잘못을 용인(容認)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의 상태를 중요시한다(참조, 겔 18:20-24)

18. **㉠** 예루살렘 방백들이 범한 죄는 어떤 것들인가? (23절)

- ㉠** (1) 그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伸冤)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受理)치 아니하였다.
- (2) 방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고 공의와 공평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함(참조, 롬 13:1-3)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직분과 도리를 잊고 오히려 악행을 저질렀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죄값을 반드시 찾으신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공직자들

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책에 해당하는 올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실 것이다.

19.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과 원수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24절)

- ㉠** (1)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는 장차 당신의 대적에게 보응하여 마음을 편케 하시고 원수에게 보수(報讐)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적(反語的) 표현으로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벌을 주시는데 당신의 마음이 흡족하기까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사용하여 징계하신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할지라도 악하고 패역한 행위에 대하여는 반드시 보수하셔야만 그 마음이 편하게 된다.
- (4) 이것은 당신의 공의로우신 성품에 근거한 조치이다.

20.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신 후에 과거와 같이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을이라고 칭하신다 하셨는가? (25, 2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찌끼와 혼잡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들의 사사와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신 후에 과거와 같이 칭하신다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백성에게 직접 간섭하셔서 개혁을 유도하시고 의식하는 지도자들을 제거하신 후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다.
- (3) 이는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보여 주는데 교회의 잘못된 지도자들을 벌하시고 굳세게 세우신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해롭게 하는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하셨다(참조, 약3:1).

21. **㉠** 예루살렘과 귀정(歸正)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7절)

- ㉠** (1) 시온(예루살렘)은 공평으로 구속(救贖)이 되고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될 것이다.
- (2) 예루살렘의 패역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가져와 그들이 시온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은 그분의 의(義)로 구원을 받게 된다.
- (3)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실지라도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참조, 겔 14:14, 20; 18:27; 함 2:4). 그러므로 이러한 자들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4)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 살고 있다 해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의 요소를 없앨 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게 된다(참조, 은 3장).

22. **㉠** 하나님의 의로 구속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8절)

- ㉠** (1) 그들은 패역한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구속받지 못하고 패망하며 또한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다.
- (2) 여기서 멸망할 자들은 의식하는 위선자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인데 이런 자들은 언제나 친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실한 신앙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게 된다.
- (3)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형벌은 견딜 수 없는 고통(참조, 욥 31:3; 시 1:6; 말 4:1)이요 하나님과의 분리됨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위선자들의 마지막을 교훈삼아 자신의 길을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23. **㉠** 예루살렘의 패역한 행위와 그들이 당하는 결과는 어떠한가? (29절)

- ㉠** (1) 그들은 상수리나무 아래서 우상을 섬겼으나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들이 택한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다.

- (2) 여기서 상수리나무와 택한 동산은 불법적인 예배 장소와 예배 대상(참조, 신 16:21; 왕상 16:33; 왕하 17:10)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그런데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다.
- (4)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롬 6:21).

24. ㉠ 하나님의 심판으로 수치를 당하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30, 31절)

- ㉠ (1) 그들은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고 물없는 동산 같을 것이며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그것을 끌 사람이 없을 것이다.
- (2) 이것은 한때 번영했던 사실이 우상 숭배로 인한 것인 줄 알았던 자들에게 그 번영이 파괴되고 그들이 신뢰하던 우상들은 마른 나무 같이 불타 때 그들도 그 불에 멸망할 것을 말한다.
- (3)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뿌리가 마르지 않지만(참조, 시 1:3)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참조, 렘 2:13; 17:13)을 버렸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는 것이다.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야 한다(참조, 요 4:14).

## 연구자료

시온(Zion). '시온'의 뜻은 '요새' 또는 '성채'이다. 시온은 본래 기드론(Kidron)과 두로베온(Tyropoeon) 두 골짜기 사이에 솟은 절벽으로 된 봉우리였다.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는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다윗 성' (David's City)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왕상 8:1; 대하 5:2) 보다 후대에 이르러선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다(8, 26, 27절; 10:24). 그 뿐 아니라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유수(幽囚)와 관계하여 예루살렘 성의 거민이나 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되었다(렘 51:35; 습 1:17). 한편 '시온'은 성경상에서 종말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주요 단어이기도 하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셔서 원수를 정복토록 할 시대를 예기하였다(시 110:2). 그는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번영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시 14:7). 또한 이사는 하나님께서 한 돌 곧 시험하는 돌을 시온에 두어 인간 구원의 기초로 삼으실 것을 예언하였다(28:16). 이러한 시온은 하나님께서 좌정하셔서 영원토록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터전으로도 묘사되어 있는데(33:20) 히브리서 기지는 이와 관련하여 시온을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비유하고 있기도 하다(히 12:22).

## 제 2장 예루살렘의 영광과 주의 날이 예언되다

**단락구분 1-5 예루살렘이 왕국 시대에 새로운 중심지가 되다 / 6-9 유다 백성의 범죄 실태 / 10-11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 12-22 백성들의 교만을 심판하시다**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와 그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빛에 행하자

6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불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7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똥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8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9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10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와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11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한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13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14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과

15 모든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16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17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 사람이 승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은 그날에 두더쥐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 1. ㉠ 본장의 주제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 기록된 예언의 주제는 말일(末日)에 예루살렘이 새로운 중심지로 각광받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유다 백성의 죄악들이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이다.
- (2) 이때는 이스라엘의 미래의 날로서 메시아의 재림 때에 이스라엘이 궁극적인 축복을 받게 되며, 그들이 회개하고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때 예루살렘이 천년 왕국의 터전으로 예배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2,3절).
- (3) 그 결과 여러 민족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격려가

있게 된다. 그러나 지상의 죄인들에게는 그분의 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참조, 계 6:1-19:16).

2. **㉠** 이사야가 받은 말씀은 무엇에 관한 내용인가? (1절)

- ㉠** (1)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았다.
- (2) 본절에서 제시한 표제는 본장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5장의 마지막까지 연결된다.
- (3) 4장의 끝이 본장의 시작과 연결되어서 하나의 부류(部類)를 충고와 형성하고 책망과 위협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가면서 예언한 후 출발했던 그 약속의 목표에 이르렀다. 한편 5장은 하나의 우화(寓話)로 새로 시작하고 있다.
- (4) 특히 본절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근거를 제시해 준다.

3. **㉠** ‘말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4절)

- ㉠** (1) 그때는 시온이 모든 산들 중에 가장 뛰어날 것이고 만방에서 수많은 민족들이 그곳에 모여 진리를 외치고 전쟁이 그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신약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나 많은 백성이 자원하여 메시아에게 돌아와 헌신하고 복종할 것(참조, 60:4, 5; 창 49:10; 시 110:3)이란 뜻이다.
- (3) 한편 전통적으로 본귀절의 말씀은 이사야 자신의 것이 아니라 다른 예언자에게서 취한 것으로 본다. 즉 본귀절과 미 4:1-4은 동일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사야가 미가에게서 말씀을 취했든지(Abarbanel) 아니면 제 3의 예언자에게서 동일한 사상을 두 사람이 취했든지(Koppe, Rosenmüller, Hitzig, Ewald) 본래 이사야의 작품은 아니라고 한다.

4. **㉠** ‘말일’은 어떤 날을 의미하는가? (2절)

- ㉠** (1) 말일은 종말론의 개념에서 쓰여진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두드러지게 종말론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 (2) 종말론적 상황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징적 표현은 ‘주의 날’(the day of Lord)이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내고 당신의 백성의 삶에 압박을 가하는 불행과 고난을 감하기 위해 개입하시는 때를 가리킨다.
- (3) 이날은 반드시 문자적 의미의 ‘날’이 아닌데 이때 여호와께 신실하게 충성하는 자는 구원을 얻고(6:13; 암 9:9)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영(靈)을 부어 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참조, 욥 2:28-32).
- (4) 또한 이날은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다(참조, 암 5:18-20).
- (5) 본귀절의 ‘말일’은 히브리어로 <아하리트 하야밍>인데 이것은 ‘날들의 끝’이란 뜻으로 본서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단어 역시 언제나 종말론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참조, 렘 23:20; 30:24; 48:47; 단 10:14; 호 3:5; 미 4:1).

5. **㉠**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오르는 자들은 무엇을 외칠 것인가? (3절)

- ㉠** (1)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외치기를 ‘여호와의 산과 전(殿)에 오르자 그가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고 할 것이다.
- (2) 이것은 시내 산에서 제작된 성소가 시온으로 옮겨지고 이제는 더 확대되어 온 세상을 위해 개방되므로 예루살렘에서 흘러 나오는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의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진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날에는 그 책임을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한다(참조, 마 28:19, 20; 행 1:8; 롬 1:14-16).

6. **㉠** 말일에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 일로 인한 세상의 변화는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 결과 무리들은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들이 전쟁을 위한 연습을 하지 않을 것이다.  
 (2) 급작스런 전쟁이 나면 보습으로 칼을 만들고 낫으로 창을 만들지만(을 3:10)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화가 유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철로 만든 무기가 필요 없다(참조, 습 9:10).  
 (3) 이 말씀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은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민족들을 철저히 성화시켜서(참조, 살전 5:23) 더 이상 분쟁이 없도록 하신다는 의미이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궁극적인 평화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해야 한다.

7. **㉠** 이사야는 야곱 족속에게 무엇을 권유했는가? (5절)

- ㉠** (1) 그는 여호와와 빛에 행하자고 권유했다.  
 (2) 먼저 선지자가 '야곱 족속'이라고 부른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1절)의 주민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야곱의 집'이라고 부른 경우는 많이 있다(참조, 8:17; 10:20; 14:1; 46:3; 58:1).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말씀 안에 초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은혜이다(참조, 시 89:15, 16).  
 (4) 오늘날 이 은혜의 말씀에 초대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귀결되도록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참조, 롬 13:12-14; 엡 5:8, 9; 살전 5:8).

8. **㉠**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 족속을 버리셨는가? (6절)

- ㉠** (1)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또한 그들이 블레셋 사람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기 때문이다.  
 (2) 이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며(참조, 왕하 15:4; 16:3, 4; 17:10-12, 16, 17) 마술을 행하고(참조, 왕하 21:6; 미 5:12) 이방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참조, 60:10; 61:5).  
 (3)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수단으로 당신의 뜻을 알려는 잘못된 마음과 무절제하게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을 금하셨다(참조, 출 23:32, 33; 34:12-16; 레 19:26; 시 106:35).  
 (4) 이렇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자는 버림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와의 관계를 단호히 청산해야 한다(참조, 고후 6:14, 15).

9.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어떤 면을 지적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금과 보화가 많고 마필(馬匹)과 병거가 무수한 것을 지적하셨다.  
 (2)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이기 때문이다(참조, 신 17:16, 17).  
 (3) 당시 유다의 부는 극(極)에 달하였다(참조, 왕하 20:13; 대하 32:27).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느린 것은 왕들과 귀족층에게 자신을 과시(誇示)하는 수단이 되었었다(참조, 삼하 15:1; 왕상 4:26; 10:28, 29).  
 (4)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들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세상 재물이나 권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은 죄의 뿌리가 되기 때문이다(참조, 시 20:7; 골 3:5; 딤후 6:10).

10. **㉠**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유다 백성의 죄는 어떤 것들인가? (8, 9절)

- ㉠** (1) 그 죄는 그들의 땅에 우상이 가득하므로 그들이 스스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천한 자나 귀한 자가 모두 그 우상에게 굴복하여 절한 것이다.  
 (2) 유다의 몇몇 왕들은 우상 숭배를 허락치 않았으나(참조, 왕하 15:3, 34; 대하 26:4; 27:2)

우상의 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적(私的)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참조, 10:10, 11; 호 3:4).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하실 때는 외부의 어떤 환경을 보시지 않고 개인적인 상태를 보신다(참조, 행 1:25; 롬 1:17).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나 가족들의 신앙을 의지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없다.

11. **㉠**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어디에 숨으라고 하였는가? (10절)

- ㉠** (1) 그는 유다 백성에게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으라고 하였다.  
 (2) 유다 땅은 많은 부분이 석회석 바위로 형성되었는데 그 속은 넓은 굴이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할 때 그곳에 숨기도 하였다(참조, 사 6:2; 삼상 13:6; 22:1).  
 (3) 유다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 떨고 자신의 수치를 감추어야만 했다.  
 (4) 따라서 우리가 방심하여 일상 생활 가운데서 경건의 연습(참조, 딤펴전 4:8)을 소홀히 한다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항상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는 자가 될 것이다(참조, 잠 28:1; 눅 21:26).

12. **㉠** 유다 백성은 왜 바위 틈과 진토에 숨어야만 하는가? (10절)

- ㉠** (1) 그들은 여호와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해야 했기 때문이다.  
 (2) 여호와와의 위엄과 영광이 드러나는 때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날이지만(참조, 롬 8:18; 골 3:4) 반대로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된다(참조, 욥 38:13; 호 10:8; 살후 1:9; 계 6:15, 16).  
 (3) 따라서 세상의 재물과 모든 것을 신뢰하였다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영광이 드러날 때 자기가 의지하던 것에 숨으려 하지만 결코 숨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참조, 시 139:7, 8, 12).  
 (4)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뿐임을 알고(참조, 시 18:1-3; 37:39)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참조, 마 25:1-13; 계 19:7).

13. **㉠** 여호와와의 위엄과 영광이 나타나는 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1절)

- ㉠** (1)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된 결과를 표현한 말씀인데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낮아지므로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이에 반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높이 드러날 것이다.  
 (3) 이것은 불가피한 사건으로 교만한 자를 낮추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능력과 영예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모든 정사와 권세자는 굴복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을 것이다(참조, 욥 40:11-14; 시 46:10; 고전 37:13).

14. **㉠** '여호와와의 한 날'은 어떤 자들에게 임할 것인가? (12절)

- ㉠** (1) 그날은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自高)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할 것이다.  
 (2) 이날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 이미 정해져서 역사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때를 말한다(참조, 37:26).  
 (3) 이날의 비밀에 관하여는 예언자들에게 계시되었는데 오바다와 요엘 시대 이래로 독특하게 부각되었다. 즉 전세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나타나 세상의 높고 낮은 모든 창조물의 영역에서 세상적인 영광을 다스리시게 되어 마침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 앞에 낮아지게 된다.  
 (4) 그렇지만 이런 일에 있어서 교만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날이

입할 것을 알고 제신다(참조, 시 37:14).

15. **㉠**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13, 14절)

- ㉠ (1) 하나님의 심판은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산에 입할 것이다.
- (2) 인간 범죄의 결과가 자연까지 영향을 주는 것은 자연이 하나의 공통된 역사(歷史)로서 인간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은 자유 의지를 갖지 못한 창조물에게까지도 임하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과 영광에 자연도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역사의 종말에서도 나타난다.
- (4) 한편 이것은 은유적인 용법으로 인간을 암시하는데(참조, 욥 8:16, 17; 시 1:3; 렘 17:8) 특히 백향목은 교만한 것을 상징한다(참조, 겔 31:3).
- (5) 따라서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초같이 녹아지고(참조, 시 68:8; 함 3:6) 그들의 자랑거리가 수치의 증거로 변할 것이다.

16. **㉠**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된 구조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15, 16절)

- ㉠ (1) 그것은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입할 것이다.
- (2) 유다의 웃시아와 요담은 예루살렘과 국토를 확장시키는 데 열심을 내어 높고 가파른 요새를 세웠다.
- (3) 웃시아는 당시의 가장 취약지를 요새화하고 거친 땅에 망대를 세웠으며(참조, 대하 26:6-10) 요담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였고(왕하 15:32-35) 오벨 성을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을 쌓아 국방을 견고히 하였다(대하 27:3, 4).
- (4) 그래서 유다의 왕들은 하나님보다 이런 요새들을 더 의지하였는데 실제로 그들은 진정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임을 믿지 않았다(참조, 시 121편; 142:5).

17. **㉠** '다시스의 배'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 (1) '다시스의 배'란 주로 상업상의 일로 다시스에 드나들던 배를 가리키는데(참조, 왕상 22:48) 여기서는 웃시아가 에돔으로부터 항구 도시인 엘닷을 빼앗아(참조, 왕하 14:22) 아라비아의 진귀한 상품을 싣고 스페인까지 무역을 하므로 물질적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한다.
- (2) 이런 물질적 번영은 하나님 앞에 더 교만해지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 (3) 교만은 속세적 성공의 특색이고, 세속주의는 그 온상이다. 그러므로 재산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재력을 쌓은 자들은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그분을 버리게 된다(참조, 눅 12:16-21).
- (4) 그러나 이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참조, 눅 18:24, 25).

18. **㉠**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7, 18절)

- ㉠ (1) 그때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곧고 높게 뿔은 백향목이나 높은 산들을 불쾌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다만 사람들이 높은 것들을 헛되이 신뢰하는 마음을 싫어하신다.
- (3) 그런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겸손해지기는 커녕 오히려 더 완악하고 과격해지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애굽 왕 바로이다(참조, 출 8:15; 9:34).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그날'에는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무너져 먼지가 되고 그들의 우상은 궁극적으로 사라지며(참조, 숙 13:2) 교만한 인간들은 그분

의 진노 앞에 떨 것이다.

19. **㉠** '그날'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19절)

- ㉠** (1) 그들은 암혈(巖穴)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시는 그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다.  
 (2) 암혈(히, 메아라)은 자연적 동굴이고, 토굴(히, 메힐라)은 땅 밑에 뚫어 놓은 동굴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제한도 없이 우주적으로 모든 사람과 인간의 역사에 끼어든 전자연 위에 임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3) 즉 하나님의 심판이 범죄한 지상을 향해 떨어질 때 온 세상은 태초의 혼돈을 닮은 상태로 되어지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계 6:15, 16).

20. **㉠** 사람들은 '그날'에 자기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였는가? (20절)

- ㉠** (1) 그들은 자신들이 숭배하기 위해 만든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쥐와 박쥐에게 던질 것이라고 하였다.  
 (2) 여기서 '우상'은 히브리어로 <엘릴립>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이란 뜻을 갖고 있다.  
 (3)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우상들은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연인으로 부터 버림을 당하는 비참함과 수치로 느끼게 된다(참조, 호 2:5-7).  
 (4) 하나님의 형벌로서 자신들이 신뢰하던 우상이 무가치한 것을 깨달은 자들은 금과 은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방의 모든 신들은 마침내 쇠진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참조, 렘 10:11; 습 2:11).

21. **㉠**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고 어떻게 피할 것인가? (21절)

- ㉠** (1) 그들은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피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어려움을 피할 때 암혈이나 바위 틈에 숨었는데(참조, 10절; 출 33:22; 눅 23:30) 악인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서기 보다는 차라리 깊은 틈새로 숨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3)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어느 곳에 숨든지 그분의 재앙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참조, 욥 26:6; 34:22; 시 139:7-12; 렘 23:24; 암 9:2; 은 1:3).

22. **㉠** 하나님께서 의지하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인생은 단지 한순간의 호흡처럼 순간적인 존재에 불과하여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2) 인간의 생명은 종종 호흡으로 비유되었다(참조, 창 2:7; 욥 27:3).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따라 끊어질 수 있다(참조, 욥 34:14).  
 (3) 그러므로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때문에만 삶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더우기 인생은 한갓 그림자요 풀의 꽃과 같을 뿐이므로(참조, 욥 14:2; 시 90:9; 전 6:12; 약 4:14; 벧전 1:24) 그것을 의지하면 실망과 환멸만 남을 뿐이다.  
 (4) 한편 본절이 2장의 마지막에 기록된 이유는 앞에 나온 귀절들의 결과로서 만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귀절들의 전환점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뒷장은 인간의 교만과 헛된 신뢰를 주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파피한다는 선언으로 이어진다.

**본장의 요절**

'아급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빛에 행하자'  
(5절).

## 제 3 장 예루살렘과 유다가 죄로 인해 심판받다

단락구분 1-3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던 것을 제하시다 / 4-7 유다가 자중지난(自中之亂)에 빠지다 / 8-15 유다가 심판받는 원인 / 16-26 유다 여인들의 사치와 허영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시리라

4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6 혹시 사람이 그 아버지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네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7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축첩하였음이라

9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12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궤파하느니라

13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14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15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멧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16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7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18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19 귀고리와 팔목 고리와 면박과

20 차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21 지환과 코 고리와

22 예복과 겹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23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움을 제하시리니

24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술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25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26 그 성문은 슬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은 앞장에서 경고한 유다에 대한 심판이 계속될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들의 죄로 인해 황폐함을 당하고 모든 통치자와 허영에 찬 세속적인 여자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 (2) 이처럼 미래에 있을 주님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비록 이것이 괴롭고 어려운 고난일지라도 그들은 이런 징벌을 통하여 정화되고 왕국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참조, 1-4절;4:1-6).
- (3)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어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기 위한 과정이다.

2. **㉠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던 것을 제하여 버릴 자는 누구인가? (1절)**

- ㉡** (1) 그분은 주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 (2) 하나님의 이름이 본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 쓰여졌는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법적 활동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참조, 1:24;10:16,33;19:4).
- (3)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심판의 선언이 새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 앞에 나온 두 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범죄한 예루살렘에 대한 비난을 다루고 있다.
- (4) 즉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모든 관원과 존귀한 계층에 속한 자들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에게 줄 것이며(4절) 박해가 계속되고, 교만하며 반항적인 정신의 소유자들을 꺾으실 것이다.

3.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던 것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제(除)하실 것인가? (1절)**

- ㉡** (1) 그것은 양식과 물이다.
- (2) 여기서 양식과 물은 비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 불가결(必須不可缺)한 두 개의 요건들이며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기에 제일 먼저 언급되었다.
- (3) 생명은 양식과 물로 유지된다. 그래서 ‘의뢰하던 양식을 끊는 것’(참조, 레 26:26; 시 105:16; 겔 4:16;5:16;14:13)은 육체의 파멸과 같다.
- (4) 그런데 이런 저주는 레 26장과 신 2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과 로마의 침공 때에 흑심한 기근으로 인해 멸망당하므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참조, 애 2:20).

4. **㉠ 하나님께서는 양식과 물 다음에 어떤 것을 제하실 것인가? (2절)**

- ㉡** (1) 그 다음은 용사와 전사(戰士)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이다.
- (2) 이들은 국가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로서 용사와 전사는 국방을 위한 자들이고 재판관과 선지자, 그리고 장로는 국민의 지도자이었다(참조, 삼하 5:3;19:11;왕상 8:1;20:7;왕하 6:32 등). 복술자는 점장을 말한다(참조, 신 18:14;삼상 6:2;렘 27:9;29:8;겔 13:9;미 3:7;슥 10:2).
- (3) 그렇지만 이들의 권세와 지위는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또한 백성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참조, 시 146:3, 4).

5. **㉠ 끝으로 하나님께서 제하실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匠人)과 능란한 요술자를 제하실 것이다.
- (2) 오십부장은 계급이 낮은 군인들을 말하고(참조, 왕하 1:9,11,13) 귀인은 9:15과 왕하 5:1에서 ‘존귀한 자’로 표현되었으며 공교한 장인은 평화시이나 혹은 전쟁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다.
- (3)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특히 장인들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납치되어 갔다

(참조, 왕하 24:14; 렘 24:1).

- (4) 결국 범죄한 유다는 그들의 관습과 지도자와 자랑거리가 모두 파괴되고 그들의 성읍은 횡포자의 수중에 떨어지는 치욕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자들의 종말을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

6.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던 것을 제하신 후 그들의 통치권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이들로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赤子)들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2)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뚜렷이 나타내기 위하여 유능하고 신실한 통치자들은 제하여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겹잡고 쓸모없는 인물을 앉히실 것이라고 한다.  
 (3) 이들은 생각도 용기도 없으므로 철부지의 감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기분에 의해 다스린다.  
 (4) 이와 같이 통치자가 유약(幼弱)하고 미련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만다(참조, 잠 29:18; 전 10:16).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한다(참조, 딤펴전 2:1-3).

7. **㉠ 통치권이 약화된 뒤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 ㉠** (1) 그때에 백성은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殘害)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히 대할 것이다.  
 (2) 질서가 파괴되거나 이완되므로 상하 관계가 문란해져서 백성에게 극도의 혼란이 임할 것을 묘사한 것이다.  
 (3) 그러나 이것은 결코 새로운 일이 아니다(참조, 1:17, 21, 23). 하나님께서 통치자들을 돕지 않으실 때 나라의 혼란은 필연적이다. 이런 때는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현상(참조, 레 19:32; 미 7:3-6)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8. **㉠ 이러한 때에 닥친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6, 7절)**

- ㉠** (1) 지도자를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즉 입을 웃이라도 있는 사람을 관장(官長)으로 세우려 하면 그는 양식도 의복도 없으므로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다고 거부할 것이다.  
 (2) 어려울 때 정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여 난국을 수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걸하고 있다.  
 (3) 한편 '의복'이란 권위를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도 엘리야의 겹옷을 받아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이어받았다(참조, 왕하 2:12-14).  
 (4) 그래서 백성들은 지도자를 세워 나라의 멸망-외부로부터 오는 강한 세력으로 인한-을 막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다.  
 (5) 그러나 이미 위계(位階)가 무너져 경멸당하게 되자 그들의 친족들이 어려움을 호소해도 그 직책을 거절할 것이다(참조, 4:1).  
 (6) 이와 같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의지하던 것들을 제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어려운 사태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법 질서를 준수하여 모두가 평안하도록 통치자와 백성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9. **㉠ 사람들이 통치자의 지위를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기 때문에 통치자가 되기를 거절하였다.  
 (2) 그 청원을 받은 사람은 집에 옷도 없고 양식도 없었다. 그래서 무엇인가 원하는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능력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지도자의 위치를 거절한 것이다.  
 (3)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부유함이 그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참조, 전 9:15)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뿐임을 알아야 한다.

10. **Q**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A** (1)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 그 영광의 눈을 촉범(觸犯)하였기 때문이다.
- (2) 성경에서 허로 범하는 죄는 항상 비난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참조, 출 20:7; 21:17; 22:28; 23:1, 2; 시 31:18; 94:7 등).
- (3) 그런데 예루살렘과 유다는 그들의 말 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을 자초한 것이다.
- (4)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경멸하고 공의에 도전하였는데(참조, 65:3; 시 73:9-11) 오히려 그들은 그런 행위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 (5) 이것이 그들의 멸망 이유이며 개인이나 민족의 멸망도 역시 그들의 죄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11. **Q**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A** (1) 한 나라의 수도(首都)와 그 은 국도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거스렀다는 뜻이다.
- (2) '여호와를 거스리다'는 말은 창 4:8; 민 32:14; 수 10:6 에서처럼 적대감을 갖고 있는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과 동일시한 표현이다.
- (3) 또 '영광의 눈'이란 표현은 52:10의 '그 거룩한 팔'이라는 말씀과 유사한 구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나타내는 영원하고 영광스런 형태이며, 인간들은 단지 영원하고 영광스런 그분의 자태를 신인동성적(神人同性的)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다.
- (4)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의 형상 이상의 것들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런 영광스런 형상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유다 백성은 전혀 수치를 모르는 태도를 드러내 놓고 죄를 범하였다는 것이다.

12. **Q** 죄에 대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태도는 어떠한가? (9절)

- A** (1) 그들은 안색이 스스로 증거할 정도로 파렴치하여 죄를 숨기지 않는 것이 마치 소돔과 같았다.
- (2) 이것은 죄의 형태가 습관적이므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악행을 저지른다는 뜻이다. 마치 소돔의 백성들이 육욕과 정욕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공개적으로 행동을 취한 것과 같다(참조, 창 19:4, 5).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악행과 불의가 가득한 곳은 거기가 비록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소돔이 될 수밖에 없다(참조, 1:10; 겔 16:46, 48, 49).

13. **Q** 의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10절)

- A** (1) 의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 (2) 나라에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무리 혹독하다고 할지라도 경건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 즉 의인들이 지금은 악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해도 결국 그들의 상태는 행복할 것이다(참조, 신 28:1-14; 시 128:2; 전 8:12).
- (3) 또한 의인은 그의 선한 행위의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의심의 근거가 제거된 의인의 상태가 가장 훌륭하고 부요하다.

14. **Q** 악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무엇인가? (11절)

- A** (1) 악인에게는 화가 있을 것인데 그 손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다.
- (2) 이사야는 앞절과 대조하여 본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의도는 경건한 자에게는 하나님

의 위안과 축복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 (3) 즉 한때 의인의 불행은 행복으로 나타나고, 악인의 행복은 불행으로 나타난다는 의미이다(참조, 9절; 신 28:15-68; 전 8:13).
- (4) 이와 같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이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참조, 갈 6:7-10).

15. **㉠**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들은 어떻게 통치하는가? (12절)

- ㉠** (1)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아이요 또한 부녀자이다. 그들은 백성을 확대하며 유혹하여 백성의 다닐 길을 철폐하였다.
- (2) 이들은 무자격자요 폭군이며 지각이 모자란 자들이다. 그런데도 백성은 유약하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에게 복종하는 겁 많은 자들이 되었다(참조, 례 26:36).
- (3) 한편 70인역(LXX)에는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이삭 줍는 사람들’로 번역되어 압박자가 백성들의 산업을 여지없이 굶어 간다는 뜻을 보여 준다.
- (4) 이 말씀은 다시 4절과 연관되어 유다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후 어떤 상태로 변화되었는가를 다시 설명한 것이다.

16. **㉠**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 (1) 그분은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셨다.
- (2) 본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론자와 심판자로 부각시키시는데 오랫동안 참모시던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일어서실 때를 가리켜 ‘일어서신 것’ (참조, 2:19, 21; 33:10)으로 표현하였다.
- (3) 그렇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심판석에 앉아 계시실 때는 ‘앉으신 것’ (참조, 시 9:5; 율 4:12)으로, 하늘에서 강림하시어 (참조, 미 1:2-7) 고발자로 앞에 나설 때는 ‘서신 것’ (참조, 시 82:1)으로 기록되었다.
- (4) 변경할 수 없는 그분의 고소는 그 자체에 선고를 포함하고 있고, 그 집행은 거역할 수 없는 그분의 선고는 그 자체에 형벌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 (5)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고소자와 심판자, 동시에 집행자로서 온 백성들과 나란히 가운데 서신다(참조, 시 7:8). 그러나 여기서 특히 그분이 의도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인데 그중에서도 백성을 잘못 인도하고 태만한 지도자들이다.
- (6) 지도자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오도(誤導)할 때 그들에 대한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참조, 약 3:1).

17. **㉠**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鞫問)하셨는가? (14, 15절)

- ㉠** (1) 그 이유는 지도자인 그들이 백성들의 포도원을 못 쓰게 만들었고 가난한 자의 물건을 탈취하였으며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자의 얼굴에 멧돌질하였기 때문이다.
- (2) 지도자들의 위엄은 하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들의 직무도 그분을 신뢰하는 데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 백성들의 지도자들 앞에 큰 위엄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백성을 포도원에 비유하여(참조, 시 80:8; 렘 2:21) 그들에게 보살피도록 위탁하셨으나 오히려 그들은 포도원을 헤치는 맹수가 되어 버렸다.
- (4) 지도자들로 인해 공의가 정착되고 확산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공의가 왜곡(歪曲)되고 말았다.

18. **㉠** 하나님께서는 주로 어떤 죄에 대하여 지적하셨는가? (16-26절)

- ㉠** (1) 본장의 이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
- (2) 그들의 죄는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부정한 태도(16절)와 옷과 장식을 사랑하는 자(18-23절), 그리고 상업화되어(참조, 왕하 4:22) 외국 민족 특히 앗수르와 바벨론과 교통

하면서(참조, 왕하 16:7-10;20:12, 13) 사치가 증가한 것이다.

(3) 이런 외형적 사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道)에서 위배되는 행위(참조, 딤페전 2:9, 10)이다.

19. **㉠ 시온의 딸들은 어떤 행실로 돌아다니는가? (16절)**

- ㉠** (1) 그들은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고 발로는 쟁쟁(鏗鏘)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녔다.  
 (2) 여기서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여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지나치게 교만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탐욕을 나타내고 발목에 방울을 달고(18절) 돌아다녔다.  
 (3) 이는 이사야 시대에 살던 유다의 여인들이 얼마나 음란과 사치 등의 죄를 범했는가를 보여 준다.  
 (4)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정숙하기를 원하신다 (참조, 잠 31:10-31).

20. **㉠ 부정한 행실로 돌아다니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또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2) 정수리에 헌데가 나서 그들이 자랑하던 머리는 다 빠져 보기 흉한 대머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숙한 체하던 위선의 옷이 벗겨지고 이방인들에게 능욕당하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참조, 47:3; 렘 13:22; 겔 16:37; 나 3:5).  
 (3)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징벌하실 때 무서운 질병을 발하시고 음란에 대한 형벌로 살과 몸이 질병으로 소모되게 하신다. 사람들은 외형의 화려함에 시선을 빼앗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타락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21. **㉠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사용하던 장식품은 어떤 것들인가? (18-23절)**

- ㉠** (1) 이들의 장식품은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 화관, 발목 사슬, 띠, 향합과 호신부와 지환, 코고리, 예복과 걸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그리고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이었다.  
 (2) 이런 장식품에 대하여 다른 예언자들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에스겔 16장에서는 볼 수 있다.  
 (3) 이들의 장식을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장식품	용도
발목고리	애굽 12대 왕조부터 여인들이 사용. 재료는 금속 방울이나 돌
망사	머리를 감싸는 모자
반달장식	목 주위에 매다는 초생달 모양의 금속 장식(삿 8:21)
귀고리	앗수르와 애굽인이 사용(삿 8:26). 왕의 장식품
팔목고리	발목고리와 세트를 이루는 장식품
면박	여자의 신장용(新裝用). 베일보다 비싸다
화관	주로 남자들(제사장, 신랑, 고위층)이 사용(출 39:28)
발목사슬	두 발목을 연결하는 사슬. 걸을 때 밧을 내기 위한 것
띠	신부가 결혼식 때 착용하는 것(49:18; 렘 2:32)
향합	향을 담은 그릇
호신부	속에 글을 써놓은 보석이나 쇠붙이 판. 악마 방어용
지환	애굽에서 잘 알려진 물건(창 41:42). 고리나 반지를 의미
코고리	앞이마나 코의 윗부분에 장식하는 것. 동방 족장 시대 때부터 일반적 적으로 사용(창 24:22)

예복	완전히 갖추어 입는 정장(正裝). 주로 큰 행사 때만 입는다
목도리	몸을 감싸는 넓은 천(뭇 3:15)
손주머니	부자들이 남·녀 구별 없이 가지고 다니는 일종의 지갑
손거울	주로 청동을 갈아 만든 장식품
세마포옷	베일이나 훌륭한 천으로 가리는 것(참조, 잠 31:24)
겉옷	일반적으로 동방의 상류 여인들이 걸치는 가운 종류
머리수건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천을 꼬아서 머리에 두를 수 있도록 만든 천 (슌 28:4, 37, 39; 레 8:9; 16:4)
너울	머리 위에서부터 겉옷 위로 내려뜨려 입는 망토

22. **㉠** 예루살렘 여인들의 장식품이 제(除)하여 지고 어떤 것들이 그것을 대신할 것인가? (24절)

- ㉠** (1) 향 대신 썩은 냄새가, 띠 대신 노끈이, 대머리가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자자(刺字) 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다.
- (2) 한때 그들을 자랑스럽게 해주던 것들은 영원할 수 없고 오히려 썩은 냄새와 공허함만 남았다(참조, 15:2; 22:12; 겔 27:31; 암 8:10; 미 1:16).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외적인 단장보다 내적인 은유와 겸손이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은유와 겸손을 배워(참조, 마 11:29) 그대로 실천하므로써 더럽고 추하지 않은 그리고 썩지 않을 심령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다(참조, 신 10:17; 대하 19:7; 욥 34:19; 행 10:34; 롬 2:11).

23. **㉠**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장식품을 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5, 26절)

- ㉠** (1) 그때에 장정은 칼에, 용사는 전란(戰亂)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을 것이다.
- (2)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주자들이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되고 한때 어울려 모이던 성문은 황무한 상태로 변해 버리므로 그곳에는 고아와 과부만 남아 슬피하게 된다는 것이다(참조, 14:31; 렘 14:2; 애 1:4).
- (3) 오늘날 이런 고난에 처한 성도들은 원인이 시온의 딸들과 같이 자신의 평안과 육체적 정욕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이므로 다윗과 같은, 니느웨 성 백성들 같은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참조, 욥 2:13; 시 51편; 애 2:10; 온 3:5-10).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늘인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16절).



## 지도자료

선지자들의 행적. 엘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선지자들은 B. C. 9세기까지의 기간 동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방 국가에 대한 예언 활동을 하였다.



- ① 엘리야는 그린 시내에서 까마귀로부터 음식을 공급받았다(왕상 17:1-7).
- ② 아벨므홀라는 엘리사의 출생지이다.
- ③ 드고아는 아모스의 출생지이다(암 1:1).
- ④ 예루살렘 또는 유다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엘, 하박국, 스바냐 그리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예언 활동과 관계가 있다.
- ⑤ 예레미야의 출생지가 바로 이 아나돗이다(렘 1:1).
- ⑥ 옴바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 배를 탔던 곳이다(욘 1:3).
- ⑦ 아모스는 이곳 사마리아에서 불의한 자들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 ⑧ 가드해벨은 요나의 출생지이다.
- ⑨ 나훬는 니스웨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였으며(나 1-3장) 요나는 니스웨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였다(욘 3장).
- ⑩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언 활동을 하였으며 하박국은 바벨론의 번영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였다.
- ⑪ 오바다는 에돔에 대하여 예언하였다(욘 1장).
- ⑫ 호세아는 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하였다.

## 제 4 장 남은 자가 영광을 얻다

단락구분 1 하나님의 심판으로 남자의 수가 줄어들다 / 2 메시아가 남은 자들에게 영광이 되다 / 3-4 남은 자들이 정결케 되다 / 5-6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다

1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2 그날에 여호와와 짝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3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녹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4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광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5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집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6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은 곳이 되리라

### 1. Q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A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 범죄한 예루살렘이 패망할 때 모두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 남은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죄씻으심으로 인해 정결케 되고 거룩해지므로 영광을 얻고 아울러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지도자나 백성이 모두 범죄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장정과 용사들을 전쟁에서 모두 죽이셨다(3:25). 따라서 여인들은 수치를 면하기 위해 남자들을 붙들게 된다.
- (3) 그러나 멸망의 자리를 면한 경건한 자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해지고 피난처를 얻게 된다.
- (4) 성도들은 이와 같이 공포와 죄로 인한 황폐함 중에도 메시아의 날에 대한 소망과 진노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복음적 은총이 최대의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2. Q 그날에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무엇을 원하게 될 것인가? (1절)

- A (1) 그날에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고 할 것이다.
- (2) 먼저 본절은 장(章)의 구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본절은 앞장에서 여인들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을 형성하는 귀절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본절에서 '그날'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여인들의 장식품을 제하시던 때(참조, 3:16-24)를 가리킨다.
- (4) 본래 이스라엘의 혼례 풍습으로 남편은 아내를 위해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의무였다(참조, 출21:10). 그러나 그 여인들은 그런 법적 권리를 다 폐기하고라도 단지 한 남자의 아내로 불려지기를 원했다.
- (5) 왜냐하면 남편 없는 여인은 히브리 사회에서 면목이 없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녀를 생산치 못하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이다(참조, 54:4-8; 창 30:23; 삼상 1:6).
- (6) 한때 화려하게 치장하고 세상 정욕을 위해 살던 여인들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동분 서주(東奔西走)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진다.

(7) 따라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루살렘 여인들과 동일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3. **㉠** 3장과 본장을 연결해 주는 1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 1절에서는 앞장에서 언급된 예루살렘 여인들에 대한 위협이 마감되고 있다.  
 (2) 그러나 이 심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국가 지도자들을 향한 위협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나라 또는 민족 전체로서의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한 보편적 심판의 부분들이다.  
 (3) 이것은 지상의 높고 고귀한 모든 것들 위에 임할 포괄적인 심판의 묘사에 있어서 중심적 역할을 나타낸다.  
 (4) 따라서 예루살렘은 대심판 날의 중심이요 초점으로 나온다. 세속적 영광이 무르익어 심판을 받기 충분한 곳이 예루살렘이었고 또한 참되고 궁극적인 영광의 빛이 모일 중심점 또한 예루살렘인 것이다.  
 (5)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약속의 예언은 다시 시발점(始發點)으로 돌아가는데 그는 구체적인 서론 없이 곧바로 다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6) 이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에 구원의 매체가 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죄를 받고 구원받으며 영광스럽게 되는 날이다. 이사야는 이런 의미에서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며 심판의 시작과 더불어 구원이 일어날 것으로 하나님의 날들을 묘사해 가고 있다.  
 (7)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여러 가지 환난이 닥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첩경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한다.

4. **㉠** ‘여호와와 썩’과 ‘땅의 소산’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절)

- ㉠** (1) 이 둘은 모두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이다.  
 (2) ‘썩’은 히브리어로 (체마흐)인데 히 7:14의 의미로는 다윗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솟아나는 썩인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이다.  
 (3) 또한 ‘그 땅의 소산’은 종말론적 언약을 실현하는 데 나타나고 ‘여호와와 썩’과 병행(並行)하는 의미로 메시아를 가리킨다.  
 (4) 메시아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여호와로부터 나왔고 육신적인 면에서 볼 때 다윗의 자손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절에서는 후자의 설명을 위해 ‘그 땅’ (the earth)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5) <체마흐>는 예레미야(23:5;33:15)와 스가랴(3:8;6:12)도 채택한 용어이므로 이 귀절을 주목하게 된다.  
 (6) 한편 마태는 <체마흐>에 <네제르> (참조, 11:1;53:2)를 결합시켜 미래의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Nazarene)이라고 불린다 하여 이 사실을 근거로 본절의 말들은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한다(마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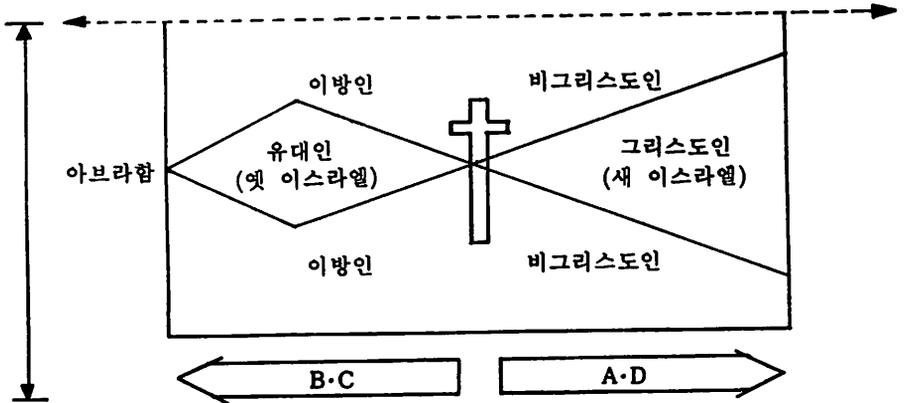
5. **㉠** 메시아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2절)

- ㉠** (1) 그분의 모습은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인데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답다울 것이다.  
 (2)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거리였고 능욕을 당하셨으나 이제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3) 메시아의 이런 모습은 신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 남은 자들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메시아를 믿는 자는 그분이 곧 영화로운 존재이며 모든 사람들 중에 뛰어난 분이심을 알기 때문이다(참조, 아5

:10; 벨전2:7).

6. ㉠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는 자들은 누구인가? (3절)

- ㉠ (1)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증 녹명(錄名)된 사람들이다.
- (2)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말은 종말론의 핵심적인 주제이며 동시에 미래의 소망을 집약한 개념이다.
- (3) 히브리어로 '남은 자'는 <샤아르>로 구약에 약 266회, 그리고 동일한 뜻의 아람어가 10회 사용되었다. 그 말은 '남아 있다', '남겨지다', '뒤에 떨어뜨리다'는 뜻으로 선지자 이사야가 '남은 자' 사상을 전개하는 데 주로 사용하였다.
- (4) '남은 자'는 파괴적인 의미 외에도 건설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즉 심판이 지나갔음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보호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 (5)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자들을 가리켜 '남은 자'로 말하지만 종말론적 개념에서 '남은 자'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과 동일시될 수 없다.
- (6) 왜냐하면 '남은 자'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을 다시 의로 세워 주셨기 때문이다(참조, 습3:13). 이러한 그들에게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 (7) 이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은 미래에도 계속된다(참조, 10:20-22; 11:11-16; 28:5, 6; 37:32; 렘 23:3; 31:7; 욥 1:17; 미 2:12, 13; 5:7, 8; 습 2:7, 9; 습 9:7; 14:16).
- (8) 신약에서의 '남은 자'는 잃어버린 양(마 10:6)이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현존하는 실체(롬 9:24)이고 은혜로 택정함을 입은 자인 영적 이스라엘(참조, 롬 9:8; 11:5, 7)을 말한다.
- (9)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의 변천 과정은 아래와 같다.



7. ㉠ '남은 자'들은 어떤 이름을 얻게 될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거룩하다는 칭호를 얻게 될 것이다.
- (2) 본절에서 강조되는 말은 '거룩하다', 즉 히브리어로 <카도쉬>이다.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도덕적 가치에 고려됨이 없이 단지 그들의 지위와 환경에 따라 구별되었다(참조, 3:1-3; 32:5).
- (3) 그러나 이제는 '거룩'이란 이름이 하나의 중요하고 영예로운 이름으로 될 것이고 또한 모든 개개인에게 그 이름이 주어질 것이다.
- (4) 여기서 '거룩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미래를 의미하고(참조, 1:26; 61:6;

62:4) 세상에서 구별될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은혜로 남은 자’의 특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8. **㉠ 남은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인가? (3절)**

- ㉠** (1) 시온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 중에 ‘녹명’ (錄名) 된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 (2) 녹명된 사람이란 ‘살아 있는’ (참조, 삼상 25:29; 시 69:29; 단 12:2) 혹은 ‘생명의 상속자’로 등록됨을 가리키고 있다(참조, 출 32:32; 시 69:28; 단 12:1; 계 13:8; 21:27).
- (3) 이 말은 예정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란 의미이며 행 13:48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과 같은 뜻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자로 우리를 규정지으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혹시 저주받은 자들이 잠시 당신의 자녀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지라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 (5) 그런데 성도들은 마지막 환난 중에서도 변함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고통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9. **㉠ 하나님은 무엇으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을 청결케 하실 것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청결케 하실 것이다.
- (2) 하나님의 영은 죄의 더러움과 불순함을 씻고 정결케 해주신다(참조, 대하 4:6; 말 3:2; 마 3:11; 눅 3:17). 이 영은 악을 제거하므로 ‘제질하는 영’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여기서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을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과 교회를 정화시키는 역할과 둘째는 의미하는 취지에 따라 심판하는 역할이다.
- (4)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참조, 겔 36:25; 히 10:22).

10.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으로 무엇을 청결케 하시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과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케 하실 것이다.
- (2)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은 그들의 허영과 음욕에 찬 몸치장(3:16) 안에 숨겨진 도덕적 불결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의 피는 그들의 살인적 행위, 즉 지도자들이 가난하고 순진한 자들에게 행한 법적 살인 행위를 뜻한다(참조, 왕하 21:16).
- (3) 우리도 내부에 있는 도덕적 불결함과 피흘리는 죄를 드러내야 한다. 그러므로써 성령의 죄씻으시는 은사를 받아야 한다(참조, 요 3:5; 고전 6:11; 딤후 3:5; 뱀전 3:21).

11. **㉠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 산이란 무슨 의미인가? (5절)**

- ㉠** (1) 이 말은 주로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곳이란 의미로 사용된다(참조, 18:4; 출 15:17; 왕상 8:13, 39; 대하 6:2, 30; 시 33:14; 89:14 등).
- (2) 오늘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 즉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다(참조, 마 18:20; 요 12:26; 고전 5:4).
- (3) 또한 유대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재하신 것처럼(참조, 출 33:9; 40:34-38) 당신의 교회에도도 임하실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 인도하셨듯이 생명책에 기록된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도 이와 같이 보호하실 것이다.

12.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온 산과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것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빛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 (2) 이런 방법은 자연적인 현상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뚜렷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 계시는 표시이며 또한 그분께서 만족해 하시는 표시이다(참조, 왕상 8:10).

- (3) 한편 본절에서 '구름과 연기'는 중언법(重言法)에 의해 표현된 것이므로 형체는 구름이면서 그 실체는 연기이고 '화염의 빛'은 무엇인가가 폭발할 때 발생하는 광채와 같아서 실제로 살아 있는 빛과 같은 것을 말한다.
- (4) 구름의 목적은 단지 그들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뿐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방어해 주는 벽과 같은 역할을 하며, 붉은 화염과 강렬한 빛으로써 적군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 (5) 따라서 이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보호로부터 그분의 성도와 교회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참조, 롬 8:35-39; 벰전 1:5).

13. **㉠** '남은 자'들이 피할 곳은 어디인가? (6절)

- ㉠** (1) 그들은 천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더위와 풍우를 피할 것이다.
- (2) 즉 시온과 예루살렘은 천막집이 되어 줄 것이다. 그곳은 안전하며 도피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이다.
- (3)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장소보다 가장 안전하다는 의미이다(참조, 시 27:5; 32:7; 91:9; 잠 18:10).

14. **㉠** '남은 자'들은 천막에서 어떤 상황을 피할 것인가? (6절)

- ㉠** (1) 그들은 천막에서 더위를 피하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을 것이다.
- (2) 더위와 풍우는 여러 가지 큰 위협들을 표현하는 실례로 쓰였다(참조, 25:4).
- (3)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구름으로부터 내리는 비는 최초의 홍수와 같은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다(참조, 창 7:11, 12, 22).
- (4)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과 시온은 낙원이 될 것이고 더 이상 파괴적인 기후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다.
- (5)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는 낮에는 연기 구름으로 밤에는 화염의 불길로 드리워진 시온과 같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 열방이 참여하게 되는 천막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는 온 세계로 퍼지는 복음 전파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본장의 요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2절).



# 제 5장 유다 백성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단락구분** 1-7 비유를 사용하여 유다의 죄를 지적하다 / 8-12 탐욕과 술취함에 대한 징벌 / 13-17 교만한 자들이 포로 되다 / 18-23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 24-25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노하시다 / 26-30 하나님의 진노가 외적의 침입을 통해 임할 것이다

1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쁨 진 산에로다

2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罇을 짚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 포도를 맺혔도다

3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쩔인고

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걸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들우지 못하여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7 대저 만군의 여호와와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으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8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흙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운 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졌고 한 호렘 지기에는 간신히 한 예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11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12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

와 포도주를 갖추어도 여호와와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13 이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주될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14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운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15 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16 오직 만군의 여호와와는 공평하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17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같이 먹을 것이요 살진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18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22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23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24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킬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질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었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의 말씀을 떨치하였음이라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26 기원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27 그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에는 끈

어지지 아니하며

28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같고 차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29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는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옮기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니

30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1. ㉠ 본장의 중심 사상을 설명하라.

- ㉠ (1) 본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징벌 계획을 기록하고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농부의 입장에서 유다 백성을 최상의 포도나무로 심으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벗어나서 탐욕과 술취함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하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 (3) 이런 죄의 결과는 토지의 황폐함과 외세의 침략과 포로지 유배라는 비극을 초래하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4)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죄의 상황들을 극복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모든 사람들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다 (참조, 18:22-32).

2. ㉠ 본장과 앞장들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 ㉠ (1) 본장은 주제상으로 볼 때 4장과 같지 않다. 앞장 마지막 절까지는 본장과는 서로 다른 예언적 권면으로 일관해 왔다.
- (2) 그러나 그 지배적인 사상, 즉 이스라엘 족속의 사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멸망과, 심판을 통한 그들의 정화 그리고 거룩성의 완벽한 확립에 관한 사상이 전체적으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본장은 그러한 말들의 연속으로 부연되지 않을 수 없다.
- (3) 이와 같은 사실은 본장의 내용들이 이미 2,4장까지의 내용들과 관련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즉 5:1-7의 포도밭 비유는 3:14에 있으면, 5:15에 나오는 귀절은 2:9의 후렴과 같은 반복이며 2:17도 그것과 유사하다.
- (4) 그렇지만 5장은 나름대로 독립성이 있다. 앞 부분과 5장 사이의 역사적 배경은 같다고 할지라도 5장에 나타나 있는 귀절들의 주된 뜻은 아주 다르다.
- (5) 즉 앞부분에서는 선지자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움과 자기 혐오로 인해 진정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했으나 이제는 그들의 사악한 모습을 생생하고 강력하게 묘사하고 있다.

3. ㉠ 선지자가 포도원 노래를 지은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생생하고 강력하게 드러내 주기 위해서였다.
- (2)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반복해서 외우며 또한 어떤 사건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는 중요한 귀절들이나 기억해야 할 만한 사건들을 시귀(詩句)로 표현하고 있다(참조, 출 15:1; 신 32:1).
- (3) 이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노래나 시 등을 활용하여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4. **㉠** 선지자는 누구에 관한 노래를 지었는가? (1절)

**㉡** (1) 선지자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 관하여 노래를 지었다.

(2) 이 노래는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에 대한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에 대한 노래로 나타났다.

(3)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란 하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말은 아가에서도 약 20회나 나오는데 창조자와 구속자가 가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다.

5. **㉠**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의 포도원에 무엇을 심었는가? (1, 2절)

**㉡** (1) 그는 기름진 산에 위치한 포도원에 땅을 파서 들을 제하고 극상품(極上品)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안에 망대를 세우고 술 틀을 판 후 그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으나 들포도를 맺었다.

(2) 이 노래에서 선지자는 네 가지자를 밝히고 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유다 백성에게 베푸셨던 은혜, 둘째는 백성의 배은 망덕(背恩忘德)이 매우 컸던 점, 셋째는 그에 뒤따르는 징벌, 넷째는 백성들이 행한 죄악들을 열거하고 있다.

(3) 본절의 노래는 행악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원하셨으나(갈 5:22, 23) 오히려 악한 열매를 거두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므로 그분을 실망시켰다(참조, 갈 5:19-21).

6. **㉠** 이 포도원 비유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1, 2절)

**㉡** (1) 이 비유에 있어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들포도 열매는 그들의 악행을 가리킨다(7절).

(2) 이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런 방법으로 지적하면서 그들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3)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그에 대한 반응을 원하셨지만 그 반응은 반대로 나타났다.

(4) 사랑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발견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인용하셔서 배역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셨다(참조, 마 21:33-41; 막 12:1-9; 눅 20:9-16).

7. **㉠** 선지자는 무엇을 판단하라고 하였는가? (3, 4절)

**㉡** (1)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루어진 일을 판단하라고 했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과 은혜로 돌보셨으나 그들은 오히려 악을 행함으로써 그분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다.

(3) 여기서 선지자는 자기 자신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선지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참조, 켈 16:3-34).

(4) 이 같은 방법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장감과 함께 강한 충격을 준다.

(5) 이런 방법으로 선지자는 그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였다. 하나님의 심판은 엄격하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의하여 스스로의 죄를 깨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이 져야 한다.

8. **㉠** 하나님께서는 들포도를 맺힌 포도원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5, 6절)

**㉡** (1) 하나님께서는 울타리와 담을 헐어 깃밭아 황무케 하시고 다시는 가지치기나 북을 들우지 못하므로 질려(蒺藜)와 형극(荆棘)이 나게 할 것이며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것이다.

- (2)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한 죄의 대가가 유대인들을 형벌로 몰고 가는데 그들은 이런 형벌을 통해 포도원의 안전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 (3)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보호를 철회하실 때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황폐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 그들이 악용했던 은총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 (4) 만약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형벌을 가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우리들을 징계하실 것이다(참조, 7:23-25; 왕상 17:1; 렘 14:1, 22).
- (5)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 원인이 인식의 부족이거나, 혹은 사악한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이든지 간에 다 우리의 잘못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 (6) 하나님의 은총을 완전히 빼앗긴 사람들은 한때 즐거워서 외친 기쁨의 소리가 울음 소리와 함께 이를 가는 결과만 남게 된다(참조, 마 22:13; 25:30).

9. **㉠** 선지자가 외친 이스라엘의 죄악은 무엇인가? (7절)

- ㉠** (1)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며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으나 그들은 도리어 포학을 행하였으며 의로움을 바라셨으나 그 땅에는 부르짖음만 남았다.
- (2) 일반적으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한다(참조, 시 80:8). 그러나 오늘날에 있어서 이 포도나무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로 발전하였으며 성도들은 그의 가지로 불리어지게 되었다(참조, 요 15:1, 5).
- (3)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었으나 이스라엘에는 살인 행위와 약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풀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의 부르짖음만 있을 뿐이었다.
- (4)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공의와 공평이 있는 삶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정치를 하든 아니면 상인이든 피고용인이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10.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8절)

- ㉠** (1) 가옥에 가옥을 연(連)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는 탐욕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만 부를 축적하고 편하게 지내려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禍)를 내리신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이웃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유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참조, 민 27:1-11; 33:54; 왕상 21:4).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행위, 혹은 다른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된다.

11. **㉠** 자신의 탐욕만 채우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가? (9,10절)

- ㉠** (1)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여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고 열흘같이 포도원과 한 호멜의 씨를 뿌린다 해도 소출이 적을 것이다.
- (2) 탐욕으로 많고 큰 집을 소유했음지라도 그곳에 거하지 못하고 넓은 포도원을 갈아도, 한 호멜의 씨를 뿌려도 노력한 만큼 거두지 못하게 된다.
- (3)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며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없다(참조, 암 5:11; 6:11; 눅 12:13-20).

12. **㉠** 이스라엘의 도량형에 대하여 설명하라 (10절).

- Ⓐ (1) 본절에 나타나는 명칭 중에 바트는 액체의 부피를 재는 단위이고 호멜과 에바는 고체를 재는 부피 단위이다.  
 (2) 부피의 단위를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칭	체	적	관계 성취
고체	갑 (Kab)	1.3ℓ	0.66되	왕하 6:25
	오 멜 (Omer)	2.34ℓ	1.2되	출 16:16
	스 아 (Seah)	7.33ℓ	4 되	창 18:6
	에 바 (Ephah)	22ℓ	12되	출 16:36
	반호멜 (Lethech)	110ℓ	6 말	호 3:2
	호 멜 (Homer)	220ℓ	12말	레 27:16 질 45:11-14
액체	록 (Log)	0.31ℓ	1.65홉	레 14:10
	갑 (Kab)	1.3ℓ	0.66되	왕하 6:25
	힌 (Hin)	3.67ℓ	2 되	출 29:40
	바 트 (Bath)	22ℓ	12되	왕상 7:26
	고르 (Kor) 혹은 호멜	220ℓ	12말	질 45:14

13. Ⓢ 세상 즐거움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12절)
- Ⓐ (1)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술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임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는 갖추었으나 여호와의 행하심과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은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2) 음주와 주연(酒宴)은 일반적으로 악으로 간주됐다(참조, 잠 20:1; 23:29-32; 전 10:16; 호 4:11).  
 (3) 이들은 아침부터 시작하여 밤 늦게까지 악기를 동원하여(참조, 암 6:5, 6) 즐겼다.  
 (4) 이들이 쓰던 악기들은 초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데 사용되었다(참조, 삼상 10:5).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참조, 신 32:4; 수 24:2-13; 대상 16:12-22; 시 92:4 등) 그들은 이런 일들을 모두 잊고 세상 연락만 즐기는 일에 전념하였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지 않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참조, 시 104:23).
14. Ⓢ 백성이 하나님의 행하심에 무관심하므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13절)
- Ⓐ (1)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관하여 무지(無知)하므로 사로잡히며 모든 자들이 목마를 것이다.  
 (2) 즉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임할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게 된다.  
 (3)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재난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다(참조, 호 4:6)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고 난 후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다.
15. Ⓢ 세상의 연락(宴樂)에 빠진 자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가? (14절)
- Ⓐ (1) 그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많은 무리와 떠드는 것과 그중에서 연락(宴樂)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다.  
 (2) 여기서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읍>인데 이것은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지옥이 아니라 단지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두운 곳을 가리킨다.

- (3) 세상의 향락은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손을 무디게 하여 기근과 칼로 인해 죽임을 당하게 한다.
- (4) 그런데 그들을 부르는 음부는 결코 족하다 하지 않고(참조, 잠 30:15, 16) 그들을 끌어 들여 채우며 그들에게 큰 고통을 제공한다(참조, 눅 19:25; 빌 3:19).

16. **㉠ 스스로 교만한 자들과 하나님은 어떤 위치로 바뀔 것인가? (15, 16절)**

- ㉠** (1) 천한 자나 귀한 자나 교만한 자나 다 낮아질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므로 그의 위대함을 보이시고 자기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의롭고 거룩하다 함을 받으실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높임을 받아야 하는 분이시므로 그런 대우를 원하셨는데 예루살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공의를 펼치심으로 증거하셨으며 의로우심을 명백히 나타냄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참조, 겔 36:23).
- (3) 결국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자신의 위치나 업적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교만한 자들은 낮아지며 선한 자들은 높아질 것이다.

17. **㉠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시는 날 약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 ㉠** (1)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같이 먹을 것이요 살진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을 것이다.
- (2) '어린 양'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 남은 자(4:3)를 말한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 고통당하던 남은 자들은 그 환난 중에서 구제받을 것이다. 그때 거기에는 그들을 두렵게 할 자들이 없을 것이다(참조, 겔 34:13-16).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 고통을 당할지라도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에 당신의 백성을 영광 가운데 올리실 것이다. 성도들은 이런 이유로 인하여 이 땅에서 겪는 잠시의 고통을 이겨 낼 수 있다.

18. **㉠ 거짓으로 죄를 끄는 사람에게 화가 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8, 19절)**

- ㉠** (1) 그들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를 끌며 수레 줄로 끌듯이 죄악을 끌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속히 우리를 벌하소서 우리는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 보려 합니다' 라고 하였다.
- (2) '끈'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이고 죄악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강박케 하는 유혹을 의미한다(참조, 잠 5:22).
- (3) 이는 거짓의 줄로 죄에 가득 찬 행위를 이끌었고 죄에 대한 수고로 아끼지 않았음을 가리킨다(참조, 욕 41:1; 호 11:4).
- (4) 이렇게 죄를 범하는 자들은 여호와와 날이 올 것을 의심하였고(참조, 렘 5:12; 겔 12:22) 그 결과 더 깊은 불신앙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하고자 하였다(참조, 렘 17:15).
- (5)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또한 죄의 소욕을 끊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욕 4:8; 시 129:4; 잠 12:9).

19. **㉠ 20절에서는 어떤 자에게 화가 있겠다고 했는가?**

- ㉠** (1)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 (2) 여기서 악, 암흑, 쓴 것이란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부도덕적이고 부정적인 원리들을 가리킨다.
- (3) 본절에 나오는 악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윤리적 원칙들을 무너뜨림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화는 당신의 율법에 위배되는 도덕률(道德律)을 채택한 자들에게 임할 것이다.

- (4) 성경에서는 일관성 있게 빛은 선을, 어둠은 악을 상징하며(참조, 삼상 2:9; 삼하 22:29; 욥 29:3; 시 112:4; 잠 2:13; 전 2:13; 마 6:22; 요 1:19; 행 26:18; 롬 13:12; 고전 4:5) 또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 예레미야는 악한 것을 '쓰다' (2:19; 4:18)고 말하였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달다' (시 119:103)고 표현하였다.
- (5) 도덕적인 선과 악의 기준을 뒤엎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종교 지도자는 신앙 양심에 따라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한다.

## 20. ㉠ 교만한 자들은 무슨 일을 당할 것인가? (21절)

- ㉠ (1)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 (2) 이는 겸손함이 부족하여 예언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였던 자들을 가리킨다.
- (3) 이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닥치는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참조, 욥 28:28; 잠 1:7; 3:7; 전 12:13).

## 21. ㉠ 22, 23절의 경고는 어떤 자들을 향한 것인가?

- ㉠ (1)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빗기에 유력한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데 그들의 또 다른 죄악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은 것이다.
- (2)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11, 12절에 언급된 자들의 죄와 유사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부패로 인하여 비난의 대상이 된 것이다. 그들은 당시에 유력한 자들이었으나 유죄와 무죄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쾌락(술)에 젖어 있고 부정직한 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쓸데없이 술 마시는 일에 힘을 낭비하고 술취함으로 공평의 원리에 역행하는 자들(참조, 28:7; 잠 31:5)에게 하나님의 화가 임할 것이다.
- (4) 때때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송사에서는 돈이나 권력이 공평과 정의를 급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공의를 급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불의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 22. ㉠ 하나님의 화를 당한 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24절)

- ㉠ (1)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그들은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키고 마른 풀이 불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릴 것이다.
- (2) 이 화를 당하는 원인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 (3) 모든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은 파멸과 몰락이다. 그러나 11:1에서 볼 때 이 파멸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절에 주어지는 모든 경고는 개인적이라고 볼 수 있다(참조 8, 11, 18, 20-23절; 말 4:1).
- (4)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공정함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율법과 통치를 거부한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마저도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다.

## 23. ㉠ 하나님께서 노를 발하시므로 범죄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5절)

- ㉠ (1) 하나님께서 노하시 당신의 백성을 치시므로 산들이 진동하고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糞土)같이 되었다.
- (2) 본절은 더욱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는데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신 것이다.
- (3)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인데 그 격렬함은 주위의 자연에까지 악영향

을 미치게 된다. 한편 이 심판은 실로와 에브라임 간의 전쟁(참조, 대하28;5, 6)으로 인하여 유다에 발생하게 될 대량 학살 사건을 의미한다.

- (4)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피비린내 나고 격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義)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으신다(참조, 9:12, 17, 21; 10:4).

**24. ㉠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유다를 심판하시는가? (26절)**

- ㉠** (1) 하나님께서 먼 나라들에게 기를 통하여 신호를 보내어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사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저버린 유다를 치시면서 그 일의 수행자로 인간을 세우셨다. 즉 유다 백성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나라들을 불러 당신의 심판의 수행자로 세우신 것이다(참조, 7:18; 신 28:49).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걱정하시지만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임의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시행하실 수 있다.  
 (4) 따라서 우리는 택함 받은 자라고 스스로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은 것은 우리의 월등한 조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일 뿐이다(참조, 엡2:8).

**25. ㉠ 하나님의 도구로 부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6, 27절)**

- ㉠** (1) 그들은 빨리 달려올 것이지만 피곤하거나 조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신들에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2) 즉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하여 달려오는데 그들의 뒤에 처지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참조, 14:31; 신 25:18).  
 (3) 이러한 사실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의 후원자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121:4). 그러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들도 마땅히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

**26. ㉠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의 무기는 어떤 특징을 지니는가? (28절)**

- ㉠** (1)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굽은 부싯돌 같고 차 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다.  
 (2) 앗수르인들과 동양의 다른 나라들은 전쟁할 때 활과 살을 자주 사용하였고 고대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끈질 병거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종류의 전쟁 무기를 총칭한 것이라 볼 수 있다.  
 (3) 이들이 병거를 타고 달려오는 모습은 신속하고 황급하다.  
 (4) 즉 이들이 달려올 때 그 앞의 장애물이 막지 못하고 마치 회오리바람이 이들을 몰아오는 것과 같은데(참조, 66:15; 렘 4:13) 나훔은 이것을 번개에 비유하였다(참조, 나 2:4).

**27. ㉠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29절)**

- ㉠** (1)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고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켜도 그것을 그것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2) 히브리인들은 일반적으로 수사자보다 암사자를 더 힘센 것으로 간주하였다(창 44:9; 민 24:9; 나 2:11). 그리고 어린 사자가 굶주림으로 울부짖는 것처럼 침략자의 합성이 대단할 것을 강조하였다.  
 (3) 그래서 유다를 침공하는 앗수르가 마치 먹이를 앞에 둔 암사자와 어린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군대는 그 힘이 막강하여 막을 자가 없고 반면에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이 사라질 것이다.

**28. ㉠ 먼 곳에서 달려오는 자들과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30절)**

- Ⓐ (1) 그날에 원방 백성은 바다 물결소리 같이 유다 백성을 향해 부르짖는데 반해 유다 땅에는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울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당신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계속 범죄하여 마침내 회개해야 할 시기마저 놓쳐 버렸다.
- (3) 여기서 유다를 침공할 세력을 비유적으로 홍수로 표현하였는데 유다 백성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늘이나 땅을 살펴도 피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진퇴 유곡(進退維谷)의 위기에 빠지고 말 것이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한 명도 없다.
- (4) 그들이 피하려는 곳에서 오히려 재난과 곤난이 다가온다. 이런 사실은 앗수르와 바벨론, 메대, 바사를 거쳐 로마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성하시면 바다나 하늘, 땅 아무 곳이라도 피할 것을 주시지 않고 철저히 심판하심을 알 수 있다(참조, 시 138:8).
- (6) 그러므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깨달은 자는 신속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해야 한다(참조, 삼하 12:13).

### 화보자료

폐허가 된 성(城)에서 풀을 뜯는 송아지. 예전에는 화려했겠지만 현재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옛 성의 벽과 계단 틈새에 난 풀을 뜯어 먹는 송아지의 모습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었음을 보여 준다(5, 6절).



남왕국 유다의 여러 죄악들, 즉 사치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강탈하며(8-10절), 방탕한 생활과 연락을 즐기고(11, 12절), 뇌물로 인해 불의한 재판을 하는(23절) 등의 악행은 결국 그들의 몰락을 초래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 제 6 장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

단락구분 1-4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 5 선지자가 자신의 부정한 모습을 발견하다 / 6-7 이사야가 깨끗해지다 / 8-10 이사야가 사명을 받다 / 11-13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기간

1 옷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 모여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록

4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6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숲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

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11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 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12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13 그중에 심분의 일이 오히려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 1. ㉠ 본장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이사야가 예언자의 길을 걷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는 환상을 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주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데 이사야는 그중에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죄인임을 고백하였다.
-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비록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그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 후 당신의 일을 맡기심을 알게 된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군을 선택하실 때 먼저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를 고르시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참조, 딤후 2:25).
- (5) 따라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참조, 롬 3:23; 6:23)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해야 할 과제이고, 그 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를 갖추어야만 한다.

### 2. ㉠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환상은 어떤 것인가? (1-4 절)

- ㉠ (1)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시고 주위에는 스랍들이 모여 서서 여호와와 영광을 찬송하는 모습이였다.

- (2)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운명에 대한 당신의 경륜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따라서 본장의 환상은 겔 1:4-28에 기록된 에스겔의 첫번째 환상과 비교할 수 있는 유사성이 있다.

3. **㉠** 이사야가 환상을 본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B. C. 739)이다.
- (2) 웃시야는 B. C. 790-739년까지 52년간 통치한 남왕국 유다의 10대 왕이었다(참조, 왕하 15:1-5; 대하 26:1-23).
- (3) 웃시야가 통치하던 시대의 유다는 솔로몬 왕의 시대처럼 번영하고 활력이 넘치던 평화의 시기였다. 바로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한 것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자로 선택된 것이다.
- (4) 이때가 바로 웃시야가 죽던 B. C. 739년이었는데 1:1과 비교할 때 그의 통치하에서의 공직 생활이 아주 짧았음을 알 수 있다.
- (5) 그러나 이것은 대하26:22에 이사야가 웃시야의 모든 통치기를 망라한 연대기를 기록했다는 언급과는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 (6) 역대기의 언급대로라면 이사야는 웃시야가 사망하기 오래 전부터 활동했다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7) 만일 이사야가 본질의 말씀과 같이 웃시야의 죽던 해에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았다면 역대기의 언급은 웃시야의 생애와 시대에 대한 회고록으로서 선지자 이사야의 소명의 시작과 부합(符合)된다.

4. **㉠** 선지자가 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1절)

- ㉠** (1)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참조, 왕하 6:17) 초감각의 상태를 현실적인 감각으로 깨닫게 하셨다.
- (3)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에게 나타나는 환상은 지상의 성전이었지만(참조, 겔 8:3; 10:4, 5; 암 9:1) 여기서 말하는 '높이 들린 보좌'는 언약의 궤로 만들어진 지상 보좌에 대한 하늘의 원형이다.
- (4) '성전'은 히브리어로 <헤칼>인데 여자적(如字的)으로 볼 때 위대한 하나님의 궁전인 성전에 붙여지는 이름으로 커다란 홀을 말한다. 따라서 시 11:4; 18:7; 29:4과 다른 귀절들에서 처럼 <헤칼>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가리킨다.
- (5) 하나님은 옷자락이 달린 옷을 입으신 것으로 증명되듯이 성전을 가득 채운 인간의 형상(참조, 겔 1:26)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다.
- (6) 신약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이분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였다(참조, 요 12:41).

5. **㉠**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주위에서 모셔 선 자들은 누구인가? (2절)

- ㉠** (1) 그들은 스랍들인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중 둘로는 얼굴을,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나머지 둘로는 날아다녔다.
- (2) 스랍이란 말은 '불태우는 자' 또는 '불뱀'이란 뜻이며 천사의 계급 중의 하나이다.
- (3) 스랍들의 수효와 모양 및 기능에 관하여 성경상의 자료는 극히 제한적이어서 본장에만 언급되어 있다.
- (4) 그러나 본질의 복수 명사는 아마도 셋이나 또는 그 이상의 다수를 암시하는 것 같다.
- (5) 스랍들이 네 개의 날개로 얼굴과 발을 가리웠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낸다.
- (6) 또한 스랍들은 초자연적 내지는 천사적 존재의 계급에 속한 것으로 계4:6-8에 나오는 생물들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그룹들과도 유사한 존재이다.

(7) 이들은 하나님의 보좌 좌우나 위에 날아다니거나 모셔 서는 수행원들 내지 시종들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는 대변인으로 행동하였고(6, 7절) 이들의 주요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다(3절).

6. **㉠** 하나님을 모셔 선 스랍들은 어떤 말로 찬양하였는가? (3절)

- ㉠** (1) 그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찬양하였다.
- (2)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함에 있어서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였다.
- (3)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거룩함이 가장 본질적이므로 피조물들이 그를 예배한다는 것은 곧 그의 거룩성을 예배하는 것이다(참조, 계 4:8).
- (4) 여호와와는 본래 거룩하신 자, 즉 구별된 분으로서 세속을 초월한 진정한 빛이시며 한점 오점도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분이시다.
- (5) 따라서 스랍들은 그들의 의무에서가 아니라 자원(自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것이다.
- (6) 이처럼 스랍들은 하늘과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일이 그들의 고유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7. **㉠**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세 번을 외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3절)

- ㉠** (1) 이것은 삼위 일체(三位一體) 하나님께 대한 각각의 경배를 의미하며 또한 이사야가 여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소명을 받았음을 뒷받침해 준다.
- (2) 먼저 선지자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 즉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이런 스랍들의 찬양을 듣고 사용한 것이며, 이 이름은 1:2-4:5에 예언한 말씀에 즐겨 썼던 것을 볼 때 여기서 처음 소명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3) 또한 세 번 '거룩하다'고 찬양한 것은 계 4:8에 그룹들의 3부곡(三部曲)과 마찬가지로 삼위 일체 하나님을 지칭했다. 왜냐하면 '3'이라는 수자(數字)는 발전 되어진 상태의 수이며 그 속에 모든 것을 포함하기 있기 때문이다.

8. **㉠** 스랍들의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4절)

- ㉠** (1) 이같이 창화(唱和)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케 되었다.
- (2) 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지방을 흔들 만큼 힘있는 목소리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갖도록 요란한 소리로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 (3) 또한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의 징조로서 자주 나타난다(참조, 왕상 8:10). 또 다른 면에서 연기는 진노나 심판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참조, 출 19:18; 20:18; 계 15:8).
- (4) 그러나 이런 사건들과 본질의 연기는 평행선상에서 대등하게 비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언급한 귀절들에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자신을 감추신 연기 구름에 의해 증명하셨으나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 (5) 특히 이번 경우는 스랍들의 찬양의 결과로써 보여진 것, 즉 연기는 스랍들의 찬송에서 기인한 직접적인 결과일 뿐이다.

9. **㉠**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연기로 나타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사람들이 정당한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위엄을 알아보려 할 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 (2) 둘째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다윗이 그의 시편에서 분노하신 하나님을 묘

사할 때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97:2) 라고 말한 것과 같다.

(3) 여기서는 둘째 이유가 본문과 부합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유다 백성의 눈이 멀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10. ㉠ 하나님의 영광을 본 선지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5절)

- ㉠ (1) 그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의 입장에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하늘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데 (참조, 욥 15:15) 하물며 죄로부터 전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인간(참조, 롬 3:23)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는 대면할 수 없다.
- (3)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거리는 너무 먼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스랍들까지도 얼굴을 가리지 않고는 못 견딜 만한 상태인데 선지자는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죄인된 백성들과 함께 거하였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4)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죄인들에게는 삼키는 불(33:14)과도 같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들은 매일 자신을 죽여야 한다(참조, 고전 9:27; 갈 5:24).

11. ㉠ 부정한 모습을 발견한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6,7절)

- ㉠ (1)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저(火箸)로 단(檀)에서 취한 핀 숯을 가지고 날아와 입에 대고 말하기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하였다.
- (2) 부정한 선지자의 입을 숯불로 정결케 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정한 ‘입술’의 정결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이다.
- (3)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깨끗케 하신 이유는 그를 향한 당신의 은총을 넓히고 연장시켜 더 높고 거룩한 자리로 높이신 후 백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였다.
- (4) 그를 정결케 한 불은 ‘단에서 취하였’는데 이는 하늘로부터 온 신성한 것임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다른 불’을 단으로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레 10:1). 이리므로 이 특이한 사건으로 인해 이사야는 모든 정결함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참조, 22:14; 27:9; 렘 1:9).
- (5)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만 가능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참조, 요일 1:7).

12. ㉠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성결케 하기 위해 숯불을 사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6,7절)

- ㉠ (1) 이것은 ‘핀 숯’이 아니고는 이사야가 깨끗함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결케 된 사실에 대한 확증과 증거로써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적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당신의 역사하심을 효과적으로 증명하시기 위해 상징에다 실재를 결합하여 보여 주신 것이다.
- (3) 따라서 스랍은 그들 자신이 죄악을 정결케 하는 장본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신성한 언약을 제시하는 자로서 선지자의 입술에다 숯불을 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식’을 집행하는 것이다.
- (4) 이런 의식은 오늘날 성례식에서도 발견되는데 성례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지 않은 상태라면 그 의식이 아무 의미가 없다. 성례식은 우리의 신앙적 무지(信仰的無知)에 대하여 확신을 주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의식이다.
- (5)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 준다(참조, 마 10:32; 행 16:31; 롬 10:9, 10; 빌 2:11).

13. ㉠ 정결케 된 이사야가 소명(召命)받은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8절)

- ㉠ (1) 이사야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하자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였다.

- (2) 이사야는 본절에서 환상의 의도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세우시는데 그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믿기 힘든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3) 여기서 부르시는 주체가 삼위 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신을 위해 일할 일군을 파송하실 때 '우리' 라는 복수형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창 1:26).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혜와 능력이신 아들과 성령과 함께 만물에 대한 구속 계획을 의논하시는 모습이다.
- (4) 이에 대한 선지자의 반응은 믿음에서 출발한 자원(自願)이었다. 즉 이사야는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온전한 헌신을 결심했다.
- (5) 본절을 통해 볼 때 이사야가 첫번째의 소명을 받은 것이 우시야의 죽던 해임을 확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히 알고 백성 중에 거했기 때문이다(5절).
- (6)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를 갖추고(참조, 욕 33:23; 전 7:28) 하나님의 일에 대한 확신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참조, 50:4-7).

14. **㉠**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말씀을 백성에게 외치라고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외치라 하셨다.
- (2) 왜냐하면 유대 백성이 그들의 고집과 반역으로 하나님의 율례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거나 열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의 참된 의도와 의미에 대해 그릇된 편견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의 비밀을 아는 지식을 허락지 않으셨다(참조, 마 13:14, 15; 막 4:12; 눅 8:10; 행 28:26, 27; 롬 11:8).
-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종들을 보내사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패역하고 죄에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는데 먼저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이런 무지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다.

15.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을 외치라고 하신 의도는 어디에 있었는가? (9절)

- ㉠** (1)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망하지 않도록 함이었다.
- (2) 왜냐하면 유대 백성은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의 외침을 간과(看過)할 수 있고 반역 행위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이사야는 이런 일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며 중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끝까지 순종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격려하시기 위해 이 말을 외치라고 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에도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주시면서 환난 중에서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다(참조, 갈 6:9; 엡 3:13).

16. **㉠**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고자 함이다.
- (2) 왜냐하면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 (3) 하나님의 이런 뜻은 한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된 것이다.
- (4)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다.

(5)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감(靈感)을 제거하사 당신의 은총의 효과를 느끼지 못하게 하시며 영적인 귀를 무디게 하시고 영안(靈眼)을 완전히 안 보이게 하셔서 심판을 받게 하시려 했다.

17. **㉠**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10절)

- ㉠** (1)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다.  
 (2)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료받는 첫 단계가 회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3)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해를 하시고 정계의 채찍을 거두어 들여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신다.  
 (4) 이 순서를 통해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로 초대함에 있어서 그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5) 이것은 복음의 한 면으로, 당신께서 회개하라(마 3:2)고 외치시는 것은 우리와 화해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려 함이다.  
 (6) 그러므로 만일 우리 귀에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순간 우리 자신의 잘못을 점검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그 잘못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한다.  
 (7)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참조, 요 6:44)이다. 따라서 그 선물을 거부할 때 그분의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18. **㉠**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하였는가? (11절)

- ㉠** (1)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어려운 임무를 어느 때까지 계속해야 할 것인가 질문하였다.  
 (2)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에 대해 경건한 근심을 표명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의식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동정 의식을 가지고 질문하였다.  
 (3) 선지자들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인간적 감정을 버리지 않는다. 강하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제들을 위한 동정심으로 심판을 외칠 마음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감정에 얽매일 때도 있다.  
 (4)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 사적인 정에 이끌려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5) 예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것처럼(참조, 마 4:20, 22)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분의 부르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감정들을 억제해야 한다.  
 (6)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 자세와 우리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수 있는 자제력이 필요하다(갈 5:16-23).

19. **㉠** 이사야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까지라고 하셨는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全廢)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라고 하셨다.  
 (2) 이것은 범죄한 유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심판은 유다가 완전히 황폐할 때까지 이를 것이고 혹시 전쟁에서 살아 남은 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라고 확언(確言)하는 말씀이다.  
 (3) 따라서 거듭 범죄하는 자에게는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질 때 그들의 부르짖음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20. **㉠**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심판 중에도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듯이 백성이 모두 멸절된다고

할지라도 그중에 거룩한 씨는 남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맥을 이어갈 것이다.

- (2) 이 그루터기는 '거룩한 씨'로서 옛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된 후 새로운 이스라엘이 솟아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 (3) 다만 그 조건은 회개한 자들로서 회개한 몇몇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된 미래에 물려받을 것이다.
- (4) 따라서 대다수는 절망적으로 버림을 받지만 계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거룩한 씨'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성장하여 그 열매가 온 땅을 충만케 할 것인데(참조, 17:6) 이는 곧 이방인의 구원을 의미한다(참조, 롬 11:12).
- (5)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의 그루터기로서 우리를 부르신다.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남아 있는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히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퍼뜨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

### 화보자료

스람(Seraphim)과 선지자 이사야. 아래는 「성모 마리아에 관한 설교」라는 제목을 가진 12세기의 사본에 나오는 삽화이다. 현재 이 책은 아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정결이 필요하다(참조, 렘 1:9). 그래서 한 스람이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제단의 숯불로써 정결케 했던 것이다(6-8절).

# 제 7 장 하나님의 징조로서 임마누엘

단락구분 1-2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다 / 3-9 이사야가 아하스를 격려하다 / 10-13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다 / 14-16 하나님께서 친히 메시아의 징조를 주시다 / 17-25 앗수르를 통하여 유다에게 위협이 오다

1 앗시리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후이 다윗 집에 고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3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숨은 뒷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중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쟁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

5 아람과 에브라임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피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6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곤하게 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파하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을 삼자 하였으나

7 주 여호와와 말씀에 이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8-9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도 육십 오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라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였다 할지니라

10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12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우시게 하려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뼈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한 바 되리라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비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의 오는 날이니라

18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지경의 파리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19 다 와서 거친 끝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20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 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21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22 그 내는 젖이 많으므로 뼈터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뼈터와 꿀을 먹으리라

23 그날에는 천 주에 온 일천 개의 가치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질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24 온 땅에 질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꿀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25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질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밟는 곳이 되리라

## 1. ◎ 본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유다 당시 시대적 상황이 어려워 아하스가 두려워 떨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징조를 주시면서 공포심에서 벗어나라고 격려하신 말씀이 기록되

어 있다.

- (2) 그러나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앗수르 왕에게 줄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을 훼손하였다(참조, 대하 28:21).
- (3)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하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앗수르 왕에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대하 28:20).
- (4)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때는 무조건 주시지 않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돌아오게 하신 후 그것을 거부하면 그때에 비로소 심판하신다. 과거에 아하스에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원리가 적용된다.

2. **예루살렘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1절)**

**A** (1) 그때는 유다 왕 아하스 때이었다.

- (2) 아하스가 통치한 때는 B. C. 742-725년으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때는 그의 통치 말기인 B. C. 731년경이다.
- (3) 이 사건에 대하여 열왕기와 역대기 저자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에는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합세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왕하 16:5).
- (4) 한편 역대기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전에 아하스가 두 번이나 패배한 기록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람에 의하여(대하 28:5)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의하여(대하 28:6) 대패하여 큰 손실을 입었다.
- (5) 그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려 할 때에는 예루살렘이 포위될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3. **웃시야 때 예루살렘을 침공한 자들은 누구인가? (1절)**

**A** (1) 그들은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였다.

- (2) 르신(Rezin, B. C. ? -732)은 다메섹의 마지막 왕으로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B. C. 744-727)에게 정복당하여 죽었다. 그는 앗수르가 우라르투(Urartu)를 공격할 때(B. C. 737-735) 이스라엘의 베가와 동맹하여 앗수르의 대항 세력을 구축하였다.
- (3) 베가는 북이스라엘의 18대 왕으로 B. C. 752-740-732년에 통치하였다. 그는 브가히야에게 반역하여 왕위를 찬탈했으며(왕하 15:23-25) 르신과 유다도 동맹하고 앗수르에 대항할 군사 동맹에 참여할 것을 강요했다.

4. **다윗 집에 전해진 소식은 어떤 내용인가? (2절)**

**A** (1) 그것은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다는 소식이다.

- (2) 일반적으로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으나(참조, 왕상 15:20; 20:1-3; 22:3-36; 왕하 5:2; 6:8-24; 8:29; 10:32; 13:3, 22, 25) 때때로 큰 위험이 닥치면 그 관계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래서 잠정적인 동맹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 (3) 여기에서도 이들 사이에는 전쟁을 위한 동맹이 맺어졌으며 그들의 연합된 힘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서로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 잠시 화친하기도 하는데 그 예로 빌라도와 헤롯도 예수를 심문할 때 서로 화친하였다(참조, 눅 23:12).
- (5) 한편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말은 예언서 중에 흔히 나타나는데 이는 그 말 가운데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 (6) 즉 에브라임 지파가 수와 재물에 있어서 다른 지파보다 우월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

엘의 최초의 왕 여로보암이 그 지파에서 났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11:26).

5. **㉠** 아람과 예브라임이 동맹했다는 소식을 접한 아하스와 그 백성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2절)

- ㉠** (1) 그 소식을 접한 유다의 왕과 백성의 마음은 삼림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  
 (2) 왕과 백성은 충격을 받아 두려움에 빠졌는데 이는 그들이 평안할 때 하나님의 통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즉 그들이 공포에 빠진 것은 죄의식과 함께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었다.  
 (4) 우리가 거저써만 한 믿음이 있다면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가 될 수 없다. 물론 그때에 전혀 동요하거나 놀라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마저 바라볼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다.  
 (5) 이제 경건한 자들과 악인의 차이가 명백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악인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을 위한 길을 찾지 못하고 놀라지만(참조, 레 26:36) 의인들은 잠시 불안에 빠져 고통을 당해도 즉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발견하게 된다(참조, 시 46:2, 3; 122:7; 행 24:16).

6. **㉠** 이사야의 아들은 누구인가? (3절)

- ㉠** (1) 그는 스알야숨(Shear-Jashub)이었다.  
 (2) 그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으로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3) 즉 이사야의 메시지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리라는 내용이 중심이지만 그곳에서 정결케 된 자(남은 자, 그루터기)는 다시 귀환하게 된다(참조, 렘 31:7-9; 미 5:3)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  
 (4) ‘남은 자’에 대한 이사야의 메시지는 그의 사역 초기부터 명백히 형성되었고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도 그 사상이 명확히 드러난다.

7.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스알야숨과 함께 아하스 왕을 만나라고 보낸 곳은 어디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윗못 수도(水道)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고 하셨다.  
 (2) 여기서 ‘윗못’은 ‘윗저수지’를 말하는데 이는 기드론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을 가리킨다.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해 주는 곳이었다(참조, 삼하 5:8; 대상 11:8).  
 (3) 또한 ‘세탁자의 발’은 공동 번역에 ‘표백물 건조장’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피륙을 바래는 장소, 즉 옷감을 표백하는 곳을 말한다.  
 (4) 한편 이곳은 왕하 18:17과 대하 32:30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제일 큰 문제가 식수 공급이었다.  
 (5)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대대적으로 급수로 공사(給水路工事)를 하여 기혼 샘의 물을 지하 수로를 통해 성 안의 실로암 못으로 끌어들이기도 하였다(참조, 왕하 20:20).  
 (6) 이렇게 중요한 시설을 아하스 왕이 점검하지 않을 수 없기에 수원지(水源池)로 갈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 이사야를 그곳에 파송하신 것이다.

8. **㉠**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아하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4-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동맹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악한 계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2)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 이 말씀을 믿으라고 하셨다. 만일 믿지 못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 (3)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 무신론자들의 멸망과 그들의 계획이 좌절될 것을 선언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살핫돈(Esar-Haddon, B. C. 681-669)이 통치할 때 외국인들이 침입하여 아람과 이스라엘을 점령하였다.
- (4) 악한 자들은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한때 강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은 풀의 꽃과 같을 뿐이다(참조, 욥 27:13-23; 시 37:1, 2).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악한 계교(計巧)와 악행을 심판하신다.

9. **㉠** 하나님께서는 르신과 베가의 동맹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한다 해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므로 아하스에게 두려워 말며 낙심치 말라고 하셨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두 동맹국의 본성과 미래의 상황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매우 사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다.
- (3) 즉 그들은 이미 다 타고 남은 쓸모없는 그루터기에 불과하여 연기만 낼 뿐이다. 따라서 이들은 전혀 유다의 대적이 될 수 없는 꺼져가는 심지일 뿐이다(참조, 42:3; 렘 46:17; 숙 3:2).
- (4)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은 원수들이 연합하여 달려든다고 해도 소멸하는 불(신 4:24)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사랑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

10. **㉠**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여 유다에 대하여 세운 악한 꾀는 무엇인가? (5, 6절)

- ㉠** (1) 그 꾀는 유다를 쳐서 곤(困)하게 하고 자신을 편으로 끌어들이고 후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왕 베가가 즉위한 뒤 아람과 합세하여 앗수르의 침공을 저지하려고 동맹을 맺고 거기에 유다까지 가담시키려 했을 때 있었던 사건이었다.
- (3) 이스라엘과 아람의 계획에 유다의 아하스가 동조하지 않자 이들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아하스가 동조하든지 아니면 다른 동조자를 왕위에 세우려고 하였다. 바로 그 대상자가 다브엘의 아들이었다.
- (4) 여기서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볼 수 있는데 먼저 두려움을 주고 난 후 동료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도록 이간(離間)하여 대항하는 힘을 약화시킨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후(참조, 엡 6:11-17; 딤후전 6:12; 약 4:7; 요일 5:4)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다(참조, 요 13:34, 35; 롬 13:8; 벧전 1:22; 요일 2:7, 8; 4:21).

11. **㉠** 아람과 이스라엘이 세운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도모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 (2) 이들의 악한 도모는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하고 다윗과 연계성이 없는 새 왕을 세우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영구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돌보심을 좌절시키려고 하였다.
- (3) 그러나 이들의 도모는 꾀물이기예(참조, 잠 12:5)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모를 폐하시고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참조, 8:10; 시 33:10).
- (4) 애굽 왕이 히브리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계획(출 1:15, 16),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던 아람 군대(왕하 6:14-19),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아 사단이 승리의 노래를 부르려 했던 모든 계획들은 실패하고 말았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이 사단의 세력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고난에 당면한다 해도 그것이 곧 신앙적 위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환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이전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12. **㉠** 르신과 베가는 어떤 자들이며 그들의 종말은 어떠한가? (8, 9절)

- ㉠** (1)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

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지만 65년내에 에브라임이 패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 (2)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요, 사마리아는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수도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만족해야만 하는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통치권은 인간들에게 속하였으나 유다는 신(神)의 머리, 즉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그들은 자기들의 인간적인 의지와 계략으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었다.
- (4) 한편 본절에서 이사야가 선언한 65년은 이사야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는 20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여기의 65년은 아모스가 예언한 때부터(암 3:11) 계산해야 한다. 즉 요담이 16년(왕하 15:33), 아하스가 16년(왕하 16:2),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허스기야의 6년을 합하고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한 때부터 웃시야의 통치 27년을 합하면 65년이 된다.

13. **㉠** 하나님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신 후 유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만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라고 하신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 말씀과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이 약속의 말씀을 멀리하면 굳게 서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위치가 흔들리게 된다(참조, 왕하 16:7-18; 대하 28:16, 22).
- (4) 결국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비록 현재에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그 약속 자체를 의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의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신앙을 부정하는 것이고 그런 불신을 가지고 구원을 기대한다는 자체가 모순이기 때문이다.

14. **㉠**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당신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시기 위해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당신께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다.
- (2)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 (3)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에 증거를 보아야만 확신하는 어리석은 면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징조를 주셨고(참조, 출 4:1-7) 기드온에게도 양털을 통하여 징조를 주심으로(참조, 사 6:37) 당신의 일을 하도록 격려하셨다.
- (4) 이런 하나님의 미쁘시고 진실하심은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뜻이 변치 않고 지속됨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참조, 히 6:17).
- (5)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위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요 20:27-29).

15. **㉠**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아하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2절)

- ㉠** (1) 그는 징조를 구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 (2) 아하스는 이미 앗수르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뇌물을 보내기로 결심하였기에(참조, 왕하 16:7-9) 율법에 기록된 귀절을 내세워(참조, 출 17:7; 신 6:16)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다.
- (3) 아하스의 이런 태도는 외형적으로 볼 때 대단히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이 그를 시험하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징

조를 구하라는 것이 아하스에 대한 하나님의 제안이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신앙 생활을 한다고 자처(自處)하는 자들도 위선의 탈을 쓰고 말솜으로 자신을 가리는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며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어 죄를 고백하는 행위이다(참조, 삼상 15:22; 시 32:1).

16. **㉠**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아하스에게 이사야는 어떤 말을 전하였는가? (13절)

- ㉠** (1) 이사야는 그에게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라는 말로 책망하였다.  
 (2) 본절에서 이사야가 ‘다윗의 집’이라고 언급한 것은 하나님의 징조를 아하스 개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유다 백성 전체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3) 또한 그들은 징조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참조, 요 4:48)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징조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으나 패역한 그들은 그 은혜조차 거부하였다.  
 (4) 이와 같이 마음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였는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패역한 자들의 태도에 따라 가져야 할 마음가짐, 즉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눅 10:16).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당신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17. **㉠** 아하스가 징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친히 어떤 징조를 주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주신 징조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것이었다.  
 (2) 이런 징조를 친히 주신 이유는 인간의 완고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과 인간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는 의미를 밝히시기 위함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인간적 방법으로 변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는 것뿐이다.

18. **㉠**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징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이것은 앞으로 있을 메시아의 탄생에 관하여 주신 것이다.  
 (2) 이 메시아에 관하여 최초의 언급은 창 3:15이지만 종말론적 희망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과 연결된다. 그리고 역사와 종말론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적인 왕은 역사에 기준하여 자신의 통치 기준을 두고 있다(참조, 11:10).  
 (3)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말들은 의심할 것 없이 메시아를 가리킨다. 여호와와 의 싸(4:2), 의로운 왕(32:1-8), 여호와 우리의 의(렘 23:5, 6), 새 언약(렘 31:31), 이스라엘의 목자(겔 34:23, 24) 등.  
 (4) 본절에 나타난 징조는 원어상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즉 본절에 ‘처녀’는 히브리어로 <알마>인데 그 뜻은 ‘젊은 여자’, ‘성숙한 처녀’ 또는 ‘갓 결혼 여자’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처녀(virgin)라는 히브리어는 <베틀라아>이다.  
 (5)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절이 ‘처녀’를 의미할 수 없다고 단정한다. 그러나 이것이 ‘처녀’를 의미한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입증되고 있다(참조, 창 24:43; 출 2:8; 시 68:25; 잠 30:19).  
 (6) 또한 이 말은 정관사가 붙어 <하알마>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처녀’로 번역되지 않으면 본절의 선포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19. **㉠** 하나님께서 징조로 주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다.
- (2) 이것을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에서 개념을 살펴보면 언약과 하나님의 현존과 연관이 된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떠나지 않고 방치하지 않으신다는 뜻(신 31:6; 수 1:5, 7; 왕상 8:57; 대상 28:20)이므로 악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으며(신 31:8; 대상 28:20; 시 23:4) 또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신 2:7).
- (3)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약속과 관련된 유익(有益)은 하나님의 보호(창 28:15; 31:3; 수 1:5, 7; 사 2:18; 삼상 18:12, 28)와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사 1:22; 삼상 17:37; 대상 22:18) 그리고 하는 일이 모두 번창하게 해준다(삼상 3:19; 10:7; 왕하 18:7; 대상 22:11, 16; 대하 1:1)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있다는 위대한 언약에 의해 그들이 누리는 이익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본서의 7, 8장의 임마누엘 예언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의 궁극적 성취를 가리킨다.
- (5) 결국 이 예언은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 1:1, 14)이 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
20. Ⓒ 하나님의 정조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임마누엘은 어떤 분인가? (15절)
- Ⓐ (1) 그분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버티고 꿀을 먹을 것이다.
- (2) 여기서 이사야는 메시아가 가진 참인간성을 증명한다. 동정녀 탄생에 관하여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지게 될 인성(人性)을 증명한 것이다.
- (3) 이 증거에 의해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신을 입고, 혹은 사람의 본성을 지니고 나타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보통 어린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말이다.
- (4)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어릴 때의 특징이다(참조, 신 1:39). 그러므로 본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그가 사물을 식별하는 그때를 향하여’(참조, 암 4:7), 즉 그가 인식할 줄 아는 그때(10:3; 창 8:11)를 말한다.
- (5) 임마누엘의 이런 모습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친근감을 주고 나아가 신뢰감을 준다. 따라서 이러한 메시아의 인성(人性)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증거이다.
21. Ⓒ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두 왕은 어찌될 것인가? (16절)
- Ⓐ (1) 그대에 유다 백성이 두려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 (2) 여기서 말하는 땅은 르신과 베가의 땅, 즉 아람과 에브라임의 땅을 말한다.
- (3) 그런데 그들은 서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두 나라지만 하나로 여겨진 것이다.
- (4) 결국 아람 왕 르신은 앗수르인들에게 살해되고(참조, 왕하 16:9) 이스라엘 왕 베가는 아하스 12년에 죽어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뒤를 이어 왕이 되므로(참조, 왕하 15:30; 17:1) 임마누엘이 다 크기 전에 황폐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22. Ⓒ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내리시기로 한 재앙은 어떤 것인가? (17절)
- Ⓐ (1)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임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앗수르 왕의 오는 날이다.
- (2) 이 말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리(왕상 12:16)된 후 가장 무서운 재앙을 당하는데 그것은 앗수르의 침공이란 의미이다.
- (3) 아람과 이스라엘은 유다의 아하스가 앗수르에게 원조를 청했을 때 처음으로 폐하여졌다. 그때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은 다메섹과 이스라엘의 일부를 정복하고 두 나라의 거민들 대부분을 사로잡아갔다(참조, 왕하 15:29; 16:9).
- (4) 유다와 이스라엘이 분리되는 것 자체로도 무척 큰 하나님의 재앙인데 이제는 적군의 침입으로 망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 (5) 이미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의지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완전히 파멸

시킬 것이라고 선언하셨다(참조, 왕하 16:7; 대하 28:16).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에게 반드시 형벌이 임할 것이다.

23. **㉠** 앓수르가 침략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며 그들은 어느 곳으로 올 것인가? (18, 19절)

- ㉠** (1)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앓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면 모두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을 것이다.
- (2) 여기서 ‘애굽의 파리’나 ‘앓수르의 벌’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각민족의 군대 세력을 말한다. 그러나 ‘파리’와 ‘벌’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애굽 군대는 성급하게 모은 오합지졸(烏合之卒)이고 앓수르 군대는 전쟁을 위해 훈련된 정병(精兵)이란 뜻이다.
- (3)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 충분히 강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도구가 없어 당황하시지 않는다(참조, 5:26-30; 10:3; 신 28:49).
- (4)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한적인 인간의 안목으로 그분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혹시 우리가 그렇게 본다고 해도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실현되기 때문이다.

24. **㉠** 그때에 하나님께서 앓수르를 고용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수 저편에서 세(戩)내어 온 삭도(削刀) 곧 앓수르 왕으로 유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실 것이다.
- (2) ‘삭도’는 유다가 모든 털을 깎이우게 될 도구인데 이것은 약탈과 강탈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참조, 대하 28:19-21; 겔 5:1, 12).
- (3) 또한 ‘강’은 유브라데를 가리키고 그 강 저편에 사는 자는 앓수르인들이다. 그들은 친히 하나님께서 세(戩)내어 온 자들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유다 전체를 미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유다는 완전히 별거벗은 상태, 즉 황무지가 된다는 뜻이다.
- (4) 유다가 이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12절).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위선의 탈을 쓰고 거룩한 체하는 자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징계하신다.

25. **㉠** 그날에 살아 남은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살아갈 것인가? (21, 22절)

- ㉠** (1) 그날에 한 어린 암소와 두 마리의 양(羊)밖에 남은 것이 없으므로 거기에서 나오는 젖으로 뼈터를 만들어 먹고 풀을 먹으며 살아갈 것이다.
- (2) 즉 과거에는 번성하였으나 이제는 최극단의 비참한 상태로 전락될 것을 암시한다. 그들이 다시 목축 생활로 돌아가지만 앓수르인들이 그들의 소유를 탈취해 갔기 때문에 적은 수의 가축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 (3) 이런 사실은 디글랏 빌레셀의 묘비에 그가 정복한 땅에서 수없이 많은 가축과 양 떼를 가져갔다는 기록에서 증명되었다.
- (4) 그래서 본질이 의미하는 바는 그 땅의 사람이 매우 적으므로 비록 적은 양의 우유일지라도 모두에게 충분한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 땅에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을 나타내는 말이다.

26. **㉠** 하나님께서 이방을 부르시는 그날에 유다의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3-25절)

- ㉠** (1) 일천 그루에 온 일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원에 쥘레와 가시가 뒤덮이고 사람들은 그곳에서 사냥을 할 것이다. 그리고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쥘레와 가시가 뒤덮여 농사를 짓지 못하고 소나 양들이 거기서 풀을 먹는 장소가 될 것이다.

- (2) '은 일천 개'는 매년 수확량을 측정하는 가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참조, 아8:11) 여기서는 은 일천 개의 가치가 되는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그 땅의 가치를 셈하는 기준이 되었다.
- (3) 이처럼 가치있는 땅이 황폐해지므로 짐승들이 거하는 땅으로 변하여 그곳에 가는 사람은 살과 활을 가지고 들어가야만 할 것이다.
- (4) 이런 여러 가지 사실을 아하스 왕에게 미리 말했을 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군대와 앓수르가 동맹하므로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5)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시려고 철저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그들을 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다.

## 연구자료

기혼 샘(the Spring of Gihon). 본장 3절에 나오는 '윗못 수도(水道)'는 예루살렘의 기드론(Kidron) 골짜기에 있는 '기혼 샘'과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 시설을 뜻한다. 예루살렘에는 구약 시대부터 두 개의 주요 수원(水源)이 있었는데 하나는 기혼 샘이고 또 하나는 엔로겔 샘(the Spring of Enrogel)이다(참조, 수 15:7). 이 중 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던 샘은 기혼 샘이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이 샘 때문에 시온 산성이 오벨(Ophel) 언덕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샘은 시온 성 밖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이 이 지역을 정복하기 이전부터 이곳 원주민들은 적의 공격으로 인해 물 공급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오벨 언덕의 바위 밑으로 굴을 뚫어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었다. 아마도 다윗은 바로 이 수구(水口)를 통하여 성 안으로 침입하였기 때문에 쉽게 시온 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참조, 삼하 5:6-9). 훗날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후계자로 삼는 의식을 행하였는데(왕상 1:32-39) 이는 다윗 자신이 시온 성의 주인된 것이 기혼 샘 수로(水路) 덕분이었음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이처럼 기혼 샘은 전략상으로도 의식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본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남유다를 침공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한 아하스(Ahaz, B. C. 742-725) 왕이 제일 먼저 이곳 수도 시설을 점검하려 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참조, 3절). 한편 아하스의 아들인 헤스기야(Hezekiah, B. C. 725-697) 왕은 앓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의 침공에 대비하여 기혼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수로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실로암(Siloam) 수로'이다(참조, 대하 32:1-4, 30).

## 제 8 장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평안

단락구분 1-4 마헬살랄하스바스의 징조 / 5-8 홍수처럼 앗수르가 밀려오다 / 9-15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도전하다 / 16-18 이사야와 그의 자녀의 태도 / 19-22 마솔보다 하나님 말씀을 좇으라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봉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 쓰라

2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3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4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임이니라

5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6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나니

7 그러므로 주 내가 용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라 그 모든 끊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8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일하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퍼는 날개가 네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9 너희 민족들이 흰화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이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

10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11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12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

회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13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14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옴무가 되시리라

15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절될 것이며 잠힐 것이니라

16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합하라

17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18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9 흑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 거리는 신절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나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21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될 것이라 그 주될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 1. ㉠ 본장에서 밝히고자 하는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 말씀대로 '마헬살랄하스바스' 라고 이름을 지으므로 유다 백성에 대한 새로운 징조를 제시하고 있다.
- (2) 전장(前章)에서는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으로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란 희망을 주었으나 본장에서는 더 확실한 징조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 있다.
- (3) 즉 이사야의 어린 아들이 자라서 '엄마', '아빠'를 말하기 전에 유다를 괴롭히는 다메섹

과 사마리아가 약탈당하고 대신 유다는 구원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 (4) 본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에 임할 큰 멸망과 앗수르 왕에 의해 유다 왕국이 겪게 될 큰 혼란을 알려 주는 것으로 그 원인은 모두 유다의 죄로 인함이다.
- (5) 그러나 이런 환난과 심판의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충분한 보상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메시아의 시대이다.

2.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서판(書板)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 문자(通用文字)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는 이름을 쓰라고 하셨다.
- (2) '서판'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3:23에서는 금속성 거울을 의미하는 것으로 쓰여졌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해 작성한 기록이었다.
- (3) 즉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백성에게 전하도록 명령받은 후 그들이 선포했던 말씀의 요지(要旨)를 몇 마디 말로 요약하여 성전 문에다 붙이곤 했다(참조, 함 2:2).

3.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서판에 글을 쓰게 한 후 누구를 증인으로 세우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거하게 하셨다.
- (2) 제사장 우리야는 비록 '진실한 증인'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매우 유약한 인물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앗수르 제단을 본따 제단을 만들어 성전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등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참조, 왕하16:10-16).
- (3) 또한 스가라는 포로 후 시대의 예언자가 아니고 대하29:13에 언급된 아삽 자손일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으로 모든 것의 증거가 가능하지만 연약하고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 증인을 세우시고 인간들의 의심을 제거하여 주신다.

4. **㉠ 이사야가 다시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3절)**

- ㉠** (1) 그는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 라고 불렀다.
- (2)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정해 주신 것인데 '노락이 속(速)함'이란 뜻이다.
- (3) 이 짧은 이름은 긴 설교를 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전달한다. 왜냐하면 짤막한 말은 충분히 기억하고 그 말을 통해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동 깊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보용의 말씀보다는 당신의 경고를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기억에 남도록 하기 위해 이사야에게 이런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 (5)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 의도는 머지 않아 앗수르가 다메섹과 사마리아를 노략하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이시고 유다가 구원받게 된다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5. **㉠ 그 아기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미래의 사건은 어떤 것인가? (4절)**

- ㉠** (1) 그 아기가 '엄마 아빠'를 부르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앗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짧은 기간 내에 두 나라가 앗수르에게 망하게 될 것을 설명하는 귀절이다.
- (3)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메섹은 B. C. 732년에, 사마리아는 B. C. 722년에 망하고 말았다.
- (4)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패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는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데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참조, 요 16:33).

6. **㉠ 유다 백성이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하였는가? (6절)**

- ㉠** (1) 그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 (2) 일반적으로 유브라데 강물의 범람이 제국이나 세계의 왕국을 의미하는 데 반하여 실로아는 모리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즉위한 다윗의 왕국을 상징한다.
- (3) 이 '실로아 못'은(참조, 느3:15) 오벨의 남단 기슭에 있는 저수지이다. 즉 모리아의 남서쪽 구릉과 시온 산의 남동쪽 경사진 구릉 사이에 흐르는 계곡에서 나왔다.
- (4) 이 못(池)은 성전 지역내에 있는 저수지에서 공급받아 성전으로 보내져 궁극적으로 성전 봉사와 연결성을 갖고 있다.
- (5) 실로아 물을 무시한 것은 유다와 에브라임에게 모두 책망을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앗수르를 더 신뢰한 까닭이고 에브라임은 다윗 집을 정복하기 위해 아람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다.
- (6) 유다인들은 튼튼한 요새를 가지지 못하였고 또한 풍부한 재물도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대신 다른 나라의 도움만 의지하면 자기들이 안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 (7)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이 땅의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이다(참조, 약4:14). 참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참조, 뫼1:9; 요14:27; 엠4:3).

7. **㉠** 유다 백성이 실로아 물을 버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는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 위에 덮을 것이다. 그러면 그 물이 언덕을 넘어 유다에까지 창일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하수는 물론 유브라데를 가리키며 또한 앗수르를 가리킨다. 그래서 앗수르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침공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다까지 쳐들어 올 것이다.
- (3) 한편 창일함이 '목에까지 미치리라'는 것은 앗수르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뜻을 보여 준다. 유다는 B. 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므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 (4) 성경상의 이런 기록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약속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자들의 결과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들의 세력을 부러워하거나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46:4-7).

8. **㉠** 창일한 하수가 유다에 넘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8절)

- ㉠** (1)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신 날개로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
- (2) 유다는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자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에 의해 멸망을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다.
- (3) 그래서 선지자가 이 말을 덧붙이는 이유는 남은 자들에게 희망을 보여 주고 것처럼 큰 재난 중에도 요동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 (4)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외적들의 침입으로 인한 황폐가 메시아, 즉 임마누엘의 오심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 (5)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 나가는 성도들(참조, 욥5:17-22; 롬5:3; 엠3:13; 약1:2-4; 5:11)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며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참조, 시18:2; 딤후1:12; 4:17, 18).

9. **㉠**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어떤 선언을 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너희 민족들이 흰화하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패망하리라'고 선언하셨다.
- (2) 이 말씀은 앗수르에 대한 예언인데 왜 복수형(아밌)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앗수르가 갈대아인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복한 여러 국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다를 치기 위해 아무리 연합하고 힘을 모아 달려온다고 할지라도

도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라는 선언을 하셨다.

10. **㉠** 이방인들의 계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이방인들이 도모하고 말을 내어도 이루어지거나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7:14)으로 백성에게 나타내신 징조를 당신의 의도를 분명히 밝혀 준다.  
 (3) 즉 유다 백성이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구원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데 있다.  
 (4) 이제 어떤 원수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대적들의 힘에 굴복될 수 없다(참조, 민 14:9; 롬 8:31).

11.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것을 경성(警醒)시키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하지 말 것을 경성시키셨다.  
 (2)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神託). 즉 그분의 손에 강하게 붙잡혀서 부득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참조, 겔 1:3; 3:14, 22).  
 (3) 여기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악한 무리들을 따르지 말고 당시 사회의 모든 정신 풍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4) 따라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추종할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룩한 처소가 되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5)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모든 악과 동행하지 말고 불의를 향하여 담대하게 외치고 악을 지적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겔 2:8; 숙 7:8-12).

12. **㉠**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맹약(盟約)을 하였다는 사실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2) '맹약'이란 오히려 '반역'이나 '공모'를 의미한다(참조, 삼하 15:12; 왕상 16:20; 왕하 11:12; 12:20; 렘 11:9; 겔 22:25).  
 (3) 유대인들은 맹목적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앗수르를 동맹국으로 삼아 안전하고자 했다.  
 (4) 그러나 누구든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르신과 베가의 동맹과 같은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참조, 시 106:21).  
 (5)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합세하여 달려드는 악의 세력에 어떤 자세로 대항하느냐 하는 것이다. 비록 성도 개개인으로 볼 때는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이다.

13. **㉠** 유다 백성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인가? (13절)

- ㉠** (1)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아야 한다.  
 (2)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의해 거룩함을 받으시고(참조, 민 20:12) 당신을 두려움과 존귀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마음을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는 안전한 요새와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참조, 시 15:1; 18:3; 23:6; 84:5).  
 (3)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하였으며 성전을 훼파하면서까지 외국의 세력을 의지하려는 경거 망동(輕舉妄動)한 모습을 보여 주고 말았다.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형태를 보여 주지는 않아도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알고 경건한 신앙을 견

지(堅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4. ㉠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인가? (14절)

- ㉠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당신께서 친히 피난처가 되시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시고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합정과 울무가 되실 것이다.
- (2) 이처럼 본질은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명백히 나타나는 것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개 아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참조, 룻 2:12; 시 17:8; 36:7; 57:1; 63:7; 마 23:37) 하셨기 때문이다.
- (3) 반면에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 당신께서 합정과 울무와 거치는 돌이 되시어 망하게 하신다(참조, 28:16; 롬 9:33; 뱀전 2:8).
- (4) 이런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으로 작용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경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면 모든 문제는 그분께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15. ㉠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울무가 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15절)

- ㉠ (1) 그런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절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 (2) 이사야는 계속 불신자들이 형벌을 피하지 못하리라고 밝힌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더 강하다고 오해하지만 그들은 거치는 반석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28:13; 마 21:44).
- (3)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므로 불신자들의 넘어짐이 우리 믿음의 진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시기 때문이다(뱀전 2:4).

16.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그것을 끈으로 묶어 잘 보관하기를 명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시의 백성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아도 필경 그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확실히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편지가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다(참조, 행 13:48; 엡 1:14)는 것을 말한다.
- (4) 따라서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활 기반이 되어야 하고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른 곳에도 영향을 주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마 6:33; 갈 2:20; 딤후 2:11-15).

17. ㉠ 하나님께 대한 이사야의 태도는 어떠한가? (17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 집에 대하여 낮을 가리우시더라도 그분만을 기다리며 그분만 바라보리라고 하였다.
- (2)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여호와와 분노가 풀리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배척하고 버리신다고 해도(참조, 신 31:17; 32:20) 이사야는 그분을 기다릴 것이라고 하였다.
- (3)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하여 얼굴을 돌리신다 해도 담대하며 흔들리지 말고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 (4)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돌아보시고 구제하시며 복을 주신다(참조, 30:18; 시 27:14; 33:20; 함 2:3).

18. ㉠ 이사야와 그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무엇이 되었는가? (18절)

- (A)** (1) 그들은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 (2) 이사야의 두 아들 스알야습과 마헬살랄하스바스는 두 가지 소망을 내포하는 이름이다.
- (3) 하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참된 종이 된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남은 자가 포로로부터 돌아온다는 것이다.
- (4) 본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믿음을 보여 주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이란 말과 ‘시온 산에 계신’이란 말을 통하여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이고 또한 그분은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5) 또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모두 구원받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보여 주고 있다(참조, 요 6:44; 10:28; 17:6, 12; 행 13:48; 롬 8:30).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19. (C) 어떤 자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고 유혹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였는가? (19절)**

- (A)** (1) 그런 유혹이 있을 때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나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라고 대답하라고 하였다.
- (2) 일반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보다는 마술이나 점(占)을 의지하려는 유혹을 받았다(참조, 삼상 28:7-20; 왕하 17:17; 21:6).
- (3) 그래서 이 말씀은 유다의 술객들에게 주는 경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싫어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신 18:9-14).
- (4)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교사로 만족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모든 죄의 유혹과 책략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다.

**20. (C) 왜 사람들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야 하는가? (20절)**

- (A)** (1)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는 진리의 빛이 없으므로 참된 구원과 생명을 공급하는 율법과 계명을 따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이사야는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율법과 증거로 향하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안에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 주신다.
-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신을 버리라고 강력히 요구하시며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만 의지하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말씀 안에 제한시켜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 (4) 그러므로 우상 숭배자나 마술사 등을 따라가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아서 필경 망하게 되고 또한 다른 것을 전하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된다(참조, 마 15:14; 갈 1:8, 9).
- (5)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만 비진리와 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참조, 엡 6:10-17).

**21. (C)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따라가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1절)**

- (A)** (1) 그들은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다. 그리고 주릴 때에 번조(煩燥)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앗수르의 침공이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모진 고난과 굶주림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양식이 떨어질 것이고 들의 포도원은 황폐해질 것이기 때문이다(7:23-25).
- (3)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헛되고 무능력한 것들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 (4)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우상과 세상의 여러 것들을 더 신뢰하면 마침내는 자신이 의지하

고 사랑하던 것과 함께 망하고 만다.

22. **Q** 이런 배교자(背敎者)들은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는가? (22절)

- A** (1) 그들은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며 끝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갈 것이다.
- (2) 그들은 배교의 죄를 인식하고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그 결과 사방을 둘러보아도 그들 주위에는 은통 흑암과 고뇌만 발견하게 될 것이다.
- (3)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사악함을 더 내세우기 때문에 그 고통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 연구자료

#### 임마누엘 원리 (Immanuel Principle)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는 의미이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歷史)를 서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곧 택함을 입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원리를 보여 준다(8절). 즉장 시대 뿐만 아니라(창21:22; 28:20) 출애굽한 후의 광야 생활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출14:21, 22; 15:19)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하셨으며 곧이어 성막을 통한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셨다(출40:34-38).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건축된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상징이었다(참조, 대하7:16; 시11:4; 합2:20).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는 곧 임마누엘이셨으며(마1:23) 그리스도의 승천 후에 오신 성령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계시는 증거인데 특히 성령은 그 임재가 '영원하다'는 특성을 지녔다(요14:16). 물론 평강의 하나님(롬15:33; 빌4:9)과 주 예수의 은혜(롬16:20; 갈6:18)가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것도 사실이다(참조, 빌4:23; 살전5:28; 살후3:16, 18).

이상과 같은 임마누엘의 원리가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방치해 두지 않는다(신31:6; 대상28:20).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된다(참조, 창24:27). ②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신31:8; 대하20:17). 그래서 그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된다(신31:23). 결국 오늘날에도 임마누엘의 혜택을 받는 성도들은 평강과 안식을 소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하에 있기 때문에 다윗의 노래처럼(시23:4)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게 된다

# 제 9 장 메시아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다

단락구분 1-2 메시아를 빛으로 예언하다 / 3-5 메시아를 해방자로 예언하다 / 6-7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메시아 / 8-12 교만한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다 / 13-17 회개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다 / 18-21 행악하는 이스라엘이 당할 고통

1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므로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떨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의 무겁게 멘 멩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썩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8 주께서 아람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9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거민이 알 것이어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뿔나무들이 썩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도다

11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을 일으

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12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그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3 이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14 이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15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17 이 백성이 자기 설만하며 악을 행하며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 장정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18 대저 악행은 불태우는 것 같으니 곧 질려와 형극을 삼키며 뱀뱀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19 만군의 여호와와 진노로 인하여 이 땅이 소화되리니 백성은 불에 타는 썩나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 형체를 아끼지 아니하며

20 우편으로 움푹지라도 주리고 좌편으로 먹울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21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 1. 본장의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된다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유다는 아랍과 이스라엘의 동맹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의 어두움은 새로운 빛, 즉 메시아의 탄생으로 끝나고 그 대신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될 것이다.
- (3) 그 후 새로이 출생한 통치자는 온전한 다윗 왕국을 공의와 정의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리하여 팔레스틴 변경의 스블론과 납달리도 메시아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 (4) 그러므로 본장에서 의미하는 바는 새로운 다윗 왕국, 즉 영적인 이스라엘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되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통치 영역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지만 반면에 대적자들은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통치자 앞에 굴복되고 만다는 것이다.

2. **㉠ 어떻게 하여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을 것인가? (1절)**

- ㉠** (1) 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 (2)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 (3) 그런데 그곳을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른 것은 갈릴리가 지중해의 연안에 인접해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요단 강의 줄기로 가로막혔고 또한 두로와 시돈이 인접해 있어서 많은 수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살았기 때문이다.
- (4) 그 갈릴리는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히람에게 하사한 곳(왕상 9:11)이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소유권을 이스라엘이 주장했지만 이방인들이 대부분 점령한 곳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 (5) 그리하여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멸시했으나(요 1:46; 7:41, 52; 행 2:7) 메시아가 그곳에서 출생하시므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수치가 벗어지고 영광의 빛이 나타났다.

3. **㉠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므로 흑암과 사망 속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절)**

- ㉠** (1)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 (2)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이방의 갈릴리’에서부터 모든 이스라엘에 희망의 영역이 확대된다. 백성 중에 배교(背敎)한 자들은 이미 일소(一掃)되었고 오직 ‘남은 자’들만 영적, 육적으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 (3)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흑암이었으나 세상의 빛, 의의 빛, 참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참조, 요 1:4-9)로 말미암아 참소망과 생명을 얻게 되었다.

4. **㉠ 흑암과 사망의 그늘 속에 있던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이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 ㉠** (1) 그곳에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이 넘쳐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고 다시 번영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창성(昌盛)케 하시는 즐거움을 누릴 자는 이스라엘이며 나아가 소수의 ‘남은 자’로 축소된다.
- (3)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추수하는 즐거움’의 때는 초막절과 수장절의 즐거움으로 마지막 추수가 끝날 때이다(참조, 출 23:16).
- (4) 그래서 이런 즐거움과 번영을 이스라엘이 다시 누리리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번성케 하신다는 말씀이다. 또한 이것은 영광의 시대(참조, 26:15; 66:8; 속 14:10, 11)의 특징이고 솔로몬 시대의 의미와 연관된다(왕상 4:20).
- (5) 메시아의 오심은 궁극적인 평화와 안전을 제공하고 빛으로서 어두움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5. **㉠ 이스라엘이 번영의 즐거움을 누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꺾으시듯 이스라엘이 맨 무거운 명예와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물은 복장이 불에 섧같이 살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2) ‘명예’와 ‘압제자’는 둘 다 애굽에서의 속박을 연상시키고(출 2:11;5:6) 또한 ‘죄’와 ‘어두움의 군주’를 가리킨다.
- (3) ‘미디안의 날’은 7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때를 가리킨다. 미디안이 기드온에 의해 격퇴당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고 결단력 있는 소수의 군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참조, 사 7:19-25).
- (4) 이제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자유는 애굽에서 전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이나 미디안의 세력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전체적인 구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단지 소수의 경건한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

6. Ⓢ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주신 아기는 어떤 분인가? (6절)

- Ⓐ (1) 그 아기는 어깨에 정사(政事)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 (2)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며 구원의 이유는 적을 퇴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을 물리친 원인은 하나님께서 새로이 위대한 왕을 주셨기 때문이다.
- (3)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는데 그것은 짐이나 혹은 어깨에 맨 열쇠를 상징한다(22:22). 따라서 ‘고통을 짊어진다’는 뜻인데 이는 그분의 탁월한 능력과 성실을 말한다.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전력을 다하여 통치하실 자이다.
- (4) 또한 이 이름은 그분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곧 하나님의 이름도 된다.
- (5) ‘기묘자’는 인간을 초월하여 신성(神性)을 가진 분을 뜻하며(참조, 사 13:18) ‘모사’는 그분이 구원자로서 완전한 지혜를 받아 오실 것을 말한다(참조, 요 1:18; 고전 1:24, 30; 엡 1:17; 골 1:9).
- (6)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 주는데 곧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것과 같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불멸성을 부여하기 위해 오시리라는 뜻이다(참조, 요 5:24; 요일 3:14).
- (7) ‘평강의 왕’은 메시아를 통하여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은총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하고 그에 따른 화평도 약속하는 뜻을 포함한다(참조, 롬 5:1; 빌 4:7; 골 3:15).
- (8)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의 방법과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어떠한 도전을 받더라도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계신다.

7. Ⓢ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 (2) 메시아의 왕국은 정사와 평강이 더함으로 끝이 없고 끝내 세계에 충만하게 된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참조, 삼하 7:12-16)으로 오시며 그의 왕국은 장소와 시간적인 면에서 똑같이 영원하고 우주적이다.
- (3)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보호하시고 방어하시며 또한 그 영역을 넓게 그리고 멀리 확장하시며 영원토록 존속시키실 것이다(참조, 단 7:27; 눅 1:33).
- (4)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확고히 믿지 않으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만다. 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악한 대적이 온다고 해도 결코 그들 앞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8. Ⓢ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는 분은 누구인가? (7절)

- Ⓐ (1)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당신의 열심(熱心)으로 이루실 것이다.
- (2) ‘열심’은 히브리어로 <키느아트>인데 그 뜻은 ‘질투’, ‘시기’를 나타낸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대적들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려는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 (3) 이는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대한 놀라운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열정이 성도들과 교회에 미치는 온갖 난관과 장애물을 제거하실 것을 보여 준 것이다(참조, 37:32; 왕하 19:31; 스 1:14).

9. ⓐ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누구에게 대한 예언을 새로 주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 아굽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 (2) 이사야는 여기서부터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왕국의 미래 상황에 대해 말머리를 돌려 예언하고 있다.
- (3) 왜냐하면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왕국의 병력 그리고 아람과 동맹한 사건을 보고 그들과 대항할 힘이 그들에게 없음을 알고 실망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 이스라엘 왕국의 장래를 보여 주고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인간적인 병력과 무기가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고(참조, 사 7:19-23; 왕하 6:14-19) 오직 당신만 그들의 무기요 방패가 되심을 보여 준다.
- (5) 한편 본질은 일방적으로 북이스라엘만을 향한 예언으로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아굽’은 2:3, 5, 6에서 유다를 의미하였고 ‘이스라엘’은 남북 왕국을 모두 포함하는 등 이사야가 북왕국을 치칭할 때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 (6)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당할 여러 가지 심판을 통해 남유다도 경성하기를 원하셨다.

10. ⓐ 하나님께서 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가? (9절)

- Ⓐ (1)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거민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 (2) 그들은 요새화된 자기의 도성이 아무 위험도 미치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였고 혹시 전국토가 초토화되었다고 해도 적에게 항복하면 언제든지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3)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재난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난을 반드시 당하게 될 것을 보여 준다.

11. ⓐ 그들의 교만한 모습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는가? (10절)

- Ⓐ (1) 그들은 재난을 당하여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뿔나무들이 적혔으나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여 주는데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더 호화롭게 단장할 기회가 되었다고 좋아하였다.
- (3) 일반적으로 벽돌은 가난한 자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였고 돌은 부유하고 권위있는 자들이 사용하였다(암 5:11). 그리고 백향목은 수입해야 하는 고급 목재였다(왕상 5:6; 대하 2:3; 스 3:7).
- (4)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12. ⓐ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실 것인가? (11, 12절)

- Ⓐ (1) 이스라엘과 동맹한 아람의 대적을 일으켜서 에브라임을 치게 하시고 동맹했던 아람이 적대 관계로 돌아서서 블레셋과 같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실 것이다.
- (2) ‘르신의 대적’이란 아람과 블레셋을 말한다. 아람은 르신과 베가 사이에 동맹한 기간에

는 서로 화친했으나 르신이 죽은 후 다시 적대 관계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혔다(참조, 왕하 16:9; 대하 28:23).

- (3) 이스라엘은 한때 자기들의 동맹이라고 자랑하고 의지하던 아람이 적으로 변하여 그들을 삼키고자 달려들 때 인간적인 동맹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느낄 것이다.
- (4) 인간들에게는 영원한 친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분은 영원히 불변하시므로(참조, 히 13:8) 낮이나 밤이나 당신과 동맹한 자를 지키실 것이다(참조, 시 121:3-8).

**13. C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가? (13절)**

- A** (1)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치시는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찾지 아니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므로(참조, 겔 33:11)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진노하셨으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 (3) 이들의 패역한 모습은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취하면서부터 시작되었고(참조, 왕상 12:28-30) 아합 시대부터는 바알을 좇았다(왕상 16:31). 그 후 예후는 종교 개혁을 시도했으나 피상적인 정도로 끝나고 말았다(왕하 10:28).
- (4) 이렇게 하나님보다 바알과 같은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은 필연적인 수밖에 없다(참조, 왕하 17:16-18; 호 2:13).

**14. C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4, 15절)**

- A** (1) 그들은 이스라엘 중의 머리와 꼬리인데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듯 하루 사이에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 (2)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이 보편적이며 포괄적으로 모든 계층에 이를 것이라고 시사(示唆)한다. 이런 의미에서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는 모든 국민을 뜻한다.
- (3) ‘머리와 종려가지’는 군주나 귀족 등 국가의 실권을 쥐는 자들이고 ‘꼬리와 갈대’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거짓과 위선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오도(誤導)했기 때문이다.
- (4) 이 말씀을 통해 불 때 행악에 탐닉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정치나 종교 지도자가 공의와 진리에서 벗어나면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백성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15. C 백성을 인도하는 자의 잘못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16절)**

- A** (1)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하여 백성을 미혹케 하므로 그 인도함을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게 된다.
- (2) 여기서 이사야는 한 나라에 있어서 무절제한 방종을 자극하는 아첨의 말보다 해롭고 더 파괴적인 것이 없다고 말한다.
- (3) 군주와 제사장들은 백성의 방종을 제지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지시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도록 위임받은 자들이었다.
- (4) 그러나 그들이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므로 예수의 말씀대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모두 구덩이에 빠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참조, 마 15:14; 눅 6:29).

**16. C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어떠한가? (17절)**

- A** (1) 그들은 자기 설만(驕慢)하며 악을 행하고 입으로 명령되이 말하였다.
- (2) 여기서 ‘설만하다’는 것은 무례하고 방자(放恣)한 태도를 말한다.
- (3) 이스라엘 백성의 세 가지 방자한 태도는 불경건하고 간교한 것과 사악함으로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명령되이 말하는 입, 즉 하나님께 대한 거역이다.

- (4) 이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었다(참조, 시 14:3). 즉 그들은 내면성이 부패하여 그로 인해 양심이 무디어졌고(참조, 롬 1:21; 딤펴전 4:2; 딤펴 1:15) 상실한 마음속에서 빚어 낸 악행에 깊이 빠지고 말았다(참조, 롬 1:28).
- (5)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이후 부패하여 선을 행할 줄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인도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참조, 요 14:6; 히 10:20).

17. **㉠** 이와 같이 잘못된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17절)

- ㉠** (1) 주께서 그 장정(壯丁)을 기뻐 아니하시며 그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다.
- (2) 이사야는 본절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계층에 임할 것을 더 명확히 묘사하고 있다.
- (3)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동정의 대상이었다(참조, 1:17; 출 22:22; 신 10:18; 14:29).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살륙(殺戮)의 와중에서도 지켜 주신 소년, 청년, 과부와 고아들도 그 진노를 면할 수 없다고 하셨다.
- (5)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나 경건치 않은 말을 하는 자들을 조금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을 경외하며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시지만 그 노(怒)는 어떠한 것인가? (17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을지라도 당신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질 것이다.
- (2)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당해야 할 재앙이 더 남아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패역한 자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다.
- (3) 하나님께서는 일정하시고 변함이 없으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징벌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참조, 레 26:18, 21, 24, 28).

19. **㉠** 악행(惡行)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18절)

- ㉠** (1) 악행은 불 태우는 것 같아서 질려와 형극을 삼키며 뿔뿔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다고 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그대로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악행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일으키는 연료가 될 뿐이다.
- (3) 본문의 의미는 진노의 불꽃이 유다 전역을 사를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죄를 처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 책임은 죄인들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면서(참조, 렘 31:29, 30; 겔 18:1-4, 20) 그들의 죄를 잔혹하게 다루시는 하나님께 항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 (4)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가벼운 징계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그 징벌은 더 강해질 것이고 마침내 그 진노 앞에 겨와 짚처럼 될 것이다(참조, 5:24; 33:11; 40:24; 41:2; 47:14; 시 83:14).
- (5)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악한 지경에 있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은 것처럼(참조, 창 6:8, 9, 22, 23; 히 11:7) 하나님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참조, 함 2:4; 롬 1:17).

20. **㉠**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임하는 날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 (19, 20절)

- ㉠** (1) 그 진노로 이 땅이 불 탈 때 백성은 불에 타는 나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서로 싸우며 굶주림으로 인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에 있을 재난을 말하는데 먼저 정치적 혼란, 즉 내란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기근과 궁핍이 있으며 약탈과 탈취가 있을 것이다.
- (3) 더우기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동족간에 동정심이 없고 악이 많아 주관자가 많아지고(잠 28:2) 그런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학 1:6).
- (4) 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혼란한 이유를 찾아보면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의가 없기 때문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21. Q 이렇게 혼란한 와중에 이스라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21절)

- A (1) 므낫세는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그들은 합세하여 유다를 칠 것이다.
- (2)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부족이었다(참조, 대상 9:3; 대하 30:1, 10, 18; 31:1; 34:9). 또한 이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셨을 뿐 아니라 요셉에게서 한 혈통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창 41:50-52)이 그들을 밀접하게 연관시켰다.
- (3) 그들은 서로 갈등에 의해 자멸을 초래하지만 그래도 의(義)를 대적하는 일에는 서로 합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
- (4)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다(7:6, 7).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는 사단이라도 반드시 하나가 된다(참조, 눅 23:10).

### 화보자료

다윗의 위(位)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림 왼쪽에는 마리아와 어린 그리스도가, 오른쪽에는 다윗의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다. 가운데에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꽃이 핀 등대가 보인다. 이 그림은 11세기 카톨릭 성무 일과서의 삽화로서 현재 로마의 발리첼리아나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종종 '복음적인 예언자'라고 불리운다. 그 이유는 그가 메시아에 관한 많은 예언을 했기 때문인데(참조, 11:1, 10; 53장) 본장에 그와 같은 예언이 있다(6, 7절).

# 제 10 장 남은 자가 앓수르의 손에서 구원되다

단락구분 1-4 사마리아의 불의한 지도자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 5-6 앓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 7-14 앓수르의 교만 / 15-19 하나님께서 앓수르를 소멸시키다 / 20-23 남은 자의 귀환이 약속되다 / 24-34 앓수르의 손에서 남은 자가 구원받다

1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3 너희에게 벌하시는 날에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4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와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5 화 있을진저 앓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7 그의 뜻은 이 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8 이르기까지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니

10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12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앓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체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제를 움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14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 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느도다

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일반이로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로 파괴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17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질려가 소멸되며

18 그 삼림과 기쁨진 밤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19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20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21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 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궤멸이 작정되었음이라

23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24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이 앓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25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움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26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

되 오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같이 하실 것이라

27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28 앓수르 왕이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므마스에 치중을 머무르고

29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30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돏이여

31 맛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계빔 거민은 도망하도다

32 이날에 그가 높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도다

33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험악한 위력으로 그 가치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34 철로 그 딱딱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별을 당하리라

## 1. Q 본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는 무엇인가?

- A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망하시고 경계하실 때 그 도구로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신실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 (2)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는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자 당신께서는 앓수르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 준다.
- (3) 앓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교만하였기 때문에(7-14절) 결국 망하게 되었다. 더우기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은 잠깐의 환난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더 큰 유익이 되므로 그런 시련 중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는 격려를 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그 환난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참조, 벰전 1:6, 7).

## 2. Q 앞장과 연결되어 계속되는 예언은 무엇인가? (1-4절)

- A (1) 사마리아의 불의한 압제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되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가리킨다.
- (2) 9:8에서 시작된 예언은 본절에서 끝난다. 여기서는 불법과 압제에 대한 경고와 더 나아가 이스라엘과 유다 전체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었다.
- (3) 이 예언에는 '벌하시는 날'에 대한 위협이 수반되어 있다. 하나님을 도피처로 삼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다.

## 3. Q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어떤 죄악이 화(禍)를 부르게 되는가? (1, 2절)

- A (1) 그들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백성 중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였다.
- (2) 그래서 선지자는 지도자들의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데 공공연하게 악한 법을 제정하고 고아와 과부의 정당한 요구를 배척하는 그들의 불의를 질책하였다.
- (3) 잘못된 법을 이용하여 악을 행하는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다(참조, 시 94:20; 렘 8:8).
- (4) 따라서 통치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규정을 잘 이해하고 특히 악한 자들을 신원(伸冤)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즉 그들에게 들려지는 정의의 외침을 수렴하여 항상 정도(正道)를 걸어가야 한다(참조, 왕상 12:1-5).

## 4. Q 불법과 악행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을 벌하시는 날 그들의 처지는 어떠할 것인가? (3절)

- A (1)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의 때에 그들은 누구에게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영화를 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처신할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2) 하나님께 심판받는 날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들이 행한 일과 말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참조, 렘 5:29; 호 9:7; 마 20:13-16).

(3) 이런 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 받을 수 없고 그들이 행한 대로 '공홀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참조, 약 2:13).

5. **㉠ 피할 곳이 없는 악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 ㉡** (1) 그들은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다.
- (2) 특히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받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가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파멸은 자기들에게 원인이 있음을 보여 준다.
- (3)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그들 가운데 아무도 남겨 두지 않으시고 일부는 포로, 일부는 죽임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 (4) 결국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B. C. 722년에 앗수르의 살만에셀에게 멸망당하였다. 남유다에 대하여는 회복 기간이 70년이라는 약속이 있었으나(렘 25:11) 그들에게는 그런 약속도 전혀 없었다.

6. **㉠ 앗수르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5절)**

- ㉡** (1) 앗수르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하나님의 분한(忿恨)이었다.
- (2) 여기서 앗수르는 의인화된 나라로 불려졌는데 곧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단순한 수단이 되었다.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과 같았다(참조, 렘 51:20).
- (3) 이런 방법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기 보다는 그들이 회개하도록 경책하시기 위함이다.
- (4)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빌라도에게 '위에서 권세를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스도를 해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요 19:11). 이런 원리에 의해 앗수르가 유다를 칠 수 있었다.
- (5)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불신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시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7. **㉠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 당신을 노하게 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약탈하여 거리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 (2) 앗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였으나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들의 정욕과 탐심에 이끌린 것뿐이다(참조, 엡 2:2).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향력과 계획을 당신의 목적과 의도대로 사용하시어 범직한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다.
- (4) 한편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이유는 그들에게 정직이나 성실이 없었기 때문이다.
- (5) 정직은 모든 덕의 으뜸인 반면에 위선은 모든 악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불성실하시거나 진노를 내리지 않으신다.

8. **㉠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그들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7절)**

- ㉡** (1) 앗수르 왕은 하나님의 계획과 달리 그의 뜻과 생각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는 정복욕(征服慾)뿐이었다.
- (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의 지배 아래 두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질서가 파

괴된 것이다.

- (3) 앓수르가 유다를 침공하는 것도 역시 이런 질서의 파괴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 당신의 뜻을 펴시고자 하였다.
- (4)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모르는 앓수르는 자신의 힘이 막강하므로 여러 나라를 정복하려는 꿈을 세우고 있었다.
- (5) 이런 점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인데 불신자는 자기의 욕심만을 내세우고 자기의 힘만 자랑하는 교만이 나타나는 반면에 신자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게 된다(참조, 창 50:20; 미 4:11, 12).

9. **㉠ 앓수르 왕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뜻으로 자신 만만하게 행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 (2) 즉 그들이 생각하는 우월성은 그의 세력 아래 ‘예속하는 왕들’을 갖고 있으며 당시 강했던 도시들을 정복한 데서 오는 교만함이 그 원인이었다.
- (3) 갈로는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위치해 있고 니므롯의 성읍이며(창 10:10) 디글랏 빌레셀에 의해 정복되었다. 갈그미스는 헷 족속의 도시이며 B. C. 717년에 사르곤에 의해 정복되었다. 하맛은 가나안의 도시(창 10:18)였으나 다윗 때에 독립 왕국이 되었고(삼하 8:9, 10) B. C. 850년 앓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아람, 이스라엘과 동맹했으나 B. C. 720년경에 사르곤에게 점령되었다.
- (4) 아르밧은 하맛과 연합하여 앓수르에 대항했으나 디글랏 빌레셀의 초기 집권시 공격을 받아 앓수르의 속국이 되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며 다메섹은 수리아의 수도이었다.
- (5) 앓수르는 이런 도시들도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어느 누구의 조롱도 받지 않는다고 호언 장담(豪言壯談)하였다.
- (6) 오늘날 많은 강국(強國), 또는 통치자들도 자신의 인간적 업적이나 권력을 자랑함으로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속히 임할 것이다.

10. **㉠ 앓수르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들은 다른 우상들보다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 월등하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우상들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모욕하였다.
- (2) 앓수르 왕은 그들의 신만이 우세하다고 인정했으므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쟁을 했고 점령한 지역에는 우상을 가지고 갔다.
- (3) 한편 벨엘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고 모든 산과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다(왕하 17:10). 유다도 역시 히스기야가 개혁할 때(왕하 18:4)까지 우상이 있었고 그 후에도 은밀히 우상을 가지고 있었다(2:8; 대하 31:1).
- (4) 앓수르는 자기들이 승리한 영광을 그들의 신에게 돌리는데 결국 이러한 행위는 하박국이 느부갓네살에 대하여 말한 것과 같이(합 1:16) 자신들을 높이는 교만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우상 숭배자들의 진정한 목적은 모두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11. **㉠ 앓수르의 자신감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파괴를 행한 것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도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 (2) 앓수르인들의 불경함의 원인은 유다의 종교와 이방인의 종교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데 있었다.

- (3)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치켜세우면서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했고 하나님과 거짓 신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였다(참조, 왕하 18:34).
- (4) 대체로 불신자들은 그들의 행위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기 보다는 모든 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한다.

12. **㉠** **앗수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가? (12절)**

- ㉠** (1)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하신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 (2)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과 유다 왕국에 대한 징계였으며 그 도구로 앗수르 왕국이 선택되었다. 그 결과 므낫세가 회개하였고 겸손해졌다(참조, 대하 33:11-13).
- (3) 이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시던 앗수르의 교만을 꺾으시는 복수자로 등장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인간들의 오만 불손함을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신다(참조, 잠 3:34; 약 4:6; 벰전 5:5).
- (4) 한편 우리가 본절에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첫째 하나님께서 악한 왕을 처벌하시리라는 점과 둘째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신자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참도록 격려하는 내용이다.
- (5)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러 교회를 보실 때 그 안에 진리가 왜곡되고 거짓 중인들이 있으면 그 병폐를 제거하시기 위해 폭군을 세워 성별(聖別)하도록 하신 후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처벌하시는 것이다.
- (6)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나 개인에게 신앙적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이 교회와 자신의 신앙적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참조, 고후 12:12; 계 2:2, 3).

13. **㉠** **앗수르인들이 온 세상에 무엇을 자랑하였는가? (13, 14절)**

- ㉠** (1) 그들은 스스로 힘과 지혜를 자랑하였으며 여러 나라의 국경을 없애고 재물을 약탈하고 여러 왕들을 쳐서 복종시켰으나 자신들에게 대항하여 말하는 자들이 없었다고 자랑하였다.
- (2) 앗수르의 교만이 적나라(赤裸裸)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가 행한 일들은 모두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자들을 압제하는 죄였고 자기만 영광을 얻으려는 극단적 개인주의였다.
- (3)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의 능력과 과대 평가해서도 안 된다. 오직 자신을 버리고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것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참조, 갈 2:20; 빌 1:21).

14. **㉠** **하나님께서 어떤 비유로 앗수르의 교만함을 책망하셨는가? (15절)**

- ㉠** (1)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일반이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분명히 앗수르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5절) 주객(主客)이 전도(顛倒)되어 주체자를 움직이려 하는 우(愚)를 범하고 말았다(참조, 29:16; 45:9; 롬 9:17).
- (3) 이처럼 인간들이 필요 이상의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릴 때 그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반항이며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4)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참조, 출 20:5)이므로 자신의 영광이 남에게 돌아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참조, 42:8; 48:11).

15. **㉠** 앓수르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징계하시는가?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살진 자로 파괴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앓수르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 쇠약해지는 병(病)의 형벌로 국가의 원동력이 파괴되는 것이고 둘째, 불의 형벌은 그들이 약소국에게 행하였던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한다.
- (3)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자랑하던 그들의 힘과 영광은 모두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고 앓수르 사람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 (4) 결국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해 있던 앓수르의 패망은 우리에게 교만의 결과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면서(참조, 잠 11:2; 16:18; 29:23; 호 5:5)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권능과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16. **㉠**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었는가? (17절)

- ㉠** (1)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묘사되었다.
- (2) '이스라엘의 빛'과 '거룩한 자'는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는 칭호인데 특히 '이스라엘의 빛'은 60:19과 시 27:1; 84:11에서 볼 수 있다.
- (3) 빛은 포근함과 위로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소멸하는 불(참조, 신 4:24; 9:3; 히 12:29)로도 나타난다.
- (4) 그러므로 이 빛은 경건한 자에게는 생명과 번영과 위로를 주지만 악인에게는 파괴를 가져다 준다.
- (5)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앓수르인에게는 경고를 주시고 한편 당신의 백성에게는 그들이 당한 해(害)를 갚아 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참조, 요 8:12; 12:36, 46; 요일 1:7).

17. **㉠**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교만한 앓수르는 어떻게 될 것인가? (17-19절)

- ㉠** (1) 빛이신 하나님으로 인해 앓수르는 하루 사이에 소멸되고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병자가 죽어 가듯이 죽어 갈 것이며 혹시 살아 남는 자가 있어도 적은 수만 남을 것이다.
- (2) 즉 앓수르는 하루 사이에 갑자기 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몸과 영혼도 모두 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참조, 왕하 19:35).
- (3) 본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의도는 '육신은 멀하고 영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전 5:5). 그러나 앓수르에 대한 징계는 육과 영이 동시에 망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징계의 불길은 경건한 자를 그슬리게 할 뿐이지만 악인들은 그 불에 영원히 타버리게 될 것이다.

18. **㉠** 앓수르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하는 날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절)

- ㉠** (1) 그날에 남은 자들은 결코 앓수르를 다시 의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할 것이다.
- (2) 남은 자에 관하여 4장의 **㉠** 6을 참조하라.
- (3) 한때 아하스는 자기를 친 아람 왕들의 신을 숭배하고 디글랏 빌레셀을 믿기도 하였다(참조, 왕하 16:7; 대하 28:20, 21).
- (4) 그러나 이제 징계의 결과 그 재앙 가운데서 살아 남은 적은 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였다. 하나님의 징계에서 남은 자들은 이제부터 잘못된 것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 (5) 오늘날 특별히 선택받고 구원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해

야 한다(참조, 삼하 22:19; 시 18:18).

19. **Q** 남은 자들은 누구에게 돌아올 것인가? (21절)

- A** (1) 그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2)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은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습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7:3). 이 특수한 이름은 앞으로 있을 사건과 관련해서 지어진 것이고 장차 있을 구원에 대한 담보로 불리었다.  
 (3) 남은 자들이 돌아올 피난처는 '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 기보르>인데 '전능하신 자'라는 <엘>(시 50:1)에 '강한' 또는 '능한'이라는 <기보르>를 덧붙여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강조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큰 확신을 갖게 하는 의도를 내포한다.  
 (4) 한편 다윗의 후손에게 역사적으로 나타났듯이(9:6) <엘 기보르>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런데 호세아는 여호와와 다윗을 나란히 놓은 반면에(호 3:5)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로 보았다.  
 (5) 이를 신약적 어법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화를 누릴 수 있다.

20. **Q**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왜 남은 자만 돌아오게 되는가? (22절)

- A** (1)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넘치는 공의로 궤멸(毀滅)하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2)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룩한 취급을 받고자 했다.  
 (3)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므로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는 자만 구원하시고(참조, 롬 1:17) 나머지는 진멸하실 것이다.  
 (4) 그러므로 선지자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백성이 감소되는 재난을 겪더라도 이를 견디나가도록 격려했다.

21. **Q**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궤멸은 어디까지 이루실 것인가?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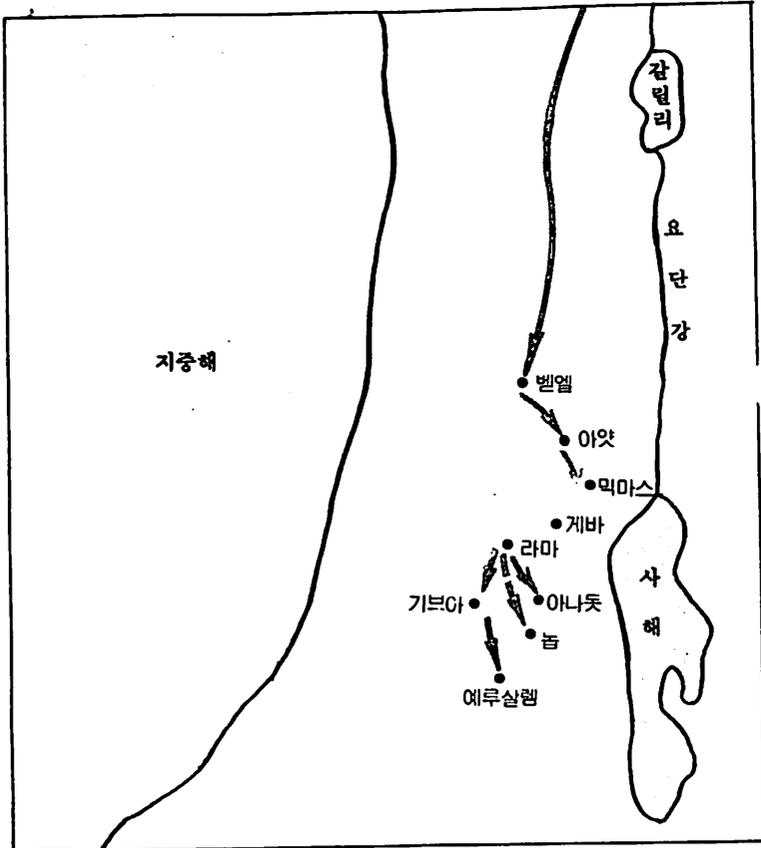
- A** (1)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온 세계 끝까지 행하여질 것이다.  
 (2)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게 이미 결정되었다(참조, 단 9:27; 11:36). 그리고 그 심판은 온 땅과 전국민을 포함하는 영역 안에서 완전하게 실현될 것이다.  
 (3)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분께서 계획하신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 없다. 혹시 악인이 바위 틈이나 깊은 음부에 숨을지라도 거기서 찾아 심판하실 것이다(참조, 시 139:7-12).  
 (4) 그러나 오직 소수의 남은 자(1:9), 즉 택정함을 입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살아 남게 될 것이다(참조, 막 13:20; 엠 1:4).

22. **Q** 하나님께서 앗수르처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는 어디인가? (24절)

- A** (1) 그 나라는 애굽이다.  
 (2) 애굽이 지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했던 시대를 언급하면서(참조, 출 1:14; 12:51) 애굽인들이 행한 압박과 같은 행위를 앗수르인도 할 것이라고 하였다.  
 (3) 그러나 애굽인들의 압박이 치명적인 것이 아니었듯이 앗수르인들의 압박 또한 마찬가지 일 것이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듯이 앗수르의 산헤립에 대해서도 동일한 체험을 할 것이다.  
 (4) 여기서 '때리다'라는 말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훈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시므로 우리가 수많은 적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참조, 31:5; 왕하 19:35).

23. **㉠** 앓수르가 시온에 거한 백성을 괴롭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앓수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머지 않아 당신의 백성에게 대한 노(怒)를 그치고 그것을 옮겨 앓수르를 멸하시리라고 하셨다.
- (2)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난 상태, 즉 그들이 충분한 형벌을 받은 것을 말한다.
- (3) 이 기간은 산헤립이 무수한 군대를 동원하여 예루살렘을 포위한 사건(참조, 왕하 18:17)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고(왕하 25:4) 성전이 불타고, 주민이 포로로 끌려간 재난(참조, 렘 52:28-30)도 포함된다.
- (4) 그런데 이런 재난이 오래 지속되지 않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징계의 분노도 잠깐이다(참조, 시 30: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기 위해 잠시 주시는 징계를 원망하기 보다는 자기 신앙의 내적 성숙의 기회로 알고 이를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24. **㉠** 하나님께서 앓수르를 치시되 어떤 사건과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26절)
- ㉠** (1)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앓수르를 치시되 오렘 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죽이신 것같이 하시고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본절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들어 앓수르를 멸절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미디안족들이 그들 지도자의 이름으로 명명한 오렘 골짜기에서 기드온의 300명 군사에게 무참히 죽임을 당한 사건(삿 7:25)과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을 추적하던 애굽인들이 홍해에 빠져 죽은 사건(출 14:27, 28)이었다.
- (3)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일시적인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대적자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 낙(樂)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기를 더 좋아해야 한다(참조, 마 5:10; 히 11:25, 26; 벰전 3:14).
25. **㉠** 이스라엘에게 향하던 하나님의 노가 옮겨지는 날 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27절)
- ㉠** (1) 그날에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멍에가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질 것이다.
- (2) 여기서 '그날'은 산헤립에 의하여 포위되었던 예루살렘이 구원받은 사건(왕하 19:35)을 가리키는데 '무거운 짐'이나 '멍에'는 산헤립과 관련되어 유대인에게 조공을 바치게 한 것이다(왕하 23:33; 대하 36:3).
- (3) 또한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관된다.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께 대한 상징(참조, 61:1; 시 45:7; 89:20; 단 9:24)이었다.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통치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 주셨다.
- (4) 이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의 왕위(王位)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참조, 삼하 7:13; 대상 22:10; 시 89:5).
- (5)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열국의 흥망 성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달려 있으며 강국의 세력이나 독재자의 위세도 언젠가는 쇠잔할 것이며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 세움을 입은 하나님 나라만이 영존할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26. **㉠** 앓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경로를 설명하라 (28, 29절).
- ㉠** (1) 그는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므마스에 군장비(軍裝備)를 두고 영(嶺)을 넘어 계바에 유숙하였다.
- (2) 아얏은 벨엘 동남쪽에 있는 성읍으로 여호수아가 여리고 다음에 점령한 아이와 동일지

- 이다. 미그론은 므마스 서북쪽 2km 지점에 있는 마크룬(Makrun)의 고지(古址)라 한다.
- (3) 므마스는 예루살렘 동북쪽 13km 지점의 산지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고 게바역시 예루살렘 북동쪽 9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며 계곡을 건너 므마스와 맞대고 있다(삼상 14:5).
- (4) 앓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경로를 도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27. ㉠ 앓수르 사람들의 침공으로 유다 백성은 어떤 마음이 되는가? (29-31절)

- ㉠ (1) 성경은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갈림 사람들과 큰 소리로 외칠 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돏이여 맛메나 사람은 피난하며 게뱌 거민은 도망하도다' 라고 묘사되었다.
- (2) 이는 유다 백성의 마음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3) 본절에 언급된 여러 성읍들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라마는 베냐민의 성읍(수 18:25)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가깝고 이곳과 벤엘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가 있었다(삿 4:5). 이곳에는 라헬의 묘가 있고(삼상 10:2; 렘 31:15) 이스라엘의 바아사는 유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요새를 굳게 했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9km 지점의 엘람(er-Ram)과 같다.
- (4) 기브아도 역시 베냐민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6km 지점에 있다. 이곳은 전략상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예루살렘이 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다. 이곳은 사울의 고향이며(삼상 15:34) 일명 '베냐민의 기브아' 라고도 불린다(삿 19, 20 장; 삼상 13:2, 15; 14:16; 삼하 23:29; 대상 11:31).

- (5) 갈림은 사울의 기브아, 아나돗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돗의 서쪽에 있으며 바후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다(삼상 25:44; 삼하 3:13-16). 또한 이곳은 미갈의 두번째 남편 발디엘의 고향이기도 하다(삼상 25:44).
- (6) 라이사는 예루살렘 북쪽 2km 지점에 있는 엘 이사위예(el-' Isawiyeh)와 동일한 곳으로 추측되는데 이 지명은 본절에만 언급되어 있다.
- (7) 아나돗은 예루살렘 동북쪽 4km 지점에 있으며 베냐민의 땅인데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었다(수 21:18; 대상 6:60). 이곳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출신지이며 포로 귀환의 확신을 위해 그가 사들인 땅이었다(렘 32:7-9). 또한 이곳은 포로 귀환 후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
- (8) 맛메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성읍인데 위치는 불명확하다.

28. **㉠ 유다를 침공하는 앓수르의 태도는 어떠한가? (32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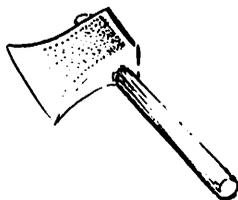
- ㉠** (1) 그들은 늪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 것이다.
- (2) 앓수르는 공포에 쌓인 유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3) 늪은 제사장의 성읍(삼상 22:11, 19)으로 아나돗 서남쪽 2km 지점에 있는 라스 엘 메샤림으로 본다. 다투은 피신할 때 이곳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 보복으로 그곳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삼상 21:1; 22:9, 11, 19).
- (4) 앓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이곳을 마지막 숙영지로 정했다.
- (5) 앓수르는 별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가자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길을 순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29. **㉠ 하나님께서 앓수르의 자신 만만함을 어떻게 꺾으실 것인가? (33, 34 절)**

- ㉠** (1) 만군의 여호와께서赫赫(赫赫)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딱딱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있는 자에게 작벌(斫伐)을 당할 것이다.
- (2) 레바논은 앓수르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겔 3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앓수르의 진격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방지하지 않으시고 그 진격을 저지하실 것이다.
- (3) 하나님께서 앓수르의 힘을 꺾으시므로 그들의 교만도 꺾여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랑할 만한 힘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뜻과 배치되는 자는 반드시 멸절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참조, 암 2:9; 나 1:12).

**본장의 요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뭉뚱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일반이로다’  
(15절).



# 제 11 장 임마누엘과 그의 왕국의 도래 (到來)

단락구분 1-2 임마누엘의 출생과 그의 능력 / 3-5 임마누엘이 올바른 정치(政事)를 행하다 / 6-9 평화로운 그의 왕국 모험 / 10-12 흠어진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다 / 13-14 에브라임과 유다가 연합하다 / 15-16 남은 백성을 모으시다

1 이새의 즐거이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4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엷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

나라

10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13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 1. ㉠ 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오시는 사건 그리고 그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2) 임마누엘은 비록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므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 (3) 그리고 임마누엘, 즉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여 인간들이나 짐승들이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 (4) 또한 이때가 되면 메시아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불러 모아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며 원수들을 진멸시키실 것이다.

- (5) 갈림은 사울의 기브아, 아나돗과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아나돗의 서쪽에 있으며 바후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다(삼상 25:44; 삼하 3:13-16). 또한 이곳은 미갈의 두번째 남편 발디엘의 고향이기도 하다(삼상 25:44).
- (6) 라이사는 예루살렘 북쪽 2km 지점에 있는 엘 이사위예(el-' Isawiyeh)와 동일한 곳으로 추측되는데 이 지명은 본절에만 언급되어 있다.
- (7) 아나돗은 예루살렘 동북쪽 4km 지점에 있으며 베냐민의 땅인데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었다(수 21:18; 대상 6:60). 이곳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출신지이며 포로 귀환의 확신을 위해 그가 사들인 땅이었다(렘 32:7-9). 또한 이곳은 포로 귀환 후 베냐민 사람들이 다시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
- (8) 맛메나는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성읍인데 위치는 불명확하다.

28. **㉠ 유다를 침공하는 앓수르의 태도는 어떠한가? (32 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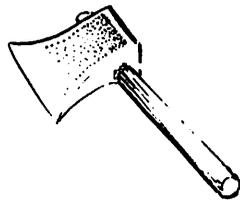
- ㉠** (1) 그들은 늪에서 쉬고 딸 시온 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 것이다.
- (2) 앓수르는 공포에 쌓인 유다를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3) 늪은 제사장의 성읍(삼상 22:11, 19)으로 아나돗 서남쪽 2km 지점에 있는 라스 엘 메샤림으로 본다. 다윗은 피신할 때 이곳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는데 사울은 그 보복으로 그곳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삼상 21:1; 22:9, 11, 19).
- (4) 앓수르 군대는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 이곳을 마지막 숙영지로 정했다.
- (5) 앓수르는 별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가자 예루살렘을 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길을 순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29. **㉠ 하나님께서 앓수르의 자신 만만함을 어떻게 꺾으실 것인가? (33, 34 절)**

- ㉠** (1) 만군의 여호와께서赫赫(赫赫)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꺾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로 그 뾰족한 삼림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있는 자에게 작벌(斫伐)을 당할 것이다.
- (2) 레바논은 앓수르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겔 3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앓수르의 진격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까지 방지하지 않으시고 그 진격을 저지하실 것이다.
- (3) 하나님께서 앓수르의 힘을 꺾으시므로 그들의 교만도 꺾여 순식간에 망하게 될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자랑할 만한 힘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당신의 뜻과 배치되는 자는 반드시 멸절시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참조, 암 2:9; 나 1:12).

본장의 요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 함과 일반이로다’  
(15절).



# 제 11장 임마누엘과 그의 왕국의 도래 (到來)

단락구분 1-2 임마누엘의 출생과 그의 능력 / 3-5 임마누엘이 올바른 정사(政事)를 행하다 / 6-9 평화로운 그의 왕국 모험 / 10-12 흠어진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다 / 13-14 에브라임과 유다가 연합하다 / 15-16 남은 백성을 모으시다

1 이새의 즐기에서 한 썩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립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4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 혀리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6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뺨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

니라  
 10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썩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1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13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14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 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애굽과 모압에 손을 대며 압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15 여호와께서 애굽 해고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일곱 갈래로 나눠 신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16 그의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앗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1. **㉠** 본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언급한 문제는 무엇인가?  
**㉡** (1) 본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오시는 사건 그리고 그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되는 모습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2) 임마누엘은 비록 비천한 가문에서 출생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시므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당신의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다.  
 (3) 그리고 임마누엘, 즉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완전한 평화를 이룩하여 인간들이나 짐승들이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4) 또한 이때가 되면 메시아는 세계 각국에 흠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당신의 나라에 불러모아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며 원수들을 진멸시키실 것이다.

(5) 이러한 본장의 내용은 앓수르의 멸망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앓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찍혀서 징벌당한 후(10:33, 34) 이스라엘의 회복과 대조가 되고 있다. 이제 이런 회복은 이스라엘에 새 생명이 솟아나서 젊음을 회복하는 것과 함께 메시아의 오심에서 일치가 된다.

## 2. ㉠ 임마누엘이신 메시아가 태어나는 뿌리는 어디인가? (1절)

㉠ (1) 그는 이새의 뿌리, 즉 그 즐거이에서 출생할 것이다.

(2) 그 당시 이새의 즐거이는 시들고 황폐했었다. 이새는 베들레헴 에브라타 사람인데 그의 기사가 최초로 언급된 곳(삼상 17:12)에서는 이미 노인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 가문은 과거의 명성을 잃고 재난만 당할 뿐이므로 뛰어난 점이 전혀 없었다.

(3) 한편 ‘씩’이라든지 ‘가지’라는 표현은 화려한 것이나 강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메시아(그리스도)를 가리켜 다윗이 아니라 이새의 뿌리로 부르는 것이다(참조, 삼상 16:1; 삼하 7:8).

(4)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황폐와 좌절과 공포 속에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불안한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5) 구원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치에서 인간적으로는 불품이 없고 연약하여 다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가운데서 성취된다.

(6) 결국 이러한 예언대로 구속자 그리스도는 천한 목수의 집안(막 6:3)에서 출생하였고 그의 생애는 아주 천박한 삶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자씨처럼 처음엔 비록 미미한 존재였지만 마침내 큰 나무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셨다(참조, 마 13:31, 32; 막 4:32).

## 3. ㉠ 이새의 즐거이에서 무엇이 날 것인가? (1절)

㉠ (1) 그 즐거이에서 한 짝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2) 이는 무너진 다윗의 왕통이 다시 회복될 것(참조, 암 9:11)이고 그 그루터기에서 한 가지(순)가 나실 것을 말한다(참조, 숙 3:8).

(3)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할 때 이 메시아가 그들의 손에 죽은 나사렛 예수시라고 가르쳤다(참조, 행 13:23).

## 4. ㉠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어떤 신(神)을 보내 주셨는가? (2절)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보내 주셨다.

(2) 메시아의 인성(人性)은 거룩하고 가르치기에 능통하신 성령의 영향을 필요로 하였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히 받으셨다(참조, 마 3:16; 눅 2:40; 4:1, 14, 18; 요 3:34). 그리고 이 영향은 영원하고 지속적인 것이므로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3) ‘여호와와 신’ (히, 루아흐 예호와)은 신적 능력의 완전성을 가능케 하는 영(靈)으로 여섯 가지 특성을 가진 신이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이해된다. 첫째는 지적 생활과 둘째는 현실 생활과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4) 즉 ‘지혜와 총명’은 외관을 통해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고 그 차이를 식별하는 능력이며, ‘모략과 재능’은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는 능력, 사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끝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은 참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즉 그 뜻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는 것을 말한다(참조, 눅 22:42; 요 4:34; 히 10:7).

(5) 이를 통해 볼 때 성령께서는 인간 신체의 복잡한 본성에까지 다각적으로 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참조, 고전 12:8-11)을 알 수 있다.

(6) 따라서 부패한 우리의 인간성(참조, 롬 1:21, 22; 3:23)은 언제나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결케 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거듭나는 체험을 해야 한다(참조, 요 3:3, 5; 딤후 3:6, 7).

5. **㉠** 하나님께서 메시아에게 성령을 주시므로 그는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3-5절)

- ㉠** (1) 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공의와 정직으로 판단하며 성실로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 (2) 이처럼 메시아의 사역을 간략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즉 메시아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진리에 입각하여 정사(正邪)를 판단하실 것이다.
- (3) 더우기 그는 둘째 아담으로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왕국의 지배자로 등장하실 것이다. 그 결과 사단의 세력은 '철장'으로 다스림을 받게 된다 (참조, 시 2:9; 계 2:27; 12:5; 19:15).
- (4) 이때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가 완성(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 인격과 사물에 그대로 적용) 되었다고 한다.

6. **㉠** 메시아께서 통치하실 때 무엇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고 하셨는가? (3 절)

- ㉠** (1) 그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했다.
- (2) 여기서 그리스도의 탁월하신 능력이 설명되고 있다.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보시며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고 인간을 심판하신다.
- (3) 그분은 우리의 가장 깊은 생각까지도 철저히 알고 살피는 분이시기에(참조, 삼상 16:7; 마 9:4; 눅 11:17; 요 2:25) 우리는 그분의 판단이 언제나 의롭다고 인정해야 한다.

7. **㉠** 메시아는 무엇과 무엇으로 통치하실 것인가? (4절)

- ㉠** (1) 그분은 공의와 정직으로 통치하신다. 즉 공의로 빈핍(貧乏)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또한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때망시키실 것이다.
- (2) 이는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와 천한 자, 고통당하는 자의 보호자가 되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과(참조, 마 11:5)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요일 2:16)를 버린 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며 그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 (3) 또한 '그 입의 막대기'는 왕권을 상징한다. 그 막대기 곧 그분의 말씀은 양면에 날을 가진 칼(참조, 히 4:12)로서 신자들의 영적 생활을 갱신시키기 위한 도구가 된다.
- (4) 그래서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에 맞아 영원히 파멸될 것이고(참조, 살후 2:8) 대신 의인들은 압박 가운데서 구원될 것이다.

8. **㉠** 메시아께서는 무엇으로 허리띠와 몸의 띠를 삼으실 것인가? (5절)

- ㉠** (1) 그분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실 것이다.
- (2) 여기서 '허리띠'란 힘이 강하고 어떤 세력에도 방해되지 않는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허리에 띠를 묶어야만 달리고 씨름을 할 수 있었다(참조, 욥 12:18; 38:3; 렘 1:17).
- (3)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허리띠를 착용하셨다는 것은 당신의 왕권을 이 땅에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신 사실을 의미한다.
- (4)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지금도 온 인류를 통치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근신하여 그분께서 오시기까지 모든 악의 세력을 이겨야 한다(참조, 엡 6:14; 벰전 1:13).

9. **㉠** 메시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6-9절)

- ㉠** (1) 이리나 표범, 곰 등이 순한 짐승들과 함께 거하며 어린 아이들이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 (2) 이런 일들은 메시아 왕국이 완전히 구현될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65:25).
- (3)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가까운 미래에 앗수르가 멸망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과 메

시아의 오심으로 인한 평화의 나라 완성을 한눈에 꿰뚫어 보았다.

- (4) 이는 고차원적인 영적 표준에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관계가 있고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동물의 세계에서까지도 적용되어질 것이다.
- (5) 즉 평화의 왕으로 오실 구속주 메시아께서 모든 압제를 물리치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를 시행할 때에 이 땅에는 완전한 평화, 즉 짐승의 세계에까지 평화가 있게 된다.
- (6) 결국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므로(계 21:5) 마침내 이런 세계가 도래한다.

10. **㉠**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세계에서 짐승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6, 7절)

- ㉡** (1)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늙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 (2)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하시는 날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무질서와 파괴와 죽음을 그치게 하실 것이다.
- (3) 모든 인간과 짐승들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가라앉히기 전에는 길들여지지 않은, 즉 잔인하고 포악하며 겸손하지 않는 야생의 상태에 있었다.
-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성을 제거하시고 동물들의 포악성을 다스리시고 또한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온 피조물들이 화해하도록 만드셨다.
- (5)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을 불균형과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인류와 피조 세계를 함께 모아 하나의 이념을 지닌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데 있다고 가르쳐 준다(참조, 엡 1:10; 골 1:20).
- (6) 그러므로 첫째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창3:6,7) 악해진 인간의 본성이 정화(淨化)되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뿐이다.

11. **㉠** 이사야는 메시아 왕국의 평화로움과 안전함에 대해 어떻게 예언하였는가? (8절)

- ㉡** (1) 그때에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똥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지만 결코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즉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 모든 짐승과 인간들이 지닌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겨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이 변화됨으로 인해 방어할 힘이 없는 어린아이에게도 전혀 해를 끼치지 않게 된다.
- (3)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시 140:3)이나 속으로 악의를 품고(시 55:21)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께 복종한 후에는 모두 깨끗해진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항상 노력해야 한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요 16:33).

12. **㉠**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해(害)됨이나 상(傷)함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본성이 악한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모든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평화를 지향하게 된다. 그런데 이 지식은 영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다(참조, 요 17:3; 엡 1:10).
- (3) 더우기 이 같은 영적 지식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참조, 왕상 17:18; 눅 5:8; 행 2:37)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한다(참조, 3절; 시 16:2; 19:10; 벰전 2:2, 3).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도록 노력하고(참조, 엡 4:13) 그것으로 열매를 맺어 행동으로 이웃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함 2:14; 욥 2:24; 마 28:29).

13. **㉠**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출생하므로 인하여 열방은 어디로 모일 것인가? (10절)
- ㉡** (1) 메시아가 이새의 뿌리에서 나서 만민의 기호(旗號)로 섬으로 인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 (2) 여기에서 '기호'란 높이 치켜올린 깃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메시아가 만민의 기호가 된다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힐 사건을 의미한다.
- (3) 이런 뜻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 3:14)고 하셨다(참조, 민 21:9).
- (4) 마침내 이 말씀은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고 안식처가 되므로(참조, 시 132:14) 성취되었다.
14. **㉠**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을 어디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 (2) 이러한 표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분산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분산이 단순히 소수의 지역적 이동(참조, 창 46:1-29)이 아니라 민족적 대분산(大分散)이 될 것을 의미한다.
- (3) 앗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왕하 15:29)과 사르곤(왕하 17:6; 18:11)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지역이며 애굽은 예레미야 시대에 대이주(大移住)의 사건이 있었던 곳이다(렘 43:7; 44:1).
- (4) 바드로스는 상 애굽(Upper Egypt) 지역으로 테베(Thebes)로 추측되는데 이곳에도 유다 정착민이 살았다(렘 44:1, 15). 구스는 당시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어 약간의 문제가 된다.
- (5) 엘람은 티그리스 동쪽 총족 지역의 비옥한 지대로 수도는 수사이다. 그리고 시날은 바벨론의 고대 이름이다(창 10:10; 11:1-9). 또한 바다의 섬들은 지중해의 섬과 해변을 말한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거나 끝까지 신앙을 사수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셔서 다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신다.
- (7)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출해 주신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참조, 출 12:51; 스 2:2) 그 하나님은 현재도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며 당신의 교회로 하여금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점을 확신하게 된다.
15. **㉠** 하나님께서 사방으로부터 남은 자를 모으시면 에브라임과 유다는 어떤 관계로 변할 것인가? (12, 13절)
- ㉡** (1)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즉 에브라임의 투기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질 것이다.
- (2) 이처럼 평강의 왕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백성간에 싸움이나 질투도 더 이상 없고 하나의 신앙, 순수한 하나님 예배로 단결하므로 화해가 이루어진다(참조, 겔 37:16, 17).
- (3) 이와 같이 선민은 메시아 왕국에 모두 모이는데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 없이 모여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참조, 시 117:1; 148:11).
- (4)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 생활 속에서 찬송과 기쁨을 잃은 자들이 종종 있다. 이들은 다시 찬송을 되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찬양해야 함이 당연하고 또한 찬양은 그 어떤 제사나 제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5:22; 시 69:30, 31; 95:1, 2).
16. **㉠** 에브라임과 유다가 연합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 (14절)
- ㉡** (1) 그들이 서로 연합하여 서쪽의 블레셋을 치고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에 손

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것이다.

- (2) 어깨는 히브리어로 (카텔)인데 이는 바다로 향해 기울어져 있는 블레셋 해안의 명칭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산이 많은 자기들 땅의 높은 곳에서 마치 독수리처럼 블레셋 민족의 어깨로 내습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어깨란 이름을 묵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3) 에브라임과 유다는 혈연 관계에 있는 에돔과 친척 관계가 있는 모압과 암몬(참조, 창 25:25, 26:36:1, 8, 9)을 침공하게 된다.
- (4) 한편 '손을 대며'란 '지배하다', '복종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녔다. 이는 대적들을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하게 될 것(참조, 시 89:25)을 말한다.
- (5) 이런 일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왕국을 통치하게 되는데(참조, 계 20:4-6)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대적과 싸워야 한다(참조, 눅 21:19; 롬 12:20).

### 17. C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15절)

- (A) (1)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우시고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유브라테 하수 위에 불게 하사 강을 일곱 갈래로 나누어 사람이 걸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하실 것이다.
- (2) 이 말씀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신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다(참조, 출 14:21).
- (3) 홍해와 유브라테 강은 무척 깊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신을 물에 적시지 않고도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신다는 의미이다.
- (4)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결심하시면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음을 보여 준다(참조, 습 10:11).
- (5) 이사야가 과거의 구출 사건을 되새기는 이유는 장차 그들에게 있을 구원도 과거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과거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장차 올 새 세계에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 준다.

### 18. C 하나님께서는 남아 있는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시는가? (16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大路)를 준비하시는데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 (2) 이는 각지에 흩어져 살던 자들이 정착지로 돌아올 때 전혀 방해됨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본절은 앞절에 대한 설명으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과거 애굽에서 나올 때 도우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동일하게 느끼게 될 것을 나타낸 말이다.
- (4) 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다 한가운데서(출 14:29; 시 77:19) 구출되고 발길이 닿지 않던 사막에서(신 8:2; 29:5) 인도받으며 요단 강 한가운데서(수 3:16, 17) 길이 열리는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다.
- (5) 이사야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상 밖의 엄청난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려 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이런 출구(出口)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한다.
- (6)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렇게 시행하셨으니 미래에도 시행하실 것이다. 비록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으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은 확실하며 그것이 우리의 탈출구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이다(참조, 요 20:26-29; 히 11:1, 2, 7, 11, 12):

연구자료

이사야의 메시아 예언

구분	예언의 내용	성경귀절	신약에서의 성취
탄생	동정녀 탄생	7:14	마 1:23-25; 눅 1:26-56; 2:1-14
	이새의 혈통을 좇아 내심	11:1, 10	마 1:6-16; 눅 3:23-32
	성령이 함께 하심	11:2	마 3:16; 막 1:10; 눅 3:22
인격	선 재 성	48:12	요 8:58
	지혜로우심	11:2	마 13:54; 막 6:2; 눅 2:40, 52
	영적 분별력을 지니고 있음	11:3	요 8:16
	공의로우심	11:4, 5	요 8:10, 11
	침묵하심	42:2; 53:7	마 27:12
	인내하심	42:4	마 26:39
사역	순결하심	53:9	요 1:36
	세상에 빛을 주심	9:2	요 1:5
	공의의 심판을 하심	11:3	요 8:16
	책망하심	11:4	요 9:39-41
	이적으로 역사하심	35:5, 6	마 11:28
	이방인의 빛이 되심	42:6	행 13:47, 48
	자유케 하심	42:7	마 11:2-5
	세상 죄를 대신 지심	53:4, 6	고후 5:21
최후	증 보 자	53:12	눅 23:34
	승천하심	52:13	행 1:9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심	53:1-3	마 13:57
	조롱을 받으심	53:7	마 27:31
	부자의 무덤에 장사됨	53:9	마 27:57-60
칭호	부활하심	53:10	마 28:1-6
	강도와 함께 못박히심	53:12	마 27:38; 막 15:27, 28
호칭	임마누엘	7:14	마 1:23
	전능하신 하나님	9:6	요 20:28; 히 1:8
	영원한 아버지	9:6	요 8:56-58
	평강의 왕	9:6	요 14:27
	의로운 왕	32:1	롬 5:21
	하나님의 종	42:1	요 4:34
	여호와와의 팔	53:1	요 12:38
	기름 부음을 받은 전도자	61:1	눅 4:44
	전능한 여행자	63:1	요 8:12

## 제 12장 남은 자들의 감사 찬양

단락구분 1-2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 3-4 여호와께 감사하라 / 5-6 남은 자의 찬양

1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2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3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

4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6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 1. ㉠ 본장은 어떤 자들이 부른 찬양인가?

- ㉠ (1) 본장은 하나님께서 멸망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에게 다시 사랑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에서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기쁨에 넘쳐 하나님께 돌리는 감사의 찬양이다.
- (2) 이 시는 구원자 임마누엘에 대한 찬양으로 그 내용은 하나님이 백성의 구원자이시며 기쁨의 근원이시고 감사를 영원히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다.
- (3)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우리들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를 생활화 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들려야 한다.

### 2. ㉠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전에 노(怒)하셨으나 이제 그 노가 쉬었고 또 안위(安慰)하시므로 그들이 감사할 것이다.
- (2)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노하심은 잠시뿐(참조, 26:20; 54:7, 8; 욕 33:26; 시 103:9) 이기에 우리는 즐겨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된 감사와 찬송은 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절에는 경건한 자에게 감사할 것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안에 내포된 약속을 보다 더 충실히 믿어야 한다는 깊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 3. ㉠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어떤 분으로 묘사되었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에게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었다.
- (2) 여기서 구원의 주체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 주는데 이것이 기독교 구원관의 중심 사상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상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 두텁게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손에 좌우되기 때문이다(참조, 마 10:28).
- (4) 이런 신앙관이 올바르게 정립된 자들만 주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라고 찬양할 수 있다(참조, 출 15:2; 시 118:14). 또한 이런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참조, 시 50:23; 호 14:2; 히 13:15).

### 4. ㉠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거임을 확신하는 자들은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을 것이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많고 다양한 구원의 원천들을 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이 생수의 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마른 땅이 되어 갈급하게 주님을 사모해야 한다(시 143:6).
- (4) 그래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피로워하던 사마리아의 수가 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수를 발견하고 생명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았다(참조, 요 4:14).
- (5) 구원에 관한 문제, 생명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일차적 조건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

5. **㉠**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찬송의 내용은 무엇인가? (4절)

- ㉠** (1) 그 찬송의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는 것이다.
- (2) 이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이 각각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내용 중에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를 드리도록 서로 권면하며(참조, 2:3; 요 4:23, 24) 각자를 격려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 (3) 또한 본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라는 명령이 등장하는데 이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볼 수 있고 온 천지에 하나님같이 높임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그 외의 것으로 자랑하는 일이 없게’(렘 9:23, 24)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식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다.
- (5)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만을 높이는 것이다. 찬양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특정한 개인의 명예를 높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

6. **㉠** 남은 자들은 어떤 이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가? (5절)

- ㉠** (1)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극히 아름다운 일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 (2) 하나님은 당신 자체로도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매우 어려운 속박 가운데서 풀어 주심으로써 풍요하게 넘치는 찬송의 소재를 제공해 주신다.
- (3) 이런 찬송은 이들의 시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 내내 확대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와 화해하신 것(요 3:16, 17) 그리고 사망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으신 일(히 2:14) 등은 영광스런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영광되고 복된 내용을 은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불충(不忠)이 된다. 이런 놀라운 사건을 방방 곡곡에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7. **㉠** 시온의 거민이 찬송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

- ㉠** (1) 시온의 거민은 거룩하고 크신, 즉 위대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불러야 한다.
- (2) 선지자 이사야는 경건한 자들에게 그들의 참된 기쁨의 성격이 무엇이며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 상기시켜 준다.
- (3)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비록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으로부터 분리되었더라도 당신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삼아 주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한다(참조, 엠 1:10).
- (4)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보물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참조, 마 6:21).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행복이 없기 때문이다.
- (5)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많은 부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 제 13 장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다

단락구분: 1-5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기 위해 열방을 부르시다 / 6-16 바벨론이 당해야 할 고동 / 17-18 메데가 바벨론을 침공할 것이다 / 19-22 바벨론이 황폐되다.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 너희는 자산 위에 기초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로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3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4 산에서 우리의 소리가 남아여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출 동할하시니라

5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음이여 곧 여호와와 그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6 너희는 애곡할지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7 그러므로 모든 손이 피곤하며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8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잠혀서 일산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은 빨갛 같으리니

9 여호와와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10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취지 아니할 것이라

11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 내가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오빌

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리니

13 나 만군의 여호와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14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15 만나는 자는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는 칼에 엎드리지겠고

16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 목전에 메어침을 입겠고 그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17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이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18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공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19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20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21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충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 양이 거기서 뜰 것이요

22 그 궁성에는 사람이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한 전에는 들개가 울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 1. ㉠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는 어떠한가?

- (A) (1) 하나님께서는 먼 나라에서 열국 민족을 부르사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제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사 패역한 유다를 징계하시는데 본장에서는 메대 사람을 일으켜 그들을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셨다.
- (3) 이는 바벨론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최종 파괴자이며 또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멸망을 예언한 것이다.

(4) 이런 예언은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즉위하면서(참조, 단 5:30) 성취되었다.

2. **㉠** 이사야는 어디에 관한 경고를 받았는가? (1절)

**㉠** (1) 그는 바벨론에 관한 경고를 받았다.

- (2) 선지자 이사야는 본장에서부터 23장까지 이방 열국에 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 (3) 이사야의 이런 예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유익은 여러 종류의 재앙이 우연이나 자연 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밀하고 치밀하신 계획에 의해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 (4) 한편 이사야가 바벨론과 열국의 멸망을 예언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함이다. 즉 죄악된 이방인들이 처벌받지 않고 평안하게 산다면 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대하여 비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5) 이사야의 이런 경고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국이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바벨론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되며 그로 인해 다시 택한 자들은 본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즉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암시한다.

3. **㉠**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 바벨론을 칠 열국을 부르라고 하셨는가? (2절)

**㉠** (1) 하나님께서는 자산(赭山) 위에 기호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열국을 부르며 손을 흔들라고 하셨다.

- (2) 이 부르심은 매우 급박한 것이다. 여기서 ‘기호’(旗號)는 군기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 세 가지 방법, 즉 민등산에 기호를 세우고 큰 소리로 부르며 손을 흔들어 열국을 부르셨다.
- (3)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벨론은 평야 지역에 위치한 나라이다. 그런데 바벨론을 ‘산’에 비유한 것은 그 나라가 광범위한 통치 영역을 확보하였고 여러 민족들 위에 군림하였기 때문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벨론을 치시듯이 그들을 꺾어 약한 자들의 웃음거리로 만드실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교만을 누르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다.

4. **㉠** 하나님께서 부르신 열국은 어떻게 바벨론으로 입성할 것인가? (2절)

**㉠** (1) 바벨론을 멸망시킬 열국들은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갈 것이다.

- (2) 즉 그 군대는 바벨론의 성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이들에게 결코 장애되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이는 바벨론이 막강한 군대와 무기를 보유한 나라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은 환상이라고 여겼으나 비록 이렇게 강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열어 놓으신 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다.

5. **㉠**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셨던 당신의 노(怒)를 어떻게 풀으셨는가? (3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당신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서 당신의 노(怒)를 풀게 하셨다.

- (2) 여기서 ‘거룩히 구별한 자’는 메대와 바사의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둔 자들이기 때문이다.
- (3)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방편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명령하시고 일을 시키시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자들이 ‘거룩히 구별된 자’이다(참조, 렘 22:7; 51:27).
- (4)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들에게 정하신 뜻과 목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요 14:26)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자신의 뜻을

제지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6. **㉠ 산에서 들리는 열국 민족의 소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가? (4절)**

- ㉠** (1) 그 소리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해 군대를 검열하시기 때문에 나는 것이다.  
 (2) 이런 표현은 아주 생생하기 때문에 마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3)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신의 위력을 보여 주시며 확신을 갖게 하신다.  
 (4) 이런 말씀은 평범하고 일반적인 말보다 생생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방법으로 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7. **㉠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서 온 땅을 떨하는 자들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5절)**

- ㉠** (1) 그들은 먼 나라에서, 하늘가에서 왔다.  
 (2) 바벨론을 전복시킬 나라는 메대와 바사인데 히브리인들의 관념 속에서 그들은 먼 나라였다(참조, 46:11).  
 (3) 또한 그들이 있는 곳을 '하늘가'라고 표현한 것은 하늘이 땅의 끝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인데 이사야의 우주관(宇宙觀)은 다른 성경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사상적 지배를 받았다.  
 (4) 한편 본절은 인간들의 무감각한 모습을 꼬집는 귀절인데 인간들은 직접적인 타격과 징계를 받기 전에는 각성할 줄 모른다.  
 (5) 과거 노아의 시대 사람들(참조, 창 6:11, 12)과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의 악행(창 18:20, 21)이 극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셨으나 패역한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악한 생활을 지속하였다(참조, 창 19:14).  
 (6) 결과적으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는데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도 여러 가지 징조를 볼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신줄 알고(참조, 마 24:3-12) 근신하며 경건한 생활을 살아야 할 것이다.

8. **㉠ 바벨론 사람들은 왜 애곡(哀哭)해야 하는가? (6절)**

- ㉠** (1) 여호와와 날이 가까왔기 때문에, 즉 전능자에게서부터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곡해야 마땅하다.  
 (2) 여기서 '여호와와 날'이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고 경건한 당신의 백성에게 기쁨과 영광을 그리고 교만하고 패역한 자들에게는 불행과 수치를 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날이다(참조, 2:12; 욥 1:15; 습 1:7).  
 (3) 본문의 내용과 연관지어 볼 때 이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지만 폭넓은 안목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심판 날을 가리킨다(참조, 요 12:48; 살전 5:2).  
 (4) 한편 이사야가 사용한 '여호와와 날'이라는 표현은 요엘의 예언에서 인용한 것으로 여겨진다(욥 1:15). 왜냐하면 요엘서는 이사야서보다 시간적으로 앞선 유다 왕 요아스의 재위 기간 중인 B. C. 830년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9. **㉠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이 임할 때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7, 8절)**

- ㉠** (1) 이런 일로 인하여 그들의 손이 피곤해지고 마음은 녹을 것이다. 그들은 피로움과 슬픔 때문에 임신(臨産)한 여자같이 서로 보며 놀라고 얼굴은 불꽃 같을 것이다.  
 (2) 즉 바벨론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므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몸과 마음이 다 연약하여 감히 대항할 생각도 품지 못하게 된다.  
 (3) 이처럼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교만하고 포착했기 때문이다.

- (4)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통치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즐겁고 번성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에 대하여 피곤함을 느끼게 된다 (참조, 26:17; 수 2:11; 렘 6:24; 살전 5:3).
- (5)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교만한 자리에서 떠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며 (참조, 눅 15:20)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리도록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참조, 계 3:20).

10. **Q**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바벨론 땅과 그곳의 죄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A** (1) 그날에 하나님의 노로 인하여 땅이 황무하게 되며 죄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바벨론이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는 바벨론이 하나님께 대하여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본절에서 그들을 '죄인' 이라고 부른다.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명령보다 지나치게 악한 행동을 하는 교만함(11절; 14:11)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나 그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압박하는 죄(47:6; 숙 1:15),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 죄이다(참조, 렘 50:2, 38; 51:47, 52).
- (4) 오늘날 성도들은 악인들과 위선자들이 번영하고 반면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크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지만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역사를 볼 때 결코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된다.
- (5)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에게는 자비로우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잔인하고 엄격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18:25, 26). 결국 악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을 뿐이다 (참조, 암 5:18, 20).

11. **Q** '여호와의 날'에 천기(天氣)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10절)

- A** (1) 그날에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 (2) 이와 같이 자연의 모든 광명체(光明體)도 조물주의 뜻을 따라 조물주가 분노하였을 때 빛을 잃고 만다.
- (3)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었고(마 27:45),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마 24:29).
- (4) 한편 '별 떨기'는 문자적으로 오리온 성좌(星座)를 일컫는데 다른 곳에서는 삼성(參星)이라고 하였다(참조, 욕 9:9; 38:31; 암 5:8).
- (5) 이 별은 히브리어로 <케실>인데 그 말은 이해력이 없고 비종교적인 어리석은 자를 뜻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 (6)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끌고루 주시지만(마 5:45) 그분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이와 같이 자연까지도 무서운 현실로 나타나게 된다(참조, 욕 2:31).
- (7) 이런 어두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한다.

12. **Q**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벌하시되 어떻게 벌하실 것인가? (11, 1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시고 교만한 자의 오만과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케 하실 것이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다른 이방 열국에도 임하게 될 것인데 이는 심판이 특히 악하고 교만하며 강포한 자에게 임할 것을 뜻한다.
- (3) 인간들에 대하여 심판을 결정하시고 그 일을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불평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은 공정하고 우리가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롬 3:19).

13. ㉠ 하나님께서는 분하여 노를 발하시는 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13절)

- ㉠ (1) 하늘이 진동하고 땅을 흔들어 바벨론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2) 실제로 이런 징조는 세상의 끝과 관계되는데(참조, 욥 3:16; 학 2:7; 마 24:29)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옛 것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참조, 65:17; 66:12; 계 21:1).  
 (3) 여기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과 관계된 중요한 날의 모형으로 '여호와와 그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  
 (4) 또한 이 귀절은 악인들로 인하여 실망하는 경건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악인들의 파멸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을 통해서도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

14. ㉠ 하나님의 노로 인하여 쫓겨 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16절)

- ㉠ (1) 그들은 쫓긴 노루나 목자 없는 양같이 각각 동족과 본향으로 도망하지만 침략군과 만나는 자는 학살당하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죽고 노략당하며 그들의 아내들까지 욕(辱)을 당하게 될 것이다.  
 (2) 이처럼 이사야는 하나님의 노를 산 자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묘사하였는데 그것을 크게 나누어 그들의 탈주(脫走)와 잔인한 죽음 그리고 약탈과 파괴이다.  
 (3)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까지 죽임을 당하고(참조, 시 137:9; 호 13:16; 나 3:10) 여인들은 강간당하게 된다(참조, 애 5:11; 숙 14:2).  
 (4)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전쟁으로 인한 결과이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대하여 노를 발하시고 진노하사 이런 재앙을 주셨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분노는 반드시 악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므로 파멸이 아닌 징계의 체책을 드신다(참조, 욥 5:17; 잠 3:12; 15:10; 히 12:7-13).

15.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징벌하시기 위해 어떤 사람을 일으키실 것인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격동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다.  
 (2) 드디어 이사야는 바벨론을 정복할 나라에 대하여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 나라는 바로 메대였다.  
 (3) 그런데 그 나라가 위에서 묘사된 것처럼 은과 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욕심이 있었다. 즉 재물의 약탈이 아닌 영토의 확장이었다.  
 (4)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적 선견지명(先見之明)과 통찰력을 발견할 수 있다. 즉 메대가 바벨론을 파괴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사야의 안목이 놀랍다.

16. ㉠ 메대 사람에 대하여 설명하라 (17절).

- ㉠ (1) 이들은 오늘날의 이란 북서 지방에 거주하던 고대 인도 유럽 민족으로 B. C. 7세기에 바사(Persia)에게 흡수되었다.  
 (2) 이들은 바사인들보다 더 오래된 민족이었는데 그들의 언어는 고대 페르시아 기록에 남은 특수한 이름 외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  
 (3) 그리고 이들은 문화적으로 스쿠타이 민족(the Scyths)과 킴메리아 민족(the Cimmericians)과 구분되었으나 킴메리아 민족과는 동맹을 맺었다.  
 (4) 이들의 기원은 불명확하지만 앗수르의 살만네셀 3세(Shalmaneser III, B. C. 858-824)의 연보(年譜)는 이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5) 본장에 나타난 이사야 예언의 주제는 메대인의 바벨론 침공인데 B. C. 539년에 메대와

바사가 결합하고 바벨론 왕이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게 되므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다 (참조, 단 5:30).

17. **㉠**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칠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18절)

- ㉠** (1) 그들은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胎)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可惜)히 보지 아니할 것이다.
- (2) 메대 사람들은 본래 활을 잘 쏘는 자들이었다(참조, 렘 50:9, 14). 그런데 그들은 무자비하여 젓먹이 어린아이와 태 속의 아기들까지 죽였다(참조, 왕하 8:12; 15:16).
- (3)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은 없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의 의도는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부터 당하는 압제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한 처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었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다(참조, 시 137:9).

18. **㉠** 바벨론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19절)

- ㉠** (1) 그 나라는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리개의 위치에 있었다.
- (2) 바벨론은 정복된 여러 왕국들의 중심이었고 갈대아인들의 본래 거주지였다.
- (3) 이사야는 여기서 갈대아인이 세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될 것을 보여 주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처벌하실 때 결코 동정의 빛이나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처벌하실 때 일말의 동정도 가지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처벌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최후의 심판 날에 어떠한 기대도 가질 수 없다.

19. **㉠** 갈대아와 바벨론을 설명하라 (19절).

- ㉠** (1) 갈대아에 관한 최초의 언급은 B. C. 9세기 이후의 앗수르 왕가의 비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거기에는 갈대아 지방(Kaldu)과 그 주민인 갈대아인(Kaldai)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 (2) 이 갈대아는 B. C. 1000년대에 이미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하여서 페르시아 만과 바벨론의 최남단 도시들 사이에 있는 유브라테 강과 티그리스 강 유역에 위치하였다.
- (3) 갈대아의 대표적 성읍은 우르(창 11:28, 31)이며 이 지역 사람들은 어업, 수렵 그리고 소규모의 농업과 가축 사육을 하였다.
- (4)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도성이다. 이곳은 B. C. 3000년대의 성읍으로 최고의 문헌적 기록은 약삭 시대의 것(약 B. C. 2500)이다.
- (5) 이때의 바벨론은 아직 한 도성에 불과했으며 B. C. 1600년에 히타이트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 (6) 그러나 B. C. 608년 앗수르가 멸망한 후 신바벨론 제국의 수도로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 (7) 그런데 갈대아와 바벨론은 후에 국가를 지칭할 때에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20.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어떤 성읍과 같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
- (2) 이는 의인 열 명이 없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급작스럽게 망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참조, 창 19:23-25).
- (3) 소돔은 아라바 저지의 습윤한 땅에 있던 가나안 사람의 다섯 성읍 중 하나로 롯이 옮겨 살았던 곳이다(창 10:19). 그런데 이 성읍의 죄가 관영함으로(창 18:16-22, 26) 유향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멸망되었다.
- (4) 고모라는 소돔과 함께 요단 저지대에 있던 다섯 성읍 중 하나인데 도덕적 퇴폐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다(참조, 창 18:20; 19:24-28).

- (5) 한편 현대에 와서는 두 도시의 위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설(說)들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해 남부의 바다 속 중에 수심이 1.8m쯤 낮아진 부분으로 본다.
- (6) 이 두 성읍은 하루아침에 유황불로 인하여 멸망당했는데 바벨론도 전혀 예상할 수 없던 시기에 멸망당할 것을 암시한다.

21. **㉠**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그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 절)

- ㉠** (1) 그곳은 황폐하여 처(處)할 자가 없겠고 대대로 거기 거할 사람도 없으며 아라비아 사람도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양 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 (2) 이것은 바벨론이 철저히 파멸되어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인데 그 황폐의 심각성은 유목민들까지 그곳을 경시하리라는 기록 속에 잘 나타나 있다.
- (3) 그러나 이 예언은(거할 자가 없겠고) 수세기가 경과된 후 성취되었는데 고레스(Cyrus, B. C. 558-529) 시대부터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 C. 356-323) 때까지 바벨론은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 (4) 그래서 알렉산더도 이곳을 점령하여 자신의 수도(首都)를 만들려고 하였다.
- (5) 그런데 B. C. 518년 두번째 바벨론을 정복했던 다리오(Darius Hystaspis)는 그 성벽을 50 규빗만 남기고 파괴했으며 크세르크세스(Xerxes)는 마지막 공격을 가하였다. 그래서 스트라보(Strabo, B. C. 60) 시대에 바벨론은 완전한 폐허가 되고 말았다.

22. **㉠** 아름다웠던 바벨론의 궁성과 가옥과 들판은 어찌될 것인가? (21, 22 절)

- ㉠** (1) 그곳에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며 타조와 들양이 뛰며 궁성에서는 시랑(豺狼)이 부르짖고 화려한 전(殿)에는 들개가 울 것이다.
- (2) 이야야는 바벨론이 이처럼 황폐하게 될 날이 오래지 않아 이를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 (3) 실제로 이 예언과 바벨론의 몰락까지는 약 180년의 시차(時差)가 있었지만 이 시차는 한 민족의 운명으로 볼 때 짧은 세월에 불과하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신실성, 즉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본장의 요절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앞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옥에 중만하며 타조가 거기 깃들이며 들양이 거기서 뿔 것이요’ (21절).

# 제 14 장 바벨론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단락구분 1-2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 3-11 이스라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 / 12-17 사단이 바벨론 왕을 부추기다 / 18-23 사단의 세력이 멸망되다 / 24-27 앗수르를 향한 책망 / 28-32 블레셋을 향한 책망

1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2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켰고 전에 자기들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들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3 여호와께서 너를 습득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4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5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흠을 꺾으셨도다

6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마치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7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은하니 무리가 소리 질러 노래하는도다

8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9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의 음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도다

11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12 너 아침의 아들 제명성이며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께의 못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15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렁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16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 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17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노 하리도다

18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전마는

19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찢려 들구렁이에 빠진 주검에 둘러싸였으니 밧힌 시체와 같도다

20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리도다 할지니라

21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에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22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와 같이니라

23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제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연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리라

25 내가 앗수르 사람을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밭 아래 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집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26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27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때하며 그 손을 퍼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들이키라  
 28 아하스 왕의 죽던 해에 받은 경고라  
 29 블레셋은 땅이며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30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너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

일 것이요 너의 남은 자는 살륙을 당하리라  
 31 성문이며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며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고 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향오를 멀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32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새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1. **㉠** 본장의 예언적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장은 사단의 구체적인 세력인 바벨론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명확한 예언을 보여 주고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이제까지 그들을 괴롭히던 바벨론, 앗수르, 블레셋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게 되고 반대로 유다 백성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이사야가 활동한 기간이 B. C. 739-680년 사이인데 앗수르는 B. C. 612년, 바벨론은 B. C. 539년에 망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이사야의 통찰력은 정확했으며 그 근거는 하나님께 있었다.
- (4) 이러한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비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여러 가지 시련, 즉 종교적 탄압,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 등 많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의들을 묵과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공의를 실현시키신다는 사실을 알아 우리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므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택하시 자기의 고토(故土), 즉 가나안으로 다시 인도하심으로 인해 열방에 흩어졌던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야곱 족속과 연합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이 전제되며 또한 바벨론의 시대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그러므로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귀환하게 될 이스라엘은 은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께 있어서 특별한 민족이다. 이 은총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역이므로 누구도 그 일에 대하여 말할 권한이 없다(참조, 신 7:6-8; 었 1:4-6).
- (4)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포로되었던 땅에서 귀환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많은 자들이 함께 돌아오는데 그들은 모두 자원하여 개종(改宗) 하게 된다(참조, 예 8:17).
- (5) 이런 예언의 구체적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들게 된 때 이루어졌다(참조, 행 2:41, 47; 4:4).

3. **㉠**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귀환할 때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2절)

- Ⓐ (1) 전에는 포로였던 자들이 개종하는 자들과 함께 본토에 돌아와 옛날 그들을 노비와 종으로 삼고 억압하던 자들을 주관할 것이다.
- (2) 여기서 특이한 것은 이방인들이 나오미를 따라 간 롯과 같이(롯 1:16, 17)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유다 백성의 땅으로 함께 간다는 사실이다.
- (3) 그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되기 위하여 따라갔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종의 상태이지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참자유이며 참행복이란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시 84:10).
- (4)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문명화되고 과학화된 많은 것들로 인하여 세상을 즐기며 살

아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영혼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5) 오늘날 자유나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으나 아직도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이다(참조, 대상 22:9; 시 25:12,13).

4. **Q**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3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安息)을 주신다.

(2) 그 안식은 슬픔과 곤고와 수고하는 모든 고역에서 놓임을 받는 것이다.

(3) 여기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한 여러 가지 고난(출 1:8-14; 5:6-18) 과 같은 어려움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들이 당한 고초는 매우 심한 것이었다(참조, 시 137편; 겔 34:27-29).

(4) 이와 같은 심각한 압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 주시는데, 그것은 당신께서 원하시지만 하면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5)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는 참된 낙도 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환경이 울무와 쇠사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에 평화와 안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모든 고통, 억압 등이 제거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참조, 30:15; 시 119:165).

5. **Q**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지으라고 하셨는가? (4절)

**A**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를 지으라고 하셨다.

(2) 이 노래는 풍자적이고 도전적인 개념으로서 '비유' 또는 '조롱하는 말' 이란 의미로 쓰여지는데 다른 곳에서도 같은 의미로 번역되었다(참조, 민 23, 24장; 욕 26:1; 29:1; 시 49:4; 겔 17:2; 20:49; 미 2:4; 함 2:6).

(3) 즉 바벨론의 파멸이 엄청나므로 하나의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참조, 왕상 9:7; 대하 7:20; 겔 14:8). 이 예언은 12:1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이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므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간직하게 만드신다. 이러한 소망이야말로 기나긴 세월 동안 기독교가 존속해온 근간이 된다.

6. **Q** 바벨론의 강포가 폐하여진 원인은 무엇인가? (4, 5절)

**A** (1)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활을 꺾으셨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께서 악인이 믿고 있던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제하셨기 때문이다.

(2) 그래서 바벨론의 확대하던 자들이 그치고 강포한 성이 폐하여졌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말씀인 동시에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롬 13:1).

(3) 풍요하고 강한 군대를 가졌던 바벨론이 뒤집혀 망하게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또한 다른 자들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이 경건한 자들의 태도는 아니다.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그분과 공동 보조를 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악인들을 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이다.

7. **Q**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세력을 어떻게 꺾으셨는가? (5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몽둥이와 활(笏)을 꺾으셨다.

(2) 여기서 몽둥이와 활은 바벨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다(10:5).

(3) 이것은 왕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막대기 혹은 지휘봉으로, 권위나 두드러진 권력을 상

징한다.

- (4) 이런 상징을 시 110:2에서 '권능의 흠', 렘 48:17에서 '강한 막대기' 그리고 켈 19:11에서 '권세잡은 자의 흠'이라고 언급되었다.
- (5) 한편 지극히 높은 왕이신 여호와와 흠은 유다 지파이며 여기에 다윗 왕조가 속해 있었기에(시 60:7;108:8) 이 흠은 은유적으로 다윗 왕권이 신적 권위의 확대된 모형임을 보여 준다.
- (6) '흠'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성경에서는 목자의 막대기(시 23:4)나 농부의 도리깨(28:27) 등 어떤 종류의 막대기보다 더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 (7) 그러므로 본절에서 몽둥이와 흠을 꺾으신다는 것은 바벨론의 권력을 꺾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서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가 더 높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8. ㉠ 바벨론의 포학했던 모습은 어떠한가? (6절)

- ㉠ (1) 그들이 여러 민족을 쳐서 괴롭히고 무자비하게 억압하여도 그들을 막을 자가 없었다.
- (2) 바벨론의 군주 정치는 너무 부당하고 포학했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 지나치게 난동을 부렸다(참조, 47:6; 습 1:15).
- (3)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인들과 사단의 세력들이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들의 난동은 잠시 잠깐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참고 인내해야 한다(참조, 눅 21:19; 롬 5:3,4; 살후 1:4; 약 1:3).

#### 9. ㉠ 포학했던 바벨론의 권력이 꺾이고 난 후의 모습은 어떠한가? (7절)

- ㉠ (1) 바벨론의 세력이 무너지고 난 후 온 땅이 평안하고 정은하므로 무리가 소리 질러 노래할 것이다.
- (2) 일반적으로 폭군(暴君)이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숨어 있던 자들과 억압당하던 자들이 자유를 얻으며 그로 인하여 기쁜 노래를 부르게 된다.
- (3)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폭정을 행하는 잘못된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고 또한 폭정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정의와 진리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4) 이런 용기는 진리 안에서 바로 설 때 생긴다. 즉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일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참조, 요 8:32; 딤후 2:15).

#### 10. ㉠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하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이 바벨론의 패망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자기들을 작별(斫伐)할 자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2) 이와 같이 선지자는 바벨론의 패망에 관하여 더 효과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다.
- (3) 즉 선지자 이사야의 의도는 온 세상의 증오를 사는 폭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 (4) 세상의 악한 세력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탄식하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참조, 출 2:23; 삼상 9:16; 대하 30:27; 시 74:23; 102:1) 친히 보우하신다.
- (5) 그러므로 독재를 행하고 백성을 억압하며 공의를 시행치 않는 자들은 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바로 서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와 타협하여 세상에서 잠시 낙을 누리려 하지 말고 옳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편에서 서야 한다(참조, 출 32:26).

11. **㉠** 어디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환영하는가? (9절)

- ㉠** (1) 아래의 음부가 바벨론을 인하여 소동하며 그들의 몸을 영접하고 이미 죽었던 세상의 왕들도 그곳에서 일어나 환영할 것이다.
- (2) 여기서 음부는 히브리어로 <스울>인데 히브리인들은 죽은 자가 거하는 암울한 지하 세계의 실체로서의 분명한 장소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참조, 욥 10:21, 22; 시 6:5; 143:3).
- (3) 또한 구약에서 음부(히, 스울)는 인간이 죽은 후 멸절되어 없어질 장소가 아니고 죽은 자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실제적인 장소로 나타나 있다(참조, 욥 26:6; 시 139:8).
- (4) 그래서 본절의 말씀은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일어나 독재자의 교만과 그로 인한 멸망을 조롱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 (5) 그러므로 이 귀절은 세상의 악한 세력(바벨론)에 대해 매우 냉소적이며 풍자적인 표현이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징벌하시되 계속되는 고통으로 다스리신다.

12. **㉠** 음부에 있는 자들이 바벨론에 대하여 외치는 말은 무엇인가? (10절)

- ㉠** (1) 음부에 있는 자들은 바벨론에게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라고 말하였다.
- (2) 이 말은 의문형보다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다' 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유한성을 부정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신들을 신(神)의 위치까지 올려보려고 하지만 곧 죽음의 나락(奈落)에 빠지고 만다.
- (4) 따라서 시편 기자도 이런 무지한 인간의 유한성을 기록하고 있다(시 82:6, 7).
- (5) 우리는 만유 가운데 홀로 계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해야 한다.
- (6) 이와 같이 우리도 자신의 약점을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낼 때 그분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적절한 때에 도우신다(참조, 히 4:16).

13. **㉠** 화려했던 바벨론의 영광은 어떻게 되었는가? (11절)

- ㉠** (1) 이사야는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음이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묘사하였다.
- (2) 바벨론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관심이 대단했고 그들의 악기 또한 다양했다(참조, 단 3:7, 10). 이것은 그들의 문화적인 수준 뿐 아니라 사치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호사(豪奢)를 누리는 자들을 다른 인간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시키신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 (4) 압제와 강포를 행하면서 재물을 모으는 자들은(욥 20:15)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며 사치하고 세상적인 즐거움만을 추구하게 되는데(참조, 겔 28:5; 약 5:5) 이런 자들은 곧 시들어 버리는 풀과 그 꽃 같다(참조, 시 37:2; 약 1:10, 11).
- (5) 그리스도인들도 지나치게 세상의 물질에 눈이 어두우면 바벨론의 멸망과 같이 추한 모습만 남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미구에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보이기 보다는 영원히 존속할 하늘의 것들(생명, 진리, 정의 등)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참조, 고후 4:16-18).

14. **㉠** 선지자는 바벨론의 몰락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12절)

- ㉠** (1) 본절에서는 바벨론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啓明星)으로 보았고 바벨론의 몰락을 별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 (2) 그런데 혹자는 이 계명성을 사단의 실체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그런 영적인 의미를 내세우기 보다는 사실적 의미에서 바벨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Calvin).
- (3) 또 한 가지는 숲속의 나무가 도끼에 찍혀 쓰러지는 비유이다.

- (4)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의미는 바벨론의 급작스런 몰락을 나타내는데 그들이 아무리 강한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면 하루아침에 망하고 만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5) 본절에서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는 말은 이사가야 자주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뻣뻣한 삼립이 베어져 폐허가 된다는 것은 곧 나라의 멸망을 상징한다(참조, 2:12, 13; 10:33, 34).
- (6)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불의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여 모두 즐지에 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거나 아부하는 용기 없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15. **㉠ 바벨론 왕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13, 14 절)**

- ㉠** (1) 그는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못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 (2) 여기서는 바벨론 왕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는 자신의 위대함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모든 삶에 관한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스스로 믿었다.
- (3) 바벨론 왕은 그 자신을 신과 같이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하였다(참조, 시 48:2).
- (4) 그러나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고 말하였다(약4:14).
- (5) 이제 우리가 현명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또한 그분의 주권에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

16. **㉠ 이처럼 교만하던 바벨론 왕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 절)**

- ㉠** (1) 이제 그는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게 될 것이다.
- (2) 바벨론 왕은 자신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겼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시발점(始發點)이었다(참조, 창 3:5).
- (3) 이런 교만한 마음과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게 하기 보다는 그를 재 위에 엎어지게 했고 결국은 깊은 음부로 인도하였다.
- (4)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자는 만인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생활 가운데 늘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요 13:4, 5).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진노와 심판에 자리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신다.

17. **㉠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벨론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6, 17 절)**

- ㉠** (1) 그는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驚動)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였다.
- (2) 이 말썽은 음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곧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에 관한 것이다.
- (3) 바벨론이 한때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두기는 했으나 그 행위는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렘 25:11, 12; 29:10).
- (4) 그런데 유다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 멸망해야만 했다. 결국 하나님과 원수로 지낸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하여 B. C. 539년에 망하였고(참조, 단 5:30) 유다 백성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다(대하 36:22, 23; 스 1:1, 2).
- (5) 불의한 통치자들은 자기의 권력만 믿고 폭정을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된다. 비록 겉모습은 선한 목자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숨겨진 이리의 모습을 보시기 때문이다.

18. **㉠ 열방의 왕들과 바벨론 왕의 마지막은 어떻게 다른가? (18, 19절)**

- ㉠** (1) 열방의 왕들은 모두 죽어서 자기의 집에서 영광 중에 자지만 바벨론 왕은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겨 나무가지처럼 버려지고 그 주위에 시체가 둘러싸일 것이다.
- (2) 선지자 이사야는 여기서 평화롭게 죽어 안장된 열방의 왕들과 죽은 뒤에도 안장되지 못한 바벨론의 왕을 비교하고 있다.
- (3) 고대 사람들은 시체가 땅에 묻혀 보관되므로 마지막 날에 영원 불멸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매장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
- (4) 그런데 바벨론 왕은 죽은 후 매장당할 가치조차 없어 길에서 버린 바 되어 짓밟힐 것이라고 하였다.
- (5) 이런 사실은 바벨론 역사에서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므로닥(Evilmerodach)이 자기 부친이 죽었다는 증거를 보여 주기 전에 충성하지 않겠다는 귀족들의 말에 느부갓네살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허락하여서 성취되었다.
- (6) 이처럼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아합과 이세벨도 같은 운명에 처하였다(참조, 왕상 21:19, 23, 24; 왕하 9:34-37). 이사야는 이렇게 악인들의 최후가 주는 교훈을 너무 생생하게, 피부에 와 닿게 표현하여 우리들에게 악의 길을 떠나도록 경고하고 있다.

19. **㉠ 바벨론 왕이 안장함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절)**

- ㉠** (1) 그는 자기 땅을 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죽였기 때문이다. 이런 악을 행하는 자와 그 후손은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할 것이다.
- (2) 여기서 ‘자기 땅과 백성을 망하게 하였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분노케 하므로 그 땅이 황폐되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가리킨다.
- (3) 그래서 이런 자들은 후손도 끊어지므로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참조, 시 109:13).
- (4)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을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교만을 꺾어 세상에서 끊어 버리신다(시 34:16).
- (5) 반대로 경건한 자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과 그 후손을 축복하시고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다(참조, 시 112:6; 잠 10:7).

20.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땅과 자손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 (2) 본절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이사야가 예언 수행의 대상을 생각했다면 그것은 메대인일 것이다(13:17).
- (3) 결국 메대인들에 의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패망하고 말았다.
- (4) 바벨론 사람들은 도시의 건설자로서 유명했으나(참조, 창 10:10; 단 4:30) 회복하여 다시 강력한 성읍을 쌓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망하게 되었다.
- (5) 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조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형벌을 받기 때문이다(출 20:5).
- (6)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은 관계성이 중요시된다. 그리스도와 성도, 교회와의 관계(고전 1:26-29; 엡 1:22; 4:12; 5:22-32)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특별히 부모들의 행동 거지(行動驅止)는 그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 (7) 그러므로 부모나 먼저 된 자들은 마땅히 후손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올바른 교육을 베풀어야 한다.

21. **㉠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선언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2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본절 초두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는 모든 내용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지고(至高)한 목적을 알리는 사명이 있을 뿐이라는 의미이다.
- (3) 여기서 ‘그 이름’이란 명예나 명성, 칭찬을 말하고(참조, 신 26:19; 습 3:20) ‘아들과 후손’은 아들과 손자를 의미한다(창 21:23; 욥 18:19).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지만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적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 (5) 악한 인간들은 자기들의 권세와 영광을 후손에게까지 이어가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영광을 꺾으시듯 그 모든 영광을 빼앗고 대신 불명예와 수치만을 남겨 주신다.

22.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함과 동시에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하셨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땅으로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바벨론을 소제(掃除)하리라고 하셨다.
- (2)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으로 하여금 습기가 많은 곳에 사는 고슴도치(습 2:14)나 야생 짐승이 사는 황무지가 되게 하고 썩어서 악취만 풍기는 물웅덩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계 18:2).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버리실 것이라고 하셨다.
- (4)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바벨론과 같은 형벌을 내리신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살아 남을 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부패한 마음과 생각을 인정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23. ⓐ 새롭게 전개되는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24-27절)

- Ⓐ (1) 선지자 이사야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을 궁극적 구원으로 연결시키는데 그 예언적 비유를 가까운 곳에서 찾았다.
- (2) 현재 유다의 원수는 앗수르이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포로로 끌고갔고 유다의 독립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수차에 걸쳐 유다의 구원을 약속하셨으나(10:16-19, 25-27, 33, 34) 유다 백성은 그것을 믿지 못하였다.
- (4) 그래서 새로운 예언으로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려고 하셨다. 그 예언은 앗수르의 멸망이다.

24. ⓐ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셨는가?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즉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라’고 말씀하신다.
- (3) 앗수르에 관하여 이미 10장에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을 당신께서 친히 경영하시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맹세로 보증하셨다(참조, 히 6:17).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대한 확실한 보증을 위해 맹세가 필요하셨던 것이다. 물론 하나님 자신은 신실하며 불변하시는 분이시지만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을 위해 맹세와 같은 증거를 보이셨다.

(5) 여기서 우리는 크고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참조, 22:14).

25. **㉠** 하나님께서 유다를 해방시키시기 위해 앗수르를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 앗수르 사람을 당신의 땅에서 파(破)하며 당신의 산에서 밭아래 밟으시므로 멩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산헤립의 군대를 당신의 천사를 파송하여 파멸시킨 사건과 관련하여 생각해야 한다(참조, 37:36; 왕하 19:35).
- (3) 아주 위험한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힘으로 당신의 백성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구속을 대망(待望)하게 하려는 의도이다.
- (4) 이런 충격적 사건을 통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모든 다가오는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된다.

26. **㉠** 앗수르의 멸망과 하나님의 계획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6, 27절)

- ㉠** (1) 그 일은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경영이며 열방을 향하여 퍼신 그분의 손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폐하거나 돌이킬 수 없다.
- (2) 이사야 선지자는 산헤립의 앗수르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망하게 된 사건(왕하 19:35)이 곧 세계적 강국이 전복되고 이스라엘이 멩에를 벗어버린 것이라고 여기지는 않았다.
- (3) 그러므로 이 사건은 세계적 강대국이 메시아에 의하여 파멸되고 새로운 왕국이 건설된다는 미래적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단 2:31-44).

27. **㉠** 하나님의 경영의 불변성은 어떠한가? (27절)

- ㉠** (1)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은 누구든지 폐할 수 없고 그분께서 손을 퍼신 것은 누구라도 돌이킬 수 없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목적이 깨어지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시 33:11)는 의미로서 이것에 도전할 인간이나 다른 피조물이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낸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바로(창 12:17)나 아비멜렉(창 20:3, 17)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은 1:2; 3:17)과 같이 당신의 뜻을 변경시키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켜 자비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변함이 없고 또한 그 일에 대하여 후회하심도 없다(참조, 민 23:19).

28. **㉠** 블레셋과 유다 왕 아has스까지의 이스라엘 전사(戰史)를 요약하라 (28, 29절).

- ㉠** (1) 블레셋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으로서 가사와 아스돗에 다곤 신전을 두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적대 세력이었다(삿 16:23; 삼상 5:1-7).
- (2) 그들이 성경에서 최초로 이스라엘의 주된 적으로 언급된 것은 B. C. 11세기 초엽이었던 삼손 시대였다(삿 13-16장). 이 무렵 그들은 이미 적어도 단과 유다 지파를 지배하고 있었다(삿 14:4; 15:11).
- (3) 그 후 다윗이 가드 성읍을 정복하고 그곳을 영지화함으로 인해(왕상 18:1) 그들의 정복욕은 일단 주춤하게 되었다. 다윗은 사울 시대에 빼앗긴 영토를 다시 회복하고 블레셋 군대를 가사와 아스글론 및 아스돗까지 패퇴시켰다.
- (4) 여호람 시대에 들어와서 다시 블레셋은 세력을 키워 유다 왕국을 침입, 왕국을 습격하고 왕비들과 자녀들과 재산들을 약탈하여 갔다(대하 21:16, 17).
- (5) 그 후 웃시아가 통치하면서 유다의 세력은 다시 회복되었다. 그는 블레셋 영토를 성공리에 습격하여 블레셋의 몇몇 성읍들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자신의 수비대 요새를 세웠다(대하 26:6, 7).

(6) 그러나 아하스 시대에 와서 유다 왕국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적인 패배를 맞고 있었다(대하28:18).

29. **㉠** 이사야가 블레셋에 대하여 경고를 받은 때는 언제인가? (28절)

- ㉠** (1) 그때는 유다의 12대 왕인 아하스가 죽던 해였다(B. C. 725).  
 (2) 본래 아하스는 친앗수르파였으나 지금은 블레셋이 히스기야에게 앗수르에 대하여 반란을 일으키자고 제안하여 앗수르가 곤경에 빠졌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잠시 뿐이고 블레셋은 망할 운명에 처해 있으므로 유다 백성은 여호와를 신뢰해야 한다고 경고하셨다.

30. **㉠** 블레셋은 어떤 나라인가? (29절)

- ㉠** (1) 블레셋은 율바로부터 가사의 바로 남쪽까지 이르는 서남부 팔레스틴의 좁은 해안 평야에 위치해 있다.  
 (2) 이 나라는 율바,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등 5대 성읍을 구성했으나 아스글론만 직접 해안에 위치해 있었다.  
 (3)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했으나 순종하지 않고 남겨 둔 민족이었다(민 33:52; 신 7:16).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시로 남겨 두셨다(민 33:55).  
 (4)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언제나 적대감이 존재하여 서로 망하기를 바라는 관계가 되었다.  
 (5)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데 치명적인 장애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31. **㉠** 무엇 때문에 블레셋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29절)

- ㉠** (1) 블레셋은 땅을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인해 기뻐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쥌고 그 열매는 날으는 불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여기서 '너를 치던 막대기'는 어느 특정인이 아닌 유다 민족 전체와 관련시켜 '다윗의 활'이나 '왕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리고 '독사와 불뱀'은 유다의 세력이 약해져 블레셋이 잠시 즐거워하지만 그 후 곤경에 다시 빠지게 될 것을 말한다. 이는 역사적으로 히스기야가 블레셋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장악했던 일(왕하 18:8)과 연관된다.  
 (4) 그러나 이것을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들의 억압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지만 끝내는 악인들이 패망하고 오히려 의인들이 번창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5) '독사와 불뱀'이 경건한 자들에게 본래 해롭지 않지만 악인에게 해로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과 잘못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님(시 18:26)과 복음(고후 2:16)도 동일한 원리에 의하여 악인들에게 해(害)가 된다.

32. **㉠** 유다 백성과 블레셋인과의 반대되는 모습은 어떠한가? (3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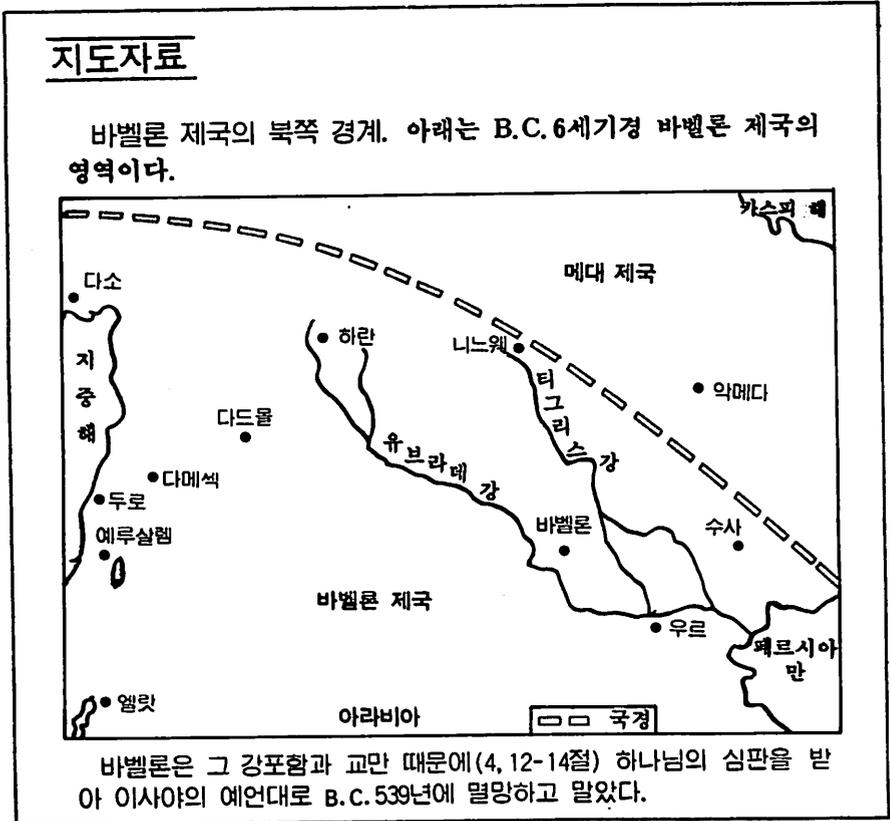
- ㉠** (1)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고 빈핍한 자는 평안히 누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가난한 자'와 '빈핍한 자'는 막대기가 부러진 유다 백성을 가리키고 '뿌리'는 블레셋을 말한다.  
 (3) 따라서 이 말씀은 비록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모든 면에 매우 깊게 억압을 받고 위협당하지만 마침내 그 땅은 고요와 평화 가운데서 즐거워할 것이라(슌 3:12, 13)는 의미이다.  
 (4)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도 매우 큰 환난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영적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 준다.

33. **Q**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성읍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31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에게 통곡하고 애곡할 것을 명하셨다.  
 (2) 그 이유는 잘 훈련된 군사들이 북방에서부터 몰려오므로 블레셋이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여기서 북방에서 오는 군사는 앓수르를 가리키는데 앓수르는 가는 곳마다 파괴와 약탈을 일삼는 잔혹한 나라였다.  
 (4) 그러므로 블레셋이 유다의 피로움을 즐거워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장래를 모르는 어리석음의 소치였다.  
 (5)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앞으로의 일을 모르면서 무조건 흥분하거나 들떠 있지 말고 신중하게 당신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하도록 요구하신다.

34. **Q** 블레셋이 유다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대답하라고 하셨는가? (3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끈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고 대답하게 하셨다.  
 (2) 하나님은 유다에 대한 불변의 보호자가 되신다. 때문에 시온은 흔들림이 없이 서 있을 것이다.  
 (3) 이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맺으신 언약(창 17:7)과 또한 성전을 세우도록 계획하셨을 때(대하 3:1; 시 65:1; 84:7) 이미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기억되고 보존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4)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소망이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보여 준다(골 2:32).



## 제 15 장 모압의 멸망에 관한 경고

단락구분 1 모압에 관한 경고 / 2-4 모압이 수치와 두려움으로 떨다 / 5-6 선지자가 모압을 불쌍히 여기다 / 7-9 하나님께서 모압에 사자를 보내시다

1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루 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루 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2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 하였고 수염을 깎았으며

3 거리에서는 굵은 베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4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전사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이 속에서 떨도다

5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예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6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정한 것이 없음이로다

7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8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예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음이 브엘엘림에 미치며

9 디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렇지라도 내가 디본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 1. ㉠ 유다의 적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경고는 어느 나라에 관한 것인가?

㉠ (1) 그 경고는 요단 강 동편 사해 근처에 거주한 모압에 관한 것이었다.

(2) 모압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는 다음 장(章)에까지 연결되는데 이사야는 가장 가까운 적으로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에 대하여 경고를 한 후 동쪽에 위치한 모압으로 그 화살을 바꾸었다.

(3) 본래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속되어 있었다. 사울은 모압인에게 가혹한 벌을 주었고(삼상 14:47) 다윗은 그들을 완전히 정복하였다(삼하 8:2). 그리고 왕국이 분할된 뒤에도 모압은 북이스라엘의 차지였고 정복자인 그들에게 조공을 바쳤다.

(4)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후 모압 왕 메사(Mesha)는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였다(왕하 1:1;3:4).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동맹하여 유다를 침공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의 동맹을 깨뜨리시고 패하게 하시므로 유다는 무혈(無血)의 승리를 거두었다(참조, 왕하 3:1-27).

(5)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 대한 대적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세력을 꺾으시므로 당신 백성의 구속을 예표하신다.

### 2. ㉠ 모압에 관한 경고의 내용은 무엇인가? (1절)

㉠ (1) 그 경고는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荒廢)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2) 여기서 '모압 알'은 아르는 남단에 위치해 있던 모압의 수도로서 현재는 랍바(Rabba)란 이름의 마을이다. 이 성읍은 헬라어로 <아레오폴리스>이다.

(3) 이 성읍은 아모리 왕 시혼이 모압으로부터 탈취한 성이기도 하다(민 21:28).

(4) 그런데 이 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밤에 갑자기 멸망당하게 된다. 이것은 모압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파멸이 임박했고 어떤 대비책을 준비하기도 전에 그 일이 닥

칠 것이라는 엄중한 사실을 나타내 준다(렘 23:19; 살전 5:2, 3).

3. **㉠**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 본질의 의도는 무엇인가? (1절)

- ㉠** (1) 본질은 모압의 멸망을 언급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것이다.  
 (2) 이 예언의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 모압인들이 많은 돌변적 재난, 즉 도시가 붕괴되고 온 나라가 멸망당하는 일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3) 둘째는 세상이 온통 혼란의 와중에 빠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은 안전하게 보살피시고 원수들에게 복수를 가하시겠다는 의도를 밝히신 것이다.  
 (4)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회에 밀어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들, 즉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나아가 영적인 압력들 중에서도 당신의 교회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결의(決意)를 표명한 것이다.

4. **㉠** 모압인들은 그들이 망하므로 인해 어디에서 울게 될 것인가? (2절)

- ㉠** (1) 그들은 바잇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 것이다.  
 (2) 여기서 '바잇'은 집이나 성전을 뜻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성전으로 통용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곧 성전을 그 예로 한다(참조, 출 23:19; 34:26; 신 23:18; 수 9:23).  
 (3) 이사야는 그 성전(우상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위해 '디본 신당'을 지적했다. 디본은 고대 모압의 성읍으로(민 21:30; 32:3, 34; 수 13:9, 17; 렘 48:18, 22) 대단히 중요한 지역인데 오늘 디반(Diban)과 동일한 곳이다.  
 (4) 여하튼 모압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맹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우상에게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다.  
 (5)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나아갔으나 그것이 더 큰 불행을 초래하였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이와 같은 불행을 겪을 수밖에 없다.

5. **㉠** 선지자는 모압이 당하는 고통을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였는가? (2절)

- ㉠** (1) 우상의 산당에 올라가면서 모압 사람들이 울며 모압의 성읍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였다고 표현하였다.  
 (2) 하나님의 진노가 느보와 메드바에까지 이르렀다는 표현은 모압 전역에 하나님의 파멸이 깊숙히 임했다는 말이다.  
 (3) 느보는 모압의 고대 성읍으로 벤 바알 드온과 메드바 사이에 있으며 헤스본 남동쪽 약 5km 지점에 위치했다. 느보에 관하여는 민 32:3, 38; 33:47; 대상 5:8; 렘 48:1, 22에 언급되어 있다.  
 (4) 메드바도 민 21:30; 수 13:9, 16; 대상 19:7에 언급되어 있는 고대 모압의 성읍으로 요단 강 동쪽 특히 아르는 강과 헤스본 사이에 펼쳐진 고원을 가리킨다. 이곳은 헤스본 남쪽 10km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날의 마테바이다.  
 (5)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알(Ar)과 길(Kir)을 등장시켰고 세번째로 느보(Nebo)와 네번째로 메드바(Medeba)를 등장시킴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방방 곡곡에 미칠 것과 피할 수 없음을 밝혔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모압 땅 어디에도 없음을 나타낸다.

6. **㉠** '그들이 각각 머리털을 없이하였고 수염을 쥐았으며'란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는 슬픈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슬픔의 표시로 수염과 머리털을 깎는 풍습을 말한다.  
 (2)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동방 여러 나라에서는 통곡할 때나 슬픔을 표시할 때 이런 행위들을 흔히 하였다(참조, 22:12; 렘 16:6; 암 8:10; 미 1:16).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통회의 모습을 보이

기 위해 머리를 깎도록 하셨다(참조, 욥 1:20; 미 1:16).

(4) 즉 모압이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로 황폐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슬픔의 표시로 수염과 머리를 깎으라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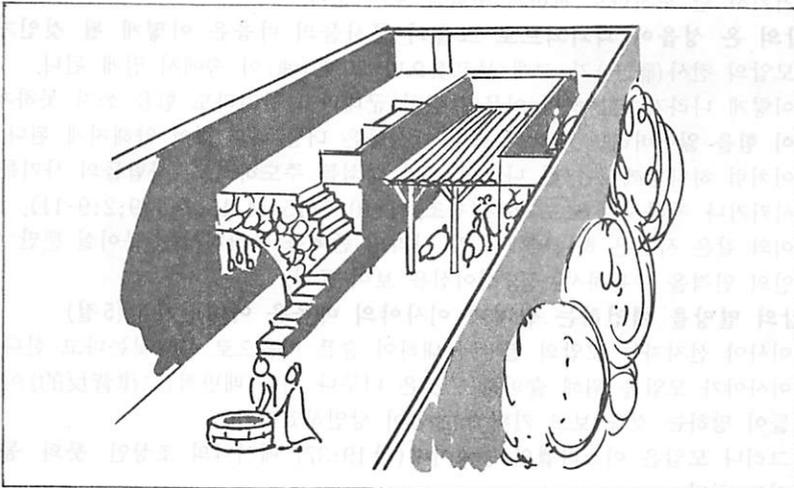
(5) 한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머리를 밀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레 19:27; 21:5) 그 이유는 머리 모양을 이상하게 깎거나 미는 것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레 9:26; 25:23; 겔 5:1).

7. **Q** 모압의 거리와 각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 (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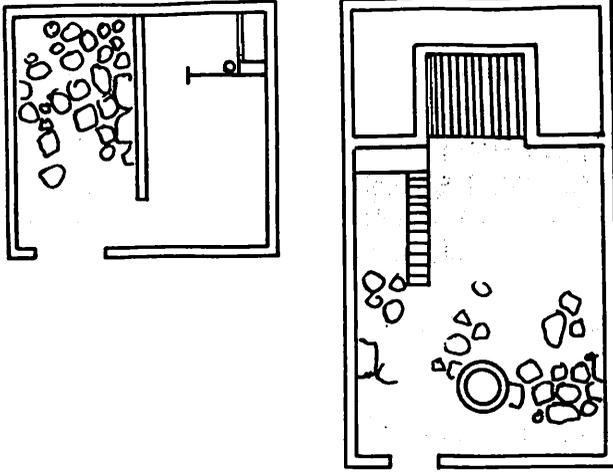
- A** (1)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압이 황무지처럼 되고 그로 인하여 거리의 사람들은 굶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 (2) 모압에 슬픔이 가득 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배옷을 입었고 각처에서 슬피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 (3) 일반적으로 '배옷'은 슬픔과 고통의 표시로 입었고(3:24; 20:2; 22:12; 37:1, 2; 50:3; 58:5) 앗수르나 아람, 바사, 이스라엘 등에서도 이와 같은 관습이 있었다(참조, 왕상 20:31; 느 9:1; 에 4:1, 2; 욥 3:5).
- (4) 그리고 '애통'하는 것도 하나의 슬픈 표시였고 애굽과 바사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슬픔을 나타낼 때 이와 같이 애통하였다(렘 51:8).
- (5)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나라는 기쁨이 사라지고 구석구석에서 슬픔과 눈물의 고통만 남게 될 뿐이다.

8. **Q** 본절에 나타난 모압의 가옥 구조는 어떠한가? (3절)

- A** (1) 정착 생활을 하게 된 유목민들의 가옥 구조는 지붕이 평평한 형태의 직사각형이었다.
- (2) 집을 지을 때 소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 사용하였다(창 11:3).
- (3) 또한 지붕을 조립할 때는 나무 기둥이나 종려나무로 만들었으며 그 위에 작은 나무 줄기, 나뭇가지, 갈대 혹은 종려나무 잎을 두어 돌 로울러(stone roller)를 가지고 평평하게 한 점토층을 덮었다.
- (4) 바깥 층계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 지붕은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자리였고(삼상 9:25, 26; 삼하 11:2) 삼대를 건조시키는 곳이기도 하였다(참조, 수 2:6).
- (5) 이런 집들은 신약 시대에 평평한 지붕과 함께 박공(樑樑, 마루머리나 합각머리에 ㄴ자형상으로 붙인 두꺼운 널빤지)이 있었다.
- (6) 이런 구조의 가옥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7) 이런 형태의 가옥은 단층이나 2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단층과 2층 구조의 평면도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9. **Q** 모압의 부르짖음이 어디에까지 들리게 되는가? (4절)

- A** (1) 헤스본과 엘르알레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야하스까지 들리게 된다.  
 (2) 헤스본은 모압의 성읍이었지만 한때는 암몬의 수도이기도 했다(민 21:25-30; 신 2:24, 26, 30; 수 12:2). 그 후 이스라엘에게 점령되어 르우벤 지파에게 주어졌다(민 32:37; 수 13:17). 이곳은 메드바 북쪽 10km 지점의 헤스본과 동일하다.  
 (3) 엘르알레도 역시 모압의 성읍으로 갓과 르우벤 지파가 점유했으나(민 32:3,37) 후에 모압 사람이 탈환하였다(참조, 15:4; 16:9; 렘 48:34). 이곳은 헤스본 동북쪽 4km 지점의 엘알과 동일시된다.  
 (4) 한편 야하스는 본래 아모리의 성읍인데 모압 평지에 있고 요단 강을 동쪽으로 남북으로 이어진 통상호를 끼고 있었다. 이곳은 헤스본 동남쪽 11km 지점의 길벳 에데임(Khirbet et-Teim)과 동일시된다.  
 (5) 본절에서 의도하는 바는 거리상의 차이를 나타내기 보다는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하여 모압의 모든 도시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회복할 수 없는 포괄적 파괴의 상태에 빠지고 거기서 한 도시라도 피하지 못함을 보여 준다.

10. **Q** 모압의 온 성읍이 파괴되므로 그들의 군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 A** (1) 모압의 전사(戰士)가 크게 부르짖으며 그 혼(魂)이 속에서 떨게 된다.  
 (2)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고 할지라도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결국 무력한 백성들은 더할 나위 없이 약해지게 된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흥망 성쇠를 주도하시고 사람들의 사기를 고양(高揚)시키거나 저하시킬 수도 있다(참조, 41:10; 출 15:14, 15; 수 1:9; 2:9-11).  
 (4)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 나라의 존폐를 주장하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인격을 주관하시는 참신이심을 보여 준다.

11. **Q** 모압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마음은 어떠한가? (5절)

- A** (1)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멸망에 대하여 슬픈 마음으로 부르짖는다고 한다.  
 (2) 이사야가 모압을 위해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이율 배반적(二律背反的)이다. 그는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함이 당연하였다.  
 (3) 그러나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족이며(창 19:37) 메시아의 조상인 룻의 동족(마 1:5)이기도 하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모두 멸망 가운데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그중에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기를 소원하신다(참조, 겔 18:21-23).
- (5)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와 같이 악인의 멸망을 슬퍼하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라도 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해야 한다.

12. **Q** '귀인들은...도망하여'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가? (5절)

- A** (1) 이 귀절은 모압이라는 나라가 도피했다는 의미이다.
- (2) '귀인들'은 문자적 의미로 '여자의 귀인들'이란 말이고 또한 나라는 여성 명사이므로 이것은 한 나라, 즉 모압을 의인화한 것이다.
- (3) 그런데 이들이 도주한 소알은 롯의 일로 인해 멸망을 면한 조그만 성읍(창 19:20-22)으로 사해의 서남단에 위치한 성읍이다.
- (4) 이곳은 길(Kir) 모압과 함께 요새화된 남부의 성읍으로 모압에서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유다를 향해 바라볼 수 있는 장소였다.
- (5) 그러므로 모압인들이 소알로 도주했다는 본귀절은 매우 타당한 말씀이다.

13. **Q** 모압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여 떠난 곳은 어디인가? (5절)

- A** (1) 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야로 도망하였는데 루히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었다.
- (2) 루히 비탈길은 알 모압과 소알 사이에 있는 모압 본토 중심으로 길이 나 있었으며 호로나임의 길(렘 48:5)은 언덕 아래로 길이 나 있다. 이곳은 메사가 공격해서 탈취한 성읍이었다.
- (3) 여기서 모압인들은 그들의 재난을 피하여 울고 통곡하면서 피난 길을 떠나는데 마침내 그들은 에돔과 유다의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게 되었다.

14. **Q** 이사는 모압의 패망을 무엇과 비교하였는가? (6절)

- A** (1) 선지자 이사는 본절에서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靑靑)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 (2) 니므림(Nimrim)은 '맑은 물의 흐름'이란 뜻을 가진 모압의 강인데 사해 남안 부근에서 동쪽으로부터 흘러 들어오고 있는 와디 누메이라(Wadi Numeirah)로 추정된다.
- (3) 이 강은 6,7개의 수원(水源)이 있는데 높은 언덕에서 많은 물이 흘러 나오고 뜰을 따라 정원도 있었다.
- (4) 그런데 '물이 마르고'라는 말은 적에 의하여 물 근원이 차단되었기 때문에 물이 끊어진 것을 말한다(왕하 3:19, 25; 대하 32:3, 4).
- (5) 그런데 본절은 이사가 모압의 폐허를 강조하기 위해 쓴 과장된 표현이다. 즉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땅이나 그곳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막처럼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해 과감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 (6) 모든 성경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므로 은총을 잃어버린 곳에는 아름다움이란 찾아 볼 수 없다(참조, 욕 15:34; 시 73:19; 겔 25:13; 욕 3:19; 마 23:38).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악인과 동일한 형벌을 받게 된다(겔 18:24).

15. **Q** 피난 길에 나선 모압인들의 비참한 모습은 어떠한가? (7절)

- A** (1) 모압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 피난을 떠나는 모압인들은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될 것이다.
- (2) 이와 같이 어려움을 피하여 거주지를 떠나는 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가지고 가는 일은 보편적인 것이다(참조, 창 31:17-20).
- (3) 모압인들도 역시 일단 재난을 피한 후 평안해지면 본토로 다시 돌아오려는 생각으로 그

들의 재산을 가지고 피난을 떠나게 될 것이다.

- (4) 그러나 본절을 통해 볼 때 모압 사람들은 그들의 재물을 보관할 만한 창고나 성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부득이 버드나무 숲속에 숨기게 될 것이다.
- (5) 이런 상황이 모압인들에게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것이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마 24:17, 18).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욱 절실했다(참조, 마 25:13; 롬 13:11-14).

16. **Q** 모압 전역에 입한 재난으로 인하여 슬피하는 상황이 어떠하였는가? (8, 9절)

- A** (1) 곡성이 모압 사방에,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과 브엘엘립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하였다.
- (2) 즉 모압 백성들이 안전을 위해 국경 지역으로 피신했으나 그곳까지 적들이 침공해 오므로 그곳에서 부르짖는 곡성이 들려 오게 되었다. 그래서 ‘곡성이... 사방에 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 (3) 여기서 디몬은 디본을 가리키는 것 같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에서 ‘담’은 ‘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담의 소리와 디몬의 소리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고의적으로 디본을 디몬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
- (4) 그러므로 이것은 모두 모압의 철저한 파괴를 나타내며 이것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된다.

17. **Q** 하나님께서 모압을 징계하셨으나 그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어떤 일을 더 행하실 것인가? (9절)

- A** (1) 하나님께서는 디몬에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獅子)를 보내리라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재앙을 더 추가하시겠다는 의미이다. 이런 재앙의 추가는 모압 사람들이 같은 피를 나는 형제국인 유다에 대하여 비열하고 야만적인 행위로써 그들을 괴롭혔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사자는 느부갓네살(렘 4:7) 이라고도 하고 앓술바니팔이라고도 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하면 느부갓네살이 모압도 정복했다고 기록한다. 한편 앓수르 왕은 B. C. 645년경에 모압을 침공했었다.
- (4)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창 49:9의 야곱의 축복 때부터 유다는 사자로 불리었기 때문에 본절을 유다가 모압을 물리치고 정복한다는 의미로 보기도 한다.

18. **Q** 본장에서 이사야가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적 메시지는 무엇인가?

- A** (1) 그것은 본장의 마지막 절에 언급된 ‘모압에 도피한 자...사자를 보내리라’는 말씀으로 귀결된다고 본다.
- (2) 즉 소수의 모압 사람들이 잔인한 살육을 피해 도망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악인들이 어느 곳에 피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통치권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시 139:7-12).
- (4) 따라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예언을 통하여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준다. 대적들은 잔인하지만 곧 파멸되어 피할 거처도 찾지 못할 것이고 그 대신 성도들은 외적인 무장이 아닌 마음의 무장을 하여 다가오는 환난을 예비할 수 있다(참조, 엡 6:13-17).

## 제 16 장 모압의 멸망을 경고하다

**단락구분 1-5** 모압의 구원을 위하여 다윗의 왕권에 순복할 것을 제시하다 / **6** 모압의 교만 / **7-12** 모압의 교만이 꺾여지다 / **13-14** 불복하는 모압의 멸망

1 너희는 이 땅 치리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낼지니라

2 모압의 여자들은 아르는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3 너는 모략을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오정 때에 밤같이 그늘을 짓고 쫓겨난 자를 숨기며 도망한 자를 발각시키지 말며

4 나의 쫓겨난 자들로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5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6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의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 과장이 헛되도다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심마의 포도나무가 말

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심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너의 농작물에 떠드는 소리가 일어남이니라

10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그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11 이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12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13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 씀이어나와

14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품군의 정한 해와 같이 삼 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 1. Q 본장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멸망당해야 마땅할 이방인도 그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압 족속들에게 당신이 세우신 다윗의 왕권에 복종할 것을 지시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 (3) 그러나 모압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을 높여 교만하게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셨다.
- (4) 그래서 모압인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해 보고자 그들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결코 도움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3년 안에 멸망이 이르케 될 것이라는 확실한 언급만이 있었다.
- (5)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고 있다. 따라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직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감을 느껴야 한다.

### 2. Q 이사야는 모압인을 향하여 이 땅 치리자에게 무엇을 드리라고 하였는가? (1절)

- Ⓐ (1) 그는 치리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선지자의 의도는 모압인들이 제때에 회개하지 않은 점을 정죄하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 (3) 그래서 이 말은 권면보다 그들을 비판하는 냉소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으로서 더 이상 용서의 여지가 없을 것을 말한다.
- (4) 일반적으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해 버리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엄중한 처벌이 있을 때에는 고통을 피해 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들은 파멸당하는 날에 회개할 시간조차 없을 것이다(참조, 히 12:17). 즉 회개의 기회를 놓쳐 버린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감수해야 한다.

3. Ⓞ 이사야는 어린 양을 어떻게 드리라고 하였는가? (1절)

- Ⓐ (1) 그 땅 치리자에게 드릴 어린 양들을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 산으로 보내라고 하였다.
- (2) 본절에서 ‘땅’의 의미로 쓰인 히브리어 (에레츠)는 특정한 나라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에서 ‘세상’을 가리킨다. 그래서 치리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로 볼 수밖에 없다.
- (3) 이는 이방인들도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예배하는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 (4) 셀라는 모압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성읍으로 ‘사막의 바위’로 지칭되지만 여기서는 일부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대유법적(代喩法的) 표현을 사용하였다.
- (5) 그리고 ‘딸 시온 산’이란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 예물을 바치는 곳, 즉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킨다(신 12:5-7; 대하 7:12).
- (6)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당신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르는 엄중한 경고이다.

4. Ⓞ 모압 여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떤 모습처럼 될 것인가? (2절)

- Ⓐ (1) 그들은 아르는 나무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다.
- (2) 이 말씀은 앞절에서 설명하였듯이 모압인을 조롱하였던 것과 같은 내용이다.
- (3) 즉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물을 보내려는 생각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들에게 쫓겨 나서 거처를 찾지 못하고 조그만 소리에도 놀라서 도망가는 새처럼 될 것이기 때문이다.
- (4) 오늘날에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이나 개인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모압 여인들과 같이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된다(참조, 창 3:10; 히 11:7).

5. Ⓞ 비참하고 굴욕적인 상황에서 모압인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구원을 호소할 것인가? (3, 4절)

- Ⓐ (1) 그들은 유다에 대하여 구원을 호소하는데 모략과 공의로 판결하고 정오 때에 그늘로서 숨겨 주고 도망한 자를 들추어 내지 말고 피할 곳이 되어 달라고 하였다.
- (2) 모압인들은 한때 거만했으나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 동정을 호소하며 굴욕적으로 그들의 운명을 유다인의 손에 맡기고 말았다.
- (3) 피로운 피난 길에서 모압인들은 안식처가 필요했으나(참조, 출 13:21, 22; 민 14:14; 신 1:33)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행함대로 보응을 받게 되었다(신 19:19, 21; 마 7:2).
- (4) 여기서 선지자는 모압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흘리는 눈물을 보신다는 뜻(참조, 시 12:5; 38:9; 102:20)을 전해 준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연약한 자들의 도움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의 행위에 대한 판결을 주실 것이다(참조, 시 41:1; 약 2:13).

6. **㉠**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땅은 어찌될 것인가? (4절)

- ㉠** (1) 그 땅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멸절하였다.  
 (2) 이는 모압이 패망하고 그 대신 유다가 구원받게 된 것을 보여 준다. 그들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공의를 행하기 보다는 그 권력을 악용하였다.  
 (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와 권세를 꺾으시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언하신다.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참조, 요 19:11; 롬 13:1)를 남용하여 공의를 행치 않고 악한 자들을 압제하며 개인의 이득만 취하려는 불의한 통치자들은 필경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7. **㉠** 모압이 심판받으므로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 ㉠** (1) 다윗의 장막에 왕위는 인자(仁慈)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할 것이다.  
 (2) 이사야는 이 말씀 가운데서 메시아 왕국의 영속성을 지적하여 경건한 자들이 혼란과 핍박 중에 낙심하지 않도록 했다.  
 (3) 이러한 사실은 비록 유다 왕국이 일시적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수난을 당하지만 그 보좌는 쓰러지지 않고 영광의 왕국이 새롭게 건설될 것을 시사해 준다.  
 (4) 다윗 계통의 왕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백성의 보호자요 인도자며 모으는 자이다(참조, 요 10:16; 11:52).  
 (5)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의하여 세워지는 메시아 왕국은 자비와 진리, 정의와 공의에 의하여 통치되는 새 세계인 것이다(32:1, 2; 단 7:27; 미 4:7).

8. **㉠**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들으신 말은 어떤 내용인가? (6절)

- ㉠** (1) 그것은 모압의 교만에 대한 말들이다.  
 (2) 그들은 지나치게 교만했는데 이러한 그들의 교만은 과장(誇張) 되고 헛되다고 하였다.  
 (3) 하나님께서는 모압에 대하여 긍휼을 제안하셨으나(1-5절) 그들이 이를 거부하고 교만한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제 그 호의를 취소하시고 그들의 황폐를 선언하신 것이다.  
 (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당신의 긍휼을 제시하시며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참조, 절 18:32; 딤펢전 2:4).

9. **㉠**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7절)

- ㉠** (1) 모압이 그들 자신의 교만으로 인하여 파멸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한다는 뜻이다.  
 (2) 여기서 모압이 파멸당하는 원인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만'과 그로 인하여 나오는 잔인함 때문이다.  
 (3)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해지는 자를 물리치시며(약 4:6; 벰전 5:5) 또한 당신의 백성과 교회를 압제하는 세력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힘을 꺾으실 것이다. 그 결과 교만한 자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뿐이다(15:3).

10. **㉠** 모압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는가? (7절)

- ㉠** (1) 그들은 길하레셋에서 먹던 건포도 떡이 생각나서 탄식하며 슬퍼하였다.  
 (2) 여기서 '건포도 떡'을 칼빈(Calvin)은 '기초'(基礎)로 번역한다. 이는 길하레셋이 모압의 중요한 성읍으로 왕도(王都)였기 때문이고, 또한 그 성읍이 벽들로 지어져 강한 토대를 형성했으나 그 성읍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황폐해졌기 때문이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교만한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가혹한 처벌(참조, 창 11:1-9)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능력 아래 스스로 낮아져야 한다(벰전 5:6).

11. **㉠** 모압인들의 식물을 제공하던 밭과 그 소산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8절)

- Ⓐ (1)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라 버렸다.
- (2) 헤스본과 그 주위의 미스홀(Mishor), 벨카(Belka)의 모든 지역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지대이다. 모압인들은 이곳에 저수지를 만들어 정원을 삼았다.
- (3) 십마의 포도나무는 르우벤 지파의 촌락이었던 십마(민 32:38; 수 13:19)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를 일컫는다. 이곳의 포도로 만들어진 포도주는 매우 품질이 좋아서 여러 왕들의 식탁에 오르기도 하였다.
- (4) 그러나 이처럼 화려하고 유명한 곳도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름다운 소산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예수의 저주로 말라 죽는 것과 같다(막 11:12-14).

12. ㉠ 하나님께서 모압을 치시기 전에 그 땅의 형편은 어떠했는가? (8절)

- Ⓐ (1) 전에는 그 십마의 포도나무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짝이 자라서 바다를 건널 정도였다.
- (2) 야셀은 갓 지파의 영토(민 32:35)인 헤스본 북쪽에 위치한 성읍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북으로는 야셀, 동쪽으로는 사막까지, 남쪽으로는 사해 건너까지라고 표현한 것은 한때 번성했던 모압의 과거를 과장하여 설명한 것이다.
- (3) 그런데 이처럼 좋은 땅이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인간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열국의 주권자들, 즉 침입자들에 의하여 짓밟혀 황폐해졌다(참조, 렘 48:32).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과 개인은 그 삶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생명과 풍요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렘 48:32).

13. ㉠ 이사야는 모압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9절)

- Ⓐ (1) 그는 말하기를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고 하였다.
- (2) 이사야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즉 모압인들의 입장에서 통곡하며 탄식하고 있다.
- (3) 이것은 모압인들이 지금은 풍부하여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만 후에 그들이 겪어야 할 쓰디쓴 고통과 슬픔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이사야가 현실적인 모습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4) 세상에서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적인 환락에 빠져 그 속에서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갈 것이다.
- (5) 그러나 인간적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이다(참조, 시 4:6, 7; 호 2:11, 12; 함 3:17, 18).

14. ㉠ 헤스본과 엘르알레의 농작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9절)

- Ⓐ (1) 헤스본과 엘르알레의 여름 실과, 농작물이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침략자들의 함성이 들리므로 이사야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일어난다'(히, 나팔)는 말은 '떨어진다' 또는 '터진다'는 의미이다.
- (3) 그래서 '소리'(히, 헤이다드)라는 말과 결합하여 '원수들의 함성이 네 추수날에 터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4) 이 귀절을 렘 48:32과 연관시켜 볼 때 원수들이 침략하므로 인하여 들려 오는 함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주장이다.

15. ㉠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시므로 모압 땅의 상태는 어떠했는가? (10절)

- Ⓐ (1) 즐거움과 기쁨이 기쁜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소리를 그치게 하신다'는 말은 나라가 황폐되어 다시는 추수할 수 없으므로

로 모든 백성이 비통에 빠지게 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 (3) 모압이 이처럼 곤경에 빠지게 된 원인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1-5절) 스스로 교만하였기 때문이다(6절).
- (4) 이처럼 교만은 멸망의 가장 큰 원인이며 이와 같이 교만한 자는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영광도 탈취당하게 된다(참조, 잠 16:18; 단 5:20; 말 4:1; 약 4:6).

16. **㉠** 모압의 비참한 형편에 대해 느끼는 이사야의 애처로운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1절)

- ㉠** (1) 그것은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발하며 나의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 (2) 이사야는 앞절과 마찬가지로 모압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당해야 할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고 있다.
- (3) 그는 내적 감동을 느꼈다. 즉 내면의 고통을 악기의 울림으로 표시하였다.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영적으로 모압과 연관된 하나님의 목적을 보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목적을 변경시킬 수 없었음을 알았다.
- (4) 그랬기 때문에 이사야의 영혼은 고통의 심연(深淵)에 빠져 들고 말았다. 이는 모압 전체의 멸망을 안타까와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 (5)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경우에 악인들의 멸망을 즐거워하지만 말고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고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야 한다(참조, 눅 23:34; 행 7:60).

17. **㉠** 모압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어떤 방법으로 피하려 하였는가? (12절)

- ㉠** (1) 그들은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들의 성소(聖所)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였다.
- (2)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주 다니는 예배처가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 더 성스러운 곳을 찾는 습관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한 장소에서 신에게 경배하면 더 풍성한 은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모압인들도 역시 그들 최고의 신인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 (4) 모압인들이 그모스를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의 신으로 삼기 때문에 그들을 일컬어 그모스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렘 48:46). 그들의 산당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 당시 모압의 지도자인 메사(Mesha)가 디본(Dibon)에서 가까운 곳인 크로크(Qrchh)에 산당을 건축하였다(참조, 왕하 3:4).
- (5) 또한 유다 왕조에서 솔로몬이 그모스를 위해 산당을 지었으나(왕하 11:7, 33) 약 300년 후 요시야가 그것을 훼파하였다(왕하 23:13).
- (6) 예레미야는 그모스와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포로로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렘 48:7, 13).

18. **㉠** 모압 사람들이 열심으로 우상을 숭배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한가? (12절)

- ㉠** (1) 그들이 우상의 성소에 나가서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무효할 것이다.
- (2) 이것은 무능력한 우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언급한 내용이다.
- (3) 엘리야와 우상의 선지자 850명이 갈멜 산에서 대항할 때 우상의 선지자들은 큰 소리대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우상을 불렀으나 아무 응답이 없었다(참조, 왕상 18:26, 28, 29).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응답받지도 못하는 거짓 신에게 많은 말을 하고 행동을 보여야만 응답이 있는 줄 안다(마 6:7).
- (5) 그러나 살아 계실 뿐 아니라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밀한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마 6:6).

19. **㉠** 오늘날의 성도들이 본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2절)

- ㉠** (1) 본절의 말씀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기들의 우상에 이끌려 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는 결코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2)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은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이라기 보다 발달해 가는 사회 과학 문명과 점점 안락해져 가는 사회 생활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을 빼앗아 가는 안일주의적 사고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 (3) 즉 발달한 과학 문명은 인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므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식을 폐쇄시켜 버린다. 결국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도 하나님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신뢰하는 문명의 이기들을 바라보며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한다.
- (4) 그러므로 모압인들이 우상에게 절하지만 무효(無效)한 것처럼 이런 자들도 결코 그들의 사상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다.

20. **㉠**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3절)

- ㉠** (1) 이는 드고아 목자인 아모스가 모압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을 가리킨다.
- (2) 아모스는 유다 왕 웃시야(B. C. 790-739)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B. C. 793-753) 때의 인물로 B. C. 760년경을 전후로 하여 예언 활동을 했다.
- (3) 이사야가 웃시야의 죽던 해(B. C. 739)부터 예언을 했으므로 아모스는 이사야보다 약 20여 년 앞섰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전에 모압에 관하여 예언하셨다는 본절은 타당한 표현이다(참조, 암 2:1-3).
- (4)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보다 이스라엘 세력이 더 강했으므로 여로보암 2세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압력을 넣었다(왕하 14:24, 25). 그는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우상 숭배의 여러 요소와 혼합시켜(호 2:13-17; 3:4; 4:12; 10:2; 11:2) 참신앙을 변질시켰다.
- (5)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아모스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라는 1:2의 언급으로 물질적 풍요와 종교적 형식화로 인한 영적 타락을 비판하였다(암 5:12, 21).

21. **㉠**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선언하신 최종 경고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 말씀은 품군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 (2) 고용인과 품군 사이에는 시간적 계약을 하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계약 시간이 마치면 품군은 더 일할 의무도 없고 반면에 고용인은 시간을 줄여 주고자 하지도 않는다.
- (3)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모압에 관하여 정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3년보다 빠른 시간 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
- (4) 이 말씀은 앗수르에 의하여 모압이 침공당할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앗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으므로 후에 예레미야가 갈대아인들에게 모압이 멸망당할 것을 다시 예언하였다(렘 48장).
- (5)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3년'이란 기간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 후에 모압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갖는다.

22. **㉠** 3년 내에 모압이 능욕을 당하므로 그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모압이 능욕을 당하므로 남은 수가 심히 적어 소용이 없이 될 것이다.
- (2) 즉 모압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여 힘을 잃게 될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들(1-5절; 벧후 3:9)을 저버리는 자들에게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제 17 장 수리아와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다

단락구분 1-3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황폐될 것이다 / 4-8 멸망 중에 경건한 자들이 남게 되다 / 9-11 멸망 때에 온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 12-14 하나님의 징계로 열방이 침공해 올 것이다

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늪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4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리니

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끝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 그러나 오히려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이 삼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사 오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7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8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며

9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 이는 네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하고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로 두르고 아침에 너의 씨로 잘 밭옥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2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동하였으되 큰 물이 물러옴같이 그들도 충동하였도다

13 열방이 충동하기를 많은 물의 물러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14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의 분 것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의 보용이니라

## 1. ㉠ 본장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가?

- (A)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이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열방이 물러올 것이라고 하셨다.
- (2) 그러나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경건한 자들을 남겨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 (3)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죄는 미워하셔서 철저히 보우하시지만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경건한 무리)은 당신의 피신 팔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본장의 말씀을 통하여 현재의 세대가 살아가기 힘들고 특히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경건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고 인내해야 한다.

## 2. ㉠ 본장에서 처음 주어진 하나님의 경고는 어디에 관한 것인가? (1절)

- (A) (1) 그 경고는 수리아의 수도 다메섹에 관한 것이다.

- (2) 다메섹(Damascus)은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해발 671m의 평지에 위치해 있다.
- (3) 이 성은 군사적, 상업적으로 중요한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군사·상업·종교의 중심지로서 발달하였다.
- (4) 이 성은 구약 시대 수리아의 성읍으로서(창 14:15; 왕상 11:24; 19:15; 왕하 8:7, 9; 16:10-12) 그 이름이 등장하는 최고(最古)의 문서는 애굽의 투트모스 3세(Thutmose III, B. C. 1482-1450)의 비문(碑文)이다.
- (5) 한편 B. C. 1200년 이후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대대적인 민족 이동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약화되었고 헷 족속은 멸절되었다.
- (6) 그 후 다윗은 이 다메섹을 속국으로 만들었으나(삼하 8:5, 6) 다윗의 그늘 아래 있던 다메섹은 부족의 힘을 결집하여 독립했으며 시리아 세력을 통솔하였다(왕상 11:23-25, B. C. 940년경).
- (7) 그러나 계속해서 시리아 왕 르신은 이스라엘 왕 베가(Pekah, B. C. 752-740-732)와 동맹을 맺고 국력을 팽창시키려 했으나(왕하 16:5-9) 남유다의 아하스가 앗시리아와 동맹하여 그들을 침공하므로 다메섹은 독립 국가로서의 역사적 종말을 고하였다.
- (8) 그러므로 본절에서 다메섹에게 경고가 주어진 것은 한 성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리아(아람) 전체에 대한 대표적 언급임을 알 수 있다.

3. **㉠** 선지자는 다메섹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가? (1절)

- ㉡** (1) 다메섹이 ‘장차 성읍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이사야는 단순히 다메섹의 멸망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 (3) 그리스도인들도 주위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일들을 보고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사건들을 통하여 온 교회 또는 온 인류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기 때문이다(마 24:5, 6, 29, 32-34).

4. **㉠** 이사야는 어떤 성읍들이 버림을 당한다고 예언하였는가? (2절)

- ㉡** (1)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라고 하였다.
- (2) 아로엘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 갓 자손에게 속한 성읍(민 32:34; 신 2:36; 3:12; 4:48)을 말하지 않는다.
- (3) 이 성읍은 그곳보다 훨씬 북쪽에 위치한 동명(同名)의 성읍으로 행정적인 독립을 지니고 있던 곳이었다.
- (4) 이 도시는 다메섹, 사마리아, 아르밧, 시메라 등과 동맹 관계를 체결했는데 수리아의 사르곤 제 2년(B. C. 721)에 큰 전쟁을 치루었고 거기서 크게 패하여 성읍이 함락되어 폐허로 변해 버렸다.

5. **㉠** 버림 당한 아로엘의 성읍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절)

- ㉡** (1) 그 성읍들은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누워 있으나 그 양들을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 (2) 다시 말해서 성읍에는 사람들이 거주해야 정상인데 그곳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가축들이 방목되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들은 광야와 같은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17:10; 습 2:14).
- (3) 더우기 이곳은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방목되는 양들도 결코 사람들로 인하여 놀랄 일이 없을 것인데 이 말은 결국 그 성읍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전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이런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의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오늘날에도 임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불변의 믿음

을 가진 자들은 이런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참조, 함 2:4; 롬 1:17; 10:10).

6. **㉠** 에브라임과 다메섹, 아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 ㉠** (1)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백성이 멸절할 것이다.  
 (2) 여기서 선지자는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동시에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에브라임도 다메섹과 같이 외세의 침입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사르곤이 두번째 사마리아를 점령하던 때에 그곳을 폐허로 만들면서 성취되었다.  
 (4) 한편 선지자가 아람을 언급한 것은 디글랏 빌레셀에 의하여 그곳의 남은 자들마저도 멸절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이처럼 그들이 멸망할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는 수리아가 남유다와 전쟁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을 그 전쟁으로 끌어들이기 때문이다(참조, 왕하 16:5). 한편 아모스는 수리아가 멸망케 된 또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의 포악성을 들고 있다(암 1:3).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과 동료들의 힘을 의지하고 자고(自高) 하는 자에게 엄중한 징계를 가하신다. 이러한 사실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교만은 모든 권세와 영예를 무너뜨리는 악한 특질을 지니고 있다(참조, 시 101:5).

7. **㉠**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는 귀절은 무슨 의미인가? (3절)

- ㉠** (1) 이 말씀은 잠시 흥왕했다가 시들어 버린 이스라엘 왕국을 비유하여 수리아도 국운(國運)이 쇠할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2)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B. C. 793-782-753)가 통치하던 기간에 세력이 강성하였다. 그러나 그 후로는 세력이 급격히 쇠퇴하여 주위 열강들에게 무수히 침략을 당하였다(왕하 17:3, 23).  
 (3) 하나님의 도를 떠난 왕국이 잠시 동안은 흥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므로 결국 안개와 같이, 풀의 꽃과 같이 곧 쇠퇴할 것이다(참조, 시 37:2; 129:6).  
 (4) 이런 원리는 한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근신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할 수 있다.

8. **㉠** 다메섹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1-3절)

- ㉠** (1) 이사야의 예언은 다메섹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동시에 수리아 전체의 패망을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다.  
 (2) 앞장에서 이사야는 모압을 향해 예언을 했으나 본장에서 그의 시야는 더 북쪽으로 향하였다.  
 (3)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7:1-9에서 경고를 당하고 또한 부분적으로 징계를 받은 다메섹이 있으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에브라임(3절)과 동맹을 체결하였고 두 나라는 여러 성읍을 소유해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는 아로엘(2절)과 연합을 하게 된다.  
 (4) 그러나 다메섹이 신뢰하고 서로 동맹을 체결하였던 세 나라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의 비극적인 예언이 선포되었다.  
 (5) 이러한 예언이 성취됨으로써 결국 다메섹과 아로엘은 폐허가 되고 다메섹과 에브라임은 독립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말았다.  
 (6) 앗수르 비문은 사르곤의 통치 시작이 B. C. 722/721년경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때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자료가 된다.

9. **㉠** 다메섹에 관한 경고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4절)

- ㉠** (1) 그때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 살진 몸이 파리하게 될 것이다.  
 (2) 이 말씀은 아람과 동맹한 이스라엘의 쇠퇴를 말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영광은 사라지

고(3절) 인구는 감소되며 국가의 모든 힘이 쇠약해지게 될 것을 가리킨다.

- (3)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의 추방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합리적 증거를 제공해 준다.
- (4) 수리아의 사르곤(B. C. 722-705)은 B. C. 722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27,290명 이상의 포로들을 자기 나라로 끌고 갔었다(참조, 왕하17:6). 그리고 그곳에 남은 자들에게도 세금을 징수하고 그들을 다스릴 통치자를 임명했다.
- (5) 그리고 B. C. 715년에는 많은 수의 아랍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켰는데 이는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채우려는 조치였다.
- (6) B. C. 625년까지 그 땅에 남은 이스라엘인에 관한 상황은 대하 34:9에 나타나 있다.

10. **㉠** 에브라임과 다메섹의 미래에 관한 예언을 어떤 비유로 설명하였는가? (4-6절)

- ㉠** (1) 첫째는 살진 몸이 파리해지는 것이요, 둘째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요, 세째는 감람나무에 매어 달린 열매의 비유이다.
- (2) 이 비유는 점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처음에는 그들의 살진 몸이 파리하게 말라지듯이 그 나라의 영광도 쇠하여 망할 것이고 다음에는 추수하는 자들이 곡식을 모아들이듯이 급격한 인구의 감소가 있을 것이다.
- (3) 그러나 그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몇몇을 남겨 두심으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다.
- (4) 이 비유는 어두움이 점점 깊히고 여명이 밝아 오듯이 희망의 빛이 드러나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첫째 비유(4절)에서 어두움은 회미하고 둘째 비유(5절)에서는 그 어두움이 땅 끝까지 미치지만 세째 비유(6절)에서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서서히 빛으로 변하고 있다.
- (5) 우리는 이 비유에서 택하신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며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시련 중에도 소망을 갖는 것이다.

11. **㉠** 선지자는 야곱의 영광이 쇠하는 것을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5절)

- ㉠** (1) 그것은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다고 하였다.
- (2)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언급하면서 그 멸망이 이스라엘 영토 밖으로 넓혀지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 (3) 여기서 '추수하는 자'는 죽음 또는 죽음을 가져오는 사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삭을 거두어 들인다는 것은 급격한 인구 감소를 의미한다(왕하 17:25).
- (4) 더우기 선지자는 추수군이 추수하는 중에 남은 이삭들까지 모두 줍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파괴는 철저하고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 (5) 추수하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양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에 개의치 않으시고 멸망시킨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을 징벌하신다.
- (6)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며 두려운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보여 주는 사건이다.

12. **㉠** 르바임 골짜기를 설명하라(5절).

- ㉠** (1)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고원인데 '거인의 평야'라는 뜻을 갖고 있다.
- (2) 본절에서 이곳은 비옥하여 농작물이 풍부한 장소로 나타나며 유다와 베냐민의 경계를 나타내는 데 쓰이기도 한다(수 15:8;18:16).
- (3) 한때 블레셋 사람은 다윗과 싸우기 위해 벨세메스에서 산악지로 통하는 길을 올라가 이곳까지 출격해 왔으나(삼하 5:18, 22;23:13;대상 11:15;14:9) 다윗이 그들을 격퇴시

켜 그들의 영역을 봉쇄하였다.

(4) 르바임 평야는 오늘날 엘 부케아(El-Buqei'a) 지방으로서 바로 이 평야에 예루살렘이 위치해 있다.

1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만 그중에 무엇을 남기겠다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되는 가운데서도 '주울 것'을 남기시겠다고 하셨다.  
 (2) 즉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열매 2, 3개가 남음 같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 5개가 남음 같으리라고 하셨다.  
 (3) 즉 이것은 과실을 손과 장대로 다 따낸(신 24:20) 감람나무 가지 맨 끝에 아직도 매달려 있거나 혹은 잎새로 가리워져 따지 못하고 남아 있는 열매를 말한다.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엄중한 재앙 중에서도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다(합 3:2).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했을 때 버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로 그들을 대하실 뿐 아니라 그들과 맺은 당신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셨다(참조, 창 17:7).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신한 자들은 징계하셨지만 그 후손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민 14:30-33).  
 (6)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소망을 상실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다 준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는 이 진리는 우리에게 하여금 순교자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해 준다.

14. **㉠** 이처럼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게 될 것인가? (7절)

- ㉠** (1) 그때에 사람들은 자기들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2) 여기서 '하나님을 쳐다보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외면했었으나 이제 다시 그분과 은혜로운 관계로 돌아가게 되는 개심(改心)의 상황을 가리킨다.  
 (3) 한편 모든 사람들은 선천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 있다(참조, 행 17:22). 그런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위급한 때에 자동적으로 신을 찾게 되는 것이다(은 1:5, 6).  
 (4)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자기들이 가장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로 응답하셨다(삿 6:7-10).  
 (5)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데 특히 그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을 저지르는 중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키는 경건한 자들만은 환난을 모면하게 해주셨다.  
 (6) 오늘날 우리들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으므로(참조, 요 1:12)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며(롬 8:15) 어떤 위경(危境)에 처해 있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참조, 시 23:4).  
 (7)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창 1:27) 우리는 창조주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15. **㉠** 우상 숭배하던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 ㉠** (1)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든 단을 쳐다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이다.  
 (2) 여기서 '단' (壇)은 북이스라엘의 단과 벧엘에 있는 것(왕상 12:28-33)을 말할 수도 있고 이스라엘이 섬긴 다른 우상의 제단(왕하 17:11; 호 8:11)을 말할 수도 있다.  
 (3) 그러나 어느 단이나를 밝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그런 것들에게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4) 그들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그들의 기대요 의지할 바였던 우상에게 아무리 빌고 경배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16:12).

(5) 이처럼 우리도 헛된 우상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우상은 우리에게 전혀 무익할 뿐 아니라 기존의 행복마저 빼앗아 가버리는 해로운 것이다(시 16:4).

16. **㉠** 하나님의 단과 우상의 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우상의 단들은 인간적인 방법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하나님의 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 (2)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제단도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졌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도 버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 (3) 그러나 제단은 만든 재료나 솜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세워졌느냐가 중요하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마땅히 그 단을 볼 때 그 단의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단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 단의 건축자이시기 때문이다(출 20:24, 25; 신 27:5, 6).
- (5)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거부해야 할 것과 수용해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한다. 그 때야만 참된 자유인이 될 수 있다(요 8:32).

17. **㉠** 아세라와 태양상은 어떤 우상인가? (8절)

- ㉠** (1) 아세라(Asherah)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모리족이나 가나안족이 숭배하였던 여신에 대한 히브리어 명칭이다.
- (2) 그 여신은 엘(EI)의 배우자요 바알을 포함한 70신들의 어머니였다. 이 우상은 이스라엘이 번영하던 시대에 각처에 세워졌다(왕하 17:10).
- (3) 한편 유다 왕 요시야는 이스라엘 전국토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그 단들을 헐었는데(왕하 23:15) 그것은 아세라에 대한 숭배를 근절시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4) 한편 '태양상'은 바알의 상징으로서 시대가 흐르면서 바알은 '엘'의 위치에 대신 들어서서 아세라의 배우자로 화(化)하였다.
- (5) 이 우상은 고대 바벨론과 애굽에 있었던 태양 숭배 풍습의 대상이었는데 기둥이나 원추형의 돌로 짐작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베니게의 바알함몬(Baal-Hammon)은 '태양의 바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B. C. 8 세기의 선지자들은 그때까지 내려온 우상 숭배로 인한 위기적 상황을 인식하고 우상 예배를 가미한 변질된 신앙을 버리라고 호소하였다(참조, 렘 2:23; 호 2:16, 17).
- (7) 이스라엘 민족은 바알 숭배를 제거하기 위한 두 차례의 중요한 종교 개혁(왕하 18:4-6; 23:4-15)과 B. C. 586년의 민족적 재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바알 숭배의 불신앙을 벗어나 언약의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다.

18. **㉠** 무용(武勇)을 자랑하던 견고한 성읍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9절)

- ㉠** (1) 그 성들은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꼭대기의 처소같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은 강한 요새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석구석에 폐허로 남아 있는 옛날 가나안인들의 성읍과 같이 비참한 운명에 빠지게 될 것이다.
- (3)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땅 민족은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왕하 17:7, 8)가 추방당했는데, 이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고 만 것이다(참조, 왕하 17:7, 8).
- (4)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정하신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대적들을 멀리 쫓아 주시지

만(참조, 레 26:3-12; 수 23:6-11) 반대로 이방인들과 연합하여 우상을 섬기면 대적들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신 32:30).

- (5)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고 기쁨과 만족보다는 불만이 더 크다. 그래서 과거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고 향락을 즐기도록 유혹하는 우상에게 빠지고 마는데 그럴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 (6)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는 우상이 무엇인가? 이런 세상적인 우상들을 제거할 때 비로소 그분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

19. ㉠ **에브라임이 황폐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10절)**

- ㉠ (1) 그 원인은 그들이 자기의 구원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 (2) 즉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분류하면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소극적인 면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잊어버린 것이고 적극적인 면은 그들의 생활이 우상 숭배의 행위로 기울어진 것이다.
- (3) 한편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표현한 곳은 신명기가 처음인데(신 32:4, 15, 18, 30, 31) 다윗도 하나님에 대하여 동일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참조, 삼하 22:2, 32, 47; 23:3; 시 18:2, 31, 46; 19:14; 28:1 등). 그리고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26:4; 30:29; 44:8; 함 1:12).
- (4) 이스라엘 백성은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쌓은 성읍을 더 의지하였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본질의 말씀을 제시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들의 현재 처지가 부당하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신다고 불평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 (6)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침을 주시지만 우준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죄에서 돌이키기 보다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 (7)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과 고난의 원인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 수 있다(참조, 갈 6:1; 약 1:13-15; 요일 2:15-17).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기 보다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을 꿇고 각자의 죄를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20. ㉠ **에브라임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므로 그들의 산업을 당하는 피해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그들이 기뻐하는 식물을 심으며 이방의 가지도 이종(移種)하고 밭에 울타리를 두르고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질 것이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식물을 위하여 좋은 씨를 뿌리고 담장을 들렀으나 그것은 오히려 대적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 뿐이었다.
- (3) 또한 그들은 ‘이방의 가지를 이종하는’, 즉 우상을 가져다가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경배하는 죄도 범하였다(참조, 호 8:11; 10:1; 12:11).
- (4)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지막 추수하는 심판의 때에 그들이 얻을 수확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헛될 것이며(시 127:2) 그들이 수고하여 얻을 수확물은 알지 못하는 민족들에게 탈취당하게 된다(신 28:3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반대적인 상황을 생각하고 모든 일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들의 수고와 비례하여 주어질 것이므로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얻게 된다(참조, 시 128:1-4).

21. **㉠**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 밀려오는 열국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2절)

- ㉠** (1) 그들은 바다 파도의 뛰노는 소리같이 또한 큰 물의 물려옴같이 비유되었다.  
 (2) 그들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소란을 피우며 서로 충돌하면서 강하게 밀려왔다.  
 (3) 본절에 기록된 ‘많은 민족’이란 말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오는 앗수르 군대가 여러 나라로부터 모인 많은 무리들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한다.  
 (4)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경쟁이 안 되지만(왕상 18:19; 왕하 6:14, 15) 여호와의 구원은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삼상 17:47; 대하 20:15) 궁극적인 승리는 성도들에게 돌아오게 된다.

22. **㉠** 열방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큰 파도같이 밀려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열방을 꾸짖으시므로 그들이 멀리 도망하는데 마치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서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다.  
 (2)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은 경건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런 방법은 예수께서도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실 때 사용하셨다(참조, 마 8:23-27).  
 (3) 한편 본절에 기록된 상황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앗수르의 산헤림이 예루살렘에 침공해 왔으나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산헤림의 군대를 치셔서 물러가게 하신 사건과 관계가 있다(참조, 37:36, 37; 왕하 19:35, 36).  
 (4) 이처럼 하나님께서 타작 마당에서 쭉정이를 고르시듯(삼하 24:18; 대하 3:1)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대적들은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폭풍으로 두렵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1:4; 35:3; 83:13, 14).

23. **㉠** 이스라엘을 노략한 자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들은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되기 전에 없어졌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노략한 자가 받게 될 분깃이요 보용이다.  
 (2) 이 사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의 최후가 어떠한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이스라엘을 놀라게 하지만 그들의 파괴적인 행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끝날 것이다(참조, 29:7, 8; 37:36, 37; 왕하 19:35, 36).  
 (3)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무질서와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두려워 말고 위로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주께서 잠시 후에 잠잠케 하실 순간적 폭풍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참조, 막 4:36-39; 눅 8:22-25).  
 (4) 이제 그리스도인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끈기있게 참고 기다려야 한다. 이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들을 안전한 항구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시 107:30).

<p><u>본장의 요점</u></p>	<p>‘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보겠으며 그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바라보겠고’ (7절).</p>
----------------------	-------------------------------------------------------------------------------------------------------------------------------------------------------

## 제 18 장 구스에 관하여 예언하다

단락구분 : 1-3 구스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다 / 4-6 앓수르가 전쟁에서 패하여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 7 마지막 때에 구스가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이다 :

1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2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 경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도다

3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중용히 감찰함이 꺾이는 일쌍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5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에 내가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짚어 버려서

6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끼쳐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파동하리라 하였음이니라

7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하며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 1. ㉠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대적들로 인하여 곤난에 처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시는데 본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구스에 관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 (2) 구스는 그 당시에 막강한 국력을 소유한 애굽까지 지배할 정도로 큰 세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사바코(Sabako)는 나일 강 하류의 지배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앓수르의 세력이 급격히 팽창하므로 상황이 급박해진 구스가 그들의 통치하던 지역에 사자(使者)를 파견하여 군대를 일으키려고 하였다.
- (3)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앓수르에 관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었으므로 구스가 군대를 일으키지 않아도 앓수르는 패망하여 들짐승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 (4) 따라서 구스는 멀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관망만 하면 될 뿐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되었다.
- (5) 이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들은 모든 일에 당황하지 말고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41:10, 13, 14; 출 14:13; 대하 20:15)을 바라보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 2. ㉠ 구스에 대하여 설명하라(1절).

- ㉠ (1) 구스의 위치는 현재의 에티오피아가 아닌 북수단과 이집트 최남단의 누비아(Nubia)였다. 즉 구스는 애굽의 남쪽과(삿 1:10), 수에네(Syene)의 남쪽에 있었다(겔 29:10).
- (2) 대하 21:16에 아라비아인들이 구스인들 가까이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곳은 나일 강의 두번째 폭포와 세번째 폭포 사이에 위치한 영토를 가리키는 것이다.
- (3) 구스인들은 세라(Zerah)의 주도로 리비아인들과 유다를 침공하였으나 아사 왕에 의하여 격퇴되었는데(B. C. 913-873, 대하 14:9-15) 이때 용병들이 시삭(Pharaoh Shishak)에 의해 남팔레스틴에 정착하여 애굽 군대의 용병이 되었다.

- (4) 또한 히스기야 시대에 앓수르의 산헤립이 구스의 디르하가를 일컬어 '상한 갈대' 라고 불렀으며(37:9; 왕하 19:9) 그를 엘드게에서 격파하였다.
- (5) 애굽에서 디르하가는 다시 앓수르의 에살합돈에게 패배한 뒤 구스로 물러났는데(20:3-5) 그는 약 B. C. 689-664년에 애굽의 구스인 왕조로서 또한 마지막 바로로서 통치하였다.
- (6) 구스에 대한 성경상의 예언은 그곳으로 추방된 유대인들이 팔레스틴으로 귀환할 것(11:11; 시 87:4)을 말했고 또한 구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도 했다(20:3, 4; 겔 30:4, 5, 9; 습 2:12).
- (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구스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셨다(암 9:7).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구스인의 개심(改心)을 언급하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포함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참조, 45:14; 시 68:31; 습 3:10).

3. **㉠**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구스의 강 건너편 땅'은 나일 강의 원천이 되는 애굽의 남쪽 땅을 말한다.
- (2) 그런데 그곳에서 '날개치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애굽과 구스에 물이 많아서 곤충들이 많이 생기므로 그 곤충들이 날개치는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여기서는 구스가 사자(使者)를 파송하여 각처에서 일으킨 군사들의 함성을 가리킨다(참조, 7:18)고 생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4. **㉠** 애굽인들이 나일 강의 교룡 수단으로 무엇을 사용하였는가? (2절)

- ㉠** (1) 그들은 갈대로 만든 배를 사용하였다.
- (2) 이 갈대는 애굽의 파피루스(Cyperus Papyrus)인데 높이가 3-4.8m까지 자라고 밑동의 직경은 약 7.6cm가 된다.
- (3) 이 나무는 모세를 물 위에 띄우기 위해 만든 나무 상자의 재료(출 2:3)이기도 했다.
- (4) 그런데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갈대로 만든 이유는 급류에서 안전한 운항을 위해 유연성이 있는 재료인 갈대로 만들었던 것이고 그 내부에는 역청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였다(창 6:14; 출 2:3).

5. **㉠** 구스는 사자(使者)를 어느 곳으로 파송하였는가? (2절)

- ㉠** (1) 구스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파송하였다.
- (2) '강들'은 앓수르의 거대한 군대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강들이 약탈한 나라로' 또는 '강들이 망쳐 놓았던 그 나라로'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 (3) 여기서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은 청동빛 피부를 지니고 있으며 건강미 넘치는 신체를 가진 구스인을 가리킨다.
- (4) 구스는 애굽인들에게 위협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여 나일 강 유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특히 피양키(Piankhi), 샤박(Shabak), 샤바토크(Shabatok) 그리고 디르하가(Tirhakah) 때에 애굽을 속국으로 만들었다.
- (5) 그래서 이사야가 '시초부터'라고 기록한 것은 피양키 때부터 언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 (6) 따라서 구스인들은 앓수르의 세력 팽창에 대응하여 애굽의 각처, 즉 그들의 세력이 미치는 곳에 사신을 파견하여 군대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것이다.

6. **㉠** 이 같은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였는가? (3절)

- ㉠** (1) 그는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하였다.
- (2) 이 말씀은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이 앓수르 멸망의 목격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이것은 그 전쟁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

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참조, 삼상 17:47; 대하 20:15).

- (4)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우연으로 돌리는데 이사야는 여기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 주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야 한다고 가르쳐 준다.
- (5)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감추실 때도 있으므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당신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당신을 인정하도록 하신다. 여기서 이사야는 후자의 경우를 택하고 있다.

7.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감찰하심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 처소에서 중용히 감찰함이 짝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雲霧) 같다고 말씀하셨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흥왕함을 잠시 허용하시는 것을 말하며 그로 인해 주위의 여건이 앗수르의 세력과 교만의 신장(伸張)을 위해서 유리하다는 뜻이다.
- (3) 비온 후에 짝이는 일광은 식물을 성장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하고 가을 더위 뒤에 내리는 비는 열매를 무르익게 하는 데 적합한 것으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
- (4)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의 성숙한 포도가 달린 가지들을 베어내고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거나 따 내버리듯이(욥 15:33) 앗수르의 세력도 잠시 하나님의 묵인하에 성장하지만 곧 꺾이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8. **㉠** 하나님께서는 앗수르의 흥왕하는 모습을 감찰하신 후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 갈 때에 낮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리신다고 하셨다.
- (2) 본절의 말씀은 곧 앗수르가 추수하기 전에 이런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다.
- (3)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도는 포도들이 거의 익어갈 때 악인들이 기대하던 생산물들을 탈취당하게 될 것을 말한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 (5) 즉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악인들의 교만이 더 자라지 못하도록 막으시고(참조, 창 11:4-8) 그 대신 의로운 자들에게 악인의 용성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시 37:2)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산 소망을 갖도록 하신다.

9. **㉠** 하나님께서 앗수르의 가지를 찍어 버리시므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지를 꺾으사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먹이로 줄 것이고 각 짐승들은 그 먹이로 여름과 겨울을 지낼 것이다.
- (2)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를 물리치시면 농부들에 의해 조각조각 잘라진 나무가지처럼 그들 시체도 잘려서 땅에 흩어지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말 것이다.
- (3) 이것은 세세 요한이 악인들을 쭉정이에 비유하여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속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듯이(참조, 마 3:21; 눅 3:17) 앗수르 군대도 비참하게 패배당할 것을 비유한 말씀이다.
- (4) 이 귀절은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을 명확하게 보여 주는데 땅에서도 그들을 거부하고(레 18:25) 그들의 후손들과 하는 모든 일들이 저주를 받게 되며(참조, 14:20; 신 28:20) 심지어는 하늘과 땅의 짐승들에게까지 멸시를 받게 된다.

10. **㉠** 팔레스틴의 독수리는 어떤 짐승인가? (6절)

- ㉠** (1) 독수리는 히브리어로 <네세르>인데 이 말은 '부리로 찢다'는 뜻이다.

- (2)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독수리’는 단지 그 한 종류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물수리, 솔개 등 맹금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이 있다.
- (3) 팔레스틴에는 독수리가 8 종류, 솔개가 4 종류 있다고 말하는데 특히 요단 계곡의 각처에 합류하는 여러 협곡에 서식하고 있다.
- (4) 독수리의 습성은 욥 39:27-30; 렘 49:16에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의 움직임은 날쌔고 빠르며(삼하 1:23; 애 4:19; 계 12:14) 불굴의 정신(잠 30:19)과 힘(시 103:5)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계시 문학에 있어서는 독수리를 힘의 관념과 용감히 싸우는 모습의 상징으로 있다(겔 10:14; 계 4:7).
- (5) 성경에서 ‘독수리의 얼굴’(겔 1:10)이란 표현은 위엄있는 것의 상징으로 쓰였다.
- (6) 한편 독수리는 부정한 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식용(食用)은 금지되었다(레 11:13). 또한 독수리는 작은 동물이나 썩은 고기를 먹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시체에 모여드는 독수리’로 묘사되기도 했다(욥 37:30; 마 24:28).
- (7) 그러나 본절에서 쓰인 ‘독수리’는 히브리 원문에 <아이트>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단 순히 맹금(猛禽)을 가리킨다. 이 단어는 영역본에서도 독수리(Eagle)가 아닌 맹금(the birds of prey)이나 새(the birds)로 번역되었다(NIV, RSV).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독수리’로 번역되었다.

11. **㉠** 앓수르가 패망하는 날 구스인들은 어디로 나아올 것인가? (7절)

- ㉠** (1) 그때에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으로 나아올 것이다.
- (2) 앓수르가 멸망할 때 구스는 여호와와 강권적인 역사에 감명을 받아 자의(自意)로 그분 앞에 돌아와 직접 예물을 드리게 된다.
- (3)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는 영혼 내부에 속한 것이므로(요 4:23, 24) 영적인 면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 (4)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외적인 표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다고 선포하는데 이사야는 그것을 ‘시온 산’이라고 하였다.
- (5) 그 이유는 시온 산이 하나님께 봉헌된 곳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사드릴 것을 명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신 12:5; 왕상 8:29; 대하 7:12; 시 78:68; 132:13, 14).
- (6) 그러므로 본절에서 사용된 시온 산이라는 명칭은 하나님께 대한 순전하고 부패되지 않은 예배(참조, 롬 12:1)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7)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 속하고자 원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드려야 한다(참조, 고후 5:15-17).

12. **㉠** 본장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택한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잘 나타나 있다.
- (2)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악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지만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명하시며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므로 당신의 품을 떠나지 않게 하신다.
- (3)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하여 열려져 있음을 보여 주신다(참조, 롬 15:16).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도 구스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시 68:31).
- (4) 그러므로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방인을 위해 열린 복음의 문을 더 넓게 열기 위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참조, 롬 1:14-16).

## 연구자료

### 구스 (Cush)

성경에 나오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와는 다르다. 현대의 에티오피아(Ethiopia)는 한때 아비시니아(Abyssinia)로 불리었던 나라로서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Addis Ababa)이다. 그러나 구스는 애굽 남방(삿 1:10), 수에네(Syene)의 남쪽에 위치했던 나라이다(겔 29:10). 수에네는 현대의 아스완(Aswan)으로서 나일 강 첫번째 폭포에 위치한 애굽의 중요 도시이다. 그러므로 구스는 북수단과 최남단 애굽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오늘날의 누비아(Nubia) 지방을 그들의 영토로 삼았던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사료(史料)에 의하면 구스는 애굽 군주 세소스트리스 1세(Sesostris I, B. C. 1971-1930)의 치세하에 예속되어 있다가 B. C. 1000년경에 독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이 구스 왕조는 B. C. 715년부터 B. C. 663년까지 애굽을 통치하기도 하였는데 애굽인들은 이를 자신들의 제 25 왕조(누비아 왕조) 역사로 취급하고 있다.

성경에서 구스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최초의 것은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는 기록이다(민 12:1). 아마도 모세는 본처인 심보라(Zipporah)가 죽은 후 구스 여인과 재혼한 것 같다. 또한 압살롬(Absalom)이 죽은 후 그 소식을 제일 먼저 다윗에게 전해 준 자도 구스인이다(삼하 18:31-33).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대적자들의 모함으로 인해 구덩이에 갇혔던 선지자 예레미야를 구해 낸 에벳멜렉(Ebedmelech) 역시 구스인이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렘 38:7-13). 이 뿐 아니라 행 8:27-39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Candace)의 내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혹자는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자였든지 아니면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아 물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세례를 받았었다.

한편 구스인들은 그들의 왕 세라(Zerah)의 주도하에 리비아인(Libyans)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기도 하였는데 아사(Asa, B. C. 910-869) 왕에 의해 격퇴당하였다(대하 14:9-15). 그리고 본서 37:9과 왕하 19:9에는 구스 왕 디르하가(Tirhakah)가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 B. C. 704-681)의 팔레스틴 침입을 저지하려고 시도한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앗수르인들은 디르하가를 '상한 갈대'라고 조롱하였으며(왕하 18:21) 그를 엘드게(Eltekeh)에서 격파하였는데 이러한 사건은 본서 20:3-6에 예언되어 있다. 이외에도 45:14; 시 68:31; 습 3:10은 구스인들의 개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포함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 제 19 장 하나님의 경고가 애굽에게 주어지다

단락구분 1-4 애굽이 혼란에 빠지다 / 5-10 애굽의 기근이 심할 것이다 / 11-15 애굽의 지혜가 상실되다 / 16-17 애굽이 두려움에 빠지다 / 18-22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다 / 23-25 애굽, 앗수르, 이스라엘이 연합되다

1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르다

2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성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르다

4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5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잿아서 마르겠고

6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달과 같이 시들겠으며

7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남아 없어질 것이며

8 어부들은 탄식하며 무릇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9 새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10 애굽의 기둥이 부숴지고 품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1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12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는나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고할 것이니라

13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늙은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지파들의 모퉁이

들어어늘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14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투한 마음을 쉬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15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16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갈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와의 혼드시는 손이 그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을 인함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8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이라 칭하리라

19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의 연고로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인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 것이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인 고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 주시리라

23 그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

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 1. ㉠ 본장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 ㉠ (1)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2) 특히 본장에서는 애굽을 향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애굽에 혼란과 기근을 보내심으로 애굽인들이 자랑하던 지혜가 어려운 재난 중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 (3) 그래서 애굽인들도 두려움 가운데 참신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실 것이다.
- (4) 이 말씀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가리키며 서로 대적하던 원수들이 서로 화해하므로 평화의 왕국이 건설될 것을 보여 준다 (참조, 11:6-9).
- (5)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깊고 오묘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참조, 딤후 2:4).

### 2. ㉡ 애굽에 관한 본장의 경고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

- ㉡ (1) 일반적으로 본장의 경고가 주어진 때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피앙키(Piankhi, B. C. 720년경)에 의해 애굽이 정복되었을 때, 둘째는 에살핫돈(Esarhaddon, B. C. 680-669)에 의해 정복되었을 때이다.
- (2) 피앙키의 정복 때로 보는 이유는 그가 나파타(Napata)에 세운 유적비의 내용에 의한 것이고, 에살핫돈으로 보는 이유는 그의 아들 앗술바니팔(Asshurbanipal)의 비문에 의한 것이다.
- (3) 그래서 피앙키의 경우라면 이 예언은 B. C. 735년에 기록된 것이고 에살핫돈의 경우면 B. C. 690년경이라고 볼 수 있다.
- (4) 그런데 본 예언은 에살핫돈에 관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 이유는 그가 잔인한 군주였고 애굽인을 가혹하게 다루어서 정부를 분열시키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 (5) 이는 본경고에 나타나 있는 ‘소안’이라는 지역이 피앙키의 통치 때는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로 보이어서도 알 수 있다.
- (6) 뿐만 아니라 ‘잔인한 군주’ (4절) 나 ‘소안의 방백’ (11절), 그리고 ‘늪의 방백’ 이란 말들은 에살핫돈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결정적 단서가 된다.

### 3. ㉢ 여호와께서 어떻게 애굽에 임하시는가? (1절)

- ㉢ (1) 여호와께서는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사법적 위엄(司法的威嚴)을 나타내는 표현임과 동시에 (시 18:10, 11) 당신의 징계가 신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자연적 현상을 통해 비유로 나타내신 것이다 (시 104:3; 마 26:64; 계 1:7).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이런 경고를 하신 이유는 그곳이 유다 백성에게 피난처로 오인되었기 때문이다 (참조, 렘 41:16-18; 42:14-17; 43:4-7).
- (4) 유다 백성은 그들이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애굽인들만이 그들의 피난처이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 (5)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의식(意識)을 고치시기 위해 애굽의 붕괴를 계획하셨다.
- (6)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아서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재주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결과 애굽이 망하는 것같이 그것에 의지했던 자들도 함께 망하고 만다(참조, 30:1-3).

4. **㉠** 하나님의 임하심이 애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절)

- ㉠** (1)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는 결과를 가져왔다.  
 (2) 애굽인들의 우상은 매우 다양하여 각종 짐승과 식물들이 그들의 숭배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사야는 본절에서 그들이 보호자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이 타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3) 또한 애굽인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대상이 파멸되므로 평온하다고 믿었던 전애굽에 두려움이 임하게 되는데 평시에는 용감하던 군사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이 담력을 잃게 될 것이다(참조, 13:7; 수 2:11; 시 22:14).  
 (4) 이러한 사실로 보아 진정한 용기란 결코 자신의 결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지혜, 기타 어떤 조건들이 자신의 의지나 용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5. **㉠**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애굽인들을 징벌하실 것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애굽인들을 격동시켜 서로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나라가 나라를 치도록 하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장하시므로(잠 21:1) 눈에 안 보이는 영향력을 통하여 내부 분열을 일으키실 수도 있다.  
 (3) 이것은 애굽의 내란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 이 내란은 B. C. 760-750 년경에 시작되었다. 그것은 내륙 애굽의 왕인 피양키와 사이스(Sais), 멤피스(Memphis)의 왕인 타네크트(Ta .kht)의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4) 이 사건은 애굽이 구스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독립 투쟁을 하여 12개의 연방, 군주국이 형성된 사실을 가리킨다.  
 (5) 그러므로 '나라가 나라를 치고'는 B. C. 695년 12개의 연방국들이 구스 왕조를 전복시키기 위해 투쟁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중 하나인 사이스의 프삼메티쿠스(Psammetichus)가 B. C. 670년에 애굽을 한 나라로 통일시켰다.

6. **㉠**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절)

- ㉠** (1)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지 않으신다면 결코 싸움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능력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도 하셨다.  
 (3)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그는 하는 일이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셨고(삿 7:19-23)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우셨는데(왕하 19:35) 그때에도 역시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다.  
 (4)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문제를 직면하더라도 자신의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

7. **㉠** 애굽인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파하시므로 그들은 어떤 것에 도움을 구하는가?(3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신을 쇠약(衰弱)하게 하시고 그들의 도모(圖謀)를 파하시므로 그들은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神接)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어 도움을 구할 것이다.  
 (2) 애굽인들은 자기들의 문화권에서 철학과 천문학, 수학 등의 학문이 나왔다고 자랑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지혜가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3)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참조, 출 31:3; 잠 3:19; 고전 1:24; 딤후 3:15)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일 뿐이다.

(4) 이런 까닭에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천해 감에 있어서 세상적인 잔피와 학문적 지식에 의지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약 1:5) 실행해야 한다.

8. **㉠** 하나님께서 애굽인을 누구의 손에 붙이신다고 하셨는가? (4절)

- ㉠** (1) 그분께서는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므로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애굽인들은 분별력과 지혜를 상실하므로(3절) 그들이 자랑하던 거대한 제국이 멸망하고 그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 (3) 여기서 '잔인한 군주'와 '포악한 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참조, ㉠2) 에살핫돈을 가리킨다. 그는 애굽을 정복하자마자 전국토를 20개 행정 구역으로 분할하여 각 구역마다 행정관을 임명한 후 약탈과 살인 등을 자행하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단체나 개인을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느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처참할 정도로 짓밟아 당신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 주신다(참조, 출 15:4,7; 삼상 28:18,19).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에서 기인된 것이다.

9. **㉠** 애굽의 바다와 강은 어떻게 될 것인가? (5,6절)

- ㉠** (1)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은 찾아서 마르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졌고 애굽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달과 같이 시들 것이다.
- (2) 여기서 '바닷물'은 나일 강을 가리키는데(참조, 18:2; 나 3:8) 이는 그 강이 범람할 때 실제로 바다와 같이 퍼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강은 애굽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수원으로서 그것이 마를 경우 식수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급기야는 민심마저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
- (3) 한편 '달'이라는 말은 '갈대와 붓꽃(골풀)'이라고 개역해야 옳다. 이 풀들은 나일 강이 범람하는 지역에서 자라는 것인데 강이 마르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아 시들어 버리는 풀들이다.
- (4)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강이 마른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위협에 빠진다는 의미이고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와 직결된다는 말이다.
- (5) 애굽인들은 그들의 강과 모든 환경이 천연 요새와 같아서 그것을 믿고 자랑했으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10. **㉠** 애굽의 강들이 마르므로 그들의 초지(草地)는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남아 없어질 것이다.
- (2) 나일 강변은 부분적으로 초장이고(창 41:2,18) 곡식과 채소밭이었다. 여기서 주로 애굽의 식량을 공급하는데 그 해에 나일 강이 범람하는 경우여야 풍성한 수확을 거둬 들일 수 있다.
- (3) 만약 가뭄이 계속되면 수확이 불가능하고 백성은 기근으로 인해 생활에 곤핍을 느끼게 될 것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 (4) 이렇게 애굽인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나일 강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아야 했다.
- (5)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은총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참조, 43:19,20; 시 23:3; 72:6; 잠 16:15) 만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정상적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롬 8:2; 고전 15:45).

11. **㉠** 애굽의 어부들이 당하는 괴로움은 어떤 것인가? (8절)

- A** (1) 애굽 강의 물이 마르므로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 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하게 될 것이다.
- (2)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어업은 매우 중요한 생계 수단이었다(참조, 민 11:5). 그래서 어업의 행위가 방해받는 일은 크나큰 재난이라고 여겨졌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애굽에서와 같이 자연적 재난을 통하여 행하시기도 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시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분의 징계에 순응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므로 그분의 분노를 진정시켜 드리는 것뿐이다(참조, 시 7:11, 12; 잠 28:13; 겔 18:28; 행 3:19; 고후 7:10).

12. **Q** 세마포와 백목은 무엇인가? (9절)

- A** (1) 백목(白木, white cotton)은 애굽에서 재배하던 식물로서 섬유로 짠 헝겊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말이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이것이 세마포(눅 16:19)를 가리킨다고 한다.
- (2) 한편 세마포(히, 피스타)는 세마포 실을 만드는 삼, 삼 식물, 삼 섬유를 의미하는 총체적 용어이다(수 2:6).
- (3) 삼 초목은 애굽의 비옥한 나일 강 유역에서 흔히 재배된 값비싼 농작물이었는데 여기서 섬유를 뽑아 내어 옷이나 천을 짰다.
- (4) 특히 흰 세마포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제복으로 사용되었고(출 39:27-29) 사무엘과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처럼 종교 의식에서 제복으로 사용되었다(삼상 2:18; 대하 5:12).
- (5) 그리고 예수의 시체를 씻던 천도 세마포였고(마 27:59, 60; 눅 23:53; 요 19:40) 계시록에서는 구속받은 무리들이 천사들과 함께 흰 세마포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겔 9:2; 계 13:14).
- (6) 이와 같이 성경에는 회고 화사한 색의 세마포가 생활의 정결과 의로움을 뜻하는 상징적 의미로 사용된다(계 19:8).

13. **Q**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백목을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A** (1) 이는 그들의 직업이 전에는 풍족한 삶을 유지하도록 이익을 주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이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2) 그들이 짜는 직조물은 매우 값비싼 것이어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부유한 자들이 구입할 수 있었다.
- (3) 그러나 이제 모든 면에서 위축되는 경제가 그들의 사치스러움을 만족시켜 줄 수 없게 되고 말았다.
- (4) 이처럼 애굽 전체가 기근과 불황에 빠져 곤난에 처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다(1절). 하나님은 인간의 흥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14. **Q** '애굽의 기둥이 무너지고...근심하리라'는 귀절은 어떤 의미인가? (10절)

- A** (1) 이것은 애굽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이런 지배층 뿐 아니라 제일 하층의 품군들까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하여 비참한 상태에 떨어진다.
- (3) 즉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한 패망과 파멸의 상태를 맞이하게 된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없고 오직 그 일을 실행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15. **Q** 소안은 어떤 성읍인가? (11절)

- A** (1) 소안은 애굽의 동북쪽에 도시로 위치한 고대 타니스의 북동 삼각주의 멘잘레 호(潮) 남

쪽에 있는 산엘하갈에 그 폐허가 남아 있다.

- (2) 이 성읍은 애굽의 21왕조부터 22왕조의 후기까지(B. C. 1085-715) 바로(Pharaoh) 왕들의 수도였으며 이 시대에 속하는 왕릉과 주요 사원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 (3) 누비아의 25왕조 시대(B. C. 715-664)에 이곳은 여전히 멤피스와 함께 왕의 거주지와 군사적 기지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본질을 통해서 그곳 방백들이 왕의 상담역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 (4) 이곳이 중요한 성읍이었다는 사실은 우상 숭배를 비난하는 에스겔의 말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겔 30:14). 즉 그곳은 우상의 본거지로서 유명하였기 때문이다.

16. **㉠** 소안의 방백들은 어떤 자들이었는가? (11절)

- ㉠** (1) 그들은 본래 지혜로운 자들이었고, 왕의 모사로서 모략을 세우는 자들이었고 옛 왕들의 후손이었다.
- (2) 애굽의 고대 왕들은 사제(司祭) 출신으로서 그들의 지혜는 매우 유명하였다. 그래서 바로 왕의 고문 역할을 담당할 정도였다.
- (3) 사람들은 때때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 대항하는 경우들이 많다. 애굽의 모사들도 마찬가지였다.
- (4) 그런데 애굽의 모사들은 참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나 성경에는 욥이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다(욥 28:28; 잠 1:7; 9:10).
- (5) 따라서 소안의 방백들의 모략은 어리석은 자의 잔꾀에 불과하므로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난을 피할 수 없었다.
- (6) 이제 이런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한다(약 1:5).

17. **㉠** 소안의 방백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2절)

- ㉠** (1) 그들이 진정으로 지혜롭다면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뜻을 알 것이고 그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고하였을 것이다.
- (2) 애굽인들은 아무리 비밀스러운 것일지라도 점장이들, 술객들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고 애굽의 왕들도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그들과 의논하였고 그들의 대답을 신탁(神託)으로 여겼다(참조, 출 7:11; 단 2:2; 5:7).
- (3) 그러나 그들의 점술은 사투한 것이며 어떤 술책이나 속임수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 (4)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보는데 첫째는 과거의 사건을 비교하고 통계적 수치에 의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둘째는 천문학의 방법을 사용하며(마 16:3) 세째는 성령의 계시에 의한 것으로 알 수 있다(고전 2:10, 11).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세번째의 방법이 우리의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 (5)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세상의 철학이나 알팍한 편의만을 제공해주는 세상 지식을 따르지 말고(갈 4:3; 골 2:8)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빌 3:8) 장래의 일들을 처리해야 한다.

18. **㉠** 소안의 방백들과 늑의 방백들이 어리석음 때문에 애굽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애굽 지파들을 이끄는 모퉁이 들의 위치에 있었으나 어리석음으로 인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게 되었다.
- (2) 즉 그들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정도로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데 하나님께 대한 경외가 수반되지 않은 지혜는 마땅히 허영과 어리석음일 뿐이었다.
- (3) 오늘날 한 국가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간다면 애굽의 지도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지 못

할 것이다.

19. **Q** 애굽의 늪은 어떤 도시인가? (13절)

- A** (1) 고대 애굽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였던 늪은 일명 멤피스(Memphis)라고도 불리었던 프삼메티쿠스(Psammethichus)의 왕도(王都)였다.
- (2) 멤피스는 카이로 남방 약 21km지점의 도시로서 애굽 최초의 수도인데 메네스(Menes)에 의해 세워졌다. 그리고 왕도(王都)의 지위를 상실한 이후에도 종교 도시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후대 왕들은 이곳에 여러 사원(寺院)을 세웠다.
- (3) 성경에서는 멤피스에 관하여 많은 언급은 없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멤피스(늪)는 그들을 장사지낼 것이라고 예언하였다(호 9:6). 그리고 에레미야와 에스겔도 멤피스에 관하여 예언을 하였다(렘 44:1; 46:14, 15, 19; 겔 30:13).
- (4) 한편 멤피스 최고의 신은 창조신으로서 예술과 기술의 수호신이기도 했던 프타(Ptah)였는데 그 신은 끈은 턱수염과 머리털이 없는 머리를 가졌고 지배의 상징인 홀(笏)을 쥐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었다.

20. **Q** 애굽 지도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 결과는 무엇인가? (14, 15절)

- A** (1)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때사에 애굽으로 하여금 잘못 가게 하셨다.
- (2) 그래서 그들은 슬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는 것같이 되었고 그들 중에는 지도자들 평민이든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없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한 주장하시므로(대상 28:9; 렘 12:3; 겔 11:19; 살전 3:13) 애굽인들의 마음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마음을 주셔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 (4) 따라서 본절의 내용은 애굽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하층민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지혜를 상실하여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실현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이다(욥 42:2; 잠 16:1).
- (5)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시거나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버려 두신(참조, 롬 1:28) 이유는 인간들의 마음이 사악하고 방종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 (6) 본래 인간이 타락한 이후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은 악할 뿐이므로(창 8:21) 이런 인간을 처벌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반론(反論)을 펼 수 없다.

21. **Q** 애굽이 이처럼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16절)

- A** (1) 그날에 애굽인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혼드시는 손이 그들의 위에 흔들림을 인하여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 (2) 그런데 애굽인들은 그들이 당하는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다.
- (3)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상태에 떨어져 여인들처럼 유순해지고 겁을 먹게 된다(참조, 13:7, 8; 21:3, 4; 렘 51:30).
- (4) 이사야는 여기에서 그토록 강성하던 애굽이 이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 상황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어지는 것이므로 애굽인들이 대항할 수 없다.
- (5) 그들은 인간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므로 용기를 잃고 패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무용(武勇)을 자랑하던 바벨론이나 메대 바사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된 것으로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멸망하게 된다.

22. **Q** 유다 땅은 애굽에 대하여 어떤 대상이 될 것인가? (17절)

- A** (1) 유다는 애굽에 대하여 두려운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 (2)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모략이 있기 때문이다.
- (3) 유다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열방은 두려워 떨게 되는데 이러한 섭리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했던 사실에도 잘 나타나 있다(참조, 출 15:14, 15; 수 2:9, 10).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므로 불신자들에게 대하여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 능력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8:2; 고전 1:27; 약 2:5).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 약하다 할지라도 의를 위해서 싸울 때만은 두려움 없이 전진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불러 주신다(41:10; 수 1:9).

**23. ㉠ 애굽이 유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게 되는 날 애굽 땅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가? (18절)**

- ㉠** (1)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장망성(將亡城)이라 칭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그날'은 징계의 날이 아닌 보상의 날이다. 즉 이것은 애굽의 장래에 대한 기술(記述)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회개를 할 것을 말한다.
- (3)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히브리인의 이념, 사상, 정서 등이 흘러들어가 여호와를 경배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습 3:9) 그분께 의탁하고 맹세를 하게 된다.
- (4) 비록 이제까지 애굽은 파멸과 징계의 고통을 받았으나 지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인하여 그 기력이 회복되어진다.
- (5)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준다.
- (6) 그러므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다는 것은 그분이 참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는 뜻이다(신 6:13). 그러므로 바울도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롬 10:9, 10).

**24. ㉠ 장망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18절).**

- ㉠** (1) 장망성(將亡城)은 히브리어로 <일하헤레스>인데 그 뜻은 '무너진 성읍'이다.
- (2) 이 말은 본질에서만 등장하는데 이사야는 애굽과 애굽의 경멸이 모사들에게 임하지만 그 후 애굽의 성읍들이 여호와께 돌아와 충성을 맹세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다.
- (3) 어떤 자들은 이 장망성을 헬리오폴리스(Heliopolis)로 부르는데 그것은 '태양성'이라고 하며 이곳을 '온' (창 41:45, 50; 46:20)이나 '벨세메스' (렘 43:13)로 지칭한다.
- (4) 고대 장망성은 애굽의 태양 숭배 중심지였고 이곳에서 태양신 레(Re)와 아툼(Atum)을 숭배하였다. 그리고 애굽 제 5왕조부터 애굽 왕은 '레의 아들'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 26왕조(B. C. 663-525) 이후에는 이 성읍에 주민이 정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 후 바사의 캄비세스에 의하여 이 성은 멸망당하였다.

**25. ㉠ 애굽 땅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심어지므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가? (19절)**

- ㉠** (1)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다.
- (2) 이 말은 애굽에 참된 종교가 일어나므로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 애굽의 우상들이 땅에 넘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 기둥을 세우는 일을 금지시키셨다(신 16:22). 따라서 이것은 증거의 기둥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땅이 여호와와의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상징물일 것이다(창 31:52).
- (4) 이처럼 그들이 이전에는 우상에게 헛된 제물을 드렸으나 이제는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게 드러나게 되는데(말 1:11)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이다.

(5) 또한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신약적 의미의 설명을 내포하는 귀절이다(행 10:10-23; 롬 1:16, 17).

26. **㉠**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부르짖는 애굽인들을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 수 있다(롬 5:15; 엡 2:8, 9; 딤후 2:11). 즉 은혜의 주체자는 하나님이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죄와 사단의 압제에서 고통하는 우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이시다(롬 11:26, 27).
- (4)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여기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도움도, 은총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참조, 요 16:24; 요일 3:14).

27. **㉠**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1절)

- ㉠** (1) 이 귀절은 기독교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종교라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 준다.
- (2)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계시하신 후에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참조, 롬 10:14; 딤후 1:3).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지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없다.
- (4) 이제 이런 참지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참조, 롬 10:17).

28. **㉠** 여호와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므로 애굽인들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21절)

- ㉠** (1) 그때에 애굽인들은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할 것이다.
- (2) 애굽인들은 장차 여호와를 알고(렘 31:34) 섬기며 제사와 예물을 드릴 것인데(슥 14:16-19; 말 1:11) 본절에서 '서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전념을 가리킨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들은 짧은 순간이라도 그분께 대한 경배를 소홀히 할 수 없다.
- (4) 이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 나온다(참조, 마 26:30; 눅 2:14, 29-32; 제 5:9-14).

29. **㉠** 서원의 규례에 대하여 설명하라(21절).

- ㉠** (1) 서원이란 종교적인 성격의 맹세나 서약으로서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며 봉사하고 자기의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
- (2) 일반적으로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 추구되었고 또 인격 완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부과한 자기 수양의 서원도 있으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바치는 자기 헌신의 서약도 있었다.
- (3) 흔히 계약(bargains)이라고 불리는 서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답받을 조건으로 맺은 것을 말하는데 야곱(창 28:20-22)과 사사 입다(삿 11:30, 31, 34-40) 그리고 한나(삼상 1:11, 27, 28)가 이러한 서원을 했던 대표적 인물이었다.
- (4) 그리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면서 인격을 도야하기 위한 서원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원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다(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 이를 위해서는 금욕 생활이 규정되었으나(민 6:1-8) 그 임무가 완수되면 그 생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민 6:13-21).
- (5)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서원을 명령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맹세한

서원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다(신 23:21, 23; 전 5:4).

- (6) 구약 성경에서 서원의 이행은 매우 강조되었으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경건과 신실함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시로 여겼다(시 25:25; 50:14; 56:12; 렘 44:25; 은 2:9; 나1:15).
- (7)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 시대에는 그의 십자가와 더 깊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며 봉사하는 생활이 더 필요하다(참조, 마 16:24; 롬 12:1, 2; 고전 6:20; 벧전 1:15-19).

**30. ㉠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지만 애굽인들이 그분께 돌아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사 애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당신께 돌아오면 받아들이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돌아오면 모두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렘 12:14-16; 습 3:8, 9).
- (3) 우상과 미신에 빠져 있던 애굽인들의 개종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겨 가는 부활의 역사와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뻗치셨기 때문이다(롬 5:6-11).
- (4)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징계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분의 징계는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잠 3:11, 12; 히 12:5-7).

**31. ㉠ 본장의 마지막 부분이 기록된 의미는 무엇인가? (23-25절)**

- ㉠** (1) 이것은 애굽과 앗수르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나아옴으로 견원지간(犬獫之間)이었던 이스라엘과 친근한 관계가 될 것을 의미한다.
- (2) 그러므로 싸움만 있던 곳에는 대화가 있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는 공동 예배가 형성되고 그 결과 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이사가가 예언하던 때보다 약 800여 년 뒤에 메시아를 통해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킨다.
- (4)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쟁의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은 거짓 그리스도인들,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32. ㉠ 애굽과 앗수르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23절)**

- ㉠** (1) 애굽과 앗수르 사이에 도로가 개통되어 두 나라의 사람이 서로 왕래하며 두 나라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 (2) 지리적으로 볼 때 앗수르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이며 애굽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커진 나라이기 때문에 두 나라는 합할 수가 없었다.
- (3)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여 왕래하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관계는 굴복이나 예속을 의미하는 종속적 친밀함이 아니라 친구로서의 관계이다.
- (4) 따라서 세 나라는 아주 친밀하여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것이다.
- (5)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이며 그 화해를 통하여 원수들도 사랑하게 되는 최고의 율법(마 12:30, 31)이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33. ㉠ 하나님께서 애굽과 앗수르와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로 불러 주실 것인가? (24,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사 애굽은 당신의 백성으로, 앗수르는 당신의 손으로 지은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산업(産業)이라고 불러 주실 것이다.
- (2) 이것은 이스라엘과 애굽과 앗수르가 본래부터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던 메시아의 구원의 축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이다. 곧 이방인들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가리킨다.

- (3) 이사야는 애굽과 앗수르가 본래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기에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아무도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차별 없이 당신께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불리시기를 원하신 것이다(창 17:7; 출 19:5, 6; 신 7:6).
- (4)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받은 자들은 ‘거룩한 백성’(출 19:6)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 (5) 이제 우리는 그분의 후사(後嗣)가 되었으므로(참조, 롬 8:17; 딤후 3:7; 히 11:7) 감사하면서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날마다 신앙의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6)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된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제공해 주는 촉매(觸媒)로 사용하여(참조, 히 12:14; 약 3:18)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마 5:9).

## 연구자료

### 애굽의 여러 신(神)

애굽인들은 인간 생활의 모든 일과 자연 현상이 신들의 활동 때 문인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은 상황에 따라 많은 신들을 생각하였다.



#### 1. 신들의 모습

호루스(Horus) 신(神).  
왕관을 쓴 송골매의 모습을 한 이 신은 왕권(王權)의 상징이자 왕의 수호신이였다.

아누비스(Anubis) 신(神).

검은 재칼(jackal) 형상의 신으로서 장례 의식을 관장하며 죽은 자들을 돌본다.



## 2. 여러 신들의 이름과 활동

신(神)	상징과 책임
레(Re)	신들의 왕, 왕의 보호자, 인류의 아버지, 태양신
아톤(Aton)	레의 한 형상, 절정에 이른 태양으로 표현됨
아몬(Amon)	수양의 머리를 가진 남성상으로 레와 동일시됨
오시리스(Osiris)	다산신, 문명의 증여자, 죽은 자들을 지배하는 신
이시스(Isis)	신들의 여왕, 위대한 모신상(母神像)
아누비스(Anubis)	검은 재칼(jackal) 모양으로 죽은 자를 돌보는 신
프타(Ptah)	멤피스의 신으로서 우주의 창조자, 예술의 신
호루스(Horus)	송골매, 또는 송골매의 머리를 가진 남성상, 왕과 동일시됨
젠티(Geb)	땅의 신, 거위 모양의 신으로 세계의 물질적 유지를 맡아 봄
바스트(Bast)	고양이 모양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음악과 춤의 여신
마아트(Maat)	법과 진리와 정의의 여신, 머리에 타조 날개를 달았음
누트(Nut)	하늘의 여신, 죽은 자들의 수호자
세트(Seth)	호루스의 배우자이자 적대자
슈(Shu)	레의 아들로써 빛과 공기의 신, 하늘의 지탱자
도드(Thoth)	마아트의 남편으로 달의 신, 계산과 학업의 신이며 신들의 서기
세크메트(Sekhmet)	프타의 아내로 호전적인 태양의 여신
민(Min)	레 또는 슈의 아들, 다산과 수확, 도로와 사막 여행자들의 신
베스(Bes)	원래 왕가의 보호자였으나 후에 유해한 짐승들의 적이 되었음

# 제 20 장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의 멸망을 나타내는 예표(豫表)가 되다

단락구분 1-2 이사야의 예언적 행위 / 3-4 이사야의 행위에 대한 설명 / 5-6 예언이 성취된 후의 결과

1 앓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2 곧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잠지어다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삼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  
 4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앓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풀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뵈이리니  
 5 그들이 그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을 인하여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 그날에 이 해변 거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앓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 1. ㉠ 본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의 요지는 애굽과 구스의 멸망에 대한 예언적 내용을 포함한다.  
 (2)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가 앓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을 현실감있게 예언하기 위하여 당신의 종 이사야 선지자에게 벌거벗고 맨발로 걷게 하셨다.  
 (3)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스나 애굽과 같이 무능력한 세력을 의지하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가르쳐 주셨다.  
 (4) 그러므로 본장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참된 보호자가 누구이며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 즉 이러한 일을 하시는 분은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뚜렷이 밝혀 주고 있다.

## 2. ㉡ 본장이 기록된 연대는 언제인가? (1점)

- ㉡ (1) 그때는 앓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어 그곳을 취하던 해이다.  
 (2) 이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앓수르 비문을 통하여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아스돗은 사르곤이 다스리던 때에 두 번 침략을 당했다.  
 (3) 첫번째는 사르곤 9년(B. C. 713)에 앓수르의 군대 장관 탈탄(Tartan)에 의해 공격을 받았고 두번째는 사르곤 11년(B. C. 711)에 사르곤의 원정에 의해 침공당하였다.  
 (4) 따라서 본절에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보내' 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첫번째 공격이 있었던 B. C. 713년에 예언이 기록된 것이 확실하다.  
 (5) 이때에 애굽과 구스는 사박(Shabak)의 지휘로 연합 세력을 형성하였고 첫번째 함락당한 아스돗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켜 사르곤이 세운 왕을 축출하였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운 후 블레셋, 유다, 에돔, 모압 등과 제휴하여 애굽과 구스의 동맹군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다.  
 (6) 바로 이런 시기에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인간적인 동맹 관계를 단절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그리하여 유다가 아무리 애굽과 구스의 세력을 의지하더라도 하나님께

서는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실 것이라고 하셨다.

- (7)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적인 무기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의 노력 등을 의지하지 말고(시 44:6; 렘 17:5; 48:7)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므로 그분의 구원을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시 22:4, 5).

### 3. ㉠ 사르곤은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그는 성경 역사에서 본질에만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사르곤 2세(Sargon II, B. C. 721-705)를 가리킨다.
- (2) 그는 살만에셀의 후계자인 디글랏 빌레셀 3세의 아들이며 산헤립의 아버지였다.
- (3) 그의 치세(治世)는 코르사밧에서 발견된 그의 비문과 니느웨와 니므롯에서 발견된 서신 등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4) 사르곤 2세는 살만에셀이 B. C. 722년에 죽을 때까지 3년간(왕하 17:5, 6) 포위, 공격했던 사마리아를 함락하였다(B. C. 722). 그리고 B. C. 720년에는 유다와 블레셋, 에돔, 모압 등이 앗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
- (5) B. C. 710년에 사르곤은 그가 통치하면서 두번째로 바벨론을 공격하였고 크게 승리하였다. 이때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Merodachbaladan, B. C. 722-710, 왕하 20:12)이 엘람으로 도주함으로써 사르곤의 명성은 더욱 고조(高潮)되었다.
- (6) 그는 앗수르 제국의 니므롯에서 살기를 위하여 큰 궁전을 세웠는데 B. C. 717년에 니느웨 동북쪽 19km 지점에 길이가 1.6km인 정사각형의 왕도가 건설되었다.
- (7) 바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던 그의 치세 말기에 앗수르 제국은 역사상 가장 광대하고 강력한 왕국을 형성하였다.

### 4. ㉠ 앗수르의 침공을 받은 아스돗은 어떤 성읍인가? (1절)

- ㉠ (1) 아스돗은 블레셋의 5대 주요 성읍 중 하나로서(삼상 6:17) 예루살렘 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다.
- (2) 이 성읍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성읍들 중에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내륙으로 약 4.8km 지점이고 아스글론 북쪽 약 16km 지점에 있었다.
- (3)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할 때 아나 자손이 거주하였었고(수 11:22) 기업 분배시에 다른 블레셋 족속의 성읍들과 함께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다(수 15:46, 47).
- (4) 그 후 아스돗은 B. C. 783-742년경의 웃시야 왕 때까지는 유다의 관할하에 있지 않았다. 대하 26:6에 의하면 웃시야는 블레셋 족속과 싸워 이 성읍을 점령하였기 때문이다.
- (5) 얼마 후 앗수르가 통치하던 때 아스돗은 B. C. 711년경에 반란을 일으켜 다시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런 때에 이사야는 유다가 앗수르에 대적하여 애굽과 구스의 동맹에 가담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이다.

### 5. ㉠ 시대적 배경이 혼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명령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네 허리에서 베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 (2) 본질을 통해 볼 때 이사야는 털옷을 입은 엘리야와 똑같은 의복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왕하 1:8; 속 13:4; 히 11:37). 한편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과 가죽 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역시 이사야와 비슷한 복장인 것이다(마 3:4).
- (3) 여기서 옷(히, 사크)은 애도자가 장례식에서 입는 것과 같이 굵은 베나 검은 색깔의 털코트(50:3; 계 6:12)인데 맨살 위에 바로 입거나 망토와 같이 겹에 두르는 것으로 반드시 띠를 둘러야 했다.
- (4) 그래서 윗 옷만 벗으면 벌거벗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하도록 지시받은 것은 관습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배치되는 행위이다.

- (5) 본래 베풀은 심히 애통함을 나타낼 때와 회개할 때 착용했다(3:24;15:3;창37:34;단9:3;마11:21). 그리고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은 강도나 재난을 당하였을 때, 또는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의 복장이었다.
- (6) 따라서 이사야의 행동 예언은 앞으로 애굽과 구스가 극한 불행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유다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라 할 수 있다.
- (7) 비록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므로 백성을 제도(啓導)하는 일에 앞장을 섰다. 이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무관심한 자들에게 과감하게 잘못을 지적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참조, 미1:11).
- (8)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말고 사사로운 인정(人情)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6. **㉠** 하나님께서는 얼마 동안 이사야를 행동 예언하는 일에 사용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豫表)와 기적(奇蹟)이 되게 하셨다.
- (2) 이사야의 이 예언적 행동은 3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주어졌는데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그 기간 안에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나타낸다.
- (3) 그러므로 이것은 이 기간 안에 그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될 애굽과 구스를 버리고 안전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교훈하는 행위이다.
- (4) 이런 때에 경건한 자들은 구스의 변영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이지만 이사야의 벌거벗은 광경에 감동을 받아 그 경고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 (5) 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래도록 참으시지만(벧후3:9)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악에 대해서만은 그분의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이다(참조, 말3:1-6).

7. **㉠**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어떤 자라고 부르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중' 이라고 부르셨다.
- (2) 이 칭호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 듣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소수의 사람만 듣는 칭호이다.
- (3) 즉 아브라함(창26:24), 모세(신12:7), 갈렙(민14:24), 욥(욥1:8;42:7,8), 엘리야김(22:20) 그리고 스룹바벨(학2:23) 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표현하실 때 사용하신 말이다.

8. **㉠** '삼 년 동안'이란 기간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이 예언이 처음 주어진 때가 B. C. 713년이므로(참조, ㉠2) 여기서 3년이라고 말한 것은 B. C. 713-711년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실제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은 앓수르의 에살하돈(Esarhaddon, B. C. 681-668)과 앓술바니팔(Asurbanipal, B. C. 663)의 애굽 침공 때였다.
- (3) 이런 사실들은 고고학의 자료에 의하여 확증되었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앓수르의 비문에 의하여 입증되었다.

9. **㉠** 이사야의 예표적 행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4절)

- ㉠** (1) 이것은 애굽과 구스가 앓수르에게 포로될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이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 벗은 발로 불기까지 드러내어 수치를 보이리라고 하였다.
- (2) 이 예언이 있는 후 12년 뒤에 기록된 산헤립의 연대기와 앓수르의 조각에서 애굽과 구스인들이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3) 결국 이사야의 예언대로 애굽과 구스는 포로가 되었고 유다는 의지할 대상을 잃었다.

(4) 오늘날 성도들과 유다가 애굽이나 구스를 의지하다가 실패한 것과 같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끝내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이다.

10. **㉠ 유다가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자신들이 바라고 의지하던 애굽과 구스가 앗수르에 의하여 포로가 되어 수치를 당하기 때문이다.  
 (2) 유다 백성은 진정으로 자신들이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것에만 매어 달렸다.  
 (3)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으로 인하여 도리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대하 14:11; 시 52:9; 91:2; 렘 17:7).

11. **㉠ ‘해변 거민’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가? (6절)**

- ㉠** (1) 여기서 해변 거민은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청했던 유다와 에돔과 모압 그리고 블레셋을 가리킨다.  
 (2)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해변 거민이라고 말할 때는 블레셋(슌 2:5)이나 베니게(23:2, 6)를 가리킨다.  
 (3) 그러나 본절에서는 블레셋만도 아니고 유다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해변 거민이란 유다와 팔레스틴 거민을 비롯해 에돔과 모압, 블레셋 백성들을 포괄하고 있다.  
 (4) 이런 의미에서 이사야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2:22)라고 하였다.

12. **㉠ 해변 거민이 애굽과 구스를 보고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6절)**

- ㉠** (1) 그들은 앗수르 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굽과 구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나라들이 오히려 앗수르에게 패망했으므로 그들도 앗수르의 침략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2)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다 백성이나 주변 민족은 자신들이 위협에 빠진 상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3) 과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에 직면했을 때 우상을 만들었고(출 32:1-8; 수 24:14) 또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애굽을 향해 발길을 돌렸었다(참조, 민 14:4).  
 (4)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의지하던 것들은 모두 패망한 사실에 대하여 경악하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  
 (5) 오늘날 복잡한 세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참된 보호자가 삼위 일체(三位一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 18:2; 딤후 1:12; 4:17, 18).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종 이사야가 삼 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되게  
 되었느니라’(3절).



# 제 21 장 바벨론과 에돔 그리고 아라비아에게 경고하다

단락구분 1-10 메대와 바사에 의한 바벨론의 멸망 / 11-12 두마(에돔)에 관한 경고 / 13-17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2 흑독한 목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3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4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나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5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숫군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이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6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숫군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8 파숫군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어 내가 낮에 늘 땅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9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합락되었도다 합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

졌도다 하시도다  
 10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고하였노라  
 11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숫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숫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12 파숫군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13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라라  
 14 데마 땅의 거민들이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15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16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일 년 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17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세 나라의 장래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 있다.  
 (2) 경고의 대상은 해변 광야와 두마, 그리고 아라비아인데 그 경고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이것은 우리들에게 인간적인 동맹 관계나 혹은 인간들이 자랑하는 막강한 힘으로도 인간이 직면한 문제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2. ㉠ 본장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경고의 대상은 어디인가? (1절)

- ㉡ (1) 첫째로 경고가 주어진 곳은 해변 광야이다.  
 (2) 애굽의 나일 강을 바다라고 불렀듯이(19:8) 유프라테스 강도 '많은 물가' (렘51:13)라고 불렸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는 표현은 곧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한다.  
 (3) 그런데 바벨론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쓴 것은 특이한 것으로 성경의 다른 기록자들은 이

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이 이사야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의심하는 자들도 있다.

- (4) 독일의 신학자 콤페(Koppe)에서 크노벨(Knobel)에게 이르기까지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벨론 포로 말기에 살았던 한 예언자에 의해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 (5) 그러나 본장에서 표현된 사상과 양식(樣式)은 모두 이사야의 것이다. 그리고 1-10, 11, 12, 13-17절과 2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경고는 그 상징적인 제목과 환상적인 소산 그리고 문맥 자체를 통해 나타나는 방식들이 긴밀하게 짜여 있다.
- (6)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본장의 기록자가 이사야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고, '해변 광야'가 바벨론을 의미한다는 말도 틀린다고 할 수 없다.

### 3. ㉠ 해변 광야에 몰아닥친 적병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1절)

- ㉠ (1) 그들은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바람같이 몰려왔다.
- (2) 여기에서 '광야'나 '두려운 땅'은 바벨론을 패망시킨 메데 바사의 영토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메데 바사의 북방 지역이 황폐하고 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 (3) 또한 '남방 회리바람' (참조, 2:21; 암3:9)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부는 폭풍으로 그 위세가 매우 강하며 급작스럽고 굉장한 소리를 내며 그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물건들을 날려 버리고 엎어 버린다(참조, 욥1:19; 37:9; 호13:15).
- (4) 따라서 본절은 바벨론을 침공한 메데 바사의 군대가 회리바람과 같이 매우 강하고 급작스러웠기 때문에 바벨론의 그 막강한 군대도 그 앞에서는 추풍 낙엽과 같은 것을 나타낸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시기로 약속한 유다에게 고통을 가했던 모든 나라들은 동일하게 그 보응을 받게 될 것인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다(참조, 23:1; 욥1:1).

### 4. ㉠ 이사야가 본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그는 속이던 자가 속임을 당하고 약탈하던 자가 약탈을 당하는 흑독한 목시를 보았다.
- (2) '흑독한 목시'는 견디기 어려운 재난을 나타내는데 바벨론이 열방을 흑독하게 괴롭혔듯이 그들도 것처럼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바벨론은 이방에게 공포의 대상이었고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였으며 자신들의 번영으로 교만해져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패역한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다(13:1-22; 렘50장; 계14:8; 18:1-24).
- (4) 다른 사람을 약탈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약탈한 자들은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正義)이다.
- (5) 오늘날에는 전쟁을 통한 약탈 행위가 별로 없으나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혹은 비윤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런 일을 자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따른 보응을 베푸실 것이다.

### 5. ㉠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치실 것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엘람과 메대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을 치시는데 그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고통당하던 모든 민족의 괴로움을 그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곧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한다.
- (3) 왜냐하면 엘람은 바사의 일부로서 바사 전체를 대표하는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즉 엘람은 이사야 때에 히브리인에게 알려진 나라이었으나(창14:1, 9) 바사는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다른 민족들이 해방을 얻게 되는데 이것은 바벨론이 자신들의 지은 죄의 대가를 돌려받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마7:2).

(5)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와 오면서 사단의 세력들이 더 날뛰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6. **㉠** 엘람은 어떤 나라인가? (2절)

- ㉠** (1) 엘람은 국가명과 함께 한 민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 이 나라의 위치는 티그리스 강 동쪽과 동북부의 자그로스(Zagros)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이었다.  
 (3)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엘람인은 셈의 아들 엘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창 10:22 ;대상 1:17) 학자들은 이들을 비(非)셈족인 코카시안족(Caucasians)으로 분류한다.  
 (4) 바벨론 연대기에 의하면 엘람은 B. C. 742년에 독립 국가로 존재하였다. 그리고 앗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B. C. 745-727)와 사르곤 2세 (B. C. 722-706)의 비문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5) 한편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33-619)은 말년에 엘람 왕 테움만(Teumman)을 사로잡은 후 엘람에 허수아비 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그들이 앗수르에 충성하지 않으므로 앗술바니팔은 엘람의 수사를 공격하여 함락시켰다. 그로 인해 독립 국가로서의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다.

7. **㉠** 메대에 관하여 설명하라 (2절).

- ㉠** (1) 메대는 산이 많은 나라로서 북은 카스피 해, 동은 사막, 남은 바사, 서는 앗수르와 아르메니아가 있는데 이곳은 인도-유럽어족의 주거지이다.  
 (2) 이들의 형성은 데이 오세스가 메대인들을 결속하여 엑바타나 성을 수도로 건설하면서 이루어졌고, B. C. 7세기경 키악 사레스의 통치에 이르러 스키타이인들을 추방했으며 앗수르의 세력을 꺾고 루디아를 침략하여 제국을 이루었다.  
 (3) 그러나 B. C. 6세기에 이르러 아투아게네스 때에 고레스 대왕에게 패망하여 바사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여전히 메대라 불리었다.  
 (4) 성경에 나타난 메대는 바사 제국의 한 부분으로 바사와 메대로 언급되었고(에 1:3, 14, 19),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 보내진 곳(왕하 17:6)이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을 정복하므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이다(참조, 단 5:28, 30, 31).  
 (5) 성경에 나오는 메대의 왕들은 고레스(스 1:1), 아하수에로(스 4:6), 아닥사스다(스 4:7), 다리오(스 6:1) 등인데 이들은 실상 메대를 정복한 바사 제국의 왕들이므로 메대 바사 왕으로도 불리어졌다.  
 (6) 이사야는 메대에 관한 예언을 하면서 메대를 바벨론의 멸망을 위해 사용될 하나님의 도구로 예언하였고(13:17-19),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예언하였다(44:28).  
 (7) 또한 이사야보다 후세대 사람인 다니엘은 메대가 바벨론보다 조금 못한 나라(단 2:39)이지만 몸예 비유하여(단 7:5) 헬라를 칠 것이라고 하였다(단 11:2).

8. **㉠** ‘그의 모든 탄식을...그치게 하였노라’는 귀절은 무슨 의미인가? (2절)

- ㉠** (1) 이 귀절은 바벨론에게 압제당하며 탄식하던 자들이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결과 다시는 바벨론의 압제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탄식이 그치게 된다는 뜻이다.  
 (2) 여기서 ‘탄식’은 한 개인의 탄식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인해 야기된 민족 전체의 탄식이다(참조, 14:17).  
 (3) 본래 바벨론은 어느 나라든지 동정해 본 일이 없는 나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역시 동정해 줄 자들이 없고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될 것이다.  
 (4) 이와 같이 악인들이 패망하면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게 되고 의인들이 득세(得勢)하여 평안한 나라가 된다(참조, 잠 11:10;28:12).

9. **㉠** 이사야는 자신이 본 묵시(默示)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받았는가? (3절)

- Ⓐ (1) 그는 목시로 인하여 요통이 심한 임신한 여인과 같은 고통을 당하였는데 그 혹심한 고통으로 인해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도 못하였다.
- (2) 이사야가 충격을 받은 목시는 참화, 파괴 및 대학살(13:18)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목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당할 바벨론의 역할을 하면서 그분의 계획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의 영혼 깊숙히 파고드는 공포로 인해 그는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다.
- (4)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불의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가혹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불의나 악에서 떠난 경건한 생활을 해야 한다.

10. Ⓞ 두려움으로 인한 고통이 이사야를 어떤 상태로 인도하였는가? (4절)

- Ⓐ (1) 그 두려움은 이사야의 마음을 진동하고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瑞光)이 변하여 멸망이 되게 하였다.
- (2) 지나친 공포는 사람을 비정상 상태로 만드는데 이것은 바벨론의 멸망이 예기치 않은 시기에 갑자기 닥칠 것을 보여 준다.
- (3)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벨사살의 시대에 완전히 실현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환락과 유흥에 빠져 있을 때 벽에 이상한 글씨가 나타나 벨사살의 표정이 사색(死色)으로 변하였고(단 5:6) 그 후 그는 메대 사람 다리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단 5:30).
- (4) 환락과 유흥의 극치에 있던 벨사살은 자신이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 (5) 이와 같이 죄의 극치를 달리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 날이 언제 이를지 모른다. 그날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충고하시고 있다(참조, 마 24:42; 25:13; 고전 16:13; 살전 5:6; 계 16:15).

11. Ⓞ 바벨론 은 족속은 위급한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있었는가? (5절)

- Ⓐ (1) 그들은 자만심에 넘쳐 파수군을 세우고 식탁을 펴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들에게 닥칠 위협한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 (2) 이런 식의 연회는 나라가 가장 평안할 때 행하여졌는데 본질은 벨사살 왕의 잔치에 해당하는 표현인 것 같다(단 5:1-4).
- (3) 그리고 '너희 방백들아...기름을 바를지어다'라는 말은 바벨론이 당할 급박한 전쟁에 놀라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4)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대는 바벨론이 파수군을 세우는 단 한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한 것처럼 단순한 예방으로 사단의 침공을 막을 수가 없다.
- (5) 우리의 무기는 우리 자신이 소유한 피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 진리, 의, 복음,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등인데(엡 6:10-17) 이런 무기들을 어느 순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갈고 닦아야 한다(엡 6:18).

12. Ⓞ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파수군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 (2) 본질은 다른 예언서들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다. 즉 다른 곳에서는 파수대에서 있는 자가 예언자 자신으로 나온다(합 2:1, 2). 그러나 여기서는 예언자와 그가 파수대에 세운 사람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되어 있다.
- (3) 이것은 마치 스가라가 자신에게 말하는 천사를 통하여 본 것과 같이(참조, 스후 2장) 이사야는 파수군을 중매(中媒)로 하여 보고 있는 것이다.
- (4) 그러나 본질을 자세히 살펴보면 파수군은 예언자인 이사야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예언

자는 하나님에 의해 도구로 쓰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5) 이미 이사야는 연락(宴樂)에 빠져 멸망하게 될 바벨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참조, 9) 주위 상황에 대하여 무감각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3. ㉠ 파수군에게 명령하여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7절)

- ㉠ (1) 이사야는 파수군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고 하였다.
- (2) 여기에 나타나는 모습은 군인들이 행진하는 것을 가리키고 나귀 떼와 약대 떼가 군수 품이나 식량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그 짐승들은 전쟁에서 적군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 (3) 이사야는 파수군이 이런 것을 발견하면 자세히 관찰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다.

14. ㉠ 경제하던 파수군의 보고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8, 9절)

- ㉠ (1) 파수군은 외치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다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였다.
- (2) 파수군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불평을 하는데 그때 밀려오는 군대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외치는 천사들의 승전가(제 18:1, 2)와도 같다.
- (4)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이런 묘사는 예레미야에 의해서도 비슷하게 제시되었는데 그는 바벨론의 패망을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렘 50:2, 38; 51:44, 47, 52).

15. ㉠ 바벨론이 함락당한 이유는 무엇인가?(9절)

- ㉠ (1) 본장에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원인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2) 예를 들면 제 18장에 보면 세 가지 원인이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는 음행, 즉 종교적 타락이며, 둘째는 왕들의 음행, 즉 정치적 사회적 부패와 타락이며 그리고 세째는 상고들의 부정 거래와 탐욕으로 인한 경제 구조의 붕괴였다.
- (3) 성경 역사나 세계사를 보더라도 이와 같은 원인을 안고 있는 나라치고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
- (4) 오늘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그리고 모든 실업자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한다. 그들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그들이 속한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게 된다.

16. ㉠ 이사야는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을 전해 주었는가?(10절)

- ㉠ (1) 그는 유다 백성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고하였다.
- (2)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서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예언에 대한 보증을 세우고 있는데 그 보증의 근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 (3) 우리는 이 귀절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자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벧전 4:11) 담대해야 한다.
- (4) 한편 본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호칭을 두 가지로 사용했는데 '만군의 여호와'는 언제나 하나님께 적용되는 호칭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분께서 당신의 백성의 방언자요 수호자이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17. ㉠ '너 나의 타작한...곡식이며'는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10절)

- ㉠ (1) 본절의 '타작한 것', '마당의 곡식'은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 (2) 이 말씀은 곡식이 마당에서 타작을 당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오랫동안 주변 국가들에게 침공을 당하는 중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골라진다는 뜻을 갖고 있다.
- (3) 그러므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괴로움 속에 있던 유다 백성은 해방되어 고대하던 약속의 땅에 돌아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마 3:12).
-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시련의 방법을 통하여 당신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백성, 즉 알곡을 찾으신다(참조, 대하 16:9).

18. **㉠** 두마에 관하여 설명하라(11절).

- ㉠** (1) 두마(Dumah)는 이스마엘의 후손(창 25:14; 대상 1:30)으로 이루어진 아랍 족속을 가리키며 지역을 말할 때는 에돔에 대한 상징적인 명칭으로 이 이름이 사용되었다.
- (2) 에돔이 거주한 땅은 세렛 시내에서 아카바 만까지 약 160km나 뻗어 있으며 동서로는 에돔 광야를 가로질러 64km 정도 뻗은 거친 산악 지역이다.
- (3) 에돔 족속은 여호사밧 때에 유다를 공격하였는데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하였다(대하 20:1). 또한 여호람 때에(B. C. 848-841) 유다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통치를 벗어나 에시온게벨을 약탈하고 점령하였다(왕하 8:21). 그 후 에돔은 약 40년간 독립하게 되었다.
- (4) 구약에서 에돔은 이스라엘과 전통적으로 적대감을 형성했는데 그것은 야곱과 에서 사이의 관계에 근원을 두고 있다(창 36:1).
- (5) 성경에서 에돔에 대한 예언은 오바다서 전체에 나타나는데 에돔의 멸망에 관하여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다. 이 예언서에서 언급하는 주요 문제는 그들이 비록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기도 했으나 한 형제의 후손들로서 B. C. 587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적군과 함께 에돔이 유다를 침공했기에 느낀 배신감이었다(읍 1:10, 11).
- (6) 따라서 시편 기자는 에돔을 보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으며(시 137:7) 예레미야도 오바다와 동일한 감정으로 에돔의 황폐를 예언하였다(렘 49:7-22).
- (7) 이런 주제는 본서(11:14; 34:5-17)와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며(겔 35:1-15) 특히 말라기서는 특별 제사의 매개(媒介)로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거부하신 것에 관하여 강조하고 있다(말 1:2-4).
- (8) 그러나 스바냐와 스가라는 멸망당한 자들 가운데 에돔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특히 율법에서는 에돔 사람들이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참조, 신 23:7, 8).

19. **㉠** 두마, 즉 에돔의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인가?(11절)

- ㉠** (1) 세일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파수군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에돔이 자신들의 해방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 (2) 세일은 에돔인의 산인데(창 14:6; 32:3; 36:8, 9) 이사야는 세일의 이름으로 그의 예언 속에 전에도 왕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 (3) 그런데 여기서 '밤'은 환난이나 심판을 의미한다(미 3:6). 따라서 위에 언급된 말은 에돔이 극심한 환난에 빠져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 (4)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에돔과 같은 어둠에 빠져 있는데(읍 30:30; 렘 8:21; 율 2:6) 중요한 것은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그 죄악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참조, 요 1:5; 3:19).
- (5) 그러므로 죄의 어둠 속에서 우왕 좌왕하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찾아야 하는데 그 빛이 곧 그리스도이시다(49:6; 요 1:1, 9, 14, 17; 요일 2:8).

20. **㉠** 에돔의 부르짖음에 대한 파수군의 응답은 무엇인가?(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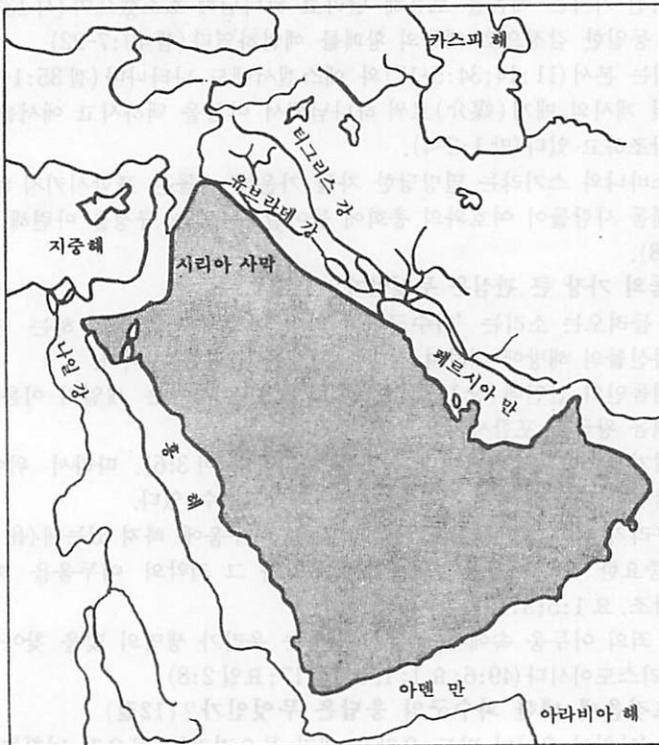
- ㉠** (1) 파수군은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고 대답하였다.

- (2) 이 말씀은 파수군이 에돔에 대하여 아침이 오는 것 같으나 곧 밤이 올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 (3) 이사야는 애매한 듯이 말을 전하는데 이는 악인들에게 근본적인 평안이 없다는 뜻이다.
- (4) 악인들은 항상 비참한 상태에 빠져 밤에는 아침을 사모하고 아침에는 밤을 찾아 헤매게 된다(참조, 신 28:67).
- (5) 따라서 악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 (6) 밝은 낮을 사모하는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아가 그분을 의지하여야 한다.

21. **㉠** 이사야의 세번째 경고 대상은 어디인가? (13절)

- ㉠** (1) 이사야는 바벨론과 에돔에 이어 아라비아에게 경고를 하였다.
- (2) 아라비아는 사막이라는 뜻으로 서남 아시아의 거대한 반도 이름이다.
- (3) 구약 성경에서 본절은 아라비아 반도 북서부의 사막을 가리키며 렘 25:24에서는 반도의 북부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하 9:14과 겔 27:21에서는 남부까지도 포함한다.
- (4) 위에서 제시한 성경은 히브리어 (아랍)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는 민족의 명칭으로 아랍인을 가리킨다. 그러나 히브리어 관용어법에 따라 그 민족이 사는 지역을 나타내기도 한다.
- (5) 아라비아 반도는 서쪽으로 홍해, 남쪽으로 아덴 만과 인도양, 동쪽으로 오만 해협과 페르시아 만을 마주 보며 삼면이 바다로 싸여 있으므로 '아랍인의 섬'이라고도 불린다.
- (6) 아라비아 반도의 위치를 보면 아래와 같다.



- (7) 이곳의 기후는 덥고 건조하며 서남부와 남부 해안 지역 및 동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비 내리는 일이 드물다. 그리고 여기서 부는 바람은 공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참조, 17:13; 욥 1:19; 27:21).
- (8) 성경에서 보면 이곳에서 금(왕상 10:2, 10; 대하 9:1, 14)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특히 오빌(왕상 9:28; 대상 29:4; 시 45:9)과 하월라(창 2:11, 12), 라야마(겔 27:22) 및 바르와임(대하 3:6)이 유명하다.
- (9) 한편 아라비아인들은 창 10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구스의 자손들(창 10:7) 중 세바, 하월라, 삽다, 스바 및 드단 족속은 아라비아 부족에 속하며 셈 계통 육단의 자손들 중에 하살마, 우살, 스바, 오빌 및 하월라(창 10:25-29) 등도 있다.

22. **㉠ 드단 대상(隊商)들이 유숙할 곳은 어디인가? (13절)**

- ㉠** (1) 드단의 대상들이 유숙할 곳은 아라비아 수풀이다.
- (2) 이것은 곧 아라비아의 드단 대상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여 그들이 모두 집을 내버리고 숲속으로 도망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아라비아는 사람이 숨기에 적합한 수풀이 없다.
- (4) 그러므로 드단 대상들이 숲으로 도망했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곳, 안전한 곳으로 옮겨갔다는 의미이다.

23. **㉠ 드단의 대상은 어떤 민족인가? (13절)**

- ㉠** (1) 그들은 에돔의 이웃에 거하는 구스와 아브라함의 혼혈족(창 10:7; 25:3)인데 동에서부터 서로, 즉 두로까지 장사하러 다니던 족속이었다(겔 27:20).
- (2) 이들은 주로 상아, 오목[黑壇], 사람이 짐승을 '탈 때 까는 담요'(겔 27:15, 20) 등을 수출하였는데 주로 낙타를 이용하여 실어 날랐다.
- (3) 드단이라고 말하는 지역은 오늘날 예멘에서 팔레스틴으로 가는 대상들이 행로 중에 머물러 가는 오아시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으로 벌(罰)이 임할 것이라고 하였다(렘 25:23; 49:8; 겔 25:13).

24. **㉠ 하나님께서는 테마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고 하셨다.
- (2) 이 내용은 아랍인들이 도주할 때 너무 비참해져서 필요한 음료수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쇠약해지며 또한 식량까지도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 (3)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고 권면하는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또한 아랍인들이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어서도 아니다.
- (4) 여기서 아라비아인들이 당해야 할 재난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한가를 보여 주는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한 것은 후에 있을 앗수르의 침공을 의미했을 것이다.
- (5) 앗수르가 아라비아를 침공한 일은 B. C. 700년이었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산헤립이 아라비아와 앗수르의 왕이라고까지 불리었다.

25. **㉠ 테마는 어떤 곳인가? (14절)**

- ㉠** (1) 테마는 북아라비아에 있는 지금의 테이마(Teima)와 동일한 곳이다.
- (2) 위치는 다메섹(Damascus)과 메카(Mecca)의 중간 또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있으며 페르시아 만과 아카바 만을 연결하는 대상로(隊商路)에 있다.
- (3) 성경에서 테마에 관한 예언은 본절과 예레미야에 나타나는데 예레미야는 테마와 그 주위의 부족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라고 하였다(렘 25:23).
- (4) B. C. 540년경 바사 왕 고레스는 모든 아라비아 지역을 점령하였고, 1년 후에는 바벨론까지 점령하였다.

26. ㉠ 데마 사람들이 도움을 주는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15절)

- ㉠ (1) 그들은 전쟁의 칼날을 피하며 댄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다.  
 (2) 드단의 자손들에게 전쟁의 재난이 미치고 그 전쟁은 무서운 힘으로 밀어닥치기 때문에 그 앞에 버티고 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재난을 피해 도망가게 되었다.  
 (3)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인데 우리들은 영적으로 전쟁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과 같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에(참조, 엡 6:12)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참조, 엡 6:13-17).  
 (5)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는 것이다. 그런데 그 피난처는 세상 어디에서나 찾을 수는 없고 단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참조, 삼하 22:3; 시 46:1; 142:5).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분명히 준비된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참조, 잠 14:26).

27. ㉠ 계달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作定)은 어떠한가? (16절)

- ㉠ (1) 하나님께서 품군의 정한 기한같이 1년내에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할 것이라고 하셨다.  
 (2) 계달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다(창 25:13; 대상 1:29). 그러나 여기서는 아라비아 부족 전체를 가리키는 집약적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3) 그런데 그들이 보유한 영광(그들의 자유, 군사력, 많은 인구와 부요함 등)이 1년 이내에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예언이 주어졌다.  
 (4) 그들은 두로 사람들과 같이 상거래를 하였고(겔 27:21) 부분적으로는 천막 생활을 하였으며(시 120:5; 렘 49:29), 일부는 마을을 형성하였다(42:11). 따라서 이들은 양, 소, 낙타 등이 풍부하였다.  
 (5) 그러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실행되는데 이런 사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깨달음을 준다.  
 (6) 즉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곳에 대한 소망이 있으므로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된다(참조, 마 24:3, 14; 살후 1:6-10; 요일 2:18). 그러므로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마 25:1-30; 눅 21:25-28).

28. ㉠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한이 끝나는 날 계달에 어떤 자들이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계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계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고 말씀하셨다.  
 (2) 즉 이 말씀은 계달 자손이 본래 활을 잘 쓰는 호전적(好戰的)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사용해 보지도 못한 채 그들의 힘이 쇠퇴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그러나 참혹한 재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세상과 구별하셔서 구원하신다.

본장의 요절

'파숫군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12절).

## 제 22 장 예루살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다

단락구분: 1-4 예루살렘을 위해 슬퍼하다 / 5-7 성성(聖城)이 포위되다 / 8-11 그 성이 하나님을 버리다 / 12-14 성성이 재난을 당하다 / 15-19 악한 관원 썬나가 직위를 빼앗기다 / 20-25 썬나 대신에 엘리아김을 세우다

1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쩔인고

2 환화하며 떠돌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며

3 너의 관원들은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4 이르므로 내가 말하노니 들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멸하였음을 인하여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라

5 이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는 분요와 밭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는 소리되다

6 엘람 사람은 전통을 켜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었으니

7 병거는 너의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 그가 유다에게 덮었던 것을 벗기매 이날에야 내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9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래 못의 물도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케도 하며

11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하신 자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자를 존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뜸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

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5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말고 궁을 차지한 썬나를 보고 이르기를

16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뚫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뚫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아 내었도다

17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18 정녕히 너를 맡아 써서 공같이 팽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었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19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

20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아김을 불러

21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띠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버가 될 것이며

22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었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3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24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함아리까지지라

25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지므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 **㉠** 하나님께서 새로이 주신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과정과 악한 관원 션나의 관직이 박탈당하고 대신 엘리아김이 직위를 이어받게 된 사실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 (2) 본래 예루살렘은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던 도시였는데 그곳의 주민들이 하나님께 대한 존경의 태도를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보내사 그들을 괴롭게 함으로써 그들을 깨우치시려 했으나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태도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다.
- (3) 이런 때에 국고를 맡은 션나는 직무에 충실하지 못하여 관직에서 쫓겨 나고 대신 충성스런 엘리아김이 그 직위를 이어받게 되었다.
- (4) 여기서 션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엘리아김은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비유되었는데 이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는 영원한 무저갱(無底坑)에 갇히고(참조, 제 20:3) 그리스도는 승리하게 될 것을 나타낸다.

2. **㉠** 본장의 경고는 어디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 ㉠** (1) 본장의 경고는 이상(異像) 골짜기에 관한 것이다.
- (2) 여기서 '이상 골짜기'란 유다의 수도(首都)인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그곳을 골짜기라고 말한 것은 지형적으로 맞는 표현이다.
- (3) 예루살렘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참조, 시 125:2) 이처럼 불리었고 70인역에는 본귀절을 '시온 골짜기'로 번역하고 있다.
- (4) 그러나 이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골짜기라고 표현한 상징적 의미에 있다. 일반적으로 골짜기는 깊고 조용하며 견고한 장소로 인식된다.
- (5) 예루살렘이 바로 이처럼 하나님에 의하여 숨겨진 장소, 보호받는 장소라는 의미이며 세상과는 단절된 의로운 성읍이라는 뜻이다.
- (6) 그런데 이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경고가 주어진 까닭은 그 성읍의 부패함 때문이었다(8-11절). 결국 이 내용은 예루살렘을 예로 들어 유다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알린 것이다.

3. **㉠** '네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쩔인고'란 어떤 상황을 말하는가? (1절)

- ㉠** (1) 이는 적들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다.
- (2) 대체로 근동 지방의 집들은 지붕이 평평하여 그곳에서 오락이나 잔치를 벌이는 장소로 흔히 사용되었다.
- (3)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감에 도취되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참조, 사 16:27; 느 8:16).
- (4) 그러나 지붕으로 올라간 그들의 발길은 평안한 발길일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적들의 침공으로 인하여 기쁨과 연락의 소리가 전쟁을 피해 도망하는 아우성으로, 적들이 약탈하는 소리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 (5) 세상에서 즐기는 쾌락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 가서는 그 쾌락 때문에 비참한 결과를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4. **㉠** 예루살렘은 어떤 성읍이었는가? (2절)

- ㉠** (1) 예루살렘은 화려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었다.
- (2) 이것은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거하였기에 매우 혼잡하고 시끄러운 곳이었다는 의미와 함께 그 성이 교만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23:12; 시 94:3; 렘 50:11; 51:39).
- (3)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만해지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참조, 시 119:21; 잠 6:16, 17; 약 4:6).

5. **㉠ 예루살렘 거민들이 죽은 것은 무슨 이유인가? (2, 3절)**

- ㉠** (1) 그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나가 죽은 것도 아니며 활을 버리고 도망하다가 사로잡히게 되었다.
- (2) 즉 그들은 전쟁에서 영예롭게 전사할 기회조차 없었다. 그들은 도망하다가 체포되어 오히려 포로가 되고 말았다.
- (3) 이 귀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이다. 이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가 죽고 약 100년이 지난 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침공을 피하여 도망하였으나 곧 체포되어 두 눈을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므로(참조, 왕하 25:1-7; 렘 39:4-7) 성취되었다.
- (4) 처음에는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연회를 베풀고 즐겼으나 이제 가장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경외심이 부족하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過信)한 결과였다(참조, 잠 16:18; 약 4:6).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의 상태로 인하여 자만에 빠지는 일이 없이 조금 더 긴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유지할 수 있는 굳센 마음이 필요하다.

6. **㉠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로 인하여 이사야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는가? (4절)**

- ㉠** (1) 그는 예루살렘의 일로 인하여 슬퍼 통곡하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위로를 거부했다.
- (2) 이사야의 이런 태도는 가장 큰 슬픔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자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는데 그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심령에 깨달음을 주고자 의도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참조, 시 69:9) 이렇게 울 수 있었다.
- (3) 즉 이런 행위를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로 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참조, 59:1, 2; 민 16:12-35).
- (4) 그러나 이사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백성들의 마음은 좀처럼 회개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지자는 슬퍼하면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참조, 렘 4:31; 9:1; 미 1:8).
- (5)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호소하시며(참조, 요 17장; 롬 8:34; 요일 2:1) 또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둔한 인간은 그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만에 빠져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7. **㉠ 이상의 골짜기, 즉 예루살렘에 이른 혼란은 어떠하며 그 혼란은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 (5절)**

- ㉠** (1) 그 혼란과 공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으로 그때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며 산골짜기마다 죽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들이 메아리치게 된다.
- (2) 이사야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장본인이심을 선언하면서 대적들이 유다를 침공하며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에 대해 놀라지 말라고 한다(2:12-17).
- (3) 이때에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기초를 파헤쳐 그 벽을 무너뜨리고 함성을 지르며 침공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대적자들을 위해 도망하면서 부르짖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된다는 것이다(참조, 10:6; 18:2; 미 7:4).
- (4) 이런 결과는 이미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할 때 암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20:2)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고통인 것이다.
- (5) 이 예언에 대하여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취하는데 하나는 B. C. 710년에 있을 산헤립의 침공으로,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포위와 그 함락(B. C. 586)으로 각각 해석한다.
- (6)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들이 심각한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다.

(7)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경고를 주시면서 경건한 신앙 생활을 요구하시는데 (딤후 6:11; 딤후 2:12) 이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이 당했던 심각한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조, 롬 1:18; 유 1:7).

8. **㉠** 예루살렘은 어떻게 포위되었는가? (6, 7절)

- ㉠** (1) 예루살렘은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둘러싸였는데 엘람 사람은 전통(箭筒)을 쏘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으며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들어내었다.
- (2) 그리고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므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 (3) 본절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앗수르의 군대에 관하여 두 나라를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엘람이고 또 하나는 기르 (Kir)이다.
- (4) 엘람은 수시아나의 썸족으로 자그로스 (Zagros) 산맥과 앗수르 동부 평원의 산맥 사이 협곡에 거주하였고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살륙을 당하였다 (참조, 렘 49:35; 겔 32:24).
- (5) 그리고 기르는 시루스 (Cyrus) 강 유역에 거하는 자들인데 앗수르 지경 안에 살았다 (왕하 16:9; 암 1:5).
- (6) 한편 포위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골짜기’는 동쪽의 기드론 계곡, 서쪽의 기혼 계곡이며, 남서쪽으로는 베레렘으로 통하는 길로 뻗친 르바임 계곡을 말한다 (17:5).

9. **㉡** 예루살렘의 방어벽이 무너지는 때 유다 백성은 무엇을 했는가? (8, 9절)

- ㉠** (1) 그때에야 비로소 유다 백성은 무기고에서 무기를 꺼내어 왔고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고 또 아래 못(池)의 물도 모았다.
- (2) 본절에서 ‘수플 곳간’은 레바논의 수플 고간(庫間)으로 부르는 솔로몬 궁전의 일부분이며 (왕상 7:2-5) 이곳은 무기고로 사용되었다 (39:2; 왕상 10:17; 14:27; 느 3:19).
- (3) 다윗 성은 예루살렘 중에 안쪽을 더욱 튼튼히 요새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그 성읍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한편 아래 못은 시온의 서쪽에 있었는데 이는 산헤립의 공격이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물의 공급을 위해 수로로 만든 것이었다 (대하 32:2-5).
- (5) 그러나 여기서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 적군들에게 물을 공급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 (6) 이것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흔적을 보여 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하여 해결해 나가는 점이다.

10. **㉢** 예루살렘 안의 다윗 성은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9절)

- ㉠** (1) 다윗 성은 예루살렘의 가장 오래된 지역이며 또한 동남 지역으로 원래의 시온 산에 있었다.
- (2) 그리고 이 성은 동쪽의 기드론 시내와 서쪽의 두로베온 계곡에 있는 급한 경사 능선의 약 400m를 차지하면서 북쪽으로 힌눔 골짜기까지 닿아 있다.
- (3) 이 성은 B. C. 1003년에 다윗이 여부스족에게서 빼앗아 (삼하 5:7) 자기 이름을 붙이고 정착하여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았다 (삼하 5:9).
- (4) 이곳에는 장지(葬地)도 있어 다윗 (왕상 2:10), 솔로몬 (왕상 11:44)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이곳에 묻혔고 (대하 12:16; 16:14; 21:1, 20; 24:25; 27:9) 제사장 여호야다와 같은 귀인도 이곳에 묻혔다 (대하 24:15, 16).
- (5) 한편 히스기야는 B. C. 701년 앗수르의 침공이 있기 전에 다윗 성을 중수하고 (대하 32:

5) 기혼 샘에서 물을 뽑아 내어 굴을 통해 성의 서쪽으로 끌어들임으로써(대하 32:30) 실로암 못과 성벽의 남쪽 끝에 있는 왕의 동산을 연결시켰다(9-11절; 느3:15).

(6) 그러나 이 성은 B. 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파괴되었고 그 후 B. C. 444년에 느헤미야에 의하여 재건되었는데 그때는 다윗 성의 능선 부분의 성벽만 재건하였다(느3:15;12:37). 그런데 A. D. 70년에 이르러 본래의 다윗 성은 초토화되고 말았다.

11. **㉠ 예루살렘 거민들이 물을 모은 아래 못이란 무엇인가? (9절)**

- ㉠** (1) 이 못은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산헤립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성 안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로(水路)를 만들었던 것으로 이것은 저수지의 역할을 하였다.
- (2) 다메섹 문 근처에는 또 다른 못인 윗못(7:3)이 있는데 이곳은 냇가에서 흐르는 물로 언제나 넘쳐 흘렀다(대하 32:4).
- (3) 그런데 히스기야는 앗수르의 공격이 예상되는 북쪽 성벽의 곁에 위치한 시냇물을 차단하였다.
- (4) 한편 윗못을 넘치게 하는 물은 두로베온(Tyropeon) 골짜기에 흐르게 하고 기드론에 모여 옴펠(Ophel)의 남동쪽에 이르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냇물을 앗수르 군사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 위를 덮어서 은폐시켰다.
- (5) 그리고 성 안에 지하 수로를 파서 두로베온의 움푹한 곳을 따라 성 안의 연못에 이르게 하였다(대하 32:30). 따라서 성 안의 거민들은 이 물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11절).
- (6) 또한 더 나아가 성 안의 연못에서 다시 수로를 만들어 성전 지역 아래로 동정녀 못에 이르게 하고 다시 수로를 파서 실로암 못으로 물을 끌어들었다.

12. **㉠ 앗수르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뒤에 유다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10절)**

- ㉠** (1) 그들은 예루살렘의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였다.
- (2) 이것은 예루살렘 성벽 사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방어할 준비가 안 된 집이나 건물이 없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 (3) 일반적으로 개인의 집은 성벽 위에 지어지기도 하였다(참조, 수2:15). 그래서 전쟁시에는 그 집들을 헐어 적들을 물리치는 방어 기지로 삼는 한편 성 안에 거하는 자들이 적군과 내통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책으로 삼았다(참조, 수2:18, 21).
- (4) 그러나 이런 일들은 평화시에 매우 소홀히 여겨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도 앗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일을 하게 되었다.
- (5)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갑작스런 재난이 닥칠 때가 있는데 매일매일 철저한 신앙의 준비를 하고 있지만 한다면 갑자기 밀려오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들을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참조, 롬13:11-14; 엡6:11, 13-18; 살전5:1-8).

13. **㉠ 유다 백성이 물을 관리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였는가? (11절)**

- ㉠** (1) 그들은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다.
- (2) 여기서 '두 성벽 사이'란 시온의 북쪽 성벽과 아크라 주위의 북동쪽에 있는 성벽 사이를 말한다.
- (3) 이 저수지에 대한 설명은 **㉠** 11을 참조하라.

14. **㉠ 앗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안전해지도록 여러 가지 작업을 했던 유다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인가? (11절)**

- ㉠** (1) 유다 백성은 오래 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경외하지 않았다.
- (2) 본질은 유다 백성에 대한 이사야의 신랄한 책망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도움에 최대의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다.
- (3) 유다 백성은 다가오는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묘책을 세웠으나 이미 때가 늦

있다. 인간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저지할 수 없다.

- (4) 예루살렘 거민들의 어리석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는데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우리가 실제적으로 징계를 받을 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 (5)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시 110:3) 또한 죽음에서 살려 주신다(엡 2:1).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전념하면(잠 18:10) 그분은 우리를 통하여 세상 끝까지 당신의 일을 진행시키신다(벧 1:6).

15. **㉠**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통곡하고 애호(哀呼)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굶은 베를 띠라고 명령하셨다.
- (2) 이 귀절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도록 명령하신 말씀이다.
- (3)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로 감싸주시기 위해 초청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교훈과 징계를 모두 멸시하고 말았다(참조, 행 26:14; 롬 1:21-23, 28).
- (4) 여기서 ‘머리털을 뜯으며 굶은 베를 띠라’는 말은 회개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다. 머리털을 뜯는 것은(15:2; 암 8:10; 미 1:16)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제사장에게만 완전히 금지되었고(레 21:5), 머리를 완전히 밀고 수염과 눈썹을 깎는 것은 유다 백성에게도 완전히 금지되었다(레 19:27; 신 14:2).
- (5)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미워하고 과거의 잘못된 생활에 대한 혐오감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찢는 철저한 회개를 할 때(을 2:13) 비로소 사회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

16. **㉠**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유다 백성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13절)

- ㉠** (1) 회개하라는 명령을 듣고도 유다 백성은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하면서 소와 양을 잡고 포도주를 마셨다.
- (2) 사람들이 후회하는 일에 있어서 첫번째 상태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하여 생기는 고통의 감정이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자포 자기(自暴自棄) 상태에서 죄에 대한 무감각과 생명의 위협에 대한 두려움에서 현세적 쾌락, 정욕에 빠지고 말았다.
- (3) 이런 상황은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의 시대를 기억나게 한다(참조, 마 24:38, 39; 눅 17:27, 28).
- (4) 이런 상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나타난다. 또한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하지 못할 때 현실에서 만족을 얻고 현실에서만 쾌락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참조, 고전 15:32).
- (5)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미래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며 또한 내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어리석게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시 32:5; 잠 28:13; 요일 1:9).

17. **㉠** 유다 백성의 불신앙적 태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4절)

- ㉠** (1) 유다의 불신앙적 태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죽기까지 속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셨다.
- (2)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경우는 당신의 공의나 자비에 의해서(6:7) 또는 양

자(兩者)의 결합에 의해서(27:9)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이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였고 더 나아가 대적하는 태도를 가졌다.
- (4)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분을 속이는 행위이며 그 행위는 또한 그분을 인격해 해드리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며(롬 2:5) 사유하심의 소망을 잃게 된다.

18. **㉠**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누구에게 파송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국고말고 궁을 차지한 션나에게 보내셨다.
- (2) 션나는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자 궁(宮)을 관리한 집사이다(왕하 18:18, 26, 37; 19:2).
- (3) 그는 친 애굽파의 두령으로 있으면서 유다가 앗수르를 대항하기 위해 애굽에 원조를 구하는 정책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 (4) 그는 지나치게 허세를 부렸기에 관직에서 쫓겨 나게 되었는데 이방인이면서 유다의 귀족들처럼 자신의 묘실을 파 두었다(16절).
- (5) 그래서 직위를 엘리아킴에게 넘겨 주게 될 것과 추방당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되었다(17-21절).
- (6) 한편 션나가 맡은 직책인 '국고말은 일'은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가장 높은 직위였으며(왕상 4:6; 18:3) 특히 중대한 국가의 공직에 주어진 이름으로 궁내 대신격이다. 이 직책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지위가 높았기에(36:3; 37:2) 어떤 경우에는 왕위 계승자에게도 이 명칭이 붙여졌다(대하 26:21).
- (7) 션나는 이런 직책을 가졌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죽음의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자기 안전과 방탕과 타락에 빠지도록 방치하는 죄를 범하였다.
- (8) 사실 백성의 지도자는 자신의 안일과 명예를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백성의 안녕과 진정한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만 한다.

19. **㉠**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션나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션나는 예루살렘과 아무 연관도 없는 이방인인데 자기의 높은 직위를 이용하여 저명한 유대인들이나 파는 바위 무덤을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기 때문이다.
- (2) 션나는 자신이 그 무덤에 묻히지도 못할 것인데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치부(致富)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 묘실을 팠다.
- (3) 이스라엘에 있어서 바위 무덤은 바위를 파서 그 속에 묘실을 만든 것인데 감람산의 서쪽 비탈진 곳, 예루살렘의 동편에서 실제로 발견되었고 서쪽에 있는 바위 벽에서도 발견되었다.
- (4) 그런데 본절에서 션나가 자신의 무덤을 '높은 곳'에 팠다는 것은 대하 32:33에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이라고 한 것과 상통한다.
- (5) 즉 이것은 션나가 자신을 위대한 자라고 생각하여 유다의 열왕들이 묻힌 장소에 함께 묻히기를 원했다는 의미인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불쾌하셨던 것이다.

20. **㉠** 이처럼 무례하고 교만한 션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17-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션나를 공처럼 말아 써서 광막한 지경에 던지실 것인데 그곳에서 그가 죽고 그가 타던 영광의 수레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관직에서 쫓아내어 직위를 낮추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션나는 본래 타국인이었는데 유다에서 높은 직위에 오르고 영광을 얻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타국으로 추방시켜 그 무덤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셨다.
- (3) 여기서 션나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로 표현한 의미는 그가 여호와의 지성

소로 간주될 수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또 그 지위에 올려 준 히스기야에게 누를 끼쳤다는 말이다.

- (4) 결과적으로 그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는데 이는 국가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남용하여 자신을 위해 백성을 수탈하고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엡 6:9).

21. **㉠** 하나님께서는 썩나 대신 누구를 세우셨는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아김을 썩나 대신 세워 주셨다.  
 (2) 엘리아김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인데 그의 부친 힐기야는 궁내 대신이었다(36:3, 22; 왕하 18:18, 26, 37).  
 (3) 그는 B. C. 701년에 앗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협상자로 선택되었다. 그는 앗수르 사람이 유다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게 협상을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왕하 18:26-35).

22. **㉠** 하나님께서는 엘리아김에게 어떤 권한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썩나가 입던 옷을 엘리아김에게 입히고 썩나의 띠를 그에게 띠우고 썩나가 가졌던 모든 권한을 엘리아김에게 맡겨 그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로 삼으시겠다고 하셨다.  
 (2) 옷과 띠는 관직을 나타내는데 특히 띠는 왕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읍은 하나님께서 열왕들로부터 그 왕권을 박탈하실 때, 맨 것을 푸신다고 말하였다(참조, 욥 12:18).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썩나의 띠를 풀어 엘리아김에게 주시고 그를 새로운 지위에 올려 주셨는데 이는 그를 아비멜렉과 같은(참조, 창20:2, 8) 조국의 아버지, 즉 민족의 보호자로 삼으신 것이다.  
 (4)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람을 등용하고 해임시키는 일이 왕의 마음에 있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이다(잠 21:1).  
 (5) 따라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참조, 벰전 2:13).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권력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대로, 공의대로 통치하느냐에 달려 있다(참조, 잠 8:15).

23. **㉠** 하나님께서 엘리아김에게 주신 권한과 메시아의 역할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의 열쇠를 엘리아김의 어깨에 두실 것이다. 따라서 그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2) 한 가정의 통솔권자는 열쇠를 가진 자이다. 왜냐하면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만이 마음대로 집을 출입, 통제할 수 있고 집 안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그래서 예수께서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로 묘사되었다(계 3:7).  
 (4) 여기서 '다윗 집' 은 왕실을 의미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가 영원하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7:13; 시 132:11, 12).  
 (5) 그러므로 엘리아김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죽어가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참조, 요 14:6).

24. **㉠** 하나님께서 엘리아김에게 주신 권한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힐같이 그를 견고케 하셨다.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안정과 권세를 주시며 또한 그런 자들에게는 보좌가 하나님의 공의로 굳게 선다는 의미이다(참조, 잠 16:12; 25:5; 29:14).  
 (3) 그러나 오늘날 통치자들은 그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실수이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을 기억하고 공의와 진실로써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

25. **㉠** 엘리아김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시므로 그와 그의 집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23, 2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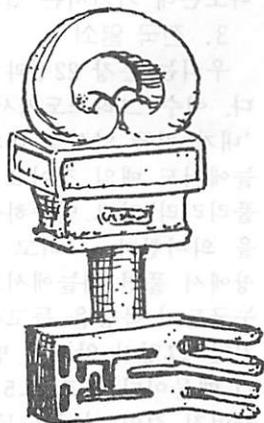
- ㉠** (1) 엘리아김은 그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가문의 영광이 그에게 달려 있게 되므로 그 후손과 족속 되는 각 사람들이 그에게 매달리게 될 것이다.  
 (2) 이는 엘리아김이 지위를 얻으므로 힐기아의 가문은 모두 그로 인하여 번영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삼상 2:8; 렘 14:21; 17:12).  
 (3) 결국 엘리아김 혼자서 가족과 친척들의 짐을 모두 떠맡게 된 것인데 그로 인하여 그들에게 크고 작은 벼슬을 주게 되었다.  
 (4) 결국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다.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면 그 가족도 영광을 얻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가족들도 구원의 복음을 접하게 된다(참조, 행 16:31).

26. **㉠** 엘리아김이 온 가문의 영광을 잃어지므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가? (25절)

- ㉠** (1) 엘리아김의 영광의 못에 많은 가문의 사람들이 걸리므로 그 못이 삭아 부러지게 되는데 그때 그 못에 걸린 물건이 떨어져 파쇄(破碎)되는 결과가 오게 되었다.  
 (2) 이것은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시므로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깨어질 것을 상징한다(참조, 고후 5:19; 엡 2:16; 골 2:14; 뱀전 2:24; 요일 2:2).  
 (3) 첫번째 아담의 범죄(뱀나)가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듯이 두번째 아담의 희생(엘리아김)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새 생명을 허락하였다(참조, 롬 5:17-19).  
 (4)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예표된 엘리아김이 온 가족들을 위한 영광의 기초가 된 것을 보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들이므로(계 3:20)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삶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본장의 요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22절).



## 연구자료

### 열쇠(key)의 상징적 의미

#### 1. 영계(靈界)와 관련된 열쇠

고대인들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영계에는 문이 있으며 그 문의 열쇠를 신(神)들과 천사 그리고 귀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바벨론인들은 천상(天上)의 열쇠를 가진 존재로 샴마스(Shamash)를 믿었으며, 그리스인들은 디케(Dike), 로마인들은 야누스(Janus)를 믿었다. 그리고 하계(下界)의 열쇠를 가진 존재로서 바벨론의 네두(Nedu), 그리스의 플루토(Pluto) 등이 있다고 믿었다. 이와 유사한 사상은 유대인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는 바 랍비 아키바(Aqiba)는 천사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지옥에 있는 4만 개의 문의 열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 또한 히브리어로 기록된 위경(僞經)인 '에녹서'에서는 죽은 의인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제 7층 하늘 궁의 열쇠를 가진 자로서 '아나 피엘 야웨' (Anapiel Yahweh)라는 존재가 소개되어 있기도 하다.

#### 2. 구약에서의 열쇠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아킴(Eliakim)의 어깨 위에 '다윗 집의 열쇠'를 둘 것인즉 그가 열면 달을 자가 없겠고 달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귀절이 나온다(22절).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열쇠를 어깨에 걸고 다니는 습속(習俗)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최고의 권위를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엘리아킴이 '다윗 집', 즉 '왕실'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부여받았음을 의미하며 '그가 열면 달을 자가 없고 달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그의 권위가 절대적임을 의미한다. 한편 구약 성경에는 열쇠에 대한 언급이 본장외에 사3:25에서 단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는 실제적인 열쇠를 가리키고 있을 뿐이다.

#### 3. 천국 열쇠

우리는 본장 22절과 비슷한 귀절을 마16:19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후 그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의 '천국 열쇠'는 말씀 선포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권한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정도로 절대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서 그 말을 믿으면 그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지만 그렇지 않고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永罰)만이 약속되기 때문이다(참조, 요5:24). 그런데 이러한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니(참조, 마18:18) 오늘날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답후 4:2).

## 제 23 장 두로에 관하여 예언하다

단락구분 1-7 두로의 멸망을 예언하다 / 8-12 두로가 교만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 13-14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이 사용되었다 / 15-18 70년 만에 두로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1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미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2 바다에 왕래하는 시몬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이 잠잠하라

3 시흙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할 큰 물로 수운하여 들었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던다

4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6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 갈지어다 해변 거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7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회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다던 성이나

8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뇨

9 만군의 여호와와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0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11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리시니 그 견고한 성을 훼파하게 하시고

12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돈아 네게 다시는 회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13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앗수르 사람이 들짐승의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며 그들이 땅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케 하였느니라

14 다시스의 선척들이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15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칠십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칠십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라

16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 하셨느니라

17 칠십년이 필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리니 그가 다시 취리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18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음 자로,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 1. ㉠ 본장의 예언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의미를 밝히라.

- ㉠ (1) 본장에서는 베니게 지역에 위치한 두로의 멸망과 회복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일에 대한 기록이 서술되어 있다.
- (2) 두로는 상업적인 면에서 사단적인 조직의 허영과 자만을 상징한다 (참조, 젤 28:12-15).
- (3) 이곳은 모든 정복자들이 탐내는 베니게 해안의 풍부한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 두로는 눈부신 듯한 찬란함, 자만, 자부심 그리고 세속적인 지혜가 있었는데 그 뒤에는 사단의 영향력이 있었다.
- (4) 이 지역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 도시를 12년 동안 포위했었으나 정복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 (5) 그렇지만 이사야는 이 도시의 멸망을 예언하였는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대한 교만 때문

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그 도시는 다시 번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 왕국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6) 결국 이 도시는 B. C. 332년 알렉산더에 의해 정복되고 멸망당하였다(참조, 속 9:2-4).

2. **㉠**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두로는 어떤 도시인가? (1절)

- ㉠** (1) 두로는 팔레스틴 해변 북쪽의 베니게 지방 최남단에 위치한 고대 항해와 상업의 요충지였다.
- (2) 이곳의 위치는 시돈 남쪽 약 40km 지점이며 레바논과 이스라엘과의 국경에서 약 24km 북쪽에 있다. 두로에서 19.2km 남쪽엔 바다쪽으로 산등성이가 튀어나와 갑(岬)을 이루고 있기에 자연적인 방벽이 되어 있다.
- (3) 이사야는 두로를 '시돈의 딸' (12절) 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볼때 두로는 시돈의 식민지였던 것 같다.
- (4)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두로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아셀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견고한 성읍이었으며(수 19:29) 지중해의 동해안에 있는 해양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겔 27:1-36)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많은 재료와 기술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다(삼하 5:11; 왕상 5:1-10).
- (5) 그러나 두로는 징계와 멸망에 관하여 많은 예언을 받았다(참조, 겔 26:1-18; 욥 3:4-6; 암 1:9).
- (6)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는 이곳에 들러 가나안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 주셨고(마 15:21-28; 막 7:24)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수를 따랐다(막 3:8; 눅 16:7).
- (7) 또한 예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고을을 책망하실 때 이 두로와 비교하여 언급하셨다(마 11:21, 22; 눅 10:13, 14).
- (8) 사도 바울은 두로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전도하던 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떠나지 말 것을 권하였으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행 21:2-7).

3. **㉠** 다시스의 선척(船隻)들에게 슬피 부르짖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그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 (2) 이 말씀은 두로가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사야가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표현하였다.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이 흔히 사용하였다(렘 4:8; 25:34; 겔 21:12; 30:2; 욥 1:5, 11, 13; 습 1:11; 속 11:2).
- (3) 배타는 선원들은 오랫동안 항해를 하므로 자기 집안에 대해 소문만 듣게 될 뿐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갈 기대에 차서 즐거워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소문대로 집과 항구가 다 황무해져 실망과 좌절에 빠져 버렸다.

4. **㉠** 두로가 황폐해졌다는 소문이 어디에서부터 전파되었는가?

- ㉠** (1) 그 소문은 깃딤 땅에서부터 전파되었다.
- (2) 깃딤은 구브로 섬을 가리키는데 지중해의 동북부에 있는 섬이다. 크기는 동서로 176km, 남북으로 48 - 80km인데 특히 동북쪽으로 불과 9km의 폭에 64km나 되는 갑(岬)이 돌출해 있고 면적은 9.175km<sup>2</sup> 이다.
- (3) 한편 발람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깃딤은 앗수르와 에벨을 괴롭힌다고 하였는데(민 24:24) 그들이 바사 왕 고레스의 바벨론 원정 때 도움을 주고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 (4) 그러나 본질에서 깃딤을 언급한 것은 넓은 의미에서 지중해에 있는 섬들과 해상 무역을 하는 모든 나라를 의미한다(창 10:4; 렘 2:10; 겔 27:6; 단 11:30).
- (5) 여기서 '전파되었다' 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니글라>는 깃딤 땅에서 받은 소식이 확실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5.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해변 거민들에게 잠잠할 것을 명하였다.
- (2) ‘해변 거민’은 두로를 가리키는 것이 확실한데 시돈을 함께 언급한 이유는 두 도시의 거리가 지척에 있었고 시돈으로 인하여 두로가 크게 번성했기 때문이다 (겔 27:8).
- (3) 그러나 그런 번성은 잠깐 뿐, 그들에게 심각한 재난이 임하게 될 것이므로 과거의 화려했던 것을 내세워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만을 자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게 하시므로 두로를 잠잠하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행하신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시 119:21; 약 4:6) 겸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신께서 친히 높여 주시며 (약 4:10) 언제나 함께 하시므로 많은 자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신다 (57:15; 왕상 3:11-14; 잠 3:34; 약 4:6).

6. **㉠** 두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한 도시였는가? (3절)

- ㉠** (1) 두로는 시흙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운(輸運)하여 들이는 열국의 시장 역할을 한 도시였다.
- (2) 시흙은 ‘어둡다’, ‘탁하다’라는 뜻으로 나일 강을 가리키는 고유 명사이다 (수 13:3; 대하 13:5; 렘 2:18). 그래서 나일 강 주변은 대단히 비옥하므로 곡창을 형성했고 베니게 해변에는 이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다.
- (3) 그런 연유로 두로는 그곳에서 곡식이나 다른 무역품을 구매하고 교역하므로 큰 이득을 얻었다.
- (4) 한편 ‘큰 물’이란 지중해를 가리키는데 (참조, 시 107:23; 겔 27:26) 애굽의 선박들이 수출하려는 식량을 나일 강 입구에 정박한 베니게 상선에 옮겨 실으면 그들은 지중해를 통하여 각국과 무역하였던 것이다.
- (5) 이런 관계에서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였고 매우 부유한 도시였으므로 열국의 시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

7. **㉠** 시돈으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시돈에 대하여 바다가 말하기를 ‘나는 구로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남자들을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고 하였다.
- (2) 이 귀절은 고색 창연(古色創然)하던 베니게의 도시 시돈(창 10:15; 수 11:8; 19:28; 사 18:7)이 두로의 영향으로 크게 발달했으나 그들에게 영향을 끼친 두로가 몰락하므로 시돈도 역시 함께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도 형벌을 내리실 때 형벌 대상의 자손들이 죽게 되거나 한 종족 전체를 멸절시키는데 이는 그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여인들에게 큰 수치였다 (4:1; 창 30:23; 눅 1:25).
- (4) 그러므로 두로가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였다는 것은 두로가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였으나 이제는 그것을 모두 탈취당하여 무자(無子)한 여인과 같아졌다는 상태의 설명이다.
- (5) 본절에서 이사야는 두로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그 도시를 의인화하여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보여 주고 이것을 통하여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선언하고 있다.

8. **㉠** 두로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 애굽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5절)

- ㉠** (1)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애굽은 충격을 받고 매우 슬퍼할 것이다.
- (2) 두로의 멸망이 애굽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그들의 무역 거래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애굽의 곡식은 두로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거래되었고 그 결과 자신들도 번

영할 수 있었다. 그런데 두로가 망했다면 그 영향이 즉시 애굽에까지 미칠 것이고 두로와 같은 운명이 애굽에도 곧 닥칠 것임을 알았다.

- (3)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일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그 세상이 두로와 같이 망하게 되면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게 된다는 교훈을 가르쳐 준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한번 베푸신 사랑은 버리지 않고, 영원한 보호자요 동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할 것이다(시 18:1, 2).

9. **㉠** 두로 거민은 어디로 옮겨지게 되는가? (6절)

- ㉠** (1) 그들은 슬퍼하면서 다시스로 건너가게 되었다.
- (2) 두로는 더 이상 이익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두로 사람들과 ‘해변 거민’, 즉 두로와 교역하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다시스로 가야만 했다.
- (3) 이 사실을 통하여 세상의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산이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는 영원히 의지할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중대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참조, 약 4:14; 뱀후 2:17).

10. **㉠** 두로는 과거에 어떤 도시였다고 자랑하였는가? (7절)

- ㉠** (1) 두로는 고대에 건설된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라고 자랑하였다.
- (2)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한때 교만하여 자기 자랑을 하던 성읍 두로를 조롱하고 비웃는 말로 그들의 교만을 책망하고 있다.
- (3) 따라서 그들의 교만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유리(流離)하고 방황하게 만들 것이며 그 교만으로 인하여 그들의 부요함은 박탈당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추방당하여 모든 것이 꺾절하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적 부를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부는 영원히 지속되지 못하며(잠 27:24) 그것은 교만의 원인이 되고(겔 28:5) 또한 시험과 음무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답전 6:9).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평과 정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과 그분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만을 자랑해야 한다(시 18:1-3; 렘 9:23, 24).

11. **㉠** 두로에 대하여 사람들이 놀라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8절)

- ㉠** (1) 사람들은 두로가 면류관을 쓴 왕과 같았고 상고들은 방백과 같았으며 무역하던 자들에게는 두로가 매우 존귀한 자와 같이 여겨졌었는데 멸망하게 된 사실로 인하여 대단히 놀라게 되었다.
- (2) 즉 사람들은 두로는 애굽과 시돈 그리고 다른 정복지를 부유하게 했던 도시였는데 어떻게 갑자기 멸망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누구의 힘에 의하여 그렇게 되었는가하고 의아하게 생각한 것이었다.
- (3)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이처럼 사람들에게 놀랍고 신기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다(신 4:34; 7:19; 히 2:4).
- (4) 따라서 우리는 천기(天氣)의 움직임과 자연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단순히 우연이라고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참조, 대상 16:9, 12, 13; 욥 37:14; 시 71:17; 136:4; 145:5).

12. **㉠** 그러나 두로가 멸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9절)

- ㉠** (1) 그 원인은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시기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셨기 때문이다.
- (2) 하나님의 행동은 절대로 무계획적이거나 감정에 이끌려 나타나지 않는다. 두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역시 그들 안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두로라고 하는 도시는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정치적 지위가 상승되므로 거만하고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다(겔 28:5; 약 5:5).
- (4)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명약 관화(明若觀火) 한데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치시기 위함이다(참조, 시 19:1; 고전 10:31; 계 4:11).

13. ㉠ 두로가 멸망되었기 때문에 다시스는 어떻게 되는가? (10절)

- ㉠ (1) 두로의 멸망은 다시스에 대한 속박 능력을 상실하게 하였으므로 다시스는 나일 강이 범람할처럼 자유로울 것이다.
- (2) 두로의 번영은 주변 도시 국가들을 정치적, 경제적 노예로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므로 세력을 잃게 되고 주변 국가들은 자유로운 상태로 바뀌게 된다.
- (3)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이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갈망하는 것에 비례하여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지식이 너무 없다.
- (4)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필요 조건을 주셨는데 그것은 진리를 알라는 것이다(요 8:32).
- (5)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그 진리가 지시하는 길을 향해 나아가려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참조, 약 2:17, 26).

14. ㉠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혼드시며 가나안의 견고한 성을 철폐하도록 명령하셨다.
- (2) 이 귀절은 두로를 중심한 베니게 지방에 대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진행 방법에 대한 기록이다.
- (3) 즉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실 때 홍해와 요단 강을 가르셨던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다(참조, 출 14:21, 22; 수 6:8, 10).
- (4) 이런 사건들을 통해 볼 때 우리는 교만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인간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욕 1:4).
- (5) 따라서 하나님의 이런 징계로부터 면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교만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것뿐이다(참조, 6:1-8; 57:15; 눅 15:17-21; 18:13, 14; 약 4:10).

15. ㉠ 하나님께서 베니게 지역을 철폐하신 결과 그 성읍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절)

- ㉠ (1) 두로와 함께 번영하던 시돈에 이제 더 이상 기쁨이 없을 것이며 그들이 깃딤으로 건너 갈지라도 그곳에서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 (2)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포함된 두로, 시돈 등 베니게 지역에 이전과 같은 경제적 부와 정치적 안정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죄의 결과로 피할 수 없는 진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다(참조, 48:22; 57:20; 신 28:67; 빌 4:6; 뱀전 5:7).
- (3)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 받는 자들은 세상 어디를 가든지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릴 수 없다(참조, 창 4:11-14; 시 139:7-12; 암 5:19, 20).
- (4)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다(참조, 롬 5:6, 8, 10; 골 1:21).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참조, 롬 5:1; 엡 2:13, 16) 그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후 5:18-21; 요일 2:2).

16. ㉠ 갈대아 사람들의 땅은 누구에 의하여 정복되었는가? (13절)

- ㉠ (1) 갈대아 사람의 땅은 앗수르 사람들에게 정복되었는데 그들은 그 땅을 들짐승들이 거하는 황무지로 만들었고 또한 그곳에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버렸다.

- (2) 앓수르의 사르곤(Sargon)은 B. C. 710년에 바벨론을 점령하여 B. C. 705년까지 통치하였으나 그 다음 해에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을 얻었다.
- (3) 그러자 산헤립은 B. C. 704년에 바벨론을 재정복하고 그의 장자를 그곳 통치자로 세웠다. 따라서 후기에 바벨론이 독립을 쟁취하였으나(B. C. 620-610) 이사야가 활동하던 B. C. 710년경에 그가 ‘백성이 없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다.
- (4) 그러므로 두로는 자기들보다 더 강대한 바벨론이 앓수르에 의하여 점령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7. **㉠** 두로가 파괴되고 난 후 얼마 만에 회복될 것인가? (15절)

- ㉠** (1) 두로가 파괴된 후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을 잊어버림이 되었다가 70년이 필한 후에 두로는 기생 노래의 뜻같이 될 것이다.
- (2) 이것은 두로가 점령된 후 그 재앙이 지속될 것과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에 관하여 선포하는 말씀이다.
- (3) 여기서 ‘왕의 연한’이란 고정되었고 변경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것이 한 사람, 왕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말한 의미는 바벨론이 70년 후에 망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내용과 동일하다(대하 36:21; 렘 25:11; 29:10). 이 기간 동안 두로는 휴식 상태를 맞게 되었다.

18. **㉠**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두로에게 어떤 명칭을 사용하셨는가? (15, 16절)

- ㉠** (1)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두로에게 ‘잊어버린 바 되었던 기생 너’라고 부르시면서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행하며...너를 다시 기억케 하라’고 명령하셨다.
- (2) 이것은 두로의 상업성(商業性)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표현인데 그들의 상거래 자체를 정죄(定罪)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상술,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
- (3) 기생들의 마음에는 탐심뿐이므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단장하고(겔 23:40) 아름다운 노래로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잠 2:16; 9:14-17; 나 3:4) 두로의 상술이 이처럼 결단 화려하고 속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다.
- (4) 따라서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 오늘날 사업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 정직해야 한다(참조, 레 19:35, 36; 신 25:15; 잠 11:1). 또한 당연히 피고용자에게 주어야 할 노동의 대가를 착취하지 말고(창 21:25; 26:20; 레 19:13; 겔 22:12; 암 5:11)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한다(레 19:36; 잠 11:1; 겔 45:10; 미 6:11).

19. **㉠** 하나님께서 두로를 권고(眷顧)하시므로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 ㉠** (1) 70년이 지난 후 여호와께서 두로를 권고하시므로 그들은 다시 취리(取利)하여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두로에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참조, 렘 27:22; 29:10). 처음에는 비록 두로가 멸망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영향을 미쳐 다시 회복될 것임을 보여 준다.
- (3) 만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않으신다면 하는 일마다 허사요(말 1:4) 괴로움뿐이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유를 얻을 것이고 비천한 가운데서 높아지며 패망의 자리에서 회복될 것이다(참조, 삼상 2:7; 눅 1:52).

20. **㉠**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키시지만 그들의 태도는 여전히 어떠한 것인가? (17절)

- ㉠** (1) 그들은 다시 지면의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다.
- (2) 두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과거의 불행에서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가지고 있던 나쁜 점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나쁜 행실대로 살아가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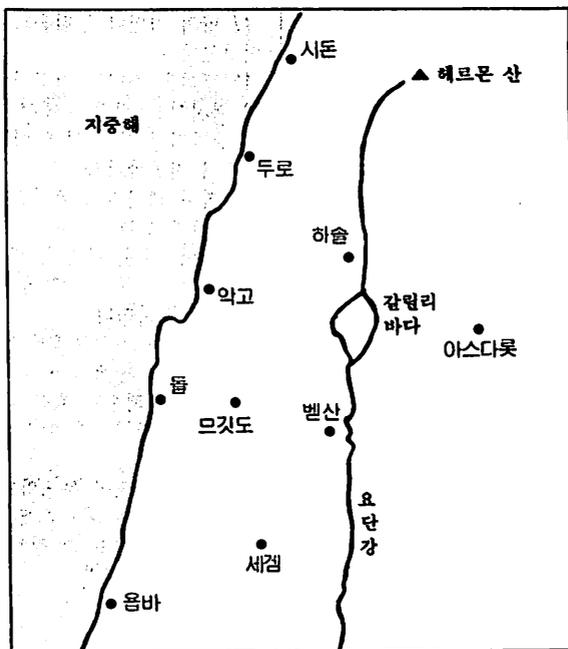
- (3)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점들이다. 즉 자신들의 상태가 조금만 호전되어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착각하는 따위이다 (신 6:10-12; 8:11; 사 8:34).
- (4) 이와 같이 자신의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음부로 들어가게 될 뿐이다(17:10; 시 9:17; 50:22; 78:11; 렘 3:21).

21. **㉠** 이처럼 음란하던 두로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18절)

- ㉠** (1) 두로는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를 위하여 간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들이 배불리 먹고 입을 자료(資料)가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이 비록 타락하여 죄 속에서 썩그는 창기와 같은 두로라고 할 지라도 그들에게 미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뜻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의인들보다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눅 15:1-10) 회개하는 자를 사랑으로 용납하신다(66:2; 시 34:18; 51:17; 욥 2:13; 고후 7:10).
- (4) 따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다시는 죄를 반복하지 않고 그 죄에서 돌이켜 의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참조, 잠 21:26; 엡 4:28).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자들의 진정한 모습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다.

**지도자료**

두로의 위치. 두로는 무역과 해운업이 매우 번창했던 도시이다.



두로는 원래 육지와 약 550m 정도 떨어진 면적 58ha의 작은 섬이었으나 B.C. 333년 알렉산더 대왕이 이 곳을 포위하여 약 800m의 제방을 쌓아 결국 육지와 연결되었다.

# 제 24 장 세상에 대한 심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2** 하나님의 심판 대상 / **3-5** 심판하시는 이유 / **6-13** 심판으로 인하여 세상이 황폐해지다 / **14-16** 세상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다 / **17-20** 계속되는 하나님의 심판 / **21-22** 사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 **23** 여호와께서 시온의 왕으로 등극(登極)하시다

1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흠으시리니  
 2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가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3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여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7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8 소고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9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폐파되고 집마다 닫혀 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1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여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12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13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14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들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케홀자가 케홀을 행하도다 케홀자가 심히 케홀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17 땅의 거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음모가 네게 임하였나니  
 18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음모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인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23 그 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 1. ㉠ 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 (1) 앞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된 반면 본장에서는 어느 특정 국가가 아닌 보편적 세계 전체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고 있다.

(2) 이 예언은 범위가 광대하지만 예언의 중심 내용은 그래도 영적인 지도적 위치에 있는

국가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다 (24:23;25:6-8;26:1-4;27:6, 9, 13).

- (3)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계획하신 세계는 황폐해지고 기쁨이 사라지지만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는 영적인 희망을 주시므로 그들이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 남아 찬양을 돌리게 하신다.
- (4) 본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반면 그 가운데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당신의 사랑으로 심판을 면하고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참조, 요 10:28, 29)으로 인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 2. ㉠ 본서에서 본장의 위치는 어떠한가?

- ㉠ (1) 본서 중에서 특히 본장부터 27장까지를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온 인류와 우주 그 자체에 대한 최종적 심판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이 부분은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의 궁극적 운명(13-23장)에 관해 이사야가 예언한 모든 내용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적 예언이다.
- (3) 그러므로 이 예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선별(選別)하기 위한 심판에 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3. ㉠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흠으실 것이다.
- (2) 이 예언은 13장 이후에 서술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모압, 앗수르, 애굽과 그밖에 모든 민족들의 멸망에 관한 결론을 기록한 것이다.
- (3) 따라서 본장의 예언은 미래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단정할 수밖에 없다. 그 증거로는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할 때마다 이사야가 사용한 말(히, 히네)을 보아 알 수 있다(참조, 3:1;17:1;19:1;30:27 등).
- (4) 여기서 히브리어 <히네>는 ‘보라’라고 하는 명령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이 말이 생략되었다.

## 4. ㉠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신 일은 어떤 자들에게 임하는가? (2절)

- ㉠ (1) 하나님의 일(1절)은 빈부 귀천(貧富貴賤)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한다.
- (2) 그러므로 백성과 제사장이, 종과 상전이, 비자(婢子)와 가모(家母)가,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채급(債給)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이자를 받는 자와 내는 자가 동일할 것이다.
- (3)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극한 황폐를 초래하는데 이 심판은 지위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포함한 전세계에 임하는 것이다.
-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할 수 있다. 즉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한 은총을 베푸시지만(참조, 마 5:45) 반면에 당신께서 세우신 법과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롬 2:2) 어느 누구도 그분의 공의로운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

## 5. ㉠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 ㉠ (1) 그분의 행하신 일로 인하여 땅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서 땅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으로 제한될 수 없다. 이 대상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주변 나라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으로 인해 온 땅은 처음의 혼돈 상태 곧 혼돈과 공허로 되돌아 가게 된다(창 1:2).
- (4)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 여유나 인정(人情)을 두시는 것이 아니고 가장 확실하고 정확하게 행하시는데 그때는 어느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행위 결과에

따라 심판하신다.

6. **㉠** 땅이 공허하고 황무하게 되므로 모든 세계가 쇠약해졌는데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4, 5절)

- ㉠** (1) 그 이유는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破)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율법’은 히브리 원문에 <토라>의 복수형인 <토로트>가 쓰였는데 이것은 율법 가운데 포함된 모든 교훈을 의미하고 계명과 약속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 (3) ‘율례’는 히브리어 <호크>인데 이는 ‘계명’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은 의식(儀式)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활 규율에 속하는 모든 것도 포함한다.
- (4) 또한 ‘언약’은 <베리트>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계약’에 한정된다(참조, 출 19:6; 26:45; 레 26:12).
- (5)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율례를 범하였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중적 율법 아래 놓여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6) 그 첫째는 그 마음에 새긴 율법, 즉 양심을 통하여(롬 2:15) 부정할 수 없는 의무감을 갖게 하고, 둘째는 적극적 명령의 율법으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하여 전인류에게 주어진 것을 말한다.
- (7) 그런데 이런 율례와 언약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깨뜨리므로 인하여 그들이 속한 땅에 저주를 불러들여 황폐하게 하였다(참조, 창 3:18; 6:5-13; 19:24, 25).

7. **㉠**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하고 율례를 범하므로 땅과 거민은 어떻게 되었는가? (6절)

- ㉠** (1) 저주는 땅을 삼켰고 그중에 거하는 자들은 정죄함을 당하였고 그 땅의 거민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되었다.
- (2) 이것은 모세가 사악한 자들과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위협하는 그 저주(참조, 레 26:16; 신 28:15)를 시사함이 분명하다.
- (3) 인류의 첫번째 조상인 아담의 범치는 땅에 저주를 내리게 하여 열매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하였으나(참조, 창 3:17, 18)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그 저주를 완화시켜 인간들에게 식물을 허락해 주셨다.
- (4) 그러나 인간들이 범죄를 그치지 않고 자신들의 죄를 더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명백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정죄하시고(참조, 시 5:10; 34:21; 숙 11:5) 진노의 불과 소멸하시는 불(30:27; 히 10:27)로 심판하신다.
- (5)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하면 어떤 자든지 용서받지 못하며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과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참조, 딤후 4:8; 6:11; 딤후 2:12).

8. **㉠** 하나님의 심판은 농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7절)

- ㉠** (1) 농토의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을 하게 되었다.
- (2) 즉 토지가 황폐해지므로 포도 수확의 계절이 돌아와도 거두어 들일 포도가 없어 즐거워할 수 없게 되었다.
- (3) 그러므로 이제는 수확할 포도가 없어 포도주를 만들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쾌락에 빠져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와 같이 육적인 부요함 뿐 아니라 영적인 부요함도 얻을 수 없게 된다.

9. **㉠** 악기를 연주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8절)

- ㉠** (1) 그들에게 소고(小鼓) 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타는 기쁨이 그쳐질 것이다.

- (2) 이것은 포도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담그는 때에 잔치를 벌이고 악기를 연주하며 흥겹게 놀던 모든 행사가 중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 (3) 모든 분위기는 우울하고 음침한데 이런 분위기는 현재 뿐 아니라 장래에도 계속될 것이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유혹을 벗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참조, 렘7:34; 호2:11).

10. **㉠ 포도주를 마시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 (1) 그들은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고 그것을 마시는 자에게는 포도주가 독주 같이 쓰게 될 것이다.
- (2)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그것을 마시고 취하므로 방종과 무례함과 타락한 향연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궁핍하게 하실 것이다(참조, 암6:5, 6).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과 사물을 선용하는 지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참조, 롬8:28).

11. **㉠ 하나님께서 세상에 행하신 일로 인하여 성읍과 모든 거리는 어떻게 변화였는가? (10-12절)**

- ㉠** (1) 성읍은 약탈당하여 헐파되었고 집마다 닫혀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거리는 포도주가 없으므로 모든 즐거움이 사라져 기쁨이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은 파괴되었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성읍의 비참한 결과를 확실히 보게 된다. 사람들이 아무리 성읍 높이 쌓고 강한 문을 만들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버리시면 무력하게 될 뿐이다(시127:1).
- (3) 더우기 참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다(신7:7; 삼상12:22; 잠8:30; 요15:11).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향락에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규례와 언약을 굳게 의지하므로 우리가 소 유해야 할 참된 기쁨과 안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이처럼 황폐해지는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이런 일이 있음에도 세계 민족 중에 감람나무를 흔들고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열매를 주유평과 같이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 (2) 앞에서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언급했는데(17:5, 6) 여기서는 세계 전체에서 구원받을 자, 즉 이방인 중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 (3) 이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이방 민족들이 그 대가로 멸망이란 형벌을 받지만 그 가운데 약간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에까지도 적용된다(참조, 미7:1).
- (4) 이렇게 해서 남은 자들은 모두 영적 이스라엘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참조, 요1:12; 롬2:29; 갈3:25).

13. **㉠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것인가? (14, 15절)**

- ㉠** (1) 그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를 크게 내며 사방에서 여호와와 위엄을 선포하고 또한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 (2) 이런 기쁨의 근거와 주제는 '여호와와 위엄'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자비로써

그 위엄을 친히 보여 주셨기 때문이다(12:5, 6).

- (3)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사랑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참조, 골 3:12).

14. **㉠ 노래하는 자들의 찬양 내용은 무엇인가? (16절)**

**㉠** (1) 노래하는 자들은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라는 내용의 찬양을 하였다.

(2) 이 찬양의 대상은 당연히 여호와를 가리킨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고 환난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영화와 영광을 보장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다.

(3) 이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인데 그 의는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것이다(참조, 신 32:4; 시 7:9; 11:7).

(4) 하나님께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므로 그분께서 의롭다고 인정한 자들은 누구의 고소와 참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당신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된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찬양을 들릴 수 있는 것이다.

15. **㉠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지자는 무엇을 피로워하는가? (16절)**

**㉠** (1) 이사야는 '나는 쇠잔하였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궤휼자가 궤휼을 행하도다. 궤휼자가 심히 궤휼을 행하도다' 라고 하면서 피로워하였다.

(2)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백성이 비참하고 침울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안타까와한다.

(3) 즐거운 찬양을 하던 자들에게도 슬픔과 고통의 때가 이르게 되는데 의로운 자들은 이때를 견디어야 한다. 이때의 지배자는 궤휼자, 불경건한 자로서 그들은 성도들을 잔인하게 다루며 천 년 동안 꺾박할 것이다.

(4)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무장을 하도록 깨닫게 해 준다. 왜냐하면 아직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이므로 성도들에게 무수한 시련이 있기 때문이다(삼상 10:19; 살전 3:4; 벧전 1:5-8; 계 2:10, 22).

(5) 따라서 이런 시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시 31:7; 50:15; 91:15) 오래 참으며 기쁨으로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욥 5:17-22; 욥 5:3, 8).

16. **㉠ 땅의 거민들에게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17절)**

**㉠** (1) 그들에게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기다리고 있다.

(2) 이 귀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어둠을 가든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준다(참조, 렘 48:43, 44; 암 5:19).

(3)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게 벌하시는 그분의 공의와 또한 그 방법의 다양성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계획에 포함된 자들은 그들이 어떤 죄를 내고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징계를 피할 수 없다.

17. **㉠ 땅의 거민들에게 재회하신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그들은 두려운 소리를 듣고 도망하다가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릴 것이다.

(2) 그런데 이들이 듣는 두려운 소리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기 때문이다.

(3) 이 흔들림은 일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땅의 흔들림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장시키셔서 사람들에게 보수(報讐)하시는 행위를 설명한다.

(4) 그래서 그들은 찢어지고 성한 데가 없이 깨어질 것이며(40:20; 41:7; 54:10)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된다(6:4; 14:1; 29:9; 37:22).

- (5) 이와 같은 심판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창7:11-22) 임하게 될 것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끝을 살아가면서 이런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순종하면서 방주를 준비하고(창6:14-22) 지혜로운 5명의 처녀와 같이 믿음의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마25:1-13).
- (7)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는 주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들림 받을 수 있다(참조, 마24:40, 41).

18. **㉠**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진행될 때 땅의 상태는 어떠한 것인가? (19, 20절)

- ㉠** (1) 땅은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며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비틀하고 침망(寢網)같이 흔들리고 그 땅 위의 죄악이 너무 중하므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2) 땅 위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악은 전인류와 자연에 엄청난 재난을 초래하였다. 그러므로 이런 재난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임을 알 수 있다(시 11:6; 학2:6; 뱀후3:10).
- (3) 이런 관제로 본질의 교훈은 악한 자들에게 국한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
- (4)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의 거처가 이 땅이므로 악한 자들로 인한 고난을 함께 받는다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도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 부동한 신앙 태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행 14:22; 롬 8:35-37; 약 5:11).

19. **㉠**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깨뜨리시는 날에 어떤 자들을 벌하실 것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 (2) 본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궁극적이며 영원한 당신의 나라의 설립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 (3) 이 부분에서는 세상의 종말을 초래했던 죄를 범한 자들에게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높은 데에 있는 자들과 둘째는 땅 위에 있는 왕들에게 임한다.
- (4) 여기서 '높은 군대'란 영적 존재들에 관한 언급으로 그들은 권세와 정사를 잡은 자이며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이며 또한 악한 영들을 가리킨다(엡 6:12). 이런 자들은 일반 범인(凡人) 같이 죽을 것이다(시 82:6-8).
- (5) 또한 '땅의 왕들'은 높은 군대의 사주를 받아 악을 행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들은 땅 위에서 부패와 죄악을 조장하는 역할을 한다.
- (6) 그러므로 이들이 받는 형벌은 반기독교적인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받아야 할 심판이기도 하다.
- (7) 결국 세상의 마지막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사 무저갱에 넣으시고 유향불의 심판을 행하신다(계 19:20; 20:3, 10).

20. **㉠** 하나님께서 '높은 군대'와 '땅의 왕들'을 벌하시므로 어떤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가? (22절)

- ㉠** (1) 그들은 죄수가 깊은 감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힌 여러 날이 지나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 (2) 본절의 전반부는 악한 영들과 땅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비적인 선언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무저갱(히, 스울; 헬, 하데스) 속에서 대심판 날까지 흑암 가운데 묶여 지내게 된다(29:6; 절 38:8, 9; 계 20:3).
- (3)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때까지 참고 견디면서 신앙적 훈련을 쌓아야 한다.
- (4)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며 우리를 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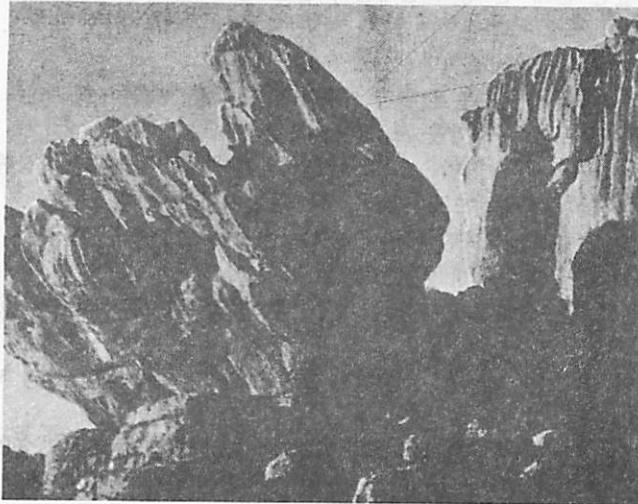
우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겸손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다.

21. **Q** 심판이 행하여진 결과 해와 달이 부끄러워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A** (1) 그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설립하시므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하실 때 그 영광의 광채가 빛나서 일월 성신(日月星辰)이 무색하게 된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새 예루살렘이 형성되는데(계 21:2, 3) 그곳은 주님이 바로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다(계 21:23; 22:5).
- (4) 이곳에서 구속함을 받은 의의 백성들(13절)은 영원한 안식과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어전 회의(御前會議)를 구성하는 영적 존재인 24장로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게 된다(계 4:4, 10; 5:8, 9).
- (5) 이 말씀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즉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 회복을 말하며 변함없는 공의의 통치자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천년 왕국의 영원성을 가르쳐 준다.
- (6)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은 불완전한 현재에 살면서 미래의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게 된다.

화보자료

지각 운동 때문에 특이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바위. 레바논의 마제라트 부근에 있는 이상한 모양의 바위는 '땅의 흔들림', 즉 지각 운동의 산물이다.



'땅이 깨어지고 갈라지고 흔들리는' (19절)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지진을 통하여 그 무서움과 강함을 익히 짐작하게 된다(참조, 시 18:4).

# 제 25 장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이스라엘이 찬양하다

**단락구분 1-3**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을 찬양하다 / **4-5**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 **6-8** 하나님께서 만민을 축복하시다 / **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상이시다 / **10-1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시다

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2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4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 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5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원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쁨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꿀수가 가득한 기쁨진 것

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8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9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10 여호와와 그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암이 거름물 속의 초개의 밭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11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펼갈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활을 누르실 것이라

12 너의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로 인하여 설립된 천년 왕국을 보고 기쁨에 넘쳐 찬양 돌리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2)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는 은혜를 찬양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적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것이다.  
 (3) 따라서 전장(前章)에서 세워진 메시아 왕국으로 인해 (24:23) 풍성한 축제가 약속되었고 이곳에서 영적 우매함이 없어지게 된다(호 13:14; 고전 15:54; 계 20:14; 21:4).  
 (4)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구원과 기쁨이 약속되었으므로 어떤 환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 2. ㉡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분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기사(奇事)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기 때문이다.  
 (2) 이 부분은 하나의 시(詩)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1-5절) 마치 시편의 시귀를 연상하게 한다(참조, 시 31:15; 40:6; 86:12; 118:28; 143:10; 145:1).  
 (3) 그리고 본절은 모세의 노래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참조, 출 15:2) 여러 곳을 비교해 볼

때 이사야가 모세의 시귀를 인용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모세의 노래	이사야의 인용
출 15:2 여호와와 나의 구원이시로다	12:2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25:1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출 15:6 부수시나이다	13:16 메어침을 입겠고 노략을 당하겠고 욕을 당하리라
출 15:7 초개같이 사르니이다	47:14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출 15:11 누구이니까	46:5 누구와 비교하여
출 15:16 놀람과 두려움이	8:13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출 15:18 여호와와 다스리심이	24:23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4) 인생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로 인한 경이로움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당신께서 오래 전부터 정하신 뜻을(왕하 19:25; 행 15: 18) 성실하고 진실하게 행하시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무거운 형벌이 있으므로 공포를 자아내게 하지만 택함 받은 우리들은 반대로 위로와 소망이 되는 특성들이다.

3. **㉠ 계획하신 뜻을 성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각 성읍들을 어떻게 하셨는가? (2절)**

**㉠** (1) 하나님께서는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게 하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고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다.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를 패망케 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 그런데 이 대상은 바벨론을 가리키며 나아가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가리킨다(렘 51:37).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반그리스도적인 세력들에 대하여 단호한 처벌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시는데 그 힘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잠 16:1).

(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자랑하던 자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내 당신의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인내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황폐하게 하신 결과 하나님께 대한 열국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였는가? (3절)**

**㉠** (1) 강한 힘을 자랑하는 민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포학한 나라의 성읍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2) 이 귀절의 의미는 말세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나타낸다(2:2; 11:10; 19:18; 23:15; 24:13).

(3)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먼저 그들을 징계하사 그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과 포학한 성질들을 다 꺾으신 후 그 계획을 실천하신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들을 내세워 자랑하거나 신앙 연륜을 앞세워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는 구원 계획을 망치게 하는 언행을 삼가해야 한다.

5. **㉠ 포학한 자의 침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의 보호자가 되셨는가? (4절)**

**㉠** (1)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暴陽)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2) 약한 자들을 향해 밀려오는 포학자의 기세는 ‘폭풍’으로 비유되었는데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루아흐>이다.

- (3) 이 말은 '바람이 일어남'이라는 뜻으로서(창8:1;출15:10;왕상19:11) 악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여 황급히 나가는 무시무시한 살기를 의미한다(행9:1).
- (4) 그런데 이런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전한 보장(保障)이 되시고 시원한 그늘이 되신다(참조, 시18:1, 2;72:12-14;121:5, 6).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 중에서도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준비하시는데(고전10:13) 그 길이 하나님 자신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6. **㉠ 안전한 피난처와 시원한 그늘이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악한 자들과 포악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5절)**

- ㉠** (1) 그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과 같이 외인의 환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실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위한 보호자로 나타나실 때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셨는데 보장(힘, 시27:1;28:8;31:2;46:1), 피난처(신32:10;삼하22:3;시9:9;57:1;59:16), 그늘(4:6;16:3), 구름(출13:21;고전10:1) 등으로 나타나셨다.
- (3) 이런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59:1)과 아직도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한 자기 분석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원인을 발견하고 제거하여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한다.

7. **㉠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무엇을 베푸신다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하셨다.
- (2) 그런데 그 연회의 재료는 골수(骨髓)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였다.
- (3) 본절에서 연회를 베푸는 시온은 '산'으로 묘사되었는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당신께 예배할 전이 있는 장소이다(2:2, 3;11:9;24:23).
- (4) 또한 그 연회에 베풀어진 기름진 것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로 하나님의 온전한 왕국에서의 복되고 충만한 기쁨을 나타낸다(시63:5).
- (5) 따라서 차별하지 않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단7:14;마8:11;골3:11;계5:9;7:9) 이방 민족들도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풍성한 생명의 물을 마시는 영적 축복에 참여하게 된다(시36:9;렘2:13;요4:10, 14).
-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연회에 초청한 자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사망의 고통도 없고 슬픔의 눈물도 흘리지 않도록 영원히 씻어 주실 것이다(마22:2, 3).

8. **㉠ 하나님께서는 연회를 베푸신 시온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7, 8절)**

- ㉠** (1)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의 그 가리어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면박'은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롬3:23) 영적 소경의 상태로 전락한 것을 말한다(고후3:15). 이 면박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게 된 최악의 상태를 나타낸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때는 모든 민족들 중에서 택한 자들을 불러모은 때이므로 거울로 보듯이 희미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다(고전13:12).
- (4)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는 죽음의 세력조차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며 오직 영원한 기쁨과 찬양만이 이어질 것이다.

9. **㉠**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

- ㉠** (1)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사람들은 자신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슬픔을 느끼게 된다(시 78:40; 137:1-4; 엡 4:30, 31). 그 이유는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고통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롬 6:23; 약 1:15).
- (3) 그러나 이런 고통과 슬픔을 그때에는 제거해 주시므로 성도들이 불신자들에게 당하던 모든 수치는 없어지며 성도들은 온전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눅 21:28; 행 3:21; 롬 8:23; 엡 4:30) 이 모습은 처음 창조때 가졌던 본래의 형상이다.
- (4)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바벨론에서의 해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더 확대 해석하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포함한다.
- (5)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소망을 이에 집중시키면 그때 가서는 기쁨으로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참조, 시 126:5).

10. **㉠** 하나님께서 연회를 베푸시는 날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 (9절)

- ㉠** (1) 그때에 사람들은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며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고 말할 것이다.
- (2) 이것은 고통과 핍박 가운데서도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망(待望)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이는 곧 성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26:8; 창 49:18; 시 27:14).
- (3)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확고 부동하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시 9:14).
- (4)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므로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소망을 품고 그분을 기다리라는 교훈(26:3)을 준다.

11. **㉠**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10절)

- ㉠** (1) 여호와와의 손이 이 산, 즉 시온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은 거름물 속의 초개(草芥)의 밭힘 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이다.
- (2) 여기서 모압은 성도들을 대적하는 불신자,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데 이는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가장 극악한 원수기간이었기 때문이다(왕하 24:2; 겔 25:8-11).
- (3)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대한 원수의 전형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인들의 세력 가운데 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세력을 깨뜨리고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만이 성도를 보호하시 영원 무궁토록 지켜 주실 수 있다.
- (4) 그리하여 마침내 불신앙적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파괴되고(왕하 9:37; 시 83:10; 렘 8:2; 9:22; 25:33) 성도들은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된다.

12. **㉠** 모압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가? (11절)

- ㉠** (1) 모압이 헤엄치듯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그 손의 교활(狡猾)을 누르실 것이다.
- (2) 불신자들(모압)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보잘것없는 능력과 잔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하지만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16:12, 14).
- (3)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이나마 더 연장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두 가지 이유, 즉 교만과 교활함(16:6; 렘 48:29) 때문에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앙적인 모압과 같이 교만하거나 인간적 잔 피를 의지하여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려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모압이 당했던 동일한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참조, 왕하 5:20-27; 행 5:11).

13. **㉠** 모압의 교만을 누르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압 성벽의 높은 보장(保障)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실 것이다.
- (2) 모압에는 높은 망대와 든든한 방어 요새가 있어서 난공 불락(難攻不落)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헐어 흔적도 없게 하실 것이다.
- (3) 이 말씀에서 '보장'은 불신자들이 품고 있는 지고(至高)의 교만을 나타내는데 이 말씀의 상황으로 보면 그런 자들은 완전히 패망할 것을 가리킨다.
- (4) 여기서 모압의 패망은 신약 시대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여 주는 모형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정세와 권세자들을 제하시고(골 2:15) 사단의 견고한 요새를 파하신 것을(고후 10:4) 의미한다.
- (5) 이 사실은 공중 권세잡은 자들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불굴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훌륭한 기초가 된다.

## 연구자료

영적 사망에 대하여. 본장에 언급된 '사망을 영원히 폐하실 것이라'는 표현은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적 사망이 없으리라는 뜻이다. 영적 사망은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참조, 59:2) 이러한 개념은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창 2:17)고 말씀하셨는데 실로 그 나무의 과실은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숨은지라'는 기록대로(창 3:8) 하나님을 기피했던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분리는 죄가 그 원인이었으며 이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난 '죽음'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기피하며 계속 어두움에 거하게 되었으며(요 3:19)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롬 8:6)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므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고(엡 2:16; 골 1:20) 인간들은 '생명'을 얻었다(롬 8:11; 엡 2:1; 골 3:1). 한편 심판 날에는 사망이 불못에 던지운다고 기록되었는데(계 20:14) 이는 하늘나라에서 다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분리가 있을 수 없음을 명시(明示)한 것이다.

## 제 26 장 구원받은 유다가 찬양하다

단락구분 1-7 하나님의 성실함과 자비를 찬양하다 / 8-10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다 / 11-15 유다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이름을 부르다 / 16-19 하나님께서 무능력한 유다를 구원하시다 / 20-21 분노의 날에 남은 자를 숨기시는 하나님

1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락을 삼으시리로다

2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5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8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0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와 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1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나이다라는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을 사르리이다

12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

하여 이루심이니이다

13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14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시라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15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시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16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17 여호와여 임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리하니이다

18 우리가 임태하고 고통하였을지라도 남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배짖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나이다

19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20 내 백성이 갈지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간 숨을지이다

21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앉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 1. ㉠ 본장은 어떤 내용의 찬송인가?

- ㉠ (1) 본장은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부르는 거룩한 기쁨과 찬미의 노래이다.
- (2)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성실과 자비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므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들을 숨기신다는 내용이다.
- (3) 결국 이 찬송은 인간들의 무력함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호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연약한 인간들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

실을 노래한 것이다.

- (4)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무능력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참된 보호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보호하심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2. **㉠ 유다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송하였는가? (1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성곽이시며 견고한 성읍과 같은 분으로 노래하였다.
- (2)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르는 때는 '세상을 회복하실 때' (행 3:21), '하나님의 날' (벧후 3:12) 이다.
- (3) 이사가가 이 노래를 부르던 때는 재앙이 닥쳐오기 직전이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런 노래를 부른 이유는 포로가 된 유다가 비록 죽은 자같이 될지라도 (겔 37:1) 언젠가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붙여넣어 주기 위함이었다.
- (4) 여기서 유다 백성이 희망을 갖는 근거는 다름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그 하나님은 곧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로서 공격과 방어에 유리한 강한 성읍으로 비유되고 있다. 그런데 이 성곽은 '새 예루살렘' (계 21:12) 으로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다.

3. **㉠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곽은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가? (2절)**

- ㉠** (1) 그곳은 신(信), 즉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들만 들어갈 수 있다.
- (2) 흔들리지 않는 성곽의 문을 여는 자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다 (참조, 시 24:7-10). 그런데 이들은 그 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진리를 지키는 자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열어 준다.
- (3) 이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한 자들이다 (딤후 3:5). 그러므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계 21:27; 22:14, 15).
- (4)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세우신 진리의 언약들을 충실히 감당하고 지켜나갈 때 영원히 안전한 장소, 당신의 성곽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4.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지키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심지(心志)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 (2) 사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가진 자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신다 (요 14:27; 갈 5:22; 빌 4:7).
- (3)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원(深遠)하고 끊임없는 평온과 안정이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경건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인 평안을 유지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30:15; 호 14:3) 그분의 교훈에 착념해야 한다 (렘 31:21; 딤후 4:13; 6:3).

5. **㉠ 유다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반석이 되셔서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을 격퇴시키는 분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모세도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노래하였다 (신 32:4).
- (3) 여기서 이 귀절의 의도는 우리의 신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분뿐이며 그분의 능력이 영원히 불변하듯 우리의 신앙 또한 불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 (4)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 주면서 동시에 당신의 불변한 진리와 공의를 전적으로 의뢰하라는 교훈이다.

6. **㉠** 반석이 되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5, 6절)

- ㉠** (1) 하나님께서는 높은 데 거하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앉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다.
- (2) 그렇기 때문에 빈궁한 자와 곤핍한 자가 무너진 교만한 자들을 밟고 다니게 된다.
- (3)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즉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들이 압제하던 교만한 자들과 대항하여 이기게 될 것을 보여 준다.
- (4)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드시는 것이다 (욥40:12-14; 시147:6; 말4:3; 롬16:20).
- (5)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토록 여호와의를 의뢰하고 그분만 기대하라고 격려한다.

7. **㉠** 의인의 길은 어떠하다고 하였는가? (7절)

- ㉠** (1) 그의 길은 정직하여 평탄한데 이는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기 때문이다.
- (2)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대전제는 하나님 한분만 정직하시고 모든 정직은 하나님으로부터 연유한다는 것이다 (신32:4; 시25:8; 111:8; 119:137).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보살피실 것이며 당신께서 친히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시5:8; 27:11; 143:8).
- (4) 비록 의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득세하지 못하고 악인들이 더 잘된다고 할지라도 의인들에게 약속하신 것 (시37:5; 뱀전5:7)은 불변하고 그 뿐 아니라 당신께서 택하신 의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실 것이다 (시91:12).
- (5) 이제 이런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살지 못하도록 많은 함정을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42:22; 딤후2:26; 계2:14).
- (6) 그런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 자만하여 우리의 힘으로 헤쳐 나가려고 하지 말고 (약4:15, 16)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렘10:23). 그러면 까마귀나 참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참조, 147:9; 마10:29).

8. **㉠** 선지자가 간절하게 사모한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그는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주를 기다렸고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영혼 깊숙이 사모하였다.
- (2)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심판장으로 나타나실 것을 기대하는데 (40:14; 잠7:8; 17:23) 그 공의의 실현은 의인들보다 하나님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소망하였다.
- (3) 또한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그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져기를 소원하였다 (출3:15; 시135:13).
- (4)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어떤 역경,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공의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다. 율과 다윗도 죽음의 심각한 어려움에 빠졌지만 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 (욥13:15; 시23:4).

9. **㉠** 어느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義)를 배우게 되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義)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이다.
- (2) 본절에서 선지자는 밤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였는데 ‘밤’은 고통과 역경을 의미한다 (21:11).

- (3) 이처럼 고통스런 때에 이사가야 목상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의 권위 아래 복종하도록 징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였다 (26:16; 대하33:12)
- (4) 결국 하나님은 이 같은 심판을 통해 우리의 전인격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이다 (신6:5; 마12:37).

10. **㉠**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지만 악인은 은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10절)

- ㉠** (1) 악인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 (2) 이런 이유로 선지자는 악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의 심판을 바라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였고 더우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땅에서 불경하게 악을 자행하였다.
- (3)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면 그들은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그 대신 당신의 자비하심은 멸시를 당하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참조, 시73:3-11).
- (4) 이와 같은 이사가 선지자의 태도를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들의 악을 과감하게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참조, 마3:7; 눅3:7).
- (5) 따라서 행악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그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교훈과 모순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참조, 고전16:22; 살후1:6,10; 계6:10; 15:4; 19:1,2).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하며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투쟁 의식이 있어야 한다.

11. **㉠**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악인의 태도와 그것에 대한 이사의 요청은 무엇인가? (11절)

- ㉠** (1) 악인들은 여호와의 은총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주시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것인데 이사는 그때 그 악인들을 불사르소서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였다.
- (2)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밝히 보여 주시고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 (3) 그렇지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린 가인이나 에서처럼 (창4:13,14; 27:38; 히12:17)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반역적인 행동을 나타내므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 (4) 이처럼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응 행위는 '불'이다. 그 불은 단순한 번개불이 아니며 그분의 엄중한 보복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신32:22; 욥20:26; 22:20; 습1:18).
- (5) 이것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이다 (참조, 창19:24).

12. **㉠** 여호와께서 어떻게 평안을 주시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평강을 베푸신다.
- (2) 우리의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우리가 취하는 선한 행동은 성령으로 말미암는다.
- (3) 따라서 이사는 본절에서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당신의 선한 뜻

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참조, 창32:10,12; 시138:8; 빌1:6).

13. **㉠**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택함을 받은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지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管轄) 하였사오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라고 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외치는 신앙 고백으로 오직 그들의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라는 중요한 사실(시74:12)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
- (3) 비록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모두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니다. 한때 그들은 우상 숭배자가 되기도 하였고(2:8; 왕하16:3,4; 고전12:2; 살전1:9) 이방 열국의 통치를 받아 다른 왕들을 섬기기도 하였다.
- (4)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들의 참된 통치자가<sup>㉠</sup>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데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2:20; 왕하18:4-6; 시20:7).
- (5)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가 비교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통치하는 경건한 왕들과 힘으로 다스리는 폭군의 비교이다.
- (6) 궁극적으로 폭군의 힘은 영원하지 못하고 반드시 패망하고 만다. 그러나 경건하게 말씀대로 통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을 누리게 되는데(참조, 켈20:11,23-25) 이런 사실을 통하여 특히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14. **㉠**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배하던 이방 열국의 통치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여 멸하시므로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더 이상 기억하는 자들도 없을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압제하던 박해자들이 겪어야 할 불행한 최후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 결국 그들은 다시 그들이 누리던 위치로 오르지 못하고 깊은 음부(히, 쉼)에 떨어져(시49:15)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 (3)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악자들의 번영을 보고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운다(시37:1; 73:3,17). 왜냐하면 그들이 득세하였을 때는 잠시 세상 모든 것을 죄우할 것처럼 보이나 그들의 최후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시37:2).
- (4)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여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서(롬13:1) 반드시 그들이 행하는 불의를 심판하시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

15.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유다)를 더 크게 하셔서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시므로 영광을 얻으셨다.
- (2) 여기서 '이 나라'는 일차적으로 유다를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즉 영적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계7:9).
- (3) 그러므로 이 말씀을 사실적인 면에서 보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해방될 것을 가리키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므로 많은 백성이 모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계21:1).
- (4)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럴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참조, 고전10:3).

16. **㉠**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바라게 되었는가? (17절)

- ㉠** (1) 그들은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하나님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이것은 구속받은 자들이 현재 누리는 해방의 축복은 그들이 지난 날의 고통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인내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유익이 되기도 하고 신약적인 면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롬5:3,4).
- (4)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역경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37:1-4; 호5:15).

17. **㉠ 고통 중에 있을 때 유다 백성의 상태는 무엇과 같았는가? (17절)**

- ㉠** (1) 그들은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劬勞)하며 부르짖음같이 고통 중에 있었다.
- (2) 여인들이 당하는 해산의 고통은 대단한 것인데(참조, 13:8; 창3:16; 35:16-19; 시48:6) 이런 고통은 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으로 비유되었다.
- (3)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 (4)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하여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하며(시38:18)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인임을 인정하므로(시32:5; 51:3,4)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43:25; 대하30:18-20; 렘31:34).
- (5) 그렇게 될 때 자기 백성을 위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다(53:5,6; 마1:21; 히1:3; 2:17; 요일1:7,9; 계1:5).

18. **㉠ 유대 백성이 구로하듯 당한 고통의 결과는 어떠한가? (18절)**

- ㉠** (1) 그들은 잉태하여 고통 당하듯이 괴로웠으나 낳은 것은 바람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생산치 못하였다.
- (2) 유다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실천하신 사역이기 때문에(24:16-20) 유대 백성에게는 쓸모가 없고 무익한 것이었다.
- (3) 그러므로 그 고통을 벗어나려는 노력은 허사일 뿐이다. 즉 자신의 죄를 겸손히 인정하는 태도가 가장 현명하다는 말이다(시32:5).
- (4)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이 부딪히는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하나님의 징계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범죄한 자들을 향해 끊임없이 징계하시기 때문이다(렘14:10).
- (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대적자들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뿐이다(시127:1,2).

19. **㉠ 해산하는 여인같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19절)**

- ㉠** (1)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죽었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땅 속에 누워 있던 자들도 깨어나 기뻐 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침의 빛난 이슬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다.
- (2)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70년 동안은 마치 죽은 것 같았으나(렘25:12; 29:10) 거기서 해방될 때 죽은 생명이 소생하는 것과 같다.
- (3) 이 말씀은 의로운 자의 부활,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부활을 가리킨다. 이들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까지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롬19:26; 단12:2).
- (4)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한다면(골3:3) 마지막 부활 때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행3:21). 이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마22:32).
- (5)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부활 신앙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신앙이 없다면 그들의 믿음도 헛것이다.
- (6) 성도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고(시116:10; 고후4:13) 그들의 속사람도 새로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후4:16).
- (7) 그런데 성도들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키는 요소는 영롱한 '이슬'인데 이것은 그리스도

를 통한 생명의 원천을 가리킨다(요 1:4; 8:12). 바로 이것을 통하여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빌 3:21).

20.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당신의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환난이 닥쳐오는 때에 숨어서 인내하고 절제하도록 가르치며 어떤 환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결코 요동치 말 것을 가르친다.
- (3) '밀실'은 마음의 평온이나 침착을 뜻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마음을 격려하고 강건케 하며 여호와의를 바라게 한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도 유다 백성들이 당할 재앙을 예언한 뒤 '파수하는 곳', '안전한 곳에 올라가 침착하고 조용하게 결과를 기다리라' (합 2:1) 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피하여 밀실에 숨어 있는 동안 은밀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 (5) 그 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산하는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시 90:4; 벧후 3:8). 그래서 바울은 이 땅의 환난은 앞으로 우리가 취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롬 8:18; 고후 4:17).

21.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밀실에 숨기신 후에 어떤 일을 시행하시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 당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땅은 그 위에 뿌려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숨기지 아니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신다'는 표현은 예언서에 자주 나타나는데(참조, 미 1:3; 합 3:13; 숙 14:3) 시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도읍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 (3)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셔서 심판을 행하실 때 사악한 자들, 특히 피흘리기를 즐겨한 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시 11:16; 57:6).
- (4)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무고히 흘린 피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피의 호소를 들으시기 때문이다(창 4:10, 11; 마 23:35).
- (5) 그리고 세상 끝 날에도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시는데(계 20:13, 14) 이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시 116:15).
- (6) 따라서 세상의 악한 통치자들, 불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며 무고한 자들의 피를 흘리는 지도자들은 반드시 이런 원인으로 인해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계 16:6; 18:20).

**본장의 요절**

'주께서 심지(心志)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3절).

# 제 27장 유다의 대적에 대한 심판과 왕국의 승리

단락구분 1 사단에 대한 심판 / 2-6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을 보살피시다 / 7-11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다 / 12-13 유다의 회복이 약속되다

1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위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위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2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나

3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되다

4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질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5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6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음이 듣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되다

7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8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9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을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들로 부수진 횃들 갈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10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하리라

11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12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일하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13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앗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에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 1. 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즉 그분의 공의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때 사랑으로 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행하시는 심판은 공의에 따라 그들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
- (3)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두 가지 속성은 다섯 가지로 세분(細分)될 수 있다. 먼저 사랑은 은혜, 긍휼(자비), 오래 참음으로 나눌 수 있고 또한 공의는 상 주심과 벌 주심으로 나눌 수 있다.
- (4) 이 중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이며 특히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과분한 사랑이고(엡 1:6, 7; 2:7-9; 딤후 2:11) 자비는 죄의 비참한 결과를 제거하시려는 사랑이며(눅 1:54, 72, 78; 9:16, 18; 롬 15:9; 엡 2:4) 오래 참음은 당신의 교훈과 경고에 무관심한 자들을 용서하시는 사랑이다(롬 2:4; 9:22; 벰전 3:20; 벰후 3:15).
- (5) 또한 공의는 하나님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시는 신적 완성(神的完成)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상과 벌의 명확한 구분을 나타내신다(33:22; 시 99:4; 롬 1:32).

2. ㉠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때에 무엇을 벌하실 것인가? (1절)

- ㉡ (1)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 (2) 선지자 이사야는 이 귀절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전반적인 심판을 언급하는데 앞장에서는 포학한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설명했으나 여기서는 그 보복을 공표(公表)하고 있다.
- (3)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복 대상은 세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었는데 '날랜 뱀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이다.
- (4) 이 말씀은 사람의 힘으로는 사단을 대항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힘을 꺾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이다(롬 16:20).

3. ㉠ 사단의 세력을 묘사한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날랜 뱀 리워야단과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 등 세 가지이다.
- (2) 여기서 이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칭하는 앗수르, 바벨론 그리고 애굽을 가리킨다고 한다.
- (3) '용' (히, 타닌)은 애굽에 대한 지배적인 상징(51:9; 시 74:13; 절 29:3; 32:2)이고 다른 두 리워야단은 12, 13절과 연관될 지어 볼 때 앗수르와 수도 바벨론이 위치하고 있는 갈대아 왕국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Keil and Delitzsch).
- (4) 한편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란 말이 처음 사용된 곳은 욥기인데(욥 3:8) 거기서는 초자연적 힘을 지닌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용'은 통상적으로 사단을 상징한다(51:9; 시 91:13; 계 12:7, 9).
- (5) 따라서 이 상징의 의미는 바벨론, 앗수르, 애굽이 이스라엘을 휘감아 오랫동안 괴롭히지만 최후의 날에 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 것을 암시한다.

4. ㉠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꺾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그날에 우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
- (2) 세상의 강한 나라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멸망되고 그대신 이스라엘의 지위가 격상될 것이다.
- (3)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찬양이며 긍휼에 대한 노래이다. 교회나 성도는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비유되었고(참조, 5:7; 요 15:1-5)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배려 아래에 있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서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원하셨으나 들포도가 열려(5:4) 그 악한 상황을 개간하시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다.
- (5) 오늘날 개인이나 교회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철저한 자기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참조, 창 35:2; 출 23:24; 민 33:52; 수 24:14; 대하 14:3).
- (6)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의 주체자가 되어 잘못된 상황을 들추어 지적하고 빈부 귀천이나 지위의 고하(高下)를 막론하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참조, 삼하 12:7; 왕상 21:20, 22:14; 왕하 3:14; 단 5:22; 행 4:18-20; 7:51).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5. ㉠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지키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상해(傷害)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인 교회를 사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행하시는 일로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는 말씀이다.
- (3) 포도원을 상하게 하며 짓밟아 황무하게 하려는 세력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므로(시80:13) 포도원을 지키는 망대가 필요하다(5:2; 마21:33). 곧 그 망대가 하나님이다.
- (4)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분께 풍성한 열매를 드려야 할 책임이 있다. 만일 열매를 내지 못하면 뿌리가 썩혀 버림을 당하게 된다(마 3:10; 눅 3:9).
- (5)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지배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바칠 수 있다(갈5:22, 23).

6.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으시고 오히려 질려와 형극이 대적하여 싸우면 당신께서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나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 중 극치에 이른 것인데 당신의 백성이 포악한 성향을 지녔다고 할지라도 진멸하지 않고 용서하시겠다는 의도를 표현하신 것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 안에서 자라는 질려와 형극, 즉 내부의 부패와 택한 백성의 대적자들에 대하여는 가혹하게 징계하신다고 하셨다.
- (4) 그분은 자신의 참모습을 가리우실 수 없기 때문에(시 18:25, 26) 당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는 불사르는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10:17; 삼하 23:6, 7).
- (5)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이며 불신앙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자들은 비록 그들이 성직자나 직분을 맡은 자라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면하지 못할 것이다.

7. **㉠** 질려와 형극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으려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5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 그분과 화친하는 방법을 동원한다.
- (2)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그분과 화친하는 것이다.
- (3)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그분과 싸우려는 생각을 그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한다.
- (4) 그분은 아직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를 통해 많은 자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겔 18:21, 22; 행 8:22; 9:35; 벧후 3:8, 9).
- (5) 외형만 경건한 체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끝내 그들의 참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선용하여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시 32:6; 히 12:17; 계 2:21).

8. **㉠**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6절)

- ㉠** (1)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실한 열매가 지면을 채우게 될 것이다.
- (2) 현재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당해 죽은 것처럼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뿌리까지 죽어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 (3)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징계가 지난 후 결국에는 자기 백성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다(참조, 37:31; 호 14:5, 6).
- (4)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고 회개하는 이방인들로 인하여 연합 관계가 형성되며 대적 관계를 이루었던 장벽

이 완전히 제거될 것(엡 2:14)을 가리킨다.

(5)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과 그 열매가 유다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다(참조, 2:3; 요 4:22).

9. **㉠**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징벌하셨는가? (7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치셨으나 대적들을 치신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고 당신의 백성을 살육하셨으나 대적들을 도륙하심과 같이 살육을 행하지는 않으셨다.

(2) 여기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징계하실 때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하시지만(37:18, 19, 36-38; 롬 9:22) 택한 당신의 백성은 적당하게,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징계하신다(참조, 호 6:1, 2).

(3) 왜냐하면 택한 백성을 징계하실 때 다른 목적을 염두에 두시기 때문이다. 즉 백성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사 그들로 하여금 장래 이를 행복에 관한 섭리를 이루시고자 함이다.

(4) 마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실 때 아버지처럼 엄하게 징계하시지만, 반면에 자애롭게 대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하였다(삼하 24:14; 대상 21:13).

10. **㉠**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견책(譴責)하셨는가? (8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다.

(2) 중동의 사막 지대에 있던 동풍은 곡식과 많은 열매들을 망가뜨리는 힘이 있을 정도로 대단히 무서운 바람이었다(창 41:6; 출 10:13; 욥 27:21; 시 78:26; 렘 18:17; 함 1:11).

(3) 그런데 이 바람은 유다가 당하는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로 걸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뿌리만 남게 하였다.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서운 징계를 행하시지만 그 뿌리는 남겨 회생(回生)할 수 있게 하신다는 점이다(참조, 애 3:25-33; 호 6:1-3; 히 12:5-13).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 신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알고 특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에 담대하게 대처해야 한다(요 16:33).

11. **㉠** 야곱의 불의가 용서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1) 그 이유는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이 부숴진 회(灰)돌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행하신 처벌은 곧 구원의 방법이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불행의 원인이 되는 우상을 제거해 버리면 그들에게 대한 처벌은 깨끗하게 끝나는 것이다.

(3) 즉 하나님의 모든 징계는 당신의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며 결과적으로 그들과 화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시 23:3).

(4)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55:7; 렘 3:12; 31:9)과 그 회개의 열매가 외부로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요 4:22, 23; 롬 12:1)는 사실이다.

12. **㉠** 이방의 강한 나라들이 자랑하는 견고한 성읍은 어떻게 퇴락할 것인가? (10절)

**㉠** (1) 그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이 되어 광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하게 할 것이다.

(2) 이것은 유다를 괴롭히던 강한 나라들, 즉 앗수르나 바벨론이 멸망되어 황폐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17:9; 32:14, 19; 호 8:14; 미 5:11).

- (3)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22:11)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므로 당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을 모두 아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셨다.
- (4)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 이방 열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모두 멸망당하게 될 뿐이다(슌 1:15).

13. **㉠ 열국이 황폐하게 되므로 불사름을 당하는데 이런 일들의 일차적 원인은 무엇인가? (11절)**

- ㉠** (1) 이런 일의 근본 원인은 불사름을 당한 자들이 지각이 없어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다.
- (2)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다(신 32:28; 왕하 17:15; 시 14:1; 렘 4:22).
- (3) 그 결과 10절에서 언급한 상태를 겪게 되었는데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에 관한 지식이 없는 자는 결코 그분의 은총과 긍휼을 받을 수 없다.
- (4) 따라서 오늘날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보여지는 자연 현상들을 통해 창조주를 인정하고(롬 1:20)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 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14. **㉠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디에서부터 모으셨다고 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일하는 하수(河水)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같이 일일이 모으실 것이다.
- (2) 창일하는 하수는 유프라테스를 의미하고(참조, 창 31:21; 출 23:31; 신 11:24; 수 24:2, 3, 14, 15) 애굽 시내와 대조된다.
- (3) 그래서 각처에 흩어진 유다 백성 중에 경건한 자들을 골라서 모으시는데 마치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떨어 알곡을 모으듯이(28:27; 사 6:11; 룖 2:17) 모으신다.
- (4) 이처럼 어려운 시련들을 겪은 유다 백성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신다.
- (5)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이것을 통해 우리를 알곡과 같은 하늘의 백성으로 모으시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들도 천국의 창고에 들어가기 위해 타작 마당의 시련을 이겨야 한다(마 3:12).

15. **㉠ 알곡을 모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실 때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 (13절)**

- ㉠** (1) 그날에 큰 나팔이 울리면 앗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 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聖山)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것이다.
- (2) 이때에 애굽과 앗수르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하여 최후의 승리를 기뻐하는 찬송과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찬송을 돌리게 된다.
- (3) 여기서 '나팔이 울린다'는 것은 신약적인 표현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가리키는데(참조,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 이때에 알곡으로 천국 창고에 들림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참조, 대하 23:18; 계 5:9-14).
- (4) 오늘날 세계 각처에 퍼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알곡으로 인정해 주실 것이다.
- (5) 그러므로 이제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자에게 전하여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

## 연구자료

### 리워야단 (Leviathan)

‘리워야단’ (히, 리웨야탄)은 ‘맞붙이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라>에서 파생된 괴물 이름이다. 이 이름은 원래 우가릿(Ugarit) 문헌에 나오는 ‘로탄’(Lotan), 즉 바알(Baal)에게 죽임을 당한 바다 괴물과 같은 말이다. 그 문헌에 의하면 이 리워야단은 일곱 개의 머리를 가졌으며 그 몸의 형태가 꼬불꼬불한 뱀과 같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개역 성경에는 리워야단이 ‘꼬불꼬불한 뱀’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1절). 그러나 욥 3:8; 41:1; 시 74:14; 104:26에는 이 단어가 ‘악어’로 번역되어 있다.

그런데 고대의 문헌에 나오는 리워야단은 오늘날에도 그 존재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채 신화적 영물(靈物)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 구약 성경에서 리워야단이라는 말이 통일성 있게 다루어져 있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데 성경에서는 이 말이 단지 시적, 상징적인 의미로만 쓰여지고 있다. 고대 가나안인들의 신화에는 리워야단이 무질서와 혼돈을 상징하는 바다 괴물 로탄의 변형체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질서의 신들에게 정복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와 비슷한 성경 기사가 곧 시 74:14인데 거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악어의 머리를 깨뜨려 부수는 자로 나와 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시에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던 그 크신 능력(참조, 출 7-12, 14장)을 증거하고 있는 상징적 표현이다. 그리고 시 104:26, 27에는 리워야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 한편 본절에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종말론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 중 일부분이다. 여기서 뱀과 용은 성도들을 꺾박하는 사단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보다 좁은 의미에 있어서 용은 애굽을, 뱀은 앗수르와 바벨론을 상징하는바 이들은 모두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집어 삼키려 한 적대 세력이다. 마지막으로 욥 3:8에는 리워야단을 격동시켜 세상의 질서를 혼돈케 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같은 존재는 사단을, 리워야단은 그에게 속한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리워야단이나 용과 같은 존재 외에도 성경에는 ‘라합’(Rahab)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다 괴물로서 하나님과 맞서는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51:9; 욥 26:12). 그러므로 우리는 리워야단, 용, 라합은 실존하는 짐승이 아니라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성경상의 개념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 제 28 장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타락을 경고하다

단락구분 1-6 에브라임 사람의 교만을 경고하다 / 7-13 유다 사람의 방탕과 술취함을 책망하다 / 14-22 거만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경책(警責)하다 / 23-29 농부의 비유를 통해 권면하다

1 취한 자 에브라임의 교만한 면류관이며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갈이 기쁨진 끝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며 쇠잔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2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의 창일함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 에브라임의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4 그 기쁨진 끝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의 쇠잔해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열른 따서 먹으리다

5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6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신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다마는

7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8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9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누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가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짓 떨어져 몸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10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11 그러므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12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패함이니 너희는 곧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14 이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만한 자여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 지어다

15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들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17 나는 공평으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9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20 침상이 좁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21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끝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시라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22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유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

세히 내 말을 들으라

24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희향울 뿌  
리며 대회향울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  
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26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

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27 소희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  
에는 수레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희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28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 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  
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29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1. ㉠ 본장에서 언급된 주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슬취하여 방탕하고 교만한 북이스라엘과 윤리적으로 타락한 지도자들의 불신  
앙으로 인한 사회·도덕적 부패가 만연한 남유다에 관한 시대적 상황이 기록되어 있  
다. 아울러 이것들로 인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날이 예고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은 징계에 앞서 회개를 촉구하는 훈계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곳에 당신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기 원하신다.
- (3) 우리의 주위를 둘러볼 때 이사야 당시에 느껴졌던 동일한 두려움이 앞선다. 왜냐하  
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무질서함이 극(極)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창 6:5,  
11, 13; 18:20; 19:24, 25).
- (4) 성도들은 현세대의 기류(氣流)에 편승(便乘)해서 죄악을 공공연히 행하여서는 안 된  
다. 죄악의 험난한 파고 앞에서 생활하는 성도는 더욱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슬기  
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班列)에 포함되야 할 것이다(참조, 마 12:39; 25:1-13; 롬 12:  
2).

2. ㉠ 에브라임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는가? (1절)

- ㉠ (1) 원래 에브라임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창 41:52) 나중에 그가  
가나안 땅에 있는 특별한 구역을 할당받을 때 그의 종족과 지역에 이 명칭을 붙여 사  
용했다.
- (2) 구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에브라임은 매우 우세한 권한과 아름다운 위치를 차지했다  
(참조, 민 2:18-24; 13:8; 신 31:7).
- (3) 특히 팔레스틴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분열되면서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우두머리 지파로 자주 간주되었다.
- (4) 그래서 본서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명칭이 대개 북왕조라는 명칭으로 대신 쓰였다. 그리  
고 에브라임의 수도(首都)는 사마리아였다.
- (5) 이와 같이 에브라임은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종족으로 북방 이스라엘에 위치하였다.

3. ㉠ 에브라임은 그들의 풍요함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1절)

- ㉠ (1)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라는 표현처럼 에브라임은 땅이 비옥하여 물질  
이 풍부했다(참조, 암 4:1).
- (2) 그러나 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참조, 암 6:13; 딤편 6:17).
- (3) 또한 그들은 관능과 사치에 탐닉했다. 당시 그들의 사치는 극에 달했다. 상아 침대에  
누워 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향유를 몸에 바르면서 비파에 맞추어 헛된 노  
래를 불렀다(암 6:4, 5).
- (4) 이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자신들의 정욕을 위한 양식과 연료로 악용하  
고 말았다.
- (5) 우리의 건강과 물질을 나의 재간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을 망각하

는 자세는 곧 불신앙이다(참조, 욥 1:21; 호 2:9).

4. **㉠** '강하고 힘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1) 이것은 앗수르의 세력이다.

(2) 하나님은 교만과 술취함으로 타락하고 방탕하는 자들을 이방인의 침략을 통해 심판하신다.

5. **㉠** 앗수르(Assyria)의 침략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2절)

**㉠** (1) 쏟아지는 우박, 파괴하는 광풍, 물의 창일함같이 손으로 침략한다고 표현되었다.

(2) 여기서 '손으로'란 말은 '힘으로', '폭력으로'와 같은 뜻이다.

(3)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앗수르는 전쟁에서 성읍과 마을을 불사르고, 전투나 포위 속에서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모든 곳에서 약탈 행위를 자행하며, 수만 명을 포로로 끌고가 강제 이주시킨 후 낯선 이국 땅에 노예로 팔아 버렸다.

(4) 이와 같이 앗수르의 침략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우박, 광풍, 창일 등 자연의 무서운 파괴력과 같다.

(5)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로서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고후 10:4). 성도의 무기는 진리와 의와 믿음과 성령이다(엡 6:14; 살전 5:8).

6. **㉠**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1) 이것은 방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기 만족과 자찬(自讚)하는 기질을 의미한다(참조, 암 6:6).

(2)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인정으로 말미암아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다.

(3) 성도들은 자신을 날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구원받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겸손과 은유의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참조, 마 3:8; 욥 16:2; 엡 4:1; 빌 1:27; 골 1:10; 살 후 1:11).

7. **㉠** 에브라임의 멸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절)

**㉠** (1) 첫째 그들이 자랑하던 그 골짜기, 즉 에브라임의 아름다움은 '쇠잔해 가는 꽃' 같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 내부에 그것을 부패케 하는 요인들이 있어 조만간 저절로 멸할 것이라는 뜻이다.

(2) 둘째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을 것이다. 처음 익은 무화과는 입맛을 돋구어서 나오자마자 소비된다(참조, 렘 24:2; 호 9:10; 나 3:12). 이와 같이 그들의 아름다움과 풍요함은 그 모습이 드러나자마자 앗수르에게 약탈당한다는 의미이다(참조, 왕하 18:9, 10).

(3) 결국 에브라임은 내부의 부정 부패와 외부의 압력에 의해 멸망하는 내용을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실감있게 보여 주었다.

(4) 우리는 내부의 부패와 부조리는 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까지 물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정화와 함께 정의가 실현되도록 각고(刻苦)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참조, 11:5; 삼하 23:3; 젤 45:9; 암 5:24).

8. **㉠** '남은 백성'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5, 6절)

**㉠** (1) 여기서 '남은 백성'은 유다를 가리킨다.

(2) 하나님은 사치와 연락(宴樂)에 빠진 에브라임의 몰락을 경고하는 반면 남은 백성, 즉 유다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화관이 되시며 판결하는 신이 되시고 군사적인 힘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신다(참조, 왕하 18:8).

(3)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귀히 여기는 신실한 백성들에게 부귀와 영화 그리고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참조, 출 20:6; 왕상 3:14; 시 103:17, 18).

9. **㉠** 신실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5, 6절)

- ㉠** (1) 먼저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의 대상, 즉 우리의 영광이 되신다. 하나님은 신실한 창조주로서 의로우심이 충만하므로 성도는 마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극진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
- (2) 다음으로 '아름다운 화관', 즉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신다. 성도는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생활이 은유하고 겸손한 아름다운 형상을 덧입게 된다 (참조, 마 11:29; 빌 3:8; 딤후 2:24; 딤후 3:2).
- (3) 더우기 그분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신다. 그에게는 불의, 불공평, 부정 등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그분은 형평(衡平)의 신, 진리의 신이시다.
- (4) 그리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신다.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힘 안에서 의무를 수행하고 고통을 참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영적 원수에게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다(참조, 시 89:13; 단 2:23; 앰 3:20; 빌 4:13).

10. **㉠** 유다 사람들의 죄악은 어떠한가? (7-10 절)

- ㉠** (1) 유다 민족들은 포도주와 독주로 비틀거렸다. 즉 그들은 술의 노예가 되어 방탕한 생활을 하였다.
- (2) 더우기 종교 지도자들은 술에 취하여 이상(異像)을 그릇 풀며 재판에 있어 오판(誤判)을 하였다.
- (3) 이와 같이 유다 사람들도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윤리 도덕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타락하였다.
- (4) 믿음에 올바르게 뿌리박지 못하여 명예나 권력 그리고 이성(異性)이나 재물 등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에 몰두하는 종교 지도자는 삼꾼이다(참조, 59:14; 마 15:14; 요 10:12).

11. **㉠** 유다 민족의 죄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무엇인가? (7-10 절)

- ㉠** (1) 다른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가르쳐야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좋은 본을 보여야 했던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빠져 있었다(참조, 레 10:9; 잠 31:4).
- (2) 그로 인해 그들의 이성(理性)과 덕과 양심은 무너졌으며 그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기대할 수 없었다(참조, 잠 31:5).
- (3) 더욱 심각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전염되었다는 것이다. 윤리 도덕을 정화시키며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은 주위 사람의 영혼마저 부패케 하였다.
- (4)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되므로 결국 모든 유다 민족은 죄에 오염되었다(참조, 레 10:10; 19:2; 고후 7:1; 살전 4:3; 히 12:14).

12. **㉠** 유다의 참선지자의 교훈은 이스라엘 내에서 어떤 취급을 당했는가? (9, 10 절)

- ㉠** (1)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여 과오를 범했던 종교 지도자로 인해 참다운 선지자들의 교훈과 경고는 멸시와 조롱을 받았다.
- (2) 또 유다 민족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목격하고서도 진실한 선지자의 경고와 명령을 고질적이며 습관화된 교훈뿐이라 하면서 불만과 조소를 보냈다(참조, 출 16:8; 민 16:41; 빌 2:14; 벰전 4:9).
- (3) 이와 같이 패역한 백성들은 진실한 선지자의 교훈과 훈계를 비웃으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유치한 것으로 취급하였다(참조, 대하 36:16; 마 9:24).
- (4)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의 조언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성도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키

는 데 큰 도움이 된다(참조, 잠 14:5; 고전 4:17; 골 4:7, 9; 벧전 5:12).

13. **㉠** '생소(生疎)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1절)

**㉡** (1) 앓수르인의 언어를 말한다.

(2) 앓수르어는 히브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셈족 언어이지만 유다인의 귀에는 생소하게 들리었다.

(3)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멸시한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은 앓수르(Assyria)를 통해 보복을 가하신다.

(4) 하나님은 완악한 유다 민족의 심령과 그들의 생활을 완악하고 포악한 앓수르를 통해 징계하신다.

14. **㉠**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유다 민족에 대한 대가(代價)는 무엇인가? (12, 13절)

**㉡** (1)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시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그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조건에서 나온 것이다(신 28:1-6).

(2) 그러나 그들은 약속한 조건을 지키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며 그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3) 따라서 하나님은 그 보수(報讎)로서 전쟁과 함께 핍박자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4) 마침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은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하여 패망했다.

(5) 이와 같이 안위함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자들은 시대나 신분이나 환경에 관계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참조, 겔 18:23).

15. **㉠** 예루살렘 정치 지도자들의 행위는 어떠했는가? (14, 15절)

**㉡** (1)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만한 자들이었다.

(2) 여기서 경만(輕慢)이란 말은 자만과 교만한 자세를 의미한다(참조, 29:20).

(3) 교만하고 자만에 가득 찬 그들은 사망과 언약했고 음부와 맹약했으므로 재앙이 온다하더라도 안전한 것이라고 떠들었다(참조, 욥 5:23; 호 2:18).

(4)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그들의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교만에 찬 표현이다(참조, 9:9; 시 31:23; 습 2:10).

(5) 이와 같이 성도들의 신뢰 대상이 자신의 명예나 재물이나 학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으며 예루살렘의 경만한 지도자들과 같은 범주(範疇)에 속한 자들이다(참조, 빌 3:8).

16. **㉠** '한 돌을 시온에 두어'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 (1) 이 '돌'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2) 그리스도는 그의 구속에 있어서는 '기초 돌'이요 그의 시험에 있어서는 '시험한 돌'이요,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다(참조, 8:4; 시 118:22; 롬 9:33; 벧전 2:6).

(3) 결국 타락하고 위선과 거짓을 의지하며 사는 잘못된 지도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4) 하나님은 그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며 또한 당황하지 아니하여 든든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을 성도에게 주셨다(참조, 롬 10:11; 빌 1:20; 딤후 1:12; 히 2:11; 요일 2:28).

17. **㉠** 오만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17-20절)

**㉡** (1) 첫째, 그들이 믿고 안심했던 피난처는 모두 물에 잠기고 홍수에 휩쓸리듯 모든 소망이 사라질 것이다(창 7:19, 22, 23).

(2) 둘째, 그들은 사망과의 언약과 음부와의 맹약을 자랑했으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

나눔에 의해 그 약속은 아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다.

- (3) 세째, 재앙이 주야로 유행하므로 한시도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 (4) 그리고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같이 그들의 수치는 백일하(白日下)에 드러날 것이다.
- (5) 성도의 믿음이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과 같아서는 안 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므로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대신 축복과 평강을 누려야 할 것이다(참조, 출 13:9; 신 6:8; 수 1:8; 시 1:2; 119:15).

18. **㉠**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 ㉠** (1) 브라심 산은 '불화의 산'이라는 뜻이다.  
 (2) 이 산은 삼하 5:20과 대상 14:11의 바알브라심 산을 가리킨다.  
 (3) 이 산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격파했다.  
 (4) 즉 옛날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던 블레셋을 향해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멸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냉소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일어서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9. **㉠**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22-29절)

- ㉠** (1)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단번에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패역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권면의 말씀으로 타이르신다(참조, 시 36:6).  
 (2)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마 12:20).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자비와 은혜로 다스리시며 죄와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삼상 12:20; 시 78:34; 잠 1:23; 말 2:6; 딤후 3:5).  
 (4)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치 팡야와 같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세상에서의 날마다 위로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기뻐해야 한다(참조, 시 69:30; 100:4; 렘 30:19; 은 2:9; 엡 5:4; 골 2:7; 3:15; 계 4:9).

20. **㉠** '소회향' (小茴香), '대회향' (大茴香), '귀리'는 각각 무엇인가? (25절)

- ㉠** (1) '소회향'은 히브리어로 <케차흐>이다. 미나리과 제비속의 식물의 일종인데 검은색이 있고 향기가 난다. 동양 여러 곳에서는 그 씨앗을 얻기 위해서 소회향을 많이 경작하였다. 디오스코리데스(Dioscorides)와 프리니(Pliny)는 그 씨앗을 떡 만드는 데 넣어서 사용했다고 말한다.  
 (2) '대회향'은 히브리어로 <쿰민>이다. 미나리과 식물로서 회향풀과 비슷하다. 씨앗은 약간 쓴맛이 나는데 향료로 사용되었다.  
 (3) '귀리'는 히브리어로 <쿠세메트>인데 밀의 일종이다. 팔레스틴과 근동 여러 지방에서 경작하였다. 서민층은 이 귀리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

21. **㉠** 우화(寓話)를 통해 나타난 교훈은 무엇인가? (26-29절)

- ㉠** (1)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모양은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하다. 어떤 자에게는 도리깨로 또한 어떤 자에게는 수레 바퀴나 작대기로 혹은 막대기 등으로, 그 진노의 방식이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2) 하나님은 죄를 범한 그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곡식을 부수지 않는 것같이' 그 백성을 들보신다.  
 (3) 농부들이 농작물을 파종하고 타작하는 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교훈하심이 광대하시다(참조, 6:3; 12:16; 잠 2:7; 3:21; 8:14; 18:1).

## 연구자료

### 히브리어에 의해 분류되어지는 포도주의 종류

포도주는 히브리인들의 일상 생활 및 종교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순수한 자연수를 구하기 어려웠던 히브리인들은 식사 때나 연회(宴會) 때에 포도주를 음료수로 사용하였으며(창 14:18; 요 2:1-9) 하나님께 전제(奠祭)를 드릴 때엔 제물로 삼기도 하였다(출 29:40; 레 23:13). 그런 반면에 성경에는 포도주를 과다 섭취할 때에 따르는 폐단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고 있는 귀절들도 많이 나온다(7절; 20:1; 잠 23:20, 21). 그러면 이러한 포도주로서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과연 몇 종류나 될까? 이제 이에 대하여 히브리어를 따라 분류될 수 있는 포도주의 종류를 살펴보자.

① 야인 : 이 히브리어는 ‘발효된 포도즙’을 가리키는 상용어로서 성경에 140여 회나 나온다(7절; 22:13; 56:12; 창 9:21; 레 10:9; 시 60:3; 욥 1:5). 일반적으로 RSV와 KJV에서는 이 단어가 ‘포도주’(wine)로 번역되어 있다. 이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헬라어는 <오이노스>이다(참조, 눅 1:15).

② 티로쉬 : 이것은 목히우지 않은 비교적 신선한 포도즙(grape-juice)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개역 성경은 이 단어를 보통 ‘포도주’로 번역하고 있긴 하지만(62:8; 창 27:28; 신 7:13) 때로는 ‘새 포도주’(느 13:5; 시 4:7; 호 4:11; 욥 1:10)나 ‘새 포도즙’(24:7; 잠 3:10)으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사용한 성경 귀절들은 대개 이 ‘새 포도주’를 무절제하게 마시면 그것이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고 경고하고 있다.

③ 헤멜 : 이 단어는 ‘발효시키다’(to ferment)라는 뜻을 지닌 어근(語根)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것은 포도주를 의미하는 일종의 시적(詩的) 용어인데 신 32:14에는 ‘포도즙의 붉은 술’로 번역되어 있다.

④ 야시스 : 이 단어도 ‘새 포도주’를 뜻하는 시적 용어로서 <티로쉬>와 동의어이다(욥 1:5; 3:18; 암 9:13). 그러나 이 단어는 ‘것부수다’(to crush), ‘압착하다’(to press)라는 뜻의 어근에서 파생되었다.

⑤ 샤칼 : 이 단어는 보통 ‘독주’(strong drink)로 번역되었는데(7절; 5:11; 삼상 1:15; 잠 20:1; 미 2:11) ‘취하다’, ‘취하게 되다’라는 어근에서 나온 말이다. 이 단어는 처음에는 포도주를 포함한(참조, 민 28:7, 14) 모든 과실주나 곡주(穀酒)를 의미하였으나 후에는 포도주를 제외한 취하게 하는 술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들이나 나실인들이 이 독주를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레 10:9; 민 6:3).

# 제 29 장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경책(警責)하시다

단락구분 1-8 아리엘에 내릴 형벌을 예고하다 / 9-16 유다 민족의 범죄를 경고하다 / 17-24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1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연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2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3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려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에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4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성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꺼리리라

5 그럴지라도 네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 가는 겨 같으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를 것이라

6 만군의 여호와께서 벽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7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끈고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8 주린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9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불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10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지자라

11 그러므로 모든 목사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 하겠노라 할 것이요

12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13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제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15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16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다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빛은 자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17 미구에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않겠으며 기름진 밭이 삼림으로 여김이 되지 않겠느냐

18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밝 것이며

19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이 더 하겠고 사람 중 빈핍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20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경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21 그들은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움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케 하느니라

22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23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攝理)를 말하라.

- ㉠ (1) 본장은 예루살렘이 범죄하고 타락하므로 크게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것이나 그들을 괴롭혔던 그 대적들은 격파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 (2) 또한 세 종류의 죄인, 즉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 개의치 않는 어리석은 자들, 종교적 행위에 있어서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자들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불경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기에 경쟁하여 자기의 계획을 세우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다.
- (3) 그러나 결국 구별된 남은 자에 대한 은혜와 긍휼의 귀한 약속이 있다. 이것이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다.
- (4)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철저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킨 자들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하나님 자신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자 한다. 그때는 그들의 원수와 꾀박자들이 멸절되며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참조, 롬 8:17; 고후 4:17; 골 3:4; 살후 1:10, 12; 벰전 5:1).
- (5) 성도에게 닥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으므로 성도는 오늘 하루도 짜증스럽고 힘든 일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롬 8:18; 벰전 2:19).

## 2. ㉠ '아리엘'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여기에서 '아리엘'이라 불리우는 곳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 (2) '아리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신비적 이름인데 이는 '세삭'이 바벨론의 이름인 것과 유사하다(렘 25:26).
- (3) 이와 같이 성읍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별명과 애칭을 갖고 있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사자(獅子)' 또는 '강한 사자'를 의미한다.
- (4) 사자가 짐승들의 왕인 것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은 성읍들의 왕으로서 그 주위의 모든 성읍에게 실력을 행사하였다(참조, 창 49:9; 시 48:1, 2).

## 3. ㉠ '연부년(年復年) 절기가 돌아오려니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절)

- ㉠ (1) 유대인들은 연중 잔치를 계속하고 모든 남자들은 법도와 관례대로 1년에 세 번 여호와 앞에 헌신하였다(출 23:17; 34:23; 신 16:16).
- (2) 그리고 그들은 이 의식 중에 어느 것도 결코 빠뜨리지 않았으며 늘상 그렇게 해오던 대로 제물을 잡았다.
- (3)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개혁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교만하였다. 즉 그들은 회개는 하지 않고 해마다 절기만 지켰다.
- (4)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은 습관과 형식에 쫓겨 있었다.
- (5) 그러므로 외적인 종교 행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해 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말씀이다.
- (6) 결국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경건의 능력이 없는 위선을 책망하시는 말씀이다(참조, 시 32:6; 빌 4:8; 딤후 4:7; 딤후 3:5, 12; 딤후 2:12).

## 4. ㉠ 예루살렘에 임할 환난은 무엇인가? (2-4절)

- ㉠ (1) 예루살렘은 황폐케 되고 모든 성읍들이 그 대적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슬픔에 잠길 것이다.
- (2) 예루살렘은 낮아지고 굴욕을 당하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교만한 얼굴과 교만한 말투는(참조, 시 75:5)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비천하게 될 것이다.
- (3) 그런데 그 성읍의 환난은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회개와 개혁에 대한 촉구로서 주어어진 시련(試練)인 것이다.

(4) 성도는 오늘의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수용(取用)해야 하는가? 성도는 이것을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해소하기 보다는 자아 성찰의 기회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참조, 갈 6:1; 엡 6:24; 빌 2:4).

5. **㉠**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꺼리리라'는 말은 어떤 사실을 암시하는가? (4절)

- ㉡** (1) 그들은 쇠약해지고 연약해져서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을 것이다.
- (2) 또한 그들은 두려움을 느낄 것이며 그들의 대적이 엿듣고 그들을 칠 미끼를 얻는 것을 두려워하여 간담이 서늘해져 작게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3) 그리고 그들은 나약하게 될 것이며 그 정복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은 비참한 환난이 포악한 앗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다(참조, 애 3:1-18).
- (5) 무당(巫堂)은 신과 인간의 중개 구실을 한다 하여 길흉을 점하고 굿을 하는 사람이다. 점(占)은 팔괘(八卦)·육효(六爻)·오행(五行) 따위로 길흉 화복을 미리 판단하는 일이다. 그런데 성도의 증보자는 그리스도뿐이며 유한한 인간이 인간의 장래를 미리 판단함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격이다(참조, 미 5:12; 갈 5:20, 21).

6. **㉠** 예루살렘의 대적들의 멸망이 어떻게 예고되어 있는가? (5-8절)

- ㉡** (1)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같이 힘없는 존재가 되었고, 불러가는 것처럼 가치도 없을 것이다(참조, 단 2:35; 호 13:3; 습 2:2).
- (2) 또한 그들의 멸망은 예측할 수 없으며 삼시간에 임할 것이다(참조, 37:36).
- (3) 그리고 그들의 형통함이나 성공은 터무니없는 환상처럼 곧 무너질 것이다.
- (4) 성도들이 세상의 부귀나 영화(榮華)에 집착하지 않으며 그것으로 인해 유혹받지 않는 이유는, 이와 같이 세상적인 아름다움은 한낱 꿈과 같으며 환상과 같기 때문이다(참조, 잠 3:31; 23:17; 24:1; 딤후 4:10; 5:5; 6:17).

7. **㉠**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사실을 보고 한탄하였는가? (9-12절)

- ㉡** (1) 유대 백성들은 향락에 대한 사랑과 신앙에 대한 편견과 자신들의 부패한 교훈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법도를 잊어버렸다. 이와 같이 그들은 영적으로 술 취한 것과 같은 상태에 빠져 있었다.
- (2) 또한 지도자가 되어야 할 그들의 예언자들과 치리자들과 선견자들까지도 영적인 소경이 되었다.
- (3) 특히 예언자가 그들을 위해 보았고 그들에게 알린 묵시(默示)를 그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이사야가 말한 것이 묵시와 예언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 속에 어떤 뜻이 감추어져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참조, 마 16:3).
- (4)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심령이 감화되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만약 그 말씀이 단지 성경 지식을 더하는 데서 머문다면 영적 무지자와 다를 바 없다(참조, 마 13:23; 막 9:32; 딤후 2:15).

8. **㉠**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는 말의 진의(眞意)는 무엇인가? (10절)

- ㉡** (1) 영적 경고를 식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 즉 영적 죽음, 영적 무감각을 말한다.
- (2) 하나님께서 그의 예언자들을 통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좀더 자자, 좀더 즐자'(잠 6:10)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喪失)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롬 1:28)하셨다.
- (3) 이와 같이 유대인들의 불신앙 때문에 오는 영적 무감각으로 인해 그들은 실상 어두움

에 처한 소경같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참조, 마 12:13; 막 4:12; 눅 8:10; 요 12:40).

- (4)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役事)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하나의 신화(神話)나 전설, 그리고 교훈을 수록한 문학 서적의 일종으로 생각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이다(참조, 딤후 3:16; 히 4:12).

9. **㉠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성이 있었는가? (11, 12절)**

- ㉠** (1) 먼저 유식한 자, 즉 글을 읽을 수 있는 자들은 마음의 눈이 어두어져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 (2) 그리고 무식한 자, 즉 글을 읽을 수 없는 자들은 무식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심지어 그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 (3)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열의보다 그들의 관심은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모습을 잘못된 불신앙이라고 책망했다.
- (4) 성도는 단지 성경을 문자적(文字的)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그 내용의 의미를 파악하여 그 교훈을 생활에 적용하는 자세를 갖어야 한다(참조, 고전 13:11; 히 5:14).

10. **㉠ 유대인들이 책망받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그들의 예배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식에 불과했다(참조, 요 4:24; 엠 5:19).
- (2)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의 규정으로 삼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의 생각의 바탕으로 삼지도 않았다(마 15:8).
- (3) 이와 같이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고 외형적이며 위선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하신 율법보다 더욱 중요했고 또 유효했다(참조, 마 15:3; 막 7:8, 9).
- (4) 이러한 행위는 신실치 못한 마음에서 야기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가증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을 책망하셨다.
- (5) 우리 주위에서도 성경의 말씀보다는 교단의 교리(敎理)를 더욱 내세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며, 신앙을 자신의 영달(榮達)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지도자도 간혹 발견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곤 한다. 이것은 독선과 가증의 표본이다(참조, 민 20:17; 신 17:11; 엠 4:15; 빌 4:8).

11. **㉠ 유대인들의 어리석은 책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15, 16절)**

- ㉠** (1) 그들은 애굽과 맺은 정치적 동맹에 대해 여호와께서 알지 못하신다고 도리어 의기양양하게 외쳤다(참조, 시 73:11).
- (2) 이것은 마치 토기장이로부터 지음 받은 물건이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은 경거 망동(輕舉妄動)한 태도이다.
- (3) 이와 같은 어리석음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창조자이심을 부인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전지성(全知性)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다(참조, 시 94:7; 겔 8:12; 9:9).
- (4)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한 부패한 인간의 반항과 도전에서 나온 것으로 그 내심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인간은 그에 의해 지음 받은 물건이라는 사실을 양심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롬 1:20).

12. **㉠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고의 말씀은 무엇인가? (17절)**

- ㉠** (1) 거처른 자연과 높은 산으로 이루어진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할 것이며 더욱 울창한 삼림으로 될 것이다.
- (2) 이와 같이 오래지 않은 때에 교만하고 높은 세력을 가진 앗수르는 무너져 낮아지게 된다는 뜻이며 밭이 삼림으로 여겨지듯이 압제받던 유대 민족이 번성하며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 (3) 결국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승리와 그에 맞서 대항한 불의한 자들에 대한 멸망을 예고하고 있다(참조, 49:25).
- (4)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 즉 불의, 부정, 정욕 등 사단의 무리들과 싸우고 있다. 때로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성도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의 승리는 보장될 것이다(참조, 딤후 4:8; 벰전 5:4, 9; 계 2:10).

13. **㉠**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영적 은혜는 무엇인가? (18-24절)

- ㉠** (1) 무지했던 자들이 총명을 지니게 될 것이다. 즉 예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예언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 성취를 확신하게 될 것이다(참조, 시 78:2, 3; 렘 33:3; 막 4:11; 엠 1:9; 3:3; 6:19).
- (2) 또한 마음이 혼미했던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에 순종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줄 것이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참조, 삼하 15:20; 시 25:5; 43:3; 요 8:32; 14:17; 16:13; 벰전 1:22).
- (3) 더우기 우울했던 자들이 명랑하고 유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신다. 은유와 겸손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실 것이다(참조, 렘 31:13; 함 3:17, 18; 마 5:3; 고후 7:4).
- (4) 그리고 거대했던 대적들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정말로 강포한 자인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됨에 따라 꺾일 것이다. 특히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무서워하므로 종노릇하던 자들은 해방될 것이다(참조, 시 146:7; 롬 6:18, 22; 8:2, 21; 히 2:14, 15; 계 1:5).
- (5)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은 이미 영적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하였다(참조, 요 5:24; 빌 3:20; 4:3).

14. **㉠** '귀머거리'와 '소경'은 각각 어떤 자를 의미하는가? (18절)

- ㉠** (1) 여기서 '귀머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여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를 의미한다.
- (2) 그리고 '소경'은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하여 우왕 좌왕하며 세태(世態)에 그대로 편승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마 24:6; 눅 21:9; 요일 2:18; 유 1:18).
- (4) 만일 성도가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거짓과 비방과 탐욕과 색욕에 빠져 있으면 이들은 영적인 소경이요 귀머거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欺瞞)한 자들이다(참조, 엠 5:1, 3, 4, 8; 요일 1:6).

15. **㉠** 하나님의 선택된 축복은 어떤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가? (19절)

- ㉠** (1) 부하고 능력있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빈핍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다(참조, 57:15; 61:1; 고전 1:26-28).
- (2) 즉 지금 좌절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필경 하나님이 즐거움의 때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리라는 말씀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오직 그 말씀을 명심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소망하며, 고난 뒤에는 반드시 기쁨과 영광을 안겨 주시리라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

이다(참조, 고후 6:2; 롬 8:18; 벰전 2:19; 5:5).

16. **㉠** 강포하고 교만한 자는 누구이며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20, 21절)

- ㉠** (1) 강포하고 교만한 자는 스스로 경건한 자들 중의 일원이라고 거동(擧動)하지만 타락하여 내심으로는 하나님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2) 이들의 죄악은 첫째, 사람들에게게서 죄악이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았다(참조, 시 1:1; 롬 2:1).  
 (3) 둘째, 이들은 거짓 증거를 만들어 공연(公然)한 사람을 정죄하였다(참조, 렘 22:3).  
 (4) 셋째, 이들은 재판을 공정하지 않고 정직한 자로 하여금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무시하였다(참조, 출 23:6; 암 5:12).  
 (5) 우리의 사회와 교회 안에서 종종 강포하고 교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적인 문제들을 해결함에 앞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포(強暴)와 교만을 정화하는 길이다(참조, 마 11:29; 엡 4:2; 딤후전 6:11).

17. **㉠** 택한 백성이 누릴 행복은 무엇인가? (22-24절)

- ㉠** (1) 첫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세상의 마지막 날 두려워 떨지 않으며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현실로 맞이하며 영광을 누리게 된다(참조, 49:23; 겔 34:29; 욥 2:26).  
 (2) 둘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성취됨을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성호(聖號)를 찬송하게 된다(참조, 대상 16:10; 시 103:1,2; 105:3; 145:21).  
 (3) 셋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혹 마음이 흔들렸던 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명을 회복하여 진리의 말씀에 거하게 된다(참조, 고전 2:13; 빌 1:10).  
 (4)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을 우리만 소유할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소개하며 그 축복의 말씀을 믿도록 권유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8:19; 행 1:8).

18. **㉠** ‘야곱 족속’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2절)

- ㉠** (1) 여기서 ‘야곱 족속’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원래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요 에서의 동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하셨다(창 25:23-28).  
 (3) 후에 발꿈치를 잡은 자란 뜻의 야곱의 이름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을 내포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창 32:28).  
 (4)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축복받은 족속으로 지칭되었다(창 50:24).

19. **㉠**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특히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신 일을 의미한다(참조, 창 1:1, 26; 엡 2:10).  
 (2) 또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험악한 세상의 세력들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사실을 의미한다(참조, 출 13:21; 14:21-25).  
 (3)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 8:30; 엡 1:18; 살전 2:12; 히 9:15).  
 (4) 성도들이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명하여 불러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사 영광과 승리의 날을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43:1-3; 마 28:20; 요 14:16).

20. **㉠**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는 뜻은 무엇인가? (24절)

- Ⓐ (1) 여기서 '원망'은 성격상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와 같은 원망은 아니다 (출 15:24).
- (2) 여기서 '원망하던 자'는 전에 선지자들을 향해 원망하였고 반항하면서 복종하거나 순종할 줄 모르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은 자들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즉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이방 민족이 패망하는 날 불평하며 도전했던 사람들도 선지자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고 그것으로 유익을 얻으리라는 뜻이다.
- (4) 성도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거짓은 사라져야 한다. 주위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성도는 인내하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합당한 삶이다(참조, 롬 12:12; 엡 5:20; 빌 4:4).

### 화보자료

선지자. 홀(笏)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묘사한 아래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13세기 작품으로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Notre Dame) 성당 서쪽 창문에 장식되어 있다.



선지자들이 영적 수면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한 세상에 전하지 못할 때(10-12절) 이는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는 것이 된다 (참조, 렘 23:11-32).

## 제 30 장 애굽을 의지하는

### 유다를 책망하다

단락구분 1-7 애굽과 동맹한 유다를 책망하다 / 8-11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 민족의 패역을 기록으로 보존하다 / 12-14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의 모습 / 15-26 회개하는 자에 대해 용서와 축복을 약속하다 / 27-33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다

1-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그들이 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에 죄를 더하다

3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4 그 방백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5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못 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 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6 남방 짐승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 보물을 막대 제물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끈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7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8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영히 있게 하라

9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와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10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11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12 이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에 의뢰하니

13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답이 붙속 나와 경각간에 흠연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셨은즉

14 그가 이 나라를 훼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훼파함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15 주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전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16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17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였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영 위외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와 공의의 하나님임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여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25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26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았고 햇빛은 칠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27 보라 여호와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뽅뽅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28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

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29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와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30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들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 여호와와 목소리에 앓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32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앓수르 위에 더하시실 때마다 소고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33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는즉 여호와와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1. **㉠ 본장의 개요와 그 특징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환난을 당했을 때 애굽의 도움을 믿고 황급히 애굽으로부터 원조를 청한 유다의 지도자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다.
- (2) 한편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예언자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선한 충고를 무시한 자들에게는 무서운 경고가 있다.
- (3) 반면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에 대해서는 은혜로운 약속이 있다. 즉 그들은 고통이 끝나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지난 후 기쁨과 환희가 증대되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했다.
- (4) 이와 같이 고통과 환난의 때에 신앙을 버리고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교훈에 완고한 자들의 결말은 모욕과 수치뿐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이 닥칠 때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솔직히 시인하며 용서를 바라는 자세여야 한다(참조, 롬8:18; 고전10:13; 엡3:13; 약1:12).

2. **㉠ 유다 백성이 자주 범한 과오와 어리석음은 무엇인가? (1, 2절)**

- ㉠ (1)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웃 나라에 의해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대신에 이웃 나라의 원조를 구하는 과오와 어리석음을 자주 범했다(참조, 출13:17; 23:32; 신7:2).
- (2) 유다는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했으며(왕하16:7), 앓수르 사람들의 침공을 막기 위해 애굽의 도움을 청했다.
- (3)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은 실상 급박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인간의 힘을 신뢰하였다.
- (4) 하나님은 환난 날에 도움을 청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때에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시50:15; 86:7; 뱀16:19, 20).

3. **㉠ 유다 백성들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격노케 했는가? (1, 2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자행 자지(自行自止)했다. 그들은 유럽이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매우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필요 없는 일로 생각했다.

- (2)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신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앓수르 사람들에게 대항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애굽이라고 믿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 (4)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섭섭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진확이나 취적이나 병의 회복이나 신앙의 문제를 제외한 다른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성질의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참조, 왕상 8:38; 대하 6:29,30; 마 21:22; 막 11:24; 빌 4:6).

4. **㉠** ‘패역한 자식들’은 어떤 자를 말하는가? (1절)

- ㉠** (1) 신 21:18,20에서는 ‘패역’이란 낱말이 완고하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적용되었다.
- (2) 여기서 ‘패역한 자식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알면서도 그를 무시하고 배반하는 자를 의미한다.
- (3) 이것은 그들의 조상 때부터 하나님이 분부하신 명령에 대한 거역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며 제 자신의 도모를 좇아 행한 악이다.
- (4)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자랑하면서 과연 우리들의 계획과 생각들을 얼마나 하나님과 상의하는지 자문 자답(自問自答)해 보아야 한다(참조, 시 127:1; 잠 16:1,9).

5. **㉠**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죄는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의 백성은 동맹을 체결하되 하나님의 동의, 즉 ‘하나님의 신’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 (2) 그런 후 그들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다.
- (3)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은 불가시적인 하나님보다는 가시적인 나라를 선택했다. 즉 무한한 세계를 장악할 수 있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 수 없는 병기로 무장한 하나님의 천사들보다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과 군사를 그들은 더욱 신뢰하였다(참조, 출 32:4; 신 9:16; 왕상 12:28).
- (4)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간 유다의 죄는 물량, 물질주의로 만연된 부패한 정신이며 인본주의의 노예가 된 것이다.
- (5) 이처럼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인간적 도움에 의지한 것이 인류가 범하는 죄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 교회나 성도들도 자칫 범하기 쉬운 죄이다(참조, 왕상 8:38; 시 42:8; 행 1:14; 롬 12:12).

6. **㉠** ‘죄에 죄를 더하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첫째, 죄는 한 죄로서만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유발시킨다(참조, 약 1:15).
- (2) 둘째, 사람은 한번 한 것을 다시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죄는 쉽게 습관화되어 그 영향으로 죄를 더하게 된다.
- (3) 셋째, 범죄 행위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에 예속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죄의 힘은 다시 죄에 의지하도록 만들고 이로써 죄는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참조, 신 30:17; 렘 4:22; 히 3:13; 뱀후 2:18).
- (4) 그리고 사람은 죄의 유혹에 자고(自高)하여 또 다른 죄를 짓게 된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죄에서 죄에 이르게 방치하시고 수치를 당해서 스스로 죄를 깨닫도록 하신다(참조, 시 53:5; 렘 3:25; 23:40).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유혹을 물리쳐야만 한다. 야고보서 기자(記者)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약 4:7)고 기록하였다. 또한 예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마 4:10)고 호령하셨다.

7. **Q** 애굽을 신뢰한 유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3-7절)

- A** (1) 애굽에 원조를 요청키 위해서 재화와 보물을 나귀와 낙타에 싣고 위험한 지대를 건너가기 위하여 사신들이 노력을 하였으나 이 모든 수고는 헛된 것으로 끝났다(참조, 55:2; 레26:20; 전2:11).
- (2) 그들이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갔었지만 그들의 소망은 산산이 깨어지고 원통한 마음만 남게 되었다(참조, 시24:4; 119:37; 잠30:8; 젤13:8; 담전4:7).
- (3) 그리고 이러한 무익하고 어리석은 동맹 관계는 왕이나 백성에게 수치만 가져왔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사(意思)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애굽과 동맹하려던 유다는 낭비와 실망과 수치를 맛보아야만 했다.
- (5)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재능이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권력을 더 의지하면 유다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출20:5; 34:14; 신4:24; 수24:19).

8. **Q** ‘소안’ 과 ‘하비스’ 는 각각 어디를 가리키는가? (4절)

- A** (1) 구약 성경 민13:22에 의하면 헤브론보다 7년 뒤에 세워진 ‘소안’은 다미에타의 남동쪽 약 29km 지점에 있는 나일 강의 동쪽 지류의 어귀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애굽의 국고성(Royal Egyptian Store City)이었다.
- (2) 회람인들은 이곳을 타니스(Tanis)라고 불렀고 소안의 현재 지명은 산 엘-하갈이다.
- (3) ‘하비스’는 현재의 에스네스(Esnes)라고 일반적으로 인정한다. 이곳은 고대 이집트의 수도였으며 가장 큰 상업 도시였던 멤피스(Memphis)와 상(上) 이집트의 웅장한 도시였던 테베(Thebes) 사이에 있는 촌락으로 추정된다.
- (4) 그리고 ‘하비스’는 현재에 확실히 알 수는 없으며 ‘소안’(참조, 시78:12, 43)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으로 학자들(Mr. R. S. Poole 등)은 이야기한다.
- (5) 이와 같이 유다는 애굽의 중요한 도시에 그들의 방백과 사신, 즉 고관(高官)들을 보냈다는 말이다.

9. **Q** 유다에서부터 애굽까지 여행하는 중 위태로운 일은 무엇인가? (6절)

- A** (1) 유다인들은 애굽으로 찾아가 청병(請兵)하기 위해서 빈 손으로 갈 수 없었다.
- (2)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지날 때에 짐 운반으로 흔히 사용된 어린 나귀와 약대(참조, 창37:25; 42:26)의 등에 재물과 보물을 싣고 갔다.
- (3) 그러나 위험하고 끈고한 땅, 다시 말해 유다와 애굽 사이의 광야를 지날 때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타나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4) 이러한 경고도 무시한 채 유다인들은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갔다. 이와 같이 여로(旅路)는 험난하였으나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광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를 조금도 늦추지 않았다.
- (5) 분명 신앙 양심상 해서는 안 될 일을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애굽의 원병(援兵)을 결행한 완고한 유다인들과 다를 바 없다(참조, 말3:13; 마19:8; 막16:14).

10. **Q** ‘남방 짐승’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A** (1) ‘남방 짐승’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이다. 첫째 ‘남방 짐승’이란 남쪽 땅 애굽의 상징물로서 물소 내지 하마를 가리키는데 이 짐승은 꿈틀거리는 애굽인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 (2) 또 하나는 ‘남방 짐승’은 남쪽으로 가는 짐승 곧 유다에서 애굽을 향하여 짐을 싣고 가는 어린 나귀와 약대를 가리킨다고 한다.
- (3) 그러나 문맥상 ‘남방 짐승’은 애굽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11. **Q** ‘날아다니는 불뱀’이란 무엇인가? (6절)

- Ⓐ (1) 유다와 애굽 사이의 광야에는 여러 종류의 뱀이 있었다(참조, 민21:6; Burckhardt, 'Travels', p 499).
- (2) 그런데 '날아다니는 불뱀'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의심스럽다. 어떤 학자는 아라비아 삼림 지대에 있는 뱀으로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뛰어 옮겨다니는 뱀이라고 설명했다.
- (3) 또 어떤 학자는 '날아다니는 불뱀'이란 말은 그 당시에 민간 전승(傳承)에서 나온 것으로 광야의 위험성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이라 하여 상징적으로 풀이하였다.
- (4) '날아다니는 불뱀'(참조, 14:29)이 실제적인 뱀이라면 그것은 나는 능력을 지녔다고 상상되었던 사막 살무사(Echis carinata)로 추정될 수 있다(참조, Herodotus II, 75에 언급된 아라비아의 「날개돋힌 뱀」).

### 12. ㉠ 애굽을 달리 무엇이라고 불렀는가? (7절)

- Ⓐ (1)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불렀다.
- (2) '라합'은 애굽에 대한 별명(別名)으로 구약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다(참조, 51:9; 욕 9:13; 26:12; 시 87:4; 89:10).
- (3) '라합'이란 말은 '자만한', '거만한' 또는 '분노하다', '동요되다'라는 용어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4) 여기서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만한 애굽을 무력(無力)하게 만든 외부적 세력을 비유한 것이다. 곧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애굽의 힘이 보잘것없이 되었다는 말이다.
- (5)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방법으로 하는 일이 더 잘되고 좋은 것 같으나 실상은 헛된 수고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를 발견하기 전 밤새도록 수고하여 고기를 잡았으나 헛수고였음을 익히 알고 있다(눅5:1-11).

### 13. ㉠ 여호와의 말씀을 서판(書板)과 책에 기록케 한 목적은 무엇인가? (8절)

- Ⓐ (1) 서판과 책에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전지성과 신실성이다.
- (2) 영원한 하나님의 신실성을 서판과 책에 기록하여 당대와 후대에 산 교훈으로 남겨 둘 것을 말한다.
- (3) 서판은 보관 기간이 짧고 책은 길기 때문에 두 곳에 모두 기록하라 명하셨다.
- (4) 결국 어느 것을 채택하든지 간에 그 기록된 말씀을 영원히 보관하라는 뜻이다(참조, 롬 15:4).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대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생각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글로 기록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깊은 배려를 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 때문이다.

### 14. ㉠ 유다인의 사악함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9절)

- Ⓐ (1)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기록하였다.
- (2) 유다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는 유일한 백성이었으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다.
- (3) 즉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행위로서는 배은 망덕(背恩忘德)하였다.
- (4) 이와 같이 유다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을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고 표현하였다.
- (5)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감화되어 자신의 삶이 변화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성경 말씀을 변화시키려는 경우가 없는지 살펴보고 스스로 신앙의 합리화에서 탈피해야 한다(참조, 벰후1:20, 21; 3:16).

15. **㉠** 선지자에 대한 패역한 유다인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0, 11절)

- ㉠** (1) 그들은 선지자들에게 선견(先見)하지 말며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고 부드러운 말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 앞에서 떠나게 하라고 했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법을 듣기 싫어하는 무리들이 거짓을 좋아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습(참조, 롬1:28)을 나타내고 있다.
- (3) 선견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며 예언하는 것을 그치라는 뜻이다.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는 것은 진실하고 곧은 말로 심령에 자극을 주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부드러운 말이란 듣기 좋고 자기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말을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유다인들의 마음은 부패했고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악하게 움직였으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에게 도전하였다(참조, 렘11:21; 롬16:18; 딤후4:3).
- (5) 세상이 점차 각박(刻薄)해짐에 따라 윤리와 질서에 역행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후배가 선배를, 제자가 선생을, 성도가 목사를, 하사(下司)가 상사(上司)를, 젊은이가 늙은이를 무시하며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반항하려든다. 성경은 이것을 악으로 금하고 있다(참조, 잠16:31; 마10:24; 롬13:1,2; 딤텔3:1).

16. **㉠** 유다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이며 그 심판의 근거는 무엇인가? (12절)

- ㉠** (1)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 (2) 그 심판의 근거는 '이 말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과 동맹하지 말라는 예언자들의 말을 업신여겼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심을 선언하는 그 말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참조, 렘6:10).
- (3) 심판의 근거는 이것 뿐만 아니라 압박과 허망 끝 애굽에 보낼 값진 재화를 얻기 위해서 취한 강압 조치와 바르지 못한 정치만 믿은 패역함 때문이다.

17. **㉠** 유다에게 임할 심판은 어떠한가? (13, 14절)

- ㉠** (1) 첫째, 그들에게 임할 심판은 갑작스런 멸망이다. 그들은 심판을 예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놀라게 되며 그것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인 파멸이 될 것이다(참조, 47:11; 렘13:16).
- (2) 둘째, 완전한 멸망, 즉 인력(人力)으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이다. 그들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휩파함같이 아김이 없이 파쇄(破碎)'될 것이다(참조, 시2:9; 62:3).
- (3) 이와 같이 치명적인 유다의 붕괴는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참조, 렘52:4).
- (4) 성도들의 생활에 안일과 나태는 있을 수 없다. 성도는 깨어 경성(警醒)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적같이 재림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살전5:6; 벰전4:7; 벰후3:10).

18. **㉠** '높은 담이 불쑥 나와'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높은 담이 불쑥 나와 있다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에 직면해 있다는 것으로서 그들이 머지 않아 멸망하리라는 뜻이다.
- (2) 특히 '높은 담'은 교만을 의미하며, '불쑥' 나온 것은 교만이 무너질 것을 나타낸다.
- (3) 이와 같이 교만은 항상 위태로운 것이며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전10:12)고 말씀하였다(참조, 삼하22:28; 시18:27; 잠16:18; 18:12; 29:23; 렘50:31; 약4:6; 벰전5:5).

19. **㉠**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어떤 태도를 제시하였는가? (15절)

- ㉠** (1) 안연(晏然)히 처하며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앙적인 자리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로

전환할 것을 의미한다.

- (3) 즉 마음과 생활을 개혁하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온을 누리라는 말씀이다.
- (4)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며 강하고 담대함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참조, 롬8:10; 엡1:20,21; 골2:3).
- (5)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순종과 겸손을 요구하신다 (참조, 창26:5; 신30:2; 삼상15:22).

**20. C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과 의지대로 유다에게 임할 하나님의 보응은 무엇인가? (16,17절)**

- A** (1) 그들은 애굽의 힘을 믿었으나 애굽은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어 주지 못할 것이다 (참조, 잠11:21).
- (2) 또한 한 명의 대적이 유다 천 명을 격파시킬 것이며, 다섯 명이 한 군대를 도망하게 만들 것이다. 즉 그들은 무기력한 존재가 될 것이다.
- (3) 그리고 유다의 대다수가 잘리움을 당할 것이며 단지 여기저기에 한 사람씩 호젓한 장소에 홀로 피신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산꼭대기의 깃대' 같이 구경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이 자신의 고집과 의지대로 행한 유다는 허무, 능력 상실, 모욕을 경험할 것이다 (참조, 렘8:5; 롬2:5).

**21. C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8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시며 죄 많은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일어나신다.
- (2)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철저히 간섭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죄악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사역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활동의 궁극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롬8:23). 즉 그의 백성들을 세상의 싸움과 슬픔에서부터 하늘의 안식과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영생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참조, 출34:6; 시103:8; 은4:2; 눅6:36; 약5:11).
- (5)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형제와 이웃에게 인자하고 너그럽게 대해야 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서 마땅한 자세이다 (참조, 잠3:3; 미6:8; 마5:7; 눅6:36).

**22. C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의 목적은 무엇인가? (19절)**

- A** (1) 징계의 대상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다.
- (2)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불의에 대해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공리적인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을 징계하신다 (참조, 시103:6; 습3:5; 요5:30; 롬2:2).
- (3) 또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지 말며 자신을 돌아보아 불의하고 죄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 (참조, 55:6, 7; 시50:15; 눅11:8).

**23. C 진정한 회개는 어떤 것인가? (19-22절)**

- A** (1) 먼저 하나님께 자신의 허물을 내어 놓고 부르짖는 것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8:25),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행2:37),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행16:30).
- (2) 다음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구별시키는 장애물들을 신속히 청산해야 하는 것이다. 곧 자신의 죄를 버리는 것이다 (참조, 1:16).

- (3)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엡4:24) 입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선한 일을 하도록 힘써야 한다 (참조, 살후2:17; 딤편6:18; 히13:16; 벧전4:19; 요1:11).
- (4)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참조, 마7:21).

24. ㉠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 ㉠ (1) 떡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식량을 가리킨다 (참조, 왕상22:27).
- (2) 특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란 강국의 포위로 고난과 고초를 당하며 '떡과 물'을 조금밖에 배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풍요하리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 (4) 즉 육신적으로 고달프고 어려울지라도 선지자들의 교훈과 훈계로 영적으로 풍부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 (5) 성도들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있는 이복 동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못해 영적인 기갈(飢渴) 상태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한다 (참조, 암8:11; 마24:14; 고전9:16; 고후10:16; 골1:23; 살전2:4).

25. ㉠ 하나님의 훈계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21, 22절)

- ㉠ (1) 첫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참조, 수1:7).
- (2) 둘째, 하나님께 돌이켜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바른길을 걷게 된다.
- (3) 세째,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 (참조, 행24:16; 롬13:5; 고후1:12; 딤편3:9; 벧전3:16).
- (4) 네째, 우상이나 미신을 타파 (打破) 한다 (참조, 출20:3-5).
- (5) 양심이 불량한 사회에는 거짓과 사기와 가식이 난무한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자선 사업이나 캠페인을 하는 것만이 자신의 의무를 다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성도 스스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26. ㉠ 유대인들은 우상을 어떻게 하였는가? (22절)

- ㉠ (1) 그들은 우상에 올린 금을 파괴하고 그 우상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완전히 제거하였다.
- (2) 이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 응답을 받은 유대인들이 우상은 더럽고 헛된 것으로 알고 멀리 치워 버리는 것을 가리킨다.
- (3) 사실 아하스에 의하여 장려되었던 우상 숭배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격히 금지되었다 (왕하18:4).
- (4) 그러나 백성들이 은밀히 우상을 가까이 하여 우상 숭배를 계속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상 타파 운동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 (5) 그들은 오히려 조각한 우상에 은을 입히고 금을 부어 우상을 만들었으나 회개함으로써 완전히 우상을 버리게 되었다.
- (6) 이와 같이 완전한 개혁과 개선은 외적인 강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요 내적인 심령의 변화에서 가능함을 모든 지도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참조, 시51:12; 잠18:14; 엡4:23).

27. ㉠ 회개한 심령에게 뒤따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은 무엇인가? (23-26절)

- ㉠ (1) 소산의 곡식과 가축이 잘될 것이다 (시67:6).
- (2) 또한 그들의 적(敵)은 그들 앞에서 패배하고 그들의 계곡에는 물이 흐를 것이다.
- (3) 그리고 황폐한 산천이 다시 아름답고 기쁨지게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이 회개한 심령에게 뒤따르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은 택한 백성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특권이다.

(5) 성도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고 말씀하신 예수의 교훈을 다시 기억해야 한다.

28. **㉠**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25절)

- ㉠** (1) 개울과 시냇물은 관개의 목적으로 파 놓은 수도(水道)를 말한다(참조, 절47:1-12; 욕3:18).
- (2) 이것은 유다의 번영이 다시 계속 될 것을 가리키는데,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물에 해당된다.
- (3) 그러므로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는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가 다시 부와 명예를 회복할 것에 대한 예고이다.
- (4) 현세에서 성도들의 생활이 소외된 듯하고 큰 위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주께서 호령(號令)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실'(살전4:16) 때에 성도들은 세상의 누구보다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참조, 시149:5,9; 단7:18; 계8:4).

29. **㉠** 앓수르(Assyria)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는 무엇인가? (27-33절)

- ㉠** (1) '창일(漲溢)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가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즉 그 물은 앓수르 군대의 세력을 삼켜 버릴 것이다(참조, 출14:28).
- (2) '멸하는 키'가 있다. 이것으로 앓수르 군대와 동맹 관계이던 그 열방을 흠으실 것이다.
- (3) 그리고 '자갈'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迷惑)되게 하는 자갈을 통해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이권을 필연코 멸망으로 이끌 것이다.
- (4) '막대기와 몽둥이'가 있다. 그 몽둥이와 막대기가 앓수르를 끊임없이 칠 것이며 그에게 치명상을 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피하거나 그 진노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 (5) 그들을 위해 '설립되었고 예비된 도벳'이 있다. 예루살렘에 인접해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도벳'이라 불렀다. 거기에서 이방 신상(神像)을 섬기는 자들은 자식들을 불태웠다. 그와 같이 앓수르 군대도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태워질 것이다.

30. **㉠** 앓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27, 28절)

- ㉠** (1) 그의 진노는 불 불듯 하며 딱딱한 연기가 일어나듯이 맹렬하다(참조, 42:25).
- (2) 또한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다(참조, 출24:17; 신9:3).
- (3) 그리고 그 호흡은 마치 창일(漲溢)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다(참조, 절47:5).
- (4) 이것은 세상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에게 내릴 재앙의 예표이기도 하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회피할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다(참조, 시18:7-15). 그러므로 이 심판을 회피하려고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보다는 심판의 주(主)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죄를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31. **㉠**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표현된 '멸하는 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28절)

- ㉠** (1)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선한 것에서 악한 것을, 악한 것에서 선한 것을 골라 내시는 일이다.
- (2) 이때에는 알곡과 쟁쟁이를 골라 내기 위해 키를 사용하듯이 그렇게 하실 것인데 이러한 작업에 상징적으로 사용될 도구로 '키'가 언급되어 있다(참조, 암9:9).
- (3) 이와 같이 심판의 때에는 반드시 분리 작업이 있을 것이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쟁쟁이는 거치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마3:12; 눅3:17).
- (4)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므로(롬14:10) 성도들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전12:14)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바라며(빌2:12) 주의 말씀을 따라 행실을 깨끗케 해야 한다(시119:9).

32. ㉠ 하나님은 유다에 대항하는 민족들을 어떻게 흠으셨는가? (28절)

- ㉠ (1) '미혹(迷惑) 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심'으로 유다에 대항하는 민족들을 흠으셨다(참조, 창11:7,8).
- (2) 여기서 '미혹되게 하는 자갈'은 '그릇 인도하는 고삐'라고 할 수 있다(Alexander).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유다에 대항하는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민족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보다는 멸망으로 인도하신다.
- (4)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패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징계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5)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순화되어 보존되도록 벌하시지만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거꾸러져 멸망하도록 벌하신다.
- (6) 성도들이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 까닭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시련은 영광을 얻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참조, 숙13:9; 롬8:18; 고전10:13).

33. ㉠ 승리할 유다의 기쁨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29절)

- ㉠ (1) 앗수르의 멸망은 곧 유다의 승리이다. 이날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하며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참조, 출23:14; 레23:2; 민15:3).
- (2) 여기서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은 저녁에 시작되는 유월절 절기를 의미하며(참조, 출12:6; 마26:30) 그때는 주로 구원을 노래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 (3)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노래하며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다(참조, 합3:18).
- (4) 성도들에게 임하는 진정한 기쁨은 세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위로와 평강이다(참조, 왕상2:33; 학2:9; 롬15:13; 빌4:7,9; 뱀후1:2).

34. ㉠ 하나님은 무엇으로 앗수르를 파괴하시는가? (30절)

- ㉠ (1) 그 파괴에 사용될 재료로는 맹렬한 화염, 폭풍, 폭우, 우박 등이 있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죽음과 재난 등을 의미한다(참조, 시38:3; 젤13:13; 미5:15; 나1:2).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불, 물, 바람 등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도구로 파괴하실 것이다.
- (4) 비록 굴(窟)과 산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참조, 2:21; 계6:15,16).

35. ㉠ '예정하신 몽둥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32절)

- ㉠ (1) 앗수르에 내린 징계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과 작정에 의해 계획된 형벌이다. '예정하신 몽둥이'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표현된 단어이다.
- (2)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앗수르(B. C. 689)의 패망은 하나님의 예정 속에 포함된 것이었다는 의미이다(참조, 젤31:10-14).
- (3) 이와 같이 나라의 흥망 성쇠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전쟁 또한 하나님이 좌우하신다(참조, 출14:14).
- (4) 결국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主管)하는 분이시다(참조, 시22:28; 행1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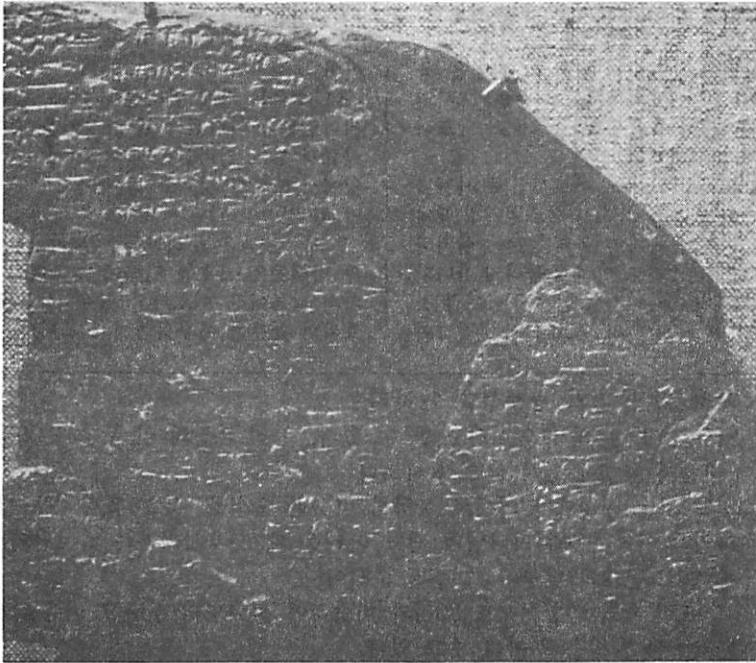
36. ㉠ '도벳'은 무엇이며 그것이 사용된 이유는 무엇인가? (33절)

- ㉠ (1) '도벳'은 힌놈 골짜기 곧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계헨나 계곡(참조, 수15:8; 왕하23:10; 대하26:9)에 자리잡은 사당(祠堂)으로 그곳에서 몰록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렘7:31; 19:6,11).

- (2) 유다의 백성들은 힌놈 골짜기(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 곧 음란한 사당을 세워 놓고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불살랐다.
- (3) 이러한 미신은 아라비아인, 페니키아인, 모압인 사이에서 일찍부터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므낫세 왕 때에는 이러한 악행이 유대인 사이에서도 공공연하게 행해졌다(참조, 대하33:6).
- (4) 이와 같이 '도벳'에서 불과 나무를 준비하여 그의 자녀들을 불태운 것처럼 앗수르 병사의 시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한다.

### 화보자료

조약의 내용이 적힌 석판(石板). 아래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는 B.C. 2000년대의 외교 석판이다. 아카드(Akkad) 왕과 엘람(Elam) 왕과의 조약이 새겨져 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들이 인간들끼리의 약속에 의해 도움을 받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기뻐하신다(6, 7, 15절).

# 제 31 장 애굽을 의지하는 백성의 무지(無知)와 하나님의 용서

단락구분 1-3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재앙 / 4-5 횡난 날에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 6-7 회개와 개혁을 촉구하다 / 8-9 앗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1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말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2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번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러 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력하여

시온 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5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6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7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피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8 앗수르는 칼에 엎드릴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9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기호를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와 더불어 시온에 있고 여호와와 더불어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 1. ㉠ 본장과 앞장(30장)과의 관계성을 논하라.

- ㉠ (1) 본장은 앞장(30장)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본장의 앞 부분과 30장의 앞 부분은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 매우 유사하다.
- (2) 그리고 그 서술 형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비슷한 순서를 갖고 있다. 즉 애굽을 의지하는 유대인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경고, 어려울 때 도우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 회개의 요구, 앗수르 군대의 멸망이 그 주된 순서이다.
- (3) 또한 그 표현 기법에 있어서도 30장과 비슷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로 설명함으로써 풍부한 감동과 상상을 부여해 주고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은 나름대로의 독특한 내용이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단지 30장의 메시지가 요약되어 있을 뿐이다.
- (5) 그러나 이처럼 반복된 메시지를 통해서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호소하고자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심정을 읽을 수 있다.
- (6) 우리 주위에도 간절한 심정으로 위로하며 권고하고 사랑해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 성도들은 아낌없는 도움과 기도를 공급해야 한다(참조, 롬 12:13; 갈 6:10; 벧후 1:7).

2. **㉠**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무엇을 의뢰(依賴)하였는가? (1절)

- ㉠** (1) 그들은 애굽의 '말을 의뢰(依賴)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였다.  
 (2) 즉 유다 백성들은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만 믿고 있었다.  
 (3) 이와 같이 그들은 모두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인간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였다.  
 (4)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애굽 곧 두 주인을 섬기려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으며(마 6:24), 이방 민족과의 혼합을 금지하시고(신 7:2) 애굽과의 동맹을 금하신(신 17:16)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이다.  
 (5) 성도들은 남의 도움을 받기 보다는 남을 돕는 생활로 성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맡겨진 일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 22:29; 빌 2:4).

3. **㉠** 유다 백성들의 과오는 무엇인가? (1절)

- ㉠** (1) 첫째, 그들은 애굽을 절대시하여 우상화하고 마치 애굽과 동맹하면 안전하리라고 생각하였다.  
 (2) 둘째,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는 곤경 속에서 아무런 도움이나 보호를 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앙모하지 않았다.  
 (3) 이와 같이 그들의 과오는 몰량적이며 인본적인 데 있었고 더우기 자기를 절대시하는 사고 방식에 있었다.  
 (4)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나'를 너무 강조하고 고집하게 되면 자칫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에 빠지게 된다(참조, 빌 3:3; 벧전 4:10).

4. **㉠** '말을 의뢰(依賴)하며'는 무엇을 말하는가? (1절)

- ㉠** (1) 여기서 '말을 의뢰(依賴)하며'라는 것은 애굽의 기병대를 가리킨다(참조, 대하 12:3).  
 (2) 또한 애굽에는 상당수의 병거가 있었다. 출애굽시의 바로는 600대의 병거를 소유했고(출 14:7), 시삭은 12,000대의 병차를 소유한 것으로(대하 12:3)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3) 그리고 애굽은 인접 국가에 병거를 수출하기도 했다(왕상 10:29).  
 (4) 이와 같이 애굽은 민첩한 기병대와 많은 병거 그리고 강인한 군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5) 군마, 병거, 마병 등 육적인 힘 등은 모두 세속적인 것을 의미한다(참조, 고후 10:4).

5. **㉠**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였는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시다(참조, 시 94:8-10)고 하였다.  
 (2) 또한 그는 사자와 같다고 했다. 그는 전쟁의 하나님으로(출 14:14; 23:27; 삼하 5:24; 대하 20:29; 32:8; 시 24:8) 전쟁에서 강한 힘과 능력으로 그 전세(戰勢)를 주장하신다.  
 (3) 그리고 그는 새끼와 등지를 보호하는 새와 같다(참조, 37:35; 신 32:11, 12; 시 91:4)고 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항상 보호하고 아껴 주신다.  
 (4) 유다는 애굽과의 동맹으로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구원과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다(참조, 출 6:8; 잠 4:11; 겔 20:41; 암 2:10; 미 7:9; 눅 1:79; 살후 3:5).  
 (5) 성도들이 하나님을 단지 물질적인 축복과 육신적인 건강을 주시는 분으로 직결시켜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기복 신앙(信仰)이다.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더욱 간구하며 발견해야 한다(시 23:1-6).

6. **㉠** 육체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 (2,3절)

- ㉠** (1) 첫째, 인간의 가변성 때문이다(참조, 시 146:3,4). 인간은 나약하고 변덕스러울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다. 성경은 인간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로(약 1:8) 표현하고 있다(참조, 40:6; 시 103:15; 뱀전 1:24).

- (2) 둘째, 절대 가치의 인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적 보호자란 선의적으로 말해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아람과 암몬은 그들이 다윗과 싸움을 할 때에(삼하 10:6, 16; 시 88:8) 앓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그 결과는 연합군의 대패로 끝났다(참조, 잠 29:25).
- (3) 셋째, 인간의 탐욕과 시기심 때문이다.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은 없다. 인간은 소유하면 할수록 더욱 많은 것을 원하게 되며, 시기심이 발동하면 살인까지 몰고 간다.
- (4) 그리고 인간의 막강한 힘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소경으로도 군사를 물리치실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아람 군대에게(왕하 7:6) 그렇게 했으며, 적국의 군인간에 혼란을 일으켜 서로 싸워서 회생을 내도록 만드시기도 하셨다(대하 20:23).
- (5) 이와 같이 인간은 인간을 절대시할 수 없으며 의지할 수 없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불신을 말하려 함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기 위함이다(참조, 시 4:5; 112:7; 잠 3:5; 렘 17:7; 단 6:23).

7. **㉠** 애굽의 유한성과 불완전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3절)

- ㉠** (1)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유다는 애굽의 바로를 신으로 간주하였으나 애굽의 바로는 유한하고 무능한 사람이며 도움 힘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 (3) 또한 애굽의 군사력도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조직된 불완전한 것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여 돈을 사랑하며 육신을 자랑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헛되며 어리석은 모양이라고 말하였다(참조, 40:6; 시 103:15; 눅 12:19, 20; 뱀전 1:24).

8. **㉠** '그 손을 드시면'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기시키는가? (3절)

- ㉠** (1)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했다.
- (2)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계속 모세의 손을 들어 올리고 있어서 아말렉을 이기고 승리했는데 본문의 내용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킨다(출 17:11, 12).
- (3) 손을 든다고 함은 손을 높이 펼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보기에 어려운 일을 쉽고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다는 말이다.
- (4) 성도들은 염려와 고민을 쉽게 해결해 주시며 아울러 지혜와 용기를 풍족히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하고 낙심되는 일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고백하며 도움을 간청해야 할 것이다(참조, 눅 12:22; 빌 4:6; 뱀전 5:7).

9. **㉠**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 유다를 구원하실 것인가? (4, 5절)

- ㉠** (1)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와 같이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하실 것이다(참조, 호 11:10).
- (2) 즉 사자들이 식물을 움키고 있을 때 목자들의 위협이나 소란에 조금도 기가 죽지 않고 먹이를 움키듯이 하나님은 유다를 변호하실 것이다.
- (3) 또한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실 것이다(참조, 마 23:37).
- (4) 즉 새는 자기 등지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면 전속력(全速力)으로 날개치며 돌아와 습격자들에게서 새끼들을 피신시키기 위해 너풀거리는데 이와 같은 지극한 동정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유다를 보호할 것이다(참조, 신 32:11, 12).
- (5) 이 기적과 같은 역사(役事)는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아

나라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10. **㉠** 이사야는 유다의 회개에 대한 추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6절)

- ㉠** (1)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표현하고 있다.  
 (2) 여기서 구원해 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표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즉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며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애굽을 신뢰했으므로 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은 하나님을 심히 거역한 행위인 것이다(참조, 신 31:27; 수 22:19; 렘 2:19; 마 17:17).  
 (4)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를 즉각 응징하시기 보다는 스스로 깨달아 죄의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한 구체적인 방법이다(참조, 눅 15:11-23).

11. **㉠** '그날에는'이란 말이 가리키는 때는 언제인가? (7절)

- ㉠** (1) 앗수르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들이 숭배하던 은으로 만든 우상이나 금으로 부어 만든 우상들이 더 이상 그들을 도와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될 때를 가리킨다.  
 (2) 또한 그날은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날이기도 하다.  
 (3) 사실 앗수르의 침략으로 놀라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유대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을 의지하였다(참조, 2:8).  
 (4)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악의 세력들은 무너질 것이며 주를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5) 우리는 주위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을 연기, 보류하는 자들을 간혹 보게 된다. 그들은 세상 재미를 좀더 맛보고 믿겠다고 하며 또한 돈을 번 후에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한다.  
 (6)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스스로 지체롭고 현명하다고 여길지라도 성경은 이런 자들에게 슬피 울며 이를 깊이 있을 것(마 22:13)이라고 경고한다(참조, 눅 12:19, 20; 살전 5:2; 벧후 3:10; 계 3:3).

12. **㉠**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집어 던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그것은 자신의 개혁이며 동시에 전체적인 개혁을 의미한다. 각 사람은 남의 우상을 훼파하는 일에 착수하기 전에 자기의 우상부터 훼파해야 할 것이다. 각자 각자의 개혁은 동시에 전체적인 개혁으로 확산될 것이다.  
 (2) 그것은 철저한 개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우상, 그들이 사랑하던 죄 곧 그들의 은우상 금우상을 떠날 것이며 아울러 그들에게 범죄의 근거가 되어 왔던 것들을 청산하기 때문이다.  
 (3) 그것은 세상적인 원리에 의하지 않고 경건이라는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이 될 것이다.  
 (4)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의 회개는 말로만 반성이 아니라 그 변화를 행위로 보여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회(懺悔)일 것이다(참조, 갈 6:16; 빌 4:9; 요일 3:18).  
 (5)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집어 던져야 한다. 즉 나로부터 멀리 던져야 하고 던져서 파괴시켜야 한다. 그리고 돌아서야 한다. 부끄러운 것을 버리지 못하고 미련을 두는 것은 진정한 청산(清算)이 아니다(참조, 엡 4:22; 골 3:8; 히 12:1; 약 1:21; 벧전 2:1).

13. **㉠** 앗수르를 패배시킬 주역(主役)은 누구인가? (8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는 칼에 엎더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키울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라고 예언했다.  
 (2)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앗수르의 패배를 예언함에 있어 인간의 물리적 힘에 의하

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 (3) 이와 같은 예언의 내용이 37:36에서 성취된 모습으로 발견된다.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중에서 십팔 만 오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 (4) 왕하 19:35에도 이러한 예언 성취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5) 이처럼 앗수르를 패배시킨 주역은 유다 백성이나 애굽의 병사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자이다.
- (6) 여기서 어떤 방법으로 앗수르를 패배시켰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독한 전염병 같은 것을 갑자기 발발시켜 앗수르 군인 185,000명을 죽게 했을 것이다.
- (7) 성도들은 유비 무환(有備無難)의 자세로 말은 사명과 신앙 생활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리 예측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문제까지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울러 기억해야 한다(참조, 시104:27; 렘5:24; 겔 34:26; 히4:16).

14. **㉠** 교회의 구속(救贖)은 누구에 의한 사역인가? (8절)

- ㉡** (1) 교회의 구속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무리들의 구속은 하나님에 의한 사역이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다.
- (3) 단지 인간을 그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는 있으나 그 사역이 인간의 수고와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 (4)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이, 앗수르 군대가 멸망당하고 산헤립이 패주했을 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37:36; 왕하 19:35). 앗수르가 멸망당한 것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 그의 힘을 나타내 보이셨음이니 이로써 하나님 한분만이 교회의 구속자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참조, 요 10:28; 살전 5:10; 요일 5:11).

15. **㉠**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의 반석’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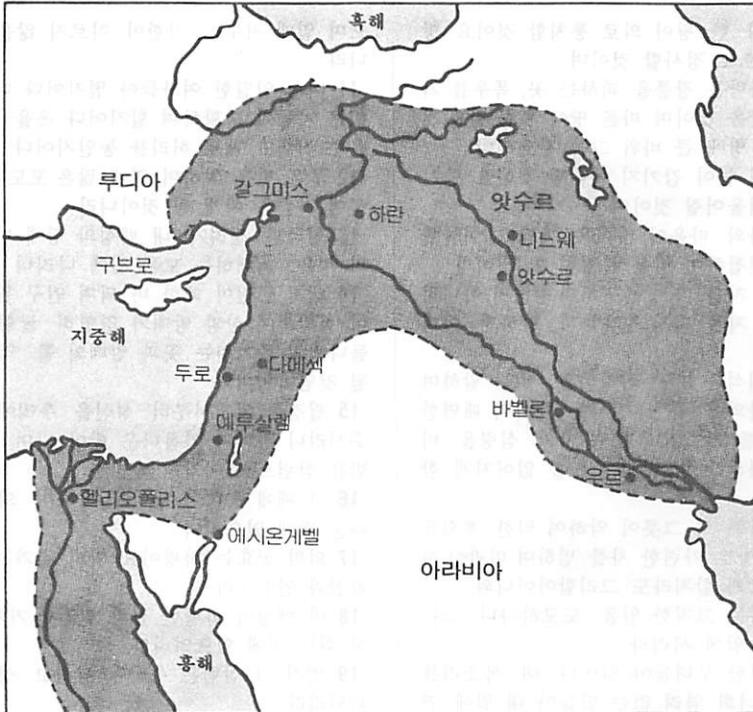
- ㉡** (1) 앗수르의 왕을 ‘그의 반석’이라고 했다.
- (2)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에게 완전히 패한 후 도망갔으며 그 후 그는 아들들의 반란으로 인하여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37:5).

16. **㉠** ‘여호와와 불’은 무슨 뜻인가? (9절)

- ㉡** (1)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며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참조, 히 12:9).
- (2) 즉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소멸시키는 진노의 불이 되시며 반면에 택한 백성에게는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출 13:21).
- (3) 이 불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쳐들어 온 앗수르는 패배당할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 같은 요소와 조명하는 요소를 지니고 계시서 더럽고 추하며 불의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영생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새롭게 밝히신다(참조, 시 27:1; 눅 1:78; 요 1:4, 5).

## 지도자료

B. C. 7세기경 앗수르 제국의 영토. 앗수르 제국은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69-626) 때에 이르러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은 거대한 영토를 장악하였는데 이때 유다의 왕은 므낫세(Manasseh, B. C. 697-642)와 아몬(Amon, B. C. 642-640)이었다(참조, 대하33장).



앗수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왕국들 중의 하나이다. 이 나라의 역사는 B. C. 5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대제국으로서의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던 때는 B. C. 900-600년이다. 이때 맹활약을 하였던 앗수르의 왕들로는 살만에셀 3세(Shalmaneser III, B. C. 858-824),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 B. C. 745-727), 에살합돈(Esarhaddon, B. C. 681-669) 등이 있다. 그러나 본장에는 이러한 앗수르도 멸망당하리라고 예언되어 있는바(8절) 실제로 앗수르는 B. C. 610년경에 신바빌로니아 왕국에 의해 멸망되었다.

## 제 32 장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단락구분 1-2 의(義)로 통치하게 된다 / 3-4 영적으로 밝아지게 된다 / 5-8 진리가 음바로 서게 된다 / 9-12 안일(安逸)한 자들을 경고하다 / 13-14 유다가 황폐할 것을 예언하다 / 15-20 성신이 오시므로 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1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5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궤환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주린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애지게 함이며

7 궤환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비뺌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어니와

8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9 너희 안일한 부녀들이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일 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

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11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이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지 될 것이니라

13 형극과 질러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14 대저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광던 성읍이 적막하여 산과 땅대가 영영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의 즐겨하는 곳과 양떼의 풀 먹는 곳이 될 것임이어니와

15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17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중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9 먼저 그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20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 1. ㉠ 본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가?

- ㉠ (1) 본장은 히스기야 왕 통치사의(참조, 왕하 18:1-4) 요약이 될 수 있는 예언으로 보인다.  
 (2) 즉 그가 즉위하면 시작하게 될 선한 개혁 사업에 대한 예언과 그 백성에게 미칠 행복한 영향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3) 그리고 그의 통치 중반기에 앗수르 침입에 의해 겪게 될 큰 혼란에 대한 예언이 있으며 그 후 그의 통치 말엽은 경건함과 평온함에 있어서 보다 나은 시기가 되리라는 약속이 있다.  
 (4) 이 약속은 메시아 통치의 날을 주목하고 있는데 본장에서는 메시아의 왕권이 다윗 왕가의 보좌(寶座)로서 상징되었다.  
 (5) 그러한 이유로 해서 메시아는 흔히 '다윗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고 있다(참조, 마 9:27;

15:22;20:30).

(6) 이와 같이 본장은 다윗의 왕가로부터 출현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전조(前兆)로서 히스기야 왕의 통치를 요약하고 있다.

2. **Q** '한 왕의 의로 통치할 것이요'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A** (1) 여기서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을 가리키지만 결국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의로운 왕 곧 메시아를 지칭한 단어이다.
- (2) 그러므로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라는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학정(虐政)에서 고생하는 유다를 해방하듯이 메시아인 그리스도가 의로 통치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나타낸다.
- (3) 렘 23:5과 슥 9:9 등에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의로운 통치가 예고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到來)는 의로운 세계의 개막을 의미한다.
- (5) 성도들은 역리가 순리를 지배하고 불의가 득세하며 정도(正道)가 무시된다 할지라도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딤후 2:15).

3. **Q**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공의는 무엇인가? (1절)

- A** (1)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형태의 악도 용납되지 않는다(참조, 마 7:23;12:36; 15:19, 20;23:13).
- (2)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하게 생활하며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참조, 고전 5:7, 11, 13; 딤펴전 1:20).
- (3) 셋째, 행위에 따라서 최후의 심판이 엄숙히 시행된다(참조, 마 7:23;25:31-46; 계 20:12, 13).
- (4) 이와 같이 진리와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공의 만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곧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된다는 명백히 나타내는 것은 없다(참조, 창 18:25;시 7:11;9:8).
- (5) 그런데 구원 사역에서는 공의와 긍휼이 신기하게 조화된 것이 또한 놀랍다. 이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작정된 것인데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시 85:10)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 (6)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나 반면 성결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은 요구되어진다(참조, 막 16:16; 롬 8:1, 34).

4. **Q**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2절)

- A** (1) 첫째, 그리스도는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슬픔이나 고통이나 환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시고 원수가 우리를 위협할 때에도 피할 곳을 예비해 주신다(참조, 시 31:20).
- (2) 둘째, 그리스도는 유혹으로부터의 은신처이시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꾀계(詭計)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며 우리 죄를 가리우시고 또한 보호하신다(참조, 계 3:8).
- (3) 셋째, 그리스도는 생명의 강이시다. '넷물'은 기운을 회복시켜 주며 생명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물은 사막에서 생명, 풍성함, 기쁨의 대근원이다. 이와 같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강이 되신 그리스도이시다(참조, 55:1;요 4:14;7:37, 38).
- (4) 넷째, 그리스도는 마른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시다. 세상은 항상 마른 땅이고 우리는 그곳을 지나가는 여행자들이다. 그러나 뜨거운 햇살이 비껴어서 초목은 시들고 땅은 말라가며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지라도 성도에게는 반석이 있으니 곧 신령한 반석 그리

스도이시다(참조, 고전 10:4).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에게 한없는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소망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참조, 욥 15:11; 시 4:7; 119:50; 렘 15:16; 행 2:28; 롬 15:13; 고후 1:3-5; 살후 2:16, 17).

5. **㉠** ‘곤비한 땅’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곤비한 땅’은 사막이나 광야처럼 생동감이 결여된 이 세상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다.
- (2) 그 첫째는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생활이라는 점을 암시한다. 인간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에서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과 같이 일시적으로 그곳을 통과할 뿐이다.
- (3) 둘째, 곤비함은 세상 풍습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記者)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라고 고백하였다(전 1:2, 3).
- (4) 이와 같이 사막에서 유일한 휴식과 기쁨은 오아시스(Oasis)를 만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유일한 안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다(참조, 요 15:4; 계 12:12).
- (5)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적인 오락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 하며 그 휴식의 방법을 세상에서 찾으려는 자들은 결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전 1:14)라는 한탄의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참조, 막 4:19; 요 14:27; 골 2:8; 약 4:4; 요일 2:15; 5:4).

6. **㉠** 메시아가 왕으로서 의롭게 통치하실 때 그의 백성에게 나타날 축복은 무엇인가? (3, 4절)

- ㉠** (1)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즉 그때에는 사람이 진리를 분명히 알게 되며 보게 된다(참조, 35:5; 마 13:16).
- (2) 그리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곧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다(참조, 마 11:5; 13:9; 계 2:7; 3:6).
- (3) 또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다시 말해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를 이해하거나 자신들의 행위를 생각할 여유도 갖지 않은 자들이 그 경솔함을 치료받게 된다는 말이다(참조, 눅 24:45; 요일 5:20).
- (4) 아울러 ‘어눌(語訥)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도덕과 종교적 문제에서 주저하고 모순된 말을 한 혀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명백하고 뚜렷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이다(참조, 35:6; 시 45:1).
- (5) 이와 같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의롭게 통치하실 때 영적 통찰력과 영적 이해력을 회복할 것이며 증거를 위한 신령한 말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참조, 신 4:6; 잠 2:6; 행 2:4; 고전 1:5; 고후 8:7; 엡 6:19).

7. **㉠** 진리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인가? (5절)

- ㉠** (1) 그 특징은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칭하지 않으며 궤변(詭譎)한 자를 정대(正大)하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 (2) 즉 불의한 정치가 행하여질 때에는 어리석고 아첨하는 자들이 세력을 나타내지만 의로운 왕이 나타나 의롭게 통치할 때는 모든 아첨하는 자와 불의를 행하던 자들은 쫓겨나고 바른 정치가 공정하게 실시된다는 뜻이다.
- (3) 이것은 복음으로 인한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을 가리킨다.
- (4) 그러므로 진리와 정의로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은 순리에 맞는 정치이며 진실이 통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그러한 통치는 인간의 이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복음에 기초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8. **㉠**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6절)

- ㉠** (1) 그는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참조, 욥 2:10;엡 5:4).  
 (2) 불의를 품고 간사한 행동을 한다(참조, 시 43:1;미 2:1;벧후 2:13).  
 (3) 패역한 말로 여호와의 거스린다(참조, 신 31:27;잠 11:3;22:5;렘 28:16).  
 (4) 주린 자의 심령이 채워지지 못하게 한다(참조, 3:14, 15;시 107:9;마 25:35;눅 1:53;롬 12:20).  
 (5)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뺏는다(참조, 잠 25:21;요 6:35;롬 12:20;계 21:6;22:17).  
 (6) 이것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특징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긍휼하심에서 빛나간 행위이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7)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智慧)롭고 비둘기같이 순결(純潔)하라'고 말씀하셨다(마 10:16).

9. **㉠**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일반적으로 '그릇'은 물건을 담은 제구의 총칭 혹은 사람의 인품과 기량을 말한다.  
 (2) 그런데 여기서 '그릇'은 남을 해치려는 음모를 가리킨다.

10. **㉠** 꾀활한 자의 도모(圖謀)는 어떠한가? (7절)

- ㉠** (1) 첫째, 그들은 능동적으로 늘 불의한 것을 계획하고 남을 해할 방법을 모색한다.  
 (2) 둘째, 그들은 외식함으로 위장하여 그 음모를 수행한다. 그들의 행위는 위선이다(참조, 눅 20:20).  
 (3) 셋째, 그들은 어리석은 것을 말한다. 그들은 경솔하며 판정이나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정의를 왜곡한다(참조, 겔 18:8;요 7:24).  
 (4) 넷째, 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되 패역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린다.  
 (5)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확대하며 압제한다(참조, 욥 20:19;잠 14:31;렘 22:3;암 5:12).  
 (6) 이와 같이 꾀활한 자의 모습은 더욱 악하며 수동적으로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르다. 그들은 능동적으로 늘 악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짓밟은 자들이다.

11. **㉠** 고명(高明)한 자의 도모는 어떠한가? (8절)

- ㉠** (1) 고명한 자는 히브리어로 <나디브>인데 그 말은 너그럽고 후하다는 뜻이다.  
 (2) 이것은 복음의 소리에 부르심을 입어 거듭난 자들의 모습으로 남의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과 기꺼이 섬기는 봉사의 정신을 의미한다.  
 (3)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자기가 가진 것을 사용하고 내어 주는 방법을 애써 계획한다(참조, 행 28:10;롬 12:13;딤후 5:10;히 13:2;벧전 4:9).  
 (4) 그리고 그는 선을 행하는 일에서 즐거움을 취하며 유익을 얻는다(참조, 시 112:5, 6).  
 (5) 우리는 교회 봉사에 있어서도 어떤 대가(代價)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기 보다는 봉사 자체에서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업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기꺼운 자세로 봉사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21:17).

12. **㉠** 곤경의 시대가 어떤 자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가? (9절)

- ㉠** (1) 그 경종은 '안일(安逸)한 부녀'와 '염려 없는 딸들'에게 물려질 것이다.  
 (2) 즉 편안하게 침대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자들과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만하여 아무 염려나 근심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곤경의 시대가 임할 것이다.  
 (3) 이것은 세상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 행복을 거는 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만나게 될

그 비참한 실망과 괴로움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참조, 잠 6:9, 10; 21:17; 23:21).

- (4) 사도 바울은 '일락(逸樂)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였다(딤펴전 5:6).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태한 마음과 안주(安住)하려는 생활 태도에서 벗어나 땀흘려 수고하는 노동의 귀중함을 인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선용해야 할 것이다(참조, 신 12:7; 시 128:2; 전 3:13; 엡 5:16; 골 4:5).

13. **㉠** 안일에 빠진 백성에게 임할 재앙은 무엇인가? (10절)

- ㉠** (1)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 (2) 그들은 근심과 걱정으로 지새워야 할 고난의 날들을 맛보게 될 것이며 그들은 곡물의 결핍으로 고생할 것이다.
- (3) 이것은 안일에 빠진 백성들에게는 앗수르의 산헤립이 그 땅을 침입해 올 때 가난과 참회가 따르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세속적 축복과 씩을 음식에 지나치게 집착한 백성에게 포도주와 곡물의 결핍을 경고함으로써 그들의 영성을 일깨운다(참조, 렘 48:32; 미 7:1).

14. **㉠** 회개에 대한 축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1절)

- ㉠** (1) 회개하라는 말이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베로 허리를 동일지이다'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참조, 왕하 17:13).
- (2) 이것은 사치와 일락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근신과 경건의 옷으로 갈아입어 환난을 면하라는 회개의 요청이다.
- (3) 환난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를 검비케 하는 것이며 진실된 자책과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 (4) 또한 환난에 대한 최선의 준비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참회의 삶을 살며 모든 육적인 즐거움을 버리는 것이다(참조, 삼하 22:7; 대상 4:10; 욥 5:19; 시 32:7; 계 2:22).
- (5)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는 일종의 특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15. **㉠** 안일한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12-14절)

- ㉠** (1) 첫째, 빈곤으로 인해 애곡할 것이다(참조, 신 28:48).
- (2) 둘째, 쥘레나무와 가시나무 곧 죄와 저주의 열매가 땅에 올라와서 그 땅은 경작하지 못하여 내버려 두게 될 것이다.
- (3) 셋째, 궁전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게 될 것이다. 즉 포로 생활로 인해 그들의 조직은 허물어질 것이며 또한 성읍은 폐허가 될 것이다.
- (4) 그리고 산과 망대는 제구실을 못 하고 동물들의 굴혈이 될 것이다(참조, 렘 50:39).
- (5) 이와 같이 안일은 강산을 황폐케 하며 정치·경제·사회적 무질서와 퇴보를 초래한다.
- (6)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신성한 의무이다(참조, 창 2:15; 레 23:3).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고 강조하였다(참조, 마 25:26; 롬 12:11; 히 6:12).

16. **㉠** '회락의 성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이것은 경건치 못한 쾌락을 일삼는 무리를 가리킨다.
- (2) 마치 환락(歡樂)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창 19:4-16)처럼 육체적 쾌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의미한다.
- (3) 사실상 쾌락은 언제나 위험한 것이다. 사람을 범죄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는 것이 쾌락의 목적이다(참조, 딤펴후 3:4; 딤펴 3:3).

(4)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희락의 성읍'을 목격할 수 있다. 극장, 술집, 오락장 등 타락의 온상들이 우리 주위에 늘어나고 있다. 이 세상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결한 삶으로 개도해 가야 한다(참조, 엡6:13-18).

17. **㉠** 축복된 시대가 어떻게 도래할 것인가? (15절)

- ㉠** (1) '위에서부터 성신(聖神)을 부어 주심으로써' 온다.  
 (2)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한 경륜을 말해 주고 있다.  
 (3) 왜냐하면 축복된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로써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을 주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좋은 시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신을 부어 주심'은 마 7:11과 눅 11:13과의 비교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사실상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시는 것이다.  
 (5) 여기서 진정한 축복은 위로부터 내려움을 알 수 있다. 성도들은 이 땅의 일을 위해 동분 서주(東奔西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더 보람 있고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참조, 골 3:2; 딤후 2:12).

18. **㉠** '성신(聖神)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나' 라는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5절)

- ㉠** (1)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뒤따를 오순절 성령의 사역을 가리킨다(참조, 행 2:1-4).  
 (2) 그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와 진리가 넘쳐 날 것이다.  
 (3) 결국 그 동안 이스라엘에게 닫혔던 하늘로부터 성신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곧 이스라엘 전체의 영광으로 승화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일로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良善)과 충성과 은유와 절제라는 모습으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갈 6:22-26).

19. **㉠**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 (16, 17절)

- ㉠** (1) 첫째, 공평과 의의 세상이 될 것이다. 모든 종류의 백성들, 즉 가난하고 천하며 무시당하는 자들과 부유하고 유식하며 존경을 받는 자들에게 다같이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정당한 원칙과 선과 악에 대한 확고한 자각이 있을 것이다.  
 (2) 여기서 '의'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리키며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어지는 의로움은 우리에게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주며 나아가 영원한 세계를 향한 영적 소망이 된다.  
 (3) 둘째, 화평과 평안이 깃들 것이다. 이것은 '최후의 온전한 때', 즉 그리스도가 통치하실 때 임할 은혜이다. 그리스도 왕국에서 궁극적인 행복은 언제나 안식과 평안의 상태로 표현되었다(참조, 시 95:11; 욥 3:17; 렘 6:16; 마 11:28; 히 4:9-11).  
 (4)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인간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은 그 자취를 감추일 것이며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품과 인격에 의한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20. **㉠**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축복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들은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을 것이다.  
 (2) 즉 하나님의 백성은 화평과 안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참조, 계 7:17; 21:4; 22:3).  
 (3) 이것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의 결과로서 그의 백성에게 임할 축복이다(참조, 렘 23:6).  
 (4)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端正)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生活)을 하려 함이니라' (딤후 2:2)고 말씀하셨다.  
 (5) 이와 같이 성도들은 경건과 정직한 생활 가운데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참조, 딤후 4:8; 딤후 2:12).

21. **㉠** '삼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들을 불순한 일기로 인한 피해에서 지키실 것이며 또한 우박을 보내실 때 삼림과 사막에 내리게 하시리라는 말이다.
- (2) 즉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벗기사 다른 사람들에게 지우시리라는 것이다.
- (3)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커다란 안보의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장래를 바라보고 그들의 평지에 성읍을 지어 다시는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함락될 위험 아래 있지 않음을 나타내 보이리라는 뜻이다.
- (4) 혹자는 이 말을 유대인들이 앗수르의 침략을 받아 고난을 당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설명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들을 악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그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찬송케 하신다(참조, 시 18:2, 3; 23:2; 139:9, 10).

22. ㉠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비옥함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20절)

- Ⓐ (1) 이사야는 풍성함과 풍족함을 상징적 표현 곧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고 묘사했다.
- (2) 이사야는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 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 될 것인지를 보여 준다.
- (3) 전에 그는 원수들의 기습으로 온 땅이 초토화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13, 14절).
- (4)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옥한 토양과 풍성한 소출을 허락하시므로 소와 나귀들이 무성한 이삭을 먹게 되리라고 예언한다.
- (5) 어떤 학자는 이 말을 영적으로 풀이하여 신령한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들을 복음 안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설명한다(참조, 호 10:12; 눅 8:5).

연구자료

그리스도인과 오락

오락(amusements)은 복잡하고 따분한 생활에서 벗어나 기분전환을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이전의 기독교의 입장은 약간 청교도적인 색채가 있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도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한 예로 음악만 들더라도 베토벤(Beethoven)과 같은 클래식(classic)은 좋은 것이며 비틀즈(Beatle) 따위의 팝송(popular song)은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런 왜곡(歪曲)된 사고는 결국 그리스도인의 취미 생활과 오락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까지 발전했던 것이다. 물론 잔인, 음란, 폭력 등을 내포하는 취미나 오락은 멀리해야 한다(참조, 13절).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인의 오락 문제는 그 취미의 대상이 악한 본능을 자극하여 죄로 유도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혼이 주 안에서 안식을 얻듯이 육신 역시 건전한 오락을 통해 피로를 푸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 제 33 장 앓수르 (Assyria) 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3 앓수르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다 / 4-6 예루살렘의 해방에 대한 고찰(考察) / 7-12 유다의 처참한 상태를 묘사하다 / 13-16 죄인과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報應) / 17-24 유다의 번영을 예언하다

1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입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네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2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3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4 황충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 오르리라

5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6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7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8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치며 대적이 조약울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9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사른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목엽을 떨어치는도다

1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이 우리니

11 너희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12 민족들은 불에 굽는 찢을 갈겼고 베어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니

13 너희 면데 있는 자들이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이 나의 권능을 알라

14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

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피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7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18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19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네가 알아 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20 우리의 절기 시키는 시온성을 보라 네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21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 곳은 마치 노닐하는 배나 큰 배가 동행치 못할 들린 강이 넓은 하수나 같을 것이라

22 대저 여호와와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23 너의 뚝대 줄이 풀렸었고 뚝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뚝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24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1. **㉠ 본장의 특징을 말하라.**

- ㉡** (1) 본장은 앞장(32장)과 같은 사건, 즉 앗수르의 산헤립에 의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환난 그리고 앗수르 군대의 멸망에 의해 그들이 환난에서 구원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다.
- (2) 그러한 사건들이 이 예언 속에 하나의 파노라마(panorama)처럼 전개되어 있다.
- (3)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의 알력과 투쟁이 대비를 이루어 전개되어 있다.
- (4) 결국 이방 민족의 멸망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로 그 내용은 정리되어 있다.
- (5) 이와 같이 본장은 비록 그 과정에 있어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중국적인 승리와 영광이 보장되어 있음을 확신케 한다(참조, 고전 15:54; 벧 후 3:13; 계 19:11-21).

2. **㉠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여기서 '너'는 앗수르의 왕 산헤립을 가리킨다.
- (2) 남유다는 산헤립과의 협상이 실패로 끝나자 (7절), 대신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어 힘겨움게 지불하였으나(왕하 18:14) 그들에게는 유익이 없었다(18절).
- (3) 이미 남유다의 전국토(全國土)를 약탈하였고 유린도 하였지만 산헤립은 아직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 (4) 모든 유다 백성들은 공포에 떨며 깊은 슬픔에 잠긴 채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사야는 강력한 정복자 앗수르의 왕 산헤립을 '너'라고 지칭하면서 그가 겪어야 할 재난을 예언하고 있다.

3. **㉠ 앗수르인의 죄는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학대(虐待)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죄를 범했다.
- (2) 즉 그들은 결코 자기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 자 또 다름 구실도 없는 자를 학대했고 항상 자기에게 거저 없이 대했던 자들을 패역하게 대했다.
- (3) 이와 같이 앗수르인은 잔인성과 배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였다(참조, 딤후 3:1-4).
- (4) 그러므로 별다른 연고 없이 이웃과 형제를 시기하며 혈통은 등 악을 행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더 격노케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아야 한다(참조, 삼하 12:7).

4. **㉠ 죄로 인해 앗수르가 받게 될 형벌은 무엇인가? (1절)**

- ㉡** (1) 그들은 학대를 당할 것이며 사람이 그들을 속일 형벌을 받을 것이다.
- (2) 그들은 무죄한 백성을 학대한 그 학대를 당할 것이며 그들이 속인 그 속임을 받을 것이다.
- (3) 이와 같이 앗수르는 제가 지은 재앙이 제 몸에 다칠 것이다.
- (4) 그 구체적 형벌로써 유다 성읍을 탈취한 그들은 천사에 의해 자기 군대가 멸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자기 진영이 탈취했던 자들에 의해 다시 약탈당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참조, 대하 32:21) 산헤립의 아들 중에 그를 살해할 자가 있을 것이다(참조, 37:38).
- (5) 이웃을 이용하여 욕심을 채우려던 자들이 오히려 그 이용에 말려들어 욕을 보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성도들은 오직 진실과 자비로 이웃을 대해야 한다(참조, 출 20:16; 레 19:13; 시 15:3; 잠 14:21; 엡 4:25).

5. **㉠ 민족의 위협을 인식한 이사야의 기도는 무엇인가? (2절)**

- ㉡** (1)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라는 내용의 기도이다.

- (2) 이사야는 그의 백성과 민족의 위협을 절실히 인식하고 기도 없이는 구원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예언과 함께 기도를 하였다(참조, 렘33:3).
- (3)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을 비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로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한 간절한 기도이므로 타인에게도 본이 된다(참조, 8:17;26:8).
- (4) 성도들은 국토 방위를 위해 수고하는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성도들은 아침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왕상 8:38; 느 1:6; 단 6:13; 롬 1:9; 엡 6:18; 골 4:2).

6. **㉠** **앗수르의 패주에 대한 예언을 어떻게 기록했는가?** (3절)

- ㉠** (1) '진동시키시는 소리로 인하여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인하여 열방이 흩어졌나이다' 라고 기록했다.
- (2) 여기서 '진동'은 비유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라 그 징계의 표징을 나타내심을 의미한다(참조, 시 29:3-9).
- (3) 또 '민족들'이란 여러 나라에서 차출되어 산헤립의 대군을 조직한 연합군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발하시자 앗수르 군대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민족의 연합군은 사방으로 도주하였다.

7. **㉠** **패배한 앗수르에 대한 유다의 보복은 어떤 것인가?** (4절)

- ㉠** (1) '황충(蝗蟲)의 모임같이 사람이 너희 노략물(擄掠物)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의 뛰어들어 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라고 이사야는 그 보복을 말하고 있다.
- (2) 앗수르 군대가 대파되면 남은 자들은 도망치게 되고 그 뒤에는 슬한 전리품들이 남게 될 것이다.
- (3) 그것을 유다가 모으고 그 뒤에 도망자에 대한 반격이 따르게 될 것이다. 앗수르 왕의 명성은 사라지고 유다는 황충이나 메뚜기의 무리가 밭이나 나무를 황량하게 만드는 것처럼 신속히 앗수르에 대한 파괴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참조, 욥 1:4;2:25).
- (4) 이와 같이 유다인은 그들의 모든 성읍들이 황폐한 것을 보고 복구하는 조처로서 앗수르 진영의 노획물들을 탈취할 것이다(참조, 잠 13:22; 21:6).

8. **㉠** **앗수르의 노략물이 유다에 의해 모아짐으로 어떤 은혜가 임할 것인가?** (5, 6절)

- ㉠** (1)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 찬미를 받으실 것이다. 즉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들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써 유다 백성은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참조, 출 15:1).
- (2) 또한 그의 백성은 그 사건으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공평과 의를 내리시고 아울러 그 공평과 의로 다스려지게 하신다(참조, 54:14).
- (3) 그리고 그들이 의지할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있다. 즉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한 것'이다.
- (4) 이것은 환난 중에서도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의로운 질서를 세우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인 동시에 축복이다.
- (5) 이와 같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보호하신다(참조, 신 32:10; 시 17:8).

9. **㉠** **유다 민족에게 가장 귀한 재화(財貨)는 무엇이었는가?** (6절)

- ㉠** (1) 유다는 산헤립이 이끈 앗수르 군대에 의해서 견고한 성이 유린되었고(36:1) 귀한 재물들을 약탈당했다(왕하 18:14-16).
- (2) 그러나 유다에게 가장 귀한 재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敬畏)'하는 사상이었다.
- (3) 그로 인해 하나님은 유다에게 불행을 극복하고 씨를 뿌리며 포도나무를 다시 심을 수 있는(왕하 19:19) 용기를 주셨고 국난을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셨다.

- (4) 이와 같이 유다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는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 (5)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잠 14:27)고 기록하였다(참조, 시 111:10; 잠 1:7; 28:14; 미 6:9).

10. **㉠** 유다에 임할 큰 환난에 대한 예고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가? (7-9절)

- ㉠** (1) 첫째, 그 대적은 매우 파렴치하고 포악할 것이다. 그들은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약탈하고 살해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오만하고 거만하며 무정하여 불쌍한 자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으며 인류를 짓밟는 일에서 긍지를 느끼는 자들이다.
- (2) 둘째, 그들은 조약(條約)을 마음대로 파기(破棄)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협정도 안전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될 수 없을 것이다(참조, 렘 11:10).
- (3) 셋째, 그 대적으로 인하여 무역과 통상이 중지되어 '대로가 황폐'해질 것이다.
- (4) 뿐만 아니라 땅에서 나는 산물을 그 대적이 먹어 버리거나 짓밟아 버림으로 유다인은 굶주릴 것이며 그 땅은 황무해질 것이다.
- (5) 그리고 백향목으로 유명한 레바논, 장미꽃으로 유명한 사론, 가축으로 유명한 바산, 곡식으로 유명한 갈멜은 모두 비옥했으나 이제는 광야처럼 될 것이다.

11. **㉠** 용사와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우는 까닭은 무엇인가? (7절)

- ㉠** (1) 히스기야 왕은 전쟁 중에 여러 차례 사신을 산헤립에게 보냈다.
- (2) 첫번째는 B. C. 701년에 평화 협상을 위한 예물을 가지고 라기스로 보냈고(참조, 왕하 18:14), 두번째는 공물과 예물을 가지고 니느웨로 보냈다.
- (3) 세번째는 산헤립이 재침을 하였을 때(참조, 왕하 18:17) 그의 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다.
- (4) 이와 같이 평화의 조건으로 용사, 즉 사신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갔으나 산헤립은 예루살렘 그 자체의 항복을 요구하면서 조약을 파기했다.
- (5)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용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크게 울면서 이 불명예와 경악스런 소식을 왕에게 전했다.
- (6) 성도들은 말씀으로 굳게 무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불신자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12. **㉠** 유다가 고난과 모욕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10-12절)

- ㉠** (1) 사태가 이처럼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귀히 드러내실 것이다.
- (2) 즉 하나님은 지금까지 무관심한 방관자로서 계신 것같이 보였으나 그는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가 만유의 하나님이시며 가장 높은 자보다 더욱 높으시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이다.
- (3) 또한 하나님은 앗수르 사람을 파멸시키실 것이다. 앗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 내뿜는 위협과 살기는 오히려 자신을 삼킬 것이며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거스려 내뿜는 호흡도 자신을 삼킬 것이다.
- (4) 그리고 앗수르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민족들도 앗수르와 더불어 완전히 파멸시키실 것이다. 마치 완전히 타버려서 재만 남은 것처럼 파멸시키실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시험 중에 도우시며 보호하신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편지하였다(고전 10:13).

13. **㉠** 유다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행동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0절)

- Ⓐ (1) ‘일어나며’, ‘높이며’, ‘지극히 높이우리니’ 등으로 표현되었다.
- (2) 하나님은 결코 인간 역사에 대한 방관자가 아니라 단연코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것 같지만 섭리하시며 간섭하고 계신다(참조, 18:4).
- (3) 하나님은 그의 계획 가운데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능력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때 원수들은 혼비백산(魂飛魄散)할 것이며 반면에 그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참조, 살후 1:10).
- (4) 우리들은 조금한 마음으로, 정의와 진리가 외면당하고 착한 사람이 착취당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며 무력(無力)한 분이라고 종종 원망한다.
- (5)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삶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정립하게 될 것이다(참조, 고전 12:6; 엡 1:19; 골 2:12).

14. Ⓢ **앗수르의 세력이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11, 12절)**

- Ⓐ (1) 앗수르 세력은 겨와 짚으로 비유되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심으로 앗수르의 세력은 겨와 짚같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존재가 될 것으로 묘사되었다.
- (2) 아울러 앗수르 군대를 지원했던 민족들의 계획도 횡돌과 불에 사른 가시나무같이 아무런 기지(機智)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나 힘은 한낱 초개(草芥)에 불과하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재력과 권력과 학식으로 이웃을 멸시하며 이용하려는 자세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임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시 147:6; 잠 22:4; 미 6:8; 빌 2:3; 골 2:18; 벧전 5:5, 6).

15. Ⓢ **‘먼 데 있는 자들’과 ‘가까이 있는 자들’은 각각 누구를 지칭하는가? (13절)**

- Ⓐ (1) ‘먼 데 있는 자들’은 앗수르를 패배시킨 하나님의 심판과 그 능력의 소식을 접하게 될 원방(遠方) 민족들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앗수르의 참패를 목격한 자들 곧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 (3) 이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소수의 사람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매우 먼 지역에 있는 자들에게도 알려진다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지역적 한계를 초월할 것이며 그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 없이 전파될 것이다(참조, 렘 31:10; 마 24:14; 막 13:10; 행 1:8; 롬 9:17).

16. Ⓢ **앗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에 어떤 파급 효과가 있었는가? (14절)**

- Ⓐ (1) 앗수르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은 시온의 경건치 않은 자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었다.
- (2) 즉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무서운 일을 행했는가를 알았을 때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격동케 했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움에 떨었다.
- (3)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형적 신앙을 미끼로 은밀한 죄의 소굴에 거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위선자임을 증명한다.
- (4) 이와 같이 입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생활에 있어서는 세인(世人)처럼 죄를 사랑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크게 책망받을 것이다(참조, 29:13).
- (5) 그러므로 성도라는 사실을 빙자하여 오히려 남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무리들은 ‘삼키는 불’, 즉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참조, 행 8:18, 19).

17. Ⓢ **의롭게 행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15절)**

- Ⓐ (1) 그는 조금도 부당한 일을 고의적으로 행하지 않으며 사람에게 들려야 할 것은 마땅히 사람에게 들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것을 합당하게 들리는 것을 잊지 않는다(참

조, 욥 27:6; 시 37:6; 잠 11:18).

- (2) 또한 그는 정직히 말한다. 그는 참되고 올바른 것을 말하고 행한다.
- (3) 그리고 그는 그릇된 방법으로 얻은 것을 탐내지 않고 경멸한다. 그는 이웃을 착취함으로써 스스로를 부유케 하는 것을 천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정직하게 얻어지지 않은 것은 가증히 여긴다(참조, 잠 10:2; 21:6; 딤펢전 6:17).
- (4) 뿐만 아니라 그는 정의를 굽게 하는 뇌물이 손에 들어오면 그에게 뇌물이 들어온 사실 자체를 모욕으로 생각하여 혐오하면서 거절한다(참조, 출 23:8; 잠 15:27; 전 7:7).
- (5) 아울러 그는 잔인한 일이나 피흘리려는 피나 보복을 행하지 않는다(참조, 잠 1:14, 15).
- (6) 그는 죄를 미워하므로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며 범죄의 기회를 경계한다.

18. **㉠** 의로운 자가 받는 위로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 (2) 곧 그는 안전하게 될 것이다. 만세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높은 망대가 되어 주실 것이며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참조, 시 8:2; 18:2).
- (3) 또한 그는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것이다. 여기서 '양식'과 '물'은 일상적인 필수품을 의미한다(참조, 시 34:10).
- (4) 이와 같이 의로운 자는 온갖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그의 생활은 궁핍으로 곤경에 처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19. **㉠** 하나님이 보호하실 유다의 형통함은 어떤 것인가? (17-20절)

- ㉠** (1) 첫째,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의 왕을 보며 광활(廣濶)한 땅을 목도(目賭)' 할 것이다. 즉 불안정하고 절망적 상태의 유다가 그 지위와 영광을 회복할 것이며 그 경계가 확장될 것이다(참조, 시 45:2; 슥 9:17).
- (2) 둘째, 그들이 겪었던 그 두려움에 대한 기억은 그들이 구원된 것에 대한 즐거움을 더해 줄 것이다. 즉 그 두려운 일이 끝났을 때 그들은 즐겁게 그것을 회상할 것이다.
- (3) 셋째, 이상한 방언을 사용하므로 의사 소통이 곤란했던 강포한 앗수르 사람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 (4) 넷째, 이제는 모든 나라 백성이 모여 축제를 행하는 요새이며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정리되어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를 확보할 것이며 그 안에는 전능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이다(참조, 창 28:15).
- (5) 이와 같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결과는 형통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계산되지 않은 전적인 순종에서 기인(起因)한다(참조, 창 26:5; 신 30:2; 삼상 15:22; 행 5:29).

20. **㉠** 예루살렘에 약속된 사실은 무엇인가? (20절)

- ㉠** (1)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안정된 처소'가 된다. 그들은 이전처럼 전쟁이나 핍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고 방해당하지 않을 것이다(참조, 시 128:5, 6).
- (2) 또한 예루살렘은 '움겨지지 아니할 장막'이 된다. 즉 예루살렘은 비록 천지가 요동할 지라도 그 신성한 특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확고한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대하 20:20; 시 40:2).
- (3)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은 안정과 평강이 보장될 것이다. 이것은 물질의 풍요와 사회의 안정으로 말미암은 성질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이다(참조, 시 32:10; 마 27:43; 빌 3:3).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이 같은 축복은 약속된 것이다

(참조, 마 28:20).

21. **㉠**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어 주시는가? (21, 22절)

- ㉠** (1)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에 대한 호위자가 되실 것이다(참조, 시 32:7; 119:114). 하나님께서 위엄 중에 그들과 함께 계시므로 외세의 침략을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 (2) 또한 하나님은 내적으로 그들의 안내자, 지도자가 되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 되시리라.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주시며 아울러 은신처가 되어 주시므로 그의 백성의 심령을 만족케 하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리의 국방이 육·해·공군의 힘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켜지는 것을 기억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더욱 많은 기도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2. **㉠** 앗수르의 패배는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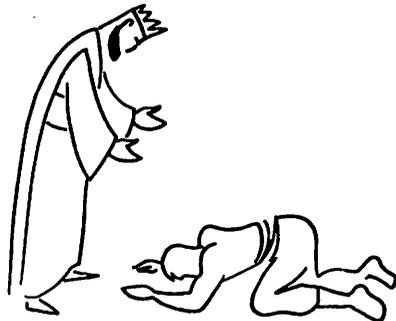
- ㉠** (1) 앗수르의 패배는 배의 파선에 비유되었다. 곧 그 배는 '돛대 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다.'
- (2) 이와 같이 그들의 패배는 너무 철저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리를 저는 자도 공격자를 약탈할 수 있었다.
- (3) 이것은 앗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며 예루살렘 거민들은 아무런 무기도 사용하지 않고 앗수르인의 거주지로부터 재물을 탈취해 부요해지는 것을 뜻한다(참조, 왕하 7:16).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악의 세력과 마귀의 권세는 이 같은 꼴이 될 것이며 성도들은 주의 영광에 참여(參預)할 것이다(참조, 마 13:40-43; 빌 3:21; 골 3:4; 계 22:5).

23. **㉠** 유다의 승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24절)

- ㉠** (1) '그 거민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유다 거민의 고통과 근심이 기쁨과 평화로 바뀌며 더불어 건강을 지니게 될 것이다(참조, 출 15:26; 신 7:15; 잠 4:22; 렘 30:17).
- (2) 또한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赦罪)함을 받을' 것이다. 민족적 심판이 제거됨으로써 민족이란 집합체의 죄책이 사함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거하는 각 사람이 회개하고 개심함으로써 죄를 사함 받을 것이다(참조, 시 51:10, 17).
- (3)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앗수르가 패배하고 유다가 승전보를 울리게 될 때 유다 거민의 병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제거되며 심지어 그들의 죄까지도 용서받게 될 것이다(참조, 마 9:2).

**본장의 요절**

'대저 여호와와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와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와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22절).



# 제 34 장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단락구분 1-7 백성들의 원한을 갚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 / 8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유 / 9-15 악한 세력은 황폐해질 것이다 / 16-17 이 예언에 대한 엄숙한 다짐

1 열국이여 너희는 나아와 들음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음지어다  
 2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륙케 하셨은즉  
 3 그 살륙당한 자는 내어던진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4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무마리 같이 떨리되 그 땅상의 석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5 여호와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리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6 여호와와의 칼이 피 끈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끈 수양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회생을 내시며 에돔 땅에서 큰 살륙을 행하시리라  
 7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8 이것은 여호와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9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향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 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히 없겠고  
 11 땅아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12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영경귀와 새롭이 자라서 시랑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그 동류들 부르며 유패미가 거기 거하여 쉬는 처소를 삼으며  
 15 부영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술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16 너희는 여호와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 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17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재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 1. ㉠ 본장에 나타난 주된 예언의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다.  
 (2) 여기에서는 에돔만이 대적으로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야곱에 대한 에서의 역사 깊은 적의 때문이다(참조, 창36:9, 10; 젤25:12).  
 (3) 이러한 적대감은 이보다 더 오래된 아벨에 대한 가인의 적대심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뱀의 최초의 악으로부터 흘러 나왔다(창3:15).  
 (4) 결국 본장에 나타난 예언의 주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한 복수인데 그 모형적 견본으로 에돔이 선발되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보수(報讐)는 하나님이 친히 담당하신다(참조, 신32:35; 시94:1; 미5:15; 롬12:19; 히10:30).

2. **㉠** 하나님의 권면을 기억하게 될 대상은 누구인가? (1, 2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교회의 원수들에 대해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라고 말하였다.
- (2) 하나님의 권면을 받을 대상은 '열국'과 '민족들'뿐 아니라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 즉 말 못 하는 피조물까지이다.
- (3) 이 같은 표현은 이성(理性)에 의한 판단 능력을 부여받은 인간들이 우둔하여 코앞에 닥친 위험을 깨닫지 못할 때 흔히 사용되었다(참조, 시106:7; 잠28:5; 호4:14; 롬3:11).
- (4) 이것은 앞으로 올 심판이 너무도 명확하여 모든 국가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말 못 하는 피조물조차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참조, 신32:1).

3. **㉠**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2절)

- ㉠** (1) 하나님은 오랫동안 '모든 족속(族屬)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默認)하셨으나'(행 14:16) 이제 더 이상 침묵을 지키시지 않을 것이다.
- (2)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인내로 회개의 기회를 충분히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분노를 예상해야 한다.
- (3)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롱하며 꺾박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정의와 능력을 비웃으며 도전한 자들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멸망을 선포하신다(참조, 렘25:9).

4. **㉠** 택한 백성의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3, 4절)

- ㉠** (1) '그 살륙당한 자는 내어던진바 되며 그 사체(死體)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또한 '하늘의 만상(萬象)이 사라지고 그 만상의 쇠잔(衰殘)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될 것이다.
- (3) 즉 그들은 매장을 하지 않고 개나 독수리에게 던져진 시체처럼 그들은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며(참조, 렘22:19), 모든 천체가 흔들리며 해와 별이 빛을 잃은 것처럼 두려움과 슬픈 탄식으로 가득 찰 것이다(참조, 마24:29; 벰후3:10; 계6:14).
- (4) 이와 같이 자신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앞세워 주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의 받을 보상은 수치와 모욕과 두려움뿐이다.

5. **㉠** '에돔'은 무엇에 대한 표현인가? (5절)

- ㉠** (1) 여기서 택한 백성의 원수를 '에돔'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지난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행할 때 에돔 땅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에돔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밟고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민 20:14-21).
- (3) 그 후부터 에돔은 이스라엘의 적이 되었다. 다윗이 에돔을 정복한 일도 있지만(참조, 삼하9:14), 에돔은 유다의 가장 큰 원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4) 에돔은 아하스 시대에 유다를 침략했으며(대하 28:17), 또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할 때는 언제나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 (5) 그래서 '에돔'이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대표격으로 나타났다.
- (6) 성도를 유혹하여 타락의 길을 걷게 하며 성도의 신앙 생활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통상 '사단'(Satan)이라 칭한다(참조, 창3:4, 5; 욥1:9-11; 스펴3:1; 눅9:42; 요13:2).

6. **㉠** '여호와와의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 (1) 여기서 '여호와와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
- (2) 이 '여호와와의 칼'이 '하늘에서 죽하게 마셨다'고 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정의가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 (3) 그리고 '여호와의 칼'은 '에돔 위에 내릴'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행하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의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운명에 처해 있는 그 백성 위에 내릴 것이다.
- (4) 이와 같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 자들은 참으로 비참하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칼은 반드시 여호와의 저주를 수반하고 그 저주의 선고는 인간의 힘으로 유보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7. ㉠ **하나님은 죄에 대한 배상으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6절)**

- ㉠ (1) 레위기의 제사 규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제단 앞에 뿌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레 1:5, 11, 15; 2:2, 8).
- (2) 여기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며 그 죄 사함에 대한 것으로 피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참조, 롬5:10; 엡 2:16; 골 1:22; 요일 2:2).
-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제물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희생 제물이 될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자랑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로 인해 위축되지 않으며 오히려 영생에 대한 보장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여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려야 한다(참조, 고전 3:19-21; 딤후 4:10; 벴후 1:4).

8. ㉠ **'보스라'는 어디를 말하는가? (7절)**

- ㉠ (1) 목장이란 뜻의 '보스라'는 에돔의 중요한 요새(要塞) 도성으로서 에돔 왕 요밥의 고향이다(창 36:33; 대상 1:44).
- (2) 이곳은 사해에서 남동쪽으로 32km 떨어진 현재의 엘 부사이레(EI-Busaireh)와 동일시되는 곳이다.
- (3) '보스라'는 급류가 흐르는 깊은 계곡에 의해 둘러싸인 산의 한 들출부에 건설되었으며 요새 성벽들에 의해 방어진 산능선을 따라 사해의 한 곳(岬)까지 연결되어 있는 난공 불락(難攻不落)의 요새였다.
- (4) 그래서 에돔을 저주하는 예언자의 예언 속에서 '보스라'는 에돔의 권력을 상징하고 있으며 '보스라'의 파괴는 전(全)에돔의 파멸을 뜻하고 있다(참조, 렘 49:13, 22; 암 1:12).

9. ㉠ **에돔의 멸망에 있어서 신분상 차별이 있는가? (6, 7 절)**

- ㉠ (1) 본문에서 '염소'나 '수양'은 낮은 신분을 나타내고, '송아지'와 '수소'는 유명 인사나 지도급의 상류층을 나타낸다.
- (2)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치 않은 에돔의 심판에 있어 그들을 차별 없이 멸망시킬 것이다.
- (3)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은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
- (4)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외모나 지위 혹은 권력에 따라 차별 대우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한낱 피조물로 그리고 별거벗은 죄인으로 서게 될 뿐이다(참조, 롬 3:22; 약 2:1-4).

10. ㉠ **'시온'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8절)**

- ㉠ (1) '시온'이라는 이름은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 사업(삼하 5:6-10)에서 시온 산성이라는 표현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다.
- (2) 다윗은 여부스족의 성인 시온 산성을 탈취한 후 그 성을 다윗 성이라 불렀다. 그런 까

닭에 다윗 성은 시온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삼하5:7,9;왕상8:1;대상11:5,7;대하5:2).

- (3) 그 후 솔로몬이 다윗 성으로부터 새로 지은 성전으로 언약궤를 옮기므로 시온이란 이름이 성전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참조, 시74:2;84:7).
- (4) 그리고 시온은 종종 공동체로서의 예루살렘 거민들 또는 하나님의 장중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참조, 1:27;시97:8).
- (5) 그러므로 '시온'은 거룩하고 위대한 성(城)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과 상징이 되고 있다(참조, 엡5:27).

11. ㉠ **예돔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報讐)는 무엇을 묘사하는 것인가? (9-15절)**

- ㉠ (1) 이 예언은 매우 암담해 보인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예돔과 보스라에 대한 예언 이상의 것을 가리키고 있다.
- (2) 첫째, 이 예언은 나라와 민족과 가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변화들이 우연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되어짐을 묘사해 주고 있다(참조, 마10:29).
- (3) 둘째, 이 예언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서 그 백성들의 원수에 대한 당연한 형벌을 묘사해 주고 있다.
- (4) 셋째, 그것은 이 사악한 세상이 최종적으로 황폐케 되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 세상은 결국 불사르기 위하여 심판의 날까지 보존되고 있는 것이다(참조, 벰후3:7).
- (5) 결국 이 예언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과 그 형벌에 대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12. ㉠ **소돔의 멸망을 연상케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 (9,10절)**

- ㉠ (1) 도덕적 타락과 성적(性的) 문란이 포화 상태에 이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하나님은 유향과 불을 내리심으로 그들의 추악한 모습에 종지부를 찍으셨다(창19:28,24).
- (2) 한편 예돔의 멸망이 바로 이것과 비교되고 있다. '예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瀝青)이 되고 그 티끌은 유향(硫黃)이 되고 그 땅은 불 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다.
- (3) 이와 같은 사실과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즉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창9:13-15)을 생각해 볼 때 장차 올 심판은 불의 심판임에 분명하다(참조, 마25:41;벰후3:10,12).

13. ㉠ **'당아'(塘鴉)는 무엇인가? (11절)**

- ㉠ (1) '당아'(pelican)는 낮은 턱에 붙어 있는 주머니와 더불어 굉장히 큰 부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유명한 골갈퀴를 가지고 있는 새이다(참조, 레11:18;신14:17;시102:6;슥2:14).
- (2) 이들은 주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떼를 지어 살아간다. 그러므로 이들의 출현은 곧 예돔 성읍의 형편이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고 볼 수 있다.

14. ㉠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예돔 성읍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11-15절)**

- ㉠ (1) 그곳은 두렵고 사나운 짐승들과 새들의 거처와 소굴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그곳을 파멸과 멸망의 표적지로 삼으실 것이다.
- (2) 그리고 그곳의 높은 자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며 그 누구도 이 폐허된 성읍을 도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 (3) 또한 난공 불락의 성읍과 궁궐들이 광야처럼 될 것이다. 그 궁궐에는 저주의 산물인 가시나무와 엉겅퀴(참조, 창3:18)가 자랄 것이며 역새가 돌아나고 송냥이와 이리의 소굴이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자신의 안식처가 짐승의 거처로 바뀔 것

이며 자신의 부귀와 권력은 저주의 불씨가 될 것이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여도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5) 결국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영원히 눈물과 후회로 살아갈 것이다(참조, 렘 23:40; 살후 1:9). 이것은 죄인의 최후를 적절히 묘사해 준 것이다.

15. **㉠**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심판 선언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을 무엇이라고 했는가?(16절)

**㉠** (1) '여호와와 책'이라고 했다.

(2) 당시 예언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것이었으므로 여기서 언급한 '여호와와 책'이란 예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교훈을 담은 책이라 할 수 있다.

(3) 이 말씀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어' 상호간에 조화와 일치될 이루며 한치의 오류나 모순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4) 성도들은 이것을 거룩한 출처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으로 여기고(참조, 59:21; 딤후 3:14), 이것을 상고(詳考)함으로써 성도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케 해야 한다(참조, 요5:39; 행 17:11).

16. **㉠** 에돔의 멸망은 우연한 사건인가? (17절)

**㉠** (1) 에돔의 멸망은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親手)로 줄을 띠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2) 즉 에돔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며 그 땅이 끔찍한 금수(禽獸)로 인해 황폐해질 것이라는 예언과 성취는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그것이 실제로 되어진 것이다(참조, 시 78:55).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일들을 경륜(經綸)하신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일부분이다(참조, 민 26:55; 수 7:16; 삼상 14:41; 잠 1:33; 은 1:7).

## 연구자료

###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 Anthropomorphism)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치 인간의 모습처럼 묘사된 곳이 많다. 이러한 묘사는 아주 자세하여 하나님이 때때로 화를 내시고(2절), 질투도 하시며(출 34:14), 후회도 하시는(삼상 15:11) 분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지닌 것처럼 하나님의 발(출 24:10), 여호와와 손(62:3), 여호와와 얼굴(민 6:25) 등의 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여러 모습을 인간의 형상이나 감정 상태로 묘사한 것을 신인동형동성론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개념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그 타당성과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자.

#### 1. 문제점

하나님의 행동을 인간의 모습이나 감정 상태로 표현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될 독자의 오해는 당연하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는데(약 1:17; 히 6:17) 자신이 이미 결정

한 일에 대하여 왜 후회하고(삼상 15:11) 근심하여 한탄하시는가? (창 6:6, 7) 또 하나님은 영(靈)이라고 했는데(요 4:24) 어떻게 손과 발이 있으며 거니실 수 있는가(창 3:8)하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다. 더우기 성경은 하나님을 신체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면서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40:18)고 말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율 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 2. 의미

우리는 이상과 같은 문제점들에 집착하여 성경에 모순이 있다고 단정짓기 전에 성경의 성격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하나님의 감동( inspiration of God)으로 기록된 성경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 주어진 책이라는 점이다(딤후 3:15-17). 따라서 죄를 짓고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활동과 의도를 인간 편에서 인간들의 용어으로써 표현하셨으며 바로 그 길만이 비록 타락하기는 했어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들을 이해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은 영이라고 선언하시면서 자신의 활동을 신적인 용어-물론 그 용어 자체가 인간적인 수단의 하나이기는 하지만-로만 나열하신다면 그것이 인간과 어떤 연관이 있겠는가. 결국 신인동형동성론적 표현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산물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해야 하며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성경 내에서 사용되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감사의 내용인 것이다.

## 3. 결론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근심하시며', '한탄하셨다'는 등의 표현은 인간의 이해 수준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정 묘사이다. 즉 이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로서 이러한 표현이 인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또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 표현이 갖는 타당성과 아울러 그 효과를 인정하신 것과 다름 없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쓰실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타락한 상태에 대하여 개탄(慨嘆)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해야 할 것이다.

## 제 35 장 그리스도 왕국의 영광

단락구분 1-2 끝 날에 나타날 구원의 영광 / 3-4 약하고 겁내는 자에 대한 격려 / 5-6 기적들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에서 일어날 것이다 / 7-9 성도는 구원의 길로 인도될 것이다 / 10 구속된 자의 영원한 기쁨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고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4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풀이 솟

졌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의 늪던 못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9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와와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화관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고

### 1. ㉠ 성도들의 심령에 큰 기쁨을 심어 주는 본장의 예언을 간략히 말하라.

- ㉠ (1) 앞장(34장)에서 우리는 암담하고 무서운 혼란의 광경을 보았으나 본장에서는 영광과 기쁨의 광경을 볼 수 있다.
- (2) 앞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이 언급되었고 본장에서는 구속받은 자들에 대해 약속된 기쁨이 강한 대비를 이루며 언급되었다.
- (3) 특히 구속받은 자들에 대한 약속된 기쁨은 육체적인 패락이나 일확 천금으로 인한 쾌감 혹은 만사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한 행복감 이상의 것이다.
- (4) 즉 억압과 착취가 없으며 슬픔과 고통이 존재하지 않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축복만이 있는 곳으로 인도되는 것이 구속받은 자들에게 약속된 기쁨이다(참조, 시 16:11; 30:5; 132:16; 눅 2:10; 롬 14:17).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실의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장차 올 영광과 영생을 소망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성경은 성도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찬송과 헌금을 말씀하고 있다(참조, 대하 24:10; 스 3:12; 시 9:2; 28:7; 고후 8:2).

### 2. ㉠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1-7절)

- ㉠ (1) 여러 가지 죄의 부산물 대신에 성결과 은유와 헌신의 생활을 경주할 것이다.
- (2) 그리고 탄식과 절망의 지배를 받던 생활이 하나님의 진리가 인간 영혼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기쁨이 증만할 것이다.
- (3)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다'. 즉 만연(蔓延)된 영적 무지가 치료되어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가치와 사랑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 (4) 아울러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될 것이다.' 도덕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무능한 자들이 중생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고 그의 성호를 증거할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병어리의 혀' 곧 죄에 대해 침묵하던 자들이 불의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를 것이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근원적인 것으로부터의 개혁이 수반된다(참조, 히 9:10).

3. **㉠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가?(1,2절)**

- ㉠** (1) 이것은 신약 시대에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사악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어 은화한 축복의 심령으로 바뀌어지는 복음 사역이 왕성해질 것을 의미한다.
- (2) 그 변화는 인간에 대한 변화이며 또한 자연에 대한 변화로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 왕국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
- (3)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변화는 구속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며 동시에 시공간의 제한을 초월한 복음 전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갈 2:20)같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참조, 빌 1:21).

4. **㉠ 성도간에 피차 협조할 것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3절)**

- ㉠** (1)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라고 표현되었다.
- (2) 교회에는 건강하고 부유하고 학식있는 형제도 있고, 나약하고 가난하며 못 배운 형제도 있다.
- (3)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린 것같이(출 17:12) 피차 격려하며 협조할 것을 부탁하셨다(참조 고전 3:1; 갈 6:1).
- (4) 사도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擔當)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롬 15:1)라고 말했다.
- (5) 이와 같이 성도의 생활은 피차 권면하며 격려하고 사랑을 공급하는 상부 상호(相扶相助)의 실천적 자세여야 한다(참조, 스후 7:9; 살전 5:11, 15; 벧전 1:22).

5. **㉠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은 무엇인가?(4절)**

- ㉠** (1)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報讐)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다.
- (2) 이것은 신앙이 흔들리고 절망과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
- (3) 그 격려의 말씀은 믿음을 굳게 지키라,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主)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안하고 초조하며 낙심될 때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에도 힘쓰며 찬양으로 주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참조, 수 1:7; 대하 32:7; 시 27:14; 요 16:33).

6. **㉠ 하나님이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4절)**

- ㉠** (1) '하나님이 오사 보수(報讐)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 (2) 즉 당신의 원수를 처벌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백성의 구제를 위해 오신다.
-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의 사슬에서 신음하는 택한 백성들의 구속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궁극적 목적 또한 길이 참은 성도들에 대한 구원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원수에 대한 형벌보다 성도 자신에 대한 구원과 영광에 관심이 집중 되는 것이다(참조, 엡 3:6; 히 3:14; 벧전 5:1).

7. **㉠** '그때에'란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5,6절)

- ㉠** (1) 이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적을 베풀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를 가리킨다 (참조, 마 11:5).
- (2) '그때에'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침 받는 일도 일어나겠지만 영적으로 소경된 자나 귀머거리된 자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메시아의 출현은 육적인 고통으로부터의 해방과 영적인 무지로부터의 회복을 동반한다(참조, 행 26:18).
- (4)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메시아께서는 '은 인류의 고통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다.

8. **㉠**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리라는 의미의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6절)

- ㉠** (1) '광야에서 물이 솟았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고 표현하였다.
- (2)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리라는, 즉 하나님의 구원의 생수가 흘러 마시는 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 뜻이다.
- (3) 아무런 소망도 낙(樂)도 생기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수의 강을 마련해 주시으로써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참조, 스후 14:8; 요 4:14; 6:35; 7:38; 계 21:6; 22:17).
- (4) 이 생수를 마시기 원하는 자에게는 돈이나 학식이나 사회적 신분 등 어떤 조건도 요구되지 않는다. 단지 빈 마음만 준비하면 된다(참조, 55:1).

9. **㉠** '그 길'의 특징은 무엇인가? (8,9절)

- ㉠** (1) '그 길'은 곧 '거룩한 길' 다시 말해 거룩한 예배와 교제의 길이라 불리우고 있다.
- (2) 여기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屬性)이며 택함 받은 자들의 삶 속에 배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 (3) 첫째, '그 길'은 '대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보호받는 길이 될 것이다(참조, 렘 6:16).
- (4) 둘째, '그 길'은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할' 구별된 단독적인 길이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있으며 일치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4:3).
- (5) 셋째, '그 길'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길이 될 것이다. 이 길의 행인은 다른 일에서는 능력이 부족하여 '우매(愚昧)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의 심령은 깨끗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참조, 마 5:3; 고전 1:26).

10. **㉠** 거룩한 길의 결국은 무엇인가? (10절)

- ㉠** (1) 이 길의 결국은 슬픔과 탄식이 전혀 없는 영영한 희락이 될 것이다.
- (2) 즉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며 믿음의 생활을 고수한 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운 생활을 영원히 계속할 것이다.
- (3) 이것은 성도들의 순례(巡禮)가 끝난 천국 도성에서의 생활을 의미한 것으로 간주함이 옳을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의 슬픔과 탄식에 종지부를 찍는 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 (딤후 4:8) 것이다.
- (5)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이러한 희락이 결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련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제 36 장 산헤립이 유다 정복을 계획하다

단락구분 1-3 앗수르 왕이 유다 성읍을 점령하다 / 2-3 앗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유다 지도자들을 만나다 / 4-10 랍사게의 거만하고 욕된 언사 / 11-13 유다 지도자들이 랍사게에게 절제를 요구하다 / 14-20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유혹하다 / 21-22 유다 지도자들이 그 사실을 히스기아에게 보고하다

1 히스기아 왕 십 사 년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 쳐서 취하니라

2 앗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아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뚫 못 수도구 곁에 서매

3 월기야의 아들 궁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션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4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아에게 고하라 앗수르 대왕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5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히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6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에 의지하면 손에 쥘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7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아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8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앗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게 나는 말 이천 필을 주어도 너는 그 말 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9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10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와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11 이에 엘리야김과 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12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나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13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아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 히스기아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앗수르 왕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17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18 혹시 히스기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꺾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9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20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21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22 때에 힐기야의 아들 궁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1. ㉠ 본장의 특징을 말하라.

- ㉠ (1) 본장의 특징은 지금까지의 명령적이고 경고 조의 예언과는 달리 서술적 형식을 빌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점이다.
- (2) 본서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과 다음 네 장(37-39장)까지에서 한 사람의 저명한 역사가로 생각될 만큼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 (3)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단지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썼다가 보다 앞장의 많은 예언들을 해설하고 확증하기 위해 삽입된 것이다.
- (4) 본장과 같은 이야기가 왕하 18, 19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대하 32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 (5)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예언의 정확한 성취는 다른 예언들도 훗날 성취되리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기쁨을 견고케 해주기에 충분하다.
- (6) 성도들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왕들의 계보나 제사 형식 등 일반적으로 따분하다고 생각하여 무감각하게 지나치기 쉬운 부분에도 하나님의 깊은 교훈과 의미가 내재(內在)되어 있기 때문이다(참조, 34:16; 롬 15:4).

2. ㉠ 히스기야 왕은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히스기야(B. C. 715-687)는 유다의 왕 아하스(Ahaz)의 아들이자 계승자였다. 그의 모친은 스가랴의 딸 아비(abi)였다(참조, 왕하 18:2; 대하 29:1).
- (2) 히스기야는 25세 때에 왕위에 올라 29년간 통치했으며, 그의 즉위 년도는 B. C. 701년 산헤립의 원정(遠征)으로 확정된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히스기야 왕 통치 제 14년에 일어났다(왕하 18:13).
- (3) 히스기야는 재위 기간 동안 종교적, 정치적 개혁을 단행했다. 먼저 히스기야는 종교적으로 무질서한 상황 속에 있던 남유다 영토 안의 여러 산당을 제거했으며 주상(柱像)을 깨뜨렸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다(참조, 왕하 18:4).
- (4) 그리고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방어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기혼(Gihon) 샘의 물을 성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바위를 뚫었다(참조, 왕하 20:20; 대하 32:30).
- (5)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으로 말미암아 히스기야 왕은 후세대에게 능력있고 박력있는 통치자이며 경건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다(왕하 18:5).
- (6)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통해 현 정치 지도자들이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즉 참다운 정치는 백성을 위한 깨끗한 정치이지 결코 큰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

3. ㉠ 앗수르는 무엇에 대한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는가? (2절)

- ㉠ (1) 앗수르의 모습은 세상의 교만과 힘에 대한 좋은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
- (2) 그들의 안중(眼中)에 신이란 존재는 없으며 오직 자신(自身)만이 존재할 따름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하는데 가책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았다(참조, 시 10:4).
- (3)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막강한 군사력에 자만하여 약한 자에게 모욕을 줄 뿐 아니라 그들을 착취함으로써 기쁨을 얻었다.
- (4) 이와 같이 기고 만장(氣高萬丈)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군사력을 절대시하는 앗수르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현대인의 모습과도 유사하다(참조, 잠 3:5, 7).

4. ㉠ 앗수르의 침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절)

- Ⓐ (1) 첫째, 백성들이 그들의 의무를 행할지라도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것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징계이다. 즉 달리는 말에게 채찍을 가하는 것과 같다(참조, 잠 3:12; 13:24; 히 12:8; 계 3:19).
- (2) 둘째,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평안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히스기야는 내정의 개혁과 대외적 협약을 통해 안전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참조, 왕하 18:14). 그러나 그 협약은 배신으로 깨지고 나라는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태와 안주(安住)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 (3) 또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대적들이, 심지어는 매우 불경건하고 패역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서 이기도록 허용하신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와 정의 편이므로 잠시의 패배에 절망하거나 비관해서는 안 된다(참조, 롬 8:36, 37).
- (4) 이와 같이 성도들은 세상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도 사업의 실패로 절망할 수 있고 몸의 연약하므로 고통을 당할 수 있으며 이웃의 핍박으로 소외당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세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이다(참조, 고후 4:8; 엡 3:13).
5. ⓐ **앗수르의 사신(使臣) 랍사게와 대면한 유다의 사신은 누구인가? (3절)**
- Ⓐ (1) 유다의 사신은 '헐기야의 아들 궁내 대신(宮內大臣) 엘리야김과 서기관 썬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史官) 요아'였다.
- (2) 본절을 통해서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으로 세 명의 관리를 파송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왕하 18:17).
- (3) 그 세 명의 관리는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였다. 그런데 이 호칭은 앗수르의 직명(職名)으로서 각각 지휘관, 환관장, 군대 장관을 의미한다(참조, 20:1; 렘 39:3).
- (4)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이들과 회의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동등한 지위의 신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相應)한 지위의 신하를 임명한 것이다.
- (5) 여기에 세 명의 앗수르 사신 중에서 랍사게만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가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참조, 왕하 18:19; 19:4).
6. ⓐ **랍사게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었는가? (4-21절)**
- Ⓐ (1) 랍사게의 말은 매우 무식한 말이었다. 무지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없애 버린 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였다(7절). 이와 같이 교만이 가득한 사람은 그 교만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며 어리석은 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법이다.
- (2) 또한 랍사게의 말은 매우 불손한 말이었다. 그는 유다 백성을 향하여 왕인 히스기야도 믿지 말며 히스기야의 종교적 권면, 즉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말도 믿지 말라고 했다.
- (3) 이와 같이 랍사게의 말은 영적 무지에서 불경(不敬)스럽게 한 말이며 부족한 인격에서 나온 경망이었다.
- (4) 사람의 생각과 교양과 인격이 말을 통해서 표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신중히 생각하여 대화를 해야 할 것이며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드는 말은 삼가 해야 한다(참조, 마 15:18; 눅 6:45). 말에 실수가 없는 자야말로 온전한 자이다(약 3:2).
7. ⓐ **랍사게의 모독적인 언사는 어떤 자세에서 비롯된 것인가? (4-12절)**
- Ⓐ (1) 그러한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만한 자세에서 되어진 결과이다. 랍사게는 자신의 정치적 위치와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상대방을 업신여긴 것이다.
- (2) 또한 오만 불손한 자기 확신의 자세에서 되어진 결과이다. 랍사게는 자신과 자신의 군대가 최고라고 생각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일축(一蹴)해 버린 것이다.
- (3) 그리고 그의 야만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그는 최소한의 예의와 양심마저 없는 수심(獸心)의 소유자이었으므로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4) 이와 같은 행동은 철저한 인본주의 곧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더욱 자유로울 수 있다는 오염된 생각에서 출발된 것이다.

8. **㉠** 랍사게는 애굽의 세력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6절)

**㉠** (1) 애굽의 세력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一般)' 이라고 했다.

(2) 원래 애굽은 강한 세력으로 등장해서 인근 국가로 하여금 두려움과 경계심을 갖게 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애굽은 자체 분열을 통하여 갈라짐(참조, 19:2)으로 인해 군소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

(3) 그리고 애굽은 동맹국에 대한 불성실 때문에 '상한 갈대' 라고 불리게 되었다.

(4) 갈대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것 같지만 곧 꺾어지기 때문에 마음 놓고 믿을 것이 못 된다. 하물며 '상한 갈대'를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5) 이와 같이 점차 그 힘을 잃어 가는 애굽의 도움을 은근히 바라고 있는 유다에 대해 랍사게는 비웃으며 말한 것이다.

9. **㉠**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7절)

**㉠** (1) 무지한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산당과 제단을 없애 버린 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였다(참조, 왕하 18:4).

(2)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 버린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산당과 제단을 없애 버리는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3) 그런데 랍사게는 히스기야의 그러한 일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임에 틀림없다고 단정하였다.

(4) 그래서 랍사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하지 않으리라고 말했다.

10. **㉠**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말 이천 필을 주겠다는 속뜻은 무엇인가? (8절)

**㉠** (1) 랍사게는 히스기야가 이천 명의 말탈 줄 아는 기마병을 동원하면 말 이천 마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2) 사실 유대인들은 사치할 목적으로 말을 타고 놀러 다니기는 했지만 전쟁을 위해 마술(馬術) 훈련을 한 적은 드물었다.

(3) 그러므로 랍사게가 말한 제안의 저의(低意)는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수모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

(4) 성도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쾌감을 맛보려는 악취미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약점은 보충해 주며 허물은 덮어 줄 수 있는 신앙 인격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롬 15:1; 고전 9:22).

11. **㉠** 랍사게가 직접적으로 히스기야를 모욕한 말은 무엇인가? (8-10절)

**㉠** (1) 유다에는 말을 주어도 그 말을 탈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유다의 약점을 간파하여 아픈 데를 긁는 야비한 행동이다.

(2) 또한 앗수르 대장 한 사람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 와도 그에 맞서 싸울 자가 유다에는 없다는 말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있다.

(3) 그리고 오만한 랍사게는 히스기야를 한층 더 조롱하기 위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용하여 랍사게 자신이 침략해 온 것은 여호와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이와 같이 랍사게는 유다 사신들과 협의(協議)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다.

(5) 성도들은 대화 가운데 진실하게 말해야 하며 아울러 상대방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주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일방 통행식의 대화는 진정한 대화라고 말할 수 없다(참조, 45:21; 살전 5:15).

12. **㉠** 유다 사신들이 랍사게에게 아람 방언을 사용하고 유다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고 권유

## 한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 Ⓐ (1) 아람어는 동부 아시아 제국과 티그리스 하류와 지중해 사이에서 통용된 언어이다.  
 (2) 그러나 이 아람어는 보통의 유대인에게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여 그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당시 통상 국제 언어가 되어 가고 있었다(참조, 스 4:7; 단 2:4).  
 (3) 그런데 랍사게는 유대 방언을 이용하여 일반 백성에게까지 자신의 모욕적인 말을 알아 들도록 시도했다.  
 (4) 그래서 유다 사신들은 그와 같은 랍사게의 말로 인해 백성들이 동요(動搖)되지 않도록 랍사게에게 자제를 권유했던 것이다. 성도들은 이처럼 완악한 심령에게 자극을 주어 바른 행실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5) 이와 같이 완악한 심령을 향해 예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 11:29) 고 말씀하셨다(참조, 고후 10:1; 딤후 2:24).

## 13. ⓐ '갑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앓수르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 자신의 대변이나 소변을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이 말은 예루살렘이 가장 추하고 더러운 꼴을 당하리라는 것인데 이것은 가장 모독적인 언사이다.  
 (3) 이러한 표현은 외교 관례상 감히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랍사게는 유다를 마치 자신의 식민지로 혹은 패전국으로 간주하여 망발한 것 같다.  
 (4)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가까운 사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근하고 허물 없는 사이일수록 더욱 신뢰하는 가운데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 15:1; 16:24).  
 (5) 더우기 자기보다 힘과 지혜와 재산이 모자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우는 대화법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롬 11:36) 입을 고백한 성도들에게서 사라져야 한다.

## 14. ⓐ 랍사게는 유다 백성을 향해 무엇을 외쳤는가? (13-17절)

- Ⓐ (1) 랍사게는 우선 유다 백성을 향해 그들의 지도자인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말며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도 따르지 말라고 외쳤다.  
 (2) 아울러 여호와의 믿는 대신에 도리어 안식처를 제공하며 힘을 소유하고 있는 앓수르의 왕 산헤립을 믿으라고 외쳤다.  
 (3) 이와 같이 랍사게는 유다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함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과 동시에 아름답고 풍요한 땅으로 이주시켜 주겠다는 말로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였다.  
 (4)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음모에 걸리도록 만든다(참조, 47:10; 신 30:17; 욕 31:9; 마 13:22; 갈 2:13; 3:13; 벧후 2:18). 그러나 현명한 성도는 그러한 장난에 현혹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다.

## 15. ⓐ 랍사게가 유다 백성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한 재략(計略)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첫째, 랍사게는 유다가 정치적·군사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즉 성이 앓수르에 의해 장기간 포위되고 그로 인해 재난을 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며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형편이라는 것이다.  
 (2) 둘째, 항복한 자에게는 물질적인 풍요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추방과 가혹한 재난에서 제외될 것이며 장차 평안한 생활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득하였다.  
 (3) 이러한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단은 이러한 육적인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자신의 목적, 즉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려고 한다(참조, 고후 11:14; 엡 4:27; 벧전 5:8).  
 (4) 사단은 성도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 가난한 자에게는 물질적인 유혹

으로, 육신적으로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회복시켜 준다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만든다.

16. ㉠ 만일 유다 백성이 앗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16, 17절)

- ㉡ (1) 랍사게는 유다 백성이 항복하면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이요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 (2) 이것은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인 식욕에 대한 호소를 통해 유다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야비한 방법이다.
- (3) 여기서 유다 백성들이 어리석게 그의 설득에 넘어간다면 유다인들은 더 나은 땅을 제공받는 대신에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 엄청난 대가(代價)를 치뤄야 할 것이다.
- (4) 이것은 마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며 지상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명목 아래 착취와 수탈을 서슴지 않는 공산주의의 사탕발림식 선전과 동일한 감이 든다.
- (5)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여 세상 재미에 맛을 들이게 되면 잠시는 즐겁고 재미있으나 곧 허탈과 후회로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이므로 성도들은 사단에게 유혹의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참조, 막 4:19; 엡 2:2; 딤후 4:10; 약 4:4; 벧후 2:20).

17. ㉠ 랍사게가 항복한 유다인을 좋은 땅으로 이민시키겠다고 함은 무슨 속셈에서인가?(17절)

- ㉡ (1) 앗수르는 정복한 백성을 새 정착지에 보내는 이민 정책을 쓰고 있었다.
- (2) 이러한 정책은 보통 비옥한 토지에서 사는 피정복민을 황막한 토지로 옮겨 자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쟁으로 인한 자기 백성의 불만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 (3) 그러나 여기서 랍사게는 오히려 유다인들이 항복하게 되면 비옥한 팔레스틴 지역으로 보내겠다고 말함으로써 희유책을 쓰고 있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사단들도 직접적인 방법 외에 희유책을 써서 성도들을 유혹하는데 친구나 혹은 이성(異性) 그리고 금전 문제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 한다(참조, 딤후 3:7; 딤후 2:26).

18. ㉠ ‘하맛’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하라(19절).

- ㉡ (1) ‘하맛’은 다메섹 북방 약 200km 지점에 위치한 시리아 지방의 한 성읍이다.
- (2) 이곳은 사르곤 2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기에 옮겨 거하게 했던 성읍들 중의 하나이다(참조, 11:11).
- (3) 앗수르가 하맛을 정복한 사실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많은 참고 귀절들이 있다(참조, 10:9; 37:13; 왕하 18:34; 19:13; 암 6:2).
- (4) 아모스는 이 성읍을 대하맛이라고 부르고 있다.

19. ㉠ ‘아르밧’과 ‘스발와임’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19절).

- ㉡ (1) ‘아르밧’은 시리아 북부 지역에 지방 및 그 중심 도시의 명칭이다. 성경에는 언제나 하맛과 아르밧이 함께 언급된다.
- (2) 랍사게는 아르밧과 하맛이 앗수르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유다도 역시 앗수르를 막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3) 한편 ‘스발와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앗수르로 국외 추방을 당한 뒤에 그곳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착출된 주민들이 살았던 곳(왕하 17:24)이다.
- (4) 그리고 정착민들이 섬겼던 신들에는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이 포함되어 있다.
- (5) 산헤립의 사자(使者) 랍사게는 앗수르를 대항하여 이 신들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던 무능한 신이었다고 외쳤다.

20. ㉠ 랍사게가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의 신들을 들먹인 이유는 무엇인가?(20절)

- Ⓐ (1) 지금까지 어떤 나라의 신도 앗수르와 대항하여 이긴 신(神)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도 능히 앗수르와 대항하여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장담하기 위해서이다.
- (2) 랍사게는 여호와를 섬겼던 성읍과 이방 신을 섬겼던 성읍 사이에 구별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사마리아가 함락되었는데 어찌하여 예루살렘이 함락되지 않겠느냐는 조롱적인 어투로 말했다.
- (3) 이와 같이 랍사게는 여호와를 쓸모없는 이방 신들과 같은 신으로 여겨 업신여기며 모독하였는데 이것이 그의 치명적인 과오였다(참조, 37:36).
- (4) 그러므로 인간의 짧은 경험과 알팍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의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장난인지 깨달아야 한다(참조, 욥 11:7; 시 145:3; 렘 31:37; 롬 11:33).

21. ⓐ 랍사게의 유혹과 모독적인 언사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1절)

- Ⓐ (1) 그들은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 (2) 이것은 랍사게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의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음을 나타낸다.
- (3) 유다 백성들은 이미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기다리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지도자의 인도를 기다렸다.
- (4) 이것은 앗수르에 대한 굴복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다 지도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한 것이다(참조, 삼상 7:3-11).
- (5) 성도들도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조금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경험만 믿고 대처할 것이 아니라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여야 한다(참조, 약 1:5).

22. ⓐ 유다의 사자(使者)들이 왜 옷을 찢었는가? (22절)

- Ⓐ (1) 옷을 찢는 일은 애곡의 표시일 뿐 아니라 충격을 받았을 때 행하는 상징적인 행동 언어이다(참조, 창 37:29; 삼상 4:12; 삼하 1:2; 대하 34:19; 스 9:3; 마 26:65).
- (2) 그래서 유다의 사자들은 랍사게로부터 받은 모욕과 불명예를 슬퍼하면서 국난을 당한 표시로 옷을 찢고 왕에게 서둘러 보고하였다.
- (3) 이러한 행동의 내면에는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열심과 그것에 가해진 경멸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깃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성도의 생활 자세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외적인 항거가 있어야 하겠으나 우선 내면적 자기 개혁·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장의 요절**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찢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6절).



## 제 37 장 앓수르 군대가 파멸되다

단락구분 1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간 히스기야 / 2-5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 6-7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격려하다 / 8-13 앓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보낸 모욕적인 편지 / 14-20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다 / 21-35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주신 대답 / 36-38 앓수르 군대의 전멸과 산헤림의 실패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와 전으로 갔고

2 궁내 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앓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6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바 앓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7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8 랍사게가 앓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쫓아 치는 것을 만나니라

9 그 때에 앓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르기왕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10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왕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앓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앓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네가 들었으리니 네가 건짐을 얻겠느냐

12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셈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14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 보고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가로되

16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17 여호와여 귀한 기골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산헤림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훼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 여호와여 앓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19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앓수르 왕 산헤림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22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3 네가 훼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나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24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훼방하여 이르기왕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25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

였도다

26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들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27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28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 내가 나를 거스려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찌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0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이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31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32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3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쓰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차지도 못할 것이요

34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36 여호와와 사자가 나가서 앗수르 진 중에서 십 팔만 오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37 이에 앗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38 자기 신 니스룩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 1. ㉠ 본장의 개요와 그 교훈을 말하라.

- ㉠ (1) 본장에서 우리는 앗수르에 관해 왕하19장에서 보았던 이야기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 앞장(36장)을 통해서 우리는 산헤립이 남유다를 침략한 것과 정복하려고 위협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 (3) 그런데 본장에서 우리는 그의 몰락을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응답과 또한 우리가 앞의 장들 속에서 보아왔던 많은 예언들의 성취로서 그가 마침내 망할 것을 알 수 있다.
- (4)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단지 사실적인 내용의 언급 이상의 교훈을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 그의 살아 계심을 입증하신다는 사실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을 심판하시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택한 백성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증하는 데 있다(참조, 요3:17; 히7:25).
- (6) 또한 기도는 성도의 호흡과 같은 것이므로 무시로 기도에 힘써야 하지만 환난과 곤경에 처해 있을 때 더욱 기도에 열중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함께 지혜를 얻어야 할 것이다(참조, 시50:15; 막9:29).

## 2. ㉡ 히스기야 왕이 유다 사자(使者)들의 보고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은 것은 무슨 표시인가? (1절)

- ㉡ (1) 이것은 비탄과 수치의 표시이다(참조, 창37:34; 삼하3:31; 왕상21:27; 예4:1).
- (2) 히스기야 왕은 궁내 대신들이 행한 것보다도 더욱 비탄스러움을 행동으로 나타내었다.
- (3)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였다.
- (4) 성도들도 자신의 말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할 것이며 더우기 하나님의 영광이 도전받았을 때에는 단호한 자세로 그에 대한 응전을 결행해야 한다.

3. **㉠** 히스기야 왕은 유다 사신들의 보고를 듣고 어떻게 했는가? (1절)

- ㉠** (1) 히스기야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2) 왜냐하면 성전은 찬양과 제사를 드리는 장소일 뿐 아니라 기도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 (참조, 왕상8:27; 막11:17).  
 (3) 히스기야 왕은 이처럼 닦친 곤경에 굴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들어갔다.  
 (4) 이와 같은 모습은 성도들이 반드시 본받아야 할 자세이다.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에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참조, 시54:7;77:2; 롬12:12; 엡3:13).

4. **㉠** 히스기야 왕은 왜 유다 사신들을 이사야에게 보냈는가? (2절)

- ㉠** (1) 히스기야 왕은 ‘궁내 대신 엘리아김과 서기관 썬나와 제사장 중 어른’ 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  
 (2)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위 사신들을 보낸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위안의 말을 받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4) 이것은 당시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잘 말해 주는 것으로 복잡한 문제 속에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제공하여 준다.  
 (5) 이제부터 성도들은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곧 그것은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며 동시에 좋은 신앙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이다(참조, 시37:5;55:22; 잠16:3; 벰전5:7).

5. **㉠** 유다의 고위 사신들도 굵은 베옷을 입은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절)

- ㉠** (1) 고위 사신들도 굵은 베를 입은 것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연대감(連帶感)의 발로에서이다.  
 (2) 즉 국난의 발생은 어느 한 사람에게만 그 책임을 부가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모두의 책임이라는 정신에서 우리나라의 공동체 의식이다.  
 (3) 이와 같은 정신은 너와 나는 이웃이요, 형제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망되는 것이다.  
 (4)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는 자세는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참조, 롬12:5; 갈3:28; 엡4:13; 빌1:27; 벰전3:8).

6. **㉠** 히스기야는 국난(國難)을 몇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았는가? (3절)

- ㉠** (1) 히스기야 왕은 직면한 국난에 대해 슬퍼하면서 세 가지 사실을 이사야에게 전했다.  
 (2) 첫째, 하나님이 랍사게와 같은 무례한 사신(使臣)을 안전하게 오고 가게 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책망하신 방편이라는 것이다. 사실 히스기야도 오랫동안 애굽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아 마땅하였다 (참조, 20:5, 6).  
 (3) 둘째, 랍사게의 무례한 행동은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선 비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비신앙적인 말 때문에 그날을 ‘능욕(凌辱)의 날’이라고 했다.  
 (4) 셋째, 유다의 상황은 태어나려고 하지만 태어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상황, 즉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힘이 없어서 죽음이 예상될 뿐이라는 것이다.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직면한 국난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였고 오만 불손한 죄인의 모습을 목격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6) 성도들도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연단의 기회로 삼아 신앙과 인격을 진일보(進一步) 시켜야 한다(참조, 단12:10; 빌2:22; 히5:14).

7. **㉠**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청했는가? (4절)

- ㉠** (1)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고 했다. 즉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참조, 삼상7:8; 왕상13:6; 행8:24; 롬15:30; 엡6:19; 히13:18).
- (2)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고위 판리를 선지자의 집에 파송해서 겸손하게 선지자의 기도와 조언을 원하였다.
- (3) 그는 독단과 아집의 사람이 아니요, 매사를 함께 의논하는 지혜로운 지도자였으며 특히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주의 종과 상의하기를 꺼려 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 (4) 그러므로 그는 후대에 이르기까지 존경을 받았고 더욱 지혜로운 조언을 얻게 되었다.
- (5)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이러한 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곧 지위 고하를 떠나 피차 기도를 지원해 주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참조, 약5:14).

8. **㉠**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6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실의와 슬픔 가운데 찾아온 히스기야의 사신들을 향해 '두려워 말라' 고 하였다.
- (2) 이 말은 절망에 빠져 있던 히스기야 왕과 사신(使臣)들과 온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음성이 되었다.
- (3)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므로 앗수르에게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에 찬 예언이다.
- (4)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육체적인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도 있으며 사업의 실패로 좌절 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이웃을 외면하는 자세는 그들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웃에 대한 조언과 칭찬과 위로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참조, 잠14:21; 눅10:36, 37; 롬15:2; 엡4:25).

9. **㉠** 앗수르의 왕 산헤립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무엇인가? (7절)

- ㉠** (1) '그가 풍성(風聲)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故土)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는 것이다.
- (2) 즉 산헤립은 그의 군대가 살육당한다는 풍문을 들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그의 고토로 돌아갈 것이고 거기에서 그는 피살될 것이다.
- (3)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36, 38절에서 적중되었음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왕상8:56; 겔12:25; 마5:18; 눅21:33).
- (4)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자의 종말은 그의 입으로 범죄한 그 대가(代價)를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쓰게 되었다.
- (5) 그런고로 성도들은 자신의 언행 심사(言行心思)가 삼가 사람 앞에 뿔뿔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10. **㉠** '립나'는 어디에 위치한 마을인가? (8절)

- ㉠** (1) '립나'(Libnah)는 라기스에서 그리 멀지 아니한 곳에 위치한 마을로서(참조, 수10:29; 21:13; 왕하8:22; 19:8) 가나안의 한 성읍이다.
- (2) 산헤립이 립나를 향해서 병사를 이동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아마 라기스를 점령한 후에 애굽으로 향하는 요충지인 립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

11. **㉠**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무엇인가? (10-13절)

- ㉠** (1) 앗수르 왕의 힘 앞에 어떤 왕도 신(神)도 그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굴복하였으므로

유다도 순순히 항복하라는 것이다.

- (2) 특히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더 이상 여호와를 의지하지 말라는 불경(不敬)스런 것이었다.
- (3) 이와 같이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아무런 대책 없이 기도에 열중한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였다.
- (4) 불신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불인정(不認定)이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다(참조, 요15:18, 20).

12. ㉠ ‘고산’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라 (12절).

- ㉠ (1) ‘고산’은 유프라테스 강 상류쪽에 있는 성읍이며 또한 그 지방 이름이다. 고산 지방은 앗수르의 정복을 당하였다(참조, 왕하19:12).
- (2) 앗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Tiglath-Pileser III)는 요단 건너편에서 고산 지방으로 이스라엘 지파 중 일부를 강제로 이주시켰다(참조, 대상5:26).
- (3) 왕하17:6과 18:11에는 B. C. 722년에 앗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취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앗수르로 끌어가 여러 고을에 두었다고 한다. 고산은 그 지방들 중 하나였다.

13. ㉠ ‘하란’은 어느 곳에 위치했는가? (12절)

- ㉠ (1)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벨릭(Balikh) 강 위에 있는 율파 남동쪽 약 32km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의 한 도시인데 이 도시는 중요한 상업 중심지로서 바벨론과 지중해 사이의 주요한 상업 도로 위에 위치했다.
- (2) 하란은 오랫동안 앗수르의 주(州) 수도였으나 B. C. 763년에 반란으로 인하여 멸망하였다(왕하19:12).
- (3) 그 후 이곳은 사르곤 2세(Sargon II)에 의해 재건되었는데 앗수르의 최후의 왕인 아술울발릿(Ashururballit)은 B. C. 612년에 하란을 그의 수도로 삼았다.
- (4) ‘하란’은 테라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떠나 정착한 도시이기도 하다(참조, 창 11:31,32).
- (5) 이외에도 하란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다(참조, 창28:10;29:4, 10, 11; 겔27:23).

14. ㉠ ‘레셈’과 ‘들라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 (12절).

- ㉠ (1) ‘레셈’ 성읍은 유프라테스와 하맛 사이의 주요 대상(隊商)들의 중심지였으며 지금의 라사파(Rasafa)이다.
- (2) ‘들라살’은 전쟁을 즐기던 앗수르 왕들에 의해 공격당하고 짓밟힌 성읍 중의 하나이며 에덴 즉속의 성읍이다.

15. ㉠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본 후 어떻게 했는가? (14, 15절)

- ㉠ (1)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와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 (2)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 글을 읽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형편을 아시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자세에서 그와 같이 한 것이다.
- (3)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매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논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
- (4) 성도들도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의뢰하여야 하며 구체적이고 날날이 고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37:5;55:22; 잠16:3; 벰전 5:7).

16. ㉠ 히스기야 왕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였는가? (16절)

- ㉠ (1) 첫째, ‘그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이 말은 택한 백성들 사

이에 제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성과 거룩성을 찬양한 것이다.

- (2) 둘째, ‘만군의 여호와’ 라고 밝히 말하였는데 이것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셋째,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였다. 즉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神)은 다 헛된 신이며 하나님만이 유일 무이(唯一無二)한 참신(神)임을 고백하였다.
- (4) 또한 하나님이 ‘천지를 조성(造成)’ 하셨다고 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신앙의 고백이다(참조, 롬 11:36).
- (5)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기를 기도했다.
- (6)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만을 간구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이뤄가야 한다(참조, 마6:9).

17. ㉠ 하나님께 간구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17-20절)

- ㉠ (1) 우선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매우 간절한 기도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는 ‘여호와여 귀를 기울려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드렸다.
- (2)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이방 신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毀謗)한 앗수르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신(神)이심을 확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 (3)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들을 경멸했으며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 (4) 결국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확신하는 것이었으며 그의 최대 관심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은총에 있었다.

18. ㉠ 유다를 향한 앗수르의 위협은 결국 어떤 꼴이 되었는가? (22절)

- ㉠ (1) 위협하던 앗수르의 종말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嘲笑)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 (2) 이 말은 나약하고 연약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으로 앗수르를 비웃고 경시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적하여 자기 자신을 높이던 교만한 자들의 모든 위협은 오히려 웃음거리가 되었다.
- (4)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에 위축되지 않는 까닭은 비록 우리는 약하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28:20; 눅1:28; 요14:16; 딤후4:22).

19. ㉠ 앗수르가 멸시한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한 것인가? (23절)

- ㉠ (1) 앗수르의 사신 랍사게와 앗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의 사신들을 능욕하며 훼방한 것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렇게 행한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 (2)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8:15, 16; 갈4:6).
- (4)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일체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 (5) 성도들의 생활과 행동이 불신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의 언행(言行)을 조심하여 덕을 세우며 가정의 화

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뱀전2:12; 뱀후3:11).

20. ㉠ **앗수르의 왕 산헤립은 어떤 인격의 소유자였는가? (24절)**

- ㉠ (1) 산헤립은 불경(不敬)스런 사람이었다. 그는 '주를 훼방' 하며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2) 또한 그는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있어 자기 신뢰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다.  
 (3) 그리고 그는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레바논이든 높은 곳이든 살진 땅의 수풀이든 어느 곳을 막론하고 정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산헤립은 갖고 있었다.  
 (4) 이와 같이 산헤립은 비범한 사람이기 보다는 인격적인 결함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5) 오늘 우리의 주위에도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 재산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현대판 산헤립이라고 할 수 있다(참조, 뱀후3:2,4).

21. ㉠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나' 는 무슨 뜻인가? (25절)**

- ㉠ (1) 산헤립이 진군하는 데는 세 가지 천연적인 장애물이 있었다. 산과 광야 그리고 강이었다.  
 (2)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장애물들이 자신의 정복 사업을 방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豪言壯談)하였다.  
 (3) 그래서 산헤립은 애굽의 하수를 막아 물이 마르도록 하여 애굽을 정복하고, 자신은 우물을 파서 물을 공급받겠다는 교만한 생각으로 말했던 것이다.  
 (4) 한치 앞도 예견할 수 없는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약4:15)는 신앙관이 선행되어야 한다.

22. ㉠ **앗수르의 정복 사업은 언제 계획되었는가? (26, 27절)**

- ㉠ (1) 앗수르의 침략 행위는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上古)부터 정(定)한 바'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즉 앗수르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서 열방을 정복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3) 따라서 이 귀절은 결국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열국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므로 역사를 이끌어 오셨던 사실을 가리킨다.  
 (4) 이와 같이 앗수르의 정복 사업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사용되는 도구였다.  
 (5)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도 하신다(참조, 잠13:22; 전2:26).

23. ㉠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신가? (28절)**

- ㉠ (1) 하나님은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다 알고 계신다.  
 (2) 즉 하나님은 인간들의 생활과 그들의 행동을 감찰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교만한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3) 그분은 즐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시121:3,4) 우리 인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마10:30; 눅12:7).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 무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셔서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감찰하신다.  
 (5)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비밀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솔직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참조, 대상28:9; 시44:21; 렘17:10; 23:24; 암9:3; 습1:12).

24. ㉠ **하나님은 오만한 앗수르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셨는가? (29절)**

- ㉠ (1)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참조, 대하33:11; 겔29:4; 38:4) 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갈고리는 아랍인들과 주변 민족들이 들소나 낙타를 길들이려고 코에 꿰는 기구로서 양쪽으로 고삐를 당기면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짐승이 숨쉬기가 곤란해진다.
- (3) 이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며 교만해진 앗수르를 하나님은 방치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그들을 다스리신다.
- (4) 이제 더 이상 앗수르는 자신의 의지와 방법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이다 (참조, 잠21:1).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꾸짖으시며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윤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참조, 시119:21;138:6;잠6:16,17;약4:6).

**25. ㉠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징조는 무엇인가? (30절)**

- ㉠ (1)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이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 삼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 (2) 즉 앗수르의 침공과 땅의 황폐로 처음 두 해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저절로 난 식물을 먹다가 제 3년째에는 파종과 함께 추수의 기쁨을 누릴 것이 바로 그 징조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황폐케 된 유다가 3년 후에 정상으로 회복되리라는 징조를 보여 주심으로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셨다 (참조, 레26:5;암9:13).
- (4)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 종말의 징표를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전쟁의 위협과 기근 그리고 지진이 처처(處處)에서 일어날 것인데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간직해야 한다고 권면하셨다 (마24:3-14).

**26. ㉠ ‘여호와와 열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2절)**

- ㉠ (1)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무관심하게 방임(放任)치 않으시고 간섭하신다.
- (2)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를 좌절케 하려는데 기본적인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 (3) 이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여호와와 열심’이라고 한다.
- (4) 지금도 성도들에 대한 ‘여호와와 열심’은 중지되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 (참조, 수3:5;왕상18:40).

**27. ㉠ 앗수르로부터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33-35절)**

- ㉠ (1)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胸壁)을 뚫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었다.
- (2) 이 말은 히스기야 왕에게 앗수르와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말이며 유다와 예루살렘의 독립이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시요 나의 산성(山城)이니시로다’라고 노래하였다 (시18:2).
- (4) 사단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성도들은 감사와 찬송의 생활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참조, 신32:6;시116:12;고후6:13;살전3:9).

**28. ㉠ 하나님이 유다를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를 보호하며 구원하신 것이다.
- (2)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고 또한 다윗의 후손이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되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조, 삼하7:16;시89:29-

37;132:11-14) 유다를 구원하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자들을 용납치 않으시며 (참조, 출 20:7),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시다 (참조, 신 7:9; 시 119:86; 호 11:12).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사용해야 할 것이며, 이웃과 형제 그리고 자녀에게 신용을 잃는 말과 행동을 삼가해야 한다 (참조, 잠 11:13; 눅 12:46; 요삼 1:5).

29. ㉠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37, 38절)

- ㉠ (1) 가장 큰 수효의 무리들도 그 앞에서는 설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실 때 하룻밤 사이에 185,000 명이라는 거대한 군사들이 반항 한번 못한 채 쓰러졌다.
- (2) 또한 큰 왕이라고 자처하던 앗수르 왕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뗏뗏이 설 수 없었다. 오히려 그가 크게 장담하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는 수치와 공포에 가득 차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힘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계획 등 그 모든 것이 무력(無力)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 (4) 따라서 인간으로부터 출발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없다 (참조, 계 6:17).

30. ㉠ 앗수르의 왕 산헤립의 최후는 어떠한가? (37, 3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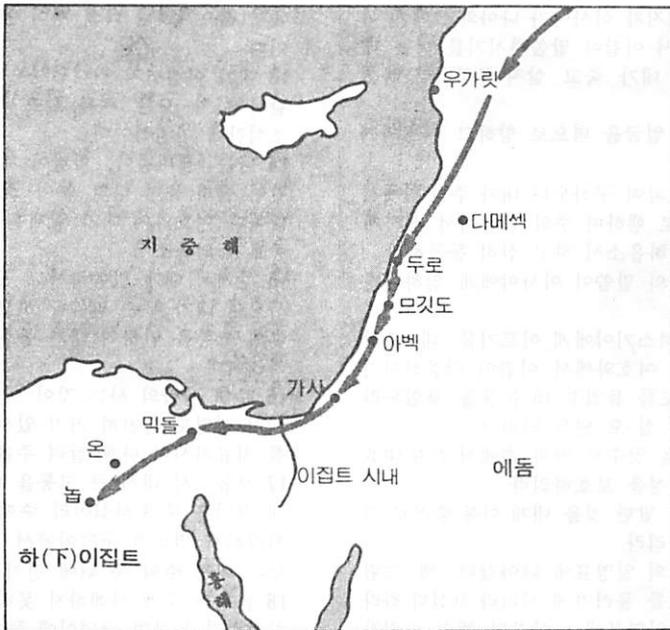
- ㉠ (1) 산헤립은 이 전쟁에 실패한 이후로 약 18년 동안 더 살다가 B. C. 681년에 죽었다.
- (2) 산헤립은 니느웨의 거하면서 그곳에 있는 앗수르의 신 니스록(Nisroch) 신전에서 경배하던 중 그의 두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살해되었다 (참조, 왕하 19:37).
- (3)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산헤립은 자신이 숭앙(崇仰)하던 신(神) 앞에서, 더우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였다.
- (4)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재간만을 의지하여 세운 계획들은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화(禍)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참조, 신 1:36; 수 14:8; 히 11:22).

연구자료

니스록(Nisroch). 니스록은 니느웨(Nineveh)에서 숭배되었던 앗수르의 신이다. 본장의 기록에 의하면 앗수르 왕 산헤립(Sennacherib, B. C. 704-681)은 이 신의 묘(墓)에서 경배하다가 자기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37, 38절). 그런데 '니스록'이란 이름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 문헌에서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앗수르의 고유 신인 '앗수르' (Assyria)가 바로 이 니스록인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불(火)의 신인 '누스쿠' (Nusku)가 니스록인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한 추정 근거로 그들은 '누스쿠'라는 단어의 자음인 'NSK'가 '니스록'이란 단어의 자음인 'NSRK'로 오기(誤記)되었을 가능성을 들고 있다. 한편 '누스쿠'는 앗수르의 월신(月神)인 '신' (Sin)의 아들이다. 이처럼 니스록이 어떠한 신인가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앗수르에서 숭배되었던 신인 것만은 틀림없다.

## 지도자료

앗수르의 애굽 정복. B. C. 7 8세기경에 이르자 앗수르는 중동 지역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잦은 출정(出征)을 하였다. 그 결과 살만에셀 5세(Shalmaneser V, B. C. 727-722)는 B. C. 722년에 사마리아를 함락시켰으며(왕하 17:1-6) 산헤립의 아들인 에살핫돈(Esarhaddon, B. C. 681-669, 38절)은 B. C. 669년에 하(下)이집트를 정복하였다. 아래 지도는 그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의 진격 노정을 나타낸 것이다.



B. C. 7세기 말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존망 여부는 백척 간두(百尺竿頭)에 이르렀다. 내적으로는 어리석은 왕들의 통치와 백성들의 타락된 신앙이 국가의 붕괴를 재촉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앗수르가 틈만 있으면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같은 왕은 애굽의 힘을 빌어서라도 앗수르를 견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는 오히려 애굽이 앗수르에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촉구하였다(20: 4-6; 30: 1-7; 31: 1-3; 36: 6, 9, 10).

# 제 38 장 히스기야 왕의 중병 (重病) 과 회복

단락구분 1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을 것을 예언하다 / 2-3 히스기야 왕이 병 낫기를 기도하다 / 4-8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다 / 9-20 히스기야가 감사의 노래를 주께 돌리다 / 21-22 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된 방법

1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3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4 이에 여호와와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 년을 더하고

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8 보라 아하스의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심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일영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심도를 물러가니라

9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10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여년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11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2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견음같이 나뉘며나 읊졌고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베탄건어 말음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틈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13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14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15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각근히 행하리이다

16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 음부가 주께 사례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1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와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21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문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오리라 하였었고

22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와 전에 읊라갈 징조가 무엇이뇨 하였었더라

1. ㉠ 본장의 개요와 그 교훈의 말씀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서는 유다 제 13대 왕인 히스기야(B. C. 728-725-697) 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

- (2)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히스기야 왕의 죽음과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신실한 히스기야 왕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왕하18:1-20:21; 대하29:1-33).
- (3) 더우기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는 히스기야 왕의 노래가 본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은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을 지시하고 아울러 육신의 병에 매인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붙여넣어 주고 있다.
- (5) 참다운 신앙은 이처럼 환경에 굴하지 않는 시종 일관(始終一貫)의 자세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육체적 고통 때문에 결코 믿음을 값없이 팔아서는 안 된다(참조, 렘10:19; 고전9:12; 딤후2:12; 약5:7; 뱀전2:19; 계2:3).

## 2. Q '그 즈음'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1절)

- A (1) 히스기야 왕은 약 29년 동안 왕노릇을 하였다(참조, 왕하18:2).
- (2) 그런데 그는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하여 15년 더 재임하였다(참조, 왕하20:6).
- (3) 그러므로 여기서 '그 즈음'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는 해를 가리킨다.
- (4) 왕하 18:13을 근거하여 살펴보면 '그 즈음'은 아마 그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는 해로서 앗수르의 산헤립이 유다에 패한 직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3. Q 히스기야 왕의 중병(重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절)

- A (1) 인간의 위대함이나 선한 업적이 그들을 병과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참조, 히9:27).
- (2) 또한 '네 집에 유언하라'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죽음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그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겸허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 (3) 이와 같이 고통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므로 미래에 대한 대비는 지혜로운 자세임을 깨달을 수 있다.
- (4) 죽음에 대해 우리가 준비한다고 죽음이 더 빨리 오거나 지연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해 진지한 자세를 갖는다는 것은 죽음을 훨씬 더 쉽게 만들 것이다.
- (5)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앞날을 준비하는 자세는 허무허무를 보다 정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참조, 마 25:7; 고후9:4).

## 4. Q 죽음에 직면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2절)

- A (1)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 (2)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정성과 뜻을 다하여(참조, 신6:5) 기도에 전력하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죽음에 직면하여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였다.
- (4)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보다 우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참조, 시50:15; 86:7).

## 5. Q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3절)

- A (1) 히스기야 왕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실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 (2)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공로, 즉 나라를 개혁하고 산당을 제거하며 성전을 정결케 한 사실(참조, 왕하 18:1-8)을 들어가며 하나님께 호소하거나 마치 자신이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식으로 항의하지는 않았다.

(3)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정직하고 충성되게 하려고 노력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을 신중하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다(참조, 왕하 20:3; 대하 17:6; 시 86:12).

(4)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을 잃지 않았다.

6. **㉠** 히스기야 왕이 심히 몽곡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히스기야 왕이 지금 병든 상태에서 죽어 버리고 하나님께서 연장해 주시는 15년을 더 살지 않는다면 왕위를 계승할 자식이 없게 된다.

(2)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죽었을 때가 그 아들 므낫세의 나이가 겨우 12살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왕하 21:1).

(3) 즉 그는 병이 나온 후 3년이 지나서야 므낫세를 낳게 되었던 것이다.

(4)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는 일을 가장 슬픈 일 중에 하나로 여겼다. 이러한 일에 대한 보완 조치로 그들은 자식을 얻지 못하고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기 위한 계대 결혼(繼代結婚) 제도를 제정하기도 했다(참조, 창38:6-11).

(5) 이와 같이 자식이 없는 것은 개인적으로 자신의 가게를 잇는 혈통이 끊어지는 것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맡아서 다스릴 지도자가 없어진다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는 슬피 울었던 것이다.

7. **㉠**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4-6절)

**㉠** (1)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이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맺으신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며 인간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 아니라 놀라운 은혜로써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다.

(2) 또한 하나님은 ‘내가 네 눈물을 보았노라’ 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눈물의 원인을 해결해 주시는 신실한 사랑의 소유주이시다(참조, 시 30:11; 116:8).

(3)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고 말씀하신다. 곧 하나님이 우리의 호소와 간구에 관심을 가지신다(참조, 렘 33:3).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명(壽命)을 더할 수 있는 분이시다. 즉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다(민 16:22).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유효 적절하게 채워 주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5) 아울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네 수한(壽限)에 십 오 년을 더한다’ 고 말씀하시므로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했다.

(6)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기 원하시며, 그들의 삶이 당신을 향한 기도와 소망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분이시다(참조, 시 61:4; 84:4; 롬 8:11; 요일 2:24).

8. **㉠**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5, 6절)

**㉠** (1)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을 뿐 아니라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했으며 그의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간절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잘 보여 준다(참조, 삼상 1:10; 눅 18:5).

(2) 그 기도의 세 가지 응답은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생명 연장의 축복과 앗수르의 위협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안한 삶을 누리는 축복과 예루살렘 성이 보존되리라는 축복이다.

(3)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이때 받은 세 가지 응답은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모두 이루어졌다(참조, 왕하 19:20-37; 20:8-11).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참조, 막 9:29).

## 9. Q '아하스의 일영표'란 무엇인가? (7, 8절)

- A (1) 아하스의 계단을 의미한다.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일영표(日影票)는 바벨론에서 만들어졌고 앗수르인에 의해 아하스 왕에게 전달되었다.
- (2) 즉 아하스는 다메섹에 있는 디글랏 빌레셀을 방문했을 때 거기서 이러한 일영표의 계도와 모형을 본떠 왔다(참조, 왕하 16:10).
- (3) 이 일영표는 서쪽을 향한 계단 층계를 가리키는데 지는 해로 인해 그림자가 위로 움직이는 것을 통해 시각을 측정하는 일종의 해시계라고 할 수 있다.

## 10. Q 해의 그림자가 십도(十度) 물러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8절)

- A (1) 히스기야에게 보인 하나님의 징조는 해의 위치가 실제로 바뀐 것이 아니라(참조, 대하 32:31) 계단 위의 그림자가 열 계단 내려간 것을 의미한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그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입증하는 데 있다(참조, 수10:12).
- (3)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창 1:1) 그 피조물들을 당신의 의지대로 이끌어 가신다(참조, 롬 11:36).
- (4)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더 연장시키기 위해 자연 현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로 해석될 수 있다.
- (5) 더우기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천하 만물보다도 인간을 더 사랑하시며 인간을 중심으로 모든 자연과 사물이 운행되도록 하신다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참조, 창 1:26-29).

## 11. Q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A (1) 하나님의 징조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복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즉 가까이 복종하는 것이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참조, 출 4:1-9).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무하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 주셨다(참조, 창 9:11-17).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 주신 이유가 회의론자를 설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주신 것이다(참조, 사 6:36-40).
- (4)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처럼 눈으로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이적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가장 확실한 최고의 징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표적임을 믿고 더욱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다.

## 12. Q 히스기야 왕의 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9-20절)

- A (1) 히스기야 왕의 글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병에서 회복된 후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록한 노래이다.
- (2) 히스기야가 쓴 글은 네 개의 문장이 서로 연관되어 있어 내용 전체의 이해를 돕는다. 즉 10-12, 13-14, 15-17, 18-20절까지 이해하기 쉽게 일목 요연하게 문장이 구성되었다.
- (3) 10-12, 13-14절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죽음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였고, 15-17, 18-20절에서는 병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감사에 넘쳐서 그 기쁨을 표현하였다.
- (4)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관된 자신의 생(生)과 사(死)의 문제를 시적인 언어를 구사하여 평이하게 서술하였다.

## 13. Q 히스기야는 병든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었는가? (10, 11절)

- A (1) 그는 그의 달수가 중년에 잘리워 버린 것으로 간주했다. 즉 그에게 엄습한 이 병은 그의 한창 시기의 행복과 기대를 끊어 버리기에 족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 (2) 또한 그는 그가 음부의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생각하였다. 즉 그는 자신의 생명이 조 만간에 끊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3) 더우기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기 위해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빼앗긴 것으로 여겼다(참조, 시 30:9; 115:17). 특별히 그는 더 이상 살아 생전에 여호와와 얼굴을 만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 원통해 하였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곧 희망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 (4) 히스기야 왕은 병든 자신에 대해 슬픔을 갖고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호흡을 통해 더 이상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였다(참조, 시 150:6).
- (5) 이처럼 성도들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단지 고통으로 그리고 불행과 슬픔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신앙과 인격의 연단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5:3, 4).

14. ㉠ ‘틀에서 끊으시리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12절)

- ㉠ (1) 베를 위에 있는 낱실이 베짜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짧아져 마침내 베가 완성되면 직공은 짧은 실을 잘라 내버리게 된다.
- (2)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이 다하여 직공이 마지막 낱실의 끝을 잘라 버리듯이 자신의 생명도 이렇게 끝날 것이라는 뜻에서 이 말을 하였다.
- (3) 즉 그는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취하실 것으로 여겼다.
-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히스기야 왕의 신앙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대상 29:12; 시 83:18; 단 4:35).
- (5) 사실 우리 인간이 지닌 생명이란 단순히 유목민들이 주거지를 옮기기 용이하도록 가지고 다니는 장막처럼 쉬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2:22). 더우기 이 생명의 주인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

15. ㉠ 히스기야는 병중에서 고통을 참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호소했는가? (14절)

- ㉠ (1)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호소하였다.
- (2) 즉 히스기야는 모든 감각이 고통에 짓눌리고 슬픔에 못 이겨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분명치 않은 신음 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 (3) 히스기야는 질병과 고통으로 시달린 나머지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서 기운나게 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기를 의뢰하였다(참조, 시 37:3; 118:8; 딤후 1:12).
- (4) 즉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중보(中保)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여기서 ‘중보’란 빛을 진 자가 그 빛에 대해서 책임져 줄 ‘보증인’이 필요하듯이 늘 자신에게는 지금 자기를 후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였던 것이다.
- (5)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간절한 호소에 응답하셨다(참조, 삼상 16:7; 시 34:18; 롬 8:26, 27).
- (6)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정육을 도모하고자 하여 드린 인간적인 기도는 받지 않으며 사심 없이 드린 간절한 기도를 기뻐받으신다(참조, 약 4:3).

16. ㉠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였는가? (15-17절)

- ㉠ (1) 그는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라고 했다. 즉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인간이 알 가 알부(曰可曰否)할 자격이 없음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했다(참조, 29:16).
- (2) 또한 그는 ‘내가 종신토록 각근(格勤)히 행하리이다’라고 고백하였다. 다시 말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자신이 앞으로 정해진 남은 생명 동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자세로 새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 (3) 그리고 그는 자신의 '심령의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다고 하였다. 즉 그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자신을 소생케 하고 살지우게 한다고 고백하였다(참조, 신 8:3).
- (4) 아울러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며 그 고통으로 인하여 그의 영혼이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된다고 고백하였다(참조, 시 94:12; 잠 3:12).
- (5)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자신을 소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 감사하며 찬미할 줄 아는 신실한 인물이었다.
- (6) 어려움에 봉착했을 경우나 그 어려움이 해결된 뒤에도 변하지 않는 신앙과 인격을 소유하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17. **㉠** 히스기야의 고백은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가? (15-17절)

- ㉠** (1) 첫째,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효력있게 한다.
- (2) 둘째,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생(生)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된다(참조, 빌 3:8, 9).
- (3) 셋째,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는 안식과 평안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참조, 요 16:33; 엡 2:17).
- (4) 넷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이다(참조, 시 92:1-3; 골 3:16).

18. **㉠**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7절)

- ㉠** (1) '평안'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무사하여 마음에 걱정이 없음'을 뜻하는데 여기서의 '평안'은 여호와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
- (2) 한편 '평안'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shalom>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안전, 행복, 건강, 구원을 의미하고 있다.
- (3)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 주신 것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더 값지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사실 지독한 고통과 불안 속에 살아본 자만이 평안의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시면서 불안과 저주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던 우리들에게 평안을 제공해 주셨다(요 14:27).

19. **㉠** 히스기야는 병의 회복과 함께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17절)

- ㉠** (1) 히스기야는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이에서 건지셨다고 말하였다. 즉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구원받는 축복을 누렸다.
- (2) 또한 그는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허물과 죄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던지셨다(참조, 1:18; 시 103:12). 즉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셨다.
- (3)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전심 전력하여 기도한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육신의 건강함과 영혼의 구원을 보장받는 축복을 누렸다.
- (4)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是認)하며 영접한 성도들에게도 영생이 약속되었고 죄는 사함 받았으며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허락받았다(참조, 요 3:15, 16). 이것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획득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다.

20. **㉠** 히스기야는 죽음을 어떻게 정의했는가? (18절)

- ㉠** (1) 히스기야는 죽음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보았다.
- (2) 그래서 히스기야는 '음부가 주께 사례(謝禮)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

며' 라고 했다.

- (3)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오직 산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음부나 사망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는 활동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았다.
- (4) 이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몸이므로 호흡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새로운 삶의 각오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성도들은 구숨을 버리는 결단과 함께 그를 향한 헌신의 삶을 드러야 할 것이다 (참조, 엡 4:22; 골 3:10).

21. ㉠ 성경에 언급된 부모의 의무는 무엇인가? (19절)

- ㉠ (1) 첫째, 주의 교훈으로 양육(養育) 하는 일이다(참조, 엡 6:4; 골 3:21).
- (2) 둘째,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7) 라는 말씀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일이다(참조, 신 6:20;21:19).
- (3) 셋째, 물질을 공급하는 일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참조, 고후 12:14).
- (4) 넷째, 부모는 자기 집을 다스릴 의무와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칠 훈련의 의무를 갖는다(참조, 잠 22:6; 딤펢전 3:4, 12).
- (5) 다섯째, 자녀를 보호하고 사랑할 의무를 부모는 갖는다(참조, 딤펢 2:4).
- (6) 특히 본절에서 우리가 배울 유익한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각자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이름을 후손에게 남겨 주도록 노력하라는 명백한 조건과 의무가 달려 있다는 점이다.

22. ㉠ 병이 회복된 히스기야 왕의 구체적인 헌신의 각오는 무엇인가? (20절)

- ㉠ (1)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구원한 것이 인간들의 조력(助力)이나 근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점을 고백한 후 다음과 같은 헌신을 다짐했다.
- (2) '종신(終身)토록' 노래하리라고 했다. 즉 살아 있는 한, 호흡을 지니고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이 존재해 있는 한 계속 하나님을 찬미할 것을 히스기야는 다짐했다.
- (3) 또한 '여호와의 전(殿)에서' 노래하리라고 했다. 여호와의 전은 신성한 장소로 세속과 구별된 곳이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뜻이다.
- (4) 사실 아하스 왕 때에는 성전 예배시 수금의 사용을 금지시켰다(참조, 대하 29:30).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시 수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고 레위인들과도 협조했으며 히스기야는 매일매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훈에 대하여 감사를 드렸다.
- (5) 병마(病魔)의 사슬에서 해방된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봉사와 찬송을 쉬지 않기로 다짐했다.
- (6) 하나님을 믿어 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된 자들 가운데 다시 세상으로 나가 자행 자지(自行自止) 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자라 책망받을 것이다(참조, 눅 7:30; 딤펢전 5:12).

23. ㉠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내린 처방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 처방은 한 멍치 무화과를 취(取)하여 종처(腫處)에 붙이면 병이 낫는다는 것이다 (왕하 20:7).
- (2) 무화과는 일반적으로 몸에 난 종기를 낫게 하기 위해 그 당시 널리 사용되었다.
- (3)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이 무화과를 취하여 바른다고 해서 그 약효로 낫게 되리

라는 뜻은 아니다.

- (4)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가 그의 순종으로 인해 나타나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것이다(참조, 왕상 17:21; 왕하 4:34, 41; 5:14; 막 7:33; 8:23; 요 9:6).
- (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자신의 이성적(理性的)인 판단이나 경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데 달려 있다.

24. **Q** ‘여호와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의미하는 무엇인가? (22절)

- A** (1) 또 다른 징조를 원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다는 뜻이다.
- (2) 사실 그가 더 오래 살고자 했던 것은 삶에 연연(戀戀)하여 안이하게 살면서 쾌락을 즐기려는 뜻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성전의 거룩성을 옹호하려는 뜻에서였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려는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생명과 건강을 원함에 있어서 성도가 지향해야 할 주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데 두어야 한다(참조, 시 145:11; 벰전 3:15).

### 화보자료

아하스의 일영표. 이 삽화는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9세기경의 헬라이어 성경 사본에 나오는 것이다. ‘일영표’(日影票)란 해 그림자로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이다.



‘아하스의 일영표’는 아하스 왕이 만들어 사용하던 해시계이다. 이것은 시간을 구분하는 표시가 된 계단으로서 그 옆에 세워 놓은 물체의 그림자가 계단에 비추는 정도에 따라 시간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간구에 응답한 징표로 이 일영표에 나타난 해 그림자를 열 계단 내려가게 하셨다.

# 제 39 장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다

단락구분 1 바벨론의 사자(使者)가 히스기야를 방문하다 / 2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에게 무기고와 보물고를 보여 주다 / 3-4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행한 일을 심문(審問) 하다 / 5-7 바벨론 포로 생황이 예언되다 / 8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예언에 복종하다

1 그 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왔다는 말을 듣고 급과 예물을 보냈지라

2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3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물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4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5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소서

6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8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 바 여호와와 말씀이 중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라고 하니라

## 1. ㉠ 본장의 개요와 특징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중병(重病)에서 회복된 후 바벨론 왕 므로다발라단이 히스기야에게 위안하기 위해 보낸 사신(使臣)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다.
- (2) 즉 히스기야 왕의 병이 회복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보내어졌던 바벨론의 사신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재물과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모든 창고의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온 사신에게 시찰케 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경거 망동한 행동으로 인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비극적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된 사건이 본장에 기록되어 있다.
- (3) 한편 본장과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왕하 20:12-19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곳에는 단지 므로다발라단이 부로다발라단이라고 기록되었을 뿐 그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 (4) 본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신중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배우게 된다(참조, 렘 9:23; 롬 1:30; 고전 5:6; 갈 6:14).

## 2. ㉠ 바벨론 왕이 그의 사자(使者)를 히스기야에게 보낸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이 당시에 므로다발라단(B. C. 722-710)은 바벨론의 왕으로서 8년간 재위하고 있었으며 앗수르의 왕 사르곤의 공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 (2) 그래서 그는 앗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동맹 관계를 인근 국가와 체결하려고 하였다.
- (3) 따라서 그는 히스기야의 병의 회복과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 (대하 32:31)을 구실 삼아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므로다발라단은 문안 인사와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이적에 대한 탐문을 구실로 유다를 방문한 후 그들과 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것이 그의 근본 목적이

었다.

- (5) 사단의 수법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치에 맞는 말로 성도들을 유혹한 후 성도의 약점을 이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참조, 마 4:1-10). 우리는 이러한 악의 세력의 도전에 대해 날마다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머무르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벧전 4:7-11).

3. **㉠**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의 사자(使者)를 어떻게 맞이했는가? (2절)

- ㉠** (1)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使臣)들을 접대하고 매우 만족해 했다.  
 (2)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들에게 국가의 모든 무기와 보물을 가능한 한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다 보여 주며 자랑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산헤립의 공격을 받기 전에 남유다의 국가 재산이 풍부했던 것을 알 수 있다(왕하 18:15).  
 (3)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위는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간증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전해 주어야 할 책임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그의 교만에서 나온 악한 행위였다.  
 (4) 결국 여호와를 높이며 그의 능력을 자랑하던 히스기야는 순간적인 실수로 세상의 보물과 무기를 자랑하게 된 것이다.  
 (5) 성도들은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육적으로 건강하여 평안할 때일수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을 살피며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한다(참조, 잠 16:18; 고전 10:12).

4. **㉠** 히스기야 왕이 책망받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히스기야가 사신들을 접대하며 은총을 베푸는 것은 외교 관례상 당연한 것이며 인정이 넘치는 행동이었다.  
 (2) 그러나 그의 동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었다.  
 (3) 즉 히스기야는 야심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사신들에게 공연히 자랑하며 모든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허세와 자기 과시로 우쭐거렸다.  
 (4) 더우기 히스기야가 책망받아야 했던 이유는 앓수르의 침공과 병마의 늪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오히려 자신에게로 돌렸던 것이다(참조, 행 12:20-23).  
 (5) 결국 히스기야 왕의 행한 일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나 재물을 자랑하고 싶은 교만한 마음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불신앙적 태도였다. 모세 율법에는 분명히 나라의 지도자는 재물에 대해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신 17:14-17).  
 (6) 성도들은 이웃에게 자신의 소유를 보일 때, 또는 행한 것과 얻은 것을 보일 때 마치 자신의 힘이나 공로가 이 재물을 얻게 한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지 않도록 자신의 심령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참조, 시 51:10).

5. **㉠** 왜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갔는가? (3, 4절)

- ㉠** (1)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것이다(참조, 삼하 12:1-12; 24:11-14; 왕상 12:22-24; 13:2-5; 대하 12:5-8; 19:2, 3).  
 (2) 이렇게 담대한 자세야말로 선지자 본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다.  
 (3)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름 받은 것이 선지자이다. 선지자는 사람의 조건과 외모에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안고 있는 현대 종교계 지도자들은 현실의 부패와 부조리를 묵과할 것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한 메시지를 선포해야 한다(참조, 신 16:20; 시 82:3; 잠 21:3; 암 5:24; 롬 13:7; 골 4:1).

6. **㉠** 이사야의 질책에 대해 히스기야 왕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3, 4절)

- ㉠** (1) 이사야는 불의 앞에 담대한 예언자였다(참조, 7:3-17).  
 (2) 이사야는 육신의 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에게 인간의 도움을 빌지 말고 하나님께 의지

할 것을 권면하고 그의 행위에 대해 각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 (3)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그 행한 일을 물어 본 것은 히스기야의 태도를 보려는 의도에서였다.
- (4)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질문에 대해 화를 내거나 멸시하지 않고 침착하며 정중하게 그리고 숨김없이 대답하였다.
- (5)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하지만 일단 실수를 저지른 다음에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자세 또한 필요하다(참조, 삼상 10:9; 눅 19:9; 행 13:12; 16:14).

7. **㉠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예언한 말은 누구의 메시지인가? (5절)**

- ㉠** (1) 이사야는 히스기야를 방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라고 했다.
- (2) 즉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전령(傳令)이라는 점을 먼저 밝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특별히 왕에게 전달하는 것이라 하였다.
- (3) 이와 같이 이사야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예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며 훈계하였다.
- (4)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혹은 성경 그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등은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순수하게 전달되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참조, 신 4:2; 12:32; 잠 30:6; 계 22:19).

8. **㉠ 히스기야 왕의 죄로 인하여 임할 형벌이 무엇인가? (6, 7절)**

- ㉠** (1)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 유다의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 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루어졌다(참조, 대하 36:18; 단 5:23).
- (2) 또한 그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참조, 단 1:3).
- (3) 결국 부귀를 자랑하던 히스기야는 바벨론에게 자신의 소유와 나라의 재물을 빼앗기게 되었고 자신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형벌이 후손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 (4)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만에 빠졌던 히스기야의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은 스스로 겸손한 태도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참조, 약 4:10; 벰전 5:5).

9. **㉠ ‘네게서 날 자손’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7절)**

- ㉠** (1) 이 당시에 히스기야 왕은 자손이 없었으며 그를 계승한 므낫세는 이 일이 있은 지 2년 후에 출생하였다.
- (2)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단 1:1-7에 성취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라가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왕의 환관이 된 사실이 있다.
- (3) 그러므로 여기서 자손은 히스기야 왕의 직계 혈통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의 후손을 가리킨다.
- (4) 하나님을 떠난 인본주의 신앙과 교만은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하며 동시에 그 죄값은 삼사 대까지 연장된다(참조, 출 20:5, 6; 신 28:15).

10. **㉠ 이사야의 예언에 대한 히스기야 왕의 답변은 무엇인가? (8절)**

- ㉠** (1)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다 들은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라고 하였다.
- (2) 히스기야의 이 말은 자포 자기(自暴自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지적이 옳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3)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듣고서 이사야와 더불어 따지거나 다투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함으로써 순종의 본을 제시하였다(참조, 엡 5: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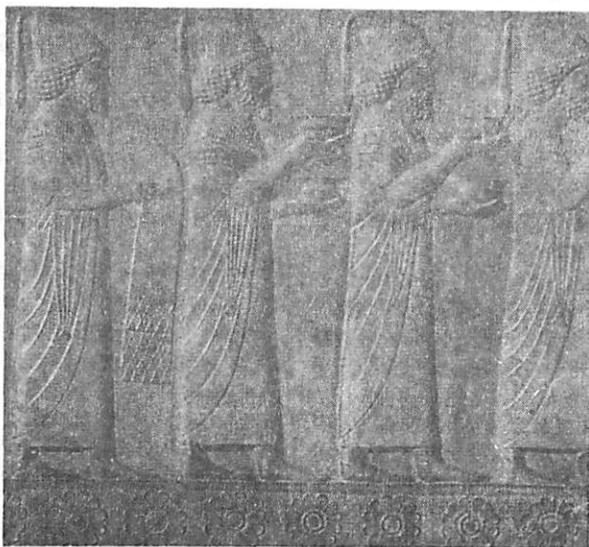
(4) 성도들은 참 목자와 거짓 목자(요 10:3, 5)를 구별해야겠지만 무조건 모두 배척하다가 하나님까지 배척하는 일은 없어야겠다(참조, 잠 23:22; 히 12:5).

11. Q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堅固)함이 있으리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8절)

- A (1) 이 말은 '내가 죽고 나면 다 죽는 거다' 하는 식의 비열한 쾌락주의자나 이기주의자의 저속한 표현이 아니다.
- (2) 즉 히스기야는 후손을 무시하고 당대(當代) 만 안전하면 된다는 사고(思考)에서 한 말이 아니다.
- (3) 그는 하나님께서 인내함으로써 처벌을 완화하신다는 점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있을 뿐이다. 더우기 자신에게 후손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는 메시지였기 때문이다.
- (4) 물론 이 처벌이 장차 내려진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현재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는 것은 그의 마땅한 본분이다.
- (5)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만을 내다보는 자는 발전이 없다. 우리는 오늘의 삶에 감사하고 충실하면서 내일을 설계해야 한다(참조, 마6:34).

### 화보자료

예물을 가지고 온 바벨론 사람들. 페르세폴리스(Persepolis)에 다리우스(Darius, B. C. 520-485)가 세운 아파다나(Apadana) 궁 앞 현실의 동쪽 계단에 새겨진 부조(浮彫)이다.



예물을 가지고 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무기고와 보물고를 모두 보여 준 히스기야의 행동은(2절) 교만에 의한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징벌이 있으리라는 예언이 선포되었다(6, 7절).

# 제 40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다

단락구분 1-2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명하시다 / 3-11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 예언하다 / 12-17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 18-27 하나님의 절대성과 우상의 무상(無常)함을 비교하다 / 28-31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긍휼

1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와 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3 외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너희는 땅에서 여호와와 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4 골짜기마다 들우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 여호와와 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와 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6 말하는 자의 소리에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랴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여호와와 의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9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까지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용이 그 앞에 있으며

11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이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꺾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12 누가 손바닥으로 바다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척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13 누가 여호와와 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

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14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 주었느냐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붕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 오르는 먼지 같으니

16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17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그들을 없는 것같이 빈 것같이 여기시느니라

18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19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술을 만든 것이니라

20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21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때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풀셨고

23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니

24 그들은 겨우 심기웠고 겨우 뿌리웠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가는 초개 같도다

25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26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므로 하나도 빠

집이 없느니라

27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 1. ㉠ 본장이 가지는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본서의 후반부 중 첫번째 장(章)으로서 문체와 사건 전개에 있어서 전반부와는 차이점을 가진다(참조, 서론 ㉠10).
- (2) 한편 본서의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재앙이 언급되어 있으나 여기에서부터는 이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 (3) 또한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앗수르에 의해 당한 환난과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본장에서부터는 그 일들이 이미 지나간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은 전반부의 예언이 일단락 지어지고 새로운 문체와 분위기로써 예언의 내용이 전환되는 시발점(始發點)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 2. ㉠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고 있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 예언자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 (2)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 진행형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거나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어느 특정 인물 한 사람에게 단 한번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4) 또한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법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에 대해 진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언자들에게 그들을 위로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신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어느 시대, 누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이며 또한 그 명령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창 26:5; 신 30:2; 삼상 6:22; 롬 6:16; 행 5:29).

### 3. ㉠ 예루살렘 백성들을 격려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하라고 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정다이 예루살렘에 고(告)하라’고 명령하셨다.
- (2) 여기에서 ‘정다이 말하는 것’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라 엘>은 사랑을 호소하는 데 사용되었던 표현이다.
- (3) 한편 이 말은 창 50:21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했던 표현과 동일하다.
- (4) 그리고 본절에서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지만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권면할 때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한다.

### 4. ㉠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치루었는가? (2절)

- ㉠ (1) 그들은 ‘여호와의 손에서 배(倍)나’ 되는 죄의 대가를 받았다.

- (2) 여기에서 '배' (倍)로 값는다는 것은 율법에 따라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일반 법칙으로 범죄자는 재판관의 판결에 의해 상해(傷害)의 두 배를 배상하였다(참조, 출22:9).
- (3) 그런데 이러한 법칙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방 국가들에게도 통용(通用)되었던 판결법이다.
- (4) 한편 본절에 기록된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두 배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최악의 대가로 많은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형벌은 내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61:7).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사랑의 매로써 더욱 강하게 치시지만 한편으로는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감싸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잠3:12;13:24; 히12:8).

5. **㉠** '외치는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3절)

- ㉠** (1) 이사야는 '외치는 자'가 누구인지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2) 그러나 우리는 '외치는 자'가 다른 모든 예언자들을 포괄할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히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이러한 근거는 신약의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 언급하던 중 본절을 인용하면서 '외치는 자'가 세례 요한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참조, 마3:1-3; 막1:2-5; 눅3:2-6).
- (4) 한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 (마3:2)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임박한 천국의 도래(到來)와 이에 따른 회개를 촉구하였다(마4:17;10:7; 막1:15).
- (5) 또한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마3:11; 요1:26; 행1:5) 요단 강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얻기도 했다(마3:13, 17; 막1:9-11; 눅3:21, 22; 요1:32-34).

6. **㉠** '외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 (3절)

- ㉠** (1) '외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명령했다.
- (2) 이러한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으로부터 팔레스틴까지 여행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실 것에 대한 예언이다.
- (3) 또한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구속 사역을 위해 준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마3:3; 요1:23; 눅1:76).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일을 주관하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참조, 12:4).

7. **㉠** 여호와와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것들을 들 수 있는가? (4절)

- ㉠** (1) 여호와와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본절에서 '곧짜기', '산', '작은 산', '고르지 않은 곳', '험한 곳'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시거나 고 통받고 있는 자들을 도와 주시려고 할 때는 항상 장애물이 따른다는 것이다.
- (3) 이러한 장애물들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정욕, 탐욕, 간음, 우상 숭배, 도둑질, 회의, 시기, 질투, 증오, 비난 등 온갖 죄악을 가리킨다.
- (4) 그러나 이러한 죄악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실족치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성도들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시37:5).

8. **㉠** 여호와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인가? (5절)

- ㉠** (1) 이사야는 '여호와와 영광'이 나타날 때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예언했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민족이 하나

도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한편 여기에서 이사야는 이 말이 ‘여호와와 입’을 통해 나온 말씀임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서야 그것을 깨닫는 인간들을 경고하고자 했다.
- (4)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만 그치지 말고 그 영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9:23; 엡 3:6; 히 12:10; 벧전 5:1).

9. ㉠ 이사야는 인간의 육체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6-8절)

- ㉠ (1) 이사야는 본절에서 인간의 육체를 ‘풀’에 비유하고 있다.
- (2) ‘풀’은 보통 일년생(一年生) 혹은 다년생(多年生)의 초본경(草本莖) 식물로서 줄기가 약하고 연하며 그 수명도 매우 짧다.
- (3) 한편 오래지 않아 말라 버리는 풀에 비유된 인간의 육체도 극히 연약하고 일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곧 썩어 없어질 육신에 얽매이지 말고(참조, 롬 8:3, 4; 고전 2:14; 골 2:5; 요일 2:16)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혼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잠 16:17; 22:5; 겔 18:27; 눅 21:19; 히 13:17; 약 1:21; 벧전 1:22; 요삼 1:2).

10. ㉠ 6-8절에서 육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비유되고 있는가?

- ㉠ (1) 육체가 ‘풀’에 비유된 것처럼 육체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에 비유되고 있다.
- (2) 그런데 ‘들의 꽃’은 ‘풀’에서 피어난 것으로서 활짝 피어 있을 때는 아름답고 향기롭지만 그 꽃이 시들어 버리면 아주 초라하고 추(醜)해 보인다.
- (3) 육체의 아름다움도 이와 같아서 한창 젊었을 때는 건강하고 아름답지만 늙거나 병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와지면 그 모습은 아주 비참해진다.
- (4) 따라서 우리들은 곧 시들고 마는 ‘겉사람’(고후 4:16)의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말고 ‘속사람’(엡 3:16)을 더욱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엡 4:22-24; 벧전 3:3, 4).

11. ㉠ 인간의 육체와 그 아름다움이 소멸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7절)

- ㉠ (1) 이사야는 본절에서 ‘여호와와 기운이 그 위에 불이라’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다.
- (2)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미모와 재능으로 수많은 영광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스치고 지나가면 풀처럼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광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재능만을 믿고 교만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기 때문이다(참조, 창 11:3-11).
- (4)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와 영’ 앞에서는 지극히 무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마 19:26; 막 14:36; 롬 11:33; 고전 1:25).

12. ㉠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7절)

- ㉠ (1) 그는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 시들어 버리는 ‘풀’에 비유했다.
- (2) 그가 이렇게 비유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選民) 의식으로 인해 심히 교만했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나 이사야는 비록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풀’과 같이 시드는 인간에 불과하므로 지나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한다는 의미에서 본귀절을 사용했다.
- (4)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한갓 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의 한계적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보다 겸손해져야 한다(잠 22:4; 엡 4:2; 빌 2:3; 골 3:12; 벧전 3:8; 5:5, 6).

13. ㉠ 이사야는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교하였는가? (8절)

- ㉠ (1) 그는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

히 서리라' 고 말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풀' 과 '꽃' 이 전절(前節) 에 이어 계속 반복된 것은 극히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육체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을 극적(極的) 으로 대조시킴으로써 후자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한편 베드로는 본절을 인용하면서(벰전 1:24, 25)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아니할 씨' 로 나타내고 있다(벰전1:23).
- (4)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로 된 것이므로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 (5)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란 결국은 소멸해 버리는 다른 모든 유기체(有機體)와는 달리 영원히 존재한다. 그러므로 영생을 원하는 우리들은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출 24:3; 신 33:9; 욥 23:12; 시 17:4; 요 17:6; 엡 1:13).

14. **㉠** 이사야는 '시온' 과 '예루살렘' 에게 무엇을 명령하였는가? (9절)

- ㉠** (1) 본절에서 '시온' 과 '예루살렘' 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동일 대상으로서 먼저 이사야는 이들에게 '높은 산에 오르라' 고 명령했다.
- (2) 여기에서 높은 산에 오르라고 명한 이유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 기쁜 소식을 세상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3) 그리고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고 명했다.
- (4) 이 말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소리 높혀 만방에 알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을 확실히 알라는 의미로서 장차 성육신하여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다.
- (5) 한편 본절에서 '시온' 과 '예루살렘' 이 호칭(呼稱) 으로 사용된 것은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의 교사로서 율법을 배워 구원의 도를 널리 전파하는 데 힘써야 했기 때문이다(참조, 말 2:7).

15. **㉠**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10, 11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 (2) 둘째,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용이 그 앞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선한 자에 대한 축복과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모두 주관하신다는 의미이다.
- (3) 셋째,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실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양무리' 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로 작정한 선민(選民)을 가리킨다.
- (4) 넷째,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양 떼들을 전반적으로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악하고 어린 양은 더욱 세밀히 보살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마 18:12-14; 눅 15:4-7).
- (5)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젓먹이는 암컷을 온순히 먹이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몸이 약하거나 어린이가 딸린 여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뜻이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길을 잃고 헤매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선한 목자' 로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시 23:1; 요 10:2, 11, 14).

16. **㉠**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2-14절)

- ㉠** (1) 본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 입장에서 설명하였다(참조, 32:15; 34:16; 61:1).
- (2) 먼저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신 분으로서(참조, 욥 38:8; 잠 30:4) 이러한 능력은 창조 사역에 잘 나타나 있다.

- (3)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땀으로 하늘을’ 재셨다고 했는데 이러한 능력은 ‘내 손이 땅의 기점을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뿔나나’(48:14)라는 말씀에도 찾아 볼 수 있다.
- (4) 세째로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되’는 ‘세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에바의 3분의 1, 즉 11.4ℓ 정도의 부피에 해당된다.
- (5) 네째로 하나님께서는 ‘명칭(名稱)으로 산들을, 간칭(桿稱)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셨다고 했는데 여기서 ‘명칭’은 대(大)저울을, ‘간칭’은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평형 저울을 가리킨다.
- (6)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와 의 신’(창 1:2)을 직접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 (7)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잠 3:19)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므로(잠 1:7;9:10;15:33) 아무도 그분을 가르치지 못한다.
- (8)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전지 전능하신 분이므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함께 의논할 수 없고, 교훈할 수 없으며 ‘공평의 도’와 ‘지식’을 가르칠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달의 도’를 보여 주지 못한다.
- (9)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점의 티끌과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15절) 사실을 깨달아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신 6:13;시 2:11).

17. **㉠** 하나님 앞에서 열방(列邦)은 무엇과 같은가? (15-17절)

- ㉠** (1) 먼저 모든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우물에서 물을 길올 때 물동이 밖으로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
- (2) 그리고 모든 민족들은 아무리 멍처도 물건을 저울에 달 때에 눈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티끌과 같다.
- (3) 또한 바다에 떠있는 큰 섬들도 하나님께는 미세한 먼지와 같이 가벼운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는 모든 민족들이 무한히 작은 것이므로 그들을 물리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은 그분에게 있어서는 아주 쉬운 일이다.

18. **㉠** 16절에서 이사야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가?

- ㉠** (1) 이사야는 본절에서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 소용(所用)에도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火木)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고 했다.
- (2) 이 말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레바논의 모든 나무와 짐승들, 즉 레바논 전체를 드려도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 (3) 한편 레바논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 농사와 목축에 요구되는 지리적인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모든 자원이 풍성한 곳이었다(60:13;왕하 14:9;시 72:16).
- (4) 그런데 이사야가 제사에 대해 이렇게 언급한 것은 인간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 전혀 무효(無效)하다기 보다는 더욱 참되게 그분을 숭배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열납(悅納)될 수 있도록(레 1:4;시 19:14;69:13) 항상 ‘신령(神靈)과 진정으로’ 임해야 한다(요 4:23, 24).

19. **㉠** 18-20절에서 이사야가 우상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 ㉠** (1) 이사야가 본절에서 우상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것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이방 종교에 빠졌었기 때문이다(참조, 시 137:1-3;애 2:15).
- (2) 또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과 비교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우상의 무상(無常)함에 대해 신랄하게 밝히고 있다(19, 20절).
- (3) 그런데 우상은 금, 은 등으로 만들어졌기에 얼른 보기에는 권위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 역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영화(榮華)는 ‘풀의 꽃’처럼(벧전 1:24) 금

방 시들어 버리고 만다.

- (4) 한편 이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십계명 중 가장 중요한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으로서(출 20:3-5) 이것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도 경고한 바가 있다(행 17:29).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상의 일시적인 영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26:9).

20. **㉠**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19, 20절)

- ㉠** (1) 우상은 장인(匠人)이 쇠를 녹여 부어서 만들고 장색(匠色)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달아서 만든다(19절).
- (2) 그런데 여기에서 ‘장인’(히, 하라쉬)는 조각하는 자 혹은 쇠를 녹이는 자를 가리키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장인’이라 불렀다.
- (3) 이외에도 보석 세공인들이나 일반 세공인들이 작은 보석으로 우상이나 부적을 만들었다.
- (4) 이러한 우상은 보통 나무, 금속, 돌, 진흙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중에 금이나 은으로 만든 우상은 속이 비었고 청동, 납으로 만든 우상은 금이나 은으로 도금하였다.
- (5) 이와 같이 우상이란 물질에다 특별한 의미나 가치를 부여한 것이므로 우리들이 어떤 대상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도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1. **㉠** 21절에서 이사야는 어떤 질문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켰는가?

- ㉠** (1)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며 계속적인 질문을 던졌다.
- (2) 이러한 점층법(漸層法)으로 나열된 네 개의 문장은 ‘너희는 이 세상의 기초가 어떻게 놓여졌는지를 알지 못하는가? 라는 하나의 문장을 강조한 표현이다.
- (3) 그런데 이사야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각성시켜 주기 위해서였다.
- (4) 한편 이사야의 이러한 질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닌 지를 항상 점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22. **㉠** 이사야는 감히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22-24절)

- ㉠** (1) 먼저 하나님은 땅 위에 궁창처럼 펴있는 하늘을(욘 22:14) 보좌로 삼으셨기 때문에 땅 위에 있는 인간이 마치 메뚜기 만큼 작아 보일 정도로 높이 계시는 분이시다.
-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푸른 창공을 얇은 포복처럼 펴시고 그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천막과 같이 펼치셨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을 낮추어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셨다(23절).
- (4) 따라서 그들이 겨우 이식(移植)되어 방금 뿌리를 내린 묘목과 같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면 곧 시들어 지푸라기처럼 날아가 버린다(24절).
- (5)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인간이나 우상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시다(시 86:8; 89:6, 8).

23. **㉠**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어떻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가? (25, 26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26절) 고 했다.
- (2)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창조 과정(창 1:14-18)에 대해 알아보도록 요청

하는 말이다.

- (3) 왜냐하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창 1:16)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 별들의 수효를 다 헤아리고 각각 이름을 지어 주셔서(시 147:4) 온 우주를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섭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항상 높이 계신 하나님을 앙망(仰望)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31절; 33:2; 34:5; 64:4; 시 27:4; 34:5).

24. **㉠**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께 어떤 불평을 했는가? (27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受理)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불평했다.
- (2) 그들이 이렇게 불평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고통과 원통한 일에 대해 무관심하신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불평과 오해는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것부터 포로에서 해방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
- (4) 한편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본절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51:16; 시 57:1; 63:7; 91:1; 121:5; 아 2:3; 마 23:37).

25. **㉠**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떠한 호칭으로 불렀는가? (27절)

- ㉠** (1) 이사야는 본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부르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그 백성들을 '야곱아'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야곱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이다.
- (3) 한편 이사야가 '야곱아', '이스라엘아'라고 반복해서 부른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에게 당신의 참된 뜻을 전달해 주기 위한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더라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참 뜻을 깨달을 때까지 간절히 부르신다.

26. **㉠** 이사야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는가? (28절)

- ㉠** (1) 이사야는 불평과 원망을 늘어 놓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거듭해서 확인시킴으로써(21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촉구하였다.
- (2) 먼저 그는 하나님을 영원하시며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로 묘사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성과 위대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 (3)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疲困)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는 육체적인 한계점을 가진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초월성(超越性)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참조, 시 121:4).
- (4) 또한 하나님을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욥 5:9; 11:7; 시 147:5; 전 3:11)이라고 묘사함으로써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당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에게 당신의 사역자들을 계속적으로 권고해 주신다(42:20; 렘 6:10; 롬 2:21-23).

27. **㉠**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증거했는가? (28, 29절)

- ㉠** (1)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심을 밝혔다.
- (2) 둘째로 하나님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로서 결코 피곤하시거나 지치지 않으신다고

했다.

- (3) 세째로 하나님께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했는데 이는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다(11:2; 욥 11:6; 37:16; 잠 1:7; 3:19; 렘 51:15; 미 6:9; 롬 11:33).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데 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창 49:24; 출 6:3; 수 22:22; 욥 5:17; 시 50:1).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지식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다른 우상들과 그분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18절; 46:5; 시 89:6).

28. **Q**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29절)

- A** (1) 먼저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신다.
- (2) 이는 포로 생활을 하면서 무기력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려 주심을 의미한다(참조, 시 121:1, 2).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항상 도와 주시므로(시 23:4)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빌 4:13).

29. **Q** ‘여호와를 앙망(仰望)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내리시는가? (30, 31절)

- A** (1) 본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앙망할 때 받게 되는 은혜를 언급함으로써 지쳐 있는 그들을 격려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소망을 갖게 해주었다.
- (2) 먼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마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했다.
- (3) 한편 ‘독수리’는 수명이 길고 강건하여 ‘새들의 왕’이라 불리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강한 힘을 얻게 된다(참조, 시 103:5).
- (4) 그리고 이들은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라고 했다.
- (5)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피로가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어떠한 피로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피로운 일을 당해도 꺾이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도 실망하지 않고 꺾박을 받아도 버림 받지 않으며 맞아서 쓰러져도 죽지 않는, 즉 ‘새 힘’을 얻는 자들이다(고후 4:8, 9).

본장의 요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31절).

# 제 41 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다

단락구분 1-7 우상 숭배자들을 책망하시다 / 8-20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다 / 21-24 우상들이 소 환되다 / 25-29 여호와께서 자신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증명하시다

1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세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2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뇨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그로 왕들을 치리하게 하되 그들로 그의 칼에 티끌갈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개갈게 하며

3 그가 그들을 쫓아서 그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4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5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 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 와서

6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담대하라 하고

7 목공은 금 장식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땀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8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9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불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1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1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같이, 허무한 것같이 되리니

13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

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14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15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만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갈게 할 것이라

16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 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17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18 내가 자산에 강을 열며 끝까지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로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으로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19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식당나무와 화석류와 들 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20 무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와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21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22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23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 됄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25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방백들을 회삼물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밧음같이 밧을 것이니  
 26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우리에게 고하여 알  
 게 하였느뇨 누가 이전부터 우리에게 고하여 이  
 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뇨 능히 고하는 자도  
 보이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27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

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28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능히 대답할 모사가 없  
 도다

29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  
 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재판키 위하여 모든 민족을 불러모으시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으므로(1절) 본장의 전체적인 흐름은 법정(法廷)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를 풍겨 주고 있다.
- (2) 고대 이스라엘의 전통에 있어서 재판 법정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이 대부분 이곳을 통해 처리되었기 때문이다.
- (3) 한편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재판장(裁判長)이 되셔서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시면서(5-8, 11-13, 21-26절) 당신의 ‘중’ 이스라엘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끼시지 않으셨다(8-10, 14-20절).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장이 주는 교훈을 통해 거짓 신인 우상들과(45:20; 대하 25:14; 33:15; 행 17:18) ‘참신’인 하나님(대상 17:20; 미 7:18)을 철저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후 6:16).

2. **㉠**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열방을 재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가? (1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라는 큰 죄를 지은 열방을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불러모으셨다(1절).
- (2)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판을 시도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과 여러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 사이에 논쟁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자신이 직접 역사의 심판자로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일시에 파멸하실 수 있는 분의심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개최하신 것은 자신의 공의(公義)를 법적 절차에 따라 일목 요연(一目瞭然)하게 보여 주시려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시기 도 한다(창 18:25; 욥 34:17; 시 25:9).

3.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2,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셨다.
- (2) 본절에서 동방의 사람은 고레스(B. C. 558-529)를 가리키는데(44:28; 45:1) 그가 바사 제국을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 날 수 있었다.
- (3)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열국(列國)을 정복하게 되었으며 심지어는 자신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새로 개척해서 정복 작전을 감행했다(3절).
- (4) 한편 우리는 여기에서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죄의 구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4. **㉠** ‘그가 그들을 쫓아서’ 라는 귀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리키는가? (3절)

- A (1) 이 귀절은 바사 왕 고레스가 많은 민족을 정복할 때 왕들을 추격하면서 원정을 감행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 (2) 그는 바벨론 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서쪽 끝까지 진격했으며 원정의 손길은 애굽과 홍해에 이르기까지 뻗치게 되었다.
- (3) 이처럼 고레스는 많은 민족들을 정복하고 그 왕들을 굴복시켰는데 그중에 애굽의 왕, 루디아(Ludia)의 왕과 갑바도기아의 여러 왕들을 대표로 들 수 있다.

5. C 고레스의 열국(列國) 정복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가? (4절)

- A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사건을 직접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라고 반문(反問) 하셨다.
- (2)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이나 우상들도 이와 같은 놀라운 정복 사건을 주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역사(歷史)에 개입하실 때 그 사건의 표면에는 특정한 인간이 나타나지만 그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 2).

6. C 4절에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屬性)이 나타나 있는가?

- A (1)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통해 ‘태초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밝히고 계신다.
- (2) 이 말은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참조, 45:6; 48:12) 이 되시는 ‘영원하신 분’으로서의 속성을 가리킨다(계 1:8, 11, 17; 2:8; 21:6; 22:13).
- (3) 한편 하나님의 속성은 당신께서 직접 밝히시기도 했지만 선지자나 사도들에 의해 증거 되기도 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속 성	관 련 귀 절	뜻
자 존 성 (自存性)	출 3:14	‘스스로 있는 자’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이름으로 이 이름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인에 대한 사랑이 강조된다
단 순 성	요 4:24	하나님은 합성적(合成的)이지거나 복합적이 아니시며 불가분적(不可分的) 이시다
단 일 성	신 6:4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무 한 성	왕상 8:27 행 17:28	하나님은 종식(終息)이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영 원 성	창 21:33 시 90:2; 41:4 제 1; 8, 17; 2:8; 21:6; 22:13	하나님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시다
불 변 성	약 1:17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변할 수도 없는 분이시다
편 재 성 (遍在性)	시 139:7-12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이런 하나님의 편재성과 만물 속에 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범신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주 권	엡 1장	하나님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다

전 지 성 (全知性)	마 11:21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전 능 성 (全能性)	계 19:6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다
공 의 (公義)	행 17:31	하나님께서서는 도덕적인 공정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사 랑	엡 2:4, 5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지고선(至高善)을 추구하신다
진 리	요 14:6	하나님 그 자신으로 대표되는 모든 것과의 일치와 일관성
자 유	40:13, 14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분이시다
거 록 함	요일 1:5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7. **㉠** 고레스의 원정에 대해 열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7절)

- ㉠** (1) 고레스가 바사와 카스피 해 사이에 위치한 메대를 정복하게 되자 애굽, 바벨론, 루디아 등 여러 나라의 왕들은 자기들에게 처한 위협을 느끼고 몹시 당황하였다(5절).  
 (2) 따라서 그들은 고레스의 원정을 저지하기 위해 함께 모여 상호 방위 동맹을 체결하였다(6절).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전쟁 위기로 인해 어지러워진 정국(政局)과 민심(民心)을 수습하기 위한 방편으로 열렬히 우상 숭배를 권장했다(7절).  
 (4) 이와 같이 그들은 온갖 수단으로 무장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손'(10절; 시 48:10)으로 붙들어 주시는 고레스에게 결국 패하고 말았다.  
 (5)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어떤 무기로도 하나님께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출 5:1, 2; 왕하 18:28-36; 대하 13:12-20; 행 5:34-39; 23:9).

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8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다.  
 (2) 여기에서 '종'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43:1-10; 44:1-8, 21; 45:4; 48:20)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42:1-12; 49장; 50:4-6; 52:13-53; 행 8:28-35).  
 (3) 또한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주셨다.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하셨는데 이는 인간에게 나타내신 친밀감의 절정을 이루는 표현이다(참조, 대하 20:7; 약 2:23).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해 줌으로써 그 당시 다른 민족들보다 약세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위로하셨다.  
 (6) 오늘날 겨우 3백만 명에 지나지 않는 약소국인 이스라엘이 수억의 아랍 동맹국들과 상대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기 때문이다(10절; 시 121:2).

9. **㉠**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통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가나안 땅에서 ‘땅 끝’ 만큼이나 멀리 떨어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것을 의미한다(창 11:31).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많은 사람들 중 특별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롬 4:16)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버리지 않을 것이다.
- (4)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당신을 배반했을 때도 결코 싫어서 버리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
- (5)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영원하신 당신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 3:16; 요일 3:1; 4:9, 10).

**10. Q**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는가? (10절)

- A** (1)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실 것이므로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결코 ‘두려워 말라’ 고 하셨다(참조, 신 31:6).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면서 혹시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놀라지 말라’ 고 하셨다(참조, 신 31:8).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하게 하시고 도와 주시며 자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좌절할 때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음성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57:18; 욥 15:11; 시 86:17; 마 5:4; 고후 1:3, 4; 7:6; 살후 2:17).

**11.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열방들을 어떻게 심판하신다고 했는가? (11, 12절)

- A**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던 열방들을 패배시켜 수치를 당하도록 하실 것이다.
- (2) 또한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마치 물거품처럼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실 것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흔적도 없이 진멸(盡滅)시켜 버리실 것이므로 그들의 모습은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으리라고 하셨다.
- (4) 이처럼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철저히 무장한 열방이 허무하게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약한 것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전 1:27, 28).

**12.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13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도우심의 표시로 그들의 ‘오른손’을 붙드셨다.
- (2) 그런데 성경에서 ‘오른쪽’은 보통 ‘의로운’, ‘선한’, ‘거룩한’, ‘선택된’ 것이란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출 15:6; 신 33:2; 사 16:29; 전 10:2; 합 2:16; 마 25:33; 요 2:33; 5:31; 엡 1:20; 계 5:1).
- (3)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내자로서 그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들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연약할 때 부축해 주시고 흔들릴 때는 견고케 하시며 두려워 떨 때는 격려하시는 분이시다(참조, 73:23).

**13. Q**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14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셨다.
- (2) 여기에서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중 대표적 인물로서 본절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3) 한편 ‘지렁이’는 전혀 다른 동물이나 식물을 공격하지 못하고 항상 피해만 받는 입장

이므로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지렁이'같이 지극히 작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욘25:6; 시22:6).
- (5) 따라서 우리들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강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엡6:10; 딤후4:17).

14. **㉠**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14절)

- ㉠** (1) 본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로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이 말은 이사야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 관계에 따른 하나님의 위치를 표명해 주는 말로 곧잘 사용한 귀절이다.
- (3) 한편 '거룩한'이란 말은 세상과 죄악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어진'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13:3; 66:17; 레11:44; 겔48:11; 고후7:1; 엡4:24; 히9:13).
- (4) 이와 같이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비록 지렁이같이 비참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후사(後嗣)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결코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였다.

15. **㉠**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打作) 기계(機械)'로 삼으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 말은 타작 기계가 곡식을 타작하듯이 이스라엘이 열방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란 의미이다(참조, 왕하13:7; 암1:3; 미4:13).
- (3)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복음이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 (4) 이처럼 우리들도 지금은 비록 세상에 대적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때는 열방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참조, 2절; 40:31; 렘51:2).

16. **㉠** '새 타작 기계'인 이스라엘 앞에 열방들은 어떻게 정복되는가? (16절)

- ㉠** (1)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은 이스라엘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 같게 할 것'이다.
- (2) 또한 이스라엘이 열방을 정복할 때 그들은 마치 탈곡되어지는 곡식처럼 바람에 날리고 회오리바람에 흩어져 버릴 것이다.
- (3) 이처럼 본절에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키'에, 열방은 키질할 때 바람에 날아가는 '겨'에 비유하고 있다(참조, 시1:4).
- (4) 본절을 통해 우리는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키로 알곡과 쭉정이를 엄밀히 분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마3:12).

17. **㉠** 하나님은 포로에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17-1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원하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 하셨다(17절).
- (2) 그리고 민둥산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 샘물이 나게 하며 사막을 연못으로 만들고 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18절).
- (3) 또한 사막에는 '백향목(柏香木)과 잇딤나무와 화석류(花石榴)와 들감람나무'를 자라게 하시며 황무지에도 '잣나무, 소나무, 황양목(黃楊木)'이 자라게 하실 것이다(19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 (5) 한편 이러한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보살피심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란 사실을 깨달아 모든 염려는 주께 맡기고 오직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어야 한다(마 6:25; 눅 12:22; 빌 4:6).

18. **㉠**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빈핍(貧乏)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 주신다고 하셨는가? (17,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가련하고 빈핍한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그들에게 권능으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하셨다(18절).
- (2)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은 사막과 황무지가 계속되는 여로(旅路)이므로 물과 양식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그런데 본절에서 언급된 이러한 약속은(18절) 자연 현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역사를 통해 이것을 성취시키셨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완전히 성취시켜 주셨다(요 4:10; 7:37, 38; 계 7:17; 22:1, 2, 17).

19. **㉠** 이스라엘의 귀환 길에 장식될 나무들은 어떤 것들인가? (19절)

- ㉠** (1) 하나님께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광야에는 백향목과 싯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심으시겠다고 하셨다.
- (2) 그런데 이러한 나무들은 시리아나 팔레스틴에서 가장 좋은 수종(樹種)으로 광야나 사막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들이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광야나 사막에 이러한 나무를 직접 심으시겠다는 뜻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귀환 길을 지켜 주시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4) 한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사건은 성도들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 때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알 수 있다.

20. **㉠**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에 심으실 나무들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라(19절).

구 분	히브리어	KJV	관련귀절	산 지	용 도
백 향 목	에 레 즈	cedar	민 24:6 왕하 14:9 시 92:2 호 14:5	레바논산맥	목재(솔로몬 성전과 궁전 건축에 사용)
싯 딤 나무	쉬 타	shittah tree	출 25:10 (조각목)	요르단계곡	일명 아카시아 나무로서 보통 가구(家具)의 재료로 쓰여짐(언약궤, 제단, 책상)
화 석 류	하 다 쉬	myrtle	55:13 느 8:15 슥 1:8, 10, 11	예루살렘 주변언덕	숙곳(Succoth)의 축제에서 초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음
들감람나무	에즈세멘	oil tree	레 23:40 왕상 6:23, 31-33 느 8:15	팔레스틴 전 지역	일명 올리브 나무로서 열매는 기름을 짜고 나무는 초막이나 성전의 기둥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음

갓 나무	베로쉬	fir tree	삼하 6:5 질 27:5; 31:8	레 바논	송진, 재목(성전의 마루, 서까래), 약기(수금, 비파)
소 나무	티드할	pine	60:13	시리아와 팔레스틴 전 지역	주로 목재용
황 양 목	테아술	box tree	60:13	갈릴리 언덕	백향목의 일종으로서 목재, 수저, 빛 등을 제작하는 데에 사용됨

21. ㉠ 황폐한 땅이 기쁨진 곳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자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20절)
- ㉠ (1) 이러한 변화를 목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여호와와 그의 손이 지은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창조한 바인 줄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리라'고 했다.
- (2) 즉 이 말은 혼돈, 공허, 흑암 중에서(창 1:2) 이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황폐한 팔레스틴 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 (3) 한편 팔레스틴의 회복은 장차 적그리스도에 의해 황폐해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회복되는 것을 상징한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게 될 우리들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과 선하심을 깨달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24:16; 수 7:19; 시 102:15; 렘 13:16; 요 9:24; 롬 4:20; 고전 10:31; 계 14:7).
22. ㉠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그들에게 어떠한 요청을 하셨는가? (21-23절)
- ㉠ (1)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상의 허위성을 밝히시기 위해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고 그들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셨다.
- (2) 두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우상의 정당성을 밝히려고 요구하셨다.
- (3) 세째로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고 하셨는데 이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의 예언이 사실인가를 밝히려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이다.
- (4) 네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전 일의 어떠한 것도 고하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일들과 예언하는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려 하셨다.
- (5) 끝으로 '혹 장래사(將來事)를 보이며 후래사(後來事)를 진술하라'고 하심으로 그들이 거짓 예언을 공격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지(豫知)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강조하셨다.
- (6)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 만약 이런 일들을 실제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신(神)을 인정하고 그들의 위력에 놀라 감탄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7) 그러나 우상은 한갓 인간들이 만든 거짓 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허망한 것이며 가증스러운 죄악인 것이다(참조, 45:20; 신 4:48; 렘 10:5; 행 14:18).
- (8) 이와 같이 우상은 사람에게 전혀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는 하나의 사물에 불과하므로(렘 10:5) 우리들은 결코 일시적인 우상의 능력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레 26:1; 신 7:25; 11:16; 요일 5:21).
23. ㉠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야곱의 왕'이라고 소개하셨다.

- (2)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신 이유는 다른 열방의 신이 우상인 반면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상 숭배자들에게 명시해 주시기 위해서이다.
- (3) 이러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셔서 감히 우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 (4) 한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왕이시므로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도 우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렘 10:5; 행 14:18).

24. **㉠** 우상의 실체는 어떠한가?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통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우상의 허구성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말이다.
- (2) 그리고 우상이 추구하는 일은 '허망' (虛妄)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 (3) 또한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可憎)하니라' 고 하심으로써 우상 숭배자들에게 가지시는 자신의 증오심을 나타내셨다(출 20:4; 신 7:25).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우상의 실체를 다시 한번 밝혀 주심으로써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가증스러운 죄악을 반복하지 않도록 각성시키셨다.

25. **㉠**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쳐부수기 위해 누구를 일으키셨는가? (25절)

- ㉠** (1) 본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단지 '한 사람',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로 나타나 있다.
- (2) 이러한 표현은 본장 2,3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은 바사 왕 고레스임이 틀림없다.
- (3) 이러한 근거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해돋는 곳', 즉 동방에서(2절) 부르셨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뿐만 아니라 본절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 로 암시되어 있는 고레스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불렀다(슌 1:2-4).

26. **㉠** 고레스 왕은 어디 출신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방' 에서 부르셨다.
- (2) 그런데 앞에서(2절) 그는 동방에서 일어날 것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북방' 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은 한때 그가 바벨론 북쪽에 있는 메디아(Media)에서 지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를 '해 돋는 곳' 곧 동방에서 부르셨다는 이는 그 출생 및 성장지가 바사(현재의 페르시아)임을 말해 주는 것이다.
- (4) 한편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받은 고레스는 동방 바사에서 시작하여 북쪽의 메디아, 서쪽의 루디아(Ludia), 남쪽의 바벨론 등 많은 우상 숭배 국가들을 정복했다.

27. **㉠** 고레스의 열방 정복의 양상은 어떠한 것이라고 했는가? (35절)

- ㉠** (1)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는 고레스는 '방백들을 회삼물(灰三物) 같이, 토기장이의 진흙을 밟음같이 밟을 것' 이라 했다.
- (2) 그런데 여기서 '회삼물' 이란 석회, 세사(細沙), 황토의 세 가지를 섞어 반죽한 것으로서 묘의 봉분(封墳)이나 건축물의 벽 등에 많이 사용되었으며 '진흙' 은 벽돌이나 토기의 원료로서 보통 토기장이들은 이 재료들을 발로 밟아 이겨 사용하였다.
- (3) 한편 고레스에게 정복당한 '방백들' 로는 메디아의 아스티아게스(Astyages) 왕, 루디아의 크레수스(Crasus) 왕, 바벨론의 나보니더스(Nabonidus) 왕 등을 들 수 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적하던 열방의 방백(方伯) 들은 마치 토기장이의 발에 밟혀 이겨지는 흙과 같이 고레스에 의해 철저히 패배당했다.

(5) 이러한 실례(實例)를 통해 우리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히 진멸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왕상 18:16-40).

28. **㉠**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라고 예언한 분은 누구인가? (26-29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결코 다른 우상들이 이런 예언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셨다.  
 (2)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여호와로서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해방의 기쁜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셨다.  
 (3) 한편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아주 그럴 듯한 예언을 하는데 사실 그들의 가르침은 복음의 진리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많은 성도들을 죄와 죽음으로 인도한다(벘후 2:1-3; 3:2-4; 요일 4:1-3).  
 (4)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요일 4:6)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을 깨달아(요 1:1) 우리를 미혹케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외면할 수 있어야 한다(벘후 3:2, 17, 18; 요 1:10).

29. **㉠** 우상의 실상(實相)은 어떠한가? (28, 29절)

- ㉠** (1) 모든 우상들 중에서 진리의 말씀을 예언하는 우상은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에 바르게 대답하는 자들도 전혀 없다.  
 (2) 이와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자들 역시 거짓 진리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그들의 모든 가르침들은 공허하고 허무할 뿐이다.  
 (3) 따라서 우상 숭배자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우상은 잠시 스쳐 가는 바람처럼 허탄(虛誕)한 일시적인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  
 (4) 이와 같이 우상이나 우상 숭배자들의 모든 행사(行事)는 공허하고 허무한 것이므로 영원한 생명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우상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44:9; 출 20:3-5).

### 연구자료

오른손과 오른편의 성경적 의미. 신구약 성경에서 '오른손' 또는 '오른편'은 특별한 의미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의 상징이자(시 45:4) 축복을 가져오는 특별한 기능의 상징이다(겔 21:22; 계 1:16, 17).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손' (시 20:6; 44:3; 60:5)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참조, 10절; 출 15:6).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른손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며(48:13) 자기 백성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내셨다(시 17:7). 한편 '오른편'이란 단어 역시 '오른손'과 마찬가지로 힘을 상징한다(욘 30:12). 게다가 '오른편'은 존귀와 영광, 위엄을 상징하기도 한다(왕상 2:19).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右便)'에 앉아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기도 하였다(마 26:64; 눅 22:69).

## 제 42 장 여호와의 종 메시아

단락구분 1-4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다 / 5-9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 10-12 여호와를 찬양하라 / 13-17 우상 숭배자들의 심판을 예언하다 / 18-25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다

1 내가 밝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2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3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5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6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7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갠한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9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10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선전할지이다

13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니

14 내가 오래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

리니 숨이 차서 심히 혈떡일 것이라

15 내가 큰 산과 작은 산을 황무케 하며 그 초목을 마르게 하며 강들로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16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테를 끈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17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8 너희 귀머거리들이라 들으라 너희 소경들이라 밝히 보라

19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 같이 귀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20 내가 많은 것을 불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21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22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락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23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들겠느냐

24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하여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25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매 그 사방으로 활활뿜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 Ⓐ (1) 이사야는 전장(前章)에서 바사 왕 고레스에 대해 언급한 데 이어 본장에서는 ‘여호와 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5-9절)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언하고 있다.
- (2) 이와 같이 이 두 인물이 계속 언급된 이유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준 고레스가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다.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 중 믿음이 돈독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바벨론에서의 해방보다 메시아와 그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더 기쁜 소식이었으며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10-12절).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어떠한 예언보다 중요한 것이며 어떠한 소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망임을 알아야 한다.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라고 하셨는가? (1절)

- Ⓐ (1) ‘내가 볼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이러한 근거는 본장 2-4절의 내용이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 (3) 왜냐하면 이러한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한편 신약의 복음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본절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마12:17-21).

3. Ⓒ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종에게 ‘나의 신(神)’을 주었다고 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 언급된 ‘신’은 여호와의 영으로서(시100:30; 요4:24; 롬8:9, 14; 고후3:17; 요일4:2)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가리킨다(11:12).
- (3)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지니시기도 했지만(7:14; 마1:1; 눅1:31; 요1:14; 행2:30; 롬8:3; 갈4:4; 빌2:7,8; 요일4:2; 요이1:7) 하나님의 ‘신’을 지닌 완전한 신적 존재이시다(7:14; 15:16; 17:5; 눅22:69, 70; 요5:32; 요일5:9).
- (4)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한 분이심을 알 수 있다(요10:30,38; 12:45; 14:7-10; 16:15; 롬9:5; 골1:15).

4. Ⓒ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1절)

- Ⓐ (1) 그분은 ‘이방에 공의를’ 베풀 것이라 하셨다.
- (2)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이방에도 복음을 전파하셔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혁신적인 것이었다.
- (4)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오직 그들에게로만 향한 것이므로(시76:2) 이방인들은 당연히 이러한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엡2:12).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에만 제한되었던 복음과 구원의 축복은 이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되었다(2:2; 11:10; 19:22-25; 25:6; 27:13; 요3:16; 5:24; 요일5:13).

5. Ⓒ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떠한가? (2, 3절)

- Ⓐ (1) 본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 (2)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중하고(참조, 마 8:4;9:30) 은유하며 겸손할 뿐만 아니라(마 11:29) 진리를 사랑하시는(요 14:6) 성품의 소유자이심을 잘 나타내 준다.
- (3)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의한 자들이나 가증스러운 자들에게는 과격한 말과 행동을 보이 시기도 했다(마 12:34; 21:12, 13; 23:33; 눅 3:7).
- (4)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성품은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는 것이므로 오직 우리들은 그분의 성품을 좇음으로써(참조, 벧후 1:4)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롬 8:29; 고전 15:49; 살전 1:6; 딤후 1:16).

6. **㉠**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용적 태도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 ㉠** (1)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겨져 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상한'이란 말은 쪼개져서 반쯤 부러진 상태를 뜻하며, '겨져 가는'이란 말은 아주 약하게 타고 있어서 마치 꺼질 듯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3) 따라서 '상한 갈대'와 '겨져 가는 등불'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 즉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소망과 소생할 능력이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
- (4) 이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상한 부위를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친히 대속 제물로 내어 주셨다(참조, 눅 22:56-62; 23:43; 요 4:5-42).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고 부유한 자들보다는 오히려 약한 자들을 위해 오신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마 15:24; 눅 4:18; 5:32; 15:9; 19:10).

7. **㉠** '섬들이' 메시야의 교훈을 앙망하게 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먼저 여기에서 '섬들'이란 열방을 의미하며(11:1, 5) '교훈'은 복음을 가리키며 '앙망한다'는 말은 선택된 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열렬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그런데 열방들이 그분의 교훈을 열렬히 받아들이게 될 것은 '그는 쇠(衰)하지 아니하며 낙담(落膽)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 (3) 한편 이 말은 메시야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 날까지 복음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펴실 것이란 뜻이다.
- (4) 따라서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하던 열방들도 결국 그분의 영원하신 말씀을 열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미리 선택된 우리들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119:40, 131, 174; 벧전 2:2).

8. **㉠** 이사가야 5절을 통해 밝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으며 땅에서 나오는 모든 소산물을 인간들에게 베푸셨다(창 1:8-10).
- (2) 또한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들이 땅 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호흡'을 주셨다(창 2:7).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신' (神)을 주셔서 인간을 동물과는 다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다(창조, 창 1:26, 27; 5:1; 9:6).
- (4) 이와 같이 이사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밝힘으로써 인간에게 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9. **㉠**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를 부르셨는가? (6절)

- ㉠** (1)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다.
- (2) 한편 이 예언의 말씀은 렘 33:5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 이라 했다.

- (3)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셔서 (11:5) 불의로 가득 찬 인간들에게 몸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셨다(참조, 고후 5:21; 히 1:9).
- (4)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분을 믿음으로써 의를 회복할 수 있었다(행 13:39; 롬 3:26, 28, 30; 4:11, 13; 5:1; 갈 2:16; 3:24; 약 2:23; 벧후 1:1; 요일 2:29).

10. **㉠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어떠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셨는가? (6절)**

- ㉠** (1) 여호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셔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의 언약'이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민족 모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을 가리킨다(참조, 창 22:16-18; 롬 11:28; 15:8).
- (3) 한편 이러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성취되었으며(마 26:28) 이전에는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이방인들도 새로운 언약을 약속받았으므로(눅 22:20; 고전 11:25) 결국 그분은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신 것이다(눅 2:32; 행 26:23).
- (4)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구원을 이루어 주실 생명의 빛이시다(요 1:4; 3:19; 8:12; 12:46).

11. **㉠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은 어떤 것인가? (7절)**

- ㉠** (1)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의 눈을' 밝히실 것이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소경'이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이상이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진 사람들을 가리킨다(요 9:2).
- (3) 또한 그분은 '갈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間)에서 나오게' 하실 것이다.
- (4) 즉 이 말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요 8:34; 롬 6:6; 16, 17) 인간을 죄의 사슬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심으로써(요 1:4; 8:12)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롬 6:23)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참조, 롬 8:10).

12. **㉠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본질을 통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이름을 밝히셨다(참조, 출 6:3; 15:3; 렘 23:6; 33:2).
- (2)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경건하게 여겨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으므로 정확하게 이를 기록하지 못하였다.
- (3) 후대 학자들이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붙임으로써 오늘날 우리들은 이를 <예호와>라고 읽게 된 것이다.
- (4) 한편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바와 같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다(출 3:14).
- (5)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므로 다른 모든 것들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창 21:33; 출 3:15; 시 90:2; 139:7-12) 절대적인 분이시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출 3:15) 이름이므로(시 45:17) 우리들은 그 이름을 경외하고(느 1:11; 시 61:5; 86:11; 말 4:2)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25:1; 삼하 22:50; 대상 29:13; 시 9:2; 34:3; 68:4; 69:30; 72:19; 92:1; 96:2; 100:4; 145:1).

13. **㉠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어떤 자들에게 주지 않으실 것이라 했는가? (8절)**

- ㉠** (1) 여호와께서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 (2) 왜냐하면 '다른 자'는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우상'은 피조물인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일시적인 이러한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히 13:8)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기에 합당하지 못하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뛰어난 대상일지라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할 영광을 그 대상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참조, 48:11; 암 6:8; 미 2:9).

14. **㉠** '전에 예언한 일'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을 가리키는가? (9절)

- ㉠** (1) 여기에서 '전에 예언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까지 해 왔던 모든 예언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본서 39:5-7의 예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2)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모든 재산을 잃고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심지어는 그 백성의 자손들 중 일부가 바벨론 왕궁의 환관(宦官) 될 것이라는 예언이다.
- (3) 한편 이러한 예언은 본절에서 언급된 사실과 같이 이미 이루어진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새 일', 즉 이스라엘의 해방과 대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에 예언한 일'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이러한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15. **㉠** 이전의 예언을 성취시키신 후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는가? (9절)

- ㉠** (1) '이제 내가 새 일을 고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고 하셨다(참조, 43:19).
- (2) 본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 알려 주시고자 한 '새 일'은 그들이 바사 왕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사건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이 일은 다른 열방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서 인간의 역사에 새롭게 기록되어질 놀라운 일이었다.
- (4) 또한 이 일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 (5) 본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40:10; 출 15:18; 사 8:22; 왕상 4:21; 단 3:12).

16. **㉠**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께 어떻게 찬송을 드리도록 요청받았는가? (10-13절)

- ㉠** (1)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소리를 높혀 '새 노래'를 즐거이 부르도록 명령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소리를 높힌다'는 말은(대하 5:13) '기뻐하며 큰 소리로'(눅 19:37), '전심으로'(시 86:12; 107:8, 31), '극진히'(시 48:1), '즐겁게'(48:20; 욥 8:21; 시 98:6), '아름답고 거룩하게'(시 16:29; 29:2), '신령과 진정으로'(요 4:24)라는 의미를 가진다.
- (3) 한편 '새 노래'라는 말은 '새 일'(9절)에 대한 감사의 노래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찬양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찬양할 수도 없을 만큼 크신 은혜를 베푸셨으므로(참조, 욥 5:9; 9:10; 11:7; 시 71:15)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단 2:33; 골 3:16).

17. **㉠** 여호와께 찬송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10, 11절)

- ㉠** (1)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10절)과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11절)이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을 드리도록 요청을 받았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여러 대상들은 모든 이방 민족들을 뜻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로 열거되었다.

- (3) 그중에서도 특히 ‘게달 사람’은 팔레스틴 동부 광야를 유랑했던 이스라엘의 후손을 가리키며(창 25:13; 대상 1:29) ‘셀라의 거민들’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바위에 거하는 백성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 (4) 이와 같이 특정한 명칭들까지 나열된 이유는 이러한 대상들이 모든 열방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 (5) 따라서 본질에 언급된 예언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열방에까지 확장됨으로써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18. **㉠ 여호와께서 대적을 쳐부수는 모습은 어떠한가? (13절)**

- ㉠** (1) 여호와께서는 ‘용사’ 같이(출 15:3) 나가 싸우시며 ‘전사’ 같이 크게 분발하여 합성을 지르시면서 원수들을 쳐서 이기실 것이라 하셨다.
- (2) 이 말은 여호와께서 직접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신다는 뜻이 아니라 고레스를 일으켜서 적국인 바벨론을 쳐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가리킨다(41:2, 3, 11, 12, 15, 25).
- (3) 한편 이러한 약속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거짓 예언자, 적그리스도 등의 원수들을 쳐부술 것이라는 예언을 의미한다(계 18:2; 19:15, 19-21).
- (4)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능력을 주시으로써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귀들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셨다(시 44:5; 말 4:3; 눅 10:19; 롬 8:35, 37; 고후 2:14; 10:4; 요일 5:4).

19. **㉠ 오랫동안 참으신 여호와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신다고 했는가? (14-17절)**

- ㉠** (1) 먼저 여호와께서는 모든 산들을 휩쓸어 버리시고 초목들은 시들게 하시며 강과 호수를 완전히 말려 버리신다고 하셨다(15절).
- (2)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에게는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셔서 캄캄하던 앞길을 환하게 하시고 또한 가기 힘든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라고 했다(16절).
- (3) 한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배척을 당하게 할 뿐 아니라 크게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이라 했다(18절).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신 ‘새 일’(9절)은 반드시 이루시되 한때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5)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천지가 진동하는 심판 날에도 결코 당황하지 말고 오직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시 56:3; 잠 29:25; 렘 17:7).

20. **㉠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인내심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14절)**

- ㉠** (1)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인내심에 대해 ‘내가 오랫동안 고요히 하며 잠잠하여 참았으나’라고 표현하셨다.
- (2) 이 말은 여호와께서 약 7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것을 묵인하고 계셨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가 이르렀을 때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숨을 몰아 쉬시면서 원수들에게 진노의 화살을 퍼부으셨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환난이 오랫동안 계속될지라도 이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진행되는 역사(役事)임을 깨달아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30:18; 시 130:5; 잠 20:22; 애 3:25; 함 2:3; 습 3:8).

21. **㉠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16절)**

- ㉠** (1) 여호와께서는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捷徑)으로 인도하며 암흑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소경’은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과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첩경’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기대하

지 못했던 구원의 길을 의미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배반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으나 끝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
- (4)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통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조건부적이거나 상대적인 사랑과는 달리 절대적이며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렘 31:3; 요 3:16; 16:27; 롬 5:8).

22. **Q** '소경' 과 '귀머거리' 는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18-20절)

- A** (1) 여기에서 '소경' 과 '귀머거리' 는 여호와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가리킨다(20절).
- (2) 왜냐하면 그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으므로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소경' 은 영혼의 소경을 뜻하며(6:10; 29:10; 59:10; 마 6:23; 15:14; 23:19; 막 4:12; 요 12:40; 롬 11:25; 고후 3:14; 4:4; 엡 4:18; 벧후 1:9; 요일 2:11), '귀머거리' 는 영적으로 귀가 멀은 자들을 의미한다(6:10; 렘 6:10; 겔 12:2; 숙 7:11; 마 13:15; 행 28:26; 딤후 4:4).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33:17; 66:18; 출 16:7; 시 17:15) 영혼의 귀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창 3:8; 출 19:5; 신 32:1; 수 3:9; 왕하 7:1; 대상 28:2; 시 85:8; 95:7; 잠 1:33; 암 7:16; 눅 8:21; 11:28; 요 8:40, 47; 행 13:7, 44).

23. **Q**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함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20절)

- A** (1)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많은 것을 보면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상 숭배자들이 유혹하는 소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 (2)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미련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기 때문이다(참조, 신 4:9; 6:12; 8:11; 사 8:34; 렘 3:21; 히 2:1).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속한 우리 성도들도(요 8:47; 요일 4:6) 그분 안에서는 어떤 자들보다 지혜로우나(욥 32:7; 호 14:9; 마 7:24; 고전 2:6; 12:8; 딤후 3:15) 일단 그분을 떠나 살게 되면 가장 미천하고 미련한 자가 된다(참조, 눅 15:11-17).

24. **Q**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는가? (21절)

- A** (1)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그 교훈' 은 4절에 나오는 '그 교훈' 과 같은 것으로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으로써 이스라엘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지만 이미 '소경' 과 '귀머거리' 가 되어 버린 그들은 그 말씀을 외면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 (4) 한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성도들을 그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들은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시 79:9; 요 11:4; 고전 10:31; 갈 1:24).

25. **Q** 여호와께서 의를 나타내시고자 할 때 이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는가? (22절)

- A** (1) 그들은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게 될 것이라 했다.
- (2)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패전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약탈당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사건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배반한 그들에게는 '아무리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고 할 자' 가 없게 된 것이다.

- (4) 이 말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자들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도와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다(41:10, 13).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어떠한 입장에 처해 있든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신다(참조, 18:4; 창 16:13; 출 5:21; 욥 7:20; 28:24; 시 33:13; 139:1).

26. **㉠** 이사야는 무엇에 대해 탄식하였는가? (23-25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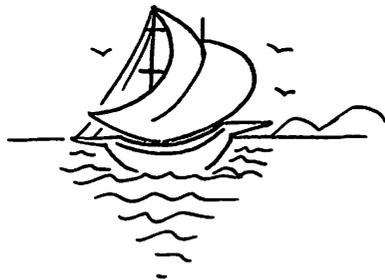
- ㉠** (1) 그는 예언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더욱 빠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9:9; 욥 11:25) 심령에 대해 탄식했다(23, 24절).
- (2)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도 회개치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그는 더욱 강렬한 어조로 탄식하였다(25절).
- (3) 이러한 탄식을 통해 이사야는 환난을 당하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라는 사실을 권고하였다.
- (4) 이와 같이 인간들은 일단 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심령이 완악하고(삼상 17:28; 말 3:13; 마 19:8; 막 3:5; 10:5) 강박해져서(출 7:13; 잠 28:14; 렘 3:17; 겔 3:17; 히 3:13) 하나님의 의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존재이다(46:12).

27. **㉠**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강조했는가? (24절)

- ㉠** (1)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굽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이신 자'로서의 하나님을 강조했다.
- (2)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러한 면을 강조한 이유는 그 백성들 자신이 멸망하게 된 참다운 원인을 찾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의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겪는 재난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줌으로써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것임을 밝히고자 했다.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떤 재난을 당할 때 그것을 자연 발생적 사건으로 돌리기에 앞서 항상 그 일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욥 12:2; 엡 5:17).

**본장의 요절**

‘황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거민들이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0절).



# 제 43장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다

단락구분 1-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다 / 8-13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뿐이시다 / 14-17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시다 / 18-21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경고 / 22-2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책망하시다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  
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  
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  
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4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5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  
을 것이며

6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서 이  
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  
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  
광을 위하여 창조할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  
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8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  
리인 백성을 이끌어 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  
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  
기의 음움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  
게 하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  
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줄 깨닫게 하려 함  
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

느니라

12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  
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  
이니라

13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  
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  
리요

14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  
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  
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15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16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침경을  
내고

17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  
기를 꺼져 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  
노라

18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  
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20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  
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  
이라

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  
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22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피로워하였으  
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피로워하였으며

23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  
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24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

니하며 희생의 기쁨으로 나를 흠족케 아니하고  
 네 죄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  
 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6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

자 너는 네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27 네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28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육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  
 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전장(前章)과 아주 유사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내용은 역시 전장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사건에 대한 것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의 해방에 대한 예언은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를 일으켜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써 성취되었다(40:2;41:2,3,25).  
 (3) 한편 이런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은 이때까지 계속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으로 이어진다.  
 (4) 이와 같이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뜻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2. **㉠ 여호와께서는 자신과 야곱, 즉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밝히셨는가? (1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자’라고 밝히셨다.  
 (2) 여기에서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먼저 무(無)의 상태에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창1:27;5:1;약3:9) 조성(造成)하셨다.  
 (4)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께 속한 자들임을 알아야 한다(갈3:29;요일3:10;4:6;5:1).

3. **㉠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시고 조성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을 내리셨는가? (1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를 구속(救贖)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라는 축복을 주셨다.  
 (2) 그런데 여기에서 ‘구속’이란 말의 히브리어 <가알>은 어떤 대상을 희생시켜서 한 대상을 구원해 준다는 의미로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과 ‘구스’ 및 ‘스바’를 속량물(贖良物)로 삼으셨다.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서까지 우리들을 구속하셨다.  
 (3)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여 당신께 합당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뜻이다.  
 (4) 또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특별히 선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신14:1;롬8:17;9:8;고후6:18)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2절)**

- ㉠** (1)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깊은 물을 지나갈 때나 강을 건너갈 때 물에 침몰당하지 않도록 보살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2)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성취된 적이 있으며(출14:21-29), 노아에게도 다시는 물로써 그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데서 찾아 볼 수 있다(창9:15).

(3)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여호와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므로 결코 위협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참조, 단 3:27).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권능으로써 그 백성들을 모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시 23:4; 27:11; 60:9; 66:12).

5. **㉠**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치루어진 대가는 무엇인가? (3절)

**㉠** (1)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代身)으로 주었노라’고 하셨다.

(2) 이 말은 바사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로 애굽과 구스, 스바에 이르는 넓은 땅을 바사에 주셨다는 뜻이다.

(3) 한편 여기에서 ‘속량물’(贖良物)은 어떤 대상을 구원해 주는 대가로 주는 물건을 의미하는 말로서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도 아낌없이 치루시는데 그분의 이러한 희생적 사랑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보내신 데서 최고 절정을 이루었다(요 3:16).

6. **㉠**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이라고 말씀하시므로써 그 이유를 밝히셨다.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월등하게 선(善)하거나 의(義)로와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써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참조, 벰전 1:7, 19) 하셨기 때문이다.

(3) 나아가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선택의 근거를 제시해 주는 말이기도 하다.

(4) 따라서 죄인 중에서도 ‘괴수’와 같은(딤펴전 1:15)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11절; 시 3:8; 62:1).

7. **㉠** 우리가 아무리 무서운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5절)

**㉠** (1)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시 23:4).

(2)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임마누엘>로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기도 하다(7:14; 마 1:23).

(3) 한편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신약 시대에는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우리의 두려움을 씻어 주셨다.

(4)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밝히시고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창 15:1) 물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밝히시며 역시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셨다(마 14:27; 막 6:50; 요 6:20).

(5) 따라서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일을 당할지라도 ‘임마누엘’을 믿는 우리들은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44:8; 수 1:9; 마 24:6; 눅 21:9; 요 12:15).

8. **㉠**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디로부터 그들을 불러들인다고 하셨는가? (5, 6절)

**㉠** (1)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들을 동방과 서방에서 이끌어 내실 것이며 북방에 있는 민족들에

게는 그들을 풀어 주라고 하실 것이다.

- (2) 또한 남방에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들을 억류하지 못하도록 하시며 나아가서는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실 것이라 약속하셨다(6절).
- (3)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세계 각처에 흩어진 이유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애굽, 바사, 메대 등 여러 지역으로 피난을 갔기 때문이다.
- (4) 한편 오늘날에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팔레스티인으로 불러 주신 것처럼 언젠가는 그들도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9. **㉠ 여호와와의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까지 미치는가? (6절)**

- ㉠**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팔레스티인 부근 지역 뿐만 아니라 ‘원방’(遠方)과 ‘땅 끝’에 이르기까지 불러내실 것이라 하셨다.
- (2)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신약 시대에 있어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어진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팔레스티인으로 불러들이실 때도 그 당시 사람들이 ‘땅 끝’과 같이 먼 곳으로 여겼던 갈대아 우르(현재 위치로는 페르시아 연안에 인접해 있는 이라크 남단)로부터 인도하셨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선택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잠23:14; 렘30:10;46:27; 히5:9).

10. **㉠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부르셨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하신 말씀에서 알 수 있다(출3:15).
- (3) 마찬가지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역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신26:9; 시101:18).
- (4)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당신의 이름으로 불러 주셨는데 이것은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이다(참조, 시79:9).

11. **㉠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8절)**

- ㉠** (1) 그들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이다(참조, 6:10;59:10; 렘6:10; 겔12:2; 숙7:11; 마6:23;13:15;15:14;23:19; 막4:12; 요12:40; 행28:26; 롬11:25; 요일2:11).
- (2)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려 범죄함으로써 영적으로 우매해진 상태를 잘 나타내 준다(참조, 신32:6; 시74:18).
- (3)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범죄로 인해 이미 바벨론에서 해방될 자격을 상실케 되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인도자가 되심으로써 그들을 안전하고 복된 길로(참조, 2절;40:34;41:18,19;42:16) 이끌어 주셨다.

12. **㉠ 여호와께서는 열방의 무능함을 어떻게 밝히셨는가? (9절)**

- ㉠** (1) 여호와께서는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고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라고 단정하심으로써 열방의 무능함을 밝히셨다.
- (2)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는 사건을 가리킨다(참조, 41:4,26;42:9,16,23).

- (3) 한편 '이전 일'은 41:22에 나오는 '이전 일'과 같은 뜻으로서 이는 열방의 우상 숭배자들이 과거에 했던 예언 중 성취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밝혀 주는 말이다.
- (4) 이와 같이 열방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의 권능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한갓 무능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41장 Q22).
13. Q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참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 어떻게 말하셨는가?(10-12절)
- A (1) 첫째,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계신 참신이심을 강조한다(10절).
- (2) 둘째,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하셨다.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나 우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의미한다(11절).
- (3) 셋째,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하셨다(12절).
- (4)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일러주고 보여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예언대로 구원해 주셨음을 밝히시면서 이방 신 중에는 이러한 능력을 갖춘 자들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 (5) 이러한 점으로 보아 우리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며 다른 거짓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신(神)이심을 알 수 있다(렘 10:10; 막 12:29; 요 3:33; 5:44; 7:28; 17:3; 롬 3:4; 계 6:10).
14. Q 이스라엘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선택되었는가? (10절)
- A (1) 먼저 그들은 모든 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證人)으로 선택받았다.
- (2)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사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고 하셨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당신의 '종'(41:8, 9)으로 선택하셨는데 이것은 그분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가르쳐 준다(참조, 신 6:13; 10:12; 수 22:5; 시 2:11; 단 3:17; 마 20:26; 행 24:14; 고전 16:15; 고후 8:4; 살전 1:9).
- (4) 한편 '증인'과 '종'의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서(마 4:23; 20:28; 요 18:37; 계 1:5; 3:14) 이러한 그분의 삶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거룩한 표본이다(롬 8:29; 벰전 2:21).
15. Q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증인'과 '종'으로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0절)
- A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함이라'고 하신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이방 민족을 의미한다.
- (3) 또한 '내가 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니 후>로서 본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곧 유일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혀 주고 있다.
- (4)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도구로 선택하신 목적은 그 백성을 통해 모든 이방이 여호와를 알고 믿으며 오직 당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이다.
- (5) 한편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된 우리들도 모든 불신자들에게 당신을 증거함에 있어서 의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42:6; 51:1; 잠 21:3; 행 10:35; 롬 10:5).
16. Q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는 귀절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10절)
- A (1) 먼저 '지음을 받은 신'이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 즉 모든 우상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모든 우상을 만든 인간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창 1:26, 27).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57:15; 신 32:40; 33:27; 욥 36:26; 시 90:2; 딤후 1:17; 히 1:11, 12; 계 1:8), 즉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출 3:14).
- (4)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므로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존재할 수 없다(44:8).

17. **Q**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12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고 하셨다.
- (2) 여기에서 ‘증인’이란 보통 문제시되는 어떠한 사건을 목격한 자로서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일들을 사실대로 증명하고 진술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 볼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보통 다른 사건들의 증인들과는 달리 많은 위협을 감수해야 했는데 심지어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4) 한편 이러한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가장 신실한 제자였던 베드로조차 한때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로 보아 알 수 있다(눅 22:56-62).
- (5)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성도들을 위협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신앙적 결단을 가져야 한다(참조, 마 26:35; 롬 6:3; 14:8; 빌 2:30; 계 2:10; 12:11; 14:13).

18. **Q** 1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 A** (1) 하나님께서는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시므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피할 자가 없을 뿐더러 그분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뜻이다.
- (3) 한편 여기서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란 말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타내며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란 귀절은 그분의 주권과 전능성을 가리킨다(참조, 41장 **Q**6).

19. **Q**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 했는가? (14절)

- A**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바벨론으로 바사 사람을 보내어 ‘갈대아 사람’들을 쳐서 멸망시킴으로써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하셨다.
- (2) 여기에서 바사 사람은 바사 왕 고레스를 위시하여 바벨론 침공에 참여했던 바사 군인들을 말한다.
- (3) 그리고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의 남부 지역에 위치한 갈대아 지방의 주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 있는(단 2:2; 4:7; 5:7) 일반적인 바벨론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이다(참조, 47:1).
- (4) 한편 고레스 군대가 추격할 때 그들은 바다로 도망했는데 이들이 도망가기 위해 탄 배는 과거에 ‘연락’(宴樂)을 위해 사용된 배였으나 이제는 통곡과 비명이 가득 찬 피난선이 되었다.
- (5) 이처럼 고레스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바사의 군사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20. **Q**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15절)

- A** (1) 먼저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거룩한 자’ 라고 자신을 밝히셨는데(3, 14 절; 40:25; 41:14, 16, 20) 이는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으므로써 다른 이방들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이다.
- (2) 그리고 ‘이스라엘의 창조자’ 라고 자신을 밝히셨는데 여기에서 ‘창조자’ 는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자’ 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의미이다(참조, 고후 5:17; 갈 6:15; 엡 2:10, 15; 4:24).
- (3)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너희의 왕이나라’ 고 일러주셨는데(참조, 33:22; 삼상 8:7; 12:12; 시 24:10; 95:3; 단 2:47; 4:37; 5:21)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으로 영원히 그들을 통치하시겠다는 의미이다(출 15:18; 사 8:23; 대하 20:6; 시 10:16; 22:28; 계 19:6).
- (4)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 받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거룩한 자’, ‘창조자’, ‘왕’ 으로 모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 21. Q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과거의 어떠한 사건을 예로 들고 있는가? (16, 17절)**
- A** (1) 여호와께서 오래 전에 바다를 갈라 출렁거리는 물결 사이로 곧고 큰 길을 내신 적이 있었다(16절).
- (2)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 전차나 말을 타고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의 군대는 그분의 진노를 받아 마치 꺼져 가는 등불처럼 소멸하고 말았다(17절).
- (3) 이 사건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군대들이 애굽의 홍해 한가운데서 완전히 소멸당했던 사실을 묘사한 것이다(출 14:21-29).
- (4) 결국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권능과 기적으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것처럼 바벨론을 물리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 22. Q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8-20절)**
- A** (1) 물론 여호와께서 과거에 그들 백성들에게 보여 주신 일들도 위대한 것이었지만 앞으로 베푸실 ‘새 일’ 은 과거의 어느 사건보다 더욱 위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 줄 ‘새 일’ 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여 그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시는 축복을 가리킨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도중에 놓여 있는 광야와 사막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므로써 그들이 팔레스틴까지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다.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 일’ 은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역사(役事)이다.
- 23. Q 어떤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했는가? (20절)**
- A** (1) ‘장차 들짐승 곧 시랑(豺狼)과 및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했다.
- (2) 여기에서 ‘시랑’은 황폐하고 거친 광야에 서식하는 들짐승으로서 늑대와 여우의 중간에 속하는 재칼(Jackals), 혹은 송냥이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타조’는 주로 사막 지역에 살고 있는 타조과의 새로서 키가 2m에 달하며 시속 40km 정도로 달릴 수 있는 조류 중 가장 큰 동물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들짐승까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심으로 주로 이곳에 서식하는 시랑과 타조까지도 그 혜택을 받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 못 하는 피조물까지도

반응하게 되는(참조, 시 114:3, 4, 7) 초자연적인 은총을 베푸신다(40:3, 4; 41:18, 19).

24.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으셨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으신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2) 그런데 여기서 ‘지었다’는 말은 다른 피조물의 창조에도 적용되는 포괄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특별한 의미로서의 창조이다(참조, 엡 2:10).  
 (3)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되었다(고후 5:17; 갈 6:15; 엡 4:24).  
 (4)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선택해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드려야 한다(참조, 시 79:9; 뱀 13:16; 눅 2:20; 빌 1:11).

25. **㉠**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22-24절)

- ㉠** (1)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들은 당연히 그분을 찬송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는 갖가지 범죄를 저질렀다.  
 (2)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3) 둘째,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라고 하셨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피곤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수행해야 할 기도 생활을 오히려 귀찮게 여겼다.  
 (4) 셋째, 그들은 불로써 태워 바칠 번제물(燔祭物)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  
 (5) 넷째,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향료를 사는데 인색했으며 희생 제물의 기름을 흠족히 바치지도 않았다.  
 (6)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인색하게 대했으며 심지어는 그들의 죄로 하나님께 짐을 지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7) 이러한 태도는 오늘날 중심이 하나님에서 떠나 있는 자, 즉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보다 신실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태도를 배격해야 한다.

26. **㉠**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양상은 어떠했는가? (23,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리한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본적인 제사 예물조차 드리지 않는 불성실함을 보였다.  
 (2) 더우기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이 추호도 없었기 때문에 ‘향품’과 ‘희생의 기름’에 무관심했었다.  
 (3) 그들이 이와 같이 제사 제물에 관해 무성의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신앙심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류가 상실된 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시 40:6; 51:16).  
 (5) 한편 이런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에 해당하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형식에서 떠나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믿음으로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요 4:23; 뱀전 2:5).

27.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제사는 어떠한 것인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乳香)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다’고 하셨다.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형식적인 제사를 강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리한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다.

- (3)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사 그 자체보다 제사에 임하는 믿음을 중요시하신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따로 제물을 예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으로 화답하셨다(창 22:1-18).

28. **㉠**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塗抹)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란 이스라엘에 대한 속죄는 결코 그들의 미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이며 자유로운 구원의 은총에 의한 것임을 뜻한다.
- (3) 그리고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망할 때 하나님께로 향한 용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말씀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로써 당신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써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다.
- (5) 그런데 일부 성도들 중에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오해하여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태도는 미성숙한 신앙인의 태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2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대해 어떻게 밝히셨는가? (26-28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약 의로운 것이 있으면 나타내 보이고 무죄하다면 그것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들이 행한 불의를 밝히셨다.
- (2)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는 먼저 '네 시조(始祖)가 범죄하였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이스라엘이 조상 때부터 이제껏 하나님 앞에 행해 왔던 범죄의 역사를 대변해 주는 말이다.
- (3) 여기에서 '시조'란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을 가리키는데 그와 같은 의인도 한때는 거짓 말하는 범죄를 행했다(창 12:11-19; 20:2-12).
- (4) 또한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背逆)을 하였나니'라고 하셨듯이 백성들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마저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 (5) 이처럼 이스라엘의 불의를 밝히신 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소(聖所)의 어른들로 육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여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고 하셨다.
- (6) 여기에서 '성소의 어른들'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데 그들도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포로로 끌려가서(왕하 25:18)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 (7) 결국 이러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됨으로써 입증되었다(왕하 24:14-16; 25:10, 11, 18-21).

**본장의 요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塗抹)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25절).

# 제 44 장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단락구분 1.5 선택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다 / 6.8 여호와는 유일한 신이시다 / 9.21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 22.28 여호와는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

1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 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문아 두려워 말라

3 대저 내가 같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리니

4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벼들같이 할 것이라

5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7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뉘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8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9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어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10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11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2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메로 치고 강한 팔로 팔리로 심지어 주려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13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굵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담다움을 따라 인

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14 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15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울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16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움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18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19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의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중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20 그는 재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저 것이 있지 아니하나 하지도 못하느니라

21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잇몸이 되지 아니하리라

22 내가 네 허물을 뱉는 구름의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23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

래할지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이다 산들이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 내어 노래할지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 이로다

24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 한 자없이 홀로 하늘을 뚫으며 땅을 베 풀었고

25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폐하며 침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26 내 종의 말을 옹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진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27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28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진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 (1) 본장의 전체적인 맥락은 40장부터 계속 언급되어 온 이스라엘의 해방, 그들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 구원의 약속,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 등으로 점철(點綴)된 평이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2) 그러나 본장의 후반부에서는 이때껏 익명(匿名)으로 소개되었던(41:2, 3, 25; 43:14) '고레스'(28절; 45:1; 대하 36:22, 23; 스 1:1, 2, 7, 8; 3:7; 4:3, 5; 단 1:21; 10:1)의 이름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된다.

(3) 특히 고레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유다 성들의 증진(重建),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은(26-28절) 본서의 예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서 예언의 말씀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화되는 것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이라 부르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이라고 부르셨다.

(2) 이러한 명칭은 본서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9:8; 10:21, 22; 14:1; 27:7; 29:23; 40:27; 41:8, 14, 24; 43:22) 41:8에 나타난 명칭은 어순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3) 구체적인 내용은 본서 40장 ㉠25와 41장 ㉠8을 참조하라.

###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셨는가? (1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들으라'고 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 직접 전해 주셨다.

(2) 여기에서 '이제 들으라'는 말은 전장의 끝부분에서 그들의 범죄를 책망하고 앞으로 받게 될 형벌에 대해 언급하였으나(43:22-28) 이제는 분위기를 바꾸어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여기에서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깊이 명심시키기 위해 사용하셨던 말이기도 하다(참조, 신 6:4-9).

(4) 한편 이러한 <쉐마>는 이스라엘의 종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에 있어서 전통적 교육 방법으로서 널리 사용되었다.

### 4. ㉠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떠한가? (2절)

㉠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며 '모태에서 조성하고' 그들을 도와 주시는 분이시다.

(2) 그런데 이 귀절은 43:1, 7에도 나타나 있는 것인데(참조, 43장 ㉠2, ㉠10) 여기에서는 '모태에서'라는 말이 첨가되었다.

(3) 한편 '모태(母胎)에서 조성하고'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유전적 언약,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참조, 롬 9:11) 자신의 후사로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 수 있다(참조, 시 11:4; 14:2; 33:13; 53:2).

5. **㉠** ‘여수룬’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야곱’에 이어 새로이 사용하신 또 하나의 별칭(別稱)이다.
- (2) 여기에서 ‘여수룬’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예슈룬>인데 그 의미는 ‘공의로운 자’이다. 이 말은 ‘공정하게 된다’ 혹은 ‘기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야사르>에서 파생된 말이다.
- (3) 한편 이 말은 실제적인 명칭이라기 보다는 이상적(理想的)이고 시적(詩的)인 분위기를 풍기는 이름으로서 성경 전체에 몇 번밖에 나타나지 않는다(신 32:15; 33:5, 26).
- (4) 따라서 이 명칭은 명예롭고 존경스러운 표현으로서 후대에 와서는 의롭고 작은 백성이라는 애국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 (5)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러한 명칭으로 부르신 것은 그 백성들이 과거에 받은 은총에 의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은 무엇인가? (3절)

- ㉠** (1) 먼저 여호와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본서에서 ‘물’은 통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상징물로 사용되었다(35:6; 43:20; 45:1).
- (2)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이 말은 메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리라는(시 23:3) 의미이다.
- (3) 또한 ‘나의 신(神)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였는데 여기에서 ‘나의 신’은 앞에서 언급한 ‘물’과 ‘시내’를 의미한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갖 범죄로 메말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축복을 내리심으로 영적 갈증을 완전히 해소시켜 주셨다.
- (5) 한편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오늘날의 우리들도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다(요 4:14; 6:35; 7:37; 계 22:17).

7. **㉠** 하나님께서는 영적 고갈 상태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죄악으로 인해 영혼이 메말라 있는 그들을 ‘갈(渴)한 자’ 및 ‘마른 땅’으로 비유하셨다(참조, 41:17).
- (2) 그러므로 여기에서 ‘갈한 자’는 물을 마시지 못해 갈증을 느끼는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목마르게 갈구하는 자를 뜻한다(참조, 시 63:1).
- (3) 또한 ‘마른 땅’은 계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그 영혼이 몹시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참조, 시 68:6).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생수를 갈구할 때 항상 영혼의 소나기 곧 은혜의 단비로써 그들의 갈증을 씻어 주신다(신 32:2; 시 36:8; 72:6; 겔 34:26; 호 6:3; 10:12).

8. **㉠** 축복을 받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갈한 자’와 ‘마른 땅’ 같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변화시키실 것이라 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버들’은 주로 물가나 길 옆에 많이 나고 습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서 그 성장 속도가 무척 빠르다.
- (3) 그리고 ‘풀’은 모든 이방 민족을 가리키며, ‘시내’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근원을 뜻한다.
- (4)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수를 공급받게 된 이스라엘은 마치 시냇가에 자라는 버드나무처럼 모든 나라들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아무리 보잘것없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불신자들보다도 뛰어난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35:3; 60:22; 고전 1:27; 15:43).

9. **Q** 이스라엘에 대한 이방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5절)

- A** (1)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비난과 조소를 보냈던(시 137:7) 이방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회복되자 그들도 여호와께 속하고 싶음을 고백했다.
- (2) 또한 그들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自稱)할 것'이라 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이스라엘의 반열(班列)에 동참하기를 원했다.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稱呼)'할 것이라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개종(改宗)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약 8억에 달하는 인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

10. **Q** 이방인들은 그들이 개종한 사실을 어떻게 나타내었는가? (5절)

- A** (1) 그들은 자신들이 개종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였다.
- (2) 그런데 그 당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몸에 새기고 다니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였다.
- (3) 이방 신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비록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방인의 관습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음을 지적해 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초신자(初信者)들 중에서도 신앙 생활을 하기 전의 생활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여 갈등을 겪는 성도들이 많다.
- (5) 그러나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엡 4:22-24) 입어야 한다(참조, 골 3:8, 9).

11. **Q**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6절)

- A** (1)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셨다.
- (2) 이 귀절은 43:15의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 이러한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한 것은 조금만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도 불신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알려 주셨지만 우매한 그 백성들은(1:3; 27:11; 29:11; 신 32:28; 시 106:7; 렘 4:22) 하나님을 망각하고 많은 죄악을 범했다(참조, 눅 11:39, 40; 12:20; 롬 1:22; 고전 1:19; 엡 5:15).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구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죄악에서 떠나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민 15:39; 신 15:15; 느 4:14; 시 22:27; 전 12:1)

12. **Q** 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 A** (1) 먼저 하나님께서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속성 중 영원성에 관한 말이다(41:4; 시 90:2; 계 1:8; 2:8; 21:6; 22:13).
- (2) 또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분의 유일성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참조, 신 6:4).
- (3) 하나님의 다른 속성에 대해서는 41장 **Q**6을 참조하라.

13. **Q**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A** (1)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

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은 한갓 우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 (2) 그런데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이방 신들이 실제적인 능력으로써 인간에게 복과 화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오해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우상의 실체를 밝히시고(9-20절; 40:18-20; 41:21-24) 오직 참신은 당신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셨다(6절; 43:11, 12).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백성들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므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셨다(41:10, 13; 43:5).
- (5) 한편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는 우상 뿐만 아니라 어떤 세력이 우리를 위협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더욱 담대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대상 22:13; 엡 3:12; 빌 1:20; 요일 3:21; 4:17).

14. **㉠**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실상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우상들에게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본서의 41:22, 23에도 언급된 것으로서 우상 숭배자들의 거짓 증언과 거짓 예언의 실상을 대변해 주는 말이다(참조, 41장 **㉠** 22).
- (3) 또한 그들에게는 '반석'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반석'은 '믿음의 근거'를 의미한다.
- (4) 이처럼 우상은 거짓 신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지할 만한 대상이 못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렘 10:5; 합 2:18).

15. **㉠**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9절)

- ㉠** (1) '우상을 만드는 자'는 모두 '허망'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만들어 섬기는 우상은 전혀 무익한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허망'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로서 원시적인 혼란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참조, 24:10; 34:11; 40:17, 23).
- (3) 또한 우상을 증거하는 사람들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것이라 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역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신 4:48; 시 115:5-7)이기 때문이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생명이 없는 우상과 같이 허망하게 만드심으로(시 115:8) 결국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된다.
- (5) 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반드시 파멸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에도 지나치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출 20:4; 34:17; 레 26:1; 신 7:25; 11:6; 요일 5:21).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곧 자멸을 의미한다.

16. **㉠**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는 누구인가? (10절)

- ㉠** (1) 우상을 만드는 자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쇠를 녹여 부어 만드는 자들을 장인(匠人)이라 하며 주조(鑄造)된 물체에 금을 입히고 은으로 장식하는 자들을 장색(匠色)이라 한다(40:19).
- (2) 이러한 자들 외에도 보석 세공인들이나 일반 금속 세공인들이 보석으로 조그만 우상이나 부적을 만들었으며 '철공'이나 '목공'들은(12, 13절) 나무, 금속, 돌, 진흙 등으로 우상을 만들기도 했다.
- (3) 그런데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장색'(匠色)은 히브리어로 <초레프>로서 원래는 '쇠를 녹이는 자'를 가리키며, 우상을 만드는 자는 통상 '장인'(히, 하라쉬)이라 불리었다.
- (4) 한편 이러한 자들의 후예 중에서는 오늘날 불신자들에 의해 예술가로서 많은 존경을 받는 자들이 있다.

(5)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는 (23:18; 요일 2:24; 계 21:3) 결국 그들의 명예도 허망하게 사라지는 우상과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롬 1:22, 23; 고전 8:4).

17. **㉠** 수치를 당할 자들은 누구인가? (11절)

**㉠** (1) '그 동류(同類)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다.

(2) 여기에서 '동류'는 장인, 장식을 비롯하여 보석 세공인, 금속 세공인, 철공, 목공 등 우상을 만드는 부류(部類)의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18. **㉠** 철공들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은 어떠한가? (12절)

**㉠** (1) 철공들은 우상을 만들기 위해 쇠를 숯불에 달구고 강한 팔로 '팔리므로' 결국은 허기지고 목이 말라 지쳐버린다.

(2) 여기서 '팔리므로' (히, 파알)라는 말이 NIV에는 '벼리다' (forge)로 번역되어 있다.

(3) 따라서 '팔리다'라는 말은 달구어진 쇠를 망치로 두드려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동작을 의미한다.

(4)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좋은 연장이나 시설이 없었으므로 쇠로써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 **㉠** 목공들은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가? (13, 14절)

**㉠** (1) 목공들은 나무의 치수를 재고 거기에는 사람의 윤곽을 그려 아름답게 조각하여 자기 집의 우상으로 모신다(13절).

(2) 또한 그들은 우상 제작에 사용되는 목재를 준비하기 위해 백향목을 자르고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사용하기도 하며 전나무를 심어 놓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도 한다.

(3) 여기에서 '디르사나무'는 RSV에는 삼나무의 일종인 사이프레스(cypress)로 나와 있는데 정확한 수명(樹名)은 너도밤나무(holm tree) 혹은 털가시나무(ilex)로 불리운다. 이 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찾아 보기 힘든 나무로서 주로 시리아의 산맥에서 자란다.

(4) 그런데 목공들이 이런 목재들을 주로 사용했던 것은 백향목은 그 향기 때문이었고(호 14:6)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는 단단하고 내구성이 강했기 때문이었다.

20. **㉠** 우상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의 원래 용도(用途)는 무엇인가? (15-17절)

**㉠** (1) 목공들이 우상 제작용으로 선택했던 나무들은 원래 화목(火木)으로 사용되었으며 후일에는 가구, 건축용의 목재로 사용되기도 했다(참조, 41장 **㉠** 20).

(2) 따라서 사람들이 이러한 나무들로 모닥불을 피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빵을 굽거나(15절) 고기를 삶기 위한 연료로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16절).

(3)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사용하던 나무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나무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대항하였다.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창 1:26-30; 9:2; 시 8:6; 히 2:8; 약 3:7).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고 다스려야 할 피조물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인간성 회복을 통해 그 특권을 회복하고 아울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참조, 43:7).

21. **㉠**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태도는 어떠한가? (17, 18절)

**㉠** (1) 그들은 우상을 직접 만들거나 우상 제작자들로부터 그것을 구입하여 자기들의 신으로서 모신다.

(2) 이렇게 하여 일단 신으로 모시게 되면 '그 앞에 부복(俯伏)하여 경배'하게 되는데 여기서 '부복'이란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는 동작을 가리킨다.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간구한다.

- (4) 그러나 생명이 없는 한갓 나무 토막이나 쇠조각에 지나지 않는 우상이 그들의 기도를 들을 수 없음을 물론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눈과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18절).

22. **㉠** 우상 숭배자들의 실상은 어떠한가? (18-20절)

- ㉠** (1) 그들은 어리석고 무식하여 자신이 하는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식별할 수 있는 이성(理性)을 상실했다(18절; 45:20; 롬 1:22, 23).
- (2) 그리고 그들은 생각할 능력이나 지식이 없으므로 자기들이 화목용 혹은 연료용의 목재로 만들어진 우상에 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할 지각(知覺)이 없다(19절)
- (3) 그러므로 그들은 거짓 우상에 빠져 있는 자신을 구할 수도 없고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우상이 거짓 신이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것이다(20절).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생명 없는 우상과 같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시 115:8).

23. **㉠** 이사야는 우상 숭배자들의 심령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20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자들의 심령 상태를 '그는 재를 먹고 미혹(迷惑)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라고 묘사했다.
- (2) 여기에서 '재'는 어떤 물질이 불에 타고 남은 분말 따위의 찌꺼기로서 이것은 쉽게 흩날리고 소멸함으로 폐허(廢墟)의 상태, 비참한 상태, 무가치한 일 등을 비유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참조, 61:3; 삼하 13:19; 욥 30:19; 절 28:18).
- (3) 따라서 이러한 재를 먹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들을 추구함으로 결국 그들의 심령은 우상의 헛된 꿈에 현혹되어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 (4) 한편 호 12:1에 '바람을 먹으며' 라는 귀절이 있는데 이것도 본절과 같이 헛된 것을 추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 (5) 반면 우상의 헛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여호와와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며(시 37:3) 진리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119:103; 렘 15:16).

24. **㉠**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다'는 귀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0절)

- ㉠** (1) 먼저 신구약 성경에서 오른쪽이나 오른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의미	참고귀절
오른손	능력	욥 40:14; 시 45:4; 눅 6:6; 행 3:7
	축복을 주는 특별한 기능	창 48:14; 출 29:20; 절 21:22; 마 25:33; 27:29; 제 1:16, 17
하나님의 오른손	창조와 큰 능력의 표현	48:13
	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표현	출 15:6-12; 신 33:2; 시 17:7; 18:35; 89:13; 139:10
	의로우심	41:10, 13
	심판과 재앙의 도구	시 74:11; 77:10; 애 2:3
	자신의 백성을 처벌하시는 도구	62:8; 애 2:4
	위험받는 쪽	욥 30:12; 시 91:7

오 른 편	호소하는 쪽	속 3:1
	보호하려 오는 사람이 서는 방향	시 16:8; 109:31; 121:5; 행 2:25
	위엄과 영광의 자리	왕상 2:19; 시 45:9
	그리스도의 권능과 영광	막 12:36; 행 2:34, 35; 5:31; 롬 8:34; 엡 1:20; 골 3:1; 히 1:3; 8:1; 10:12; 12:2; 벧전 3:22
	구 원	마 27:38; 막 15:27; 눅 23:33
하나님 우편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위치	막 16:19; 눅 22:69; 행 7:55, 56; 롬 8:34; 골 3:1; 히 10:12; 12:2; 벧전 3:22

- (2) 도표에서 보아서 알 수 있다시피 우상 숭배자들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다'는 말은 결국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불의(不義)한 것임을 의미한다.
- (3) 한편 '왼손'은 성경에서 죽음과 거짓 등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삿 3:15, 21; 20:16; 삼하 20:9, 10).

25. **㉠**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셨다.
- (2) 여기에서 '이 일'은 본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 즉 우상의 무익성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가리킨다.
- (3) 한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명하신 '이 일'을 마음에 새겨서(신 6:6) 결코 우상으로 인해 죄짓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출 20:3-5).

26.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또한 자신의 종으로 삼으셨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이라 약속하셨다.
- (2)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과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은 '기억지 아니하리라'(43:25; 렘 31:34; 히 8:12; 10:17)고 말씀하셨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일단 자신의 종으로 선택된 성도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41:17; 42:16; 신 4:31; 수 1:5; 삼상 12:22; 왕상 6:13; 시 138:8; 히 13:5) 영원히 기억하신다(민 10:9, 10; 렘 2:2).

27.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물을 '뿔뿔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그들의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塗抹)'하셨다.
- (2) 보통 짙은 구름이나 안개가 끼게 되면 시야가 제한되므로 답답해질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실족(失足)할 위험이 있다.
- (3) 이러한 현상은 죄지은 자들이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데 그들은 죄로 인해 영적 안목이 어두워짐으로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시 23:4) 사이로 방황하게 된다.
- (4) 그러나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나면 더욱 푸른 하늘이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언제든지 실족치'않게 하시고(벧후 1:10) 나아가서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참조, 시 23:4, 6; 벧후 1:11).

28. **㉠**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 어떻게 찬양했는가? (23절)

- ㉠** (1)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이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이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이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라고 찬양하였다(참조, 42:10, 11).
- (2) 이런 이사야의 찬양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役事)가 단지 인간 뿐만 아니라 하늘, 땅, 산, 나무 등 모든 피조물들까지 찬양해야 할 만큼 위대한 것임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사역은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이므로 구속받은 백성을 비롯해서 온 천하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 (4)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구속의 사건을 성취시키심으로써 택한 백성들에게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셨다(참조, 시 145:21; 계 5:12, 13).

2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24-28절)

- ㉠** (1)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요’ (6절; 41:14; 47:4; 48:17; 49:7, 26; 54:5, 8; 59:20; 60:16; 63:16) 그들을 조성(造成) 한 분이시다 (2절; 43:1).
- (2) 둘째,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로서 홀로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드신 (42:5; 45:12; 창 1:8, 10) 창조주시다 (40:28; 43:1, 7, 15; 65:17; 전 12:1).
- (3) 셋째,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점장이들의 점괘를 틀리게 하여 그들을 어리석게 만들며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25절).
- (4) 반면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나 사자(使者)를 보내 당신의 계획을 알리실 때는 반드시 그 예언을 성취시키신다 (26절).
- (5) 네째,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이 살게 하실 것이고 유다의 성들을 재건시키실 것이며 폐허를 복구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26절).
- (6)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강과 바다를 말려 버릴 수 있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27절).
- (7) 여섯째,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의 재건과 성전의 기초 공사를 맡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27절).

30.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徵兆)를 폐하며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에서 ‘거짓말하는 자’, ‘점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일컫는 말이나 그중에서도 특히 그 당시 상당한 명성을 떨치던 바벨론의 점성학자(占星學者)들을 가리킨다.
- (3) 여기에서 점성학(astrology)이란 고대 서양 및 중국에서 성행되었던 근세 이전의 천문학(astronomy)의 한 형태로 별의 빛깔과 위치로서 국가의 길흉과 천변지이(天變地異)를 예언하는 일종의 점복술(占卜術)이다.
- (4)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이러한 점성술이 유행됨에 따라 점성학자들에 대한 명성이 상당히 높아졌으며 또한 그들의 거짓 예언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으므로 그들은 회람인들과 로마인들에 의해 ‘갈대아인들’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 (5) 그러나 그들의 점술(占術)과 지혜는 결코 하늘의 비밀을 알아낼 수 없는 거짓 예언에 불과하므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6) 한편 오늘날의 성도들 중에서도 거짓 예언에 현혹되어 점장이들이나 운명 감정사들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신 18:10-14; 렘 29:8, 9).

3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가? (26-28절)

- ㉠** (1)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의 종 이사야를 비롯해서 예레미야(렘 29:10-14), 에스겔(겔 39:25-28), 요엘(욘 3:1), 아모스(암 9:11-15), 오바댜(옵 1:20), 미가(미 4:10), 스바냐(습 3:14-20) 등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 (2) 이러한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하고(27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줌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다(28절; 45:1-4).

- (3)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잃고 비어 있던 예루살렘 성으로 그 백성들을 복귀시켜 주심으로써 그 성은 영원히 '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33:20) 이 되었다.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침공 때 파괴되었던 유다의 성들을 중건(重建)시켜 주시며 다른 황폐한 곳(35:1;41:19;49:19;51:3;58:12;61:4; 겔 36:10) 들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관한 조서(고레스 원년, 즉 B. C. 538년에 고레스가 공포한 법령으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를 내리게 하셨다(45:13; 대하 36:22, 23; 스 1:1-4; 5:13-17; 6:3-15).

### 32. ㉠ 이사야는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의 입장을 어떻게 예언하였는가? (28절)

- ㉠ (1) 성전 건축에 대한 고레스의 입장은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네 기초가 세움이 되니라 하는 자' 라고 명시되어 있다.
- (2) 이 말은 문자적으로 고레스에 의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3) 그런데 다리오 1세(Darius I, B. C. 522-486년까지 재위했던 바사의 왕)에 의해 엑바타나(Ecbatana)에서 발견된 고레스 칙령에는 '지대를 견고히 쌓고' (스 6:3)로 나와 있다.
- (4) 한편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초가 되도록 요청받고 있다(참조, 고전 3:9; 엡 2:20-22; 벧전 2:5).
- (5) 이와 같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성전으로 건축되어졌으므로 오직 거룩하고 의로운 생활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롬 12:1)이 되어야 한다(고후 6:16-18).

## 화보자료

우상을 새기는 아프리카의 소년. 나무를 깎아서 신상(神像)을 만들고 있는 아래의 흑인 소년은 지금 관광객에게 팔 토산품을 제작하는 중이다.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과 권세를 너무 귀하게 여긴 나머지 그것들을 신봉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과(13-17절) 하나도 다를 바 없다.

# 제 45장 여호와께서 고레스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다

단락구분 1-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세우시다 / 5-10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 11-19 구원의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격려하시다 / 20-25 구원의 손길을 땅 끝까지 펴시다

1 나 여호와와는 나의 기쁨 받은 고레스의 오른 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2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못문을 쳐서 부수며 쇠뿔장을 쥐고

3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4 내가 나의 종 야꿈,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오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7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들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울들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9 절그릇 조각 중 한 조각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닮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노

10 아비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네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1 이스라엘의 기록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12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

하였노라

13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음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값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 하겠느니라

14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슴에 때여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세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15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16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18 여호와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19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꿈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20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너희는 모여 오라 한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21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3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겼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24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는

25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 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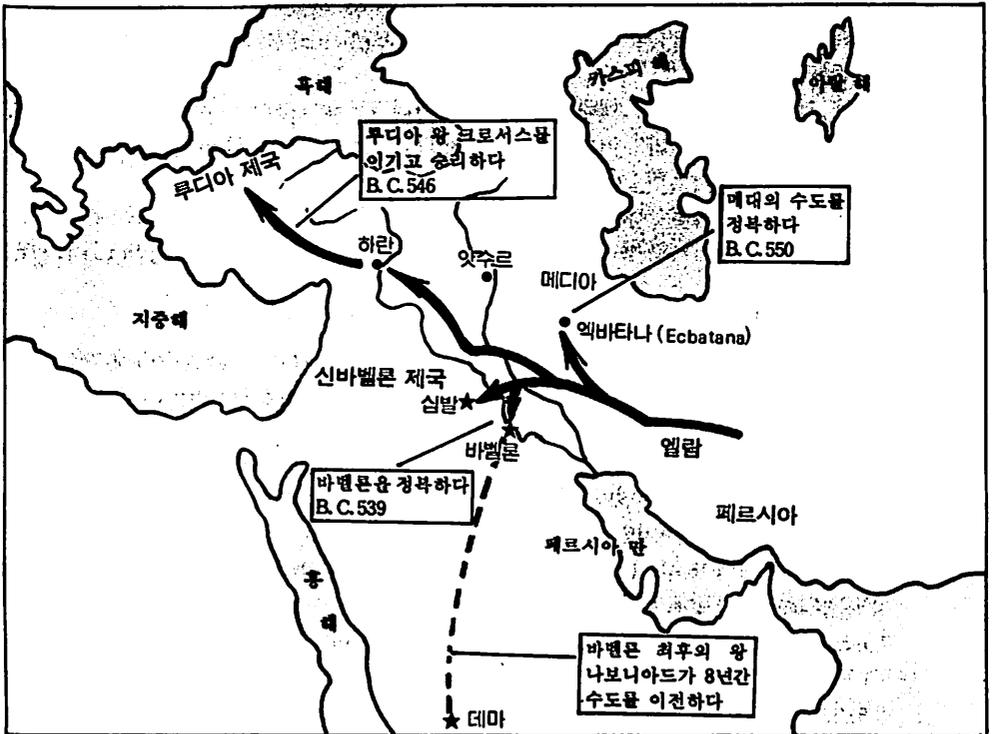
- ㉠ (1) 이때까지는 익명(匿名)으로 소개되었던 ‘고레스’의 이름이 전장(前章) 끝 부분(44:28)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그가 행할 하나님의 사역이 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1-6, 13, 14절; 44:26).
- (2)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 고레스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41:2, 3, 25; 43:14)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조서를 내리게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대행자(代行者)로 삼으셨다(13절; 대하 36:22, 23; 스 1:1-6; 5:13-17; 6:3-5).
- (3) 한편 이러한 고레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준 사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
- (4) 또한 그가 조서를 내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토록 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서 성전의 기초가 되실 것을 의미한다(시 117:22; 마 21:42; 막 12:10; 눅 20:17; 행 4:11; 엡 2:20; 벧전 2:6, 7).
- (5)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역사에서 구체화되는 사건에는 반드시 특정한 인물이 도구로 선택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학 2:23; 요 15:16; 행 9:15; 고전 1:27-29).

## 2. ㉡ 고레스는 어떠한 인물인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도구로 선택하신 고레스(Cyrus) 왕은 부왕(父王)인 캄비세스(Cambyses) 1세와 모친 만다네(Mandane) 사이에서 태어나서 후일 페르시아(Persia) 제국의 건국자가 되었던 고레스 2세(B. C. 559-530)를 가리킨다.
- (2) 고레스의 부친인 캄비세스 1세는 동부 엘람(Elam)의 한 지역인 안산(Anshan)의 왕이었는데 그가 B. C. 559년에 사망하자 안산국의 왕위를 계승한 고레스는 페르시아 민족을 통합한 후에 역사적인 정복 작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 (3) 먼저 그는 메디아(Media)의 하르파구스(Harpagus) 장군과 합세하여 메디아를 정복하여 통일 메디아-페르시아 제국을 설립한 후 그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루디아(Ludia)의 왕 크로세스(Croesus)를 공격하여 루디아까지 손에 넣게 되었다.
- (4) 루디아까지 정복한 고레스는 지나친 우상 숭배로 국력이 극도로 약화된 바벨론으로 정복의 손길을 뻗혀 주연(酒宴)에 빠져 있던 벨사살 왕을 죽임으로써(단 5:30)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바벨론 정복을 이루게 되었다(B. C. 539년 10월 12일).
- (5) 바벨론 성에 입성한 고레스는 스톱바벨과 예수아를 인도자로 하여(스 2:64, 65) 약 5천 명에 달하는 유다인들을 팔레스틴으로 귀환케 했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조서(고레스 칙령)를 내림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했다(대하 36:22, 23; 스 1:1-4).
- (6) 더우기 그는 느부갓네살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한 성구(聖具)들을 되돌려 주었으며(스 1:7-11; 6:5) 두번째 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했다(스 6:4).
- (7) 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 중건까지도 명령하게 되었는데(13절; 44:28) 이러

한 그의 친(親)유다 정책은 그 후 다리오 1세(Darius Hystaspes I, B.C. 522-486 재위) 왕과 아닥사스다(Artaxerxes I, B. C. 465-424 재위) 왕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 건축을 촉구하는(스6:1-12;7:11-26) 법령을 공포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8) 그 후 B. C. 530년 고레스는 자기 아들 캄비세스를 후계자로 지명하고(B. C. 530년 3월 26일 캄비세스는 최초로 바벨론 왕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 동북쪽의 오크수스(Oxus)와 자크사르테스(Jaxartes) 지방에 원정을 갔다가 그 해 가을에 전쟁터에서 전사했다.
- (9) 이러한 고레스의 활동과 업적은 인간의 역사(歷史)에서도 중요한 분수령(分水嶺)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事役)을 위해 선택된(5절) 생애라는 점에서 성경 역사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10) 여기에서 우리들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의 활동과 업적들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41장 ㉑3, 4, 5; 45장 ㉑1).
- (11) 마지막으로 고레스의 정복 활동과 그 당시 주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지도를 그려 보면 다음과 같다.



3. ㉑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어떻게 여기셨는가? (1절)

㉑ (1) 하나님께서는 그를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 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기름 받은 자’ (히, 마쉬아흐)는 원래 메시아에게만 붙히는 칭호로서 (단9:25) 이 구원자는 다윗 계통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11:1) 베들레헴 성에서 탄생하실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미5:2).
- (3) 이러한 점으로 볼 때 한낱 이방 나라의 왕에 불과한 고레스는 메시아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임이 분명하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셨다. 이는 고레스가 비록 이방의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으므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5) 결국 고레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事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므로 일시적이거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 것이다(4, 13절).

4. **㉠ 고레스의 열방 정복의 모습은 어떠한가?**(1, 2절)

**㉠** (1)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아 주심으로써 그는 열국을 정복하고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셨다(41:2, 3).

(2) 여기에서 ‘열왕의 허리를 풀며’는 그들을 약화시켜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참조, 단 5:6)을 의미한다. 그리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고레스를 대적할 요새가 하나도 없음을 가리킨다.

(3) 또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우시므로 그의 원정 길이 평탄하게 되었고(41:3) 눈쇠와 쇠로 만들어진 바벨론의 굳센 성문(城門)들조차 그 앞에서는 초개(草芥)와 같이 무너졌다(참조, 41:2).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고레스가 초인적(超人的)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가능했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시 89:19; 103:20; 눅 24:19; 롬 9:17; 고후 6:7; 갈 3:5; 엡 6:10; 빌 4:13).

5. **㉠ 고레스가 열방 정복을 통해 얻은 전리품(戰利品)은 무엇인가?**(3절)

**㉠** (1) 그는 열방 정복을 통해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전리품으로 노획(幽獲)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바벨론과 사르디스(Sardis, 루디아의 한 도시)의 것으로 추정된다.

(2) 특히 바벨론과 사르디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풍요로운 도시로서(참조, 렘 50:37; 51:13) 고레스가 이들 도시에서만 노획하였던 상당수의 재물로 그 후의 원정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충당해 줄 수 있었다.

(3) 그러나 고레스는 바벨론에서 노획한 재물 중에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하여 갔던 보물과 성구(聖具)들은(대하 36:7, 10, 18; 왕하 24:13; 스 1:7; 단 1:1, 2; 5:2)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모두 돌려주었다(스 1:8-11; 5:14; 6:5).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위해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능력과 함께 그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물까지 예비해 주신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부름 받은 우리들은 너무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6:25-33; 빌 4:19).

6.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레스를 선택하셨는가?**(3, 4절)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고레스를 ‘지명(指名)하여’ 부르셨다.

(2) 여기에서 ‘지명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실 사람 곧 고레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셨다는 의미이다.

(3) 이러한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150년 전에 고레스에 관한 예언을 할 때 이미 그의 이름을 명시했고(1절; 44:28) 또한 예언대로 모든 것이 일치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7. **㉠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라는 귀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5절)

**㉠** (1) 이 말은 고레스가 비록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어 그분의 사역을 수행했을지라도 결국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이었다는 의미이다.

(2)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고레스로서는 자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

되어졌다는 사실을 모를 뿐만 아니라 더우기 자신이 추구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임을 전혀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 받은 자' (참조, ㉠ 3)의 칭호를 주시므로써(4절) 고레스가 당신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수 있게 하셨다.
- (4) 한편 하나님께서 본귀절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신 이유는 고레스로 하여금 당신께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어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도록 하기 위함이다.

8.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고레스를 도우실 것이라 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비록 고레스가 당신을 알지 못할지라도 그의 '띠를 동일 것'이라 하셨다.
- (2) 여기에서 '띠를 동일 것'이란 말은 앞에서 언급된 '허리를 풀며'(1절)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진다.
- (3) 그런데 '띠'란 군인의 허리띠 혹은 고삐에서 취한 비유로서 힘이나 정력을 상징하는 물건이다(참조, 시 18:32, 39).
- (4) 따라서 하나님이 고레스의 띠를 동일시킬 것이라고 한 것은 고레스가 열방의 왕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것이란 의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도구로 삼으실 때는 비록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능력을 채워 주신다.
-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로 선택된 우리들은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참조, 고후 12:9; 엡 3:16; 딤후 1:12).

9. ㉠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열방에게 무엇을 알리려고 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여호와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들에게 알리려 하셨다.
- (2) 여기서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라는 귀절은 '땅 끝' (40:28; 41:4; 43:6)과 비슷한 표현으로서 모든 열방을 의미하며 '무리'는 온 세상의 백성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그 당시의 이방인들은 거의 우주 만물에 신(神)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범신론적(汎神論的) 신관(神觀)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신임을 알지 못했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열방을 정복하시므로써 그들이 믿는 신들은 한갓 우상에 불과하며 오직 여호와만이 '참신'이심을(참조, 5절; 44:6, 8; 대상 17:20; 단 2:47) 알게 하신 것이다.

10. ㉠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라고 밝히셨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인간의 생사 화복(生死禍福)을 비롯해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이다(참조, 40:10; 창 1:16, 18; 시 136:8, 9; 애 3:38).
- (3)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그 우상이나 거짓 신들이 자연의 질서와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도와 이방들을 쳐부숨으로써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밝히시고 오직 당신만이 인간과 우주의 주재(主宰)이심을 깨우쳐 주셨다(참조, 창 14:19, 22; 시 22:28; 마 11:25; 행 17:24; 유 1:4).

11. ㉠ 하나님께서는 해방된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먼저 해방된 이스라엘에게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들

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축복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뜰게 할지어다' 는 히브리어로 <하레이푸>로서 물과 같은 액체가 흘러 내리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궁창(穹蒼)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궁창'은 히브리어로 <싸마임>으로서(창 1:8; 시 19:1; 150:1) '하늘'을 뜻한다. 한편 '하늘'이란 말이 두 번씩이나 반복된 것은 '의'(義)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참조, 시 85:11).
- (4) 또한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은 마치 봄에 땅 속에서 새싹이 나오듯이 하나님의 의와 구원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싹트게 하실 것이란 의미이다.
- (5)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써 그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2. ㉠ 이사야는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했는가? (9,10절)

- ㉠ (1) 이사야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와 다룬다면 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 했다(9절).
- (2)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은 마치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그는 손이 없다' 라고 대항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아비에게 물기를 내가 무엇을 냈느냐 어미에게 물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로(劬勞)하느냐 하는 자' 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라 했다(10절).
- (4) 여기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와 부모에게 대항하는 아들은 인간을 가리키며 '자기를 지으신 자'와 부모는 하나님을 가리킨다.
- (5) 그러므로 질그릇이 자신을 만들어 준 토기장이에게, 아들이 자기를 낳아 주신 부모에게 대항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 (6) 한편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당신을 '토기장이'에, 인간을 '질그릇'에 비유하셨는데(29:16; 64:8; 롬 9:20-24) 이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질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것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이다(창 2:7).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결코 화를 면치 못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참조, 삼상 2:10; 나 1:2; 딤후 2:8).

## 13. ㉠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장래 일을 내게 물어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부탁하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이 말은 다소 역설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귀절로서 이방인들에게 당신의 일을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하시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감히 평가할 자격이 없는 불신자들이 당신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의문을 품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 (4)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의심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참조, 마 21:21; 막 11:23; 행 10:20; 11:12; 롬 4:20; 약 1:6).

## 14. ㉠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밝혔는가? (12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는 땅을 만드시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친히 손으로 하늘을 펼쳐 수많은 별들이 생기도록 명령하신 창조주이심을 밝혔다.

- (2)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거듭 강조한(7, 8절; 40:26, 28; 41:20; 43:1, 15; 44:2, 21) 이유는 위대한 창조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시다(15절; 43:3, 11; 49:26; 63:8; 삼하 22:3; 시 106:21).

15. **㉠** 고레스는 어떤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는가? (13절)

- ㉠** (1)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 때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놓아주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약탈당했던 보물과 성구(聖具)들까지 돌려주었다(스 1:8-11; 5:14; 6:5).
- (2) 그런데 그 당시의 규례에 따르면 포로들이 석방되기 위해서는 그 속국(屬國)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해방이 고레스 개인의 아량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 준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때 아무런 대가를 받으시지 않고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구원을 베푸셨다(참조, 엡 2:8).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그분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시임을 알 수 있다(요 3:16; 롬 5:8; 엡 2:4; 살후 2:16; 요일 4:9, 10).

16. **㉠** 어떠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따르게 되는가? (14절)

- ㉠** (1) ‘애굽의 수고한 것과 구스의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했다.
- (2) 여기에서 먼저 ‘애굽의 수고한 것’은 부지런하고 일 잘하는 애굽인들이 수고하여 모아둔 모든 소득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구스의 무역한 것’은 장사를 잘하는 구스(지금의 에티오피아)인들이 그 당시 근동(近東) 무역의 중심지였던 구스에서 무역을 통해 얻은 모든 재물을 뜻한다.
- (4) 또한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네게로 돌아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는 귀절은 건강하고 장대한 스바(고대 아랍 국가로서 현재의 사우디아라비아)인들이 바사에 정복당함으로써 유다로 옮겨 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될 것을 의미한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셨는데(43:3) 이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그들의 과거를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나아올 것이라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11:12; 18:7; 19:18-25).
- (6) 한편 고레스의 열방 정복이 제기가 되어 시작된 이방인들의 회개와 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루었으며 장차 다가올 재림 때까지 계속되어질 것이다.

17. **㉠** 개종한 이방인들은 어떤 말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할 것인가? (14, 15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게 굴복(屈伏)하여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할 것이라 했다(14절).
- (2) 이 말은 범신론적(汎神論的) 입장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3) 또한 그들은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진실로 주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니이다’라는 말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것이다.
- (4) 그런데 여기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란 하나의 물체로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과는 달리 참하나님은 불가시적(不可視的)인 분이시라는 의미이다.
-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구원 사역에 있어서도 직접 인간들 앞에 나타나지 않

으시고 대신 고레스를 도구로 삼으셔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표면상으로는 숨어 계시는 듯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비하고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인간의 모든 일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 (7)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옳게 인식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렘 10:10; 마 16:16; 요 11:27).

18. **㉠** 우상 숭배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6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羞辱) 중에 들어갈 것’이라 했다(참조, 44:11).
- (2) 여기에서 ‘우상’(偶像)은 히브리어로 <치림>으로서 형상(形狀), 꼴, 초상(肖像)을 가리키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15절)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을 가증스럽게 여기시므로(신 7:25; 12:31)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그 형상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당할 뿐만 아니라(시 115:8) 필경은 멸망하게 된다(참조, 44장 **㉠** 14).
- (4) 한편 하나님께서 이처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우상들 중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우상들로 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상의 명칭	구분	참조	귀절
아스다롯	베니게 사람들의 여신	삿 2:13; 10:6; 삼상 7:3; 31:10; 왕상 11:33	
바알	베니게와 가나안 족속의 신	민 22:41; 삿 2:11; 8:33; 왕하 16:32; 18:19; 19:18; 21:3; 대하 24:7; 렘 2:8; 7:9; 호 2:8	
그모스	모압 사람들의 신	신 21:29; 삿 11:24; 왕하 23:13; 렘 48:7	
다곤	블레셋 사람들의 신	삿 16:23; 삼상 5:2; 대상 10:10	
아데미	에베소 사람들의 신	행 19:24, 28, 35	
몰락	암몬 족속들의 신	레 18:21; 왕하 23:10; 렘 32:35; 암 5:26; 행 7:43	
아세라	가나안의 여신, 베니게 사람들이 행복신으로 섬긴 우상	17:8; 27:9; 출 34:13; 신 7:5; 12:3; 16:21; 삿 6:25; 26; 왕상 14:15; 15:13; 16:33; 18:19; 왕하 13:6; 17:10; 21:3; 23:4, 6; 대하 14:3; 15:16; 24:18; 31:1; 렘 17:2; 미 5:14	
벨	바벨론의 수호신인 마르둑(Marduk)의 명칭. 성경에는 므로닥으로 나옴	46:1; 렘 50:2; 51:44	
느보	바벨론 왕들의 수호신, 지혜와 문학의 신	46:1	
드라빔	작은 입상으로 집의 수호신	창 31:19, 34; 삿 17:15; 18:14; 삼상 19:13; 호 3:4	
금송아지	아론이 시내산 기슭에 세운 것 여로보암이 단과 벨에 세운 것	출 32:4; 신 9:16; 느 9:18; 시 101:19; 행 7:41 왕상 12:28; 왕하 10:29; 17:16; 대하 11:15; 13:8; 호 10:5	
천체	해, 달, 별 등을 숭배함	신 4:19; 17:3; 왕하 17:16; 21:3; 욥 31:27; 렘 8:2;	

		19:13; 44:17; 절 8:16; 습 1:5
인간 숭배	인간을 절대시하다	행 12:22; 14:11; 28:6
마귀 숭배	마귀의 권력을 숭배하는 것	레 17:7; 신 32:17; 대하 11:15; 시 106:37; 고전 10:20; 계 9:20; 13:14
뿔 뿔 (느후스단)	이 뿔뿔은 모세가 만든 것으로서 원래는 치유의 수단이었으나 그 후 숭배를 받는 우상이 됨	왕하 18:4

19.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 (17절)

- ㉠** (1) 이사야는 우상 숭배자들의 멸망(16절)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永世)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영원한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인 구원을 주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한편 다른 종교들도 구원과 내세(來世) 사상을 주장하고 있긴 하지만 한갓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인간들의 종교 역시 우상들의 최후와 다를 바가 없다.
- (4) 왜냐하면 구원 특히 '영원한 구원'은 영원하신 하나님(40:28; 창 21:33; 출 3:15; 시 90:2; 93:2; 102:12; 전 3:14; 애 5:19; 롬 16:28)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소멸되지 않는 '산 소망'을 주셨다(참조, 살후 2:16; 벰전 1:21).

20. **㉠**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밝혔는가? (18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땅도 창조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고 밝혔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 상태에서 질서 정연하게 지으신 것같이 자신의 영적인 피조물도 '영세(永世)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도록(17절)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절 11:19; 롬 7:6; 고후 5:17; 갈 6:15; 엡 2:15; 4:24; 골 3:10).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도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로 거듭나게 하신 구원자이시다(참조, 벰전 1:3, 23; 딤후 3:5).

21.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어떻게 밝히시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곳이나 어두운 곳에서 말하지 않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황폐한 곳에서 당신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신다.
- (2) 반면 마법사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은 어두운 곳이나 은밀한 곳 곧 어두운 동굴이나 신전의 깊숙한 곳에서 거짓 예언들을 만들어 내었다.
- (3) 따라서 그들의 예언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승인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의해 비공개적으로 낱조(捏造)된 거짓 증언에 불과한 것이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시는' 분이시므로 시내 산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당신의 뜻을 밝히셨고(신 19:17-25) 또한 다른 예언의 말씀들도 선지자들을 통해 모든 이스라엘에 전해 주셨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선한 것'과 '정직'과 '진리'의 말씀으로(잠 8:6,

7) 당신의 뜻을 밝히시므로 우리들은 예언의 말씀을 '혹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과 같이 순결하게 여겨야 한다(참조, 시 12:6).

22. **㉠** 하나님께서 '모여오라'고 한 자들은 누구인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에게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명령하셨다.
- (2) 여기에서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란 고레스가 열방을 정복할 때 그에게 화를 입지 않고 살아 남은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비록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자라도 당신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신다.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마 12:21)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참조, 눅 24:47; 요 1:12; 5:43; 20:31; 요일 5:13).

23. **㉠** 이사야는 어떤 자들을 무지한 자라 했는가? (20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무지한 자라고 했다.
- (2) 여기에서 '가지고 다니며'는 본서 46:7의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와 같은 의미인데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자들 사이에는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니거나 상자 같은 것에 넣어 다니는 관습이 있었다.
- (3) 그런데 이러한 우상 숭배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자신들의 소원을 빌며 심지어는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기도 했다(44:17).
- (4) 그러나 한갓 나무 토막(44:19)이나 쇠조각에 불과한 우상이 그들의 소원을 들어줄 리 만무하며 더구나 생명조차 없는 물질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 (5)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무지한 자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우리들은 그들의 무지가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44:18)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44장 ㉠ 21).

24. **㉠**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가? (21절)

- ㉠** (1) 여기에서 '이 일'은 앞에서도 몇 번 언급된 것과 같이(8절; 41:4, 26; 42:16, 23; 43:19)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사건을 가리킨다.
- (2) 자세한 내용은 41장 ㉠ 3과 5를 참조하라.

25. **㉠**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仰望)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땅 끝'이란 온 세상을 가리키는 일종의 비유로서(신 33:17; 욥 28:24; 37:3; 38:13; 시 48:10) 여기서는 이스라엘 외의 모든 이방을 가리킨다(22절; 40:28; 42:10; 43:6; 48:20; 49:6; 52:10; 62:11; 행 1:8).
- (3) 그리고 '앙망하라'는 말은(33:2; 40:31; 42:4; 51:5; 64:4; 시 27:4; 34:5; 145:15; 렘 14:22) 원래 돌이켜 쳐다본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고 당신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신다(참조, 시 32:5; 잠 28:13; 막 1:4; 눅 24:17; 행 5:31; 고후 7:10; 요일 1:9).

26. **㉠** 하나님의 맹세(盟誓)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라고 자신의 맹세에 대해 밝히셨다.
- (2) 여기에서 ‘맹세’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속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誓約)하는 것으로서 그 약속에 대한 증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위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는데 그 이유는 당신의 맹세를 받을 당신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이다(히 6:13).
- (4)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던 사실을 볼 수 있다(창 22:16).
- (5) 한편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란 귀절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 (6) 우리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맹세를 본받아 인간들 사이에서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이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레 19:12; 민 30:2; 신 23:21; 시 25:10; 103:18; 전 5:4).

27. Ⓢ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 번 하신 맹세는 반드시 지키시므로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맹약(盟約) 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모든 무릎이 꿇고’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보이신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을 목격한 모든 열방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란 의미이다.
- (3) 그리고 ‘모든 혀가 맹약할 것’이란 귀절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목격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당신을 섬기기로 맹세할 것이란 뜻이다(4, 5절).
- (4) 한편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한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빌 2:10, 11).

28. Ⓢ ‘어떤 자’가 하나님께 한 말은 무엇인가? (24, 25절)

- Ⓐ (1) 먼저 ‘어떤 자’의 말은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말한다.
- (2)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는데 그분을 진노케 하는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했다(24절).
- (3) 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호와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모든 사람들 중에 자랑스러운 백성이 될 것이다(25절).
- (4) 결국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목격한 이방인들이 그 백성들의 구원이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달은 후 하나님께 드리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다.
- (5) 한편 오늘날의 모든 성도들도 이스라엘에 접붙임을 받아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명받음으로써 이러한 축복에 참여하게 되었다(롬 11:17).

본장의 요약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2절).

## 제 46장 우상은 무력하다

단락구분 1-2 무력한 우상들이 멸망당하다 / 3-4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 5-7 하나님과 우상의 비교 / 8-13 패역자(悖逆者)들에게 경고하시다

1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고도다

2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 갔느니라

3 아곱 집이며 이스라엘 집의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은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5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6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드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7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8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창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9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여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11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여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

12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13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은에 베풀리라

### 1. ㉠ 문학적 특징에 따라 본장의 내용을 구분해 보라.

- ㉠ (1) 본장은 전체가 5연(聯)으로 구성된 한 편의 시(詩)로 볼 수 있는데 13절에 걸친 본장의 내용이 시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
- (2) 제1연(1, 2절)은 형식적인 서론 없이 시작하여 바사 왕 고레스의 정복에 의해 멸망당하는 바벨론 신들의 모습을 생동감있게 묘사하고 있다.
- (3) 제2연(3, 4절)은 '나를 들을지이다'라는 명령형으로 시작하여 사랑과 보호를 베푸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나'라는 1인칭을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다.
- (4) 제3연(5-7절)은 무력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아무리 값비싼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우상이라 할지라도 끈궁에 빠져 있는 우상 숭배자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다.
- (5) 제4연(8-11절)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사역(事役)을 성취시키시는 유일신(唯一神) 하나님을 선포함으로써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라고 호소하고 있다.
- (6) 마지막 연인 제 5연(12, 13절)은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당신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함으로써 승리의 결말을 장식하고 있다.

### 2. ㉠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우상들의 최후는 어떠했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바벨론의 우상은 그들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조차 무력하게 파멸되고 말았다.
- (2) 즉 그들 백성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었던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져’ 결국은 짐승들이 끄는 수레에 실려 짐작과 같이 취급받았다.
- (3) 여기에서 ‘벨’(Bel)은 바벨론 수호신(守護神)의 이름으로서 고대 수메르의 ‘엔’(En)신과 같은 신이었다. 원래 ‘벨’ 신은 수메르의 여러 신들 중 우주 삼 주신(宇宙三主神) 가운데 하나이며 바람과 폭풍의 신인 엔릴(Enlil) 신의 다른 칭호였다.
- (4)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의 ‘벨’ 신에 대한 숭배가 고조되어 바벨론 종교상의 우위를 차지하게 되자 그들의 주신(主神) ‘마르дук’(Marduk)에 엔릴 신의 속성이 그대로 부여되어 결국 ‘벨’이란 명칭은 ‘마르дук’ 신의 경칭(敬稱)이 되었다(참조, 렘 50:2;51:44).
- (5) 한편 ‘느보’(Nebo)는 지혜와 문학의 신으로 바벨론 왕들의 수호신이기도 했는데 자연신으로는 보통 수신(水神)으로 알려져 왔다.
- (6) ‘느보’ 신의 신전은 바벨론의 수도 서남쪽의 보르십파(Borsippa)에 있었으며 이 신의 숭배 의식은 신바벨론 시대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 (7) 그러나 이러한 신들도 한갓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우상에 불과하므로 정복자들에게 의해 전리품으로 압수당하여 다른 나라로 실려 가게 되었으며(렘 48:7) 그것들 중 일부는 용광로에 들어가 녹여짐으로써 완전하게 파멸되었다.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3,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주로서 그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업고 다니셨으며 모태에서 떨어질 때부터 안고 다니심으로써 보호해 주셨다(3절).
- (2) 이 말은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써 이스라엘을 품으신다는 의미이다(40:11; 민 11:12; 신 33:27; 시 17:8).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들을 품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나아가서는 구원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다(4절).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항상 보호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참조, 신 32:10;33:12;대상 16:34;대하5:13;20:21;시 5:11;37:28;속 3:11).

4. ◉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사실 어머니나 유모들은 어린아이들이 점점 자라게 되면 그들을 품거나 안아 줄 기력이 딸리게 되어 결국은 혼자 놀게 내버려두게 된다.
- (3)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은 유년기나 청년기 뿐만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며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므로써 영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참조, 시 145:20;146:9; 롬 16:2; 유 1:24).

5. ◉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로 책망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는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의심했을 뿐 아니라 당신을 우상과 같은 수준으로 여겼으며 심지어 그것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 (3) 즉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변영이 그 나라의 우상들에 의한 것이라고 여겼다.

- (4)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보살피 주신다는 언약을 믿지 않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바벨론의 우상들을 섬기는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었다.
- (5) 한편 그들의 이러한 죄는 눈앞에 보이는 일시적인 영화에 미혹되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事役)에 대해 성급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30:18; 시 37:7; 잠 20:22; 애 3:25; 함 2:3; 행 1:4; 23:21; 유 1:21).

6. **Q** 이사야는 우상들의 무력함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가? (6, 7절)

- A** (1) 이사야 선지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이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경배받고 있지만 그것은 서 있기만 할 뿐 움직이지도 못하는 무력한 물체임을 지적했다.
- (2) 그러므로 그 우상들은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7절) 거짓 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37:19; 호 8:6).
- (3) 한편 우상들의 무력함은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입증되었는데 바벨론의 신들은 그들 백성들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신들까지 완전히 파멸함으로써 그들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거짓된 것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눈을 현혹하여 득세(得勢)할 수 있으나 결국은 파멸당한다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7. **Q** 이사야는 '패역(悖逆)한 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했는가? (8절)

- A** (1) 먼저 여기에서 '패역한 자' 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어리석은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 라는 저주를 받기도 했다(48:8).
- (2) 이사야 선지자는 이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丈夫)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고 당부했다.
- (3) 그런데 '이 일'이란 우상과 우상 숭배가 모두 헛된 것임을 가리키는데(1, 2, 6, 7절) 이사야가 '이 일을 기억하라' 고 거듭 강조한 이유는 역사 이래로 인간들이 그만큼 우상으로 인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다.
- (4) 한편 '장부가 되라' 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오슈>로서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문자적(文字的) 의미대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고전 16:13)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 (5) 이사야의 이러한 당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우상의 유혹이나 신앙의 위기를 당할 때 주저하지 않고(왕상 18:21) 담대하게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장부의 결단력을 가져야 한다(참조, 신 31:6; 수 1:6; 삼하 10:12; 13:28; 엡 3:12; 빌 1:20; 요일 3:21; 5:14).

8. **Q**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권고를 했는가? (9-11절)

- A** (1)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먼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공휼을 기억하라고 당부했다(9절).
- (2)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사역을 예언하게 하시며 그 예언을 인간의 역사(歷史) 속에서 반드시 성취시키는 분이심을 명심하도록 권고했다(10절).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 고레스를 부를 것이며 그를 통해 반드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것임을 깨닫도록 했다(11절).

9. **Q**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했는가? (9절)

- A** (1)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고 명령했다.
- (2) 여기에서 '옛적 일' 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 주신 기이(奇異)한 사역 모두를 가리킨다.

- (3) 예를 들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행하신 모든 이적(출7-11장) 및 가운데 홍해로 길을 내신 기적(출14:21-29) 과 미디안, 암몬, 블레셋, 산헤립에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신 것 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을 가리킨다.
- (4) 한편 우리들도 각자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역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함으로써 생활 가운데 닥치는 신앙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신15:15;24:9; 25:17; 겔3:20; 고전11:2; 딤후3:2).

1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누구를 부를 것이라 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謀略)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셨다.
- (2) 여기에서 ‘동방’(41:2) 이란 팔레스틴을 기준으로 하여 동쪽에 있는 나라 중에서 바사 제국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독수리’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을 독수리로 부른 것과 유사한 비유이다(렘49:22; 겔17:3).
- (4) 즉 ‘독수리’는 상당히 사나운 짐승으로서 ‘힘’을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강한 군사력으로 열방을 정복했던 고레스를 가리킨다.
- (5) 그런데 개역 성경에 ‘독수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이트>는 원래 ‘맹금’(猛禽)이나 야생 조류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독수리가 아니라 맹금(birds of prey)으로 번역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참조, 욥28:7; 렘12:19).
- (6) 한편 ‘나의 모략’은 하나님의 목적 또는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서(사14:24; 욥23:13; 시33:11)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 역시 고레스를 가리킨다.
- (7)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부르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창세 전부터’(요17:5; 벰전1:20)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보내셨다(참조, 요3:16; 롬3:24; 고전1:30; 엡1:7; 골1:14).

1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완악한 자들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완악(頑惡)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에게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相距)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고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셨다.
- (2) 여기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불의한 자를 가리킨다(참조, 48:4; 겔2:6).
- (3) 그리고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라는 귀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 (4) 그런데 이사야를 통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라고 외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구원 선포(마3:2;4:17)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5) 즉 이사야와 세례 요한 및 예수 그리스도는 멀지 않아서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 (6)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멀지 않은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앙 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한다(참조, 함2:3; 롬8:23; 고전1:7; 빌3:20).

## 연구자료

###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와 그 상징적 의미

‘독수리’ (eagle, vulture)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셀>, 헬라어로 <아에토스>라고 한다. 그런데 본장에서는 <아이트>라는 히브리어가 ‘독수리’로 번역되어 있는데 (11절) 이것은 독수리나 매 (hawk)와 같은 모든 맹금류(猛禽類)를 의미하는 단어이다.

팔레스틴에는 비교적 여러 종류의 독수리가 서식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검은 독수리’ (black vulture)와 ‘그리폰 독수리’ (griffon vulture) 그리고 ‘턱수염 독수리’ (bearded vulture)를 들 수 있다. 이 중 그리폰 독수리는 주로 갈릴리 바다 서쪽 지대에서 볼 수 있는데 바위 산에서 산다. 이 독수리는 독수리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니지만 몸 길이가 1.5-2m, 펼친 날개 길이가 4m에 달하는 비교적 큰 독수리이다. 그리고 검은 독수리와 턱수염 독수리는 유대 광야와 같은 외곽 지대에서 사는 새인데 주로 가파른 절벽이나 경사진 곳에 둥지를 짓고 산다. 이들 독수리는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데 하늘 높이 떠있다가 근처에 있는 새가 아래로 낙하하는 것을 보고선 그곳으로 모여든다. 마태복음에는 이러한 독수리의 습성에 비유하여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임같이 부패한 사회에는 탐욕자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이 시사되어 있다(마 24:28).

한편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흔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강대국을 가리켜 ‘독수리’로 묘사하고 있다(신 28:49; 렘 4:13; 48:40; 애 4:19). 이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키시며 인도하는 것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린 후 날개로 그 새끼를 받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신 32:9-12). 이와는 달리 선지자 이사야는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40:31)라고 노래하고 있기도 하다. 이외에도 독수리는 목시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기도 한데 에스겔이 본 여호와와의 권능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 네 생물의 형상을 취하고 있었다(겔 1:10). 이와 동일한 언급은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보는 중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형상을 띠고 있는 네 생물을 보았다고 증거하였다(계 4:7). 이 중에서 독수리는 아마도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하나인 그분의 ‘신속한 행동성’을 의미하는 듯하다(참조, 60:22; 시 81:13, 14).

# 제 47 장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

단락구분 1-6 바벨론의 멸망을 포고(布告)하시다 / 7-11 바벨론의 죄악상(罪惡上) 과 그 결과 / 12-15 바벨론을 구원하지 못할 우상의 무능력

1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같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꿈고 아리따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2 땃들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3 네 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4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5 딸 같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6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때우며

7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8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 어다

9 한날에 흠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사

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10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흠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게 헤아리지 못할 것이니라

12 이제 너는 굶어서부터 힘쓰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는지, 혹시 원수를 이길 수 있는는지,

13 네가 많은 모략을 인하여 피곤케 되었고도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월삭에 예고하는 자들로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케 하여 보라

14 보라 그들은 초개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솜씨가 아니요 그 앞에 앉을만한 불도 아니니라

15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각기 소향대로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는데 바벨론은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게 취급함으로써(1-7절) 멸망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8-15절).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포고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수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의 '산 소망' (벧전1:3)을 갖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 (3) 한편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13:1-22; 21:9; 시137:8, 9; 렘50:11-46) 신약 시대에 있어서 '바벨론'으로 상징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몰락을 예시(豫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계14:8;16:19;17:5;18:2,10,21).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수23:1;대상17:8;딤후2:8).

2. **㉠**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 (1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을 향해 ‘처녀 딸 바벨론이여’ 라는 명칭으로 불렀다.  
 (2) 여기에서 ‘바벨론’은 바벨론 성읍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3) 그런데 바벨론에 붙여진 ‘처녀 딸’이란 비유는 마치 처녀들이 남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지 않을 때 곱고 아름답듯이(1절)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은 바벨론이 이때까지 처녀처럼 부드럽고 우아한 생활을 영위해 왔음을 의미한다.  
 (4) 한편 이러한 안락한 생활에 빠져 있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영화가 영구히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함으로써 그들의 영화는 하루아침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13:19;14:11;렘50:11,12).  
 (5)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영화는 일시적으로는 화려할 수 있으나 결국은 ‘플의 꽃’과 같이 시들고 마는 것이다(참조, 40:6-8;렘전1:24).

3. **㉠** 이사야는 바벨론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1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느니 땅에 앉으라’고 명령하였다.  
 (2) 여기에서 ‘내려 티끌에 앉으라’는 말은 가장 천한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티끌’은 보통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비유되기 때문이다(참조, 5:24;29:5;41:2;삼하22:43;왕하13:7;욥10:9;시18:42;90:3).  
 (3) 그리고 ‘보좌가 없어졌느니 땅에 앉으라’는 귀절은 이때까지 바벨론은 보좌에 앉아서 열방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렸지만 이제는 고레스에 의해 오히려 지배받는 입장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4) 한편 이러한 바벨론 왕조의 몰락은 단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써 이어질 이스라엘의 구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성경 역사상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5)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역사적 사실의 한 장면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장차 말세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몰락과 성도들의 구원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1,41장 ㉠3).

4. **㉠** 선지자 이사야가 바벨론에게 저주한 내용은 무엇인가? (2,3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고 명령하였다.  
 (2) 여기에서 맷돌로 곡식을 찧는 일은 상당히 힘든 일로서 그 당시 노예들 중 여자 종에게 부과하는 작업 가운데 하나였다.  
 (3) 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에게 ‘면박(面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고 했다.  
 (4) 그런데 ‘면박’(히, 차마)은 여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는 수건으로서 툷기에서는 ‘겉 옷’(툷3:15)으로 나와 있으며 아가서의 ‘너울’(아4:1,3;6:7)과 유사한 기능을 가졌다. 한편 이러한 ‘면박’은 옛날 우리나라 여인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고 다녔던 ‘장옷’과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그러므로 여인들이 ‘면박’을 벗는 것은 그 당시 근동 지방의 관습으로는 육체의 어떤 부분을 노출시키는 것보다 더욱 심한 수치로 여겨졌다.  
 (6) 한편 바벨론이 당하게 될 수치가 전부 여인들의 것으로 표현된 이유는 앞에서 ‘바벨론’

을 여성으로 취급하였기 때문이다(1절).

- (7) 이와 같이 바벨론은 마치 여인이 자신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은 수치를 당할 것인데(3절)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참조, 30:5;37:27;42:17;44:9;65:13;렘 17:13;22:22; 23:40; 쥬22:16).

5.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어떠한 복수를 하실 것인가? (3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리실 하나님의 복수에 대해 '내가 보수(報讐)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고 표현했다.  
 (2) 여기에서 '보수'라는 말은 원수에게 보복한다는 뜻이므로 결국 이 귀절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만나지 않으실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대적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상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이다.  
 (3) 이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복수하실 때 조금의 긍휼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진멸시키신다(참조, 13:19-23;14:22,23;21:9;40:24;41:2; 렘 50:12, 13, 15-18, 22).

6. **㉠**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 (4절)

- ㉠** (1)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다.  
 (2)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42장의 **㉠** 12를 참조하라.

7. **㉠** 이사야는 바벨론의 장래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가? (5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主母)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고 했다.  
 (2) 여기에서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는 귀절은 앞으로 바벨론 백성들이 멸망당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침묵함으로써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게 될 것이란 의미이다.  
 (3) 한편 '열국의 주모'란 칭호는 이사야가 본서를 썼을 때의 바벨론의 상황이 아니라 약 100여 년 이후 나보폴라살(Nabopolassar)과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 휘하에서 누리게 될 번영과 영화를 가리킨다.  
 (4) 이러한 번영은 느부갓네살이 에스겔이나 다니엘에 의해 '열왕(列王)의 왕'이라고 불리어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쥬26:7; 단2:37).  
 (5) 그러나 바벨론의 이러한 영화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의해 하루아침에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8. **㉠** 이스라엘에 대한 바벨론의 죄악상(罪惡相)은 어떠하였는가? (6,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바벨론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가혹하게 다루었다.  
 (2) 즉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기는커녕 늙은 노인들까지 흑독하게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다.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내가 영영히 주모가 되리라'는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흑사를 마음에 두지 않았으며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介意)치 않았다.  
 (4) 이러한 죄악상은 교만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서 그들의 잔악성과 교만함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다(대하 36:17; 애 4:16; 5:12).  
 (5)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의 긍휼함도 받지 못하고 처절하게 멸망당하게 되었다(참조, 1-15절; 13:19-22; 14:22, 23; 21:9; 40:24; 41:2).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

이'가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잠 16:18).

9. ㉠ 바벨론 백성들의 교만함은 어떠한가? (8절)

- ㉠ (1) 바벨론 백성들은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자 점차 교만하게 되어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고 호언 장담(豪言壯談)하였다.
- (2) 이러한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과대 평가하는 데서 기인(起因)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다.
- (3) 한편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항목	참조구절
교만의 기원	마 귀	딤펢 3:6
	욕망	단 5:20-23
	악한 생각	마 7:21, 22
	세상	요일 2:16
	자기 기만	눅 18:11, 12
	권력	겔 16:49, 56
교만에 따른 죄악	다툼의 원인	잠 13:10
	마음이 높아짐	단 5:20
	영적 타락	호 7:9, 10
	발전이 없음	잠 26:12
	하나님을 부인함	시 10:4
	자기 도취	렘 43:2
교만의 성격	멸망의 원인	잠 16:18
	입으로 발함	시 7:10
	속임	렘 49:16
교만에 대한 실례	화려한 장식	겔 7:20
	바로	출 5:2
	나아만	왕하 5:11
	웃시야	대하 26:16
	히스기야	대하 32:25
	하만	에 3:5
	느부갓네살	단 4:30
	벨사살	단 5:23
	아히도엘	삼하 17:23
	모압 사람들	렘 48:29
	바벨론 사람들	렘 50:29
	갈대아인	합 2:5
	앗수르	10:5-16
	무로	겔 28:2-9
	에굽	겔 30:16
니느웨	슥 2:15	
서기관과 바리새인	마 23:6-8	

교 만		이스라엘	9:7-10
		예루살렘	겔 16:56
	영적 교만		욘 33:9; 눅 18:11; 요 9:41; 고전 4:18; 계 3:17
	유대인의 교만		눅 3:8; 요 8:33,39; 9:28; 롬 2:19
	어리석은 자의 교만		14:13, 14; 잠 17:19; 25:6, 7, 27; 욘 1:4; 마 23:12; 막 10:37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자들의 교만	홍수 후의 인류	창 11:4
		압살롬	삼하 15:1, 2; 15:4
		아도니아	14:13; 22:16; 왕상 1:5; 왕하 14:10; 시 49:11; 함 2:5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마 20:21; 눅 11:43
		제자들	눅 22:24
	유대인들	5:44; 살후 2:4	
교만한 자		시 40:4; 119:78, 85; 123:4; 138:6; 말 3:15; 4:1; 딤후 6:4; 약 4:6	
교만에 대한 경고		시 10:2; 73:6; 119:21; 잠 6:17; 11:2; 13:10; 21:4; 28:25; 호 7:10; 함 2:4	
오 만	태도가 방자함		13:11; 삼상 2:3; 시 12:4; 잠 8:13
자 만	스스로 거만하여 자랑함		5:21; 잠 3:7; 26:5, 12; 롬 12:16; 고전 8:2; 갈 6:3
거 만	겸손하지 않고 거드름을 피우며 남을 업신여김		3:16; 16:6; 24:4; 삼하 22:28; 렘 48:29; 습 3:11

10. ㉠ 호인 장담했던 바벨론의 교만은 어떻게 무너질 것인가? (9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대해 ‘한 날에 홀연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 (2) 그런데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 때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는 데 주력했으므로 그 성읍의 성벽은 난공 불락(難攻不落)의 요새와 같이 함락하기 어려웠다(참조, 단 4:30).
- (3)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앞에서는 마치 추풍 낙엽(秋風落葉)처럼 하루아침에 쓰러지고 말았다(참조, 40:24: 41:2, 15, 16, 25; 45:1, 2).
- (4) 한편 ‘한 날’이란 고레스에 의해 성읍이 함락되는 날 곧 B. C. 539년 10월 12일(바벨론 성에서 향연을 베풀던 벨사살 왕이 고레스의 군대에 의해 사살된 날)을 가리킨다(참조, 단 5:30).
- (5) 그리고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일’은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의 인구가 분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때 왕성했던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됨에 따라 결국은 바벨론이 폐허로 변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느 때 갑작스럽게 역사(役事)하시는 것이다(참조, 마 24:42, 43; 25:13; 살전 5:2; 벧후 3:10; 계 3

:3;16:15).

11. ㉠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또한 그 결과는 어떤 할 것인가? (9절)

- ㉠ (1)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하여 '무수한 사술(邪術)과 많은 진언(噴言)을 베풀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그 일은 온전히 그들에게 입할 것이다.
- (2) 여기에서 '무수한 사술과 진언'이란 귀절로 보아 추정할 수 있듯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나라로서 점치는 일과 진언, 곧 주문(呪文)을 외우는 일 등이 성행(盛行) 하였음을 알 수 있다(참조, 단2:2;5:7).
- (3) 그중에서도 특별히 점치는 일은 신(sin)이라고 불리는 월신(月神, the moon-god)에게 의탁했으며 주문을 외우는 것은 주로 사제(司祭) 계층에 한하여 행해졌다.
- (4) 이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이므로 다른 죄악은 차치(且置)하더라도 그들의 파멸은 명약 관화(明若觀火)한 사실인 것이다(참조, 신 7:25; 18:12;32:16;왕상 21:26).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는 단지 우상의 힘 뿐만 아니라 어떤 수단을 동원할지라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20:6;렘 46:6;50:29;렘 17:15;암 9:1;눅 3:7).

12. ㉠ 바벨론은 어떤 행동으로 인해 재앙을 받게 되었는가? (11, 12절)

- ㉠ (1) 바벨론 백성들은 자신들의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고 했는데 여기에서 '악'은 바벨론이 자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 및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잔학한 행위 등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그들이 온갖 죄악을 범하고도 안심했던 것은 우상들에 미혹되어 거짓 지혜와 지식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44:20;45:20;시 115:8;렘 1:22, 23).
- (3) 또한 그들은 '마음에 이르기를 나 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지극히 교만한 태도를 가졌다.
- (4)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 흔히 사용하시는 표현으로서(44:6, 8; 45:5, 6) 여기서는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을 동일시할 만큼 교만해졌음을 가리킨다.
- (5) 이와 같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힘만 믿고 온갖 만행을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죄악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었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인간이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 자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창3장;11:3-10).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깨닫고 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 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미 6:8;약 4:10;벧전 5:5, 6).

13. ㉠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의지했던 우상과 모략은 어떻게 되는가? (12-15절)

- ㉠ (1) 바벨론 백성들은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추구했던 '진언과 많은 사술'을 가지고 시험할 지라도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뿐더러 원수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다(12절).
- (2)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을 의지하여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종류의 마술사들을 불러서 마술을 행하였으나 전혀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였으므로 결국은 무력하게 지치고 말았기 때문이다(참조, 단2:2-11;5:7, 8).
- (3) 또한 그들은 마치 초개(草芥)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불에 타게 될 때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14절).

- (4)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근로하던 것들’도 이와 같이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무역하던 자들’조차 그들을 외면하고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15절).
- (5) 여기서 ‘근로하던 것들’은 바벨론의 약탈 행위에 같이 참여했던 애굽을 가리키며 ‘함께 무역하던 자들’은 바벨론과 교역했던 애굽인, 아라비아인, 페니키아인들을 의미한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까지 철저히 진멸하셨다.

14. ㉠ 이사야는 바벨론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14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본절에서 바벨론을 ‘초개’(草芥)에 비유했다.
- (2) 여기에서 ‘초개’는 지푸라기의 한자어로서 이사야가 보잘것없는 존재나 저항할 힘이 없는 나약한 것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했던 단어이다(5:24;40:24;41:2).
- (3) 한편 시편의 저자는 ‘악인’을 ‘바람에 나는 겨’로 표현했다(시1:4).
- (4) 결국 한갓 지푸라기에 지나지 않는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에 흩날리게 될 뿐만 아니라(40:25) 불로써 심판하실 때는 자취도 없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연구자료

여성으로 비유되고 있는 국명(國名)의 의미

성경 기자들은 종종 나라 이름을 여성에 빗대어 부르곤 한다(3:16;23:10;렘 49:3). 그러한 호칭들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것으로는 ‘처녀 딸 시온’(37:22;왕하19:21)을 들 수 있다. 이 호칭에는 시온, 즉 예루살렘 거민들(더 나아가서는 전이스라엘 백성)이 순결성을 잃지 않은 처녀와 같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순결성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본장에도 나오는데 그것은 곧 ‘처녀 딸 바벨론’(1절)이다. 그러나 여기서의 ‘처녀 딸’이란 의미는 남성에 의해 손대임을 당하지 않은 처녀가 매우 아리따우며 고상(高尚)한 것처럼 지금까지 외세의 침공을 받지 않은 바벨론의 영화가 자못 크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 외에도 한 지역의 주민이나 한 나라의 국민들을 지칭하기 위하여 흔히 쓰이고 있는 비유들이 있으니 ‘처녀 시온’(애 1:6), ‘유다의 딸’(시 48:11), ‘딸 다시스’(23:16) 등과 같은 표현이다. 이처럼 국가나 성읍을 의인화하여 부르는 표현은 특히 예언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비유법이다.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표현들을 찾아 열거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처녀 딸 시온(23:12), 처녀 딸 애굽(렘 46:11), 처녀 예루살렘(애 2:13), 처녀 유다(애 1:15), 처녀 이스라엘(렘 18:13), 딸 시온(1:8), 딸 갈림(10:30), 처녀 에돔(4:21) 등이 있다.

## 제 48 장 하나님께서 나약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다

단락구분 1-8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하시다 / 9-1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연단시킴으로 영광을 받으시다 / 12-16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레스를 예비하시다 / 17-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불복종을 슬퍼하시다 / 20-22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시다

1-2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물을 고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흥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4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놋이라

5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네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네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네 말이 내 신의 행한 바요 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의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6 네가 이미 들었으니 이것을 다 보라 너희가 선전치 아니하겠느니라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네게 보이노니

7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 옛적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였으리라

8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내가 궤출하고 궤출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 칭함을 입은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 하리라

10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태웠노라

11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12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1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뻗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14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와 사랑 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15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은 행통하리라

1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와 이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17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18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고도 다 만일 들었더라면 네 평강과 강과 같았겠고 네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19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20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여 들리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중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21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로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1. **㉠** 본장은 전장(前章)과 어떤 연계성(連繫性)을 가지는가?

- ㉠** (1) 먼저 전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당신 앞에서 행했던 온갖 죄악상(罪惡上)을 밝히시면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의 긍휼도 베풀지 않고 완전히 파멸시킬 것이라 하셨다.  
 (2) 반면 본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달리 그들을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약속하셨다.  
 (3) 결국 전장과 본장은 똑같이 바벨론과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파멸과 구원이라는 상반적인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파멸로써 보응(報應)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다(참조, 마 1:4; 눅 24:47; 행 5:31; 롬 2:4; 고후 7:10).

2. **㉠** 이스라엘의 허위성에 대해 이사야는 어떻게 말했는가? (1, 2절)

- ㉠** (1)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허위성에 대해 제일 먼저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라고 지적했다.  
 (2) 그런데 여기에서 ‘야곱’ (40:27; 41:8, 14; 43:1, 22; 44:1)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자손으로서 갖는 생득적(生得的)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영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칭호로 일컬음을 받으나 실제로 그들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자격이 없음을 이사야는 지적하였다.  
 (3) 둘째, 이사야는 그들에 대해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조상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조상과 같지 않음을 책망하는 어투(語套)로 볼 수 있다.  
 (4) 세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했으나 사실 그들은 악과 죄로 인해 추악해졌으므로 ‘거룩한 성의 백성’이라고 자랑할 만한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5) 네째, 그들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의로움이 없이 여호와와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6)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위적인 신앙을 잘 나타내 주는 표현으로서 그들은 자신들이 고백한 신앙과 일치하지 않는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참람한 죄악을 범했다.  
 (7)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선적인 신앙과 허위에 찬 행동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복음서의 말씀은 잘 나타나 있다 (29:13; 겔 33:31; 마 15:8).  
 (8) 한편 우리들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과 혀’로써만 하나님을 믿는 위선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각자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참조, 요일 3:18).

3. **㉠** 하나님의 예언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3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 옛적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장래사’ (將來事)를 미리 말씀해 주셨다 (44:8).  
 (2) 그런데 ‘장래사’ (42:23)는 ‘내일’(6절; 42:9; 43:19)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이들은 예언에 있어서 시제적인 두 측면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3) 여기에서 ‘장래사’는 비교적 지난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부터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경험한 사건들을 가리키는 반면 ‘새 일’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세계 열방 중에서 영광스러운 민족이 될 것과 또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게 될 사건을

의미한다(참조. 65:17-19).

- (4)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내입에서 내어 보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는 의미이다.
- (5)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홀연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고 하셨듯이 예언의 성취는 인간의 지혜로서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능력으로도 제지할 수 없는 것이다(참조. 14:27; 43:13).

4. **㉠**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4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타락한 상태를 '너는 완악(頑惡)하며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 네 이마는 놋이라'고 표현했다.
- (2) 먼저 여기에서 '완악하며'는 문자적으로 '완고하며'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에게 미혹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네 목의 힘줄은 무쇠요'라는 귀절은 그들의 목이 마치 구부러지지 않는 무쇠와 같이 꺾끗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목이 곧다'는 것은 완고한 자들을 가리킬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법이다(출 32:9; 행 7:51).
- (4) 또한 '네 이마는 놋'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이 놋쇠처럼 단단하게 굳어져서 도저히 들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轉落)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귀절이다.
- (5) 한편 이와 같이 완악한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에서 찾아 볼 수 있다(참조. 삼상 8:19; 대하 24:19; 30:8; 렘 32:33; 44:16; 스 7:11).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에 대해 미리 알려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언에 대한 비밀을 그것이 성취되기도 전에 미리 알려 주셨는데 이는 그들에게 성취된 일들이 우상이나 신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다.
- (2)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이나 이방 신에게 눈을 돌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 (3)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등한 신으로 여겼고 심지어는 우상을 더욱 우세한 위치에 올려 놓음으로써 그들에게 성취된 일들이 우상에 의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素地)가 충분히 있었다.
- (4) 한편 우리들은 초인적인 힘이나 능력은 우상들이 흉내낼 수 있는 것이지만 구원의 사역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43:11; 시 3:8; 62:1; 호 13:4; 은 2:9; 히 5:9).

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여 주실 것이라 하셨는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목격한 예언의 성취를 경험하고도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비(隱秘)한 일들' 보여 주실 것이라 하셨다.
- (2) 여기에서 '새 일'은 앞에서 언급된 '새 일'(42:9; 43:19) 및 '이 일'(41:4, 26; 42:16; 43:9; 44:23; 45:8, 21; 46:8) 그리고 '장래 일'(45:11)과 같은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사건을 가리킨다.
- (3) 뿐만 아니라 이 일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예시(豫示)해 주는 사건이기도 하다(49-53장).
- (4) 그중에서도 특히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65:17; 66:22; 벧후 3:13; 계 21:1), 이제껏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았었던 놀라운 사건으로서(7절)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

해 성취되어질 구원의 약속이다.

- (5)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새 창조는 하늘과 땅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육체와 영혼으로까지 이어지는 장엄한 은총의 역사인 것이다(참조, 롬6:4;7:6;고후5:17;갈6:15;엡2:15;4:24;골3:10;계21:5).

7. **㉠** ‘이 일들은 이제 창조된 것이요’란 귀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 (1)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오직 말씀으로 이루어진(요1:1-3;히11:3) 초자연적인 기적이었다(창1:1;출20:11;느9:6;욥26:7;시102:25;행14:15).
- (2) 이처럼 창조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도 하나의 기적적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의한 것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해방 사건을 창조와 같이 중요한 사역으로 취급하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4) 결국 이것은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극하심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참조, 대상16:34;대하7:3;16:41;렘33:11).

8. **㉠**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8절)

- ㉠** (1) 이사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었나니 이는 네가 꾀홀(詭譎)하고 꾀홀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한 자’라고 표현했다.
- (2) 여기에서 ‘듣지도 못하였고’라는 귀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비롯해 온갖 죄악을 범하므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鈍感)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즉 그들의 이러한 상태는 한마디로 영적인 귀머거리로 표현할 수 있다(참조, 6:10;렘6:10;겔12:2;슥7:11;마13:15;행28:26;딤후4:4).
- (3) 그리고 ‘알지도 못하였으며’라는 귀절로 보아 알 수 있듯이 우상의 거짓 지혜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하나님을 구별할 수도 없을 만큼 영적으로 우매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참조, 44:19;시92:6;겔12:2;눅12:56;요8:43;롬3:11;히5:11).
- (4)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귀가 활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렘6:10) 점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참조, 행7:51). 그런데 육체적으로 귀가 멀은 사람들도 눈으로 사물을 보긴 하지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 능력에 장애를 일으켜 궁극적으로 깊은 인식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 (5) 또한 ‘꾀홀하고 꾀홀하여’라는 귀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적부터 귀를 닫아 완악하게 되어(4절)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는 상태를 거듭 강조한 표현이다.
- (6) 한편 우리들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입술과 귀 뿐만 아니라 영적 활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신10:16;30:6;렘4:4;롬2:29;빌3:3;골2:11).

9.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패역’(悖逆)함에도 불구하고(8절)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 분노하여 택한 백성을 멸망시키신다면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이방인들에 의

해 손상될 것이므로 참으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참조, 출32:12; 민14:13; 신9:28; 시79:10; 106:8).

- (3) 또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으시는 것은 당신의 '영예'(榮譽)를 위해서이기도 한데 결국 당신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심으로써 그들로부터 영원한 찬송을 받게 되셨다(참조, 대상25:3; 대하5:13; 7:6; 20:21; 스3:11).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로 부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출34:6; 민14:18; 느9:17; 시86:15; 103:8; 145:8; 율2:13; 온4:2; 나1:3).
- (5) 그러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역(逆)으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며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전3:12; 7:20; 롬2:10; 12:17; 고후13:7; 딤후2:7; 3:8; 히13:18; 벰전3:11).

#### 10.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연단(練鍛)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실 때 은(銀)을 연단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여 주셨다.
- (2) 여기에서 '연단'이라는 말은 광물로부터 금속을 분리시키기 위해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 녹이는 제련(製鍊) 과정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은'을 제련하기 위해서는 그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을 용광로에 넣어 녹여야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신다면 그들은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쓰러지고 만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완전히 파멸하지 않도록 '고난의 풀무' 곧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이다.
- (5) 한편 성경의 다른 기자들도 성도들의 시련에 대해 '연단'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욥28:1; 렘9:7; 단12:10; 숙13:9; 말3:2, 3; 롬5:4; 빌2:22; 히5:14; 벰전1:7; 벰후2:14; 계3:18).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연단하실 때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므로 우리들은 그 시험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마10:22; 24:13; 막13:13; 고전13:7; 고후1:6; 6:4; 골1:11; 계2:3).

#### 11.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을 위하시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목적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사역은 구원받는 자의 입장에서 보거나 구원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외에는 어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 (4)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 달려 있는 것이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선포하신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구원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우리들은 각자에게 허락된 구원을 결코 자신의 면류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참조, 고후3:5; 엡2:8, 9).

####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셨다.
- (2) 먼저 하나님께서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라고 동일 대상을 연거푸 두 번씩이나

부르신 것은 수사법상(修辭法上)으로 이사 일의(二詞一意)라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간곡히 알리심을 강조한 말이다(1절;40:27;41:8, 14;43:1,22;44:1,21; 46:3).

- (3) 그리고 ‘나는 그니’라는 귀절은 히브리어로는 <아니 후>이며 헬라이어로는 <에고 에이 미>로서 앞에 언급된 말씀을 있게 하신 근원자라는 의미이다(43:13).
- (4) 또한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는 귀절은 하나님의 속성 중 ‘영원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본서에서 여러 번 사용되었다(41:4;43:10;44:6).
- (5) 한편 요한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은 헬라이어 문자의 첫 글자 <알파>와 마지막 글자인 <오메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원성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라고 표현했다(계1:8 ;21:6;22:13).

13. ㉠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役事)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13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뿔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역사(創造役事)를 표현했다.
- (2) 여기에서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뿔나니’라는 귀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문구(文句)로서(13절;40:12, 22,26,28;42:5, 12;44:24;45:12, 18;51:13,16;58:12) 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가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다(욥26:7;38:4;시102:25;104:5;잠8:29;히1:10).
- (3) 이처럼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마치 인간이 한 일처럼 의인화(擬人化)시켜 놓은 것은, 인간의 지혜로는 이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4) 그리고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는 귀절은 무생물을 생물처럼 표현한 활유법(活喻法)으로서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재(主宰)이심을 나타낸다(창14:19;시22:28;마11:25;행17:24).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인간이 행하는 모든 창조적인 활동과는 달리 초인적이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14. ㉠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들려주셨는가? (14,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들에게 ‘나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려주셨다(14절).
- (2) 여기에서 ‘나 여호와와 사랑하는 자’는 바사 왕 고레스를 가리키며 ‘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의미한다. 그리고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43:14;47:1).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첨가하심으로써 반드시 이 일이 성취될 것임을 확신시켜 주셨다.
- (4) 이처럼 고레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켰는데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초인적인 능력으로 열방을 정복하였고 그의 원정의 길은 항상 형통하였다(41:2, 3, 25;43:14;45:1-3,13).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어떤 특정한 인물을 선택하시어 그 일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심을 알 수 있다(참조, 5:26;7:18;삿3:12;왕상11:14;렘5:15;6:22;51:20;눅19:43).

15. ㉠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무엇을 보내셨는가? (16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고 말했다.
- (2) 그런데 이 귀절 중에서 ‘나와 그 신’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신학적으로 는

란이 많다.

- (3) 먼저 ‘카이’ (Kay) 라는 신학자는 본귀절이 14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나와 그 신’은 하나님의 삼위(三位) 중 한 위가 다른 한 위에 의해 보내졌다고 해석하였다.
- (4) 반면 ‘케인’ (Cheyne) 에 의하면 ‘나와 그 신’은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도록 부름 받은 선지자들로서 그들은 하나님(성부)과 그 신(성령)에 의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처음부터’ 보내어진 자들이다.
- (5) 그러므로 케인은 이사야가 그 선지자들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이므로 여기에서 ‘나와 그 신’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6) 그러나 칼빈 (Calvin) 은 이러한 두 학설과는 달리 ‘나’와 ‘그 신’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본서의 저자인 이사야를 가리키며 ‘그 신’은 하나님의 신(神)이신 성령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참조, 63:14; 창1:2; 6:3; 사3:10; 잠1:23; 절3:12; 욕2:28; 학2:5; 숙4:6).
- (7) 한편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 ‘너희는 내게...있었노라 하셨느니라’에서 한 문장이 일 단락지어지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보내셨느니라’는 귀절은 독립된 문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 (8) 따라서 앞 문장은 14절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으며 뒷 문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고 난 후 이사야가 자신의 말을 첨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 (9) 결국 뒷 문장이 이사야 자신의 고백이라면 ‘나’는 이사야를 가리키며 ‘그의 신’은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10)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므로 본절의 해석은 칼빈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 16. ㉠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17절)

- ㉠ (1)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라고 밝혔다.
- (2)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서 특히 ‘구속자’와 ‘거룩하신 자’를 연결시켜 본서에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17절; 41:14,16; 43:3,14; 45:11; 47:4; 49:7).
- (3) 이것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과 구별하여 특별히 구원해 주신 구속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심을 밝히셨다.
- (5)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草場)에 누이시며 쉴 만한 풀가로 인도’하시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蘇生)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시23:2,3).

#### 17. ㉠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 계속 권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범죄하였으므로 슬퍼하신 것이다.
- (2) 이사야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것을 불평하게 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그 이유가 그들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기 때문임을 지적하고 있다.
- (3) 한편 부모가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양육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이 나중에 부모를 배반하게 되었을 때 배신감과 함께 슬픔의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셨으나(참조, 17절; 마7:11)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으므로 그들에 대한 배신감이 급기야는 슬픔의 탄식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18. **㉠**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어떤 축복을 받았을 것인가? (18, 19절)

- ㉠** (1) 먼저 이사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만일 들었더라면’이라는 조건문으로 이스라엘이 놓친 축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 (2) 첫째, 그들은 ‘평강이 강과 같을’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강’은 문자적으로 항상 물이 가득 찼던 유프라테스 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경우 이 강과 같이 흘러 넘치는 평강을 누렸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둘째, 그들은 ‘의가 바다 물결 같을’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이 말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공의가 바닷물처럼 깊고 넓으며 끝이 없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 (4) 한편 이러한 공의가 성경의 다른 곳에는 ‘정오의 빛같이’ (시37:6), ‘하수(河水)같이’ (암5:24)로 표현되어 있다.
- (5) 셋째, 그들은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所生)이 모래 알갱이 같을’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래’는 상당히 많은 수의 자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축복은 아브라함(창15:5; 17:20; 18:17)과 이삭(창26:24)이 누린 바가 있다.
- (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탈피 때 ‘조금 남겨 둔’ 자였고(1:9) 거의 파멸한 뒤 ‘남는 자’(37:31)에 불과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바벨론의 압박하에서 수자가 많이 줄었는데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자가 5천명 미만이었고 에스라의 인솔에 귀환한 자들도 2천 명을 넘지 못했다(참조, 스8:1-20).
- (7)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할’ 축복을 받았을 것이다.
- (8) 그런데 이 귀절의 내용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끊어진 것은 아니지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랑스러운 이름을 잃게 된 것은 사실이다.
- (9)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돌아올 엄청난 축복을 놓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셨다(1:26; 11:12; 27:13; 33:20; 40:2; 49:22; 60:10; 렘20:40; 36:8).
- (10)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선한 행위의 결과로 받게 되는 상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당신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전5:19; 행8:20; 롬5:15; 엡2:8; 3:7; 약1:17).

19. **㉠**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후 전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0-22절)

- ㉠** (1) 먼저 이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 중 야곱을 구속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고 명령했다(20절).
- (2) 두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그들이 사막을 지날 때에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는 기적의 사건이다(21절).
- (3) 한편 이러한 기적은 출애굽 당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써 물을 허락한 사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출17:1-7; 민20:7-11; 시106:32, 33).
- (4)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그들에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명령했다(22절).
- (5) 이 귀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예언을 무시하고 계속 바벨론에 정착하기를 원

했던 일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평안함을 주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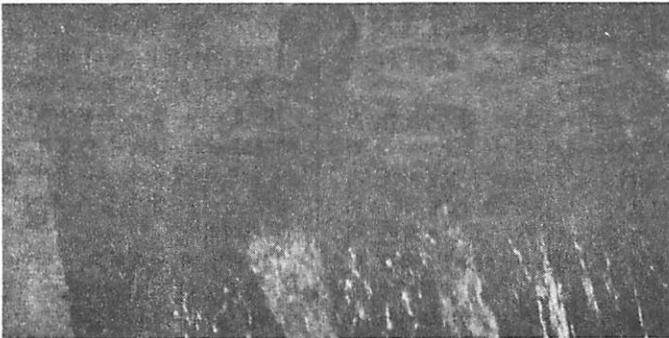
- (6) 결국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택한 자들이므로 팔레스티노로 귀환할 백성들에게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영원히 우상의 노예가 되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 (7)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이러한 사명은 단지 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본분을 깨달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일군이 되어야 한다 (참조, 막13:10; 행1:8; 골1:23).

20. **Q**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 소식을 어떻게 전파하라고 했는가? (20절)

- A** (1)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宣播)하라’고 명령하였다.
- (2)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라는 귀절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인의 입장에서 그 소식을 전하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나 부유한 자들은 바벨론에 미련을 두어 떠나지 않았고 너무 가난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한 자들도 상당수에 달했을 것이라 추정되어진다.
- (3) 또한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즐거운 소리로 이를 선포하라’고 말했는데 이는 복음을 전할 때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를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
- (4)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사건을 상징한다.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복된 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참조, 35:10; 42:11; 52:9; 시 65:13; 67:2; 95:1).

### 화보자료

물[水]. 팔레스티노의 소년이 놓고 있는 이 물은 예리고의 옛 샘에서 나오는 물이다.



팔레스티노처럼 강우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물이 무척 귀하게 여겨졌는데 식수, 농경, 유목 등에 필요한 많은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곧 생존과 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비교, 장 26:20). 그래서 본장은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여호와를 물을 공급하신 분으로 묘사하였다(21절).

# 제 49 장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및 구원

답락구분 1-4 구원주로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 / 5-7 이스라엘에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 / 8-13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 14-17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다 / 18-23 이스라엘의 번영 / 24-26 원수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1 섬들이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2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땅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4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영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녕히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5 나는 여호와와 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빼앗아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7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열왕이 일어나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한 바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나

8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이 그 광무하였던 땅을 기쁨으로 상속케 하리라

9 내가 잠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었고 모든 자산에도 그들의 풀밭

이 있을 것인즉

10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열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나

11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12 흑자는 원방에서, 흑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흑자는 시냇 땅에서 오리라

13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나

14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15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17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혐여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18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19 대저 네 황폐하고 격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거민이 많으므로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나

20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에게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21 그 때에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와졌으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

를 누가 양육하였는지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지 하리라

22 나 주 여호와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읊 것이며

23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밭의 티끌을 밟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24 용사의 때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때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마는

25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때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때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26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줄 알리라

###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무엇인가?

- ㉠ (1) 이사야는 본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될 구원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데 앞장(48장)까지는 이 사건의 1차적 대행자로서 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언급해 왔다(11:2, 25; 43:14; 44:28; 45:1-5, 13; 46:11; 47:14).
- (2) 여기에서 고레스는 인간적으로는 열국을 정복했던 바사 왕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됨으로써 일시적이거나 이스라엘의 간접적인 구속자가 되었다(참조, 45:1).
- (3) 그러나 본장에서는 일시적인 구속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장차 모든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실(42:1-4; 빌 3:20)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있다(1-7절).
- (4) 본장을 통해 이사야는 천지 창조와 함께 성경 역사상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본장은 이사야의 예언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과거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일시적인 해결책으로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다(참조, 벨전 1:20).

### 2. ㉡ ‘섬들아 나를 들으라’는 귀절은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 (1절)

- ㉡ (1) 여기에서 ‘섬들’이란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인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異邦)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러한 표현법은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하여 바다 건너편에 있는 땅들을 모두 ‘섬’이라고 불렀던 데서 기인(起因)한 것이다.
- (3) 그리고 여기에서 ‘나’라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귀절의 주체(主體)가 누구인가를 밝혀 주고 있다.
- (4) 결국 본귀절은 43장 이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이스라엘의 해방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전(全)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救贖事役)에 대한 선포라고 할 수 있다.

### 3. ㉢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어떻게 선택하셨는가? (1절)

- ㉢ (1) 메시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腹中)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라고 자신이 선택된 경위를 밝혔다.
- (2) 이러한 메시아, 즉 예수의 선택에 대해서는 신약의 복음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 (3) 먼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라는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눅 1:31-33).
- (4) 그리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라는 귀절은 하나님께서 수태(受胎) 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앞으로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

실 것이라 의미이다(마 1:23; 눅 1:23).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으로는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시다(미 5:2; 요 1:1; 8:58; 17:5, 24; 골 1:17; 계 22:13).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태초로부터 선택되었으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성육신(成肉身)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7:14; 9:6; 11:1-11; 눅 2:7; 요 1:14; 행 2:30; 롬 8:3; 빌 2:7; 딤후 3:16; 히 2:14; 요일 4:2; 요이 1:7).

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메시아에게 어떤 권능을 배부시킬 것인가? (2, 3절)

- ㉠** (1) 첫째, 그에게 제공할 권능에 대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오’라고 표현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할 말씀이 칼처럼 예리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각성(覺醒)케 할 것이라 의미이다(참조, 히 4:12; 계 1:16; 2:12; 19:15, 21).
- (2) 두번째로 메시아께서 받으실 권능은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날이 이를 때까지’(눅 21:6; 23:29; 빌 1:10; 히 8:8; 계 6:17) 그를 원수의 손으로부터 지켜 주실 것이라는 뜻이다.
- (3) 세째, ‘나로 마광(磨光) 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箭筒)에 감추시오’라고 했다. 여기에서 ‘마광한 살’은 잘 깎여져 끝이 예리하고 빛이 나는 화살을 가리키며, ‘전통’은 화살을 꽂아 두는 통을 뜻한다.
- (4)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예수를 의의 병기로 선택함으로써 장차 심판 날이 이를 때까지 예비해 두실 것을 가리킨다.  
네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에게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앞에 언급했던 세 가지 권능을 감당할 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셨다.
- (5) 결국 이러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능에 힘입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다(요 13:31).

5. **㉠**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아는 어떤 탄식의 말을 하셨는가? (4절)

- ㉠** (1) 그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도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라는 탄식의 말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셨다.
- (2)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려운 일들을 감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배반적인 반응을 보일 것에 대한 예언이다.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神)의 성품을 갖추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감정도 갖고 계셨으므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 (4)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으므로 ‘정녕히 나의 신원(伸冤)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고 하심으로써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셨다. 여기에서 ‘신원’이라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리는 것을 뜻한다.
- (5)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본받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끈고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10:22; 고전 15:58; 살후 3:13; 히 10:36; 12:3, 5; 벰전 2:20).

6. **㉠**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가? (5,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태에서부터 자기 종으로 삼으셔서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 모이게’ 하실 것이다(5절).
- (2) 이 말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

자(仲保者)가 되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란 의미이다(참조, 갈 3:19, 20; 딤편 2:5; 히 8:6; 9:15).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6절).
- (4) 여기에서 ‘야곱의 지파들’이나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 들은 일차적으로는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함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로 지명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참조, 롬 4:16).
- (5)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의 빛을 삼아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셨다(6절).
- (6)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심으로써(요 3:19; 12:46) 죄와 죽음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방(異邦)을 구원의 빛으로 밝혀 주실 것이란 뜻이다(눅 2:32; 1:5; 8:12; 행 26:23; 고후 4:6; 요일 2:8).
- (7)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인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보내심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셨다(참조, 53:7; 요 1:29; 3:16; 고전 5:7; 갈 1:4; 엡 5:2; 벧전 1:19).

7.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밝히셨는가? (5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여호와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고 자신의 존재를 밝히셨다.
- (2)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은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자신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3) 사실 그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마 16:16) 모든 인류의 구세주(눅 2:11; 요 4:42; 딤후 1:10; 딤편 1:4; 2:13; 벧후 2:20; 요일 4:14)이시므로 이러한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번호	표현된 명칭	참 조
1.	가 지	4:2; 11:1; 엡 23:5; 33:15; 속 3:8; 6:12
2	구 주	눅 2:11; 요 4:42; 딤후 1:10; 딤편 1:4; 2:13; 벧후 2:20; 요일 4:14
3	모퉁이 돌	시 118:22; 마 21:42; 행 4:11; 엡 2:20; 벧전 2:6
4	주(主)	눅 5:5; 8:24; 9:33, 49; 17:13
5	사자(使者)	마 21:37; 요 6:38; 7:29; 8:42; 9:4; 10:36; 17:8, 21
6	메시아(그리스도)	마 11:3; 16:16; 26:63; 눅 2:11; 4:41; 24:26; 요 1:41; 4:26; 6:14, 69; 7:41; 8:28; 11:27; 행 9:22; 17:3
7	새벽별	민 24:17; 벧후 1:19; 계 2:28; 22:16
8	어린 양	53:7; 요 1:29; 고전 5:7; 벧전 1:19; 계 5:6; 6:1; 7:9; 12:11; 13:8; 14:1; 15:3; 17:14; 19:9; 21:22
9	선지자	신 18:18; 마 21:11, 46; 막 6:15; 눅 7:16; 13:33; 24:19; 요 4:19; 6:14; 7:40; 9:17; 행 3:22
10	거치는 돌	8:14; 마 11:6; 13:57; 막 6:3; 롬 9:32; 고전 1:23; 벧전 2:8
11	참포도나무	요 15장
12	빛	눅 2:32; 요 1:9; 3:19, 21; 12:46; 13:47; 26:13; 요일

		2:8; 빌 2:15
13	사랑하는 아들	마 3:17; 12:18; 17:5; 막 1:11; 엠 1:6; 골 1:13; 벧후 1:17
14	하나님의 아들	마 2:15; 3:17; 8:29; 14:33; 17:5; 막 1:1; 눅 1:35; 요 1:34; 3:18; 10:36; 11:27; 행 9:20; 히 4:14; 10:29; 요일 4:15
15	기뻐하는 자	마 3:17; 17:5; 벧후 1:17
16	독생자	요 1:14; 3:16, 18; 히 11:17
17	만왕의 왕	딤했 6:15; 계 1:5; 17:14; 19:16
18	인자	단 7:13; 마 8:20; 26:64; 막 3:28; 8:31; 눅 6:22; 22:48; 요 5:27; 13:31; 행 7:56; 계 1:13
19	하나님의 종	49:3, 6; 행 16:17
20	거룩한 자	막 1:24; 눅 1:35; 요 6:69
21	기묘자(奇妙者), 모사(謀士),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9:6
22	구원하는 자	빌 3:20
23	말씀	요 1:1, 14; 요일 1:1; 5:7; 계 19:13
24	둘째 아담	고전 15:45-47
25	우리의 대언자	요일 2:1
26	전능자	계 19:15
27	알파와 오메가	계 21:6
28	아멘	계 3:14
29	옛부터 제신 이	단 7:9
30	기쁨받은 자	시 2:2
31	여호와와 팔	51:9, 10
32	한 아기	눅 2:16
33	영혼의 목자	벧전 2:25
34	이스라엘의 위로	눅 2:25
35	임마누엘	마 1:23
36	문	요 10:9
37	처음과 나중	계 22:13
38	세리와 꾀인의 친구	눅 7:34
39	선한 친구 주인	막 10:17
40	대제사장	히 4:14
41	만인의 머리	골 2:10
42	볼 수 없는 여호와와 형상	골 1:15
43	왕 중의 왕	딤했 6:15
44	세상의 빛	요 9:5
45	생명의 빛	요 8:12
46	산 떡	요 6:51
47	생명의 떡	요 6:35
48	선한 목자	요 10:11, 14
49	양의 문	요 10:7

50	양의 큰 목자	히 13:20
51	목자장	벧전 5:4
52	산 들	벧전 2:4
53	중보(仲保)	히 12:24
54	나사렛 사람	마 2:23
55	우리의 유월절	고전 5:7
56	의사	눅 4:23
57	람비	요 6:25
58	사론의 장미	아 2:1
59	여자의 후손	창 3:15
60	길, 진리, 생명	요 14:6
61	여호와와의 말씀	계 19:13
62	생명의 말씀	요일 1:1

8. **㉠** 이사야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할 고난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가? (7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함으로써 앞으로 그분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2) 먼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는 문자적으로 영혼들에게 경시를 당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장차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훼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시 22:6)가 될 뿐 아니라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가 될 것임을 보여 주는 말이다(53:3).
- (3) 그리고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란 귀절은 예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외침으로써(마 4:17; 막 1:15) 많은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임을 나타내 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과오를 지적해 주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기 보다는 반발심을 갖게 되는 사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4)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요 19:15)라는 반발을 받을 만큼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던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는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로서 고난을 당할 것인데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헤롯(눅 23:11)이나 본디오 빌라도(요 18:1, 16)와 같이 보잘것없는 관료들에게 마치 노예와 같이 취급받으셨다.
-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키 위해 오셨으나 오히려 인간들에 의해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셨다(53:3-10; 행 8:32; 골 2:14; 벧전 2:24).

9. **㉠**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됨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7, 8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에게 많은 고생을 받게 될 것이나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열왕(列王)이 일어서며 방백(方伯)들이 경배'하게 될(7절) 그러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참조, 52:15; 60:3, 10, 11).
- (2) 그런데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신 후 이루어진 것임을 사도신경의 한 귀절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약속으로써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다.
- (4) 이러한 말씀과 같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

오시고 도우셨다는 사실이 복음서의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다(눅 2:40, 52; 요 3:2; 8:28; 12:28; 14:10).

- (5)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그를 통해 백성들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荒蕪) 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相續)케' 하실 것이다(8절).
- (6) 이 말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참조, 마 5:5; 행 13:19; 히 1:4; 6:12; 12:17; 벧전 1:4).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42:1; 50:7-9; 롬 8:33, 34).

10.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사역은 무엇인가? (9-12절)

- ㉠** (1) 장차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나오라고 말할 것이며 사망의 어두움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라고 말할 것이다(9절).
- (2)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비록 사막과 같이 험한 곳에 처해 있을 지라도 푸른 초장(草場)에 사는 것과 같으므로 그들은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뜨거운 햇빛과 사막의 열풍조차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9, 10절).
- (3) 왜냐하면 그들을 붙잡혀 여기는 자가 그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가으로 인도' (시 23:2)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10절).
- (4)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산들을 가로지르는 대로를 만드셔서 '혹자(或者)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냇 땅에서' 오게 하실 것이다(11, 12절).
- (5)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그 길을 평탄케 함으로써 열방으로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란 의미이다(참조, 2:2; 11:10; 50:1-5).
- (6) 한편 원방, 북방, 서방은 세계 도처로부터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오는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며, '시냇 땅'은 정확하게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에 대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일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시냇 땅'이 어느 곳인가를 규명하는 것은 본장의 흐름으로 보아서 그리 중요한 일이 못 된다.
- (7) 단지 이사야가 온 세계로부터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냇'은 북방, 서방에 이어 팔레스틴으로부터 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으로도 의미상으로도 무난하다(참조, 43:5).

11. **㉠**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자연(自然)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13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찬양하기 위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고 자연에게 명령하고 있다.
- (2) 이 귀절은 43:23에도 표현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사역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천지 만물이 그분의 섭리에 화답(和答)할 것이란 의미이다.
- (3) 특히 그중에서도 '산'은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자주 언급되었다(참조, 2:2, 14; 5:25; 13:4; 14:25; 22:5; 30:25; 34:3; 37:24; 40:4, 9, 12; 41:15).
- (4) 이런 할상은 팔레스틴의 고지에 사는 자나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헤르몬 산 또는 레바논의 높은 언덕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귀결(歸結)이다.
- (5) 한편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단 2:23; 은 2:9; 골 3:16).

12. **㉠**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떠한 불평을 하였는가? (14, 15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

를 잊으셨다'고 성급한 마음으로 불평을 늘어 놓았다(14절).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써 그들의 불평에 대해 답변해 주셨다(15절).
- (3)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명시해 준다(참조, 출 4:22; 신 14:1; 렘 31:9; 호 1:10; 롬 8:17; 9:8; 고후 6:18; 갈 4:19, 28; 요일 2:1; 3:7; 계 21:7).
- (4) 한편 인간들의 사랑 중에서 가장 깊고 넓은 것은 동서 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일 것이다.
- (5) 그런데 어머니들도 결국은 인간이라는 한계성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때로는 자녀들에 대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지 못하거나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 (6)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가변적(可變的)인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다.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영원한 것임을 깨달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코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시 37:7; 렘 31:3; 함 2:3; 행 1:4; 고전 10:10; 딤후 2:13; 벧전 3:20).

### 13.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16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당신의 손바닥 위에 무엇을 새기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것이다(참조, 5:25; 9:12; 10:4; 11:11; 31:3; 40:10; 51:9; 53:1; 62:3).
- (3) 그런데 인간들이 자신의 몸에 무엇을 새기는 습속(習俗)은 고대로부터 전래되어 온 관습으로서 그중에서도 주로 팔이나 가슴 등에 문신(文身)을 새기는 것이 많이 파급되어 왔다.
- (4) 뿐만 아니라 노예들에게는 주인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 몸에다 화인(火印)을 찍기도 했으며 동양의 순례자들은 그들의 순례 여행이 끝났을 때 그 표시로서 몸에 무늬를 새기는 의식을 행했다.
- (5) 이러한 문신은 주로 바늘이나 칩같이 뾰족한 것으로서 살에다 무늬를 그리고 그 위에 향료나 안료로 색깔을 넣는데 일단 새겨진 문신은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 (6) 결국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것도 이러한 문신과 같은 것이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지워지지 않거나 변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했다.
- (7)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 신약 성경에는 인(印)을 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참조, 요 3:33; 롬 4:11; 고전 9:2; 고후 1:22; 엡 1:13; 4:30; 딤후 2:19; 계 5:1; 7:2-5; 9:4).

### 14. ㉠ 하나님께서는 장차 교회를 어떻게 일으키실 것인가? (16, 17절)

- (A) (1)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고 예언했다.
- (2) 그런데 '성벽'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나 여기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됨으로써 번성하게 될 교회를 의미한다(참조, 벧전 2:5-9).
- (3) 그리고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는 문자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이방인들의 회개와 개종을 가리키

는 것이다.

- (4) 마찬가지로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떠나가리라’는 귀절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도들을 미혹케 할 거짓 선지자들도 사단들이 물러가게 될 사실을 예시(豫示)해 준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심으로써 (엡 1:22; 5:23; 골 1:18) 그를 통해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돌아오게 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은 영원히 멸망당하게 된다 (참조, 6절; 9:2; 42:1; 60:3; 호 2:23; 막 3:26; 눅 10:18; 행 13:48; 28:28; 엡 3:6; 계 12:9; 20:3, 9, 10).

15. ㉠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실 때 무엇을 두고 맹세하셨는가? (18절)

- ㉠ (1)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으로’ 맹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
-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의심이 많은 인간들을 확신시키기 위해 당신의 전인격(全人格)을 걸고 맹세하신다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맹세를 할 때는 보통 중언 앞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자신에게 맹세할 때는 자신의 양심을 걸고 하는 경우도 있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경우와 달라서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맹세하신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 (14:24; 45:23; 48:1; 54:9; 62:8; 창 22:16; 삼하 3:9; 렘 12:16; 22:5; 32:22; 44:26; 51:14; 암 4:2; 6:8; 8:7).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맹세는 인간들의 가변적(可變的)인 약속과 달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시 110:4).

16. ㉠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어떤 내용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粧飾)을 삼아 몸에 차며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고 맹세하셨다.
- (2)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과 죄인들이 회개하여 사방으로부터 교인들이 모여들므로써 교회가 회복될 것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모습이 마치 단장을 한 신부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한편 이렇게 회복될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기도 했다 (고후 11:2; 엡 5:29, 32; 계 19:7; 21:2, 9; 22:17).
- (4)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죄인들이 누우치고 또한 그들이 모여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가장 아름답다.
- (5) 그러나 오늘날 교인들 중에는 교회의 단장을 잘못 이해하여 교회의 외형적인 장식과 교인의 수치적 성장만을 능사(能事)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오인한 데서 오는 결과이다.

17. ㉠ 교회의 확장과 성장은 어떠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인가? (19-21절)

- ㉠ (1)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한때는 비록 파괴되고 몰락할 것이지만 그 후로는 교회에 대적하는 사단이 멸망당하게 되어 교인들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19절).
- (2) 따라서 장차 신약 시대에 믿게 될 성도들은 교회가 협소하다는 것을 느끼고 선교의 터전을 확장하고자 요구하게 될 것이다 (20절).
- (3)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불어나는 이방 성도들과 땅 끝까지 팽창해 가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 의구심(疑懼心)과 함께 경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21절).
- (4)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초대 교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게 되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복음 전파가 선교 활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교회 확장에 일대 전환기를 가져다 주었다.

18. ㉠ 이사야는 이방인들의 개종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가? (22, 23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인들의 개종에 대해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시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모든 이방 성도들이 그분을 도와 주실 것이므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란 의미이다.
- (3) 그리고 ‘열왕은 네 양부(養父)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라’고 했다.
- (4) 이것은 복음이 전파될 때 이방의 왕들에 의해 처음에는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됨으로써 성도들을 보살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기독교를 국교(國敎)로 정하여 장려하게 된 사실을 가리킨다.
- (5) 그러나 그중에는 헤롯(Herod Agrippa I, B. C. 10-A. D. 44)이나 네로(Nero, Claudius Caesar Augustus Germanicus, A. D. 54-68 재위) 같은 왕들은 끝까지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 (6) 이와 같이 전에는 하나님께 대적하던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엡 3:6)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호 2:23; 말 1:11; 행 15:7; 28:28; 롬 9:24; 계 11:15).

19.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24,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5절).
- (2) 여기에서 ‘용사의 포로’와 ‘강포자의 빼앗은 것’은 바벨론이 이스라엘로부터 취한 포로와 성전 기물(器物)을 비롯한 각종 재물을 가리킨다(참조, 대하 36:6, 7, 18-20; 렘 52:17-19).
- (3) 그런데 그 당시 관습에 따르면 전쟁에 승리한 국가가 패전국으로부터 노예와 각종 재물들을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것은 일종의 특권으로 당연한 일이었다(참조, 24절).
- (4) 따라서 바벨론이 이러한 특권을 포기할 리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과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셨다(스 1:7-11; 2:1-69).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연단시킬 때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지지만 시험의 기간이 지나가면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큰 축복으로 채워 주심을 알 수 있다(참조, 욥 42:10-15; 벧전 1:7; 4:12, 13).

20. ㉠ 이사야는 바벨론의 멸망상(滅亡上)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26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사실을 ‘너를 학대(虐待)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다.
- (2) 이것은 장차 바벨론에 내란이 일어나게 되어 그들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게 될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다.
- (3) 실제로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바벨론 최후의 왕인 나보니더스(Nabonidus)는 종교 정책의 실패로 인해 신임을 잃고 왕권을 벨사살에게 물려준 후 지금의 아라비아 지방인 데마(Tema)로 피신하였다.
- (4)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에는 내란이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로 정국(政局)이 어지러워짐에 따라 여러 갈래로 세력이 분산되었다.
- (5) 고레스는 이렇게 쇠퇴해진 바벨론을 쉽게 정복할 수 있었는데(41:2, 12, 16, 25; 45:1-3; 47:9-11) 심지어 바벨론의 일부 세력은 바사 군에 가담하여 자기 나라의 군대와 대항해 싸우기도 했었다.

# 제 50 장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단락구분 1-3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다 / 4-6 모든 고난을 참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 7-9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도우실 것이다 / 10-11 하나님께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다

1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2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이뇨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땅아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죽이 같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

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베로 덮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허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뱀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들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름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쯤에게 먹히리라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 불을 피우고 햇빛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햇빛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슬픔 중에 누우리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고 순종하실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서로 비교했다.
- (2)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박함과 완고함으로 인해 (48:4)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일 뿐이다 (1-3절).
- (3)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참고 견디실 것인데 (4-6절) 이러한 순종의 태도는 그를 보내신 분이 자신을 도와 주실 것임을 확실히 믿고 의지한 데서 우러나온 것이다 (7-9절).
- (4)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참조, 마 26:42; 요 5:30; 빌 2:7, 8) 우리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창 26:5; 30:2, 8; 삼상 15:22; 렘 35:8; 행 5:29; 롬 6:16; 고후 7:15; 히 5:8; 벰전 1:14, 22).

## 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해 어떻게 반문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님을 증명하시기 위해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서(離婚書)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債主)에게 너희를 팔았느냐'고 그들 백성들에게 반문하였다.

- (2) 먼저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란 귀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인 결혼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신다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마 9:15; 25:1, 5, 6; 눅 5:34, 35; 요 2:9; 3:29; 계 18:23).
- (3)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법에 의하면 '이혼서'란 단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혼당한 아내에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결점이 없음을 입증해 주는 일종의 증명서였다(참조, 신 24:1).
- (4) 따라서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음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 (5) 한편 '내가 어느 채주(債主)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는 귀절 역시 하나님의 결백성을 증명해 주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6) 여기에서 '채주'란 돈이나 재물을 남에게 꾸어 준 채권자(債權者)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 당시 로마 법에는 빚을 진 자가 그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자식을 채권자에게 노예로 넘겨 주는 악습이 있었다.
- (7) 그러나 자녀들을 주 안에서 양육하라고 명하신(엡 5:29; 6:4; 딤후전 4:6; 5:10)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순을 행하셨을 리가 없다.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45:13; 49:24, 25).
- (8)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자신을 증명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생각지 않고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만 돌렸기 때문이다.
- (9)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이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임을 깨달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는 기도로써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애 3:39; 고전 10:10; 행 8:22).

### 3. ㉠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원인은 무엇인가? (1절)

- ㉠ (1)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인하여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허물을 인하여 보냄을 입었느니라'고 그 원인을 밝히셨다.
-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의 고난이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오직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참조, 롬 7:14) 이사야는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자책심과 회개를 촉구하였다.
- (3)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을 거듭 지적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원망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심성(心性)은 단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서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렘 3:29; 젤 18:2)는 말씀이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 (5) 한편 우리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기만 하는 태도는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에도 커다란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4. ㉠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능력을 증명키 위해 어떤 사건을 예로 드셨는가? (2,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시키 위해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고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졌으므로 어족(魚族)이 갈하여 죽어 악취를 발하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장면을 마치 눈앞에 보는 듯이 생생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가 마르고’는 홍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길이 가운데로 나게 된 사건을 가리키며(출 14:21-23), ‘하수가 광야가 될 것이며’는 요단 강의 물이 사해로 물러서게 됨으로써 강바닥이 맨땅처럼 드러나게 된 기적을 가리키는데(수 3:16,17) 그 결과로 모든 고기들은 말라 죽어 악취를 풍기게 되었다(참조, 출 7:20, 21).
- (4)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고(3절) 또 한 예(例)를 첨가하여 말씀하셨다.
- (5)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 아홉 번째 재앙인 ‘흑암의 재앙’으로서 그때 애굽의 하늘은 3일 동안 마치 검은 상복(喪服)을 두른 듯 캄캄하였다(출 10:21-23).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그 목적에 합당하게 자유 자재(自由自在)로 주관할 수 있는 분이시다(참조, 창 14:19; 마 11:25; 행 17:24).

5. **㉠**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곤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는가? (4절)

- ㉠** (1) 이에 대해서 메시아는 ‘주 여호와께서 학자(學者)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신다’고 고백하셨다.
- (2) 여기에서 ‘학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קַמְּוּדִים)은 원래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께서 ‘랍비’(‘선생’이란 뜻의 히브리어)로 오셨음을 나타내는 말이다(요 6:25).
- (3) 즉 메시아께서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천적 삶을 통해 진리의 교훈을 널리 증거하셨다(참조, 요 3:32; 4:34; 6:38; 7:16; 8:18; 10:38; 12:49, 50; 14:10; 15:15).
- (4) 뿐만 아니라 영혼이 ‘곤핍한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마 11:28)고 부르심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참조, 40:31).
- (5)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침마다 깨우치사’ 그의 귀를 열어 주시으로써 당신의 말씀을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하셨다.
- (6) 그런데 ‘아침마다’라는 말은 하루 중에 어느 일정한 시간, 즉 아침만을 가리키는 한정적 의미가 아니라 연속된 상태를 뜻하는 시간 개념으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요 8:29).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맡긴 자들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걸을 떠나지 않고 항상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출 18:4; 신 33:7; 시 121:1, 2; 행 26:22; 롬 16:2; 빌 4:13; 히 4:16).

6. **㉠** 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5절)

- ㉠** (1) 이에 대해서 메시아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라고 고백하고 있다.
- (2) 본귀절에 대해서 일부 신학자들은 옛날 주인이 평생 동안 그에게 순종하라는 표시로 그의 소유인 노예의 귀에 구멍을 뚫었던 것처럼(출 21:6)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메시아에게 영원한 순종을 원하는 표시로서 귀를 뚫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 (3)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문자적인 의미에 치우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순종하는 참된 종과 거짓 종을 구별하는 표시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다.
- (4)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괴역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꾀활하고 꾀활하여 모태에서부터 패역

한 자'라고 책망하셨기 때문이다(48:8).

- (5)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성도들에게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귀를 열어 주셨는데 완전하신 메시아, 즉 예수와는 달리 우리는 범죄하기 쉬운 인간이므로 자칫하면 죄로 인해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기 쉽다(참조, 6:10; 렘6:10; 겔 12:2; 숙 7:11; 13:15; 행 28:26).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귀가 닫히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참조, 출 20:6; 신 4:40; 10:13; 수 1:7, 8; 22:5; 왕상 2:3; 11:38; 대상 28:8; 시 1:2; 78:7; 119:97; 마 19:17; 요일 5:3).

7. **㉠** 메시아는 어떠한 고난을 받으실 것인가? (6절)

- ㉠** (1) 메시아께서는 장차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로부터 받게 될 자신의 고난에 대해 스스로 예언하셨다.
- (2) 먼저 메시아는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길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빌라도에 의해 채찍질을 당하시게 될 사건을 의미한다(마 27:26; 요 19:1).
- (3) 그리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그 당시 수염을 뽑는 것이 형벌의 일종으로 유대인에게 알려졌다는 점으로 보아 실제로 예수께서 이러한 형벌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 (4) 또한 그는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침을 뱉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특히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은 가장 큰 모욕으로 취급되었다(참조, 마 26:67; 27:30).
- (5) 뿐만 아니라 메시아는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는데 성경의 다른 부분에 언급되어 있는 고난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고난의 종류	참 조 귀 절
육체적인 고난	침 뱉음을 당하심	마 26:67; 27:30; 막 10:34; 14:65
	옷을 빼앗기심	마 27:35; 막 15:24; 눅 23:34; 요 19:23
	가시관을 쓰심	마 27:29; 막 15:17; 요 19:2, 5
	십자가를 지심	요 19:17
	구타를 당하심	53:5; 마 20:19; 27:26; 막 14:65; 15:15; 눅 23:16; 요 18:22, 23; 19:1
	십자가에 못박히심	마 27:35; 28:5; 막 15:24; 16:6; 눅 23:33; 요 19:17; 행 2:36; 4:10; 고후 13:4; 갈 3:1
	창으로 옆구리를 찢리심	53:5; 요 19:34, 37
인격적인 고난	비웃음을 당하심	마 9:24; 눅 16:14; 23:35
	멸시당하심	53:3; 막 9:12
	조롱당하심	마 27:29, 41; 눅 22:63; 23:11, 36
	욕설을 들으심	마 27:39; 막 15:32; 눅 23:39
	귀신들린 자로 취급받으심	요 7:20; 10:20
	행악자로 불리심	요 18:30, 31

- (6)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의 고난은 그분이 무력해서 당한 일이 아니라 죄인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수모를 대신 받으신 것으로서 이것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

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다(참조, 53:3-11; 마8:17; 롬4:25; 5:18, 19; 벰전2:23-25; 요일2:1).

8. **㉠** 메시야는 장차 당하실 고난을 어떻게 이기실 것이라 하셨는가? (7-9절)

- ㉠** (1)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얼굴을 '부식들같이' 굳게 하셨으니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부식들같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이 마치 부식들처럼 단단하여 어떠한 고난에도 결코 좌절당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참조, 겔3:8, 9).
- (3) 그리고 메시야는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으므로(요8:29) 어떠한 대적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 하셨다(8절).
- (4) 또한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정죄할 자가 없을 것이며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은 마치 좀먹은 옷처럼 헤어져 없어질 것이라 하셨다(51:8).
- (5) 이와 같이 메시야께서 온갖 고난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과 자기의 모든 것을 도와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난을 받을지라도(마5:10; 행5:41; 롬8:17; 벰전4:14, 16) 메시야이신 예수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심을 확실히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해야 한다(참조, 벰전3:21; 4:1, 13; 5:10; 요일4:17; 5:14).

9. **㉠** 이사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라고 당부했는가? (10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뢰(依賴)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이다'라고 당부했다.
- (2) 여기에서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란 환난 중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가리킨다.
- (3) 따라서 본귀절은 성도들이 비록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여호와와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때 환난을 극복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는 예언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구원의 '산 소망'(벰전1:3)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행5:41; 살전5:8; 벰전1:5-7; 2:19; 4:13, 16; 딤후1:2; 3:7).

10. **㉠** 이사야는 악인의 최후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가? (11절)

- ㉠** (1)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먼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매 너희의 피운 햇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이다'라고 예언했다.
- (2) 여기에서 '불을 피우고 햇불을 둘러 먼 자'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음의 빛 곧 예수 그리스도를(눅2:32; 요1:9; 3:19; 8:12; 12:46)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빛으로 삼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자신의 거짓 지혜로(29:14; 47:10; 렘4:22; 롬1:22; 고전1:19; 2:6; 3:19, 20; 고후1:12; 골2:23; 약3:15) 밝힌 불은 처음에는 환하게 타는 듯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케 하는 율무가 된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의 힘만 의지하여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은 결국 자멸(自滅)할 뿐만 아니라 고통과 슬픔의 형벌을 받게 됨을 알 수 있다(참조, 잠16:18; 18:2; 마25:30; 약4:6).

## 연구자료

### 이사야의 신학 사상과 신약적 평가

#### 1. 이사야의 신학 사상

이사야는 뛰어난 신학적 사상을 소유하였던 자로서 그의 사상은 본서에 잘 나타나 있다. 우선 구속(救贖) 사상에 대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이는 너무도 탁월한 것으로서 이사야를 가리켜 '복음적인 예언자'라고 할 정도이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회생적인 사역인바 이는 53장에 잘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 찢림을 받고 상처당함은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인함이요 그로써 인간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53:5). 이와 관련하여 그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인간의 죄는 주홍빛과 같으며(1:18) 그 발은 행악(行惡) 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다(59:7). 한편 본서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급도 자주 나온다. 10장에는 앓수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앓수르 역시 통제하신다는 사실도 언급되어 있다(37:29).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이사야이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세계 만민은 저울 위에 놓인 티끌과 같다고 노래할 수 있었다(40:15). 이 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서도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는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뿔으로 하늘의 재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달아보았으며 명칭(皿稱)으로 산들을, 간칭(桿稱)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으랴'(40:12)라고 한 묘사법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깊은 신학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종말관에 대하여선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미래를 독수리 같은 눈으로 내다본 자이다. 그는 당시의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구속자가 시온(Zion)을 위하여 오실 것을 예기하였으며(59:20) 그 때에는 더 이상 해나 달이 필요 없을 것임을 간파하였다(60:19). 그리고 그는 종말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언급함으로써(66:22) 본서를 끝맺고 있다.

#### 2. 신학적 평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사야의 말을 자주 인용하셨다(마13:14, 15; 15:7-9; 눅4:17-20). 세례 요한이나(요1:23) 사도 바울도 역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였다(롬9:27, 29). 이 뿐 아니라 사복음서(마3:3; 8:17; 막1:2; 눅3:4; 요12:38-41) 및 행28:25-28; 계21:23 등에도 이사야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와서 이사야와 그의 예언 그리고 그의 말이 얼마나 높이 평가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한마디로 평해서 이사야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 그의 진면목이 드러난 위대한 예언자였다고 하겠다.

# 제 51 장 여호와께서 의로운 자들을 격려하시다

단락구분 1-3 시온에 대한 위로의 말씀 / 4-6 임박한 구원의 날 / 7-11 의로운 자들에게 내림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 12-16 이스라엘의 위로자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 17-23 악인들에게 임할 분노의 잔

1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2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3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평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와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위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4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할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5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6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지 아니하리라

7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이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꾀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8 그들은 옷같이 쭈매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9 여호와와 같이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배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같이 하소서 라함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10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11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12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여늘 나여늘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13 하늘을 피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14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썩절하지도 아니하리라

15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흥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16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17 여호와와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썰지어다 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음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18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19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라

20 네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였도다

21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22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네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23 그 잔을 너를 끈고케 하던 자들의 손에 두  
리라 그들은 일찌기 네게 이르기를 앞드리라 우  
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

는 그들의 앞에 네가 네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이사야는 본장을 통해 소망을 잃은 성도들이 (50:10, 11) 지금은 비록 흑암 중에 거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였다.
- (2) 그런데 이러한 위로의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인해 절망감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소망'을 안겨 주었듯이 오늘날 삶의 희망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구원의 소망을 제시해 준다.
- (3) 이러한 사실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들은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준행(遵行)함으로써 (레 26:3; 신 4:1; 33:9; 대상 28:7; 렘 11:6)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59:17; 엠 6:17; 살전 5:8).

### 2. ㉠ 이사야는 어떤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1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본절에서 '의를 좇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 (2) 즉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히 의로운 삶을 살려고 힘쓰는 신실한 자들로서 7절에 언급된 '의를 아는 자들'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간직하고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의로운 자들에게만 위로의 말씀을 한정하고 있는 것은 완악한 자들이(48:4) 구원의 약속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의로운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심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3:10; 시 34:15; 37:25; 92:12; 마 5:6, 10; 13:43).

### 3. ㉠ 이사야는 의를 좇는 자들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라고 했는가? (1, 2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뜻하며 '너희를 떠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사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암시하는 말이다.
- (3) 또한 이사야는 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 (4) 즉 이 말은 너무 노쇠하여 생식 능력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가를 기억해 보라는 말이다(참조, 창 17:17-19; 18:10-14).
- (5) 결론적으로 이사야는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이 혈혈 단신으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복을 주시고 창성케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고 당부했다(참조, 창 17:15; 24:1, 35; 젤 33:24).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서 오직 의인(義人)에게만 베푸시는 기적적인 은혜임을 알 수 있다.

### 4. ㉠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곳은 어디인가? (3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셨다'고 밝히고 있다(참조, 40:1; 49:3; 51:12; 52:9).

- (2) 여기서 '황폐한 곳'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35:1;44:26;49:8, 19;52:9;58:12;61:4;겔 36:10).
- (3)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느부갓네살은 쓸모있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 갔을 뿐 아니라 성전의 기물(器物) 등 각종 재물을 전리품으로 탈취해 갔다(왕하 24:13;대하 36:6, 10, 18;스 1:7;단 1:1,2;5:2).
- (4) 그 결과 이스라엘에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국민'들만 남아 바벨론을 위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로 종사하게 되었다(왕하 25:12;렘 52:16).
- (5)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침공으로 인해 천국도가 폐허로 변했을 뿐 아니라(왕하 25:8-10) 느부갓네살의 인구 분산 정책으로 더욱 황폐하게 되었다(겔 36:34).

5. **㉠**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3절)

- ㉠** (1)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황폐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음으로써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 (2)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에스겔서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덴 동산'과 같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겔 36:35).
- (3) 한편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의 모습을 '에덴 동산'에 비유하기도 했다(욘 2:3).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이전보다 더욱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셨다(참조, 1:26;11:12;27:13;33:20;40:2;49:22;60:10;겔 20:40;36:8;슌 1:17;10:6;14:11;말 3:4).
- (5) 한편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황폐했던 모습은 오늘날 죄로 인해 영혼이 병들고 심령이 메마르게 된 현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기도 하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죄로 인해 병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한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44:22;57:18;시 23:3;51:12;렘 3:22;30:17;호 14:4;미 7:19).

6. **㉠**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발(發)할 것임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셨다.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하심으로써 다시 성도들을 다스릴 것이며 또한 그들에게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게 하실 것이란 의미이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사용하실 수단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통치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하다.
- (4)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분이시다(참조, 33:22;히 11:3;벧후 3:5).

7. **㉠**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심으로써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전파한 말씀을 통해 세계 만민에게 소망을 주는 구원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임박하여 당신의 팔이 만민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 알리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게 하셨다(5절).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율법 곧 말씀을 통해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행 13:26;15:7;엡 1:13;골 1:5).

8. **㉠**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변성(可變性)과 구원의 불변성을 어떻게 비교했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먼저 세상의 가변성에 대해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해 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참조, 시 102:26; 마 26:35; 히 1:11; 벧후 3:10).
- (2) 이 말은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심판 날에 이르면 마치 물거품과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반면 이러한 세상 것과 달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당신의 의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참조, 45:17; 마 24:35; 딤후 2:10; 벧후 3:13).
- (3) 이러한 증거로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 날에 사라져 버릴 하늘과 땅 대신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65:17; 66:22; 계 21:1).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깨달아 이를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소망으로 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39:7; 146:5; 행 24:15; 롬 8:24; 살전 5:8; 벧전 1:21; 요일 3:3).

9. ㉠ ‘의를 아는 자들’은 왜 사람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7, 8절)

- Ⓐ (1) 하나님의 ‘의를 아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비방(誹謗)이나 훼방(譏謗)에도 전혀 개의할 필요가 없다(7절).
- (2) 왜냐하면 의로운 자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결국 ‘옷같이 썩어 버릴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하나님의 의와 구원은 세세토록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50:9; 시 39:11).
- (3) 여기에서 이러한 말씀을 가장 잘 실천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를 들 수 있는데 그는 인간들의 어떠한 비난과 조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참조, 마 9:24; 27:29, 39, 41; 막 9:12; 15:32; 눅 16:14; 22:63; 23:11, 35, 39; 요 7:20; 10:20; 18:30, 31) 자신의 사역을 끝까지 담당하셨다.
- (4) 한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된다(고전 4:13).
- (5)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사람들의 방해에 좌절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영원한 구원만을 사모함으로써 성도의 본분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70:4; 전 12:13; 살전 1:6; 벧전 2:21).

10. ㉠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했는가? (9-11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 달라고 간절한 어조로 간구하였다.
- (2) 먼저 그는 ‘여호와와 더불어 개소서 개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개신 것같이 하소서’ (9절)라고 기도했다.
- (3) 여기에서 ‘개소서 개소서’라는 귀절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잠을 주무시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게을리했을 때 그들로부터 멀어져 계심을 가리키기 위한 표현이다(참조, 왕상 18:27; 시 7:6; 35:23; 44:23; 78:65).
- (4) 그리고 이사야는 ‘라함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이까’라고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대해 절실히 간구하였다.
- (5) 이 귀절은 출애굽의 역사(役事)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갈라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 주셨던 놀라운 구원 능력에 대한 언급이다(출 14:21-29).
- (6) 그런데 여기에서 ‘라함’은 문자적으로 ‘교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애굽에 대한 상징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며(시 87:4; 89:10), ‘용’ 역시 애굽 세력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참조, 켈 29:3).

- (7) 한편 '용'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로서 원래는 하나님의 큰적인 사단을 나타내는 말이다(창 3:14; 계 12:7-9; 20:2).
- (8)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여호와께 구속(救贖)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는 찬양의 노래로 기도를 끝내고 있다(11절). 여기에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란 귀절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귀환하는 유대인들 사이에 기쁨이 충만하였다는 의미이다.
- (9) 이러한 이사야의 기도를 본받아 우리들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단지 소원하는 일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함께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

11. ㉠ 위로자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반문하셨는가? (12, 13절)

- ㉠ (1)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고 반문하셨다.
- (2) 여기에서 '죽을 사람'은 마치 '풀'처럼 시들어 버리는 인간의 생명을 가리키고 '풀같이 될 인자'는 일시적으로는 득세(得勢)하나 결국은 '풀의 꽃'처럼 사라지고마는 인간의 권세를 의미한다(40:6-8; 벰전 1:24).
- (3) 둘째,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고 반문하셨다(40:22; 42:5; 44:24; 45:12; 48:13; 시 102:25; 히 1:10).
- (4)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 주시는데 왜 두려워하느냐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5) 세째,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고 반문하셨다. 즉 이 말은 성도들이 아무리 잔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압박을 받을지라도 결코 그들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의미이다.
- (6) 네째, 하나님께서는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셨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멸망시킴으로써 그들을 찾아 볼 수가 없을 것이란 의미이다(참조, 40:17; 41:12; 시 37:10).
- (7) 한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위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세력이 위협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대상 22:13; 대하 32:7; 엡 3:12; 빌 1:20; 히 10:35; 요일 2:28; 3:21).

12.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해 주실 것인가? (14절)

- ㉠ (1)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꺾절(乏絶)하지도 아니하리라'고 예언했다.
- (2) 먼저 여기에서 '결박된 포로'란 소극적 의미에서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 투옥된 자들을 가리키며(42:7, 32)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모두를 가리킨다.
- (3) 그리고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귀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란 의미이다(시 23:4).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日用)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므로써 결코 양식이 떨어져 배고픈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이다(참조, 마 6:10).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베푸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참조, 42:5; 행 17:25).

13. ㉠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밝히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홍용(洶湧)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자신을 밝히셨다.
- (2) 그런데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홍용케 하는 자’란 10절에 언급된 내용과 같이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신 하나님을 가리킨다(출 14:17;15:10).
- (3)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한 후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다 물결로써 멸망시켰으므로 ‘만군(萬軍)의 여호와’라 불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참조, 출 14:27-29).
- (4)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인 ‘만군의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예호와 세바오트>로서 이는 초대 히브리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삼상 17:45).
- (5) 그 후 이 말은 천군(天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리키게 되었고(왕상 22:19;눅 2:13;계 19:14) 나아가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곧 ‘천지의 주재(主宰)’를 의미하게 되었다(창 14:19;마 11:25;행 17:24).
- (6)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 아주 다양하게 불리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이름	뜻	참조 구절	
일차적인 이름	여호와 엘로힘 아도나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 강한 자 주(主)	출 3:14	
	복합적인 이름	엘 엘은	지극히 높은 자	14:13, 14
		엘 로이	감찰하시는 강한 자	창 16:13
엘 사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 17:1-20	
엘 올람		영원한 하나님	40:28	
이름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심	창 22:13, 14	
	여호와 닛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출 17:15	
	여호와 샴름	여호와는 평강	삿 6:24	
	여호와 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삼상 1:3	
	여호와 메카디쉬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출 31:13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시 23:1	
	여호와 씨드케누	여호와 우리의 의	렘 23:6	
	여호와 엘 게물로트	보복의 하나님	렘 51:56	
	여호와 나케	멸망시키는 여호와	렘 7:9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렘 48:35		

14.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맡기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16점)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네 입’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 (3) 먼저 앞에서 이어지는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 (4) 한편 본서의 예언이 이사야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내 말을 네 입에 두고’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모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다(참조, 48장 ④ 15).

- (5)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종은 어느 한 사람에게 국한 되어서는 안 되며 이사야를 비롯 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사명을 가진 모든 선지자들과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 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참조, 49장 ④ 4).
- (6)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전해 주 실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참조, 창 28: 15; 신 32:10; 딤후 1:12; 벰전 1:5; 유 1:24).
- (7)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도와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 기고 오직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37:5; 55:22; 잠 16:3; 고전 4:2; 딤후 3:11; 히 2:17; 벰전 5:7; 계 2:10).

15. ㉠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7, 18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진노의 잔에 취한 그들에게 '꺾지어다 꺾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걸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다'고 말했다(17절).
- (2)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 렘 전지역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
- (3) 이 결과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 및 귀인(貴人)들의 집까지 불타 버렸고 그 성에 살고 있 던 백성들 중 건장한 사람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다(왕하 25:9-11; 대하 34:25; 렘 42:18; 44:6; 젤 22:31).
- (4) 또한 술취한 사람이 자신의 동료들 인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들 가운데 백성들을 인도하고 이끌 자가 없 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참조, 18절).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단지 육체를 취하게 하는 술과 달 라서 인간의 영혼을 마비시키며 나아가서는 완전한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렘 25:15-29).

16. ㉠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두 가지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가리키는가? (19절)

- ㉠ (1) 이사야는 본절을 통해 두 가지 일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饑饉)과 칼'을 가리키 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가 언급한 일은 두 가지가 아니라 분명히 네 가지 사건(황폐, 멸 망, 기근, 칼)이므로 그중 어느 것이 두 가지에 속하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다.
- (3)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 주석가인 김치(Kimchi)와 아벤 에즈라(Aben Ezra)는 네 개의 항목을 내적 사건과 외적 사건 두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논란을 해결했다.
- (4) 즉 이 두 가지 일이란 내적으로는 기근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황폐'를 의미하고 외적 으로는 칼로 말미암아 생긴 '멸망'을 가리킨다.
- (5) 한편 이스라엘의 황폐한 모습에 대해서는 본서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으며(35:1; 41: 19; 44:26; 49:19; 51:3; 52:9; 58:12; 61:4) 칼과 기근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멸망당하 게 된다는 것은 예레미야에 의해 예언된 내용이다(렘 14:12; 15:2; 16:4).

17. ㉠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20절)

- ㉠ (1)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네 아들들이 곤비(困憊)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羴羊)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여기에서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라는 표현은 사슴이 그물에 걸려 꼼짝 못 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예루살렘 전역에 퍼진 기근으로 인해 그 백성들이 굶주려 길거리에서 누 워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그들에게 여호와와 분노와 네 하나님 의 견책이 가득하였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가득 찼다는 뜻이다.
- (4) 한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죄 의 울무에 사로잡히는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참조, 삼하 22:6; 시 18:5; 106:36; 141:9; 잠 22:5; 렘 48:43; 딤펢전 3:7).

18. **㉠** 하나님께서는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 들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21-2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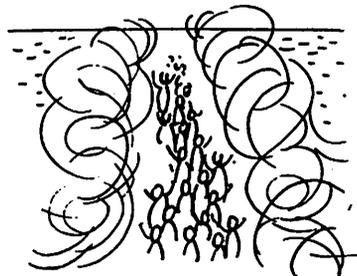
- ㉠** (1) 먼저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는 영적으로 마취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로서 그들이 술로 인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 (2)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비틀거리게 한 ‘분노의 큰 잔’을 거두어 주시며 다시는 그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셨다(22절).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곧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에게 당신의 분노의 잔을 옮겨 그것을 마시게 하실 것이다(23절).
- (4) 그런데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는 귀절로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근동 지방에는 정복자들이 피정복 국가의 왕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발로 짓밟아 굴종케 하는 관습이 있었다(참조, 수 10:24).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심판 날에 이르면 사단으로부터 고난을 받아왔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반면 이때까지 성도들을 괴롭혔던 원수들은 비참하게 멸망당한다는 교훈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마 5:4; 고후 1:14; 엡 6:22; 살후 2:17; 12:3; 19:19-21; 20:3).

19. **㉠**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했는가? (22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네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伸冤)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밝혔다.
- (2) 여기에서 ‘신원’이라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 버린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塗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43:25; 44:22) 그들을 위로하시고 변호해 주심을 나타내는 말이다.
-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용서하실 때 결코 과거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죄로 인해 상한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43:25; 렘 31:34; 히 10:17).

**본장의 요절**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10절)



# 제 52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다

단락구분 1-2 예루살렘에게 영광을 준비하도록 당부하다 / 3-6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굳은 뜻 / 7-12 구원의 복된 소식 / 13-15 하나님의 종은 타락하시다

1 시온이여 쟁지이다 쟁지이다 네 힘을 입을 지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음이 없을 것임 이니라

2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이다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되리라

4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였었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6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줄 알리라 곧 내니라

7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8 들을지이다 너의 파숫군들의 소리로다 그들

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

9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이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할지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11 너희는 떠날지이다 떠날지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이다 여호와와 기구를 폐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이다

12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이사야 선지자는 본장에서 후반 일부 (13-15절)를 제외하고 대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사건을 주제로 하여 예언을 진행하고 있다.
- (2) 먼저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게 되면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셨다 (1-6절).
- (3) 여기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된 구원의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7-10절) 한편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아무런 미련을 두지 말고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기를 당부하였다 (11, 12절).
- (4) 한편 본장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종이 앞으로 받게 될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13-15절) 이는 다음 장의 마지막 부분 (53:1-12) 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서두라 할 수 있다.

2. **㉠**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권면했는가? (1, 2절)

- ㉠** (1)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온이여 꺾지어다 꺾지어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권면하였다 (참조, 51:9).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진노의 잔을 거두어 원수들에게로 옮겼으므로 (51:22, 23; 렘25:15) 이제는 영적인 마취 상태에서 깨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으라는 의미이다 (40:31).
- (3) 두번째로 이사야는 그들에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했다. 이 귀절은 이스라엘이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남으로써 이제는 구원 받은 자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 (참조, 51:11)
- (4) 세번째로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마치 티끌과 같이 비천했던 (참조, 47장 **㉠** 3)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존귀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란 의미이다.
- (5) 한편 이사야는 앞에서 ‘쳐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고 말했는데 (47:1) 이처럼 이스라엘과 바벨론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 (反轉) 되어질 것이다.
- (6) 네번째로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고 권면하였다.
- (7) 여기에서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라는 귀절은 히브리 성경에 ‘네 목의 줄들을 풀어 놓고’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했던 사슬을 풀어 주시므로 이스라엘은 자진해서 귀환할 수 있을 것임을 나타낸다.
- (8)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권면의 말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굴종의 속박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자유와 존귀를 갖도록 위로하였다.

3. **㉠** 이사야는 앞으로 어떤 자들이 이스라엘에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했는가? (1절)

- ㉠** (1) 이에 대해서 그는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니라’ 고 예언했다 (참조, 욕3:17).
- (2) 이 말은 앞으로 어떠한 외부 세력도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며 이때까지 그들을 조롱해왔던 이방인들도 (43:28; 렘24:9; 29:22; 애 2:2) 이제는 결코 이스라엘을 비방하지 못할 것이란 의미이다 (참조, 51:7,8).
- (3) 그런데 여기에서 ‘할례받지 않은 자’ 와 ‘부정한 자’ 는 이방인을 뜻하는데 특히 ‘할례받지 않은 자’ 는 이방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 (4) 왜냐하면 ‘할례’ 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식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여졌던 전통적 규례이기 때문이다 (참조, 창17:10-14).
- (5) 한편 할례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의 미	참 조 귀 절
육체적 할례의 적용	할례의 의의	언약의 표징	창 17:11
		믿음의 표	딤후 4:11
	실시 방법	남자 성기의 양피(陽皮)를 베어 냄	창 17:11
	실시하는 시기	출생 후 팔일째	창 17:11; 눅 1:59
	이방인의 할례	유월절을 지킬 자격이 부여됨	출 12:48
디모테의 할례	사도 바울이 디모테에게 할례를 베푼 것은 유대인들과의 충돌을 피해 복음 사역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행 16:3	

	디도의 할례	그러나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갈라디아 신자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제재하기 위해서다	갈2:3,4
기타의 할례	영적 할례	갱생(更生)	신 10:16; 30:6; 롬 4:4
		참 이스라엘 백성(참 그리스도인)	롬 2:29
		그리스도인	빌 3:3; 골 4:11
	진정한 의미에서의 할례	진정한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만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롬 2:25-29
	할례자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	행 10:45; 11:2; 롬 3:30; 4:9; 갈 2:9; 골 4:11
	무 할례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사람	렘 6:10; 9:25
	마음의 할례	영적 각성	신 10:16; 30:6; 행 7:51
귀의 할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교훈으로 듣게 됨	렘 6:10; 행 7:51	

4.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3-5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없이 속량(贖良) 되리라' 고 말씀하셨다 (3절).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겨 주실 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을 되들려 받을 때도 역시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45:13; 50:1).
- (3) 두번째로는 '내 백성이 이왕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寓居) 하였었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壓迫)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4절).
- (4) 이것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세 번의 포로 생활 중 첫번째와 두번째 것을 가리킨다.
- ① 첫번째 포로 생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갔던 야곱 일가는 초창기에는 상당히 번성했으나(출 1:7) '그 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함으로써 야곱의 후예들은 포로나 노예와 같이 비천한 생활을 하였다(출 1:13, 14).
- ② 두번째 포로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상당수가 앗수르 왕들, 즉 디글랏 빌레셀(왕하 15:29), 사르곤(왕하 17:6), 산헤립(왕하 18:13) 왕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
- ③ 세번째 포로 생활: 본서에 언급된 바벨론의 포로 생활.
- (5) 세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라고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셨다 (5절).
- (6)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로 '구원의 선포'로서 이는 본서 후반부(40-66장)의 주제이며 이사야 예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바벨론 사람들은 값없이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잔혹하게 다루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했으므로 당신으로부터 오는 진노의 잔을 받아 멸망케 되었다(참조, 49:26; 51:23).
- (7) 네번째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라고 말씀하셨다 (5절).
- (8) 여기에서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의 관리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은 전쟁의 승리자였으므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굴종하도록 큰 소리로 명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매도함으로써 그들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참조, 출 20:7).

- (9)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참람한 죄악상(罪惡上)을 지적하시면서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멸망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 (10)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조, 시 23:3; 31:3; 79:9; 106:8; 겔 20:9).

5.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고 명령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접속사 '그러므로'는 앞절에 언급된 내용, 즉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므로'라는 (참조, 5절)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참된 이름을 바벨론을 비롯해 이방 민족들 앞에 옹계 규명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 (4)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이름 (참조, 51장 **㉠** 13)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6. **㉠** 이사야는 어떠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는가? (7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公布)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답다고 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이사야는 구원의 소식을 '좋은 소식', '평화', '복된 좋은 소식', '구원' 등으로 달리 표현하여 반복함으로써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 (3) 결국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구원의 소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은 그를 통해 성취될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다.
- (4) 한편 나훔 선지자도 '불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報)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다'라는 말로써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였다(나1:15).
- (5)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참조, 롬10:15).

7. **㉠** '파수군'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한 이유는 무엇인가? (8절)

- ㉠** (1)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 (2) 먼저 '파수군'이란 원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 망대 위에 올라가 적의 침략을 감시하는 자로서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 선포의 사명을 가진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라는 뜻이며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로다'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목격할 것이란 의미이다.
- (4) 이러한 선지자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감사한 마음으로 소리 높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참조, 대하5:13; 렘30:19).

8. **㉠** 이사야는 왜 예루살렘에게 기쁜 소리를 발하여 함께 노래하라고 했는가? (9, 10절)

- ㉠** (1)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먼저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9절).
- (2) 두번째로 그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했다(10절).

- (3)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스라엘에게만 알려진 은밀한 일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지켜 보는 가운데 이루어진 공개적인 사건임을 나타내 준다(참조, 45:19).
- (4)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장차 신약 시대에는 성도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선포되어질 놀라운 일임을 알 수 있다(참조, 행1:8).

9. ㉠ 이사야는 포로들의 귀환에 대해 어떻게 권면했는가? (11, 12절)

- ㉠ (1) 첫째,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라고 권면했는데 이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들이 귀환할 때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떠날 것을 촉구하는 말이다.
- (2) 둘째,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라고 당부했다. 이 말은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섬겼던 부정한 우상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의미이다.
- (3) 셋째,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라고 권고했는데 이것은 범죄와 우상이 범람해 있는 바벨론에 남아 있지 말라는 말이다.
- (4) 넷째, '여호와와 의 기구(器具)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했다. 여기에서 '여호와와 의 기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갔던 성구(聖具)로서(왕하25:14-17; 단1:2) 포로 귀환시 고레스(스 1:7-11)와 아닥사스다(스8:25)에 의해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반납되었다.
- (5)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할 때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할' 것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 뒤에 호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40장 ㉠6).

10. ㉠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 어떻게 예언했는가? (13-15절)

- ㉠ (1) 먼저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다(13절).
-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롭게 하셔서(골2:3) 장차 그가 행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실 것이란 의미이다(53:10-12; 빌2:6, 9).
- (3) 그런데 이와 같이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傷)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랄' 것이라 하셨다.
- (4)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딤후6:15)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가시관을 쓰시고(마27:35; 막15:24; 눅23:34; 요19:23) 채찍질을 당하며(마20:19; 27:26) 심지어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며(요19:34, 37) 십자가에 못박히는(마27:35; 막15:24; 눅23:33; 요19:17) 등 숭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50장 ㉠7).
- (5) 그러나 결국에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랄 것이며 그의 신기한 능력을 보고 감탄하여 입을 닫게 될 것이다(참조, 미7:16).
- (6)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15절).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가장 비천한 자의 삶을 살았음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마20:28; 막10:45; 눅1:32; 행16:17; 고후8:9; 빌2:7).

## 제 53 장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종이 멸시를 당하다 / 4-6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 고난받는 종 / 7-9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내하며 순종하는 종 / 10-12 하나님의 뜻과 종의 운명

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노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노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

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10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취하리라고

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외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 이렇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신학적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은 흔히 신학자들에 의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그중에서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Polycarp)은 본장을 '구약 성경 전도자의 황금의 대수난'이라고 불렀다.
- (2) 또한 독일의 유명한 구약 주석가인 델리취(Delitzsch, Franz Julius, 1813-1890)는 '이미 성취된 구약 성경의 예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심오하며 고상한 내용'이라고 격찬했다.
- (3) 한편 본장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었다.
- (4) 먼저 이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종이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입장에서 12세기경까지 유대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인정되었고 기독교 교부들에 의해서도 아무런 논쟁없이 고수되었으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 주석 학자들도 이 해석을 지지하였다.

- (5) 그런데 12세기 이후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입장에서 떠나 하나님의 종이 예레미야 선지자, 요시아 왕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킨다고 반론함으로써 신학적 논란을 야기시키게 되었다.
- (6) 그러나 본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종은 이미 42장에 언급된 메시아 예언(42:1-4)에서 알 수 있듯이 예언의 내용이 어느 한 개인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보아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다는 입장은 불합리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 (7) 뿐만 아니라 본장에 언급된 내용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아 요시아 왕을 가리킨다는 입장도 타당치 못하므로 하나님의 종은 유일한 초월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 (8) 더우기 본장의 예언이 복음서와(마 8:17; 막 15:28; 눅 22:37; 요 12:37, 38) 서신의 일부(행 8:32, 33; 롬 10:16; 벧전 2:24, 25)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인용되어진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점을 더욱 명백히 증명해 준다.
- (9) 특히 그중에서도 벧전 2장의 내용은 본장과 비슷한 귀절이 몇 차례씩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장	베드로전서	비교(중심 내용)
4 절	2:21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심
5 절	2:24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6 절	2:25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심
7 절	2:23	그리스도의 순종하는 인내심
9 절	2:22	케사(詭詐)가 없는 의인의 입
12절	2:24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

2. **㉠** 이사야는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어떻게 반문했는가?(1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중 첫번째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라고 반문했다.
- (2) 여기에서 '우리의 전한 것'은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의해 들은 것이란 의미로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예언의 말씀을 가리킨다. 한편 이러한 질문은 예언의 말씀을 불신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참조, 28:9, 15; 29:10-15; 30:9-11; 42:23).
- (3) 두번째로 이사야는 '여호와와 그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라고 반문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전장(前章)의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라는 귀절에서 찾아 볼 수 있다(52:10).

3. **㉠**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의 외모는 어떠한가?(2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에 대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고 예언했다.
- (2) 여기에서 '주 앞에서'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아(참조, 눅 2:40) 성장했음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연한 순 같고'는 '어린 나무 같고'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진 말로서(참조, 욥 8:16; 시 80:12; 겔 17:22; 호 14:6) 이미 멸망된 다윗의 족보에서 마치 새싹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임을 나타낸다.
- (4) 또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성장할 것이라 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패한 시대와 완악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교회 성장의 근간(根幹)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요 15:1-6).
- (5) 한편 그의 외모에 대해서는 '모양도 없고 풍채(風彩)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歎)

慕)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했다.

- (6)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모양이 불품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모습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큼 특별하게 생기지 않았으므로 평범하게 보인다는 뜻이다.
- (7)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기 때문에 그 모습이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비천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참조, 마 20:28; 막 10:45).
- (8) 참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외모에 대해서는 다음의 귀절들을 찾아 보라(52:14; 시 45:2; 아 5:16; 단 7:9; 마 17:2; 계 1:14; 4:3).

#### 4. C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3절)

- A (1) 첫째,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가 되었다(49:7; 시 22:6).
- (2) 그런데 사람들의 이러한 멸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날 밤에 최절정에 이르게 되었으며(마 25:65-68; 27:27-31; 막 15:18-20) 그는 심지어 제자들에 의해서도 외면당할 만큼 철저히 버림 받았다(마 26:56, 72-75).
- (3) 둘째, 그는 '간고(艱苦)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사람들에게 의해 멸시당하고 버림 받음으로써 슬픔과 고통을 느낄 것이라는 의미이다.
- (4) 셋째, 그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예언되어 있다.
- (5)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라는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는데 이것은 오직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갈 1:4; 엡 5:2; 히 9:12; 요일 3:16; 계 1:5).

#### 5. C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오인했는가? (4절)

- A (1)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오인했음을 밝히고 있다.
- (2)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잘못 인식한 것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참된 의미 곧 자기 희생적 고난을 깨닫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 (3)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일말의 동정심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하는 죄를 초래했다(마 27:39-44).
-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형벌이 아님은 이방인 총독 빌라도의 판결을 통해서도 밝혀진 분명한 진리이다(마 27:24; 눅 23:4, 14, 22; 요 18:38).

#### 6. C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고난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5절)

- A (1) 이에 대해 이사야는 '그의 찢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를 밝히고 있다.
- (2) 이 귀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가장 명백하게 밝혀 주는 것으로서 그분의 모든 고난이 오직 우리를 위해서 되어졌다는 위대한 진리를 제시해 준다.
- (3) 사실 그는 가시관(마 27:29; 막 15:17; 요 19:2)과 못(마 27:35; 막 15:24; 눅 23:33; 요 19:17; 행 2:36)과 로마 병정들의 창(요 19:34, 37)에 찢려 상함을 받았다.
- (4) 한편 이사야는 고난의 결과에 대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 (5) 이 귀절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가 자신의 서신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

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벧전 2:24)라고 그 의미를 잘 밝혀 주고 있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참된 의미를 깨달아 그 고난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서는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후 1:7; 벧전 4:13).

7. **㉠** 이사야는 인간의 범죄적 본성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어떻게 연관시켰는가? (6절)

- ㉠** (1) 먼저 인간의 범죄적 본성에 대해 그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표현하였다.
- (2) 이것은 마치 길을 잃어버린 양이 목동과 다른 양 떼를 찾지 못해 숲속을 방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살 때 (참조, 66:3) 범죄의 늪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함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눅 15:4)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신' 것이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속죄와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는 '잃은 양의 비유' (마 18:12-14; 눅 15:1-7),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눅 15:8-10),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눅 15:11-32) 등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 (5) 한편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사는 죄인들이 잃어버린 양으로(렘 50:6, 17; 겔 34:6; 마 9:36; 10:6; 15:24; 18:12; 벧전 2:25),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로(요 10:11; 40:11; 히 13:20; 벧전 2:25; 5:4; 계 7:17)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심에 대해 어떻게 묘사했는가? (7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屠獸場)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표현했다.
- (2)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셨을 때도 결코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고 참기 어려운 고통과 비난을 받았을 때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마 26:23; 27:14).
- (3) 한편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때 고난과 직면하게 된다.
- (4)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이러한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 1:29)을 기억하여 모든 어려움을 참고 극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행 14:22; 벧전 2:19-21; 3:14, 17, 18; 4:13, 16).

9. **㉠**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어떻게 밝혔는가? (8, 9절)

- ㉠** (1) 먼저 이사야는 그분의 고난에 대해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여 끌려갔으니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끌어집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8절)라고 밝혔다.
- (2) 이 말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한 반문(反問)이다. 즉 '그가 체포되어 심문을 당하였으나 그 당시 사람들 중에 그의 고난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한 자가 과연 있었는가?'라는 의미이다.
- (3) 다음으로 이사야는 그분의 죽음에 대해 '그는 강포(強暴)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제사(詭詐)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9절)라고 했다.

- (4) 이 귀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죄를 짓거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처럼 사형을 당하여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는 뜻이다.
- (5) 그런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는 귀절은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었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부자의 묘실'은 예수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죽었을 때 묻히기 위해 준비해 두었던 무덤을 가리킨다(참조, 마 27:57-60).
- (6) 한편 우리들도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4절) 않은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 10. ㉠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10-12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수많은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나아가서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자신과 인간에 대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役事)를 이루셨는데 이를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 첫째, 하나님에 대한 역사 :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죄를 속하는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며 그의 날이 영구할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 했다(10절).
  - (3) 둘째, 자신에 대한 역사 :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이 고통을 당해 얻어진 결과를 보고 스스로 만족해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담당'함으로써 성취감을 느끼실 것이기 때문이다(11절).
  - (4) 셋째, 인간에 대한 역사 :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받았을 뿐 아니라(22:37)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셨다(12절).

#### 11. ㉠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 자기의 영혼을 어떻게 희생하였는가? (10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속건 제물(贖愆祭物)로 드릴 정도로 철저히 희생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속건제' (히, 아삼)는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로(레 5:15; 6:1-17; 14:12; 민 6:12) 그 제물은 오직 흠없는 수양만 허락되었다(민 6:14).
  - (3) 예를 들면 정결케 된 문둥병자나 범죄한 나실인은 속건 제물로 어린 수양 한 마리를 드려야만 했다(레 14:1-32; 민 6:12).
  - (4) 한편 이러한 것을 제물로 드리는 속건제 (히, 아삼)는 원래 갱생의 방편이 아니라 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레 6:1-26; 19:20)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 (5) 이처럼 속건제는 순수한 시민적 제도였으나 후에는 성물(聖物)들에 대한 사기로 인해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레 5:16, 17) 혹은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무자격자의 경우를 비롯해서 예식을 더럽혀 하나님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 (6) 그런데 속건제는 단순한 배상이 아니라 일종의 벌금이므로, 실제 손해량에 벌금으로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도록 규정되었다(레 5:16; 6:5).
  - (7) 그 후 인간의 제도였던 속건제는 하나님께도 적용되어졌는데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께 끼친 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는 행위로서 속건 제물을 드리게 된 것이다.
  - (8)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인간들이 지었던 죄값을 보상하기 위해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바쳐진 것임을 알 수 있다.

#### 12.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게 되었는가? (12절)

- ㉠ (1)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달취한 것을 나누게 하실 것'이라 했다.
- (2) 여기에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와 '강한 자와 함께 달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는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존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법이다.
- (3)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존귀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증언하였다(빌 2:9-11).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끝까지 고난을 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8:17, 18; 빌 3:10, 11; 벧전 1:5-7; 4:13).

## 연구자료

### 여호와와의 종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와의 종'이란 용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종종 사용되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 성취하는 경우에 그 백성에게도 이 용어는 동일하게 적용되었다(참조, 창 26:24; 출 14:31; 신 34:5; 삼하 7:5; 암 3:7).

#### 1. 종의 노래

본장의 1-12절은 42:1-4; 49:1-6; 50:4-9; 52:13-15 등과 함께 흔히 '종의 노래'라는 명칭으로 불리운다. 뿐만 아니라 41:8, 9; 43:10; 44:1, 2, 21; 48:20 등도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종의 노래와 유사한 점이 많다.

#### 2. 그 종은 누구인가?

① 집합적 해석: 그 종은 49:3에서 명백히 이스라엘로 지적되었다. 구속적인 고난을 겪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였다(참조, 42:6; 49:5, 6).

② 개인적 해석: 이는 종의 노래가 한 개인을 염두에 두고 그의 체험과 삶(출생, 복종, 고난, 죽음, 승리)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해석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종이 모세나 스뮬바벨 같은 특정의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 종이 죄가 없으며(8절) 그 활동이 웅대한 점(42:4) 등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이 종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간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겠다(참조, 42:6; 요 12:38, 41; 행 8:32-35).

③ 종합적 해석: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건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개인과 공동체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즉 그들은 개인과 민족을 동일시했으며 이러한 개념은 '공동 인격'

(corporate personality)의 사상을 낳았다. 이러 사상을 근거로 생각한다면 이 종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는 메시아 뿐만 아니라 그 자신 안에 이스라엘을 집약할 수도 있는 것이다. 즉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는 동시에 대표하면서 그 백성을 구속하려고 고난당하고 죽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는 '여호와의 종'이란 메시아적 성격을 가진 이상적 이스라엘을 지칭한다고 본다(참조, 52:13-53:12).

### 3. 종의 성격과 사명

① 성격: 그 종은 여호와의 택하심을 입었고(42:1; 49:1) 여호와께 가르침을 받았으며(50:4)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셨다(49:2, 5). 그는 연약하고 멸시를 받았으나(1-3, 7-9절) 온유했으며(42:2) 친절하였고(42:3) 잠잠하였다(7절; 50:6). 또한 그는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통을 받았으나(3, 8-10절; 50:6)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10절) 복종하였으며(50:4, 5) 그가 승리할 때까지(42:4; 50:8, 9) 길이 참으셨다(50:7).

② 사명: 그는 열방을 향한 빛이었으며 땅 끝까지 구원을 베풀었다(42:1, 3, 4; 49:6). 이 사명은 오직 그의 수난을 통해서만 성취되어야 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택하여 그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감당했으며(4-6, 8절) 그들을 위한 속건 제물이 되어(10절) 중보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 사역은 죽음으로 끝났다(8, 9, 12절). 결국 그의 사명은 성취되었고 그 종은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으며 전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12절; 52:13, 15).

### 4. 그리스도와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은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였다(참조, 막9:12). 또한 막10:45과 14:24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난이 갖는 구속적 목적과 대속적 죽음의 성격이 명백히 제시되어 있다.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도 자신이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하셨는데 그 가운데 몇 귀절은 구약 성경의 기록에 필연성을 두고 있다(마26:54; 막9:12; 14:21, 49; 눅18:31).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 종의 개념이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메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사고(思考)라는 것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은 종의 모습은 결론적으로 '순종, 제물,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물론 그리스도 자신의 교훈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참조, 눅22:37) 이와 같은 종의 요소와 성격을 종합해 볼 때 본서에 나타난 종의 노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종의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를 모델(model)로 제시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모든 평신도와 교역자를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순종과 인내로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된다.

## 제 54 장 회복된 이스라엘의 영광

단락구분 1-3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다 / 4-8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자비를 약속하시다 / 9-10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11-17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광을 베푸시다

1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  
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 내 장막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  
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3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4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  
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5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  
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  
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6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  
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에 아내 되었  
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할같이 하실 것임이  
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7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  
을 것이요

8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  
라 네 구속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9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르다 내가 다시  
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다시는 내가 너를 노하지 아니  
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  
였노니

10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  
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  
는 나의 언약은 너를 옮기지 아니하리라 긍휼  
히 여기는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1 너 끈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들 사  
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12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13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  
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14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  
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  
것도 너를 가까이 못 할 것이라

15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  
하여 패망하리라

16 숲벌을 밟아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  
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  
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17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  
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  
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1. ㉠ 본장은 전장(前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 (1) 이사야 선지자는 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언급한 반면 본장에서  
는 그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어 예루살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
- (2) 이것은 예루살렘 곧 '새 예루살렘'(참조, 히 12:22; 계 3:12; 21:2, 10; 22:19)의 회복과  
영광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일임을 시사해 준다.
- (3) 결국 전장과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에 대한 인과 관계(因果關係)를 나  
타내고 있으므로 각 장을 상호 관련성(相互關聯性)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요  
구되어진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구원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보상된

것으로서(참조, 53장 ㉑12)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아야 한다(참조, 요 3:16;4:10; 롬 5:15;6:23;8:32;엡 2:8).

2. ㉑ 이사야는 구원받기 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1절)

- ㉑ (1)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라고 표현하였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당하여 인구가 줄어들게 된 사실을 가리킨다.
- (3)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구로(劬勞)치 못한 너’ 또는 ‘홀로 된 여인’으로 묘사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로’는 자식을 낳아 기르는 수고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이 마치 홀로 된 여인처럼 외롭게 포로 생활을 하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므로써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 (5)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얻게 된 ‘자식’ 중에서 일부는 예루살렘에서 모여든 백성들이며 다른 나머지는 고레스 칙령(대하 36:22;스 1:1)이 공포된 후에 바벨론 및 인근 지역에서 모여든 백성들을 가리킨다(대상 9:2-34;스 2:1-65;8:1-20;느 7:6-72;11:3-36).
- (6) 한편 성경에서 자손이 많이 번창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의 하나로 간주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인구 분산 및 감소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형벌이라 할 수 있었다(참조, 창 15:5;17:20;22:17;레 26:9;신 7:13;롬 4:18).

3. 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 그들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2, 3절)

- ㉑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장막 터를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揮帳)을 아끼지 말고 널리 퍼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셨다(2절).
- (2) 여기에서 ‘장막’은 고대 근동 지방 유목민들의 일시적인 거주지로서 일종의 천막과 같은 것이며, ‘휘장’은 천막의 내부를 가리는 천 곧 장막용 휘장을 가리킨다(참조, 출 26, 36장).
- (3) 그리고 ‘줄’과 ‘말뚝’은 장막을 고정시키는 데 필요한 밧줄과 그것을 묶는 말뚝을 뜻하는데 장막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길고 튼튼한 밧줄과 크고 단단한 말뚝이 필요한 것이다(참조, 출 35:18;39:40).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장막을 확장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퍼져 나가 번성함에 따라 이전에 거주하던 장막이 협소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3절).
- (5)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장막 확장은 장차 땅 끝까지 선포되어질 복음 사역과 교회 확장을 의미한다(참조, 행 2:47;6:7;9:31).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복음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깨닫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행 1:8)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군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24:14;28:19;막 13:10;16:15;눅 24:27;골 1:23).

4. 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위로하셨는가? (4절)

- ㉑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고 위로하셨다.
- (2) 두번째로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은 같은 의미로서 비참했던 포로 생활을 가리키는데 이처럼 동일 귀절을 반복한 것은 다시는 그러한 치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 (3) 세번째로 '네가 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라고 위로하셨다.
- (4) 여기에서 '과부'는 남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5절) 이스라엘을 떠나신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며, '과부 때의 치욕'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모든 희망을 잃고 실의(失意)에 빠져 있을 때 항상 언약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도록 위로해 주신다(참조, 창 9:15, 16).

5. **㉠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밝히셨는가? (5절)**

- ㉠ (1)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밝혔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표현하는 기법은 성경에서 선지자들에게 의해 자주 사용되는 표현법으로서(아 1:4; 렘 3:14; 31:32; 호 2:19) 이러한 아내의 위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다.
- (3) 그리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고 했다.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는 51장 ㉠13을 참조하라.
- (4) 또한 이사야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분이시라고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밝혔다(참조, 시 24:1; 47:2, 7; 83:18).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으나(출 19:8; 민 9:18; 신 29:12; 사 8:23; 삼상 8:7; 12:12)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中保)를 통해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롬 3:29; 10:12; 15:9).

6.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실 것인가? (6절)**

- ㉠ (1) 이에 대해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少時)에 아내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이라 했다.
- (2) 여기에서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는 범죄로 인해 남편에게 버림을 받아 그 결과 타인들에게 비난과 조소를 당하여 근심에 차 있는 아내를 가리킨다. 그리고 '소시에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라는 말은 남편이 범죄한 아내를 오랫동안 버렸다가 그 죄를 용서하여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 (3)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버린 듯하셨으나(7절) 마치 남편이 아내를 다시 맞아들이는 것같이 그들을 용서하시어 구원받을 백성으로 불러 주신다는 뜻이다.
- (4) 한편 범죄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음탕한 아내를 끝까지 용서해 주었던 호세아 선지자(호 2:14-23)와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눅 15:11-32)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 (5) 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까지 희생시키실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다(참조, 요 3:16).

7. **㉠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矜恤)은 어떠한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7, 8절).
- (2) 여기에서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와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라는 귀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약 70여 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인간에게 있어서 70여 년은 상당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짧은 '잠시' 동안에 지나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영원한 긍휼을 약속하셨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는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寄宿)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 30:5)라고 노래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다.

8.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언약을 확신시키기 위해 어떻게 맹세하셨는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잠시 동안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영원히 진노의 손길을 거두실 것이라는 언약을 맹세하기 위해 노아의 홍수를 실제(實例)로 들으셨다 (9절).
- (2)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貫盈)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5) 세상을 삼켰던 대홍수를 내리셨다 (7:10-24).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수 가운데에도 살려 주셨던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언약의 표시로서 무지개를 보여 주셨다 (창 9:11-17).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을 맹세하시면서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움길지라도 나의 인자(仁慈)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10절)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 (5)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변하거나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 (6) 한편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평화의 약속을 가리킨다 (참조, 민 25:12; 겔 34:25; 37:26; 말 2:5).
- (7)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약속과는 달리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조, 55:3; 창 9:16; 17:13; 레 24:8; 민 18:19; 렘 32:40; 33:20; 겔 16:60; 37:26; 히 13:20).

9. **㉠** 고난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인가? (11-14절)

- ㉠** (1) 먼저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너 끈고하며 광풍(狂風)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흑심한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더 크신 영광을 허락하셨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3)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화려한 청옥으로 그들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홍옥으로 탑을 세우며 성문과 성벽을 빛나는 보석으로 꾸며 주실 것이다 (11, 12절).
- (4) 둘째,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교훈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번영과 평화까지 약속받게 될 것이다 (13절).
- (5)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공의로 굳게 세우시으로써 모든 원수들이 그들로부터 멀리 물러갈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어떤 공포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14절).

10. **㉠**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장식되어질 것인가? (11, 12절)

- ㉠** (1)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둘 사이에 더하실' 것이라 하셨다 (11절). 여기에서 '채색'은 히브리어로 <푸케>인데 눈섭의 희미한 부분을 질게 하는 데에 사용되었던 '안티모니'(Antimony, 금속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광물의 한 종류)의 검은 가루를 말한다.
- (2) 따라서 이 귀절은 마치 여인들이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눈섭을 질게 색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뜻이다 (참조, 왕하 9:30).

- (3) 돌째, 하나님께서는 청옥(靑玉)으로 이스라엘의 기초를 쌓아 주실 것이라 하셨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의 기초를 청옥으로 세우신다는 뜻이다.
- (4) 한편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모두 열 두 가지인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碧玉)이요 둘째는 남보석(藍寶石)이요 세째는 옥수(玉髓)요 네째는 녹보석(綠寶石)이요 다섯째는 홍마노(紅瑪瑙)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淡黃玉)이요 열째는 비취옥(翡翠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紫晶)으로 되어 있다(계 21:19, 20).
- (5) 세째, ‘홍보석으로 네 성첩(城堞)을 지으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성 위에 나지막하게 쌓은 담을 홍옥으로 장식하실 것이란 의미이다.
- (6) 네째,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地境)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라 하셨다(12절). 한편 새 예루살렘의 성문은 모두 진주로 되어 있으며(계 21:21)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계 21:18).

1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어떻게 지켜 주실 것인가? (15-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15절)고 약속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을 선언하셨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제조된 기계’를 날카롭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를 정죄하시겠다고 선포하셨다(17절).
- (3) 여기에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는 바벨론의 군사력을 가리키며 ‘송사하는 혀’는 앗수르의 군대 장관(랍사게)이 이스라엘에 대해 비방하고 희롱했던 말(言)을 의미한다(36:4-20; 37:10-13; 왕하 18:19).
- (4) 한편 이러한 대적들은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온갖 중상 모략과 유혹의 말로써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참조, 마 7:15; 24:11; 행 20:30; 고후 11:13; 뱀후 2:1-3; 요일 2:18).
- (5) 그러나 우리들은 대적들이 어떠한 공격을 해 올지라도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 44:5; 말 4:3; 눅 10:19; 롬 8:37; 고후 2:14; 10:4; 요일 2:14; 5:4).

12.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까지도 창조하셨는가? (16절)

- ㉠ (1)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하고 장인(匠人)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 곧 무기를 만드는 자나 ‘파괴하며 멸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대적의 세력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대적들까지도 창조하셨다는 말은 충분히 그들의 세력도 꺾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4)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대적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떠한 위협이 닥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35:4; 수 1:9).

<p style="text-align: center;"><b>본장의 요점</b></p>	<p>‘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금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p>
--------------------------------------------------	--------------------------------------------------------------------------------------------------

# 제 55장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다

**단락구분 1-3 만민(萬民)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 / 4-5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 / 6-7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 / 8-9 높으신 하나님 / 10-11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 12-13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1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5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

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10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썩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13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질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와의 명제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 1. ㉠ 본장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하나님께서 흑심한 포로 생활로 인해 육체와 영혼이 모두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길로 부르시는 말씀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자들은 단지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와 '돈없는 자' 곧 영혼이 갈급한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고 있다(1절).
- (3) 결국 이사야는 본장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 뿐만 아니라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초청한 것이다.
- (4)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기 전에 갖추어야 할 한 가지 조건으로서 죄에 대한 회개를 제시하고 있다(6,7절).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이사야의 권고에 귀기우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 반드시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렘3:12; 욥2:12; 행2:38; 3:19).

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부르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과 '돈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전자(前者)에게는 '물로 나아오라'고 하였고 후자(後者)에게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다.
- (2) 먼저 여기에서 '목마른 자들'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돈없는 자'는 '심령(心靈)이 가난한 자' (마5:3)라고 볼 수 있다.
- (3) 그리고 '물'과 '포도주와 젖'은 영적인 의미의 양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물'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유법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30:25;32:2;33:21;35:6;41:18;43:19,20).
- (4) 또한 '돈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를 사라'는 귀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나타내는 말이다(참조, 45:13;50:1;52:3;엡2:8;벨전1:18,19).
- (5)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는 산상 수훈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잘 나타나 있다.
- (6) 이를 알아보면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5:3)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5:6)라 했다.

3. **㉠**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동안 불순종했던 자들에게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귀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도들이 받게 되는 영적 축복이 이 세상의 어떠한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임을 말해 주고 있다(참조, 25:6;시36:8;63:5).
- (3) 한편 '청종'이란 말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청종하라'고 강력한 어조로 명령하신 것으로 보아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 (4) 그러나 이러한 교훈을 깨달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듣고 이를 행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요15:11;롬15:29).

4. **㉠** 영혼의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귀절은 영혼의 생명 곧 영원한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는 것임을 잘 나타내 주는 말이다(참조, 마7:24;13:23;눅11:28;요1:4;5:24).
- (3) 그러므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수1:7,8;시1:2;119:15,23,78,97;145:5).

5.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언약을 세울 것이라 하셨는가? (3-5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이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임을 밝히셨다(3절).
- (2) 여기에서 '영원한 언약'은 일명 '새 언약'이라고도 하는데(렘31:31;32:20)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구원의 언약을 의미한다(참조, 42:6;44:8;54:10;56:4,6;59:21;61:8;호2:18-20).
- (3) 그런데 이러한 언약은 완악한 인간들(48:4), 특히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렸다(24:5).
- (4) 한편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서 이 약속 중에는 메시아가 그의 후손 가운데서 탄생하고(참조, 삼하7:12) 그의 보좌에 앉으며 영원한 왕국

을 설립하고(시 89:2-5, 19-37) 그는 죽음과 지옥을 이기며(시 26:9, 10)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행복을 줄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어 있다(시 132:15-18).

- (5)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증거’로 세워졌고(요 3:11)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셨으며(4절) 나아가서는 만민의 구원을 담당하신 구속주가 되셨다(참조, 5절; 눅 2:11; 24:21; 요 4:42; 롬 3:24; 고전 1:30; 엡 1:7; 빌 3:20; 골 1:14; 딤후 1:10; 딤텔 2:14; 히 2:17; 벧후 2:20; 요일 4:14).

6. **㉠** 우리들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하는가? (6절)

- ㉠** (1)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했다.
- (2) 그런데 ‘만날 만한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때라는 의미로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을 가리킨다(49:8).
- (3)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란 말도 ‘만날 만한 때’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구원의 날이 임박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거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빌 4:5) 자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를 뜻한다.
- (4) 한편 이러한 구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열 처녀 비유가(마 25:1-13) 아주 적절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5) 그러므로 심판의 날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항상 그날을 위해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마 9:15; 24:42-51; 막 13:35; 눅 12:35; 요 3:29; 히 10:37; 계 19:7).

7. **㉠** 이사야는 죄인들을 위해 어떠한 권면을 하였는가? (7절)

- ㉠** (1) 이사야 선지자들은 임박한 구원의 날을 선포하면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죄인들에게 권면하였다.
- (2) 이 귀절은 인간이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그것을 뒤우치고 하나님께로 나아올 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 (3) 이와 같이 회개는 과거의 악한 생활과 불의한 생각을 모두 버리고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와 앞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회개를 통해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결과로서 받게 되는 구원의 은혜까지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참조, 대하 7:14; 30:9; 느 1:9; 렘 3:12; 31:9; 겔 18:21; 스 1:3; 행 2:38).

8. **㉠**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인간들과 어떻게 다른가? (8, 9절)

- ㉠** (1) 이에 대해 이사야는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8, 9절) 고 밝히고 있다.
- (2) 이 귀절은 하나님의 본질이 한계성을 지닌 인간과 달리 신비적이며 초월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서 여기서는 특히 앞에 언급한 용서에(7절) 적용되어지고 있다.
- (3)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는 당신의 본질과 같이 완전하고 철저할 뿐만 아니라 의로움과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용서와는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다.
- (4) 반면 인간들은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힘들며 더우기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5)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는 죄인들로부터 그 죄를 멀리 옮기실 뿐 아니라 과거에 지었던 죄를 하나도 기억지 않고 완전히 도말(塗抹)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43:25; 렘 31:34; 히 8:12; 10:17).

9. **㉠**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10, 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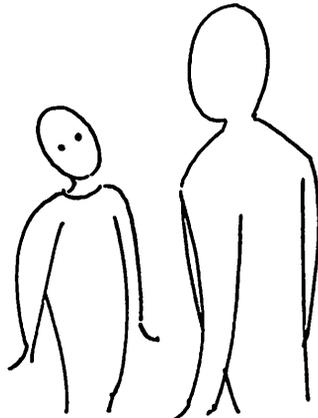
- ㉠ (1)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간 말씀은 마치 비와 눈이 내리면 다시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서 삭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히게 하여 먹을 양식과 파종할 씨앗을 주는 것처럼(10절)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을 이루며 의도한 목적을 성취하게 한다(11절).
- (2) 이 귀절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변하지 않는 진실한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가리킨다(7-9절).
- (3) 한편 하나님의 신성한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자연의 섭리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사도들의 증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인간들에게 전달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의 설교와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진다.
- (4)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으며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영원 불멸의 진리이다(참조, 왕상8:56; 시93:5; 111:7; 켈12:25; 단9:12; 마5:18; 눅21:33; 롬4:16).

10. **㉠**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12, 13절)

- ㉠ (1)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어떠한 자를 막론하고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며 산들과 들의 나무들까지 그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위해 가시나무가 자라던 황폐한 땅에도 잣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짙레나무 대신에 화석류(花石榴)가 자라는(13절) 기름진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참조, 41:19).
- (3) 한편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그 당시 팔레스틴으로 귀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것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영혼의 축복과 함께 초자연적인 놀라운 축복까지 동시에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참조, 30:23; 56:4, 5; 66:10; 신11:4; 시65:9; 81:16; 126:2; 잠28:20; 욕2:26; 마11:28; 요10:28; 약1:17).

본장의 요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6절).



# 제 56 장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단락구분 1:8 이스라엘의 축복에 동참하는 이방인과 고자(歌子) / 9:12 부패한 지도자들의 행실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2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3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4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5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6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9 들의 짐승들이 삼림중의 짐승들이 다 와서 삼키라

10 그 파숫군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11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물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도 모하며

12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 1. 본장의 내용에 대해서 논하라.

- (A) (1) 54-57장에는 53장에 이미 언급된 여호와와의 종을 통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즉 54장이 구원의 약속에 의한 위로를, 55장이 구원여로의 초청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본장은 구원받을 대상을 선포하고 있다.
- (2) 특히 본장은 여호와에게 연합하는 자는 이방인일지라도 구원을 받으나(1-8절) 여호와에게서 돌아선 자들은 파숫군으로 자처하는 지도자들이라 해도 버림을 받는다는 선언(9-12절)을 줄거리로 삼고 있다.
- (3) 한편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본장부터 66장까지를 '제 3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본다.
- (4) 우선 그들은 1-39장의 내용과는 달리 40-66장이 이방 민족의 구원에 관심을 가졌으므로 이사야서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한다.
- (5) 그런데 56-66장에는 40-55장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율법, 안식일, 성전, 제사 의식 등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므로 결국 이사야서는 세 명의 저자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이다.
- (6)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이사야 선지자는 1-39장에서 유다와 이방의 죄를 책망했다. 그리고 40-66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처럼 책망 다음에 위로의 메시지를 기록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내용

전개이다.

- (7) 또 본장 이후에 율법, 안식일, 제사 의식 등 예배 생활의 규범이 나타나는 것은 40-55 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함이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을 함으로써 인간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 이 사실을 피력(披瀝)하기 위해서 이사야는 새로운 표현과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 이후의 내용을 살펴볼 때, 앞서 전개된 내용과 다르다고 하는 이질감(異質感)이 아니라 발전된 주제에 대한 신선감(新鮮感)을 느끼게 된다.

2. **㉠ 본장의 주된 교훈은 무엇인가? (비교, 신 23:1)**

- ㉠** (1) 첫째, 하나님께서 제시한 언약을 지키는 자는 비록 '여호와와 총회'에서 제외되었던 고자(鼓子)일지라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3-5절). 하나님은 불구자를 배척하지 않는 분이다(참조, 눅 14:21).
- (2)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것이다(3, 6-8절).
- (3) 그러나 자기의 탐욕대로 사는 자는 파수군 또는 목자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들이라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9-12절).
- (4) 이것은 구원의 보편성(普遍性)을 보여 주는 내용이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기쁘게 받아 주신다(롬 10:11-13).

3. **㉠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가 할 일은 무엇인가? (1절)**

- ㉠** (1) 첫째는 공평을 지키는 일이다. 이사야는 유다가 심판을 받는 까닭 중 하나로 불공평한 재판의 성행을 지적한다(1:23).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을 바란다면 마땅히 공평한 생활에 힘써야 했다.
- (2) 둘째는 의를 행하는 일이다. '공평' (히, 미쉐파트)이 주로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윤리라면 '의' (히, 체다카)는 주로 하나님께 대한 개인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를 행하는 여부에 따라 사회 속에 좋은 영향과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 (3) 본절에서 우리는 공평과 의를 행치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성경의 교훈을 확인할 수 있다(고전 6:9).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공법(公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고 외친 아모스의 말처럼 의로운 생활을 추구해야 한다(암 5:24).

4. **㉠ 이사야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가? (2절)**

- ㉠** (1) 첫째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이사야 시대에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드물었던 것 같다. 물론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자는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나 성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부분이 가증(可憎)스러웠던 것 같다(1:13).
- (2) 둘째로, 악을 행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말해 선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이다.
- (3) 본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것이 축복받은 성도의 도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며(행 2:46; 히 10:25)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의 헌신을 기뻐하신다(요 4:24; 롬 12:1).
- (4) 또한 선(善)을 행하며(살전 5:15) 악(惡)을 이기는 생활(롬 12:21)이 축복받은 성도의 본분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신다(마 5:16; 벧전 2:12).

5. **㉠ 불구자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는 신 23:1-8의 규례와 모순되는가? (3-8절)**

- Ⓐ (1) 그렇지 않다. 성경의 각 부분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룬다. 성경의 기록들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저자들이 서로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기술(記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장 3-8절과 신 23:1-8 사이에도 모순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 우선 신 23:1-8은 '여호와와의 총회'라고 하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회합에서 공적 직함을 맡지 못하는 자들에 관한 규례를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성적 불구자와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제한을 두신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 (3) 즉 공동체를 관할(管轄)하는 일에는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결함이 있어서 권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이에 대해선 신 23장의 ㉠ 1-5를 참조하라.
- (4) 반면에 본장은 구원의 보편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즉 이사야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받는다(요 2:32)를 강조하기 위해 가장 멸시받는 대상들을 열거했던 것이다.
6. ㉠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고자(鼓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가?(4, 5절)
- Ⓐ (1) 첫째는 명예이다.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은 후세 사람들에게 기억될 명예로운 이름을 뜻한다.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하는 자의 이름은 명예롭게 기억된다(마 26:13).
- (2) 둘째는 영생이다. '영영한 이름'은 영생을 얻는 자의 이름을 가리킨다(참조, 눅 10:20).
- (3) 상기(上記)한 명예와 영생의 복은 고자(鼓子) 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허락된다(2절). 여기서 이사야는 고자일지라도 언약을 지키면 이런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7. ㉠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는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신다고 했는가? (6-8절)
- Ⓐ (1) 첫째, 그들을 하나님의 성산(聖山)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다(7절).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영접해 주신다(롬 10:11, 12).
- (2) 둘째, 그들을 기쁘게 해주신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함으로써 기쁘게 해주신다(61:2, 3).
- (3) 셋째, 그들의 헌신(獻身)을 열납하신다고 했다.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라는 말씀은 본백성(本百姓)인 유다 백성의 예물을 가증히 여겼다는 표현과 대조가 된다(1:11-13).
- (4) 우리는 모두 육신적으로 이방인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속하게 되었다(8절).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親百姓)이 됨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것이다(딤후 2:14).
8. ㉠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은 어디인가? (5, 7절)
- Ⓐ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은혜를 베푸신다.
- (2) 성전 안에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경배했던 고라 자손은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이 은혜의 장소임을 아름답게 노래했다(시 84:4).
- (3) 다윗도 하나님께서 시온,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을 명하셨다고 노래한 바 있다(시 133:3). 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고백하기도 했다(시 23:6).
- (4)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초대 교회 성도들 역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행 2:43-47).
- (5) 그러므로 성전이 필요 없다고 외치는 소위 무교회주의자(無教會主義者)들의 가르침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6) 오히려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 생활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것이다(시 134:1-3).

9. ㉠ 유다의 종교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이었는가? (9절)

- ㉠ (1) 그들의 허물 (10-12절)은 유다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즉 그들은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영적으로 음란해져도 (57:3-5) 이를 방관(傍觀)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했던 것이다(참조, 미 3:11).
- (2)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방 국가를 일으켜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유다는 북이스라엘이 B. C. 722년 앗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132년 만에(B. C. 586)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다.
- (3) 이처럼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죄와 부패는 사회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그 사회의 몰락(沒落)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사역자들과 종교계의 여러 위정자(爲政者)들은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을 느끼며 성실하게 직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성도들은 지도자들의 부패에 동화(同化)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10. ㉠ 부패한 지도자들의 특징을 열거하라 (10-12절).

- ㉠ (1) 첫째, 그들은 영적으로 소경이다 (10절). 죄로 인해 영안이 어두워져 스스로 가야 할 곳을 모르며 (59:10), 피지도자들을 죄악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소경(마 15:14)은 파수군의 자격이 없다.
- (2) 둘째, 그들은 무능하다 (40절). 즉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한 일에 대한 지식이 없다(렘 4:22). 또한 그들은 짐승들처럼 자기 만족을 삼키려고 침략해 오는 이방의 위협을 경고할 줄 모르는 무능한 병어리 개와 같다.
- (3) 셋째, 그들은 게으르다 (10절). 진정한 하나님의 일군이려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사역해야 한다(롬 12:11). 그러나 그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직무 태만자들이었다(참조, 렘 48:10).
- (4) 넷째, 그들은 탐욕이 많다(11절). 백성들의 이익은 안중(眼中)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도모하는 것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대표적 속성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혐오하신다(겔 34:1-6).
- (5) 또한 그들은 방탕(放蕩)한 생활을 즐긴다(12절). 술에 잠기는 생활(잠 23:30), 독주와 포도주에 취하는 생활(사 5:11)은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악하다. 진실한 사역자라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 것이다(엡 5:18).
- (6)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된 지도자들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지도자로 모시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소경된 파수군이 아니라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택한 백성을 지키시는 우리 영혼의 파수군이시다(시 121:3-8). 그 뿐 아니라 몰각(沒覺)한 거짓 지도자들과 달리 택한 백성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써 인도하시는 참목자이시다(시 23:1-6; 겔 34:7-16).

본장의 요점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7절).

# 제 57 장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위로

단락구분 1-2 의인의 축복된 죽음 / 3-13 우상 숭배자들에게 대한 책망 / 14-19 회개하는 자를 위한 약속 / 20-21 악인에게 임하는 불안

1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음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역 전에 취하여 감음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3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4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궤탈의 종류가 아니냐

5 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6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독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7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네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그리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8 내가 또 네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배반하고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올라가며 네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였으며

9 내가 기름을 가지고 물레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욱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원방에 보내고 음부까지 스스로 낮추었으며

10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아니함은 내 힘이 소성되었으므로 쇠약하여 가지 아니함이니라

11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하여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치 아니함은 내가 오래 동안 잠잠함을 인함이 아니냐

12 너의 의를 내가 보이라 너의 소위가 네게 무익하니라

13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 가졌고 기운에 불려 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14 장차 말하기를 들우고 들우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15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16 내가 영원히는 다루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은 내 앞에서 끈비할까 함이니라

17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18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 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19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20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21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 Ⓐ (1) 본장은 내용면에서 전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장의 9-12절과 본장은 모두 유다에 임하는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어 연결하여 읽는 것이 문맥을 이해하기 쉽다.
- (2) 다만 전장의 9-12절은 부패한 지도자들의 허물이 재앙의 원인이라고 고발하고 있으며, 본장은 유다 백성 전체의 죄가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를 뿐이다.
- (3) 본장은 위로의 메시지로 시작된다(1, 2절). 전장과 본장 전체에 흐르는 딱딱한 경고의 내용 사이에 삽입된 이 부분은 의롭게 살다가 해(害)를 당하는 자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진 자들은 선지자의 따가운 비난을 받는다(3-13절). 계속해서 4-19절에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베푸시는 위로가, 20, 21 절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악인에게 임할 불안이 각각 언급된다.
- (4) 한편 본장은 의인에게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살름’(사6:24)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 특색이 있다. 본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신앙의 정로(正路)를 행하는 자에게도 평안을 주시지만(2절) 죄를 통회(痛悔)하는 자들에게도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15, 19절).

2. ㉠ 우리가 의인의 죽음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1, 2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의인’ (히, 하차디크) 이란 복수형으로 ‘의인들’ 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 여기서의 ‘의인들’ 은 므낫세 왕에 의해 무고하게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왕하 21: 16).
- (2) 므낫세 왕처럼 죄악의 어두움에 싸여 있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을 배척하려고 한다. 그것은 의인들이 자기들의 허물을 자주 비난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죄인들은 의인들을 무참히 죽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뿐이다(참조, 눅 11:47-51).
- (3) 즉 하나님께서는 죄없이 죽임을 당한 의인들의 억울함을 갚아 주시며 죄인들을 엄하게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다(제 6:9-11).
- (4)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의인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예비하시고(마 5:11, 12)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신다(참조, 롬 8:31-39).
- (5) 물론 고난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의인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을 귀히 여기시고(시 116:15) 영원한 천국으로 영접하시며 평안을 주신다(2절).
- (6) 한편 의인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의인으로 하여금 ‘화액’, 즉 큰 환난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配慮) 이기도 하다(1절).
- (7) 그러므로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환난을 만나도 세상의 불의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히 11:33-38).

3. ㉠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3, 4절)

- Ⓐ (1) 첫째로, ‘무녀의 자식’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무녀’(히, 오나나) 란 2:6의 ‘술객’ 과 같은 부류를 가리킨다. 이들은 속임수로 백성들을 미혹(迷惑) 하여 생계를 유지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참하나님 여호와를 등지는 생활을 하도록 조장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참된 아버지이신 자신을 떠나 ‘술객’ 과 ‘무녀’의 말을 청종하는 유다 백성을 ‘무녀의 자식’ 이라고 꾸짖으셨다.
- (2) 둘째로, ‘간음자와 음녀의 씨’라고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상을 혼합하여 섬기는 유다 백성의 종교 혼합주의(宗教混合主義) 를 꾸짖는 표현이다.
- (3) 세째로, ‘패역의 자식’이라고 불렀다. ‘패역’(히, 페야) 은 진리를 거스려 거짓된 것을 신봉한다는 뜻이다. 이 역시 유다 백성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헛된 우상을 섬긴 잘못을 책망하는 표현이다.
- (4) 또한 ‘궤푼의 종류’ 라고도 불렀다. ‘궤푼’(히, 야케르) 은 ‘허위’, ‘거짓말’ 을 의미하고 ‘종류’(히, 제라) 는 3절의 ‘씨’ 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궤푼의 종류’ 라는 말도 결국 거짓된 우상 숭배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 (5) 한편 이상의 표현 속에 '자식', '씨' 라는 용어가 부여된 것은 우상 숭배의 죄가 여러 세대(世代)에 걸쳐 유전되어 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 (6) 자녀들은 부모의 죄와 악행을 곧 본받는다(참조, 겔 16:44).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처럼 신앙의 본을 자녀들에게 끼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딤후 1:5).

4. **㉠** 우상 숭배가 야기시킨 윤리적 패습을 지적하라 (5절).

- ㉠** (1) 우상 숭배는 첫째로, 유다 백성의 성 윤리(性倫理)를 문란하게 만들었다. 특히 가나안족의 여신(女神)인 '아세라' (출 34:13)에 대한 예배 의식(禮拜儀式) 때에는 음란 행위가 상수리나무 사이에서 자행되었다고 한다. 즉 그들은 광란적인 성행위가 다산(多産)의 신인 아세라를 기쁘게 한다는 구실로 음란 행위를 정당화시켰다.
- (2) 더우기 우상 숭배는 인간의 존엄성을 여지없이 깎아내렸다. 백성들의 음란함은 자연적으로 인구의 급증을 유발시켰다.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지는 몰라도 '밀곰' (왕상 11:5), '몰렉' (9; 왕상 11:7) 등의 우상에게 어린아이들이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은 1928년 이후에 발굴된 '라스 샴라 서판'(Ras Shamra Tablets)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 (3)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성(性)의 윤리를 파괴했고, 인간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도록 조장하는 등의 악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했던 것이다.

5. **㉠** 우상 숭배자들의 소득은 무엇이었는가? (6절)

- ㉠** (1) 우상 숭배자들은 헛된 우상에게서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골짜기에 흐르는 개울물 때문에 매끄럽게 된 자갈돌에다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으며 경배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우상(고전 8:4)이 그들에게 소득을 줄 리가 없었다.
- (2) 이에 반해 경건한 신앙인들은 하나님만이 소득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득이라고 여겼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시 16:5).

6. **㉠** 우상 숭배의 성격을 규정하는 두드러진 표현을 찾아 보라 (7, 8절).

- ㉠** (1) 7, 8절에 3회나 언급된 '침상'이나 '배반' (8절), '다른 자를 위하여 몸을 드러내고' (8절) 등의 표현은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靈的姦淫)이라는 사실을 보여 준다(3절).
- (2) 한편, 이사와와 같은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일어나 예언 활동을 했는데 두 선지자는 똑같이 자기 민족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영적 간음죄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았다(참조, 호 5:3, 4, 7).
- (3) 간음이란 사람이 자기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으로 관계하는 것을 말한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며 이방 신도 섬기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고 있었다(참조, 왕상 18:21).
- (4)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인 당신을 섬겨야 한다고 요구하셨다(신 6:4, 5). 예수께서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마 6:24).

7. **㉠**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8절)

- ㉠** (1)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율법을 잘 준수할 것을 바라셨다. 그래서 율법을 손목에 매고 미간(眉間)에 붙이며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겨 율법을 항상 따르라는 규례를 주셨던 것이다(신 6:8, 9).
- (2) 그러나 패역한 백성들은 이 규례를 무시하고 매우 가증한 우상을 문과 문설주 뒤에 놓

왔다.

- (3) 여기서 ‘기념표’ (히, 제케르)란 아마도 남성 (히, 자카르)의 성기(性器)를 본 딴 우상인 것 같다. 그렇다면 본절은 우상 숭배의 음란함에 현저하게 몰든 유다 백성의 가정 생활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4) 성경은 부모들의 잘못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말하고 있다(참조, 출 20:5; 겔 16:44).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경건한 부모들이 가정과 자녀들에게 끼치는 좋은 영향도 말하고 있다(참조, 출 20:6; 딤후 1:5).
- (5)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 내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것이다(엡 6:4).

8. **㉠** 유다 백성의 열정적인 우상 숭배를 비평하라 (9, 10절).

- ㉠** (1) 그들은 가증스러운 물레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 기름과 향품을 몸에 바르는 극성을 부렸다(9절).
- (2)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위해 먼 곳까지 찾아가는 열심도 있었다(9절).
- (3) 더우기 이러한 일을 하면서 조금도 싫어하는 일이 없었다(10절). 그만큼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이다.
- (4) 한편, 9절의 ‘물레’을 ‘왕’ (히, 멜레크)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이 해석도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해석을 따르면 본절은 유다 백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르 등의 이방 왕에게 도움을 청한 행위 역시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경책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뢰하는 행동은 모두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
- (5) 우리는 우상 숭배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뿐 아니라 지금도 만연(蔓延)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카톨릭의 성인 및 성상 숭배(聖像崇拜)이다. 개신교 안에서도 물질을 숭앙(崇拜)하는 율물주의적 우상 숭배를 찾아 볼 수 있다(참조, 골 3:5).
- (6)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내의 우상 숭배를 엄중히 문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계 2:18-29).

9. **㉠**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까닭은 무엇인가? (11절)

- ㉠** (1) 본절에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셨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사실은 유다 백성의 죄가 그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잠하셨던 것이다(59:1, 2).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의 행동을 은밀히 지켜 보시기 위해 침묵하실 때가 있다(시 50:16-21).
- (4)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유다 백성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참조, 전 8:11).
- (5) 그렇지만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과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고(합 1:13) 결국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시다(시 62:12; 렘 17:10).

10. **㉠** 우상을 숭배하는 유다 백성에게서 의(義)를 찾아 볼 수 있는가? (12절)

- ㉠** (1) 없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시 14:3; 전 7:20). 그래서 A. D. 1 세기에 만들어진 페쉬타(Peshitta) 번역본에는 본절이 ‘나(하나님)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고 되어 있다.
- (2) 그렇지만 역시 ‘너의 의를 내가 보이리라’라는 번역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 표현은 ‘너의 의가 없음을 보이리라’는 뜻을 지닌 일종의 풍자(諷刺)일 것이다.

11. ㉠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결국은 각각 어떠한가? (13절)**

- ㉠ (1)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같이 무능한 우상과 함께 망한다.  
 (2)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에겐 기업이 있다. 본절이 말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상징한다(시 37:9). 또한 ‘거룩한 산’은 11:9;56:7에서와 같이 교회 혹은 천국을 상징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기를 온전히 의뢰하는 자들을 자기 소유로 인(印) 치실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2. ㉠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계속 방관(傍觀)만 하시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혐오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계명을 주셨다(출 20:4-6).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자 이방 민족을 사용해 이스라엘을 경책하셨다(삿 2:11-15).  
 (3) 그렇지만 우상 숭배의 죄는 사사 시대가 지나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 남북 왕국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끊이지 않았다. 물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 온 백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다.  
 (4) 그러나 유다와 이스라엘은 회개할 줄 모르고 우상 숭배를 고집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앗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징벌하셨고 바벨론을 일으켜 남유다를 징벌하셨다.  
 (5) 그런데 본절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우상 숭배를 없애 버리실 것이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즉 지금까지는 징계와 경고로 우상 숭배에 제재를 가하셨지만 앞으로는 우상 숭배의 대상인 ‘거치는 것’ 자체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이다. 물론 우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일 것이다(계 22:15).  
 (6) 탈무드(Talmud)에는 우상 숭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청년과 이에 대답하는 랍비의 일화가 담겨 있다. 한 청년이 ‘하나님이 우상을 모두 없애 버리면 우상 숭배의 죄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랍비는 이렇게 반문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태양이나 나무나 짐승이 모두 없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는가?’  
 (7)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우상 숭배를 참고 계시지만 결국엔 경건한 자들이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때가 올 것이다.

13. ㉠ **15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라.**

- ㉠ (1) 첫째로 하나님은 지존 무상하신 분이시다(느 9:5; 시 113:4; 전 5:8). ‘지존 무상’이란 ‘지극히 높이 들림’(6:1)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 이 표현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명백히 보여 준다.  
 (2)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시다(시 102:26, 27).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쉽게 사라지는 우상과 달리 영원한 생명을 지니신 분임을 보여 준다(참조, 딤후 6:16).  
 (3) 셋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6:3). 이사야는 종종 부패한 유다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조시키고 있다(1:4; 5:18, 19).  
 (4)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처럼 묘사한 것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과 전적으로 다른 분이심을 인식시키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14. ㉠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사랑하시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회(痛悔)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를 혐오하시며 죄인을 멀리하시는 분이다. 그렇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신다(시 34:18). 이러한 사실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눅 18:9-14).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고 가르치셨다(마 5:4).  
 (2)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미워하신다(약 4:6).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생애에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다.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삼으셨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다 (삼상 15:17-23).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이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빌 2:3, 5).

15.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진노를 그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기 때문이다(16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악 중에 당신의 진노를 사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참조, 겔 18:31, 32; 33:11).
- (2) 둘째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17절). 그리하여 그들은 더욱 패역한 길로 나아갔다.
- (3)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진노로 진멸되지 않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참조, 애 3:22).

16. **㉠** 유다 백성이 행한 탐심의 죄악이란 무엇인가? (17절)

- ㉠ (1) 이들은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질렀다. 이사야에 의해 지적된 죄악은 아래와 같다.
- (2) 이들은 약자를 학대하며 그들의 재산을 탈취했다(3:12-15).
- (3) 또한 이들은 이웃의 가옥(家屋)과 토지를 사취(詐取)했다(5:8).
- (4) 그 뿐 아니라 이들은 부당한 소송으로 약한 자를 괴롭혔다(1:23).
- (5)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탐심의 죄악을 우상 숭배처럼 가증히 여기시고 진노하셨다. 그러므로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정죄하였던 것이다(골 3:5).
- (6) 우리는 돈이나 물질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며(딤후 6:10) 우상 숭배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러운 이(利)를 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기업을 받을 수 없다(엡 5:5).

17.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대해 설명하라(18절).

- ㉠ (1) 본절에서 하나님은 겔 34:11-16에서와 같이 잃은 양을 찾는 목자로 묘사되고 있다.
- (2) 즉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무지한 양같이 그를 향하여 패역한 길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찾아 나서는 목자로 묘사되었다(참조, 겔 34:11, 12).
- (3)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상처를 입고 울부짖는 양처럼 배역죄(렘 3:22)의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시고 고쳐 주시는 목자로 묘사되었다(참조, 겔 34:16).
- (4)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풀이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로 묘사되었다(참조, 겔 34:13-15).
- (5) 또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는 분으로 묘사되었다(51:12).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와 고난당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다(참조, 마 5:4; 고 후 1:3, 4).

18. **㉠**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하셨는가? (18, 19절)

- ㉠ (1) 19절은 18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18, 19 절을 연결하여 ‘슬퍼하는 자에게...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여기서 ‘입술의 열매’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찬송을 의미한다(히 13:15).
- (2) 이 해석을 따르면 19절에 두 번 반복된 ‘평강이 있을지이다’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송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공동 번역은 그렇게 해석했다.
- (3) 그렇다면 본귀절들은 회개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마 5:4).

19. **㉠** 악인에게도 평강이 있는가? (20, 21절)

- ㉠ (1) 악인에게는 전혀 평강이 없다(48:22). 비록 그들이 억지로 태어난 체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없다.

- (2) 첫째로 죄가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항상 불안 가운데 살게 된다(참조, 신 28:67).
- (3) 그리고 그들의 악한 생활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즉 그들은 헛된 일과 불의의 재물을 얻으려고 분주하기 때문에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시 39:6).

## 화보자료

길(道). 아래 사진에 나오는 길은 ‘벧엘’ (Bethel), 즉 오늘날의 ‘베이트인’ (Beitin)으로 향해 나 있는 포장된 도로이다.



자동차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 길은 차도(車道)이며 비행기가 다니도록 되어 있는 길은 공로(空路)이다. 그런데 이러한 길과는 달리 삶에 있어서 인간이 마땅히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으니 곧 정로(正路)이다(참조, 1절). 이 정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이 행하여야 할 본분이기 때문이다(고전 10:31).

# 제 58 장 여호와께서 열납(悅納)하시는 예배

단락구분 1-5 외식적인 금식의 가능성 / 6-7 집된 금식 / 8-12 의로운 자가 받을 복 / 13-14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

1 크게 외치라 아까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 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음, 아픔 집에 그 죄를 고하라

2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하며

3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쩔이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쩔이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4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부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5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짧은 배와 재물 퍼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풀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풀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8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9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10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을 동하며 괴로와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13 만일 안식일에 네 밭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와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내가 여호와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와 입의 말이니라

## 1. ㉠ 본장의 중심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전장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과 죄를 회개하는 자들에게 임한 평강이 선포되었다.  
 (2) 이에 반해 본장에서는 형식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의 외식(外飾)이 노골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다.  
 (3) 이사야는 본장에서 금식과 안식일 성수(聖守)로 대표되는 유다 백성의 신앙 생활이 형식에 치우쳐 있음을 개탄하고 금식과 안식일 성수의 참의미를 역설하였다.  
 (4) 따라서 본장은 신앙 생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대의 모든 종교적 위선자들에게 충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다.

2. **㉠** 우리가 사회 내의 죄를 목격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 ㉠** (1) 물론 담대히 죄를 지적해야 한다. 이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마 5:13-16).
- (2)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리라는 것은 주위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분명히 경고하라는 뜻이다.
- (3)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나 성도는 사회에 관영(貫盈)하는 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 (4) 이 세상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미가 선지자는 이 용기가 성령의 충만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미 3:8).

3. **㉠**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2절)

- ㉠** (1) 첫째로 그들은 예배 시간을 열심히 지킨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도 열성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맹목적인 열성은 헛된 것이다.
- (2) 둘째로 그들은 교육받는 일에 열심을 낸다.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 이라는 표현은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침을 받기는 좋아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한다. 비유권대 기쁨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들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마 13:20, 21).
- (3) 세째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무에 관해 이는 일에 열심을 낸다.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라는 표현도 그들의 빛나간 열심을 잘 보여 준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를 행하는 일에는 민감(敏感)하지 못하다. 마 19:16-22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4)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 열심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29:13; 막 7:6).
- (5)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가중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라고 비난했다(딤후 1:16).
- (6)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만의 신앙 생활 곧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떠나 하나님의 뜻을 몸과 마음으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할 것이다(마 7:21).

4. **㉠** 유다 백성의 금식(禁食) 행위가 비난을 받은 까닭은 무엇인가? (3-5절)

- ㉠** (1) 가장 큰 이유는 금식의 동기가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금식이 회개와 성결을 위해서 제정된 사실(느 9:1, 2; 시 69:10)을 외면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다(3절).
- (2) 더우기 그들은 금식의 자세에 있어서도 매우 잘못되어 있었다. 금식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온전히 순화(純化) 시키며 기도해야 한다(참조, 시 69:10). 그러나 그들은 오락을 즐기으로써 자신들의 영혼을 스스로 해쳤던 것이다(참조, 딤후 5:6).
- (3) 그 뿐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금식의 참의미를 그르쳤다. 본래 금식이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자기 자신의 뜻과 정욕을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할 때 참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뜻과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중노동을 시켰고(3절) 심지어 싸우며 다투기까지 했다(4절).
- (4)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5절). 예수께서도 형식적인 외식을 비판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셨다(마 6:16-18).

5. **㉠**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을 설명하라 (6, 7절).

- ㉠** (1) 본귀절은 금식의 정의(定義)라기 보다는 금식의 바른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금식은 첫째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했다(6절).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이웃에게 저질렀던 악행에 대해 회개하고 그것을 보상해 주어야 함을 뜻한다고 본다.

- (3) 참된 금식이란 둘째로, 멍에의 줄을 풀러 주는 것이라고 했다(6절). 이것은 이웃에게 부당하게 지웠던 부담을 모두 청산하라는 의미인 것 같다(참조, 느5:10, 11).
- (4) 참된 금식이란 셋째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했다(6절). 이것은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거나 경제적으로 약한 자들을 억압하지 말라는 뜻인 것 같다(참조, 신 24:14).
- (5) 이상과 같이 우리의 사회적인 부정을 그만두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의 복지(福祉)에 기여하는 것도 참된 금식의 자세임을 알 수 있다(7절).
- (6) 곧 주린 자를 먹이는 일, 거지를 환대하는 일, 벗은 자를 입히는 일, 어려운 친척을 돕는 일 등의 자선 행위는 금식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즈음의 어떤 성도들은 금식할 때 절약되는 식비를 구제 헌금으로 드리기도 한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자선 및 구제 행위가 곧 당신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5:34-40).

6. **㉠ 올바른 금식 자세를 따라 의를 행하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8-12절)**

- ㉠** (1) 첫째, 세상의 빛이 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8절; 마 5:14-16).
- (2) 둘째, 회개하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된다(8절).
- (3) 셋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8절; 52:12).
- (4) 넷째, 기도 응답을 받는다(9절).
- (5) 다섯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11절). 즉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시 23:1).
- (6) 여섯째, 후손의 축복을 받게 된다(12절).
- (7) 일곱째,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12절).

7. **㉠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9, 10절)**

- ㉠** (1)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이웃에게 지운 멍에(6절)를 제하여 버려야 한다. 이웃에게 멍에를 씌워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처사이다(잠 14:31). 반면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며 돕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 된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잠 19:17).
- (2) 둘째로, 이웃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손가락질을 멈춰야 한다. 이웃을 비판하는 자는 하나님의 엄중한 비판을 받게 된다(욘 2:1-3).
- (3) 셋째로, 허망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허망한’(히, 아웬)은 ‘사악한’의 뜻을 갖고 있다.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말(잠 16:28), 아침(잠 6:24), 거짓말(시 120:3), 악독한 말(59:3) 등이 모두 ‘허망한 말’에 속한다. 우리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한다(엡 4:29).
- (4) 넷째로, 어려운 이웃을 동정할 줄 알아야 한다(10절). 만일 우리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잠 21:13).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눅 6:36).

8. **㉠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백성은 항상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사는가? (11절)**

- ㉠** (1)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양 떼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시 23:1, 2).
- (2)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따금 본절에 나타난 표현처럼 ‘마른 곳’ 곧 광야와 같은 곳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도 한다. 이것은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만족 때문

에 ‘물 댄 동산’처럼 싱싱한 소망을 지니며 살게 된다.

- (4)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할 때에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뢰하며 찬송해야 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害)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

9. **㉠ 안식일을 지키는 바른 자세에 대해 설명하라 (13절).**

- ㉠** (1) 첫째, 세속적인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 ‘밭을 금하라’는 말은 당시의 대부분의 일상적인 사업이 밭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기에 사업을 그치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 같다 (참조, 느 13:15).
- (2) 둘째, 육신의 즐거움을 좇는 오락 행위를 일체 중단해야 한다. 일시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이다(딤후 5:6).
- (3) 셋째,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물론 안식일 자체가 사람보다 존귀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이 안식일보다 귀하다(막 2:27). 하지만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으므로 이날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의 도리이다(참조, 시 118:24).
- (4) 넷째로 개인의 사사로운 생각과 말을 억제해야 한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이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에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요 4:24) 쓸데없는 잡담을 그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참조, 함 2:20).

10. **㉠ 안식일을 올바르게 준수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가? (14절)**

- ㉠** (1) 첫째, 그들은 영적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 즐거움은 ‘여호와와 안’에 있는 자들만이 맛볼 수 있다. 이러한 자들은 모두 안식일을 사랑한다(시 118:24).
- (2) 둘째, 그들은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땅의 높은 곳’은 팔레스틴 땅을 가리킨다고 보인다(참조, 신 32:13). 왜냐하면 팔레스틴 땅은 주위의 지역보다 고도(高度)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본절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의 장래를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이 말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암시하기도 하는 것이다.
- (3) 셋째, 그들은 야곱이 받은 축복(창 28:13-15)을 받아 누리게 된다. 여기에는 후손이 번성하는 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

**본장의 요절**

‘나의 기뻐하는 음식은 홍익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  
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6절).



# 제 59 장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구원

단락구분 1-8 여호와께서 유다를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 / 9-11 죄로 인해 탄압을 당하는 유다 / 12-15a 유다의 죄를 고백하는 이사야 / 15b-19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구원 / 20-21 구속자의 언약

1 여호와와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3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발함이라

4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5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히면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6 그 잔 것으로는 웃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7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8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좁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9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함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움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하므로

10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11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

리에게서 멀도다

12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13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좇는 데서 돌이켜 포학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발하니

14 공평이 뒤로 물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었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15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16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증제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시

17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겹옷을 삼으시고

18 그들의 행위로로 값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용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 서방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두려워하졌고 해돋는 편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물려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오실 것임이로다

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된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와 의 말씀이니라

## 1. ㉠ 본장이 지닌 중요성은 무엇인가?

㉠ (1) 본장의 초두에서 이사야는 하나님과 유다 백성의 사이를 갈라 놓는 죄를 폭로하고 있다 (1-8절).

(2) 따라서 본장은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57, 58장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57장이 주로 우상 숭배의 죄를, 58장이 형식적인 신앙을 비난하고 있음에 반해 본장은 일반적인 죄를 통틀어서 비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 (3) 이사야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의 범죄가 초래(招來)한 하나님의 심판을 진술한 다음(9-11절) 백성을 대변하여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였다(12-15a절).
- (4) 연이어 본장의 후반부에는 유다 백성의 죄악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이 나타나 있다(15b절).
- (5) 한편 본장에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둘째 부분(40-66장)에만 특이하게 나타나는 ‘구속자’(20절)라는 표현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41:14;43:14;54:5;63:16). 사도 바울은 본장의 ‘구속자’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았다(롬 11:26). 그렇다면 본장 역시 장래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언했다는 점에서 큰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1, 2절)

- ㉠** (1) 본래 유다 백성이 당한 환난은 그들의 죄가 자초(自招)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 (2) 그러므로 그들이 환난, 즉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려면 자신들의 죄를 통회해야만 했다(57:15).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를 범하면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그들이 회개하면 곧 용서하시는 분이시다(삿 2:16-18).
- (3)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이다(참조, 시 7:12).
- (4) 더우기 그들은 회개하지 않은 죄 위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까지 더 짓고 말았다. 성경은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부른다(잠 19:3). 이러한 자들은 멸망의 문턱에서 있는 자들이다(고전 10:10).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외면당하여 환난 중에 신음하게 되었다(9-11절).
- (5) 따라서 우리는 환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즉시 회개할 죄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는 불경죄(不敬罪)를 짓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 **㉠** 본장에 나타난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을 설명하라(1, 2, 16, 17절).

- ㉠** (1)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형상을 입으시고 행동하시는 것같이 묘사된 곳이 많이 있다(창 3:8;18:1-33).
- (2) 그래서 몰몬교(Mormonism) 같은 이단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갖고 제신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영(靈)이시므로(요 4:24) 아무도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다(요 1:8;골 1:15;딤후 1:17).
- (3) 한편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손, 귀(1절), 얼굴(2절), 팔(16절), 머리(17절) 등의 지체를 소유하신 것처럼 표현되었을 때, 그것을 신인동형론적 표현(神人同形論的表現)이라고 부른다. 물론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셨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성령의 감동을 입은 기록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인간들에게 친근감 있게 전해 주기 위해 구사(驅使)한 표현일 뿐이다.
- (4) 이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신다(16절), 후회하신다(창 6:7), 질투하신다(출 34:14), 염려하신다’(신 32:26, 27) 라는 표현은 신인동성론적 표현(神人同性論的表現)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표현은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의도한 성경 기자들의 배려라고 할 수 있다.
- (5) 이러한 표현법을 통틀어 신인동형동성론(神人同形同性論)이라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와의 사자’(창 16:7-11;22:11-15;민 22:22-35;삿 6:11-24)에 대한 언급이다.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위로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했고 다른 천사와 달리 인간의 경배를 받았다는 점(참조, 수 5:13-15;삿 13:15-20)을 들어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4.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이사야는 1:15에서처럼 자기 동족에 대한 유다 백성의 잔악함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유다 백성을 외면하게 만들었다고 역설(力說)했다.
- (2) 이사야와 거의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도 유다 백성, 특히 지도자들의 강포(強暴)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경고한 바 있다(미 3:1-4).
- (3) 그러므로 우리는 피를 흘리는 손과 거짓된 입술(3절)로 이웃을 해치는 행위가 하나님의 혐오 대상이 됨을 깨닫고(잠 6:16-19)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잠 21:13).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잠 15:29).

5. **㉠** 유다 백성의 사회적 범죄를 지적하라(4절).

- ㉠** (1) 첫째로 공의(公義)를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하였다.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란 말은 ‘공의를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고’라고 직역할 수 있다. 이 말은 유다 백성이 얼마나 불의한 생활을 추구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참조, 렘 5:1).
- (2) 둘째로 사법(司法)의 문란이 극심하였다. 본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이루어진 사회였다. 따라서 재판이 열린 경우 그들은 율법을 따라 공명正大하게 판결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진리 곧 율법(시 119:142)을 따라 판결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 (3) 세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거의 없었다. ‘허망한 것을 의뢰했다’는 말은 당시에 유다 백성이 행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것 같다. 또는 ‘허망한 것’(히, 토후)을 ‘혼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으므로 유다 백성의 무질서함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 (4) 이러한 사회적 범죄는 모두 개인적인 범죄에서 연유(緣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다 백성은 한결같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웃의 권리를 짓밟는 죄를 자행하였던 것이다.
- (5) 하지만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의 이익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막 12:31).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게 될 때 비로소 사회적 범죄도 감소되는 법이다.

6. **㉠** 이사야는 유다 백성의 사악(邪惡)함을 어떻게 비유했는가? (4-6절)

- ㉠** (1) 이사야는 먼저 악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아이 낳는 여인으로 비유했다(4절). 이 비유는 여인이 잉태할 때 처음에는 걸로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유다 백성이 남을 해칠 생각을 비밀리에 품었음을 암시해 준다. 또 이 비유는 잉태한 여인이 때가 되면 아이를 낳는 것같이 죄악을 품었던 유다 백성이 흉악한 죄를 갑자기 범하는 모습을 잘 설명해 준다.
- (2) 또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독사로 비유했다(5절). 이 비유는 유다 백성의 죄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유다 백성의 죄가 매우 교활했음을 암시하기도 한다.
- (3) 그 다음에 이사야는 유다 백성을 거미로 비유했다(5, 6절). 이 비유는 아마도 거미줄을 짜서 곤충을 잡아먹는 거미같이 유다 백성이 이웃을 해치려고 함정을 파는 모습을 풍자한 듯하다(참조, 미 7:2). 그리고 이 비유는 거미줄로 옷을 만들 수 없듯이 유다 백성의 모든 행위가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줄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6절).

7. **㉠** 이사야가 논(論)한 두 가지 길을 설명하라(7, 8절).

- ㉠** (1)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가야 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말했다. 본귀절들에는 ‘길’이라는 말이 모두 4회나 나오는데 그중 세 번이 유다 백성이 잘못 걸어간 길을 가리키고 있다.

- (2) 7절의 ‘그 길’은 ‘대로’ (RSV, highways)로서 여기서는 죄를 범한 유다 백성이 버젓하게 걷고 있는 인생 행로(人生行路)를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길의 마지막에는 파멸만이 있을 뿐이다(마 7:13).
- (3) 8절의 ‘그들의 행하는 곳’은 ‘그들의 작은 길들’ (RSV, their paths), 즉 ‘그들이 각자 걷는 좁은 길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것은 53:6의 ‘우리는 다 양갈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과 의미가 상통(相通)하는 표현이다.
- (4) 그리고 ‘굽은 길’ (8절)은 유다 백성이 의도적으로 택한 불의(不義)의 길을 묘사한 듯이 보인다. ‘굽다’ (히, 아카쉬)라는 말은 ‘공의’ 또는 ‘정직’의 반대 개념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참조, 미 3:9).
- (5) 이상의 길은 모두 유다 백성이 걸어간 잘못된 길을 말하고 있다. 이에 반해 ‘평강의 길’ (8절)은 앞으로 유다 백성이 걸어가야 할 참된 신앙 노선(信仰路線)을 가리키고 있다. 이 길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기도 하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능히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48:2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은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 주신다(시 119:165).

8. **㉠ 유다 백성이 불의를 행함으로써 자취(自取)한 참상을 기술하라 (9-11절).**

- ㉠** (1) 1-8절의 죄로 인해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행한 불공평한 재판, 불의를 인해 응답을 보류(保留)하시므로써 그들의 죄과를 경책하셨다(9, 11절).
- (2) 결국 유다 백성은 ‘빛’, 즉 소망을 바랐으나 ‘어두움’, 즉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9절).
- (3) 그리고 그들은 영안(靈眼)이 어두어져서 갈팡질팡하게 되었다(10절). 이렇게 된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신 28:29).
- (4) 더우기 그들은 영적 기력마저 쇠약해져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10절). 이것은 그들의 죄악이 빚어낸 결과였다. 이처럼 사람의 허물과 죄는 영적 사망의 요인이 된다(참조, 엡 2:1).

9. **㉠ 이사야는 죄의 속성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12절)**

- ㉠** (1) 그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만물이 별 거뻐진 것같이 드러나는데(히 4:13) 사람의 죄 역시 그러하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그의 경험(6:1-5)을 통해서도 깨달았다.
- (2) 그는 또 죄가 번식력(繁殖力)을 가졌다고 보았다. ‘심히 많으며’라는 말은 ‘많이 증가되었으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죄는 죄를 낳는다. 이러한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쉽게 깨달을 수 있다.
- (3) 계속해서 이사야는 죄를 인격화하여 죄의 속성을 설명했다.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한다’는 말은 죄가 절대로 은폐(隱蔽)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참조, 3:9).
- (4) 또한 이사야는 죄가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 죄를 지닌 존재는 바로 사람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은 죄악의 근원이요 산실(産室)이라고 할 수 있다(마 15:19, 20).
- (5)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죄를 인식할 수 있는 실체로 파악했다. 물론 우리는 부패해진 마음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 모르고 지낼 때가 많이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양심(롬 2:15)과 말씀의 선포(행 2:37)와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10. **㉠ 유다 백성이 지은 죄의 양상(樣相)을 열거하라 (13-15a절).**

- ㉠** (1) 그들이 지은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죄이다(13절). 이 죄는 우상 숭배의 죄와

율법을 불순종한 죄로 크게 구분된다(참조, 왕상 11:33).

- (2) 그들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그릇되었다(13절). ‘포학’, 즉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과 ‘패역’, 즉 질서를 붕괴시키는 일 따위가 그들이 나눈 대화의 주제였던 것이다. 그들은 ‘거짓말’ 곧 사기(詐欺)로 이웃을 해치기도 하였다(4절).
- (3) 또한 그들은 자기 나라를 불공평한 사회로 만드는 잘못을 범했다(14절). 이사야는 본장에서 무려 4회나 ‘공평’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다 백성 가운데 만연한 불공평을 신랄히 비난했다.
- (4) 공평이 사회에서 없어지자 불의가 의를 몰아내는 현상이 일어났다(14절). ‘의가 멀리 섰다’는 말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배척을 받는다’는 뜻이다.
- (5) 이렇게 의가 배척당하는 사회 풍조 속에서 유다 백성은 자연스럽게 성실한 삶을 경시하게 되었다(14, 15a절). 여기서 ‘성실’(히, 에메트)은 ‘진리’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성실을 경시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시 119:43)을 존중하지 않았음을 시사(示唆)한다.
- (6) 더우기 유다 백성은 정직한 생활을 도의시하기에 이르렀다(14절). 즉 불의한 이득을 위해 부정직한 방법과 간계가 그들의 사회에 범람하게 되었던 것이다(미 6:10-12).
- (7)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신 26:16) 아름다운 언어 생활에 힘써야 한다(엡 4:25-31).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회가 보다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마 5:13-16).

11. ㉠ 이사야가 유다 백성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형 주어틀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9-15a절)

- ㉠ (1) 이사야는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에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너희’라는 말을 사용하였다(2, 3절).
- (2) 하지만 이사야 역시 부정(不淨)한 백성 중에 거하던 죄인의 한 사람이었다(참조, 6:5). 그러므로 그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3) 한편 이사야의 이러한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신앙 공동체를 위해 힘써 기도할 책임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시 44편은 신앙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귀감(龜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편에는 ‘우리’라는 말이 총 26절 중에 33회나 나온다. 주기도문에도 ‘우리’라는 말이 6회나 들어 있다(마 6:9-13).

12. ㉠ 유다 백성의 구원은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는가? (15b, 16절)

- ㉠ (1)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홀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사람이 없다’(16절)는 말은 유다 백성 중에 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음(시 14:3)을 뜻한다. 또한 이방 민족에게 사로잡힌 유다 백성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가 없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작정하셨다.
- (2) 우리는 본귀절들을 통해 구원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이 세상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롬 3:20).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을 뿐이다(엡 2:8, 9; 딤후 3:5).

13. ㉠ ‘중재자(仲裁者)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6절)

- ㉠ (1) ‘중재자’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도달한 자’이다. 그것은 ‘중재하다’(히, 파가)라는 말이 ‘도달하다’로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중재자’라는 말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2)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히브리어 <파가>를 ‘기도하다’, ‘묵상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말하는 ‘중재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中保)의 역할을 하는 자를 가리킨다.

- (3) 출애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한 모세가 있었다(출 32:32). 그리고 사사 시대 말기에는 사무엘이 중보자로서 활약했다(삼상 7:5). 또한 왕정 시대의 다윗과 히스기야도 백성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한 지도자들이었다(대상 21:17; 대하 30:18). 그러나 이사야 시대에는 그러한 자들이 없었던 것이다.
- (4) 한편 '이상히 여기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שמע>인데 '놀라다', '기막혀 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중에 중보자가 한 명도 없음을 보시고 기막혀 하셨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5)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재자가 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재자로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롬 8:34).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중재자이시다(롬 8:26).

#### 14. ㉠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하라 (16-19절).

- ㉠ (1) 본권절들은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의 손길을 펴시는 하나님의 위엄(威嚴)을 아름답고 힘차게 노래하고 있다.
- (2) 특히 이사야는 16, 17절에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함에 있어 모두 과거형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미 작정되었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敘述方式)은 유다 백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사된 것 같다.
- (3) 17절의 표현은 호머(Homer, B. C. 10세기)의 서사시 '일리아드' (Iliad)에 나타나는 신(神)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 신들은 인간처럼 무장을 하고 티격태격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이사야는 다만 강하신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썼던 것이다.
- (4) '의'로 '호심경'(護心鏡)을 삼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될 때에는 어떤 불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인다. 호심경은 가슴에 착용하는 흉패(楯6:14)를 가리킨다.
- (5) 그리고 '구원'을 '투구'로 삼으셨다는 말은 아마도 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의중(意中)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 같다.
- (6) 또한 '보수'(報讐)로 '속옷'을 삼으셨다는 말은 자기 백성을 괴롭힌 이방 민족에 대한 혐오감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올랐음을 암시하는 듯이 보인다.
- (7)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겉옷'을 삼으셨다는 말은 구원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여 주는 표현이라고 생각된다(참조, 9:7; 37:32).
- (8)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면모를 지니시고 유다를 괴롭힌 이방 민족에게 심판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였다(18, 19절). 이러한 심판 행위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엄중한 심판의 예표(例表)이기도 하다.

#### 15. ㉠ 시온에 임하는 구속자에 대하여 설명하라 (20절).

- ㉠ (1) '구속자'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된 말이다(41:14; 43:14; 47:4; 욥 19:25; 시 19:14; 렘 50:34).
- (2) 그러나 본절에서는 '구속자'가 여호와를 직접 가리키고 있지 않다. 70인역은 단순히 '구원자'(헬, 루오메노스)라고 번역했는데, 후에 바울은 70인역을 좇아 이 말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보았다(롬 11:26).
- (3) 한편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는 '구속자가 시온을 위하여 오실 것이며'로 의역될 수 있다. '시온'은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말은 성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이다.
- (4) 이사야는 계속해서 구속자가 '야곱 중에 죄과(罪過)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함으로써 유다 백성이 간악한 죄를 조속히 회개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촉구

하였다. 즉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합당한 의(義)의 생활에 힘써야 할 것이다.

16.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21절)**

- ㉠** (1) 첫째는 하나님의 신(神) 곧 성령을 그들에게 계속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성령은 계시의 근원(골 2:28) 이자 권능과 은사의 원동력이다(미 3:8).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깨우치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 (2)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계속 머물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말씀은 계시의 결정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의方便(方便)이다. 또한 말씀은 모든 성도가 행할 바를 일러주는 삶의 지침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보여 준다.
- (3) 이 약속은 모두 성취되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첫째 약속의 성취이며 오늘날 우리가 소유하게 된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둘째 약속의 성취인 것이다.
- (4)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생활하며(엡 5:18)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시 1:1, 2).

화보자료

귀(耳). 옆은 상당히 사실적으로 만들어진 돌로 된 귀로서 B. C. 1000년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집트인들의 작품이다. 현재는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까닭이 죄 때문인 것으로 나와 있다(1, 2절). 이와 비슷하게 성경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이목 구비(耳目口鼻)를 지니신 분으로 표현되는데(신 11:12; 왕하 19:16) 이러한 것을 가리켜 신인동형동성론적 표현(神人同形同性論的表現)이라고 한다.



## 제 60장 회복된 시온의 영광

단락구분 1-2 빛을 발하라는 명령 / 3-9 이방인들의 구원 / 10-14 보상받는 시온 / 15-22 시온을 향한 축복의 약속

1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3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4 네 눈을 들어 사편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

5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6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와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 계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옷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8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9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10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11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12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13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들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아래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와 성음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리라

15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16 네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줄 알리라

17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19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네게 빛을 비취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20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21 네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 1. ㉠ 본장의 개요를 설명하라.

㉠ (1) 이사야는 56:9-59:15에서 유다 백성의 죄를 계속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56장부터 전장까지는 그 내용이 다소 어둡고 우울한 편이다.

- (2) 그러나 본장은 환희(歡喜)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에 대하여 영광된 장래를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 (3) 본장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격려로 시작된다. 그리고 매우 소망적인 약속으로 끝을 맺는다. 물론 본론 부분도 시온이 누릴 영광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
- (4) 이렇게 본장 전체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은 ‘빛’ (1, 3, 19, 20절)과 ‘영광’ (1, 2, 19절)이라는 말이 적절히 사용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본장의 시(詩)를 ‘빛의 불꽃’ 이라고 이름 붙인 학자도 있다.
- (5) 한편 우리는 본장에 나타난 주제의 일부를 마5:14-16과 엡5:8-14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요지(要旨)는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자’이다. 그러나 본장의 주제를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교회’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 것 같다.

2.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먼저 ‘일어나라’는 말은 ‘힘을 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시온은 자기 죄로 인해 또한 그 죄로 말미암아 초래된 고난으로 인해 기진 맥진한 상태였다(51:17-23).
- (2) 그리고 ‘빛을 발하라’는 말은 ‘의를 행하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마 5:14-16; 엡 5:8-16). 전장까지 시온은 불의 때문에 공박을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의를 행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 (3) 한편 ‘빛을 발하라’는 말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뜻으로도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빛이 본장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보조 개념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19절).
- (4)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말을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결부(結付)시킨다. 즉 빛이 복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다(참조, 고후4:4). 이 해석도 옳다고 생각된다. 3-9절에 이방 민족의 회개에 관한 언급이 있어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을 지지해 준다.
- (5) 위의 해석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을 ‘힘을 내어 의로운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 시온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가? (1절)

- ㉠ (1) ‘빛을 발하라’는 말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비추신 빛을 반사하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시온에게는 스스로 빛을 비출 만한 힘이 없기 때문이다(참조, 59:9).
- (2) 본절의 ‘이는’ (KJV, for)이라는 접속사 이하의 문장이 위의 해석을 뒷받침해 준다. 즉 본절은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으므로 일어나 그 빛을 반사하라’라고 의역될 수 있다. 물론 ‘네 빛’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말과 동격(同格)으로서 결코 시온 자신의 빛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비록 성경이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아 반사할 수 있을 뿐이다(참조, 고후4:4-6).

4. ㉠ 은 땅을 덮는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2절)

- ㉠ (1) 본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 애굽에서 일어났던 흑암의 재앙 사건을 연상시킨다. 당시 모세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캄캄한 흑암이 3일간 애굽 전역을 덮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했던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출10:21-23).
- (2) 이사야는 이와 같이 은 세상에 ‘어두움’이 뒤덮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에 의하면 ‘빛’은 ‘평안’을, ‘어두움’은 ‘환난’을 각각 가리킨다(45:7).
- (3) 만일 본절의 ‘어두움’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다면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말은 은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환난을 당할 것을 가리킨다.

- (4) 하지만 이사야는 ‘어두움’을 ‘불의’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다(45:19). 그러므로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말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찰 것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다(참조, 창6:5; 요3:19).
- (5) 이밖에도 ‘어두움’은 비진리(非眞理)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릇된 삶을 의미하기도 한다(요일1:6).
- (6)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볼 때 이 세상이 죄와 오류(誤謬)의 흑암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세상에서 시온의 자녀인 우리가 행할 바를 명신하게 된다.
- (7)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엡5:8-14).

5. **㉠ 열방과 열왕(列王)이 시온의 빛을 향해 나아온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3절).**

- ㉠** (1) 본절을 묵상할 때 우리는 불을 향해 날아오는 불나방들을 생각하게 된다. 혹은 밤중에 부딪기에 안전하게 도달하기 위해 등대의 조명을 따라 항구에 들어오는 선척들을 연상하게 되기도 한다.
- (2) 시온 곧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요8:12)를 비취 주는 등경(燈臺)이 되어야 한다(마5:14-16).
- (3) 사도 요한은 이런 뜻에서 교회를 금촛대로 묘사했다(계1:12-20).
- (4) 만일 교회가 의로운 태양이시며 치료하는 광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말4:2)를 힘써 전파한다면 열방, 즉 세계 만민은 구원의 빛을 향해 관심을 갖고 나아올 것이다.
- (5) 또한 교회가 만민의 인생 행로를 밝혀 주는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시119:105)을 힘써 전파한다면(딤후4:2) 세상에서 존귀하다고 일컫는 열왕마저 찾아오는 영광을 누릴 것이다. 본절은 이상과 같은 뜻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6. **㉠ 본장에 나타난 세계 선교의 비전(vision)을 설명하라(4-9절).**

- ㉠** (1) 본귀절들을 통해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소망을 가질 수 있다.
- (2) 우선 우리는 선교 지역이 매우 광활(廣闊)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4절). ‘네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는 말은 우리의 사역지가 무한함을 가리킨다(참조, 요4:35).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좁은 지역 안에서 서로 교세(教勢)를 넓히려고 교회끼리 다투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 (3)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참조, 롬15:19-21). 사도들은 ‘은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의 말씀을 좇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였다(막16:15-20).
- (4) 또한 우리는 선교 사역의 결과가 엄청나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4절).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워 올 것이라’는 약속은 일차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귀환을 가리킨다.
- (5) 그렇지만 본귀절들을 세계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 볼 때 ‘네 아들들’, ‘네 딸들’은 선교사로 파송된 성도들을 지칭한다고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네 딸들이 안기워 온다’는 말은 ‘네 딸들이 아기를 안고 온다’는 의미로, 복음 전파자들이 복음으로써 믿음의 자녀를 낳아 양육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고전4:15).
- (6) 한편 우리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5-9절). 세계 만민은 각자가 지닌 소유 중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며(5-7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7b절).
- (7)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행13:47)고 하신 주의 말씀을 되새기며 세계 선교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7. **㉠ 열방 민족들의 헌신을 상세히 기술하라 (5-9절).**

- ㉠** (1) 미디안과 에바 족속은 시나이 반도의 일부와 아카바 만(灣) 동쪽 지역에 거주했던 유목민들이었다. 이들은 주로 광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약대(낙타)를 많이 이용했다. 민 22:4-7; 31:1-18; 사6:1-10을 보면 이들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이 토산품인 약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였다 (6a절).
- (2) 스바 족속은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았으며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들이 살던 지역에서는 금과 보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어 무역이 활발했던 것 같다(왕상 10:1-10). 여호와와 찬송을 전파하기 위해 이들이 갖고 올 금과 유향(乳香)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예물(마 2:11)을 생각나게 한다 (6b절).
- (3) 게달 족속과 느바웃 족속은 모두 아라비아 종족의 분파인데 아라비아 사막 북쪽, 유프라테스 강 하류 지역에서 생활했었다. 이들은 양과 소를 많이 양육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양 떼를 번제용으로 기꺼이 받으신다고 했다 (7절).
- (4) 9절의 '섬들'은 아마도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당시에는 페니키아가 이 일대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다. 다시스 역시 스페인 남방에 위치한, 페니키아의 식민지(植民地)였다.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것' (8절)은 흰 돛을 펴고 항해하는 페니키아의 무역선에 대한 묘사이다.
- (5) 위에 열거한 열방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서남북 사방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본귀절들은 세계 만민이 사방에서 몰려와 시온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견(豫見)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절).

8. **㉠ 시온이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0절)**

- ㉠** (1) 시온은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 징계를 받았다.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시온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 (3) 즉 시온은 어떤 의로움이나 아름다움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음탕(淫蕩)한 고멜(호 1:3)과 같은 시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나 성도가 단 하루도 온전히 지탱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애 3:22; 고전 15:10).

9. **㉠ 시온의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시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해 성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이것은 교회가 구원받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찾아오는 자들을 환영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 (2) 또한 시온은 성(城)의 주인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성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시 24:7-10). 왕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참조, 계 3:20).
- (3) 더우기 시온은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 위해 성문을 열어 두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열 것을 원하신다(참조, 계 3:8).

10. **㉠ 시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한가? (12절)**

- ㉠** (1)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너(시온)를 찾지 않는 백성' 혹은 '너를 따르지 않는 백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
- (2) 출애굽 직전 장자(長子)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되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에 있었던 자들은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화를 면할 수 있었다(참조, 출 12:48, 49).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예외 없이 재앙을 당하고 말았다(출 12:30).

(3) 스가랴 선지자도 시온을 찾지 않는 열방은 만날 것이라 경고했다(슌14:17-19).

(4) 이러한 점들을 고찰해 볼 때, 우리는 요즈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들의 견해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11. ㉠ 시온에 붙여진 명칭들을 설명하라 (13-15, 18절).

㉠ (1) 본장에서 시온은 ‘하나님의 거룩한 곳’ (13a절), 혹은 ‘거룩한 자의 성읍’ (14b절)이라고 일컬어진다. 이러한 명칭들은 교회가 거룩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딤펵전3:15)이므로 거룩하며, 거룩한 자들의 모임(시89:7)이므로 거룩하다.

(2) 시온은 또한 ‘여호와와 성읍’이라고 불리어진다(14절).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성읍’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치리(治理)하시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여호와)의 발 들 곳’ (13절)이라는 말은 시온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말과 같은데(시99:5), 이 역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3) 그리고 시온은 ‘영영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15절). 이러한 표현은 세상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을 가리킨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흠모(歎慕)할 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하며 기쁨을 주는 곳이 되어야 한다.

(4) 한편 시온의 성벽이 ‘구원’으로, 그 성문이 ‘찬송’으로 칭함을 받는 것은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여 준다(18절). ‘구원’은 선교의 기능을, ‘찬송’은 예배의 기능을 암시하는 말이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소화해 내었다(행2:47).

12.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칭들을 설명하라 (16절).

㉠ (1) 첫째,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자’라는 말은 ‘도와 주는 자’, ‘보호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2) 둘째, 하나님은 자신을 ‘구속자’라고 말씀하셨다. ‘구속자’란 ‘값을 치르고 무엇인가를 산 자’, 즉 ‘소유자’를 뜻한다. 이로 보건대 교회와 성도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참조, 딤펵전3:15).

(3) 셋째, 하나님은 자신을 ‘야곱의 전능자’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결합이 많았던 야곱을 사랑하신 것처럼(참조, 말1:2) 흠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실 것을 암시해 준다. 스바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며 시온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였다(슌3:17).

13. ㉠ 하나님께서 시온을 통치하시는 두 가지 원리는 무엇인가? (17절)

㉠ (1) 하나님은 ‘화평’을 관원(官員)으로 삼아 시온을 통치하신다. ‘화평’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에 있어야 할 통치 질서이다. 사도 바울은 ‘화평’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말하며 그들이 질서있게 신앙 생활할 것을 권유했다(고전14:33, 39).

(2) 또한 하나님은 ‘의’를 감독으로 삼아 시온을 다스리신다. 즉 ‘의’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 질서인 것이다(시48:10).

(3) 오늘날의 교회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실 천국의 예표요 상징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화평’과 ‘의’로써 질서있게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4) 그리하면 교회 내에서 강포(強暴)한 일이나 다툼과 분쟁으로 야기되는 영적 황폐와 파멸이 없어질 것이다(18절).

14. ㉠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19, 20절)

㉠ (1) 빛은 영광을 상징한다(19절; 제21:2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은 장차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가리킨다.

- (2) 그리고 빛은 기쁨을 상징하기도 한다(시97: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은 시온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 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이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속의 큰 기쁨을 시온에게 내리실 것을 예고한 바 있다(35:10).
- (3) 또한 빛은 생명의 원천(源泉)을 상징하기도 한다(시56:13).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빛이 되신다는 말씀은 시온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 (4) 한편 본귀절들은 머지 않아 다가올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의 영광을 예언하고 있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의 빛이 되시는 영화로운 장면을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다(제21:23-25;22:5).

15. ㉠ 구속받은 자들의 최후 상태를 기술하라 (21절).

- ㉠(1) 그들은 모두 의롭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의’는 인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의해 얻게 될 ‘의’이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의 걸음을 밟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61:10).
- (2) 그리고 그들은 영영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을 상징한다(히12:22, 23).
- (3)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나의 심은 가지’라는 말은 좋은 열매 곧 의의 열매를 맺을 줄 아는 하나님의 참백성을 가리킨다(5:1-3;61:3).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말도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한다(엡2:10).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의로운 생활에 힘을 다해야 한다(딤후2:14).
- (4) 더우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榮華)롭게 하는 일은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이다(시50:15).

16. ㉠ 천국의 확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2절)

- ㉠(1) 본절은 천국의 확장, 혹은 복음 전파의 증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 (2) 천국은 작은 자로부터 시작된다. 여기서 ‘작은 자’는 ‘소수의 무리’(눅12:32)를 가리킨다. 천국의 확장은 열심히 헌신하는 소수에 의해 이룩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다(마13:31-33). 겨자씨와 누룩은 처음에는 극히 작아 보이나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모습으로 나타난다.
- (3) 또한 천국은 약한 자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천국의 일군으로 부르셔서 천국 확장의 일익을 담당하게 하신다(고전1:27).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천국 확장 사역에 종사함으로써(눅24:48)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제7:9).
- (4) 하지만 천국 확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경륜을 따라 일군을 택하셔서 천국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신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라’는 말은 구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본장의 요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1절).

# 제 61 장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

단락구분 : 1-3 메시아의 사명 / 4-5 메시아 사역의 결과 / 10-11 메시아 사역에 대한 기쁨

1 주 여호와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2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심으신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4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5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6 오직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7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 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8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9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걸음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1 땅이 짙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들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 1. ㉠ 본장에 나타난 예언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간단한 언급과 함께 재림에 관한 예언으로서 그 재림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가지게 될 기쁨과 영광이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다.
- (2) 그러나 본장에 나타난 사역의 주인공은 얼핏 보아 예언하는 당사자인 이사야처럼 보인다(1, 10절).
- (3) 하지만 예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실 때 본장을 낭독하시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셨다(눅 4:16-21).
- (4) 그러므로 본장에 예언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기록된 성도들의 기쁨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갖게 될 기쁨과 찬양인 것이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믿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한다(히 3:6; 10:23).

## 2. ㉡ 메시아의 사명은 무엇인가? (1-3절)

- ㉡ (1) 첫째,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복된 구원의 소식(담전 1:15)을 선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다(참조, 행 3:22).
- (2) 둘째, 세상에서의 슬픔과 죄의식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치료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있다(참조, 히 5:6).
- (3) 셋째, 죄의 사슬에 매인 자를 해방시키고 자기 백성들에게 화관(花冠)과 기쁨과 찬송을 가득하게 하실 왕으로서의 사명을 가진다(참조, 시 2:6).

- (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의 말씀들이 자신을 가리켜 하신 것임을 지적하셨다(눅 4:21).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본질의 예언은 소망과 기쁨을 제공하기에 넉넉하다.

3. **㉠ 여호와와 신(神)이 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1절)**

- ㉠** (1) 여호와와 신이란 성령을 가리키므로 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참조, 42:1;48:16)이 같이 하신다는 뜻이다(11:2).
- (2)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특별한 개인에게만(참조, 창 41:38;민 27:18) 임하셨으며 또 영속적으로 같이하시지 않고 개인의 임무가 끝나거나 범죄하면 떠나가셨다(삼상 16:13;시 51:11).
- (3)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행 2:1-12) 이후부터는 성령께서 성도들 모두에게 임하시며 또한 떠나시지도 않는다(참조, 요 14:16;고전 6:19).
- (4) 이같이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므로 성도는 범죄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엡 4:30) 꾀방해서는 안 된다(마 12:31;막 3:29).

4. **㉠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성경에 나타난 기름은 몸을 정결케 하거나(에 2:12) 장사지낼 때(마 26:12), 상처의 치료(눅 10:34) 등에 사용되었다.
- (2) 이 같은 기름은 최상의 것(창 45:18), 번영(신 32:13), 형제애(시 133:2), 은혜(마 25:4), 성령(요일 2:20, 27) 등을 상징한다.
- (3) 따라서 기름 부음이 의미하는 바는 성별(聖別, 레 8:11;민 7:1),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직위에 대한 임명(참조, 출 29:7;삼하 10:1;왕상 19:16;대하 22:7), 특별한 명예를 줌(삼상 24:6, 10), 특권의 수여(시 105:15), 하나님의 은혜(시 23:5) 등이다.

5. **㉠ 어떠한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 (1절)**

- ㉠** (1)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출 29:7;30:30).
- (2)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다(왕상 19:16).
- (3)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신다는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상 16:13;왕하 9:3).
- (4) 이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에 대한 임명과 함께 성령께서 같이 하시며 또 성령이 주시는 능력도 받게 된다(삼상 10:1;16:13, 14;단 9:4).
- (5) 그러므로 구원받고 성령께서 같이 하시는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들이는 일에 힘써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참조, 마 25:14-30). 한편 이러한 일을 완전히 행하신 분은 영적 선지자(눅 24:19) 시며 대제사장(속 3:1-5;히 4:14) 이시고 만왕의 왕(눅 1:32, 33;딤펴전 1:17) 되신 그리스도이시다.

6. **㉠ 복음은 어떠한 자들에게 전파되는가? (1, 2절)**

- ㉠** (1) 복음은 가난한 자와 마음 상한 자, 갇힌 자, 슬퍼하는 자들에게 전파된다.
- (2)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음에 세속적인 탐심이 없이 깨끗하고 경건한 자(참조, 마 5:3),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고난을 겪거나 핍박과 학대를 받는 자 등을 의미한다(비교, 마 19:23, 24;눅 12:15-21;16:19-31).
- (3) 또 마음이 상한 자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상처를 받아 위로와 희망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킨다(시 147:3).
- (4) 그리고 갇힌 자들은 죄를 짓고 죄의 사슬에 매인 죄의 종들을 뜻한다(참조, 롬 8:21;갈 5:1).
- (5) 또한 슬퍼하는 자란 인생의 고난(시 90:10)이나 혹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애통하는(참조, 마 5:4) 사람을 말한다.

- (6) 주께서는 이런 겸손한 자들에게 재물(잠22:4)과 영예(잠29:23), 더 큰 은혜와(잠3:34)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다(왕상3:11-14; 대하7:14, 15; 마18:4; 약4:10).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겸손하신 모습(요13:3-5; 빌2:5-11)을 본받아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롬12:16; 골3:12; 벧전5:5).

7. **㉠** 은혜의 해란 어떠한 때를 말하는가? (2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때인 신앙 시대를 말한다(참조, 고후6:1, 2).
- (2) 혹은 광범위한 의미로서 위와 같은 일정한 기간의 제약 없이 인간들이 살아가는 도중에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때를 가리킬 수도 있다(비교, 요1:11).
- (3)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한 말(고후6:2)은 오늘날에도 해당될 수 있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롬2:4; 3:25; 9:22)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신다(벧전3:20).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은혜의 때에 성결해지도록 힘쓰며 전도에 노력해야 한다.

8. **㉠** 신원(伸怨)의 날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주께서 사단을 물리치셔서 사단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시대를 가리킨다(참조, 히2:14, 15).
- (2) 그날은 63:4에 원수갚는 날(히, 음 나감), 구속의 해(히, 쉐나드 계울라이)와 같은 날을 의미한다.
- (3) 마지막 심판 날에(요12:48; 고전15:52)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멸하시는 보응은 곧 성도들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롬21:10; 고후4:17; 히4:11; 계21, 22장).
- (4) 이때에는 죄, 사단, 죽음, 지옥 등이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제20:12-15).
- (5)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 거부한 자들도 원수로 취급되어(참조, 요12:48; 살후1:8) 심판을 받게 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욕을 당하거나(벧전4:12-14) 의를 위하여 핍박(마5:10-12)과 환난(고후4:7-18)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요10:28; 벧전1:5)는 사실을 명심하여 소망을 갖고(엡4:4) 살아야 한다(참조, 롬8:37-39; 엡4:1).

9. **㉠**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란 어떠한 자를 일컫는 말인가? (3절)

- ㉠** (1)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신자를 일컫는 말이다.
- (2) 인간은 원래 부패하여 죄를 행하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여 살인과 음란함과 도적질을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서 전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창6:5; 마15:19; 롬3:10; 5:19).
- (3) 그러나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롬6:23)는 사실을 알고 슬퍼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이다.
- (4)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위로하신다(12:1; 마5:4).
- (5) 이같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요14:16; 고후1:3, 4) 성도들은 당연히 그 근심을 주께 맡겨(요14:1)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한다(참조, 고후6:10; 벧전1:6).

10. **㉠**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가 받을 위로는 어떠한가? (3절)

- ㉠** (1) 그들은 머리에 재를 뿌리는 대신 면류관을 쓰고 기쁨의 기름을 받으며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 (2) 유대인들은 재난이 닥치거나 큰 슬픔이 있을 때 머리에 재를 뿌리고 누더기 옷을 걸치던 풍습(비교, 예4:1, 3; 렘6:26)이 있었으므로 아름다운 면류관(참조, 시132:12; 딤후

4:8; 약 1:12; 벧전 5:4) 을 쓴다는 것은 기쁨을 뜻한다.

- (3) 본절에 나타난 화관(히, 페에르)은 본래 여자들이 머리에 쓰던 아름답고 화려한 관(冠)을 말하며 (3:20) 제사장의 관(출 39:28; 겔 44:18)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 (4) 또 유대인들은 가장 향기롭고 품질이 좋은 향유(香油)를 제사에 사용하였는데 (시 23:5; 45:7; 눅 7:46) '희락의 기름'이란 이를 뜻하는 말이다(참조, 히 1:9).
- (5) 그리고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말미암아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거나(마 5:10-12)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욕을 당하여(벧전 4:12-14)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기쁨으로 채워 주신다.

11. ㉠ 의의 나무란 무슨 뜻인가? (3절)

- ㉠ (1)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성도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다.
- (2) 성경에서는 종종 성도들을 나무(5:7; 마 12:33)나 가지(창 49:22; 렘 23:5; 욕 11:16-24)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요 15:1)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마 13:37)로, 하나님은 심으신 분(시 80:15), 농부(요 15:1)로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 (3)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삶(참조, 갈 5:22, 23)을 살아야 한다(딤후 2:10).
- (4) 이렇게 가지나 나무로 비유된 성도들이 그 본체(本體)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선하시고 은유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열매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 버리듯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된다(참조, 요 15:1-9).

12.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에 관한 예언은 무엇인가? (4-9절)

- ㉠ (1) 그 예언은 유다의 황폐해진 성읍들이 재건되고 억눌렸던 위치에서 변하여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는 명예스런 나라가 되리라는 내용이다.
- (2) 그러나 이 예언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죄의 노예 상태로 있다가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회복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 (3) 즉 구원받기 전의 영혼은 폐허된 집이나 성벽이 무너진 성읍과 같았으나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 복구되고 다시 질서 정연하게 되며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다(비교, 마 12:44; 고전 6:19).
- (4) 또 신자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 당신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과 같이(출 19:6) 이제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왕 같은 제사장'(벧전 2:9)이 되어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섬기게 된다(참조, 시 116:16; 눅 1:74, 75).
- (5) 그리고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큰 평화를 가지게 되며(참조, 욕 42:10) 이 평화와 함께 은유와 기쁨 등 은혜의 확실한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된다.
- (6) 이 같은 메시아 사역의 결과로 그 신분과 상태가 달라진 성도들은 이제 여호와의 전이요 거룩한 제사장답게 행동해야 마땅하다.

13. ㉠ 오랜 포로 기간 동안에 황폐해진 땅과 성읍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4절)

- ㉠ (1) 심고 가꾸는 사람이 없어서 황폐해진 이 땅은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셨던 쟁과 풀이 흐르는 땅이었다(창 12:1; 출 33:3; 민 26:53; 수 23:13-16).
- (2) 그러나 애굽을 나와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타락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왕상 21:26; 왕하 21:11)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하여(신 7:3; 수 23:12) 그 징계로써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으며 그 땅과 성읍은 황폐해졌다(참조, 렘 20:6; 28:6; 겔 30:17).
- (3) 이같이 유대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빼

았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포로가 되는 수모를 당했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아무리 좋은 신앙과 사랑을 가졌어도 방심하지 않고 계속하여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키고 경계치 않으면 안 된다(잠 28:10; 13:18; 딤펴전 1:5).

14. ㉠ 성도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중재자가 필요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2)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범죄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를 사함 받을 수 있었다(참조, 레 1장; 민 18:7; 대하 11:14).
- (3) 즉 일반인들은 죄를 지어도 직접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지 못하고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를 성취할 수 있었다.
- (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딤펴전 2:5; 히 9:15)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행 10:43; 롬 10:13).
- (5) 따라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은 곧 제사장이다(벧전 2:5, 9; 계 1:6).
- (6) 이같이 성도들은 누구나가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므로 그 신분에 맞게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대하 29:5, 31-34).

15. ㉠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위로에 대하여 설명하라(7절).

- ㉠ (1)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과 멸시, 따돌림을 받고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부당함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 (2) 본절에 '너희'로 나타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온 후, 이전의 그 수치와 혼란(51:7, 23; 54:4; 단 9:7, 8) 대신에 자신들의 영토를 얻고(참조, 49:18-21) 그 땅에서 나는 소산(所産)을 취하는 기쁨을 가졌다.
- (3) 또 의로운 사람 욥도 사단의 참소로 인하여 재산을 모두 잃고 가족까지 잃는 환난을 당했지만(욥 1:11; 2:5, 10, 13)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고난을 그치게 하신 후, 재산을 이전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자녀들도 주셨다(욥 42:10-15).
- (4)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나 범죄하여 받는 징계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신다.
- (5) 그러므로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시 125:2; 습 3:12)을 기억하여 그 환난을 견디어 이기면(골 1:11) 더 큰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롬 5:4; 12:12).

16. ㉠ 여호와의 공의는 어떠한 것인가? (8절)

- ㉠ (1) 본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는 바벨론의 불의와 강탈에 대한 분노로 나타났다(비교, 욥 5:16; 시 58:3; 64:7; 92:16).
- (2) 즉 유다가 타락하여 우상 숭배와 이방인과의 혼인으로 범죄하였을 때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것도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께서 수단으로 사용하신 바벨론이 정당하게 통치하지 못하고 불의하며 유다를 강탈하였을 때 바벨론을 미워하시는 사실도 역시 하나님의 공의이다.
- (3)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란 죄와는 반대 개념으로(전 7:20)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헤아리시는 도덕적인 기준이며(26:7) 정의(참조, 신 16:18, 20), 정직(창 30:33; 신 9:5), 공정함(레 19:36; 신 25:15) 등의 의미를 가진다.
- (4) 또 자신의 표준에 따라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언제나 완전하고 옳바르기 때문에

(시 89:14; 습 3:5) 하나님은 공의에 어긋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시며 (욘 37:23) 공의를 굽히지도 않으신다 (욘 8:3; 함 1:13).

- (5)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났으며 (9:7; 습 9:9; 마 27:19; 행 3:4) 인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참조, 창 15:6; 45:24, 25).
- (6) 그러므로 전적으로 불의했던 (64:6)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빌 3:9)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이제 공의를 추구할 사명이 있다 (참조, 1:17).
- (7) 즉 선하며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어 (참조, 마 1:19; 눅 23:50; 요 15:13) 과부들과 (1:17)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렘 22:16) 생활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

17. **㉠** 하나님의 백성을 꺾박한 일에 대한 복수는 누가 하는가? (8절)

- ㉠** (1) 보응 (報應) 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므로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신다 (신 32:35; 시 94:1).
- (2) 본질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바벨론은 (참조, 13장) B. C. 539년에 멸망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받았다 (참조, 13장 **㉠** 1, 2, 8, 9, 10).
- (3) 이같이 유대 민족을 괴롭혔던 많은 적들, 즉 애굽 (출 12:29), 아말렉 (삼상 15장), 바사 (Persia) 의 하만 (에 9장) 등에 대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로우신 기준에 따라 응징 하셨다.
- (4) 또 예수께서도 사람이 자신의 분노로 인하여 복수하는 행위를 꾸짖으셨으며 (눅 9:54, 55)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으며 또한 이에 대해 친히 모범을 보이기도 하셨다 (벧전 2:2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상황이 처했을 때 자신이 직접 혈기를 부려서는 안 되며 (약 1:20) 인내하고 도리어 선한 행위로써 그들을 깨우쳐야 한다 (참조, 창 45:5-15; 눅 6:27, 35; 롬 12:19).
- (6) 왜냐하면 복수는 사람에게 속한 일이 아니고 (잠 20:22) 하나님께 속한 일이므로 사람이 직접 복수를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침해하는 교만이 되기 때문이다.

18. **㉠** 여호와와 백성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들이 만민 가운데 뛰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므로 다른 사람들로 부터 복 받은 자손이라 인정받게 된다.
- (2) 이스라엘은 특별히 강하거나 뛰어난 민족이 아니었으나 바로 약하다는 그 점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었다 (신 7:6, 7).
- (3) 즉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며 복종하기를 원하신 것이다 (출 19:5, 6; 신 7:9-15).
- (4)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높이시고 축복하셨다 (신 28장; 수 5:1; 율 2:23-27).
- (5)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청중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
- (6)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반드시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 온 유하고 자비스러운 성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등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사실을 말한다.
- (7) 이같이 택함 받고 구원을 얻어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닌 (참조, 롬 8:16; 고후 1:12) 성도들은 자신의 선택과 축복에 대하여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참조, 빌 2:12).

19. **㉠**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유대 민족을 단장시키신 모습은 어떠한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어 의의 겹옷을 입히시고 결혼하는 날에 신랑이 사모(紗帽)를 쓰고 신부가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하듯이 아름답게 꾸미실 것이다.
- (2) 본절에 나타난 예언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어 그 죄를 깨끗케 하신 후에 의롭게 여기시고(빌 3:9) 또 결혼하는 날에 신랑과 신부가 치장하듯이 거룩함과 선행, 은유와 경건 등으로 꾸미시겠다는 의미이다(참조, 딤후 2:10; 계 19:14).
- (3)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의 기쁨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성품이 변하여(참조, 갈 5:22, 23)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즐거워하게 된다.

20. ⓐ 회복된 유다 민족의 찬송을 설명하라(11절).

- Ⓐ (1)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만 있을 뿐이다(비교, 속 3:20).
- (2) 즉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당연히 있어야 하며(참조, 출 15:2; 시 118:14)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 (3) 또 땅이 싹을 내고 뿌려진 씨앗이 움터 자란다는 것은 곧 언약의 회복을 가리킨다.
- (4)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멸하신 후(창 6-8장)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땅에 심음과 거둢이 계속되리라고(창 8:22) 말씀하셨다.
- (5) 그러므로 땅이 싹을 내고 그 싹이 자란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어 영생을 주시겠다는 언약의 증거를 가리킨다.
- (6)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롭고 감사한 구원의 사역에 대하여 찬송하여야 하며(참조, 대하 23:18; 마 26:30; 행 16:25) 이 찬송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계 5:9-14).

21. ⓐ 온 세상 앞에 나타날 구원받은 자의 찬송은 어떠한 것인가? (1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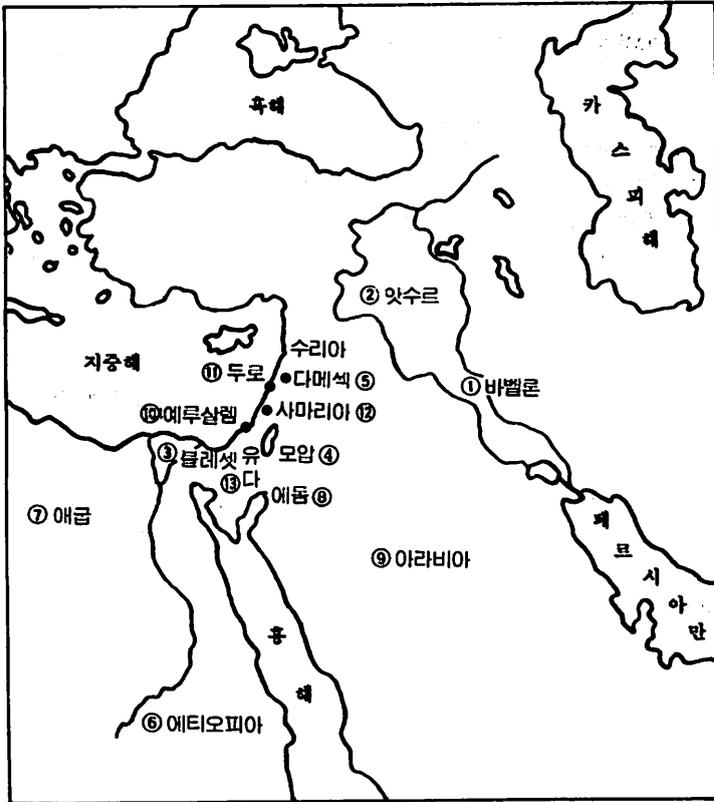
- Ⓐ (1) 구원받은 자가 부를 찬송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義)를 나타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가 있다.
- (2)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찬양을 받아야 영광을 갖게 되는 제한된 분은 아니시다. 단지 찬송을 하는 이유는 성도가 감사해야 할 것을 깨우치고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 (3) 또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참조, 시 50:23; 호 14:2; 히 13:1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찬송을 통하여 기쁨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행 16:25).

본장의 요절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겹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紗帽)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10절).

### 지도자료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  
는 구원이시다'이다. 그는 B. C. 739년부터 B. C. 680년까지 활동하  
면서 지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  
였다.



- |                             |                          |
|-----------------------------|--------------------------|
| ① 바 벨 론 (13, 14, 21장)       | ⑧ 에 돔 (21:11, 12)        |
| ② 앓 수 르 (14:24-27; 33:1-24) | ⑨ 아 라 비 아 (21:13-17)     |
| ③ 블 레 셋 (14:28-32)          | ⑩ 예 루 살 렘 (22:1-25, 61장) |
| ④ 모 압 (15:1-16:14)          | ⑪ 두 로 (23:1-18)          |
| ⑤ 수 리 아 (다메섹, 17장)          | ⑫ 사 마 리 아 (28:1-29)      |
| ⑥ 에티오피아 (구스, 18장)           | ⑬ 유 다 (29:1-31:9)        |
| ⑦ 애 굽 (19, 20, 30, 31장)     |                          |

## 제 62 장 이스라엘의 영광과 새 이름

단락구분 1-5: 이스라엘이 받게 될 영광 / 6-10: 계속 간구할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 / 11-12: 이스라엘이 받게 될 새 이름

1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2 열방이 네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3 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것이라

4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험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빨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5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네 아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6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숫군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

아 너희는 쉬지 말며

7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8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9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10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들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쁨 들라

11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임하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음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12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와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 1. ㉠ 본장의 예언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전장(61장)과 연결되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 영광, 그로 인하여 받게 될 새로운 칭호들을 예언한 내용이다.
- (2) 본장의 예언을 신약적으로 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게 되는 기쁨과 새 이름을 묘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3) 또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그러한 구원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야 함도 역설하였다(6, 7절).
- (4) 이러한 간구는 오늘날의 성도들도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다.

### 2. ㉠ 시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절)

- ㉠ (1) 본절에 표현된 시온이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인데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59:20; 왕하 19:21; 욕 11:26).
- (2) 한편 장소적인 의미로서의 시온은 다윗이 빼앗은 여부스 족속의 요새(삼하 5:6-9)이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올린 곳이고(대하 5:2) 성전이 있던 장소(8:18)를 가리킨다.
- (3)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의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시 125:1), 교회(히 12:22, 28), 영원한 성읍(히 12:22, 28), 하늘나라(계 14:1) 등을 뜻한다.

- (4) 이와 같이 시온으로서의 성도들은 이제 그 신분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 생사 회복이 모두 주님과 연결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된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모든 삶의 기준을 주님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시 73:25, 26; 고전 10:31).

3. **㉠** 구속받은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정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여호와께서 새 이름을 정하시는 뜻은 이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행하였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없었던 것으로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어 새로운 존재로서 대우하신다는 의미이다.
- (2) 여기서 이름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 어떤 대상의 이름만으로 그 속성이나 내용, 상태를 은밀하게 시사하는 표현법이 많이 사용되었다(참조, 29:7; 창 11:9; 욥 1:20; 호 1:9).
- (3)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시기도 하고(7:14; 8:3; 호 1:4, 6, 9; 마 1:21; 눅 1:13) 그 이름을 바꾸기도 하시며 설명을 하기도 하시고(창 17:5, 15; 32:28; 삼하 12:25) 온전한 새 이름을 지어 주기도 하신다(계 3:12).
- (4)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마 28:19)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신다(시 25:1; 요 17:11).
- (5) 한편 이전에 진노의 자녀라는 이름(엡 2:3)을 갖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영한 새 이름을 받았으며(56:5) 그 새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었다(눅 10:20).
- (6) 이같이 성도들이 지닌 새 이름은 마지막 심판 날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실 이름이다(계 3:5).
- (7) 이같이 새 이름을 가졌어도 신자들의 행위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사탄 교회처럼(계 3:1) 하나님으로부터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된다(비교, 고후 4:16).

4. **㉠** 하나님 손의 면류관이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라(3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당신의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여기셔서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렘 13:11).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경건하고 거룩된 생활로 하나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 버려졌던 유다의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4절)

- ㉡** (1)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동안 황폐해졌던 그 땅은 복구되고 회복되어(61:4, 5) 결혼의 기쁨과 같은 즐거움을 갖게 된다.
- (2) 사실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버려진 자로 믿고 있었으며(49:14) 그들의 땅은 포로 기간 동안에 황폐(히, 썸마)되었다(참조, 렘 34:22; 44:2, 6; 겔 33:29; 36:34).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결과 황무지 같았던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게 무너진 그 성읍들에 성벽이 재건되고 사람들이 거하게 되었다(겔 36:35).
- (4) 또 구원받은 유다를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라는 뜻의 <헵시바>라 하고 그 땅을 '결혼한 여자' 라는 의미의 <뿔라>라고 했다.
- (5)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비의 이름(왕하 21:1)이며, <뿔라>는 결혼한 여자를 뜻하므로 이 두 단어는 모두 결혼을 상징한다.
- (6)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와 결혼하신 모습을 비유한 것이다(참조, ㉠ 6).

(7)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그 백성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황폐해진 영혼을 복구하여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주신다.

6. **㉠** 하나님과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관계로 비유되었는가? (5절)

- ㉠** (1)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2) 즉 4절에 그 백성들을 ‘헵시바’와 ‘빨라’라고 칭한 것은 본절에서 더욱 명확하게 해설된다.  
 (3)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 교회는 아내로 묘사된 표현은 구약(49:8; 54:5, 6) 뿐만 아니라 신약에도 나타난다(참조, 엡 5:22-32; 계 19:7).  
 (4) 또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피값을 주고 사셨으며(행 20:28) 당신의 터 위에 세우시고(엡 2:19) 거룩하게 하셨다(엡 5:26, 27).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사랑하듯이(시 147:11; 렘 32:41) 교회를 돌보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잘 표현된다(참조, 롬 16:16; 엡 4:12; 5:25; 골 1:13).  
 (6)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부이며 거하시느 처소요(엡 2:22), 양 떼인(벧전 5:2) 교회가 잘못했을 때는 책망하시고, 올바른 길을 걸을 때는 칭찬도 하시면서 바르게 되기를 원하신다(계 2, 3장).

7. **㉠**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6-9절)

- ㉠** (1) 여호와께서는 구속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2) 먼저 유다 민족에게 파수군을 세워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또 파수군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지 않으시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항상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모하신다.  
 (3) 또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많은 소득을 얻게 되어(시 67:5, 6) 유다 민족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4) 즉 구원받은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신앙과 그들이 갖는 만족과 평안과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여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

8. **㉠** 파수군의 임무는 무엇인가? (6, 7절)

- ㉠** (1) 본절에 나타난 파수군은 회복된 유다 민족이 마음이 풀어져서 나태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임무를 지녔다.  
 (2) 또 파수군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노하시거나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아보시게 한다.  
 (3) 이 같은 파수군의 임무는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교역자의 사명과 같다.  
 (4) 즉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파수군과 같이 성도들을 잘 가르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렘 3:17; 33:7)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임무를 가진다.  
 (5) 그러나 이와 같은 본분을 잊고서 먹고 마시는 일에 탐욕을 부리거나(56:10-12) 주께서 말기신 그의 백성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렘 50:6)과 양 떼를 흘거나(렘 23:2) 버리는(요 10:12) 등의 악행을 하는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것이다(렘 34:2, 3; 숙 11:17).

9. **㉠**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6절)

- ㉠** (1)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들을 말한다.  
 (2)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하나님께 외치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원하신다(참조, 눅 11:5, 8).  
 (3)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던 야곱의 끈덕짐(창 32:26)같이 간절하

고(마7:7-11) 험없이 (살전 5:7) 계속되어야 한다.

- (4) 또 기도는 순결하고(시 66:18, 19), 회개하는 마음(눅 18:10-14)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14:13) 해야 한다.
- (5) 이같이 바르고 끈덕지게 간청하는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다(41:17; 58:9; 시 91:15; 렘 33:3; 스 13:9).
- (6) 그러나 주의할 점은 불순종(신 1:45; 삼상 14:37; 16:22), 은밀한 죄(시 66:18), 자비를 베풀지 않음(잠 21:13), 율법을 무시함(잠 28:9), 완악함(스 7:13), 의심(약 1:6, 7), 세속적인 욕심(약 4:3) 등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10. **㉠** 예루살렘을 세우는 분은 누구인가? (7절)

- ㉠** (1) 여호와께서 황폐한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셔서 찬양을 받으시게 된다.
- (2) 본질은 문자적으로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기간에 황폐해진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다시 복구하신다는 뜻이다(참조, 스 1:1-4).
- (3) 그러나 이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모으셔서 교회를 완성하신다는 예언의 비유적 표현이다(참조, 갈 4:26-30; 계 21:1-27).
- (4) 이 예언이 있을 당시 예루살렘은 황폐하였지만 끝내 예언은 실현되었고(느 3:1-32; 6:15, 16) 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교회를 이름으로써(행 2:41, 47; 5:14; 14:1)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 (5) 이 같은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의도로 시작되어 인간을 도구로 '쓰심'으로 이루어진다(스 1:1-4; 느 3:1-32; 행 9:15; 롬 10:15).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스스로를 경건하게 훈련시켜서(딤후 6:11; 딤했 2:12)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한다(참조, 롬 6:13).

11. **㉠** 여호와께서 하신 맹세의 내용은 무엇인가? (8, 9절)

- ㉠** (1) 하나님의 백성이 거둔 곡식을 다시는 이방인들에게 약탈당하지 않고 온전히 추수하여 먹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신다는 약속이다.
- (2)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축복하시어 많은 재산이 주셨을 때 그들은 풍요를 이용하여 타락했고 이방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1:7, 8, 21, 22).
- (3) 본질은 곡식이 약탈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 생활을 했던 징계가 끝나고 주님께서 다시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는 뜻이다.
- (4) 그러나 본예언은 신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는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으며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5) 이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풍성한 축복을 맹세하셨듯이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기쁨(시 36:8), 생명(요 10:10), 은혜(고후 9:8), 능력(렘 3:20), 천국에 들어갈 권세(벧후 1:11) 등을 풍성하게 주신다(벧 4:19).

12. **㉠** 여호와께서 하신 맹세를 설명하라 (8절).

- ㉠** (1) 여호와께서 자신의 오른팔로 맹세하시기를 자기 백성의 재산을 지키시리라고 하셨다.
- (2)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오른팔(참조, 신 32:4; 계 10:5, 6) 뿐만 아니라 자신(창 22:16; 암 6:8)과 자신의 삶(겔 17:19), 당신의 이름(렘 44:26) 등을 두고 맹세하시기도 했다.
- (3)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맹세는 해로와도 지켜야 하고(시 15:14) 무심코 맹세한 것도 지켜야만 했다(레 5:1-4).
- (4) 또한 맹세는 위엄있는 어떤 대상을 증인으로 내세워야 하므로 유대인들은 종종 하나님을 맹세의 증인으로 삼았으며(삼상 14:39; 19:6; 20:3; 삼하 15:21; 렘 42:5)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시로 간주되었다(신 6:13; 렘 12:16).
- (5) 그러므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팔로 맹세하신 것은 그분의 선언이 진실

하심과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히 6:13).

(6) 이같이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실 것을 맹세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보호받게 된다(시 18:2; 뱀전 1:5).

13. ㉠ 추수한 자가 산물(産物)을 먹고 여호와의 찬송한다는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9절)

- ㉠ (1) 농사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절(참조, 창 8:22)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혜택으로 말미암아 추수를 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한다(신 11:14; 호 6:3; 율 2:23).  
 (2)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자 수고한 대로 정직하게 거두는 것을 원하신다(시 128:2).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반적인 사회·도덕적 개념에 위배되는 투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악한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되며 성실하게 노력하여 얻는 소득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4) 더구나 무슨 일을 해서든지 돈을 벌어 선교나 구제 같은 하나님의 사업만 하면 된다는 사고 방식은 그 생각 자체부터 옳지 못하다.

14. ㉠ 추수한 자가 그 산물을 하나님의 성소 뜰에서 마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 행동은 추수한 자가 자신이 거둔 첫 열매를 바쳐서(레 2:12; 23:10) 그 해의 소산이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된다는 의미이다.  
 (2) 또 각자가 추수한 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레 14:21-32)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뜻도 있다(참조, 신 12:18).  
 (3) 이 같은 추수의 기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있다는 것 외에도(율 2:14) 남을 돕는 선한 행동을 할 기회를 가진다(참조, 창 18:5-8; 룖 2:15, 16; 롬 12:13).  
 (4) 이같이 성도들도 자신의 정당한 직업에서 받은 정직한 이익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율 2:23-27), 그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5) 그러므로 당연히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참조, 마 6:3, 4, 20; 빌 4:9).

15. ㉠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10-12절)

- ㉠ (1)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와 여호와의 거룩한 백성(12절)이라는 칭호를 받으리라는 예언은 곧 신약 시대의 구원 사역을 상징한다.  
 (2) 즉 세례 요한이 40:3을 인용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파할 때의 표현(10절)과 같다(비교, 마 3:3).  
 (3) 또한 구원하실 유다 민족에게 상을 주신다는 예언(1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히 12:1, 2) 자들에게 상이 약속된 것(딤후 4:8; 약 1:12; 뱀전 5:4) 과도 같다.  
 (4) 더구나 분명한 사실은 귀환하는 유다 민족을 ‘거룩한 백성’, ‘찾은 바 된 자’(12절)라고 호칭한 사실이며, 이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연상하게 한다(참조, 눅 15:11-32).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하시는 일은(61장) 곧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알 수 있게 한다(참조, 시 18:35; 애 3:22, 23; 요일 4:8, 16).

16. ㉠ 만민을 위하여 기를 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이 말은 온 세상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는 뜻이다.  
 (2) 여기에서 ‘기’는 영역 성경에서 ‘증표’(RSV, ensign), ‘표상’(NIV, banner) 등으로도 표현되었다.  
 (3) 또 성경에서 깃발은 여호와의 명칭(출 17:15), 하나님의 구원(시 20:5; 60:4), 보호(아 2:4), 하나님의 능력(아 6:4, 10)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 (4) 따라서 이 말은 유다 민족에게 있어서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주신 하나님의 보호와 권능을 온 세상 앞에 드러내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도 구원해 주시고 사단과 싸울 능력(눅 21:15;엡 6:11, 13), 탐욕을 자제할 수 있는 힘(약 3:2;4:7)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며 드러내야 한다.

17. **㉠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움이 그 앞에 있다란 말은 무슨 뜻인가? (11절)**

- ㉠** (1) 이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은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되지만 바벨론에게는 보움이 된다는 뜻이다.
- (2) 즉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압제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용으로 B. C. 539년 메대에 의해 멸망되었으며(참조, 13장; 단 5:30)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귀환하게 되어(참조, 스 1, 7장) 본질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 (3) 이같이 하나님의 공의는(욥 8:3; 합 1:13)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상과 축복이며, 반대로 신앙이 없거나(요 12:48) 불경건한 자(벧후 3:7) 등 대적자들(34:5; 갈 5:10; 유 1:6)에게는 보움이 되는(참조, 마 25장) 양면성을 지닌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악하고 부정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공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 소망(히 6:9)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고전 13:13).

18. **㉠ 유다 민족이 받은 상급은 무엇인가? (11절)**

- ㉠** (1) 유다 민족의 가장 큰 상급은 포로 생활로부터의 해방이요, 팔레스틴으로의 귀환이다.
-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귀환할 때에 금, 은, 짐승, 성전에 바칠 예물, 제사드릴 짐승 등 많은 재산과 명예를 얻었다(스 1:4-6; 7:15-24).
- (3) 또 B. C. 605년(단 1:2), B. C. 597년(왕하 24:13), B. C. 586년(왕하 25:14; 렘 2:16)에 약탈당했던 성전의 금·은 기명(器皿)들도 되찾았다(스 1:7-11).
- (4) 그러나 사실상 이렇게 많은 재산과 큰 명예와 자유는 아무런 공로나 노력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 주신 것이다.
- (5) 이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끼시는 백성들을 위하여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어떠한을 배울 수 있게 된다.

19. **㉠ 유다 민족이 받게 되는 새 이름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 이름은 '거룩한 백성', '여호와와 구속하신 자',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 등이다.
- (2) 이 이름들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는 명칭으로서 하나님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하여 본장의 예언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준다.
- (3) 즉 거룩한 백성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聖徒)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고전 1:2; 살후 2:13).
- (4) 또 찾은 바 된 자란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에 표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눅 15:11-32).
- (5) 이처럼 새롭게 된 우리들은 구원받은 유다의 찬송처럼(61:10, 11)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을 돌려야 한다(대하 23:18; 계 5:9-14).

<p><b><u>본장의 요절</u></b></p>	<p>'너는 또 여호와와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3절).</p>
-----------------------------	--------------------------------------------------------------------------------------------------------------------------

# 제 63장 하나님의 진노와 과거를 회상하는 선지자의 간구

단락구분 1-6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 7-14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선지자의 기도 / 15-19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선지자의 탄원

1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복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2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뇨

3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5 내가 본즉 도와 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뉘어 구원하며 내 분이 나뉘어 붙들었음이라

6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 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7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니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10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11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12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13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땅아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14 여호와와 그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15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16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17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8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19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1)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은 마지막 신원(伸冤)의 날(61:2)에 있을 원수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언되었다.

(2) 뒷부분(7절 이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이사야의 탄원으로서 그 간구는

64:12까지 계속된다.

- (3) 즉 에돔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대적(마 13:39; 22:44; 롬 5:10)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섭도록 심판하신다.
- (4) 하지만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선지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은밀히 표현하고 있다.
- (5) 즉 대적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지만 반대로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과거에 있었던 구원의 역사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2. **㉠ 원수잖는 날에 대적들에게 진노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1-6절)**

- ㉡** (1) 마지막 보응의 날에 대적들에게 원수를 갚는 분은 그리스도시다.
- (2) 본절에 나타난 주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메시아가 에돔의 정복자가 된다는 발람의 예언으로 알 수 있다(참조, 민 24:17, 18; 암 9:11, 12).
- (3) 또 본절에 나타난 자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말씀(요 1:1)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계 19:11-14).
- (4) 즉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신 후(참조, 골 2:15) 이제 그 대적 사단에게 복수하신다(참조, 창 3:15).
- (5)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얼마나 위대하며 또한 끝까지 치밀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다.

3. **㉠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에돔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1절)**

- ㉡** (1) 에돔은 예서의 후손으로서 형제 민족인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에 대하여 잔인하고 앙심이 깊으며 원망이 심했던 민족이었다.
- (2) 이스라엘에 대한 에돔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예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어 그 후손들을 택하신 백성으로 삼았던 사실에 기인한다(참조, 창 27장; 28:3, 4; 32:28).
- (3) 그래서 예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것같이 에돔도 형제국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갖은 애를 다 썼다.
- (4) 즉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자기들의 국경 근처를 지나치는 것을 거절하였다(민 20:14-21).
- (5) 또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와 연합하여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히려 애썼다(왕하 16:6; 대하 20:10, 22; 28:17; 겔 25:12; 35:5; 암 1:11; 욥 1:11).
- (6) 더구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질 때 에돔은 그러한 정경을 보고 기뻐하며 조롱하였다(시 137:7; 애 4:21, 22).
- (7) 이같이 악하여 형제를 괴롭힌 에돔은 그 악행대로 대가를 치루어(34:5-7; 욥 1:15)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 B. C. 135-105) 통치 시대에 유대에 편입되고 말았다(참조, 욥 1:15; 말 1:3, 4).

4. **㉠ 에돔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1절)**

- ㉡** (1) 본절의 에돔은 그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 사단(참조, 욥 2:4, 5; 막 4:15; 뱀전 5:8)과 세상(시 96:13; 요 16:8, 33)을 상징한다.
- (2) 에돔의 성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과 그 속성이 비슷함을 알 수 있다.
- (3) 즉 에돔의 교만한 모습(렘 49:16; 욥 1:3)은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사단의 교만(14:13, 14; 뱀전 3:6)과 비슷하다.
- (4) 또한 형제들을 증오하고 한을 품으며(겔 35:5, 10) 형제의 고난을 기뻐한(욥 3:19; 암 1:6, 9, 11; 욥 12:14) 에돔과 마찬가지로 사단도 성도들을 미워하고 참소한다(참조, 욥 1:10, 11; 2:5, 7; 계 12:10).

(5) 그러므로 본질의 예언은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나타내며 이 복수에 의한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이다(시 110:1-7; 행 2:29-36; 계 19:11-21).

(6) 따라서 성도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실 날까지 소망을 갖고 현재의 환난을 이겨나가야 한다(롬 8:22-25; 골 1:23; 벧전 1:3).

5. **㉠ 그리스도의 옷이 붉은 이유는 무엇인가? (2, 3절)**

- ㉠** (1) 포도즙 틀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 포도의 즙을 낼 때 그 즙물이 문듯이 대적하는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피가 묻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마지막 때 끝 원수값는 날(참조, 61장 ㉠8)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을 건지신 후에 천사가 하나님의 대적자를 거두어 포도즙 틀과 같은 심판대에 던질 것을 상징한다(계 14:14-19).
- (3)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포도 밟듯이 밟아 원수를 갚으시며(계 14:20) 그 피로 말미암아(비교, 욥 3:13; 애 1:15) 옷이 붉게 된다(계 19:13).
- (4) 이렇게 붉은 그분의 옷은 정복자의 옷으로서(나 2:3) 화려한 의복(1절)으로 표현되었다.
- (5) 이같이 마지막 때에는 어차피 완전한 승리가 약속되어 있지만 아직도 죄악이 지배하고 있는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고후 2:14) 죄(롬 6:6, 7; 8:1-4; 엡 2:5, 6; 요일 5:4, 5)와 근심(살전 4:13-18), 세속적인 것들(요 16:33; 요일 5:4)과 싸워서 승리해야 한다(참조, 갈 5:16, 17, 22, 25; 빌 4:13).

6. **㉠ 원수값는 날에 하나님을 돕는 자는 누구인가? (5절)**

- ㉠** (1) 그리스도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으실 때 그분을 돕는 자는 아무도 없다.
- (2) 이 사실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분 혼자의 능력으로 충분하시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막상 그 구원의 혜택을 받게 되는 주의 백성은 연약하고 무력하여(35:3; 마 8:17) 주를 도울 수 없다는 의미도 된다.
- (4)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예수를 좇으며 말씀을 배우고 기적도 보았지만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여 주를 실망시키기도 했다(참조, 마 8:23-26; 17:16-20; 눅 22:54-62). 즉 그들은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혀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고(고전 16:13) 견고해져서(롬 4:20-24) 마귀를 대적하며(약 4:7)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러야 한다(롬 6:13).

7. **㉠ 이전에 여호와께서 베푸셨던 긍휼과 은총을 말한 사람은 누구인가? (7-14절)**

- ㉠** (1)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자비와 은총을 말한 자는 선지자 이사야이다.
- (2) 즉 6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주체이셨으나 이제 내용이 바뀌어 7절부터 64:12까지는 주께 향한 선지자의 기도가 나타나 있다.
- (3) 그 간구 가운데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회상하는 부분이다.
- (4)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또한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던 사실을 언급하였다.
- (5) 이같이 신앙 생활에는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셨던 도움을 기억하여(신 32:7; 시 98:3)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8. **㉠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8절)**

- ㉠** (1)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셨다.
- (2) 여호와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출 19:5; 신 14:2) 양같이 인도하시며(시 78:52; 100:3)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신 26:19; 삼상 12:22; 시 29:11).

(3) 그렇지만 특별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시험했고(출 17:1-7), 우상을 숭배하였으며(출 32:1-35; 사 2:8-23; 대상 5:25)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고(시 106:14-33)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왕상 11:4-40; 스 10:10, 13) 등의 많은 악행을 저질렀다(참조, 왕상 16:1-7; 대하 33:1-10).

(4) 이렇게 이스라엘은 악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짓을 행치 않는 자녀는 결코 아니었다(10절).

(5) 이같이 불순종하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뜻은 그들이 거룩하고 참되게 살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신앙을 갖기 원하신다는 의미이다(참조, 마 11:21; 고전 2:10, 11).

(6)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백성이 된(참조, 갈 3:9, 14)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에 맞게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빌 2:15; 살전 2:12).

9. **㉠**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9절)

**㉠** (1) 그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동정하시어 그 환난에 동참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동정하시고(출 2:23, 24; 3:7, 17) 그 고난에 동참(同參)하셨다.

(3) 또 바울이 개종하기 전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고 말씀하시어 주께서는 그의 백성들과 함께 환난과 핍박을 당하신다는 사실을 지적하셨다.

(4)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며 지내도록 하지 않으시고(애 3:33) 구원을 부르짖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며 끝내는 환난에서 건지신다(참조, 시 103:13).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당하는 성도와 같이 하시며(시 91:15) 그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시 31:7)을 기억하여 낙심치 않고(엡 3:13) 오래 참으면서(롬 12:12; 약 5:11) 환난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롬 5:3; 약 5:11).

10. **㉠** ‘자기 앞의 사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9절)

**㉠** (1) ‘자기 앞의 사자’ (히, 말레야크 파나무)는 ‘그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자’로도 번역이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2)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출 14:19; 사 15:6; 행 27:23), 여호와의 사자(창 16:7; 민 22:23; 사 13:3)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이 말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자요 언약의 천사이신(말 3:1) 예수 그리스도도 가리키기도 한다(참조, 히 1:3-6).

(4) 따라서 본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환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임재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이다(비교, 출 19:4; 민 20:16; 신 1:31; 32:11; 호 11:3).

11. **㉠** 주의 성신은 누구인가? (10절)

**㉠** (1) 하나님의 신격(神格)에는 삼위(三位)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참조, 마 28:19).

(2) 이러한 삼위는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며(참조, 요 1:1, 3, 18; 행 5:3, 4; 고전 2:10) 일체(一體)를 이룬다(왕상 8:60; 44:6).

(3) 주의 성신이란 3위이신 성령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영’(61:1; 마 10:20)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롬 8:9; 벧전 1:11)으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4)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에 같이 계시셨으며(창 1:26, 27) 구약 시대에도 활동

하셨고(삿 3:10;6:34;삼상 10:9, 10;단 5:11-14)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시고(눅 1:35) 그를 인도하시고(눅 4:1) 능력을 주셨다(마 12:28).

- (5) 이러하신 성령은 구약 시대에는 그 사역이 개인적이고 영속적이지 않은 것같이 보였으나(삼상 16:14;시 51:11) 오순절의 성령 강림(행 2:1-4) 이후로는 성도가 범죄하는 일이 있어도(요일 1:8-10) 성령은 떠나지 않고 항상 같이 하신다(요 7:37-39).
- (6) 이같이 성령이 거하시서(롬 8:11)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들(고전 3:16;6:19;딤후 1:14)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갈 5:22, 23)을 갖도록 노력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엡 5:18-20) 말씀대로 순종하는(엡 5:21) 신실한 성도의 생활을 가꾸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요일 2:27;3:24).

## 12. ㉠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이 표현은 '그를 격동케 하였다', '그를 슬프시게 하였다' (시 78:40, 41)는 말과 그 의미가 같다.
- (2)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고난으로부터 여러 번 건지시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곧 잊고 거역하므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뜻이다(시 106:43).
- (3) 이같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는 징계만을 초래하지만(엡 4:30) 성령의 사역을 훼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마 12:31;막 3:29).
- (4) 즉 성령의 사역을 사단의 일로 돌리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고 자신을 소망 없는 처지에 놓아 두는 죄 등은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마 12:22-32).
- (5) 그러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들(갈 4:6)은 이미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롬 8:16;히 10:15)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훼방하는 죄는 지을 수 없다.
- (6) 따라서 우리들은 범죄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범할 수 없으므로 우리들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요 10:28-30;엡 4:30;히 7:25;요일 2:1).

## 13. ㉠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한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은 무엇이었는가? (10절)

- ㉠ (1)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은 싯딤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한 일(민 25:1-3), 사사 시대의 우상 숭배(삿 2:11;3:7, 12;4:1;6:1;8:33;10:6;13:1),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 여인과의 결혼(왕상 11:4-40;스 10:10, 13),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심(출 19:5, 6)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왕을 요구한 일(삼상 8:5, 19, 20) 등이다.
- (2) 이외에도 그들은 술한 우상 숭배(삿 10:5-16;왕상 12:26-33;왕하 17:5-23;23:26, 27)로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그 징계로 침략을 받고(신 28:25, 26), 기근을 겪었으며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여(왕하 17:5-23)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왕하 23:26, 27).
- (3) 결국 이러한 반역은 하나님을 격동케 하고 슬프시게 하였다(시 78:40, 41;106:43).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였을 때(삿 10:15;스 10:1)에는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셨다(참조, 삿 3:10;스 1:4-6;7:15-24).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범죄하여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서는 안 되며 혹은 징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 때문이다(비교, 눅 15:21-23).
- (6)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알고 일부러 죄를 지어서는 안 되며 만약 같은 죄가 반복되면 그것에 대한 징계는 더욱 커지게 된다(히 10:26, 27).

## 14. ㉠ 그가 친히 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절)

- (1) 본절에 나타난 이 표현은 주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인하여 벌을 주셨다는 뜻이다.

- (2)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에게나 혹은 범죄한 자들에게 보응을 하사 그들을 치신다(출 3:20; 삼상 5:6, 9; 25:38; 렘 14:19; 행 12:23).
- (3) 즉 '치신다' 라는 말은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인 동시에 당신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징계와 채찍질하는 은총이다(히 12:5-13).
- (4)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징계를 받게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딤후 2:25)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되며(고전 11:32) 의의 열매를 거두는(히 12:11) 등 징계를 통하여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잠 3:12; 히 12:6, 7).
- (5) 그러므로 징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 고침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위로를 받으며 그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긍지로써 일시적인 환난을 이겨나가야 한다(히 12:10-13).

15. **㉠**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11-14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14절).
- (2)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의 뜻대로 그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다(계 4:11).
- (3) 또한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못박혀 돌아가신 구원의 사역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다(요 17:4).
- (4) 이같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고 움직이므로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전 10:13).
- (5)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구원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영광받으시게 된다.
- (6) 또 버려진 자들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나타나게 되어 역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 (7)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생이 되어야 한다(시 73:24-28).

16. **㉠**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1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으며 광야에서 성령을 통하여 같이 하셨던 여호와를 찾았다.
- (2) 여호와께서는 광야에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셨고' (느 9:20), '저희를 인도하셨으며' (학 2:4), '저희를 다스리셨다' (민 11:17).
- (3)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먼저 그들과 같이 하셨던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는 그들의 흠뻑했던 점 중의 하나였다(참조, 사 6:6, 7; 10:10-16; 삼하 12:13).
- (4) 이같이 우리들도 징계를 받을 때에는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

17. **㉠** 선지자의 간구에 대하여 설명하라(15-19절).

- ㉠** (1) 먼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키신 사실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사실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각성시켰다(7-14절).
- (2) 그리고는 이전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였다(15절).
- (3) 또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사실을 들어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하였다(16-19절).
- (4) 마침내 상기(上記) 한 선지자의 간구는 응답받았으며(스 1, 7장) 하나님의 선하심(시 31:19; 65:4)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되었다(참조, 시 99:8, 9).

- (5) 이같이 이스라엘은 평안하면 우상 숭배와 음행을 일삼고 그러다가 징계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악순환의 역사(歷史)를 되풀이하였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려울 때는 물론 즐겁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생활을 가져야 한다(시 62:8; 살전 5:17).

18. **㉠** 선지자는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16절)

- ㉠** (1)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버지요 구속자라고 부른다.
- (2) 여호와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자녀로 삼으셔서(출 4:22, 23)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고(호 11:1)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렘 3:19).
- (3) 아버지되신 여호와(대하 29:10)께서는 항상 그 자녀된 이스라엘에 대하여 긍휼과 동정이 풍성했으며(렘 31:20) 한편으로는 그들이 당신에 대하여 존경과 경외심을 갖기를 원하셨다(말 1:6; 2:10).
- (4) 이러한 아버지의 개념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구속자의 개념으로 연결된다(신 32:6).
- (5)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아버지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개념은 계속 이어져서 성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된다(롬 8:16; 갈 4:6; 요일 4:13).
- (6)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라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49:15; 눅 12:6).
- (7) 그러므로 자녀가 된 우리들은 아버지되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신 30:2)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아버지께 구해야 한다(마 6:9; 7:11).

19. **㉠**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처지가 어떠하다고 호소하는가? (17-19절)

- ㉠** (1)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박케 하사 당신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그 결과로 성전이 유린되고 백성들은 마치 당신께서 버린 자들같이 되리라고 호소한다.
- (2) 이 기도에서 선지자는 출애굽 사건 때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던 사건(비교, 출 4:21; 7:3; 9:12; 10:1)을 기억하여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강박케 하시고 범죄케 하시어 그 같은 환난을 초래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라고 원망하는 듯하다.
- (3) 그러나 이는 마치 상냥한 어머니께 때를 쓰는 고집센 아이와 같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구하는 애정과 신뢰가 깃들인 간구인 것이다.
- (4)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다(약 1:13).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에 버려 두신다’(롬 1:28), ‘그들을 강박하게 하신다’(롬 9:18)는 표현이 있다.
- (6)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단에게 내주어 눈이 멀게 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비교, 삼상 16:15, 23; 욥 1:12; 2:6).
- (7) 따라서 이스라엘의 고난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다(참조, 호 7:13).
- (8) 그러므로 우리들은 환난에 처할 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 혹은 원망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마음이 더 강박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시 31:7; 애 3:31-39; 롬 5:3).

# 제 64장 환난 중의 간구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다 / 5-7 백성의 죄에 대한 고백 / 8-12 용서와 회복을 위한 탄원

1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2 불이 섰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 방향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3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4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5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 죄하므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랫동안 우리에 이르러 구원을 얻을 수 없으리이까

6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패함이 있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

를 몰아가나이다

7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9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10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뒀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12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이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이까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전장에서 시작된 구원을 외치는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 나타난다.  
 (2) 즉 전장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현재의 환난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을 부르짖는 기도이다.  
 (3) 계속 이어지는 본장의 기도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한 다음 유다와 이스라엘의 황무한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며 공평과 구원을 베푸시도록 애원하는 간구이다.  
 (4) 이같이 기도할 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드리며 현재의 환난으로부터 구해 주실 은총을 바라는 기도의 모범이 되기에 적합하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고 어떻게 간청해야 하는가를 잘 가르쳐 준 본장의 기도는 바벨론에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민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이든 간에 환난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 2. ㉠ 주의 강림을 구하는 기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4절)

- ㉠ (1) 전장의 마지막 부분에 (63:18,19) 나타난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참하여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 듯한 슬픈 모습이다.  
 (2)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시며 강림하셨던(참조, 출19:11,18, 20; 시87:7) 권능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그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시어 구원

해 주시기를 간구한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구원과 은혜를 바라는 자에게 찾아오시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 (4) 이같이 기독교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죄인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오신(마9:13; 막2:17; 눅19:10; 요12:47) 종교이다.
- (5)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막10:45; 요18:37; 히10:7).
- (6)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히4:16) 안식(마11:28)과 은혜를(시95:6; 속8:22)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렘31:9).

3. **㉠ 주께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설명하라 (1, 2절).**

- ㉠** (1) 본절에서는 주께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실 때에 불이 섰을 사르며 물을 끓이는 것같이 산들이 진동한다고 그 모습을 묘사했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산들이 요동하고 갈라졌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시18:7)과 엘리야에게(왕상19:11) 나타나실 때도 사용되었으며 미가도 이 같은 모습을 기록하였다(미1:3,4).
- (3)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그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며 만물들은 그분께 떨며 복종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낸다.
- (4) 이렇게 하나님께서 권위와 위엄이 가득한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이유는 그 대적들을 떨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이다(2절).
- (5)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대적들을 보우하시기 위해 강림하신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연결된다.
- (6) 즉 정하신 때(마24:36; 행1:7)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개입하시기 위해 광채 가운데 나타나시게 된다(살후2:8; 딤후6:15; 딤후4:1, 8; 딤후2:13).
- (7) 따라서 성도들은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취될 때까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참조, 롬8:18-22; 계2:2, 3).

4. **㉠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들을 향하여 권능과 은총을 베푸신다는 뜻이다.
- (2)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요4:24) 육신을 가진 인간들처럼 움직일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 (3) 또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느 곳이나 계시기 때문이다(시139:7-12).
- (4) 이와 같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인간과 비슷하게 한탄하시고(창6:7) 질투하시며(출34:14), 웃으시고(시2:4) 주무시는(시78:65) 분으로 묘사한 이유는 성경을 읽는 우리들로 하여금 좀더 하나님의 뜻과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 (5) 또한 하나님을 육신을 가진 인간처럼 묘사하여 그분의 얼굴(창32:30), 음성(신5:22-26), 형상(민12:6-8), 손(시31:15), 팔(신4:34), 눈(왕상15:5), 발(출24:10) 등으로 표현한 사실(출33:21-23)도 같은 의도에서 기록된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의 기록을 문자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그 표현 뒤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벧후1:20, 21; 3:2).

5. **㉠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3절)**

- ㉠** (1) 본절에서 가리키는 '두려운 일'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가나안으로 회복시킨 사실을 의미한다(비교, 신10:21; 삼하7:23; 시49:4; 106:22).
- (2) 이러한 사실은 애굽은 물론 당사자인 이스라엘 자신들까지도 놀랄 만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 (3)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시고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

한 많은 기사(奇事)를 베푸셨다(수10:12-14; 시107:24).

(4) 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는 길은 아무도 막을 수 없으며 그렇기에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신다(시27:5; 31:7; 138:7).

6. **㉠** 주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이 같은 기적을 베푸시는가? (4절)

- ㉠** (1) 주께서는 당신을 경외하고 그 권능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
- (2) 본절에 나타난 ‘자기를 앙망하는 자’(히, 메카케 토)란 말은 ‘자신을 낮추고 주께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란 의미이다.
- (3) 즉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환난에서 구하시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겸손한 자들이다(왕상3:6-14; 눅15:17-21).
- (4) 이같이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57:15) 그들을 높이사(약4:10) 존경을 받게 하시고(왕상3:11-14) 재물(잠22:4)과 영예(잠29:23)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대하7:14, 15).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과 재난(신8:3; 대하12:5-12)이 닥쳐올 때 마음을 더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 환난들은 오히려 전화(轉禍爲福)의 계기가 될 것이다.

7. **㉠** 참된 신(神)은 누구인가? (4절)

- ㉠** (1)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다.
- (2) 하나님 외에는 자신의 사역(事役)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보게 하여 깨닫게 한 신은 아무도 없다.
- (3) 즉 인간들이 만든 우상들은 생명과 능력이 없는 조각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다(참조, 민33:4; 삼상5:1-12; 왕상18:1-46).
- (4) 또 본절에 나타난 신(神)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그 뜻은 ‘강한 자’ 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이방 신들에 비해 참되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되었고(대상17:20; 대하2:5; 시86:6) 특히 하나님의 위엄을 강조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5) 따라서 본절은 그 능력과 행사(行事), 이름 등을 통하여 구원하실 능력을 가진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비교, 41:23, 24).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세상의 권세나 물질로써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신앙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시9:9; 50:15; 살전3:3, 7).

8. **㉠** 사람들이 여호와를 깨닫는 방법은 무엇인가? (4절)

- ㉠** (1) 여호와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믿고 그 힘을 의지하게 된다.
- (2) 또 여호와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참조, 시119:27; 전8:17; 단9:13).
- (3) 즉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욥17:4; 단12:8, 10).
- (4)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은 성도들은 그 지혜를 받은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다(전2:26; 호14:9).
- (5) 또한 하나님께 성경과 세상의 역사(歷史)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구해야 한다(골1:9; 약1:5).

9. **㉠**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이스라엘에 태도는 어떠한가? (5-7절)

- ㉠** (1)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무가치한 자들로 자인하고 있다.

- (2) 사실 그들은 여태껏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룩함을 완전히 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식어 하나님을 떠난 방탕한 삶을 일삼았던 것이다(비교, 1:6; 시 14:3, 4).
- (3) 그래서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
- (4) 즉 그들은 고난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인 자신들의 죄와 신앙적인 나태를 회개하였다.
- (5) 이같이 환난의 원인이 죄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는 그 징계를 참고(롬 12:12) 극복할 수 있게 되며(롬 8:35-37) 나아가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된다(참조, 잠 3:12; 히 12:6, 7, 11).

#### 10. ㉠ 주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족속들과 혼인하는 등의 죄악을 저질러서 주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비교, 신 29:28).
- (2)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대적(시 69:21-24)과 원수들에게(66:14) 분노를 발하시지만(합 3:12, 13) 그때에도 당신의 백성만은 온전히 보호하여 주신다(26:20).
- (3) 한편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마음(막 3:5)과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여 성전을 더럽힌 자들에 대하여 의로운 분노를 발하셨다(요 2:13-17).
- (4) 물론 성도들은 노하기를 더디 해야 하고(잠 14:17) 분한 마음을 오랫동안 품어서는 안 되지만(엡 4:26) 하나님을 모욕하거나(삼상 17:45)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의(참조, 대하 30:6, 10; 말 3:14)에 대하여는 의로운 분노를 발하는 신앙의 열심도 있어야 한다(비교, 민 25:7-13; 느 4:1-23).

#### 11. ㉠ 부정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6절)

- ㉠ (1) 본절에 표현된 부정(不淨)한 자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사람을 가리킨다.
- (2) 구약 시대에는 출산(레 12:2-8), 문둥병(레 13:3, 44-46; 14:44-57), 설정(泄精, 레 15:16-18), 여인의 월경(레 15:19-24),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일(레 21:11; 민 19:13) 등 많은 부정한 것들이(참조, 레 11장; 17:15) 있었다.
- (3) 이러한 것들을 만지거나 부정한 짐승(레 11장)을 먹거나 하여 '부정한 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 의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참조, 레 13:4, 46; 14:8).
- (4) 이같이 하나님께서 부정에 대한 규례를 가르치신 의도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거룩과 성결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레 11:45; 19:2; 20:7).
- (5) 그래서 이 부정과 성결의 개념은 당연히 죄와 죄로 인한 오염, 정결케 됨과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신약적인 청결(마 5:8)의 개념과 연결지어진다.
- (6) 즉 부정한 자가 정결케 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깨끗함을 얻었듯이(레 14:10-20; 15:14, 15, 29, 30)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고전 6:11; 요일 1:7).
- (7)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약 4:8)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벧전 1:22) 자신의 성결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고후 7:1; 딤후 2:21).

#### 12. ㉠ 더러운 옷 같은 우리의 의(義)란 무슨 뜻인가? (6절)

- ㉠ (1) 본절의 더러운 옷이란 월경 때의 여인의 옷(레 15:19-24)을 가리키므로 이 표현은 죄로 인하여 오염된 상태를 의미한다.
- (2) 본절에서 주의할 점은 인간은 원래 깨끗한 존재인데 더러운 옷을 입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애초부터 더러워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 (3) 즉 인간에게는 나면서부터 첫 사람인 아담이 범죄하여(창 3:6) 모든 인류에게 전해진 원

죄 (롬5:12,19)와 스스로가 범한 죄 (시58:3; 롬3:23)가 있다(참조, 창6:5; 마15:19).

- (4) 이러한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롬6:23)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어 (빌3:9) 이전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딤후3:5) 영생을 얻게 되었다(요3:15-36).
- (5) 이같이 의롭게 된 우리들의 새로운 신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잠 15:29) 주의 보호를 받고(잠 18:10)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영광(딤후3:7)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13. ㉠ 환난에 처한 이스라엘의 신앙 상태는 어떠한가? (7절)

- ㉠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도(5, 6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다.
- (2) 즉 그들은 신앙이 식어져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에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것이 되었으며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거나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도 없이 모두가 태만했다.
- (3) 이러한 신앙 상태는 당연히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초래하게 된다(잠 29:1; 롬2:5).
- (4)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징계와 환난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기도 하신다(대하33:12; 시94:12, 1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할 때에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 후 주를 향해 구원을 빌고 주를 붙잡아야 한다(비교, 창32:24-29; 호12:3, 4).

14. ㉠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말은 주께서 그의 백성을 대하실 때에 은총으로 돌보시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무정하시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죄가 크며 더구나 그들이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 (3) 즉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요일 1:9) 스스로 교만하여 죄를 그대로 묵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은총으로만 돌보시지는 않고 징계하시게 된다(참조, 대하32:26).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심령이 죄로 인하여 강박해지기(롬9:18) 전에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총을 빌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힘써야 한다(약4:7-9).

15. ㉠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선지자의 탄원을 설명하라 (8-12절).

- ㉠ (1)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며 성읍들과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관계를 들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으신(8절) 분이시며 그들을 다스리는 왕(8, 9절)이 되시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수 있으며, 또한 구해 주셔야만 한다는 간구이다.
- (3) 그러나 이 기도는 자신들을 구해 달라고만 하는 이기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전마저 불에 타버린 일에 대하여 분노하는 의로운 탄원이기도 하다(10, 11절).
- (4) 이같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상달되어야 하며 그 내용도 무조건 우리의 필요만 간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마 26:39).

16. ㉠ 토기장이이신 주(主)란 무슨 뜻인가? (8절)

- ㉠ (1) 이 표현은 토기장이로 비유된 창조주 여호와께서 진흙과 같은 인간들을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어 창조하셨다는 뜻이다(참조, 렘18:6).
- (2) 선지자가 기도 가운데 이 비유를 사용한 이유는 창조주이신 주께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말라고 간구했던 다윗의 시를 기억했기 때문이다(시 138:8).
- (3) 즉 선지자는 백성들의 존재와 소유를 모두 주의 공로로 돌려 감사의 기도와 함께 공물을 빼돌려 주시기를 원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4) 이 같은 기도로부터 성도들은 자신들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7. **㉠**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기도는 어떠한가? (9절)

- ㉠** (1) 선지자는 여호와께 지나치게 분노하지 마시고 백성들의 죄악을 영원토록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한다.
- (2)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고 경계하신 우상을 숭배하는 죄(참조, 왕상21:26; 왕하21:11)와 이방 족속과 혼인을 한 이스라엘 백성의 죄(참조, 신7:3; 수23:12) 등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 불순종이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주의 '지나치지 않으신' 분노에 의한 '작은 징계'를 구하고 그들의 죄악상을 영원토록 기억하지 마시라고 간구하였다(비교, 렘5:22).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지난 죄악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43:25) 선지자의 이러한 간구는 응답받을 수 있었다(렘31:34).
- (5)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풀어져(엡2:7)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고(히1:3) 해방시키셨다(계1:5).
- (6) 이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지키고(시119:11) 그리스도들의 회함으로(요일2:1) 죄와 싸워서(히12:4) 이겨야 한다(롬6:14-22).

18. **㉠** 주의 백성이란 무슨 의미인가? (9절)

- ㉠** (1) 이는 하나님과 그의 택하신 민족과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에 의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렘31:31-34).
- (2) 주의 백성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뜻하고(출19:6; 신7:6) 신약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가리킨다(벧전2:10).
- (3) 이 같은 주의 백성이란 신분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언약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렘31:31-34; 히9:11-13).
- (4) 이처럼 특별한 신분을 가진 주의 백성들은 세상과는 구별되며(고후6:16-18) 주의 보호를 받고(겔34:22-31)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신8:6; 시119:168).
- (5)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며(잠3:6)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시37:5; 143:8).

19. **㉠** 성전의 파괴에 대하여 설명하라 (11절).

- ㉠** (1) 본절에 나타난 성전은 솔로몬이(대하3:1-4:22) 7년에 걸쳐(왕상6:38) 건축한 첫번째의 성전으로서 바벨론에 의해 불타(왕하25:9-17) 황폐하였다(미3:12).
- (2)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세 번 건축되었는데 제 1의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했던 본절의 성전이고, 제 2의 성전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지은 것으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다(스2:68; 4:1; 6:8, 14; 7:16, 27; 학1:2).
- (3) 또 헤롯 성전이라 불리는 제 3의 성전은 헤롯 대왕(통치 기간, B. C. 37-4)이 건축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배경이 되었으며(마21:12-16, 21; 23:1-39; 눅2:22-39, 42-52; 요2:15-20; 8:20) A. D. 70년 로마의 침입 때에 완전히 파괴되었다.
- (4) 본절에 나타난 성전의 파괴 원인은 이방 세력의 완악함 때문이라기 보다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신앙 때문이었다(참조, 대하7:21).
- (5) 그래서 선지자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대상22:19; 시73:17)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의 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렘7:4).
- (6) 이같이 성전의 파괴가 갖는 의미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거룩한 연합에 오점이 생겼으며 보호자요 구원자라는 여호와의 이미지가 더 이상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7) 그러므로 주의 백성인 성도들은 이 같은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의로우며 거룩하게 생활하여(고전1:30; 딤후2:21)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고전3:16, 17)인 자신들을 항상 성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20. **㉠** 당신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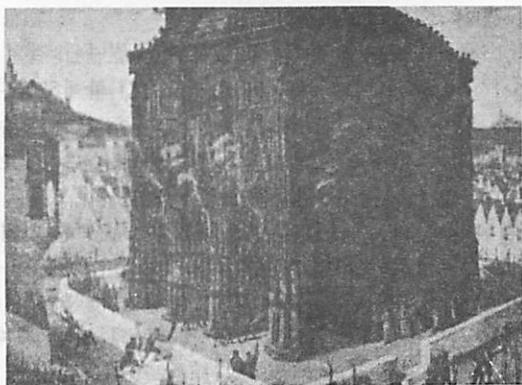
- ㉠** (1)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침묵하시지 않고 응답하사 구원하신다.  
 (2) 본절에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호소하는 기도는 바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다.  
 (3) 왜냐하면 주께서는 죄악이 심히 번창하여 공의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침묵하시기 때문이다(암5:12, 13).  
 (4) 그러므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이스라엘과 같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거나 간구하기를 그쳐서는 안 되며(7절)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한다(시3:4; 렘33:3).

21. **㉠** 선지자의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관에 대하여 설명하라(12절).

- ㉠** (1) 주께서는 본질의 표현대로 침묵하시거나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2)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려는 신실함 때문이다(시102:25-27; 히1:12; 약1:17).  
 (3)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딤후2:13) 주님은 그 백성의 외침에 대하여 응답하시게 된다(시74:22; 83:1; 109:1).

### 화보자료

약탈당하는 성전. 장 푸케가 그린 삽화이다. 이방인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고딕 양식의 성당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B. C. 586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그 후 B. C. 515년 에스라에 의해 재건되었다(스 6:15).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은 A. D. 70년 로마의 장군 디도(Titus)에 의해 다시금 파괴되는 비운을 맞이하였다.

## 제 65 장 여호와와의 응답

단락구분 1-7 여호와와의 보응 / 8-10 남은 자에게 약속된 구원 / 11-16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대한 심판의 약속 / 17-25 새로운 축복과 기쁨

1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2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3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들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4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5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나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6 보라 이것이 내 앞세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7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 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흑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을 위하여 그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9 내가 야곱 중에서 셋을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룰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10 사른은 양 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 떼의 늪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11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갖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므니에게 쉬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12 내가 너희를 칼에 불일 것인즉 다 구푸리고 살륙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치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거하지 아

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나라

13 이리므로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막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릴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14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므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프므로 울며 심령이 상하므로 통곡할 것이며

15 또 너희의 끼친 이름은 나의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희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16 이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나라

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8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 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였고 백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할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p>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p> <p>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p>	<p>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p>
-----------------------------------------------------------------------------------------------------------------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63:7-64:12에 나타난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계속 범죄하여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하시겠다고 응답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선지자의 입을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통해 종말론적인 구원관을 제시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을 위한 축복까지도 말씀하신다.
- (3) 즉 본장에는 신약에 나타난 대로 (행 10:43; 13:40; 롬 16:26)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었고 (1절)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롬 10:9-17)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평화와 기쁨 (제 21, 22장) 등에 관한 예언이 수록되어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장을 통하여 고집스럽게 죄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리게 될 축복과 기쁨 등에 관하여 배울 수 있게 된다.

2. **㉠ 하나님의 보응을 초래한 패역한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1-7절)**

- ㉠**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우상을 숭배하였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다.
- (2) 그들의 범죄는 다양했는데 이방의 풍속을 따라 나무를 숭배하고 제단짓는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3절) 부정한 음식을 먹고 이교도처럼 점을 쳤다 (4절).
- (3) 그러나 자비하신 여호와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출 34:6, 7)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부르셨으나 (2절)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기에 여호와께서 보응을 약속하신 것이다 (7절).
- (4)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무조건 치시고 징계하시지 않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권고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다 (참조, 레 26:9; 왕하 13:23).
- (5)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당신의 택하신 성도들을 향하여 선한 일을 할 것과 염려를 주께 맡기기를 권고하시고 계신다 (벧전 2:12; 5:7).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녀들의 어려움에 대하여 관심을 두시고 도움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권고대로 범사에 주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3. **㉠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셨는가? (1절)**

- ㉠** (1) 여호와께서는 지금까지 당신께 구하지 않던 자들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또 당신을 찾지도 않았던 자들을 만나 주셨다.
- (2) 이 말은 주께서 그러한 자들이 당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허용하셨다 (비교, 겔 14:3; 20:3, 31; 36:37)는 의미이다.
- (3)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창 17:7)의 범위가 확장되어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여호와와 은총과 사랑이 베풀어지게 된다는 뜻이다.
- (4) 이러한 예언은 신약 시대에 와서 구원의 범위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확대되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참조, 롬 10:20, 21) 세례를 받아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된 사실로 (행 2:21) 성취되었다.
- (5) 이같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심으로써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존재를 깨닫게 한 은혜의 종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요일 4:10, 11, 19) 사랑의 종교이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생활을 하여야 한다(잠 8:17; 계 3:20; 22:17).

4. **㉠**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를 듣게 된 백성들의 행위는 과연 어떠했는가? (2, 3절)

- ㉠** (1) 그들은 패역(悖逆)하여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일삼았으며 그로 인하여 여호와의 노하시게 한 백성이었다.
-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때부터 온전하고 강했던 민족이 아니었으며(신 7:7) 택하신 후에도 인간의 악한 생각대로(창 6:5; 마 15:19) 행동했던(삿 2:13; 4:1; 6:1) 백성들이었다.
- (3) 그들의 이 같은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위엄에 대해 경의를 표하지 않고 그분의 권위에 굴복치 않는 뻔뻔스러움을 드러낸 행위이다.
- (4) 그러나 주께서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사실들을 참으시고(비교, 롬 10:21)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권면하셨다(비교, 잠 1:24).
- (5)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48:9; 롬 9:22)을 본받아 우리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인내하면서(시 40:1; 롬 12:12)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히 10:36; 약 1:4).

5. **㉠**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3절)

- ㉠** (1) 이 말은 자연물에 대한 숭배를 의미한다(참조, 1:29; 57:5; 66:17).
- (2) 이스라엘의 어떤 자들은 산에서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고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먹기를 금지한 돼지와 같은 짐승들을 먹고 행음하였다.
- (3) 또 이 제사는 동물 제사, 매춘 행위,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등의 예배 행위가 동반되었다는 점으로(57:5, 6) 보아 고대 근동에 있어서 풍요와 다산의 여신이었던 아스다롯을 숭배한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 (4) 고대 근동의 앗시리아와 바벨론, 가나안 등지에서는 아스다롯(Ashtaroth)이란 여신을 섬겼으며 이스라엘도 가나안 농경 문화권에 정착한 후 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참조, 왕하 21:5).
- (5) 아람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창 1:28) 그분으로부터 멀리 떠났으며, 그분의 진노를 유발했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나 자녀, 물질 등을 더 가까이 하며 아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찬양해야 한다(대하 23:18).

6. **㉠**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 말은 주께서 지시하신 내용대로 주를 섬기지 않고 인간의 풍습대로 편하게 제사드린다는 의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건축하도록 명하셨으나(출 20:24, 25)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듬고 구운 벽돌로 만든 제단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분노하셨던 것이다(비교, 왕상 18:32).
- (3) 한편 앗수르인이나 로마인들처럼 제단을 잘 다듬은 돌로 건축하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 이스라엘의 행위는 외식적이고 이교적(異教的)인 것이었다.
- (4) 이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외적인 경건이나 형식적인 제사보다 중심에서 나오는 참신앙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삼상 16:7; 시 51:6).
- (5)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할 때에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회개를 해야 하며(시 34:18) 모든 선행과 예배도 인간에게 나타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참조, 마 6:2, 5; 23:28).

7. **㉠** 여호와께서 돼지고기를 먹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여호와께서 부정하다고 먹기를 금한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레 11:7, 8; 신 14:8).
- (2)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생활은 신앙의 외적인 표현과 관계되는 일이었으며 그러한 표현을 통하여 자신들이 이방인들과는 달리 특별히 주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만 했다.
- (3) 따라서 돼지고기를 먹어서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귀한 신분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신분을 주셨던 여호와까지도 모욕한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도록 애써야 하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사소한 것 하나라도 고의적으로 어겨서는 안 된다(신 26:16-19).

8. Ⓢ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위선과 교만은 어떠한가? (5절)**

- Ⓐ (1)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스스로를 거룩한 자로 여겨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비교, 겔 44:19; 46:20).
- (2)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통회(痛悔)하는 심령인데(시 51:17) 도리어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자신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겼던 것이다.
- (3) 이러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 속에 숨어 있는 의도는 자신들은 거룩하므로 신실한 충고자들이 하는 말은 들을 수 없으며 더우기 책망은 받을 수 없다는 교만이다.
- (4)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패하며(호 7:9, 10)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교만한자들(렘 43:2)의 행위는 독선적이고(눅 18:11, 12) 전통에 얽매이며(마 15:1-9) 남을 심하게 비판하기도 하며(마 7:3-5) 의무는 소홀히 하면서(마 23:23, 24) 대접받기만을 좋아하는 특징을 지닌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골 3:12; 벰전 5:5) 신실한 충고를 고맙게 받아들이며(비교, 삼하 12:13)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주 앞에 고백하여 은혜를 구하는(요일 1:9)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9. Ⓢ **주께서 패역한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셨는가? (5절)**

- Ⓐ (1)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당신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고 칭하셨다.
- (2) 여기에서 연기관 히브리어로 (아산)인데 주의 '진노의 연기'라는 뜻이다(신 29:20).
- (3) 즉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코에서부터 연기가 나왔다고 표현하기도 했다(참조, 시 18:8; 욥 41:20).
- (4) 또 불은 히브리어로 (에쉬)로서 '불붙는', '화염의' 등의 뜻을 갖고 있으므로 역시 하나님의 불타는 듯한 진노를 나타낸다(신 32:22; 시 18:8).
- (5) 이러한 주의 진노가 '종일' 탄다는 말은 곧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하며 주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가를 보여 주는 표현이다(비교, 66:24).

10. Ⓢ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들을 징벌하실 증거는 무엇인가? (6절)**

- Ⓐ (1)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불순종의 행위는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 책에 모두 기록되므로 이 기록에 의하여 그들은 주의 진노하심대로 벌을 받게 된다.
- (2) 물론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따로 기록할 필요는 없는 분이시지만 본질에 이렇게 표현된 까닭은 그들을 곧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지체하시는 이유가 그들의 죄를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이다.
- (3) 하나님께는 이렇게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 이외에도 다른 책이 또 있어서 심판 날에 그 책들을 근거로 심판을 행하시게 된다(계 20:12-15).
- (4) 그 다른 책을 성경에서는 '생명책'이라고 부르며 그 책에는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빌 4:3; 20:12, 15), 의인의 행위(말 3:16-18; 계 3:5)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상급이(딤후 4:8; 약 1:12; 벰전 5:4) 주어지게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죄를 지었을 때 주께서 당장 징계하지 않으

신다고 하여 다시 범죄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되고 인간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야 한다(비교, 시 73:3; 잠 24:19).

11. **㉠** 패역한 자들에 대한 여호와와의 보상을 설명하라(6, 7절).

- ㉠** (1) 여호와께서는 우상을 숭배하여 당신을 모욕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의 열조의 죄와 합하여 보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즉 우상을 숭배하고(왕하 17:11; 겔 6:13; 호 4:13) 여호와와의 일을 꾀방하여(참조, 37:4, 17, 23, 24) 하나님을 능욕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 (3) 그런데 보용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살람>인데 그 뜻은 '배상하다', '보답하다', '반환하다' 등으로서 주님께서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의미이다(참조, 대하 6:30; 고후 5:10).
- (4) 또 주께서 유다의 범죄를 그 열조의 죄까지 합해서 벌하신다는 의미는 유대인들이 그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 우상을 숭배했기에 그 죄악의 근원인 조상들의 범죄부터 따지시겠다는 의도를 나타낸다.
- (5) 더우기 수백 년에 걸쳐 그들이 계속 범죄하는 동안 주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 없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고와 경고를 무시한 죄까지 범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 (6)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품에' 정확하고도 직접적으로 보용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이 누구이며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악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 (7) 이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여호와께서는 결코 죄악을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며 잘못을 행한 대로 정확하게 보용하시는 하나님(히, 예호와 엘 게물로트, 렘 51:56) 이심을 배우게 된다.

12. **㉠** 주께서 먼저 그 행위를 해아리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7절)

- ㉠** (1) 이 말은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때부터 습관적으로 해 온 음란하고 패역한 우상 숭배의 행위를 벌하시겠다는 뜻이다.
- (2) 여기에 나타난 '먼저' (히, 리쇼나)라는 말은 '전에' (former), '처음부터'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문장은 '내가 그들의 지난 소행부터 철저히 계산하여 그대로 갚으리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 (3)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우상 숭배는 조상 때부터 해 온 풍습이기 때문에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조상의 책임이며 자신들은 그저 풍습대로 계속한 일밖에는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에 대하여 반박하시려는 것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변명은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
- (5)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증히 여기시므로(출 20:3-5) 그 행위는 당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누누히 강조하셨기 때문이다(왕상 18:1-46; 호 4:12-19; 미 1:5-7).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치적인 부정과 사회 풍습에 따른 불의, 여러 세대에 걸쳐 습관적으로 행하여진 악행 등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온갖 일들에 대하여 타성적으로 휩쓸려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고후 7:1; 뱀전 1:16) 신앙을 가져야 한다(롬 12:2).

13. **㉠** 포도송이에 즙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8절)

- ㉠** (1) 이 말은 좋은 포도를 많이 맺지 못하는 나무라 할지라도 아직은 쓸 만한 가지가 있어서 그 나무를 살려 두는 것과 같이 악한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수의 신실한 무리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 (2) 여호와께서는 이전에 유다 백성들을 나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며 저주를 언하셨다(5:1-12).
- (3) 그러나 주께서는 비록 적은 수이지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당신만을 섬기는 경건한 의인들은 축복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리라고(1:9) 말씀하신다(비교, 창 18:32).
- (4) 그러므로 우리는 주위의 모든 상황이 악하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지키면 주께서 기억하시며 끝내는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14. **㉠** 경건하게 여호와를 섬긴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는 무엇인가?(9,10 절)

- ㉠** (1) 주께서 택하신 남은 자들은 당신께서 주신 가나안에서 전과 같이 푸른 초장을 소유하게 되며 그 초장에 양과 소를 사육하는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이다.
- (2) 본절에 나타난 '사론'은 갈멜 산의 기슭에서 용바에 이르는 해안에 접해 있는 평원을 가리키는데 매우 비옥했던 이 땅이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앗수르의 침략을 받고 황무케 되었다(33:9).
- (3) 또 '아골 골짜기'는 여리고 부근의 지역이며 가나안 전체로 볼 때 동쪽 변경으로서 여호수아 때에 아간을 죽였던 사건이 있었는데(수7:24-26;15:7) 그 이미지로 말미암아 매우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 장소로 여겨졌다.
- (4) 본절에 이렇게 두 장소만을 예로 든 이유는 이 두 곳이 요단 강 서쪽 지역에서 동쪽 끝과 서쪽 끝에 위치하므로 그 땅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5) 주께서는 이런 땅들을 목초지로 변화게 하시어 가축들이 자랄 수 있게 하신 것은 오로지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이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을 믿고 따르는 경건한 백성들에 대하여 영적인 축복 뿐 아니라 현세적인 축복까지 베푸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딤펵전 4:8).

15. **㉠**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의 행위를 설명하라(11,12 절).

- ㉠** (1)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선지자들을 통한 경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였다.
- (2) 그들이 섬긴 우상 가운데 길운(吉運)을 가져다 준다는 페니키아의 신 '갓'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예배 행위는 잘 알 수 없으나 수 11:17에 나타난 '바알갓'이라는 명칭으로 보아 바알에 대한 경배 행위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 (3) 또한 '므니'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수를 세다', '분배하다'라는 뜻의 '마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아 이 역시 행운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숭배된 듯하다.
- (4) 이러한 우상들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죄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다기 보다도 여호와와 행운의 신들을 겸하여 섬긴 데 있었다(출 32:7,8).
- (5) 즉 그들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가 된 하나님을 무시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다(참조, 시 103:19).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우연'이나 '기적', '행운' 등을 기대하거나 섬겨서는 안 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마 10:29; 히 1:3) 주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신다(행 17:27,28)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만을 믿고 바라며 의지해야 한다(참조, 욕 37:10,12).

16. **㉠** 악한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긴 모습은 어떠한가?(11 절)

- ㉠** (1) 그들은 행운의 신 갓(NIV, RSV, Fortune)에게 상을 베풀어 놓고 제사를 드리며 운명의 신 므니(NIV, RSV, Destiny)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어 가며 섬겼다.
- (2) 이같이 본절에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악한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소홀한 반면에 얼마나 열심히 우상을 섬겼는가를 보여 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 (3) 이같이 유대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에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제공하였는데 심지어 암몬의 우상(왕상 11:7)이었던 몰록(Moloch, Molech)에게는 자신들의 자녀까지 제물로 바칠 정도로 광신적인 열정을 지니고 있었다(왕하 23:10).
- (4) 오늘날에도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서 인간이 만든 불상을 섬기거나 점(占)을 치는 일, 인간을 구주로 섬겨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쫓아다니는 등의 행위가 있다(비교, 마 24:11; 계 13:14; 19:10).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출 34:14)을 깨닫고 항상 주님만 섬기고 그분께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시 2:11; 히 12:28).

17. **㉠** 여호와께서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기쁨을 설명하라(13, 14절).

- ㉠** (1) 여호와께서는 신앙을 지켜 우상을 섬기지 않은 당신의 종들을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그들이 즐거워 노래하게끔 위로하신다.
- (2) 반면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주리게 되고 갈(渴)하게 되며 수치를 당하며 그 심령이 상하여 통곡하게 된다.
- (3) 주의 종에 대한 이러한 위로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고전, 4:11) 심적(心的)이며 영적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 (4) 즉 악인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 일이 행통하여도(시 73:3) 그 마음은 평화가 없이 불안하며(48:22; 57:20, 21) 슬픔이 있고(시 32:10) 영적인 소망이 없으며(시 92:7; 잠 4:19) 여호와의 보응의 대상이 된다(삼하 3:39; 시 91:8; 딤후 4:14).
- (5)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비록 재물이 없고 남들이 알아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시 90:14; 함 3:17-19).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막 13:11; 벰전 5:6, 7)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간구하면(마 7:7-11) 주께서 허락하시고 평안을 주신다(마 6:25-34; 눅 12:22-30).

18. **㉠** 여호와의 종들이 다른 이름을 갖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15절)

- ㉠** (1) 여호와께서 이전에 택하셨던(신 7:7; 14:2) 백성들이 그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여 여호와의 저주거리가 되었기에 다른 이름이 필요하게 되었다.
- (2) 본절에 나타난 다른 이름(KJV, NIV, Living Bible, another name)이란 62:2의 '새 이름'(new name)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 (3)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범죄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에게는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 (4)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과신(過信)하여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으로 착각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렘 13:15; 43:2)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참조, 호 7:10).
- (5)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직분이나 명예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오직 겸손한 충성만이 주님께 열납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참조, 대하 7:14, 15; 약 4:6).

19. **㉠** 진리의 하나님이란 무슨 의미인가?(16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헤 아멘>이며 그 뜻은 '아멘의 하나님'이다.
- (2) '아멘'은 '지하다', '...을 신뢰하다' 등의 원 뜻을 지니며 성경에서 사용될 때는 '진실로', '반드시' 등의 의미로 표현되었다.
- (3) 즉 구약에서 맹세(민 5:22; 신 27:15), 동감(왕상 1:36), 기도와 축복의 끝(대상 16:36)에 쓰여졌다.
- (4) 또 신약에서는 거의 맹세를 나타내는 '진실로'(마 5:18, 26; 6:2)라는 표현으로 쓰여지

기도하고 기도의 끝(롬9:5; 고전 14:16)에도 사용되었으며 계 1:7에는 동감의 표시로 쓰여졌다.

- (5) 따라서 본절의 표현은 이방인들의 거짓된 우상과 대조되어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 (6)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마음이 변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고(히 1:12; 약 1:17)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말 3:6).

20. **㉠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대하여 설명하라(17-19절).**

- ㉠** (1) 주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어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 (2)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마 3:2; 4:17; 12:22-29).
- (3)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속할 나라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마 13:30, 38-43).
- (4) 따라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등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벧후 3:13; 계 21:2-4).
- (5) 그러므로 이 영적이며 영원한 나라(롬 14:17; 벧후 1:11)의 시민이 된 성도들은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전파하기에 힘쓰며(행 8:12)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빨리 그 나라가 완성되도록 기도해야 한다(마 6:10; 골 4:11).

21. **㉠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어떠한가? (19, 20절)**

- ㉠** (1) 그곳에서는 울거나 부르짖음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수명이 차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는 생활이다.
- (2) 이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연합한 상태를 의미한다(참조, 벧전 4:13; 계 7:10).
- (3) 또 수명이 차지 못하고 죽는 자가 없다는 말은 성도들의 삶이 만족되지 못하여 죽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비교, 눅 2:25-35).
- (4) 반면에 악인들의 인생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불행할 것이다.
- (5)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저주를 받고 진노의 날을 살기에 장수하면 할수록 그들의 죄와 악은 쌓이게 되며 그에 비례하여 받아야 할 심판도 커지기 때문이다(비교, 호 2:13).
- (6) 그러므로 중요한 사실은 지상에서의 삶이 길거나 짧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죄인의 삶을 사는가의 구분이다.

22. **㉠ 구원받은 자들의 평안한 삶을 설명하라(21, 22절).**

- ㉠** (1)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며 자신들이 재배한 포도의 열매를 먹게 된다.
- (2) 그리고 그들은 보호자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목적인 바를 얻으며 그 얻은 것은 안전하게 보존되고 택함 받은 자들은 오래도록 그것을 즐기며 살아가게 된다.
- (3) 이와 같은 축복들은 모두 손수 일하여 받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전 3:13).
- (4)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금 지니고 있는 현세적인 축복은 영적 위안물을 상징하며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온갖 영적인 위안을 누리게 된다.

23. **㉠ 구원받은 자들의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과의 관계를 설명하라(22, 23절).**

- ㉠** (1)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수고하여 집을 짓고 작물을 재배하여 그 열매를 얻을 때에 타인의 침입이나 재난이 없이 그 수고한 대로 온전하게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가리킨다.
- (2)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은 비록 부자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재산을 지키지 못

한다(눅 12:16-21).

- (3) 따라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허탄한 말을 하며 방탕하여 의미 없는 생활을 한다(참조, 전 2:20-23;6:3).
- (4) 그러나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 주께 감사하는 신앙을 허락하신다(전 2:24-26).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고하여 생활에 필요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직장 일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성실해야 한다(참조, 살후 3:7-12).

24. ㉠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24절)

- ㉠ (1) 주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부르기도 전에 대답하시며 그들이 말을 끝맺기도 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 (2) 즉 구약 시대에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증보가 필요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성소의 휘장을 가르시고(마 27:51) 승천하셨기에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요 14:13; 히 10:10-14).
- (3) 따라서 본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하시며(마 6:32)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시는 은혜를 표현한 것이다(참조, 롬 8:26, 27, 37).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러하신 사랑과 도움을 힘입기 위하여 더욱 순결하고 겸손하며(눅 18:10-14) 또한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히 4:16).

25. ㉠ 하나님의 성산(聖山)의 모습은 어떠한가? (25절)

- ㉠ (1) 그곳에서는 주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원래의 질서를 회복하여(비교, 창 1장) 서로 해치거나 상처를 받는 일없이 평화스럽게 살게 된다.
- (2) 여기에서 성산(聖山)이란 곧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교회를 가리킨다(11:9).
- (3) 본절에 나타난 평화스러운 정경은 원래 주께서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다.
- (4) 그러나 만물들을 다스려야 했던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타락하여서(창 3:14-19) 서로 해치고 상처를 입는 악한 곳이 되었다.
- (5)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탄식하며 회복의 때를 기다리게 되었으며(롬 8:22) 그 회복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이다(참조, 골 1:20).
- (6)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악의 근원인 죄가 없어질 것이며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대로 평화만 가득하게 될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도는 재림의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본장의 요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

## 연구자료

### 사론 평야(the Plain of Sharon)

‘사론’ (히, 샤흐)이란 말은 ‘평지’, ‘평야’, ‘평원’이란 뜻이다. 사론 평야는 일명 ‘하쉬’ 사론’ (Hash-sharon)이라고도 하는데 북쪽 갈멜 산(the Mount of Carmel)에서부터 남쪽 욥바(Joppa)에까지 이르는 팔레스틴의 해안 평야이다. 이 평야는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데 전체 길이가 약 80km에 달한다. 그러나 지형상의 관계로 폭은 일정치가 않아 그 넓이는 13-16km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에 볼 수 있는 이곳의 기복(起伏)은 지질 시대의 제일 마지막 기(期)인 제4기(Quaternary)에 형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 평야에서는 붉은 모래 층(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대개 이러한 지대는 토질이 비옥하므로 참나무(oak)가 무성하게 자라 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구릉 지대에는 자연 초지(草地)가 형성되어 있으며 갖가지 아름다운 야생화가 만발해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높낮이가 심하므로 이곳에 대한 개발은 다소 늦게서야 이루어졌다. 욥바 근처의 탐사 작업 결과 이곳에 대한 개발은 B. C. 120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사람들이 소단위로 모여 거주하였던 터가 몇 개 발굴되었다. 한편 성경에는 다윗이 시드래(Shitrai)에게 명하여 사론 평야에서 자신의 소 떼를 맡아 기르도록 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시드래를 가리켜 ‘사론 사람’(Sharonite)이라고 일컫기도 한다(대상 27:29).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30여 년 전부터 이곳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을 시작하여 지금은 관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오렌지 농장 및 다른 상업적인 농장 지대로 가꾸어 놓았다. 하지만 ‘사론’하면 우리는 아직도 성경에 나오는 ‘사론의 수선화’(아 2:1)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론 들녘에는 수선화(Narcissus tazetta) 뿐 아니라 아네모네(Anemone fulgens), 튜울립(Tulipa sharonensis), 풀무레나무(Cistus) 등이 만발한다. 이러한 꽃들은 인간이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햇빛을 비추어 키우시는 것으로서 우리들이 무한한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한편 성경에는 사론 평야를 의미하는 ‘사론’ 외에도 다른 곳을 가리키는 동일 지명이 두 곳 나오는데 수 12:18과 대상 5:16이다. 그러나 수 12:18의 사론(일명 랏사론)은 다불 산(the Mount of Tabor)과 디베라(Tiberias) 사이에 위치한 사론 지방을 의미하며 대상 5:16의 사론의 모든 들은 확실치는 않지만 헤스본(Heshbon)과 아르논(Arnon) 골짜기 사이에 있는 길르앗 고원을 의미하는 것 같다.

## 제 66 장 마지막 경고와 약속

단락구분 1-6 가증한 신앙에 대한 책임 / 7-14 신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한 위로 / 15-17 여호와와의 진노 / 18-21 왕국에 참여하게 될 이방인들 / 22-23 새 세상에서의 영원한 경배 / 24 패역한 자들의 멸망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 소름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쥐 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4 나도 유희를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 이니라 하시니라

5 여호와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6 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용하시는 목소리로다

7 시온은 구로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8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입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가라사대 나는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달겠느냐 하시니라

10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 너희가 젖을 떠는 것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떠는 것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14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와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났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리라

15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응위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16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륙당할 자가 많으리니

17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18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피한 자를 열방 곧 다시스와 팔과 활을 당기는 뜻과 밧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2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차와 노세와 약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21 나는 그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2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23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월삭과 대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24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불 붙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1. **㉠ 본장의 예언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앞에서 언급된 많은 예언들의 종합이며 동시에 신약 시대에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의 범위가 확대될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 등이 기록되었다.
- (2) 즉 본장에 나타난 의인에 대한 위로와 악인에 대한 심판은 이미 여러 번 반복된 것이다(참조, 40-65장).
- (3) 이 같은 반복된 예언을 통하여 신약 시대에 성전은 폐하고 교회가 생긴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악인에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
- (4) 또한 최후의 심판 이후의 의인들에 대한 묘사(제 21:3; 22:3, 4), 악인들의 상태(제 20:10, 14, 15),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제 21, 22장) 등에 관한 이사야의 예언과 요한계시록의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신 심판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본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함께 끝까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배울 수 있다.

2. **㉠ 유대인들의 위선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1-4절)**

- ㉠** (1) 먼저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신앙도 없으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고 했다(1절).
- (2) 또 그들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으로만 제물을 드렸다(3절).
- (3)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우상에게 제사하듯이 자신들의 마음에 드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가증함이 있었다.
- (4)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여호와와 말씀을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되며 오직 중심으로 부터 나오는 진실된 모습의 신앙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고후 1:12; 엡 4:25).

3. **㉠ 여호와께서 안식하시는 처소는 어디인가? (1절)**

- ㉠** (1)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 되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참조, 시 139:7-12).
- (2) 여기에서 보좌(히, 키세)는 행 12:21처럼 '왕의 자리'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심판석'으로 사용되었으며(참조, 제 4:2, 10; 5:7) 신적 권위와 능력의 상징으로서 여호와와 그분이 보내신 메시아와 연관되어 쓰여지기도 했다(마 25:31; 제 7:17).
- (3) 또 발등상은 고귀한 사람들이 자리에 앉을 때에 발을 올려 놓거나 받치기 위한 낮은 발판을 가리키며 이는 성경에서 땅(마 5:35; 행 7:49), 언약궤(대상 28:2), 원수들(시 110:1; 마 22:44) 등을 지칭하였다.
- (4) 그러나 주께서는 특히 택하신 백성에게 거하신다고 말씀하셨다(속 2:10, 11; 고후 6:16).
- (5) 그러므로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스러운 전이기(고전 3:16)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 말씀대로 수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딤후 1:14; 요일 2:6).

4. **㉠ 주께서 권고(眷顧)하시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권고하신다.

- (2) 여기에서 권고하신다는 말은 권한다는 뜻이 아니고 돌보아 주신다는 의미이다.
- (3) 즉 주께서는 그 마음에 허탄한 욕심이 없이 당신만 섬기기를 원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해 하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신다(57:15; 잠 3:34; 약 4:10).
- (4) 또한 본절은 앞절의 질문과 연결되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떤 한정된 장소나 인간의 위선과 외식으로 치장된 건축물이 아니고 통회하는 심령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다(비교, 미 6:6,7; 마 21:13).
- (5)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의 명예나 외식적인 선행, 봉사로 인해 생기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서는 안 되며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해야 한다(시 25:5; 27:11).

#### 5. ㉠ 유대인들의 위선적인 제사를 설명하라(3절).

- ㉠ (1) 그들은 제사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드려 하나님으로부터 소를 잡아 드려도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려도 개의 목을 쥐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그들의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이 부정하며 또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는 책망을 들었다.
- (2) 즉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가증한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으며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돼지의 피와 같이 부정하며(참조, 65:4; 레 11:4)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다.
- (3) 더우기 그들은 이러한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가 포로 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한 후에도 하나님께 제사드릴 때에 눈멀고 다리 저는 병든 짐승을 희생물로 바치는 불경건한 신앙 생활을 하였다(말 1:8, 13).
- (4) 이와 같은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열납되지 못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까지 한다(잠 15:8).
- (5)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치장과 자랑보다는 두 렵돈을 바친 과부처럼(막 12:42) 먼저 진실되고 겸손한 내면적인 신앙을 갖추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시 15:2).

#### 6. ㉠ 여호와와 경고는 어떠한 것이었는가? (4절)

- ㉠ (1) 여호와께서는 악한 행위를 한 유대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주고 무서워하는 것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
- (2) 여기서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길을 택하여(3절) 가증한 것을 기뻐함같이 여호와께서도 이젠 무조건 감싸주시지만 않고 그들이 계속 죄를 지어 징벌이 그 머리 위에 쌓이도록 놓아 두신다는 의미이다(참조, 욕 21:19; 롬 2:5; 12:20).
- (3)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죄의 유혹을 받아 진리대로 행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게 그냥 놓아 두어 심판을 받게 방관하시겠다는 것이다(살후 2:11, 12).
- (4) 이 같은 무서운 선언은 그들이 선지자들을 통한 여호와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악을 행한 데 대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 (5)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비록 범죄할지라도(요일 1:8-10) 이러한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가 취소되거나 상실되는 일 없이 확실하고 안전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요 10:28-30; 롬 8:28-39; 엡 4:30).

#### 7. ㉠ 악한 자들이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조롱한 말은 어떠한가? (5절)

- ㉠ (1)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경외하는 자들을 미워하여 쫓아내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것을 보자고 조롱하였다.
- (2) 이 같은 유대인들의 조롱은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곤 했다(참조, 대하 36:16, 17).
- (3) 그러나 주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롱한 자들에게 보응하시어 수치할 당

하게 하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더라도 소망을 갖고(시 31:7) 극복하여(롬 8:35-37) 원수들에게 보용하사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한다(애 3:31-39; 롬 5:3).

8. **㉠ 시온의 순산(順産)에 대하여 설명하라(7-9절).**

- ㉠** (1)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하여금 임신케 하시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그 자민(子民)을 순산하게 하신다.  
 (2)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귀환하여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2:9; 43:19).  
 (3) 또한 이 예언은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어(행 19:20) 많은 사람들이 짧은 기간 내에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귀환 등의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과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다.

9. **㉠ 시온이 남자를 낳았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7절)**

- ㉠** (1) 이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담대하고 강한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뜻이다.  
 (2) 즉 본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의 성(性)을 ‘남자’로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약하고 흔들리기 잘했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그 신앙이 강하고 굳세리라는 뜻이다(참조, 고전 16:13).  
 (3)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도들로 강건하게 하셨다(롬 8:15; 엡 3:16).  
 (4)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대로 말과 행동을 바르게 지키면서(엡 6:10-18)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약 4:7, 8).

10. **㉠ 교회의 확장에 대한 묘사를 설명하라(8, 9절).**

- ㉠** (1) 여호와께서 교회를 확장시키는 역사(役事)는 너무도 순식간이어서 일찌기 이러한 일들은 자도 없으며 본 자도 없다고 표현되었다.  
 (2) 또한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사건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참조, 스 1장).  
 (3)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것으로서 당신께서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변의 어려운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간절하게 매달려야 한다(시 99:6; 138:3).

11. **㉠ 시온으로 하여금 해산케 하신 분은 누구인가?(9절)**

- ㉠** (1) 시온에게 임신케 하시고 남자를 낳게 하신 분은 여호와시다.  
 (2) 즉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어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신약 시대에 복음이 널리 퍼지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신다는 의미이다.  
 (3)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과 사건을 주관하시며(골 1:16) 통치하신다(시 103:19).  
 (4) 따라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역사는 우연이나 운명으로 되는 것이 없으며(마 10:29) 개인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삼상 2:6-8).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처한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감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고 또 어려운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를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벧전 1:3-7).

## 12. ㉠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쁨을 설명하라(10-14절).

- ㉠ (1) 그들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먹고 그 품에서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처럼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 (2) 그들의 이 같은 기쁨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어려움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킨 상급으로써 받는 위로이다.
- (3) 이 같은 본질의 예언은 곧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누리게 될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다(제 21:3, 4).
- (4) 그러므로 신자들은 현세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따돌림을 원망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런 고난 뒤에 올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롬 8:16, 17) 인내해야 한다(롬 5:3, 4).

## 13. ㉠ 여호와께서 주시는 만족과 풍성함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11절)

- ㉠ (1) 본절에서는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서 많은 젖을 먹고 위로와 만족을 얻는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표현하셨다.
- (2) 이 같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는 표현으로 묘사했다(시 23:5).
- (3)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인자하심(느 9:17), 긍휼(렘 2:4), 진실과(시 86:15), 오래 참으심을(롬 2:4) 풍성하게 베푸시어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신 분이시다(말 3:10; 골 1:9).
- (4) 즉 여호와께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미리 아시고 필요한 대로 공급하시어(마 7:31-33) 만족한 기쁨을 허락하신다.
- (5) 반면에 세상의 물질과 재물로는 아무리 그 양이 많아도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다(전 1:8; 4:8; 5:10).
- (6) 따라서 만족과 풍성함이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인 판단으로써만 측정할 수 있는 질적인 것이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고후 12:9)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빌 4:11; 딤후전 6:6).

## 14. ㉠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는가? (12절)

- ㉠ (1)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여호와와 백성은 신약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헬, 에클레시아)를 가리키며 그렇기 때문에 '그'라는 단수로 표현되었다.
- (3) 따라서 본절은 여호와께서 신약 시대에 교회를 통하여 평강을 주시며 영광을 풍성하게 베푸신다는 예언인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미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롬 6:5) 존재로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평안과 영광의 대상이 된다(비교, 렘 50:5).

## 15. ㉠ 여호와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이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를 얻는 사실을 가리킨다.
- (2) 여기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시 46:4), 신실한 고을(1:21, 26), 진리의 성읍(스 8:3) 등으로 쓰여 여호와께서 같이 하시는 성읍을 나타내었다.
- (3) 그러나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교회를 가리키며(비교, 요 2:19) 또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를 가리키기도 한다(갈 4:26-30).
- (4) 즉 하나님과 그 자녀는 교회 안에서 연합되고 성도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느 8:10).
- (5) 그러므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속적인 물질이나 명예로는 참다운 안식과 만족을

언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위로와 참다운 기쁨을 느낄 수 있게 된다(요4:14).

16. **㉠ 자신의 종에게 나타나시는 여호와와 그의 손이란 무엇인가? (14절)**

- ㉠** (1) 이는 하나님께서 도움을 구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푸사 구원을 이루어신다는 뜻이다.
- (2) 여호와와 그의 손길은 때로는 감추어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남들이 보기에는 버려진 백성처럼 보이기도 했다(참조, 렘52:9; 단1:6).
- (3) 그러나 본절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언젠가 때가 이르면(신9:18, 25) 더 이상 자신을 은폐하시거나 악인들의 득세함을 방관치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어 악인들을 징계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참조, 스8:23; 슥13:9).
- (4) 그러므로 신자들은 현재의 어려움에 굴복하여 신앙을 버리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며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시91:15) 여호와를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기고 더 큰 신앙을 이루어나야 한다(대상16:11; 렘29:13).

17. **㉠ 여호와와 그의 심판을 받게 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15 - 17절)**

- ㉠** (1) 그들은 돼지고기와 쥐를 먹어(레11:7, 29)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거룩한 존재로 여기는 위선의 죄까지 범했다.
- (2) 이러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불과 칼로 심판하시어 그들을 살육하신다고 선언하셨다.
- (3) 이 같은 상황에서의 예언은 곧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한 척 꾸미는 가식적인 종교인들과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65:3-5).
- (4) 그러나 악인들에 대한 이러한 보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정의의 심판이며 기도의 응답이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심판의 양면성을 잘 알아야 한다.

18. **㉠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 선포되는가? (18, 19절)**

- ㉠** (1) 이제까지는 유대인에게만 선포되었던 구원이 열방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룯과 두발과 야완 등 먼 곳에 이르기까지 선포되어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 (2) 여기에서 ‘다시스’는 길리기아를 지칭하는데 이 지역은 유대 반대편의 지중해 연안 전부를 포함하고 있었다.
- (3) 또 ‘뿔’은 창10:16에 나오는 ‘붓’의 잘못된 표기로 여겨지며 이 이름은 ‘룯’과 관련되어 세 번 나타났으며(렘46:9; 젤27:10; 30:5) 아프리카 민족을 가리킨다.
- (4) 그리고 ‘두발’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을 가리키며, ‘야완’은 이오니아인(the Ionians)으로서 그리이스에 살았는데 이들은 서로 어울렸던 것으로 보인다.
- (5) 그러므로 본절의 표현은 신약 시대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되리라는 의미이다.

19. **㉠ 여호와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겠다고 하신 대상은 누구인가? (20, 21절)**

- ㉠** (1) 그들은 앞 절에 나타난 열방의 이방인들이다.
- (2) 즉 하나님께서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의 ‘제사장과 레위인’ 곧 복음 사역을 담당할 일군을 선택하시겠다는 것이다.
- (3)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있는 후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을 얻은 자들은 누구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다(벧전2:5, 9; 계1:6).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20. **㉠ 매월삭(月朔)과 매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경배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 (1) 여호와를 믿는 자들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여 정한 날에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이다.  
 (2)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연례적인 절기를 지내야 했지만 전국 도처에서는 매월삭과 안식일을 지켰다. 처음에는 선지 학교에서 지켰고 나중에는 회당에서 지켰다(왕하 4:23; 암 8:5; 행 15:21).  
 (3) 신약 시대에는 이 예배의 절기가 주일이 되었으며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  
 (4) 하지만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의식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심령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을 모시는가 하는 문제이다(참조, 계 3:20).  
 (5) 즉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항상 우리의 언행(言行)이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고 신실하여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어야 한다.

21. Ⓢ 여호와와 진노를 받은 패역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24 절)

- Ⓐ (1) 그들의 시체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있게 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될 것이다.  
 (2) 여기에서 꺼지지 않는 불이란 마지막 심판 후에 악인들이 있게 될 불못을 가리킨다(계 20:15; 21:8).  
 (3) 또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된다는 말은 여호와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멸망당하는 자들의 모습은 실로 비참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느껴진다는 뜻이다.  
 (4) 따라서 본질의 모습은 최후의 심판 후에 악인들이 처하게 될 모습을 설명해 주는 좋은 본보기가 된다.  
 (5) 더우기 이런 장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각성제로서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참조, 막 9:47-49).

## 연구자료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옆 그림은 이탈리아의 시인 페트라르카(Petrarch)의 서사시 「개선」에 수록된 삽화로서 15세기의 작품이다. 현재 파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당신의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고 계신다(1절). 여기서 보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키세>인데 ‘옥좌’ (玉座)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판을 행하는 ‘재판석’을 뜻하기도 한다.

##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 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늘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 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8 이사야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